韓國의 軍服飾發達史 Ⅱ

現代篇

國防軍史研究所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發 刊 辭

군복은 군인을 다른 집단과 구별해 주며 군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군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하는 상징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넓은 뜻에서의 군복은 이미 선사시대에도 있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면서 군집단 자체 내에서는 식별을 가능하게 해준 군복착용의 참뜻을 표출하게 되는 시기는 전투행위가 계급에 의해 지휘되고 병종(兵種)별로 구분되어 수행되었던 시대 이후부터이다.

그후, 군복은 양(洋)의 동서를 막론하고 각 지역이 제후(諸侯)로 나누어져서 패권을 다투는 시기에 큰 발전을 보게 되어, 각 제후국(諸侯國)들은 경쟁적으로 화려하고 다채로운 군복을 만들어 착용시켰으며, 이때 군복은 문장(紋章)과 색상 면에서 과장이 지나칠 정도로까지 다양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화약무기의 발달은 군복의 화려한 색상을 보호색으로 변화하게 만들었으며, 이로부터 각국은 군복을 예장(禮裝)·정장(正裝)·전투장(戰鬪裝)·근무복의 네 가지 종류로 크게 구분하고, 예장과 정장을 제외하고는 화려함보다는 전투지역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보호색을 지닌 군복으로 개조시켜 나갔다. 예를 들면, 영국군이 보어전쟁(Boer War : 1899~1902)시 착용한 카키색 군복은 이후 대표적인 전투장 색상으로 각국에서 채택하게 된 것이다.

우리 나라의 군복은 1895년 칙령 제78호에 의해 서구의 근대식 군대복장으로 전환이 시도되었으나 시행된 지 불과 12년 만인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되면서 더 이상의 발전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후, 광복 후의 군복은 당시의 시대적 여건에 따라 미군복식을 모방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6·25전쟁 진행중에는 군복 조달체제와 국내경제의 형편상 도리없이 미군복식을 거의 그대로 따르게 되었다. 휴전 후, 군은 군복에 대한 부단한 개선 노력의 결과, 1962년의 〈각령(閣令) 제700호〉와 1967년의 〈대통령령 제5538호〉에 의해 군인복제령이 제정되었고, 이로부터 서서히 독자적인 군복체제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오늘날까지 십여 차례에 걸친 군인복제 개정령을 공포하면서 군복에 대한 개선을 연속적으로 시도하는 이유는 군복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전쟁수행의 발달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양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현대식 군대의 군복은 종전과

같은 단순함에서 벗어나, 착용과 보수의 편리성·무기 장비에 걸맞는 적합성·양호한 방호성능·강한 내구성 등의 전술적 요구조건, 보온성·환기성·흡수성을 갖춘 위생적 요구조건, 전문성에 부합되는 복식구조와 색상·계절에 대한 적합성·변형과 퇴색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미관상(美觀上) 요구조건,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야 하는 제작상의 요구조건 등을 만족시켜야 하며, 용도면에서는 내연성능·방수성능·방진(防塵)성능·위장성능 등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본서는 당연구소의 군복식사 정리사업의 두 번째 발간물로서, 『한국의 군복식발달사』 I (고대~독립운동기)의 후속편이다. 서술의 시간 범위는 국군창설 이후 1995년도까지이며, 3개 편으로 구성되었다. 제1편에서는 육군 복식의 변천과 발달을, 제2편에서는 해군·해병대 복식을, 제3편에서는 공군 복식의 변천과 발달을 다루었다. 육군 복식의 경우,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육군복제사』를 대부분 수용하였고, 해군 복식은 해군본부 복제과의 협조를 얻었다. 지면을 빌려 해군본부 복제담당관 장규태 사무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공군 복식의 경우, 공군박물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았다. 서술 중 전문성을 지닌 복식용어는 괄호를 이용하거나 각주를 달아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용어 선정에서 현재 사용하는 용어와 복식규정상의 용어가 상이한 경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준하였다.

군복은 군대의 기율강화와 군대질서 유지 및 군인의 체력과 건강까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멋이 있는 외관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면서 동시에 착용자 자신도 자긍심을 갖기 마련이기에 사기앙양면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삼아, 아무쪼록 본서를 통해 국군복식의 변천과 발달 내용을 숙지할 수 있고, 그로써 현대전에 보다 적합하면서 동시에 우리 나라 고유의 멋을 풍길 수 있는 군복식발달에 본서가 기여하기를 바란다.

1998년 12월

國防軍史硏究所 所長　朴　淳　贊

目　　次

▨ 發 刊 辭

第 1 篇　陸　　軍/1

第 1 章　創軍 前後의 軍服飾/6

第 1 節　創軍 以前의 軍服飾 9
1. 私設 軍事團體 9
2. 國防警備隊 時節의 軍服飾 11
가. 國防警備隊의 創設 11
나. 草創期의 軍服飾 15

第 2 節　創軍 以後의 軍服飾 20
1. 陸軍 創設과 6·25戰爭 時期의 軍需狀況 20
2. 1948年～1953年間의 軍服飾 24
가. 禮　　服 25
나. 正　　服 26
다. 勤 務 服 30
라. 作 業 服 33
마. 外　　套 36
바. 野戰用 防寒被服 40
사. 雨　　衣 43

第 2 章　現代 軍服飾/46

第 1 節　服　　裝 50

1. 一般服裝 50

가. 禮　　裝 50

나. 正　　裝 74

다. 勤 務 服 92

라. 戰 鬪 裝 101

마. 雨　　衣 116

2. 特殊服裝 118

가. 特戰要員 制服 119

나. 機甲服裝 123

다. 飛行服裝 126

라. 防衛兵服(1967년～1990년) 129

마. 看 護 服 131

바. 首警司 勤務服 133

사. 憲兵 勤務服 134

아. 行 事 服 136

자. 法　　服 155

차. 宗教祭服 156

카. 陸軍士官學校 士官生徒服 158

第 2 節　階　級　章 171

1. 將校 階級章 172

가. 正章・略章・軍帽章 172

나. 禮服 階級章 177

다. 토시型 階級章 182

2. 士兵 階級章 184

第 3 節 帽　　標 190
1. 將校 帽標 190
2. 士兵 帽標 192
3. 陸軍士官生徒 帽標 193

第 4 節 徽　　章 194
1. 兵科 徽章 195
2. 無窮花 襟章 201
3. 陸軍 徽章 201
4. 指揮官 徽章 202
5. 參謀 徽章 205
6. 兵科長 徽章 207
7. 敎官 徽章 208
가. 陸大敎官 徽章 208
나. 陸士敎授 徽章 209
다. 기타 學校機關 敎官徽章 210
8. 勤續 30年 記念徽章 210
9. 主任元士 徽章 211
10. 先鋒中隊長 徽章 212
11. 特殊戰 徽章 213
12. 憲兵 徽章 214
13. 儀仗隊 徽章 216
14. 軍(國)樂隊 徽章 217
15. 英顯行事要員 徽章 218
16. 禮砲隊 徽章 219
17. 遊擊 徽章 219
18. 航空操縱士 및 航空整備士 徽章 220
19. 落下傘 및 落下傘整備 徽章 221
20. 技能士 徽章 223
21. 模範運轉兵 徽章 224

22. 體力 徽章 224
23. 射擊 徽章 225
24. 戰車兵 射擊徽章 226

第5節 標　　識 227
1. 士兵 精勤章 227
2. 指揮官 標識 228
3. 警備隊 및 大韓 標識 230
4. 名　　札 231
가. 將校 名札 231
나. 士兵 名札 233
5. 防衛兵 標識 236
6. 部隊 標識 236
7. 海外派遣者 標識 238
8. 特殊戰 標識 238
9. 搜索隊 標識 239
10. 特攻隊 標識 240
11. 前哨大隊 標識 240
12. 陸軍 射擊指導團 標識 240
13. 토우(TOW) 射擊要員 標識 241
14. 勤務者 標識(腕章) 242
15. 陸軍士官學校 士官生徒 標識 244
가. 生徒徽章 및 學年章 244
나. 優等生 徽章 245
다. 勤務生徒 職位章 245
라. 肩章(學年章) 246

第6節 服 飾 品 249
1. 단　추 249
2. 腰帶 및 버클 250

3. 구경 38 拳銃腰帶 및 집 252
4. 가죽 腰帶(將官級 將校) 253
5. 肩飾 줄 253
가. 參謀 肩飾 253
나. 一般 肩飾 255
다. 略禮裝 肩飾 255
6. 禮式用 255
7. 禮式刀 256
8. 指揮棒 258

第 2 篇 海 軍·海兵隊/261

第 1 章 創軍 前後의 服制/266

第 1 節 創軍 以前의 服制 266
1. 古代의 水軍活動과 組織 266
2. 舊韓末의 海軍 創設 및 關聯 服制 268
가. 背 景 268
나. 최초의 海軍 艦艇 導入과 關聯 服制 269
다. 海軍 服制의 構造 270
3. 美 軍政期 270
가. 海防兵團 創設 270
나. 階級 부여 후의 服裝 271
다. 朝鮮 海岸警備隊 發足 272

第 2 節 創軍 以後의 服制 273
1. 政府樹立과 海軍創設期 273

가. 海軍 創設 273
나. 海兵隊 創設 275
2. 6·25戰爭期 276

第 2 章 近現代 服裝/277

第 1 節 基本 服制 277
1. 軍 帽 277
가. 禮 帽 277
나. 正 帽 281
다. 戰 鬪 帽 284
2. 制 服 285
가. 禮 服 285
나. 正 服 292
다. 戰 鬪 服 307
라. 晩 餐 服 314
마. 外 套 320
바. 雨 衣 326
사. 補 助 衣 330
3. 軍 靴 333
가. 短 靴 333
나. 戰 鬪 靴 334
4. 階 級 章 336
가. 將校 階級章 336
나. 士兵 階級章 348
5. 服 飾 標(品) 358
가. 단 추 359
나. 腰 帶 361

다. 禮 式 刀 362

第 2 節 特殊 服制 365
1. 軍 帽 365
가. 高速艇 特殊帽 365
나. 航空帽(조종모) 366
다. 行 事 帽 366
라. 僞 裝 帽 367
마. 偵察帽 및 베레帽 367
바. 防 寒 帽 368
사. 看 護 帽 369
아. 手 術 帽 369
자. 炊 事 帽 370
차. 헬 멧 371
2. 制 服 372
가. 勤 務 服 372
나. 점 퍼 381
다. 儀仗隊 服裝 383
라. 憲兵 行事用 服裝 387
마. 軍樂隊 服裝 388
바. 高速艇 服裝 392
사. 潛水艦服 및 深海 潛水士服 393
아. 飛行服·整備服·操縱士 점퍼 394
자. 特 戰 服 396
차. 機 甲 服 399
카. 病 院 服 400
타. 軍 宗 服 404
3. 軍 靴 407
가. 高速艇 短靴 407
나. 操縱士 短靴(飛行靴) 408

4. 標 識 章 408
가. 特殊 階級章 408
나. 帽　　標 420
다. 標　　識 422
라. 兵科標識 423
마. 徽　　章 427

第3篇 空 軍/453

第1章 創軍 前後의 軍服飾/457

第1節 創軍 以前의 空軍 狀況 457

第2節 空軍과 6·25戰爭 461
1. 空軍 創設과 6·25戰爭 461
가. 空軍 創設 461
나. 6·25戰爭과 空軍 463
2. 1948年~1953年間의 空軍 服飾 464
가. 將校 正服 464
나. 將校 略正服 464
다. 操 縱 服 467
라. 戰 鬪 服 467
마. 外　　套 467
바. 士官生徒 正服 469
사. 帽　　標 469
아. 階 級 章 470

第 2 章　現代 軍服飾/472

第 1 節　服　　裝 472

1. 一般服裝 472

가. 禮　　裝 472

나. 正　　裝 482

다. 勤 務 服 488

라. 戰 鬪 裝 489

마. 케 이 프 494

바. 장교 점퍼 495

사. 外　　套 496

아. 一般雨衣 498

2. 特殊服裝 500

가. 操縱士 勤務服裝 500

나. 整備士 勤務服裝 501

다. 落下傘 投下服 501

라. 戰術航空統制班 要員服裝 503

마. 救助士 服裝 503

바. 行 事 服 505

사. 宗敎制服 511

아. 女子 乘務員服 512

자. 防 寒 服 514

차. 野戰上衣 518

카. 法　　服 519

타. 空軍士官生徒 制服 520

第 2 節　階　級　章 526

1. 將校 階級章 526

가. 正裝・略裝・軍帽裝 526

나. 禮裝用 肩裝 527
다. 토시型 肩章 529
2. 士兵 階級章 531
3. 士官生徒 階級章 533
가. 生徒學年 표시 533
나. 勤務生徒 階級章 533

第3節 帽 標 534
1. 將校 帽標 534
2. 士兵 帽標 534
3. 士官生徒 帽標 534

第4節 徽 章 535
1. 空軍 胸章 535
2. 兵科 徽章 539
3. 指揮官·參謀 徽章 543
가. 指揮官徽章 544
나. 參謀徽章 545
4. 空軍將校 徽章 546
5. 근속 30년 紀念徽章 546
6. 기타 徽章 547
가. 敎官徽章 547
나. 主任上(元)士 標識 548

第5節 標 識 548
1. 名 札 548
가. 正服·戰鬪服類 548
나. 飛行服類 549
2. 標 示 帶 551
3. 整備監督官 標示 551

가. 1次 確認 監督官 551
나. 2次 確認 監督官 552
4. 空軍士官生徒 標識 552
가. 空士마크 552
나. 生徒徽章 552
5. 學生·候補生 徽章 553
6. 優秀射擊手 標識 554

第6節 服 飾 品 554
1. 단 추 554
2. 넥타이·머플러·목도리 555
가. 넥 타 이 555
나. 머 플 러 555
다. 목 도 리 556
3. 腰帶 및 버클 556
4. 拳銃腰帶 및 拳銃집 557
5. 肩 飾 줄 558
6. 빨간 머플러 558
7. 禮 式 刀 560

第 1 篇

陸 軍



陸　　軍

제1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유럽국가들은 영토면에서 많은 변천을 가져왔음은 물론 신생국가들도 탄생하게 되었다. 기존 국가들은 물론이고 신생 독립국가들은 저마다 군비(軍備)체계를 갖추면서 군대를 건설하여 그들의 독립을 확신시키려 들었다. 신생국가들은 특히 과거 그들이 종속당하였던 대국가(大國家)의 정치·문화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그들 나름대로의 민족주의에 입각한 전통을 수립하기 위하여 '새'군대를 조직해 나갔으며, 이 '새'군대는 새로운 군복식이 도입된 군대였다.

새로운 유니폼의 제작 추세는 자연스럽게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勝戰國)의 위치에 선 국가군대들을 본받으려는 경향이었고, 여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국가는 프랑스였으며, 프랑스군대의 군복식은 각국의 모델이 되었다. 벨기에·이탈리아·폴란드·루마니아·소련·유고슬라비아 등의 군대는 모두 프랑스식의 철모를 착용하였다.

영국은 셔츠와 넥타이 군복을 대부분 착용하였는데, 벨기에·그리스·루마니아 장교들은 이 스타일의 군복을 너무나 비슷하게 모방하여 착용하는 바람에 심지어는 구별이 어려울 정도였다. 영국군의 철모는 그리스·노르웨이·포르투갈 그리고 미국군에서 착용하였다. 적군(Red Army) 역시 과거 러시아제국시대의 전통을 무시하고, 1920년대에 프랑스식으로의 전환을 결정하였으며, 그 후 조금씩 전통적인 군복식으로 되돌아갔다.

과거 러시아의 영토권내에 속하였다가 독립한 국가들은 그 어떤 국가도 러시아식의 군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폴란드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군복을 착용한 후 여러 가지의 전통의상을 가미함으로써 마치 나폴레옹시대의 화려한 복장시대의 전쟁을 방불케 하였다. 과거 오스트로-헝가리제국(Austro-Hungarian Empire)의 일부였던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장교들은 영국 스타일의 모자를 쓰고 카키복을 착용하였으며, 장교 외의 계급들은 독일식의 군복을 착용하였다. 헝가리의 경우는 오스트리아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이 등장한 군복식은 다음과 같이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게 되었다.

- 앵글로-색슨 국가들은 그들의 식민지와 통치지에서 '식민'용 군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이는 비(非)전통적 전쟁인 식민 통치용 전쟁을 치르기 위한 각지의 기후에 적응된 복장이다.
- 유럽의 군복식은 전통성이 강하면서 프랑스식을 많이 본뜨고 일부분에서 영국식을 모방하였다.
- 러시아는 자신들의 군복을 갖추기 위하여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
- 동아시아의 중국과 일본은 유럽식 군복을 따르면서 그들 국가의 산업능력과 기후조건을 고려한 복장을 갖추어 나갔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군소국가들의 소수 군대들은 사라져 갔고, 이로써 군복식은 영국·독일·소련·일본형으로 귀착되었다. 이어 미국이 전쟁터로 돌입하면서 추방된 자유 프랑스군에게 대량의 미군복식과 장비를 제공하게 되면서, 미국식의 복장이 유럽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독일의 위성국가들이 있는 동구권에서는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비교적 불량한 상태의 군비물자가 장시간의 전쟁에 따른 고갈로 인해 갈수록 독일의 물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로써 헝가리·루마니아·슬로바키아군대들은 더욱더 독일의 영향이 나타났고 이는 짜르국가인 불가리아에서까지 나타난 현상이었다.

러시아는 군복식과 장비면에서 새로운 현대적 추세와는 완전히 담을 쌓았다. 물론 그 이유는 러시아의 제한된 산업능력에도 기인하지만, 그 이유 외로 그들은 경험에 의해 그들의 전통적인 러시아 농부 스타일의 군복식이 경비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가장 실용적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특히 기후와 여러 다른 조건에서 싸우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밖에 소련 역시 추방된 폴란드·체코·유고슬라비아 등의 군대에게 소련 군복을 제공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 시작될 무렵에 독일이 군복식 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또한 수많은 특수복을 개발하여 다른 국가의 모델이 된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쟁선포에 이어 일단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하면서 새로운 군복에 대한 독일의 영향은 미미할 정도로 변하였다. 유니폼이 갖춘 기본적인 개념 중의 하나는 야전에서 실용도가 높고 사기를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멋진 것이어야 했다. 다시 말해 정장(正裝)으로서 그리고 업무수행에서도 똑같이 효율적이어야 했다. 이러한 현상은 기계화의 시대가 도래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기계화의 시대란 기계용 작

업복의 등장시대가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전투용 군복과 근무용 군복으로 뚜렷이 구분되던 시대는 지나간 것이다. 작업복은 전차와 같은 기름이 있는 기계 덩어리를 만져야 하는 병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장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던 모든 군대들은 상하가 붙은 작업복이나 상하로 구분된 작업복을 전차 승무원에게 지급하였다. 독일은 1935년에 검은 색의 전차 승무원복을 고안하여 착용시켰고, 이 복장은 전쟁 수행 중 경제상의 문제 때문에도 계속 제작 보급하였다.

세계의 군복 변천사에서 영국군이 이룩한 큰 업적 중의 하나는 색깔있는 카키(colour khaki)를 발전시켜 1937년에 처음으로 소개한 전투복이다. 일부 사람들은 이 전투복에 대해 별로 좋지 않다고도 말하며 실제로 이 전투복이 멋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좋게 보여 1944년에 제작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독일도 같은 해에 제조과정이 간단하고 단가가 적다는 이유로 모방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많은 국가들은 비록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더 이상 선호하지 않았으나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

미국은 1941년에 야전용 재킷을 소개하면서 근무용 군복과 야전용 군복을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43년에는 광범위한 시도 후에 가벼운 무게의 바람막이용 전투복을 고안하여 가히 군복 변천의 혁명을 일으켰다. 이 군복에 몇 가지의 속옷을 이용한 레이어(layer)[1]를 겹쳐 착용함으로써 여러 가지의 기후조건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이 레이어를 이용하는 개념은 전세계에 퍼져 사용되고 있다.

---

1) layer는 層을 이룬다는 의미로, 의복을 몇 벌이나 겹쳐 입는다는 뜻이다. 이하 복식용어의 풀이에서 吉圭和의 編著인 『服飾辭典』 (1995, 耕春社)을 많이 참조하였다.

第1章 創軍 前後의 軍服飾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있게 되었고, 38도선을 경계로 남·북한에 진주한 미·소 양군의 점령정책은 처음부터 대조적이었다. 미군의 남한 진주(進駐)에 즈음하여 미 정책당국은 한국민의 뿌리깊은 배일(排日)감정과 독립을 향한 열망을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정(軍政)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지침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미 군정(軍政) 당국은 한국 국민에 대한 최초의 포고문에서 제법령이 현존의 각 관청을 통하여 하달될 것임을 주지시키는 동시에 일본인과 미군에 대한 반란행위를 삼가도록 경고하는 한편, '일본의 문무관(文武官)은 연합사령관에 의해 해임되지 않는 한 현재의 직책에 유임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함으로써 일제(日帝) 총독정치(總督政治)의 연장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어이없는 조치가 취해지면서, 외국군의 국토 분점(分占)과 내외정세의 갈등으로 광복의 환희는 덧없이 냉각되고 독립에 대한 기대가 멀어져 감에 따라 우리 민족의 미 군정에 대한 열망도 식어갔으며, 국내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와중으로 빠져 들게 되었다.

미 군정 당국은 중경(重慶)의 임시정부까지도 한국의 주권행사기관(主權行使機關)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여 좌익세력에게까지도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허용했기 때문에 남한의 정치세력은 제멋대로 분열되어 수많은 계보가 출현하였으며, 정당·단체의 난립이 날로 심하여 1945년 11월경에는 그 수효가 205개에 달하였다. 1945년 11월 하순, 김구(金九)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은 단체입국(團體入國)의 자격을 잃은 채, 각각 '개인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들 지도자들이 한국의 즉각적인 독립을 주장하였으나, 민족의 해방 활동에 있어 국제적인 공인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제2차 세계대전의 승패에 관련된 뚜렷한 외교 및 군사면에서의 활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공허하게 메아리로만 울리게 되었다. 광복군 역시 임시정부 요인들의 개인자격 귀국 실정을 감안하여 조직체가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귀국한다는 태도를 밝히지 않을 수 없었으며, 1946년 5월 16일, 이청천(李靑天) 총사령은 복원선언서(復員宣言書)를 발표하였다.

한국 광복군 복원선언서

본군은 30여 년간 항전복국(抗戰復國)의 정신을 견지하고 한국 내외의 무력혁명운동의 대통(大統)을 계승하여 왔다. 1907년부터 국내에서 일어난 의거는 동북 만주 경내로 전전하였고, 이역에서 일어난 왜구와의 고군분투는 실로 막중한 희생을 입기도 했다. 그러나 비록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정의와 진리를 쟁취하려는 크고 밝은 역연한 신념에는 추호의 변함이 없었다.

1940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중국 조야로부터 깊고 두터운 동정과 도의적인 원조에 힘입어 본군이 정식으로 성립을 선언했고, 새로운 국군으로서 감연히 출발한 지 역금(歷今) 7재(載), 일찍이 중국 제1·2·3·5·10 각 전구(戰區) 및 면전(緬甸 : 미얀마)·인도의 연합군과 합작하여 대일전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과거 30여 년에 걸쳐 적과의 대소 전역(戰役)은 무려 640여 회에 이르며, 적에게 목숨을 잃은 동지 또한 만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제 적구(敵寇)는 항복했으며, 연합군은 승리를 얻어 우리 한국의 종토(宗土)도 다시 광복을 보게 됨으로써 본군의 중국 경내에서의 작전임무도 이미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스스로 복원을 선포하고 전원이 환국하여 조국건설 대업에 참여함이 마땅한 것으로서, 이는 우리들이 중국 땅에서 유랑하면서도 쉬지 않고 분투하며 기다렸고 그날을 맞은 것이라 하겠다.

우리 한국은 1910년 이래 포악한 일제의 침략을 받아 유린되었고, 민생백업(民生百業)은 도탄에 빠져 날로 더하여 수심화열(水深火熱)의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었다.

목하 국내정국은 아직 혼미 속에 있어서 본군의 복원 귀국을 기다리고 있다. 모름지기 우리 동지는 다 같이 본래의 일관된 주장을 굳게 하여 안으로는 민주 단결의 실현을 촉구하고 밖으로는 독립 평화의 확립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분투하여 우리 한민족으로 하여금 영원히 식민지 봉건성의 질곡과 기반에서 벗어나 행복과 자유와 존엄을 획득함으로써 결코 다시는 오늘과 같은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굳게 다짐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동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진력할 것은 물론, 한·중 양국의 우의 증진 및 한국과 미·영·소간의 우호관계의 촉진을 기원하며 그 기초를 공고히 하고자 함이, 본군이 오늘 실시하는 복원귀국의 유일한 목표이며 신념인 것이다.

지금 환국에 즈음하여 삼가 충정을 밝히오니 제위의 양찰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대한민국 28년(1948) 5월 16일

한국광복군 총사령 이청천

결국 광복군의 맥(脈)은 창군(創軍)의 주역(主役)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점유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고, 이로써 우리 군복식은 두 차례에 걸쳐 사실상 그 명맥이 끊긴 셈이다. 즉, 그 첫 번째가 일제(日帝)에 의해 우리 군대가 강제 해산당하던 1907년 8월 1일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이 광복군 복원선언서가 발표된 날인 것이다. 그후, 사설 군사단체의 난립시기와 경비대 시대를 거쳐 국군이 창설되는 과정에서 보인 군복식의 변천과정은 한마디로 빈곤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된 초기에는 우리 손으로 군복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 군복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실정이어서 대다수 장병들은 패전 일본군의 군복을 원형 그대로 착용하거나 약간 개조하여 착용하는 형편이었다. 그후, 1946년 후반기부터는 미 군복의 공급이 비교적 원활해지고 군복의 대부분을 미 군원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외관상으로는 미군과 흡사한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이어 얼마 있지 않아 발생된 1950년의 6·25전쟁기간 중에는 전투복만을 착용하게 됨에 따라 군복식사적(軍服飾史的)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정체기를 형성하였다.

1953년 7월, 전쟁이 끝난 후에는 지금까지의 무질서하였던 군복식제도를 정리하면서, 안정되고 체계적인 군복식제도로의 확립을 위해 육군잠정규정이나 육군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 복식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196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비록 미 군복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군복에 대한 관심이 군의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으로 비약되어, 1962년에는 군인복제를 각령(閣令)으로 정하였는가 하면, 1976년부터는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규정함으로써 명실공히 자주독립국가의 군대로서의 복제가 정립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국가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군의 복식제도 면에서 보다 한국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국제적인 우위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제복으로 개선하는데 주안을 두고 우선 미군냄새가 풍기는 제복들을 배제하고, 정복을 위시하여 특수요원 제복과 각종 행사요원의 제복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함으로써 우리 손으로 우리 고유의 특수성을 지닌 제복으로서의 토착화(土着化)를 기하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해 나갔다. 이상과 같은 변천과정을 겪은 군복식사는 대략 다음과 같이 시대적 구분을 할 수 있다.

- 초창기(1946~1953. 7)
  - 일본군복 착용시기(1946~1946. 3)

- 미군복 착용시기(1946. 4~1950. 5)
- 전쟁시기(1950. 6~1953. 7)

• 과도기(1954~1962)

• 정립기(1962~1970)
- 각령에 의한 복제 착용시기(1962~1967)
- 대통령령에 의한 복제 적용시기(1967~1970)

• 토착기(1971~현재)
- 토착화 1기(1971~1979)
- 토착화 2기(1980~현재)

第 1 節 創軍 以前의 軍服飾

1. 私設 軍事團體

8·15 광복일은 빼앗긴 독립을 되찾은 날이면서, 온 민족이 지난날의 쓰라린 경험을 되새겨 무엇보다도 자주적인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자는 절실하고도 절대적인 요망이 요구된 날이었다. 감격어린 광복의 환희 속에서 애국지사들은 한결같이 장차 수립될 이 나라의 국권(國權)을 수호하고 국토를 방위할 국방력의 육성 강화책을 서두르고 그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광복과 더불어 건군(建軍)에 뜻을 둔 인사들은 새로운 독립국가의 군대 건설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로서, 저마다의 군사경력과 연고(緣故)관계를 중심으로 군사단체를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경력은 주로 광복군(光復軍)·독립군(獨立軍)·중국군(中國軍)·일본육사(日本陸士)·학병(學兵)·조선특별지원병(朝鮮特別志願兵)·징병(徵兵)·만주군(滿洲軍) 등의 출신 장·사병들로 대별되었다.

이들이 군사단체를 조직하게 된 기본적 동기는 광복 직후의 정치적 혼란과 행정의 공백을 수습하고, 미 점령군이 진주(進駐)할 때까지 잠정적으로나마 일제(日帝)의 통치기능을 접수하여 사회질서와 치안을 유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건국(建國)과 건군(建軍)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민족의 정치적 구심점을

제시할 만한 뚜렷한 주도세력이 없었으므로 우후죽순격으로 난립을 면하지 못하였다.

1945년 11월, 군정청(軍政廳)에 등록된 군사단체의 수효만 하더라도 30여 개에 달하였다. 이중에서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낸 단체로는 육해공군동지회(陸海空軍同志會)·광복군국내지대(光復軍國內支隊)·조선임시군사위원회(朝鮮臨時軍事委員會)·학병동맹(學兵同盟)·학병단(學兵團)·국군준비대(國軍準備隊) 등이며 이 가운데 국군준비대와 학병동맹은 공산주의 색채가 농후한 청장년들로 조직된 불순단체로서 이들은 점차 좌익방향으로 전향하였고, 그 반면 광복군국내지대 같은 단체는 김구(金九)를 주석(主席)으로 하는 임시정부 직속으로서 우익계의 대표적인 단체였다. 1945년 11월 13일, 미 군정당국은 군정법령(軍政法令)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공포하면서, 사설 군사단체의 해산을 명령하였다.

○ 法令 第28號

국방사령부 설치
군무국(軍務局)의 창설, 육·해군부 설치
경찰군사기관(警察軍事機關)의 금지

제1조 : 국방사령부의 설치

조선의 종국(終局)의 독립을 준비하며, 세계국가에 의하여 조선의 주권과 대권(大權)의 보호, 안전에 필요한 병력을 급속히 준비하며, 민관(民官) 안녕의 유지와 민간의 무질서에 대하여 민권(民權)을 옹호하는 민간경찰기관의 보조 및 종교·언론의 자유, 재산권을 유지하며, 필요한 육·해군의 소집, 조직, 훈련준비를 시작하며, 국민의 정부혁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玆)에 조선 군정청 국방사령부를 설치함.

제2조 : 군무국(軍務局)의 창설 및 육·해군부의 설치

조선정부 군무국을 정부의 국(局)으로서 창설함. 군무국내에 육군부·해군부를 설치함. 현존 경무국(警務局), 군무국은 국방사령부의 감독지휘하에 둠.

제3조 : 경찰· 군사기관의 금지

여하한 자와 단체라도 여하한 종류의 경찰, 육·해군 군사활동의 소집, 훈련, 조직, 준비 및 경무(警務), 군무국의 관할에 속하는 행동을 행사하지 못함. 단, 국방사령관 혹은 국방사령관이 인정한 그 권리부여 대행(代行)기관의 서면인가를 득했을 경우는 제외함.

제 4 조 : 벌칙

본령(本令)의 조규(條規)에 위반한 자는 군정(軍政)재판에 의하여 처벌함.

제 5 조 : 시행기일

본령은 1945년 11월 30일 오전 영시(零時)부터 유효함.

1945년 11월 30일

재(在)조선 미국 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 군정장관

미국 육군소장 아놀드

1946년 1월 15일, 마침내 남조선(南朝鮮) 국방경비대가 발족되었고, 이것이 남한 군정하의 유일한 군사단체가 됨으로써 기타 사설 군사단체의 해체가 강행되었다. 1월 21일, 미 군정장관 러취(Archer L. Lerch) 소장은 군정법령 제28호 제3조에 근거하여 사설 군사단체의 '즉시 해산령'을 내렸고, 이로써 모든 군사단체들은 일제히 그 활동이 정지되었다. 다음은 담화문의 내용[要約文]이다.

국군 준비를 위한 명목(名目)의 사설단체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들 단체의 불법행동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므로, 국방경비대(國防警備隊)만이 유일한 군사단체이지 그밖의 여하한 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해산령으로 인하여 국방에 뜻을 두었던 많은 사람들이 일부는 경비대로의 편입에 반대를 하였다가 추후 특기생(特期生)으로 흡수되고, 일부는 편입하면서 국방분야는 서서히 정돈이 이루어졌으며, 국방 역군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게 되었다.

2. 國防警備隊 時節의 軍服飾

가. 國防警備隊의 創設

미 군정청이 조선총독부의 행정기구를 인수하였을 때 일반적인 기구는 그대로 있었으나 군사기구에 해당되는 것은 총독부 경무국(警務局)과 그 산하 경찰기구 정도 외에는 보잘것이 없었다. 이에 군정당국은 1945년 9월 중순부터 한국인 경찰관을 모

집하기 시작하여 동년 10월 21일, 군정청에 경무부(警務部)를 설치하고 일본 경찰기구를 한국인으로 하여금 접수하게 하여 국립경찰로 발족시켰다. 그러나 25,000명 수준의 경찰력만으로 당시의 혼미한 국내치안을 유지한다는 것은 장비나 인력면에서 불가능하였다. 더욱이 장차 수립될 독립정부의 유지를 위해서는 토착(土着) 군사력을 육성할 필요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당시 미 군정청 치안담당자였던 미 제24군단 헌병사령관 쉬크(Lawrence E. Schick) 준장은 10월 31일, 군정장관 아놀드(Archibald V. Arnold) 소장에게 남한의 국방에 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 미 군정의 목적이 한국의 영구적 점령이 아니고 다만 카이로선언에 의한 국제적 협정을 이행하는데 있으므로 설사 38도선을 경계로 한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하에 있다 하더라도 한국의 국방문제는 의당 정부수립에 있어서 기본요소이니 이를 연구하는 것이 시기(時期)에 적절함.

이 건의는 동경의 맥아더에게 전달되었고, 11월 초순, 미 육군참모총장 마샬(Marshall) 원수는 남한에서 미군을 감축하는 첫 단계로서 경찰(警察)과 비슷한 경비군(警備軍)을 창설할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 군정청 참모장교단에서는 한국의 국방준비계획에 대하여 정치·군사적 모든 내외(內外)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이 문제를 담당할 부서를 설치하게 되었다. 1945년 11월 13일, 군정법령 제28호로 미 군정청 내에 국방사령부(國防司令部 :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Defence)를 설치하고 사령부 내에 군사국(軍事局 : Bureau of Armed Forces)을 두고 그 밑에 육군과 해군의 2개부(部)를 두었다. 또한 전월인 10월 21일에 발족한 경무국(警務局)을 흡수 통합하여 국방사령부의 감독하에 두었고, 초대 국방부장에는 쉬크 준장이 취임하였다.[2]

---

2)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64호에 의거, 국방사령부는 국방부로 개칭되고 軍事局만을 관할하면서 그 예하에 육군부와 해군부를 두었다. 警務局은 同日자, 군정법령 제63호에 의거, 분리 독립하였다. 동년 5월, 미·소 공동회의에서 '국방'이란 용어 사용이 문제가 되었고, 이에 '국방'이라는 개념을 '국내 치안'의 개념으로 대치하고, 1946년 6월 15일, 군정법령 제86호에 의거 국방부를 國內警備部(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로 개칭하면서, 군사국을 폐지하고 육군부와 해군부를 각각 警備局과 海岸警備局으로 개칭하였다. 국내경비대는 統衛部라고도 불렀는데, 1946년 9월 12일, 柳東悅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방부장격인 통위부장으로 취임하였다.

이와 같이 발족한 국방사령부는 군사경력자인 이응준(李應俊)과 원용덕(元容德)의 자문을 받아 국방군 편성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성안(成案)하였다.

① 현재의 국립경찰을 보강하기 위하여 국방군(國防軍)을 창설하여 이를 점차로 발전시킨다.
② 국방군은 육군·공군으로 구분하며, 육군은 3개 보병사단으로 구성된 1개 군단을 편성하고, 공군은 필요한 근무부대 및 1개 수송비행중대와 2개 전투비행중대로 편성한다. 이들 육군 및 공군의 병력은 45,000명으로 한다.
③ 해군 및 해안경비대는 5,000명으로 제한한다.

이러한 3개 사단 규모의 국방군 편성에 사용되는 장비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용하다 남은 구식 장비였고, 그나마 장비의 도입방법도 미국측의 계획에 따른 것이어서 일괄 공급을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조직 일자는 육군과 공군은 다음해인 1946년까지로 되어 있었고, 해안경비대의 대원 모집은 이해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계획은 1945년 11월 20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John R. Hodge) 중장의 동의를 얻었으나, 맥아더는 이 문제를 놓고 남한에 군대를 창설하는 것이 자신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국정부로 넘겼다. 이렇게 되어 국방군 창설계획안은 미국정부 고위 정책수립자들에 의하여 연구 검토되었고, 그 동안 미 군정당국은 동(同) 계획안의 승인에 대비하여 앞으로 당면하게 될 국방군의 조직 편성 및 훈련 등 제반 준비업무에 착수하였다. 미 군정청은 국방군 창설문제가 미국에서 토론되고 있을 때, 미국식 군사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언어 장벽을 해소하여야 한다는데 착안하여 통역관 요원 양성소의 개념으로 1945년 12월 5일, 군사용어학교(Military Language School)를 설치하였다. 당시 각 단체의 입교자 추천 할당인원은 일군(日軍) 출신 20명, 만군(滿軍) 출신 20명, 광복군 출신 20명 계 60명이었는데,[3] 광복군 출신자들만은 장차 국군의 모체는 광복군이어야 한다는 강력한 법통(法統)주장이 압도적이어서 불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기타 출신자들은 바로 호응하였다. 군사용어학교가 정식으로 개교할 당시 교장에는 군정청 법무(法務)장교 리스(Rease) 소령이 임명되었고, 그 보좌관이며 부(副)교장격으로 만군(滿軍) 중좌 출신인

3) 할당인원을 두었다는 사실로 감안하건대, 이 학교를 통해 파벌·연고의 알력을 해소시키면서 차후 국방군 건설에 바탕을 삼겠다는 의도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원용덕이 임명되었다. 군정청 국방사령부에서 성안(成案)한 조선경비대(朝鮮警備隊 : Korean Constabulary) 창설 기본계획은 미국의 국무·육군·해군 합동조정위원회(合同調整委員會 : SWNCC)에서 검토되고 있었으나 국제적인 정치문제가 연루되어 있어 조속한 결정이 내려지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문제는 1945년 12월 27일의 모스크바 삼상회의(三相會議) 결정에 의하여 미·소 공동위원회를 한국에 설치하고 동(同) 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제반 문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SWNCC에서는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한국군 창설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이 임시적으로 내린 결정은 주한 미 점령군의 경비임무 부담을 덜기 위하여 한국경찰에 미군의 장비를 제공한다는 선이었다.

이러한 정책상의 문제점에 착안한 하지 중장은 1945년 12월 20일, 쉬크의 후임인 국방부장 챔페니(Arthur S. Champeny) 대령에게 한국군 편성계획을 새로이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대나무계획(Bamboo Plan)이다. 남한의 국내 치안력 강화를 위해 25,000명으로 축소된 경찰예비대(警察豫備隊 : Constabulary Reserve)를 창설한다는 이 계획안은, 일정한 주둔지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경찰과 비슷한 경찰의 예비대로 고려된 것으로써, 그 임무는 평시에는 경찰을 지원하고 비상시에는 국토 방위에 임하도록 하였고, 세부계획으로는 남한 8개 도(道)에 1개 중대[重火器가 빠진 美軍 步兵中隊에 準함]씩 8개 중대를 창설한다는 것이었다. 1개 중대는 장교 6명과 사병 225명으로 구성되며, 각 중대에는 장교 2명 병사 4명의 미 군사훈련단을 배치하여 부대편성과 훈련을 담당하도록 했다. 단, 각 도(道)의 중대는 편성시 정원의 20%를 초과 편성하여 단기(短期)훈련이 끝나면 초과병력으로 또하나의 중대를 편성하고, 이 방식으로 점차 부대 수를 증가시켜 연대(聯隊) 규모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경비대 창설 기본계획인 대나무계획이 미 정부의 승인을 얻게 되자 창설준비는 급진전되었다. 1946년 1월 11일, 국방사령부 내에 남조선 국방경비대 창설 임시사무소가 설치되었고, 다음날, 전국적인 모병운동이 전개되었다. 모병 응모자격은 만 21세부터 30세까지의 신체 건장하고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군대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환영하였다.

이러한 모병 절차를 걸쳐 남조선 국방경비대는 1946년 1월 15일, 태릉에 있었던 구(舊) 일본군 지원병훈련소에서 660명의 병력으로 제1연대 1대대 A중대를 편성하고 그 입대식을 거행하였다. 이는 비록 미 군정하에서 경비대라는 애매모호한 이름

의 발대식(發隊式)이었으나, 오늘날 세계 유수의 대강군(大强軍)으로 성장하게 되는 우리 육군의 시초였다.

불과 1개 대대 병력으로 발족한 경비대는 군정청 국방사령부 내에 있던 고급부관실(副官室)을 경비대 총사령부에 편입시키는 동시에 인사과·정보과·작전과·군수조달과 등을 신설 증편하였다. 그후, 1946년 5월 2일, 사령부는 중구 예장동에 있었던 구(舊) 일본군 헌병사령관 관사로 이전하였고, 의무국과 재정국을 신설하는 등 기구를 증편하면서 연대 창설을 위한 본격적인 모병운동을 전개하여, 동년 11월 16일까지 각 도(道) 단위에 1개 연대씩 9개 연대 창설을 완료하였다.

통위부에서는 통솔상 3개 연대를 1개 여단으로 편성하여 1947년 12월 1일, 서울·부산·대전에 각각 여단사령부를 창설하여 지휘기능을 강화하였다. 1948년 이후 1949년 6월까지 제10연대로부터 제25연대에 이르는 15개 연대와 제4·5·7·8여단과 수도경비사령부 등이 추가로 창설되었다.

나. 草創期의 軍服飾

1946년 1월, 국군의 전신(前身)인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설된 초기에는 일정한 복장규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군복을 마련할 길도 없어 대부분의 경우 일본군의 보급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일본군복을 표지장과 복식품만을 우리의 것으로 바꾸어 부착한 채 일본군복 원형 그대로 착용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사정은 지금과 같이 명확한 규정 아래 통일된 제복을 착용한 것이 아니어서 기본복장[4]에 대한 명확한 제식이 없어서 일본군복 이용 외에도 미군의 복장을 획득 착용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일본군복과 미국군복이 혼합 착용되는 등 착용상태가 일정하지 않았다.

그후, 1946년 8월부터는 미 군원의 순조로운 도입으로 대부분의 군복류를 미 군원품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때의 군복 제식은 미군복차림에 표지장만을 경비대 표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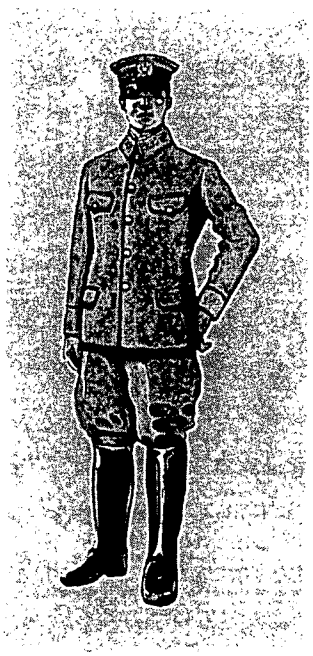
4) 기본복장이라 함은 장교와 사병이 공히 착용하는 제복으로써 예식때에 착용하는 예복과 의식 또는 공무대행시에 착용하는 정복, 그리고 평상근무시에 착용하는 근무복과 전술행동 및 평상근무시에 착용하는 전투복, 그 외에도 이들 제복과 함께 필요에 따라 착용하는 외투·우의·와이셔츠·넥타이 등의 군복 助衣와 군모·군화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諸복장을 말한다.

부착하였는데, 이 표지의 모양 역시 미 군정청 통치하에 고안되었고 게다가 당시로서는 세계 최강의 육군이라는 미군의 것을 모방하려는 성향이 강해 미군의 것과 유사한 것이어서 외관상으로 얼핏 보아서는 미군복식과 흡사한 제식이었다.

(1) 장교 제복

창군 당시인 1946년 1월에는 패전국인 일본군 제복을 수식과 표지장만을 일부 바꾸어 착용하였다. 군모의 제식은 황갈색 멜턴(melton : 외투용 따위의 두꺼운 모직물의 일종) 재질에 검정색 가죽의 차양과 턱끈을 부착하였고, 모테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청색 띠를 둘렀으며, 윗 덮개의 가장자리 테두리에는 폭 0.3㎝의 청색융(靑色絨) 보조띠를 둘렀고, 앞면에는 무궁화형태의 모표를 부착하였다.

제복은 상·하의 모두 황갈색으로서, 상의는 스텐 칼라(日 ステンカラー : 프 soutien + 英 collar : 와이셔츠 깃처럼 깃고대가 있고 roll collar에 가까운 형태)형에 한 줄에 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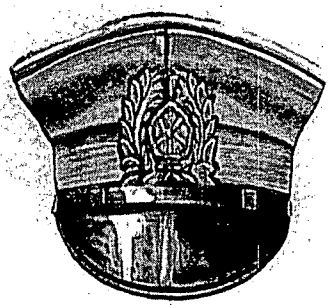


장교 복장



사병 복장

〈초창기 일본식 군복(1946년)〉



장교용



사병용

〈초창기 군모(1946년)〉



長 靴



編上靴

〈초창기 군화(1946년)〉

의 단추를 부착한 저고리였고, 하의는 승마형 바지이다. 상의의 양측 깃에는 무궁화 모양의 계급장을 달고, 갈색의 가죽 장화를 신었으며, 위엄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로 일본도를 임의로 획득하여 휴대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표지장은 비록 우리의 것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풍기는 모습은 과거의 일본군과 다를 게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후 1946년 3월 30일부터는

이미 착용하고 있던 일본군복과 미국군복을 함께 착용하는 혼합착용시대가 되었다.

군모의 제식은 미군 정모 형태로서, 동모(冬帽)는 흑갈색, 하모(夏帽)는 카키색 모직이었으며, 동·하모 공히 모테에는 녹색의 융띠를 두르고 윗 덮개의 가장자리 테두리 역시 녹색 융의 보조띠를 둘렀으며, 모표는 무궁화모양을 본떠 제작된 것을 달다가, 1946년 4월, 무궁화 속에 태극을 추가한 금·은사(金·銀絲) 모르[5] 자수제(刺繡製)로 바꾸어 달았다. 제복은 점퍼형(일명 : 아이크 재킷)[6]의 미 군복 상의에 승마복형으로 개조한 하의를 착용하였는데, 점퍼 속에는 카키색 와이셔츠에 검정색 넥타이를 받쳐 입었고, 양측 깃에는 경비대 표지를, 견장대에는 계급장을 부착하였으며, 어깨에는 갈색의 Y형 어깨띠를 메었고, 갈색 장화를 신었으며, 필요에 따라 지휘도나 권총을 휴대하기도 하였다.



장교 복장



사병 복장

〈미국 군복 개조 착용시기(1946년 4월~8월)〉

5) 포르투갈어인 모르는 원래는 인도의 Mogol에서 산출되는 織物을 의미하였다. 橫으로 金絲를 사용하고 縱으로는 絹絲를 사용한 것을 金모르라고 하며, 횡으로 銀絲를 사용하고 종으로 견사를 사용한 것을 銀모르라고 한다.

6) Eisenhower jacket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용맹을 떨친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이 애용한 연유로 명칭이 붙은 재킷이다. 앞 여밈은 지퍼식이고, 가슴 부근에 포켓이 있으며, 소매단과 허리에 밴드가 달려 있는 짧은 길이의 재킷이다. Battle jacket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위에는 미군 복장을 하고, 아래에는 일본군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는 제도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써, 그렇다고 누구나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었으며, 혹자는 일본 군모를 착용하는가 하면 사병용으로 임시 착용하던 일본군 전투모를 착용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고 내의 위에 바로 상의를 입는 사람도 있어, 무엇 하나 제대로 통일된 복장을 갖춘 사람이 없었다. 그렇다고 당시의 현실을 비난만 할 수는 없으며, 나라를 잃고 그 결과 전통적인 제도가 단절됨으로써 빚어진 민족군대의 비극이며, 국가가 없는 군대가 있을 수 없고, 군대가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일깨워주는 상황이었다.

(2) 사병 제복

사병 제복도 장교와 마찬가지로 창군 당시(1946년 1월)에는 패전국인 일본군 사병복에 무궁화 모표를 부착한 일본군 전투모를 쓰고, 황갈색의 편상화를 신었으며, 다리의 무릎 아래에는 각반(脚絆)을 감았는데, 이와 같은 차림은 과거의 일본군과 똑같은 차림새였다. 사병 제복도 1946년 4월부터는 장교와 마찬가지로 개조형의 제복으로 바꾸어 입었다.

제복은 점퍼형의 상의에 승마복형의 바지를 착용하였으며, 군모 역시 장교와 같은 형태의 것이되 다만 윗 둘레의 보조띠가 장교용의 녹색과는 달리 홍색이고, 턱끈이 장교용이 흑색인 것과 달리 갈색이었다. 상의의 아랫깃에는 장교와 동일한 경비대표지를 부착하고, 계급장은 양측팔에 부착하였다.

第2節 創軍 以後의 軍服飾

1. 陸軍 創設과 6·25戰爭 時期의 軍需狀況

1946년 1월 15일, 미 군정하에서 경찰후비대(後備隊)라는 성격으로 발족한 경비대는 양적인 팽창을 거듭하여 1948년 7월에는 5개 여단 15개 연대, 병력 수는 장교 1,403명, 병사 49,087명, 도합 50,490명으로 성장하였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선포되면서, 8월 24일, 한·미간에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行政協定)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비록 잠정적이긴 하나 한·미간에 처음 맺어진 군사협정이란 점을 고려하여 아래에 그 전문을 실는다.

○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1948년 8월 24일)

전문(前文)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 미군사령관은 1948년 3월 9일과 1948년 8월 11일부로 각기 미군 한국철병(撤兵)과 한국점령 종결을 목적으로 하여 주한 미군사령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정권이양을 점진적으로 질서있게 한다는데 관한 각서(覺書)가 교환되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 미군사령관은 대표들을 임명하여 정권이양을 점진적으로 질서있게 하도록 편의를 도모하며, 주한 미군사령관하에 있는 군대철수 절차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 미군사령관의 대표들이 회담한 결과 미군철수가 완료될 때까지 한국의 안전을 유지하며 현재 편성중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조직, 훈련 및 무장을 계속함이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 미군사령관간의 공동관심이라는 것이 표명(表明)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61조에는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하며,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제정되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고 행정관, 국군의 통수, 이 두 자격으로 주한 미군사령관과 더불어 주한미군 철수가 완료할 때까지 유효할 하기(下記) 안전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기(記)

제 1 조 : 주한 미군사령관은 본국정부의 지시를 준(遵)하며 자기 직권내에서 현재 편성중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을 계속하여 조직, 훈련 및 무장할 것을 동의함. 단, 동(同)사령관의 이에 대한 책임은 미군의 한국 주둔 철수완료시 종결함.

제 2 조 : 주한 미군사령관은 공동안전이 허(許)한다고 생각할 때에 점진적으로 가급적 속히 전(全)경찰·해안경비대 및 현재 편성중인 국군으로 된 대한민국 국방군의 지휘권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하기로 동의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방군 지휘책임을 인수하기로 동의함. 또한 주한 미군사령관은 1947년 11월 14일, 국제연합 총회 결의문 제2호 제4절[7]에 표시된 미군철수가 완료할 때까지 공동의 안전과 대한민국 국군의 조직훈련 및 무장에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대한민국 국방군(육군·해안경비대 및 위험지대에 배치된 국립경찰의 일부로 됨)의 운용에 전권(全權)을 보류함. 이 조문(條文)은 대한민국 국군 행정이나 대한민국의 적(敵)을 배제하는 인사전형(人事銓衡)이나 또는 미래의 편대(編隊)의 인선(人選)이나 또는 대한민국 헌법 제61조에 의하여 국방군을 증설하는 등의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에 간섭하는 바가 아님.

1948년 8월 26일

이상과 같은 협정에 의하여 제반 행정권과 더불어 경비대 통수권이 한국정부에 이양되어 남조선 과도정부의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는 국군으로 통합되었고, 9월 5일에 각각 육군과 해군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이 명칭은 국군조직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적이었다.

그후, 신응균(申應均)에 의해 기초(起草)된 국군조직법이 1948년 11월 30일, 국회를 거쳐 법률 제9호로 공포됨으로써 건군(建軍)의 근본이 확립되었고, 동년 12월 15일, 통위부는 국방부로, 조선경비대는 육군으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전문 24조의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 대한민국 중앙정부 수립 직후에 정부는 한국임시위원단과 협의하여 保安軍을 편성한다는 내용이 있다.

○ 국군조직법(법률 제9호)

제 1 장 총칙(總則)

제 1 조 : 본법(本法)은 육·해군을 포함한 국방기관(國防機關)의 설치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정하여 군정(軍政), 군령(軍令)의 유기적이고 체계있는 국방기능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국군은 육군과 해군으로써 조직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제 3 조 :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통수자이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군 통수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권한이 있다.

제 3 장 육 군

제 12 조 : 육군은 정규군(正規軍)과 호국군(護國軍)으로써 조직한다. 육군정규군이라 함은 평시 전시를 막론하고 법률에 의하여 항상 존재하는 상비군을 말한다. 육군의 병종(兵種)은 보병·기병·포병·공병·기갑병·항공병·방공병·통신병과 헌병 등으로써 구성한다. 육군에 참모·부관·감찰·법무·병참·경리·군의(軍醫)와 병기(兵器) 기타의 부문(部門)을 둔다. 육군호국군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군사훈련을 받은 자와 기타로서 조직하는 예비군을 말한다. 육군의 조직과 세칙(細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장 기 타

제 21 조 : 교육, 예식, 복제(服制), 급여 기타 군사행정상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24개 조로 구성된 이 법의 골자는 국군을 육군과 해군으로 조직하고, 공군은 필요한 때에 육군에 속한 항공병을 독립시켜 조직하도록 되어 있었다.

육군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관련하여 자주국방태세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하여 부대창설에 박차를 가하였고, 그 결과 1949년 1월에는 제7여단을 창설하여 도합 6개 여단 20개 연대로 확장하는 한편 동년 5월 12일에는 국군조직법 제3장 제13조에 의거 각 여단을 사단으로 승격시켰다. 또한 동년 6월 10일에는 제8사단이, 6월 20일에는 수도경비사령부가 각각 창설됨으로써 당초 각 도(道)에서 경비대 1개 중대로 발족했던 국군은 만 3년 5개월 만에 8개 사단 23개 연대로 확장되었다.

1950년 5월 1일, 육군은 이러한 확장에 발맞추어 군에 소요되는 보급품의 조달 및 획득체제를 정비하여 중앙조달과(中央調達課)를 특별참모부로 승격하여 조달감실(調達監室)을 설치하였으나, 업무체계가 갖추어지기 전에 전쟁이 발발하여 국군에 소요되는 보급품의 대부분을 미군이 직접 지원하게 됨으로써 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한 품목은 1종부식류와 2종피복류 등 극히 제한된 품목뿐이었다.

국내생산품목은 각 지역별로 조달분실과 야전구매대를 설치하여 장교들을 현장에 파견 필요한 품목을 현지 조달하였고, 군원에 의해 지원되는 품목은 한국군 부대의 각급 제대에 파견되어 있던 미 고문관의 승인을 받아 각 사단은 병과별 지원시설을 통해 육군 각 병과감실에 요청하였고, 병과감실들은 군수국의 검토를 거쳐 미 제8군에 청구하여 획득하였다. 긴급긴요물자와 제1종·탄약·유류 등의 일부 품목은 미군시설을 통해 사용부대에서 직접 획득하기도 하였다. 피복은 육군의 경우 원자재는 군원으로 하고 가공비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병력의 급격한 증가로 예산 부족의 어려움을 겪었다.

1951년 5월 1일, 조달감실은 증가되는 병력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1952년 7월 7일 행정·양식·피복·기술·구매과 등 5개 과로 개편되었고, 9월에는 대전, 광주, 청주 등에 분실을 설치하였다가 10월 9일 다시 이를 철수하고 지구분실의 업무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 파견근무하는 융통성을 기하였다.

군수국은 각 병과 지원부대들의 교육과 훈련을 강조하고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전방 전투부대의 전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보급지원체제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제1·제2병참단을 중심으로 피복, 수품, 양말(糧秣) 등 각종 보급품을 지원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군 피복류 보급실적은 1952년도에 작업복 1,400,000착·훈련화 1,705,000족이었고, 1953년 7월말까지 작업복 650,000착·훈련화 713,000족이었다.

보급지원체제는 각 기술병과의 모든 보급부대를 육본 직할로 편성하여 각 병과감실에서 재고 통제를 직접 실시하는 중앙통제식 병과별 보급지원체제를 유지하였고, 각 사단은 정기적으로 주간 군수현황보고서를 육본 군수국에 제출하였으며, 각 기술병과감실은 지원계통을 통해 신청된 청구량을 종합 검토한 후 군수국에 제출함과 동시에 국내조변과 군원획득 보급품의 일일수입 및 재고현황을 보고하였다. 군수국은 지휘 계통을 통해 보고된 군수현황과 병과감실에서 제출된 청구현황을 검토 후 군수국에 파견된 미 고문관과 협의를 거쳐 미 제8군에 제출하였으며, 미 제8군과 협

조하여 보급 우선순위와 보급여부를 결정한 후 각 기술병과감실에 불출을 승인하였다. 미군 지원보급품은 미군 군단지역 보급소에서 직접 보급을 받은 후 미 군사고문단을 통해 정산이 이루어졌으며, 국내조변품목은 한국군의 각 기술병과 보급소를 통해 지원되거나 작전이 급박할 경우 현지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동원 및 징발하고 사후 보고로 행정 처리하였다. 보급품의 분배제도는 보급소 분배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전쟁 중 전황이 급박할 경우에는 육본 계획에 의해 전투부대 현장까지 직접 수송해 주는 부대분배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장비보급절차는 육본 군수국이 병참감실에서 종합한 장비현황과 월소비실적을 검토, 미 제8군에 한국군의 월간 자동보급소요를 신청하였으며, 미 제8군에서는 한국군의 월간소요량을 일괄적으로 할당하면 각 부대는 한국군 기지보급창이나 미군 야전보급소를 통하여 수령하였다.

2. 1948年~1953年間의 軍服飾

이 시기는 미군식 복장을 착용한 시기이다.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국군으로 발족한 육군은 국내 최초로 사병의 정모와 정복을 생산보급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의 생산시설과 제반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극히 제한된 일부 사병에게만 보급하였으나 이것마저 1950년의 6·25전쟁으로 보급이 중단되었다.

한편 1948년 8월 26일에는 육군군의학교(경기 부평)에서 최초의 여자간호장교가 임관됨에 따라 우리 나라 최초의 여군복 역사도 시작되었다. 남군의 군복이 일본군복의 착용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여군의 군복은 미국군복의 착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전반적으로 보아 이 시기의 군복들은 규정이 미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제식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태가 다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착용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군의 제복으로 불릴 수 있었던 종류로는 예복·정복·근무복·작업복(지금의 전투복 개념)과 기타 보조의 등이 있었으나, 6·25전쟁이 발발되자 작업복 일색이 되었다. 다만, 특별한 행사시와 출장시에는 근무복을 착용하기도 하였고, 해외 파견자의 경우 정복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가. 禮　　服

창군 이후 예복 착용에 대하여 최초로 통제되고 지시된 것은 1948년이며, 창군 이후 빈번한 국가행사와 외빈접견 등으로 인한 예복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일정한 복장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인사지시(人事指示)로 미 군원으로 지급된 미군 정복을 우리 예복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 복장은 주로 외국주재공관의 무관과 시종무관 그리고 특별히 지정한 인원에 한하여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휴전된 다음해인 1954년에야 비로소 잠정규정(暫定規定)으로나마 규제하여 육군의 정식 예복으로 착용하도록 하였다.

당시, 예모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정장에 착용하는 정모를 겸용하도록 하였는데, 색상을 예복과 동일하게 맞추었으며, 동·하모 공히 가죽으로 제작된 갈색 차양(遮陽)에 검정색 턱끈을 부착하고, 금은사 모르로 제작된 자수제 모표를 부착하였다.

예복은 동·하복이 구분되었는데 제식은 동일하나 재질이 동예복은 흑녹갈색의 모직 구레바이고, 하예복은 카키색 모직 포럴(poral : 포럴絲를 밀도를 적게 주어 촉감이 까실까실하고 시원한 감을 주게 한 것)이었다. 예복의 상의는 테일러 칼라(tailored collar)[8]형에 한 줄 4단추 저고리이며, 어깨에는 견장대, 흉부 좌·우측에는 겉붙임 뚜껑주머니, 허리부위 양측에는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각각 부착하고, 앞면에는 황금색 금속장 중형 단추, 주머니와 견장대에는 황금색 금속장 소형 단추를 각각 달았으며, 상의 속에는 카키색 와이셔츠에 검정색 넥타이를 받쳐 입었다. 하의는 보통형의 일반 바지로서 양 측면 허리부위에는 속붙임 I형 주머니, 뒤쪽 좌·우측 상단에는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각각 부착하였다.

표지물은 견장대에는 계급장, 상의 윗깃 양측에는 '대한' 표지, 아랫깃에는 병과휘장을 달았으며, 소매의 수장은 소매 하단에서 7㎝ 상단에 폭 1.5㎝의 청색 띠를 관등(官等)에 따라 위관은 1조(條)·영관은 2조·장관은 3조씩을 각각 붙이고, 그 아래쪽 중앙부에는 지름 2.5㎝의 흑색 융직 바탕에 황색 별이 들어 있는 '별' 표지를 부착하였다. 예식용 구두는 갈색 가죽으로 제작된 일반 보통형 단화를 착용하였다.

---

8) tailor는 여성복을 제작하는 부드러운 제작방법과 대칭되는 용어로서, 여성복에 비해서 소재·형태·봉제방법이 딱딱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男性服風의 의복을 말한다. tailored collar는 남성용 신사복 등에서 볼 수 있는 칼라의 총칭이다.



동예복



하예복

〈예복(1948년~1957년)〉

나. 正 服

1946년 9월 1일부터는 종전에 착용하던 일본군복과 개조된 군복은 착용하지 않고, 미 군원으로 보급된 미군 제식의 정복만을 착용하였다.

당시의 정복은 남군·여군 공히 동복과 하복을 구분 착용하였는데, 동정복은 흑갈색 서지(serge : 경·위사에 雙絲인 梳毛[9]絲를 사용하여 右綾으로 직조한 것)였고, 하복은 카키색 포럴 혹은 카키색 개버딘(gabardine)[10]이었다.

정복의 표지물은 우리의 것으로 부착 착용하였으며, 이것이 정식으로 복제화된 것

9) 짐승의 털을 다듬어 강철로 만든 빗으로 빗으면서, 짧은 섬유는 없애고 길이가 고른 긴 섬유만을 직선의 모양으로 평행이 되게 가지런히 한 섬유.

10) gabardine은 능직으로 된 직물 이름으로, 원래는 중세기에 유태인이 착용한 외투의 이름인데 영국의 Burberry회사가 레인코트지의 상표로 그 이름을 사용하였다. 그후 그러한 직물의 보통명사로서 사용하게 되었다. 경사의 밀도를 위사의 밀도보다 매우 크게 하여 능의 올이 左下로부터 右上으로 급한 각도를 이룬다. 표면의 능의 올은 강하게 나타나고, 내면의 능의 올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

은 1955년 12월 7일(陸人事 제2349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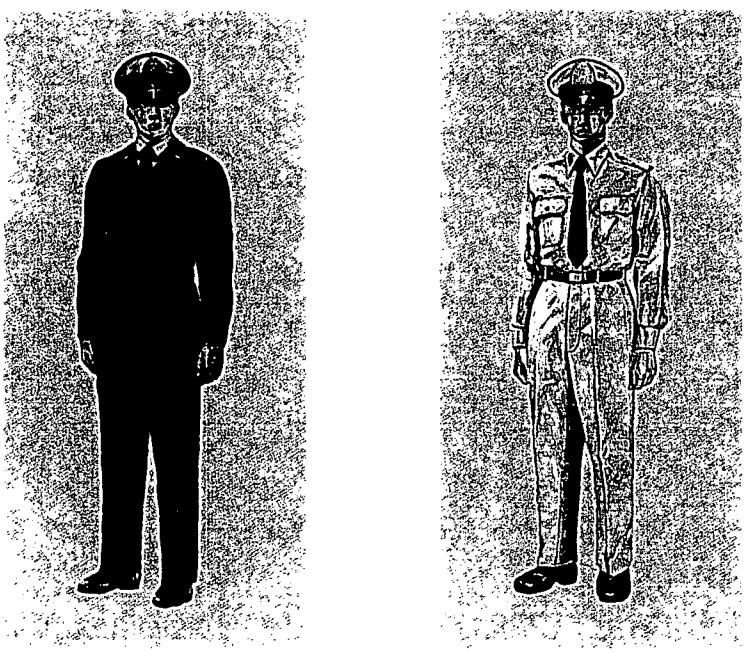
(1) 남 군

정모의 색상과 재질은 정복과 동일하여, 동정모는 흑갈색 서지이고, 하정모는 카키색 포럴이었으나 두 정모의 형태는 같은 모양이었다. 차양은 갈색, 턱끈은 검정색 가죽으로 제작되었고, 모표는 금사와 은사 모르로 자수된 것을 부착하였다.

정복의 상의는 테일러 칼라의 점퍼형이었는데, 소매는 셔츠형이고, 허리 부위에는 조임띠 모양의 허리선을 둔 형태이다. 어깨에는 견장대, 흉부 좌·우측에는 주름이 잡힌 겉붙임 주머니를 붙이고, 앞면의 잠금부위는 단추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한 형식이었다. 또한, 상의 속에는 카키색 와이셔츠에 검정색 넥타이를 받쳐 착용하였다.

하의는 보통형의 일반적인 바지였으며, 양 측면에는 I형의 속붙임주머니, 뒷면 상단부 좌우측에는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각각 부착하였다.

동복 상의의 부착물은 1948년 이전까지는 깃의 아랫깃에 경비대 표지만을 부착하



〈정복(1946년 9월~1955년)〉

다가, 1948년 이후에는 깃의 윗깃에 '대한' 표지, 아랫깃에 병과휘장을 각각 부착하였으며, 사병은 '대한' 표지와 병과휘장을 장교와 같은 요령으로 부착하였으나, 계급장(布製 正章)은 양쪽 팔에 부착하였다. 하복의 상의는 와이셔츠 형식으로서, 어깨에는 견장대, 좌·우측에는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부착하였고, 소매는 셔츠소매였으며, 하의는 동복과 같은 형태였다. 하복 상의의 표지물은 우측 깃에 계급장, 좌측 깃에 병과휘장을 각각 부착(1948년 이전에는 경비대 표지 부착)하고, 여기에 검정색 넥타이를 받쳐 입었다. 신은 동·하복 공히 5쌍의 구멍에 구두끈을 매도록 된 갈색의 가죽 단화를 착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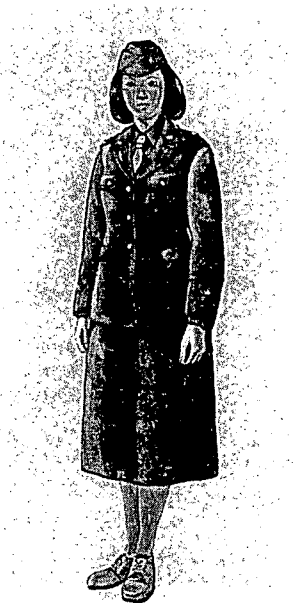
(2) 여 군

여군의 동정장은 약모(略帽 : 일명 駐屯帽 garrison cap : overseas cap : 차양이 없고 머리에 꼭 끼는 군대모자)에 상·하의가 구분된 옷을 착용하고, 단화를 착용한 차림새이다.

상의는 테일러 칼라에 한 줄 4단추 저고리이며, 어깨에는 견장대, 흉부와 허리의 좌·우측에는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각각 부착한 형태이다. 앞면에는 중형 단추, 견장대와 윗주머니에는 소형의 황금색 금속장 단추를 각각 부착하였고, 상의 안에는 흑갈색의 와이셔츠에 카키색 넥타이를 받쳐 착용하였다.

하의는 무릎 아래까지 닿는 H형(H line)의 스커트를 입었고, 신은 3쌍의 구멍에 구두끈을 매도록 된 갈색단화를 신었다. 부착물은 남군의 예복과 같은 형식으로 견장대에는 계급장, 윗깃에는 '대한'표지, 아랫깃에는 병과휘장을 각각 부착하였고, 소맷부리에는 흑색 수장과 황색 별 표지를 부착하였다. 하정장의 상의는 테일러 칼라에 한 줄 4단추이면서 허리띠가 부착된 점퍼형태이다. 어깨에는 견장대, 좌·우측 흉부에는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부착하였으며, 소매는 셔츠형의 소매이고, 앞면 중앙부의 단추와 소맷부리 단추는 황금색 금속장 소형 단추를 달았다. 하의는 동복과 동일형의 H형 스커트를 입고, 신은 끈을 매는 백색단화를 신었다. 하정복 부착물은 동정복과 같은 요령으로 부착하였다. 약모에는 직경 2.5㎝의 흑색 원형 융직바탕에 황색 별을 부착한 표지를 달았다.

이상과 같은 여군 간호장교의 정복은 6·25전쟁 기간중인 1950년 9월에 여자의용군(女子義勇軍)이 창설된 후에도 적용되어 착용하였으나, 전쟁기간중 여군의 도미유학(渡美留學)제도가 생기고 이들이 귀국하면서 교육중에 착용하였던 미 여군 정복을



동 복



하 복

〈여군 정복(1948년~1950년)〉

귀국 후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착용함에 따라, 이를 새로운 여군 정복 제식으로 확정하고, 1951년에 정식으로 규정화하였다. 이때 개정된 정복은 색상과 재질은 종전의 정복과 같았으나 다만 정복의 형태가 달라지고 신발의 모양이 바뀌었다.

동정복 상의는 깃의 끝이 둥근 모양인 더치 칼라(Dutch collar)[11]에 한 줄 4단추의 저고리로서, 어깨에는 견장대, 허리의 양측에는 반월형의 겉붙임 사선(斜線)주머니를 부착한 형태였으며, 앞면의 4개 단추는 황금색 금속제 중형 단추이다. 하의는 종전과 같은 H형의 스커트이다. 부착물은 견장대에 계급장, 양측 깃에 병과휘장을 부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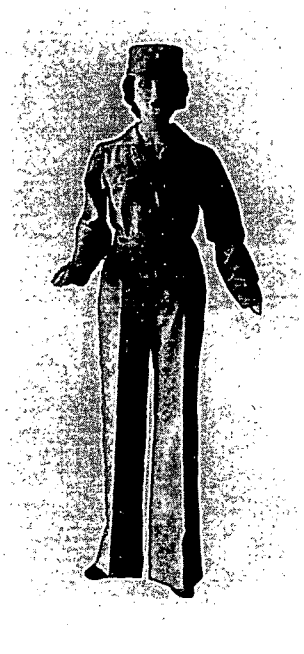
하정복 상의는 스포츠 칼라형의 노타이셔츠 형식으로서, 어깨에는 견장대, 흉부의 양측에는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부착하고, 앞면 단추와 견장대 및 주머니단추는 황금색 금속제 소형 단추였다.

부착물은 오른쪽 깃에 계급장, 왼쪽 깃에 병과휘장을 각각 부착하였다. 하의는 보통형의 일반바지였으며, 상의를 하의 속으로 넣어 착용하였다. 모자는 종전과 같은

11) 더치 칼라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Rembrant의 작품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여기서 이러한 명칭이 유래되었다.



동 복



하 복

〈여군 정복(1951년~1954년)〉

모양의 약모를 착용하였는데, 모표는 별 표지 대신 계급장을 부착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작업모[전투모]를 쓰고 근무복장으로 착용하기도 하였으며, 고급장교들은 약모보다 작업모를 더 즐겨 착용하였다. 신은 동·하복 공히 굽이 얕은 힐을 신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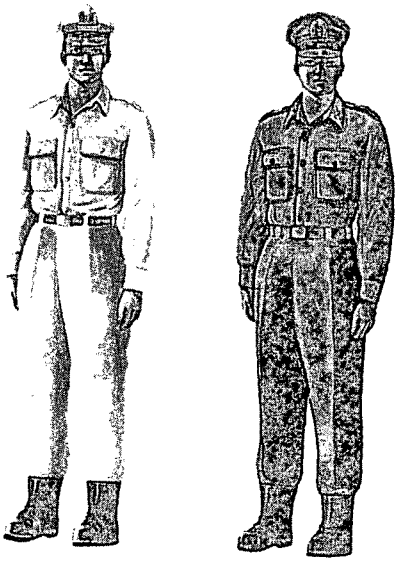
다. 勤 務 服

근무복 제식은 1948년, 평상근무시와 외출·외박 및 출장시에 간편한 차림으로 활동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와이셔츠식의 제식으로,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착용하던 제복을 본뜬 것이다. 남·여군 공히 동근무복은 흑갈색의 서지 재질이었고, 하복은 카키색의 포럴 또는 개버딘 재질로 제작되었다.

(1) 남 군

최초 착용 당시의 근무복장 제식은 근무복에 정모와 반(半)장화를 착용하고 넥타

이는 매지 않은 간편하게 업무에 임한다는 차림이었으나, 6·25전쟁이 폭발되면서부터는 근무복에 작업모와 전투화도 착용하였다. 동·하근무복 공히 정모는 정장 착용시 쓰던 정모였으며, 와이셔츠형의 상의는 어깨에 견장대, 흉부 좌·우측에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각각 부착하고, 단추는 복지색의 플라스틱제 소형 단추를 부착한 것이었으며, 하의는 보통형의 일반바지였다. 표지물은 우측 깃에 계급장, 좌측 깃에 병과휘장을 각각 부착하였으며, 사병은 우측 깃에 '대한' 표지, 좌측 깃에 병과휘장을 부착하고, 계급장은 양측 팔에 포제(布製) 정장계급장을 부착하였다. 다만 사병의 경우 극히 제한된 인원에게만 지급되었으며, 반장화 대신 단화를 착용하였다.



〈근무복(1948년~1962년)〉

그런데 당시의 사진을 보면 장교도 간혹 작업모에 단화를 착용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의 규정이 명확치 못하였고 또한 규정의 준수라는 이행상태가 불량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고급장교와 도미귀국(渡美歸國)장교들은 하근무복을 모직 포럴재질로 개인적으로 맞춤하여 착용하기도 하는 등 규정과 그 준수태도, 그리고 보급품의 재질 등등에서 약간의 문제점들이 혼재(混在)하고 있었다.



戰鬪靴(1946년~1953년)　　半長靴(1946년~1950년)　　短靴(1948년~196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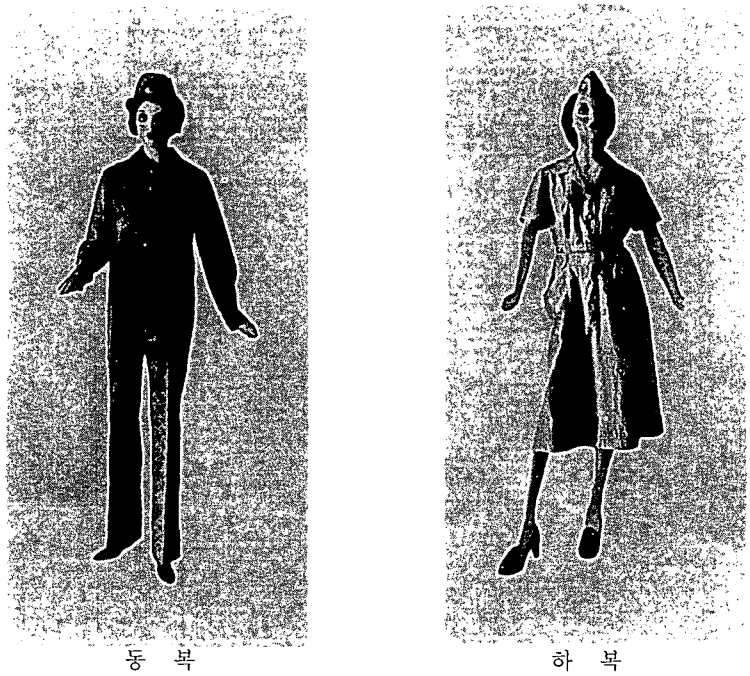
〈군화(1946년~1961년)〉

(2) 여 군

1950년 6·25전쟁 기간중에 창설된 여자의용군은 간호장교와 더불어 남군과 동일한 제식의 근무복을 착용하였다. 모자는 작업모를 착용하고, 신은 단화나 전투화를 착용하였으며, 표지물도 남군과 동일한 형식이었다.(이 근무복은 1967년의 대통령령 제2896호에 의거, 남녀 근무복이 폐지될 때까지 착용하였고, 이중에서 동근무복은 1971년까지 동약정복으로 이름만을 고쳐 계속 착용하였다.)

그후 1951년부터는 미 군원품의 원활한 보급으로 미 여군근무복의 제식을 그대로 따라 착용하였다. 동근무복은 종전과 같은 흑갈색의 포럴재질을 사용한 원피스였으며, 여기에 동·하복지와 같은 색의 약모와 뒷굽이 얕은 힐을 신었다. 동복의 상의는 깃이 둥근 모양의 더치 칼라에 한 줄 5단추의 점퍼형으로서, 소매는 셔츠형이고, 허리 부위에는 조임띠 모양의 허리띠를 부착한 형태이다. 어깨에는 견장대, 허리 좌우측에는 반월형의 겉붙임 주머니를 붙이고, 앞면 중앙에는 황금색 금속제 소형 단추를 부착하였으며, 하의는 보통형의 일반바지로서 옆에서 지퍼로 잠그도록 한 형식이었다.

하복은 스포츠칼라형의 반소매 원피스에 허리띠로 매는 형태였는데, 어깨에는 견장대,



동 복 하 복

〈여군 근무복(1951년~1967년)〉

앞면에는 복지와 동일한 직물로 싼 5개의 단추를 달고, 허리 좌·우측에는 속붙임 사선 주머니를 부착하였으며, 허리띠는 복지와 동일한 재질로 제작된 폭 2.5㎝의 띠에 황금색 금속장 잠근고리를 부착한 것이었다. 표지물은 동·하복 공히 장교는 견장대에 계급장, 양측 깃에는 병과휘장을 달았으며, 사병은 좌측가슴 부위에 약장계급장을 달고, 양측 깃에 병과휘장을 달았다. 약모에는 앞면 우측에 장병 공히 약장계급장을 부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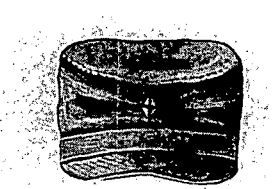
라. 作 業 服

1946년 창군이래 미 군원에 의해 보급된 미군복을 착용함에 따라 전투복 역시 작업복이란 이름(1967년부터 전투복으로 개칭)으로 미군의 작업복을 그대로 착용하였다.

그후, 6·25전쟁이 발발되고 모든 체제가 전쟁체제로 바뀌면서 군인들은 항시 무장형태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복장도 전투를 위한 옷차림 일색으로 변하게 되었다. 전쟁 초기에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갑작스러운 병력의 증원으로 전투복 소요도 대폭 증가되어 미 군원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이에 미군작업복과 유사한 형태의 국산작업복(하의 밑단 외측에 조임단추가 달린)이 일시 보급되기도 하였다.

이외에 종전까지 착용하였던 모든 형태의 제복들까지 전투복으로 대용함으로써 갖가지 형태의 제복이 등장하였는데 시간이 흘러 차츰 전열이 정비되고 야전용 피복류의 보급이 원활하게 되면서 다시 작업복 일색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당시의 작업복 차림은 국방색 면직의 작업모와 작업복 그리고 전투화를 착용한 것으로, 동절기에는 방한용 피복을 덧옷으로 겹쳐 입었다.

(1) 남 군



〈작업모〉

작업모는 앞면이 뒷면보다 얕은 원통형으로서 차양은 두꺼운 편직물로 짠 것이었고, 모자 안쪽 뒷면에는 방한용 귀덮개를 부착하였다. 전투복의 상의는 컨버터블 칼라(convertible collar : 셔츠 칼라의 일종으로, 맨 윗까지 단추를 잠그거나 풀 수 있는 변화가 가능한 칼라)의 한 줄 5개 단추 저고리로서, 흉부 좌·우측에는 뚜껑이 달리고 신축성이 있는 겉붙임 큰주머니(일명 : accordian pocket : 아코디언처럼 넘겨 접은 주름이



1948년~1954년



1950년~1961년

〈군화(1948년~1961년)〉

있는 포켓)를 부착하였고, 앞면 및 주머니의 잠금단추와 소맷부리의 조임단추는 검정색 금속제이거나 복지색의 플라스틱제였으며, 소맷부리에는 2개의 단추구멍을 뚫어 조일 수 있도록 하였다. 특이한 점은 견장대가 없다는 것이다. 하의는 대퇴부 외측면 봉재선 부위에 뚜껑이 붙은 아코디언 포켓을 부착한 형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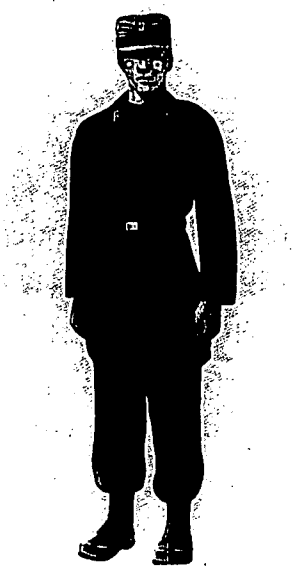
전투화는 갈색의 목이 긴 것과 발목까지만 가리워지는 목이 짧은 형태 그리고 목이 짧은 군화에 각반을 붙인 형태 등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전투복장에 장교는 1948년 이전까지 전투모를 착용하고, 전투복에는 계급장만을 전투복 좌측 주머니 뚜껑 상단에 가로로 달았다. 1948년 이후에는 전투복의 우측 깃에 계급장, 좌측 깃에 병과휘장을 각각 부착하였다. 사병은 6·25전쟁 이후부터 계급장을 부착하였는데 약장계급장을 좌측주머니 뚜껑 우측에 부착하였다.

(2) 여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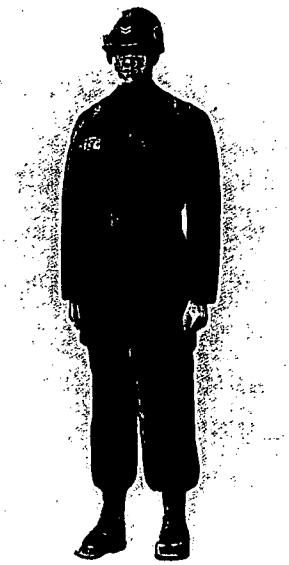
여자의용군이 창설된 시기가 전쟁기간중인 1950년 9월 5일이었기에 남·여군 구분 없이 모두 작업복 일색이었다. 또한 상황적으로 보아 여군에게 맞는 별도제식의 작업복(전투복)이 있은 것도 아니었고, 대책 없이 남군의 작업복을 그대로 착용하거나 또는 여유가 있을 경우 자신의 몸에 맞도록 스스로가 개조 착용하였다. 표지장 역시 남군과 동일한 요령으로 부착하였다.



1946년 ~ 194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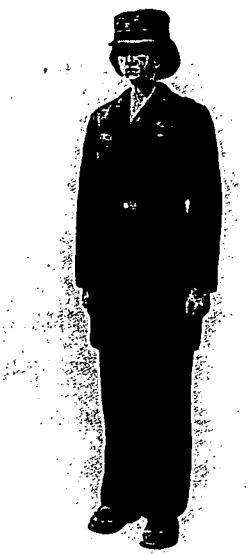


1948년 ~ 1950년



1950년 ~ 1954년

남 군





1950년 ~ 1954년

여 군

〈작업복(1946년 ~ 1954년)〉

마. 外 套

(1) 장교 일반외투



〈장교 일반외투
(1948년~1954년)〉

장교 일반외투는 녹황색의 멜턴재질로 제조된 두 줄 6개 단추가 달린 얼스터 코트(Ulster coat)[12]로서 허리띠가 달리고 길이가 긴 오버 코트이다. 어깨에는 견장대를 달고, 소맷부리에는 소매 밑에서 위쪽으로 8.5㎝되는 곳에 폭 7㎝의 벨트와 단추를 달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측 허리부위에는 박스형의 속붙임 사선주머니(welt pocket)[13]를 달았고, 허리에는 플라스틱제 잠금장식이 달린 복지색 요대를 부착하였다. 앞면의 6개 단추는 복지색의 플라스틱제 대형 단추이고, 표지물은 어깨의 견장대에 계급장만을 부착하였다.

이 장교 일반외투는 1948년부터 미 군원에 의해 도입 보급되어 예복·정복·근무복에 착용하다가, 전쟁이 종료된 다음해인 1954년에 군원의 부족으로 폐지하고 바바리 코트를 대용으로 착용하였다.

(2) 케이프

케이프는 망토(Manteau)라고도 하는 소매가 없는 방한용의 견의(肩衣)로서, 미군복과 함께 도입되었다. 미군의 복제규정에는 장교에 한하여 예복과 정복 차림시에 외투 대용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어, 미 군원피복을 착용하고 있는 우리도 이를 본받아 1948년 이후 새로운 예장인 연미복·만찬복·예복이 등장한 1958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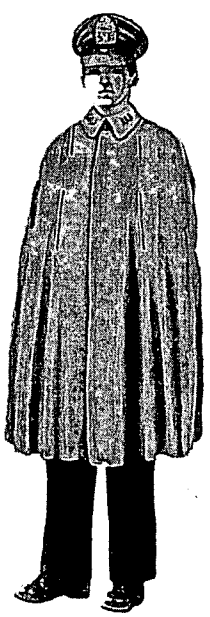
12) 원래는 남성용 긴 길이의 코트로, 아일랜드 북부 Ulster에서 생산하는 두꺼운 wool소재의 이름에서 유래된 벨트가 있는 double breast, 소매를 뒤집어 접은 커프스, 얼스터 칼라로 불려지는 큰 칼라 모양이 특징이다.

13) welt는 가장자리 장식의 의미로, 포켓에 덧댄 천[입술]을 장식한 포켓. 일반적으로 Box pocket이라고 부르며, 입술주머니라고도 한다. 신사용 상의의 가슴이나 조끼의 포켓에 사용되고, 코트에는 斜線式이 많이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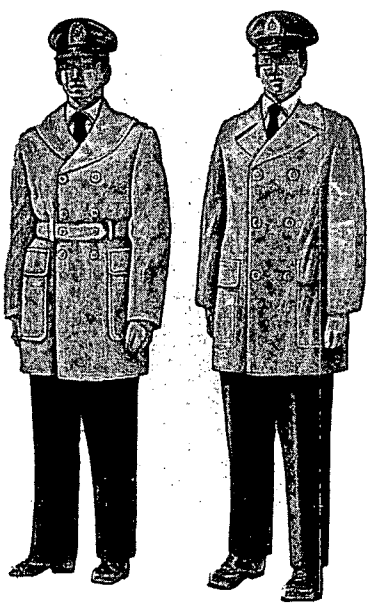
지 예장 차림에 착용하였다. 케이프는 녹황색의 멜턴지로 제작된 소매가 없는 스탠 칼라형으로서, 그 길이는 무릎 아래 5㎝ 이상 내려가지 않는 미디 코트(Midi coat)이다. 양측 허리부위에는 1자형의 슬렌트 포켓(Slant pocket : 입구를 斜線으로 절개한 포켓)이 있고, 표지물은 양측 깃에 계급장만을 부착하였다.

(3) 반외투

반(半)외투는 녹황색 멜턴재질로 제작된 기장이 짧은 형의 외투로서, 허리띠가 있는 형과 허리띠가 없는 형의 2종류가 있다. 허리띠가 없는 형은 테일러 칼라형에 두 줄 6개 단추를 달고, 어깨에는 견장대, 허리의 양 측면에는 덧붙임 뚜껑주머니를 부착한 것이다. 허리띠가 있는 형은 숄을 걸친 것처럼 보이는 숄 칼라(Shawl collar)형에 두 줄 6개 단추를 단 것으로, 허리띠는 조임장식 대신 복지색의 플라스틱제 대형 단추 2개를 달아 조정하도록 고안되었으며, 견방대·주머니 등은 허리띠가 없는 형태와 같았다. 이 반외투는 '영관 코트'라고 하는 별칭도 가지고 있었으며, 6·25전쟁 이후에는 일부 고급장교에게만 지급되다가, 1955년 이후에는 테일러 칼라에 허리띠가



〈케이프(1948년~1958년)〉



〈반외투(1948년~1958년)〉

없는 형태의 것을 포함하여 초급장교에게도 지급하였고, 육사생도들에게도 지급하여 생도 외투로 학과출장·외출·외박시에도 착용하도록 하였다.

(4) 사병 외투

사병 외투는 창군이래 장교 일반외투와 함께 미 군원에 의해 보급되면서 가장 오랫동안 착용된 제복 중의 하나이다. 이 제복은 1967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식이 바꾸어질 때까지 무려 20여 년 동안 변함없이 착용되어 왔다. 복지는 흑갈색 모직의 멜턴재질이었으나 실제로는 당시 사용된 흑갈색의 모포와 같은 재질이었다. 제식은 테일러 칼라에 두 줄 8개 단추의 외투로서, 어깨에는 견장대, 양측 허리부위에는 웰트 포켓형의 속붙임 사선주머니, 뒷면에는 허리의 반쯤되는 길이의 허리띠를 부착하였고, 앞면 8개·뒷면 2개의 대형 단추와 견장대의 소형 단추는 황금색 금속제를 사용하였다.



남군 사병(1948년~1967년)



여군 사병(1950년~1967년)

〈사병 외투(1948~1967년)〉

표지물은 양측 팔에 정장계급장을 달았다. 여군사병 외투는 청회색 멜턴재질을 사용하여 스텐 칼라에 두 줄 8개 단추의 중간형 외투였으며, 양 측면에는 둥근 모양의 겉붙임주머니를 부착하였고, 앞면의 단추는 복지색의 플라스틱제 대형 단추였다. 이 사병 외투는 미 군원에 의해 보급된 것을 그대로 착용하였기 때문에 미군과 체격이 다른 우리에게는 맞지 않아 마치 롱 코트처럼 발목까지 닿는 경우도 있었다.

(5) 바바리 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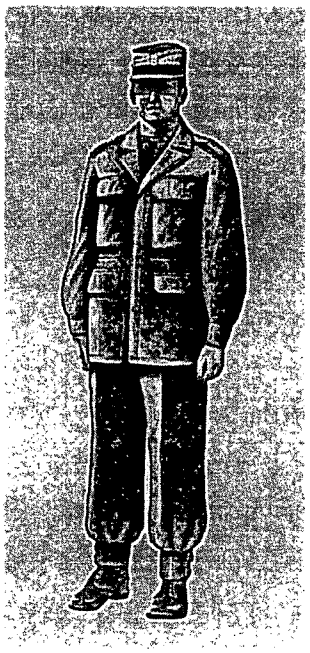
바바리 코트는 원래 20세기초 영국의 바바리(Burberry) 상사가 개발한 레인 코트의 상표명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회사 고유명사가 보통명사로 바뀐 것이다. 어원(語源)은 스페인어로 불·물·흙·바람 등의 네 가지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이고, 원래는 참호용 외투로 개발된 것인데 미 군원에 의해 도입되어 미처 복제상의 규정이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 1962년까지 주로 장교들에게 지급되어 정복·근무복·작업복 등의 겉옷으로 착용하였다.

이 바바리 코트는 특수하게 방수처리된 국방색 면직 개버딘으로 제작된 장교 일반외투와 동일한 형태(테일러 칼라에 두 줄 6개 단추의 외투)의 것이었으며, 혹한기에는 코트 속에 복지색의 엷은 모직 멜턴재질의 내피를 부착 착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착탈식(着脫式)이다. 어깨에는 견장대, 허리의 양 측면에는 웰트가 붙어 있는 속붙임주머니를 부착하였고, 허리에는 플라스틱제 장식이 달린 허리띠, 소맷부리에는 폭이 좁은 띠를 부착한 형태였으며, 앞면에는 대형 단추, 견장대에는 계급장만을 부착하였다.

(6) 野戰上衣

야전상의는 계절복(季節服)이 아닌 야전용 점퍼로서, 창군 초기부터 미 군원에 의하여 보급되어 착용하였는데, 계절에 큰 관계없이 작전·교육훈련시에 가장 많이 애용하였던 제복이었다.

야전상의 제식은 국방색 면직의 개버딘재질로 제작된 컨버터블형의 깃에 짧은 외투형의 점퍼이고, 셔츠형의 소매에, 허리에는 조임끈을 붙여 속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형태였으며, 어깨에는 견장대, 흉부 양측에는 겉붙임 신축성 큰주머니, 허



〈야전상의(1948년~1958년)〉



〈바바리 코트(1948년~1962년)〉

리 양측에는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각각 부착하였다. 앞면에는 복지색의 중형 단추를 달아 여미도록 하였으나 단추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였다. 표지물은 계급장과 명찰만을 부착하였는데 장교의 계급장은 어깨에 부착하였고, 사병은 작업복과 같은 요령으로 좌측주머니의 우측에 부착하였다. 이 야전상의는 1958년 새로운 제식의 미 군원품이 보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되었다.

바. 野戰用 防寒被服

6·25전쟁이 10월에 이르면서 전세가 어느 정도 호전되자, 38°선을 넘는 북진계획이 수립 착수되었고, 이에 곧 닥쳐올 겨울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방한복이 필요하게 되었다. 당시 주로 착용하였던 야전용 방한피복으로는 미 군원품인 일반 파카(parka)[14]와 스키 파카 그리고 유엔점퍼가 있었고, 국내조변 피복으로는 국방색 면포에 솜을 누빈 반외투와 상·하의가 분리된 누빈솜옷이 대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국산 솜옷은

14) 파카는 원래 에스키모인들이 防風·防雪을 위해 착용한 후드가 달린 재킷이다.



〈야전용 방한피복(1950년~1953년)〉

북한군의 방한복과 유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색이 심하고 활동에 불편하여 휴전과 더불어 자취를 감추었고, 미 군원품인 파카와 유엔점퍼를 주로 착용하였다.

(1) 솜 누빔옷

솜 누빔옷은 겉은 농녹색(濃綠色), 안은 백색의 면직물에 솜을 넣어 사선으로 누벼서 만든 방한복으로,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것이다. 상의는 둥근 깃형이고 허리 양측에는 속붙임주머니, 안쪽 좌·우측에는 I 형주머니를 달았고, 하의는 양 측면에 I 형주머니를 부착하였다.

(2) 솜 누빔 반외투

솜 누빔 반외투는 국방색 겉감과 백색 안감에 솜을 넣어 누벼 만들었다. 무릎까지 닿는 반외투로서, 깃은 둥근 형의 큰 모양이었고, 흉부 좌·우측에는 신축성이 있는

겉붙임 큰주머니를 부착하였으며, 허리 양측에는 자루가 없는 I 형주머니를 달았다. 깃은 필요시 걷어 올려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크게 하였으며, 눈이 올 때에는 위장을 위해 뒤집어 착용하기도 하였다.

(3) 파 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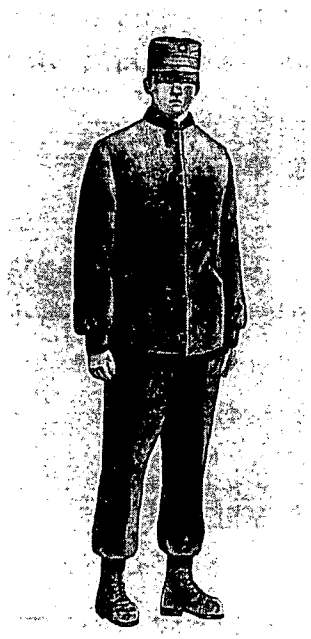
파카는 미군이 혹한지 근무용으로 착용하던 것이 군원으로 도입되어, 주로 간부들에게 보급되었으나 6·25전쟁 후에는 경계근무를 위한 부대피복으로 보급되어 왔다. 초기에는 아무런 규제도 없이 착용하다가, 1969년에 처음으로 육군규정에 삽입하였으나, 1976년에 다시 규정에서 삭제하고 방한용 특수피복으로만 착용하였다.

(4) 유엔점퍼

제복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유엔군의 참전과 함께 미 군원에 의해 보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원래는 야전상의를 착용할 때 속에 받쳐 입도록 고안된 것이었으나,



〈파카(1950년~1976년)〉



〈유엔점퍼(1950년~1958년)〉

야전상의를 입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 방한복으로서는 가장 각광을 받았다. 초기에는 보급수준이 낮아 고급장교들에게만 보급되었기에 유엔점퍼는 초급장교들에게 선호의 대상이었을 만큼 각광을 받았으나, 종전후 보급형편이 나아지면서 대부분의 장교들이 착용하였다.

점퍼의 겉면은 국방색 면직의 개버딘이었고, 깃과 소매목에 조임 편직물을 부착하였으며, 앞면 중앙부에는 6개의 플라스틱제 대형 단추를 달고, 단추고리는 직경 0.5㎝ 굵기의 끈으로 만든 고리(loop buttonhole)형이었다. 허리 양측부위에는 슬렌트 포켓을 붙이고, 안면에는 인조털을 붙인 것과 인조털 외면에 실크천을 붙인 것 그리고 모직 담요천을 댄 것도 있었는데 순전히 야전용 방한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표지물은 부착하지 않았다.

(5) 여군 방한점퍼

여군은 전쟁기간중 야전에서는 남군이 착용하던 파카와 유엔점퍼·솜누빔 반외투 등을 착용하다가, 1953년 겨울부터 미 군원에 의해 보급된 유엔점퍼형의 여자용 방한점퍼를 착용하였다. 황갈색 모직의 멜토네트(Meltonette : 멜턴보다 가볍고 얇은 재질)이었으며, 유엔점퍼와 비교하면 어깨에 견장대가 부착되고, 단추를 잠그는 장치가 고리형이 아니고 단추구멍인 것이 다를 뿐 깃과 소매 및 주머니 형태 등은 같았다.

이 방한복은 1968년까지 작업복[전투복] 위에 겉옷으로 착용되었으며, 표지물은 명찰만을 부착하였다.



〈여군 방한점퍼
(1953년~1968년)〉

사. 雨　　衣

우의는 1950년 6·25전쟁 때부터 미 군원으로 도입된 것을 착용하여 왔으며, 그 종류는 일반우의와 판초우의 그리고 상·하의가 분리된 특수우의 등이 있었다. 일반

우의는 개인용이며, 판초우의는 개인장구이고, 상·하 구분식 우의는 지원병과부대(특히 공병) 등에 보급되어 부대관리품으로 보급되거나 활용하였다. 우의는 모두 국방색 포직(布織)에 고무를 입혔다.

(1) 일반우의

일반우의는 간부들과 기동 및 호송임무를 수행하는 일부 인원에게만 지급되었다. 모양은 컨버터블형 깃에 한 줄 4개 단추의 외투형 우의로서 허리 양측부위에 웰트가 붙어 있는 속붙임 사선주머니를 부착하고, 소매는 폭이 좁은 띠를 붙여 소매 폭을 조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면단추는 보이지 않게 처리한 플라이 프런트(Fly front : 여밈이나 트임부분을 이중으로 하여 안쪽에 버튼이나 지퍼를 달고 덧단을 하여 바깥쪽에서는 보이지 않게 하는 모양)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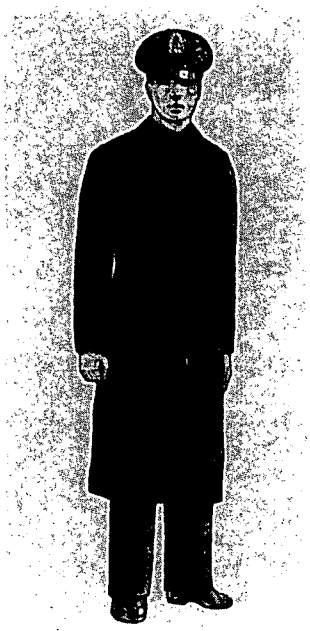
이 일반우의는 1967년 8월 7일, 〈대통령령 제3172호〉에 의거, 최초로 국내조변품이 공급되면서 장교들에게만 지급하다가, 1971년에 새로운 형태의 장교용 우의가 제정되면서 종전의 우의는 사병용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때부터 장교와 사병우의가 구분되었다.

(2) 판초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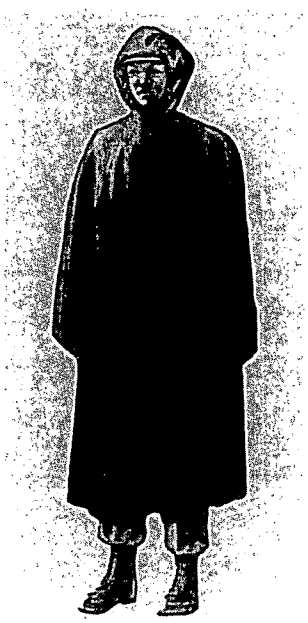
판초우의는 한쪽 면이 긴 사각형에 중앙부를 터서 모자를 붙인 형태로 우천시에는 중앙부의 뚫린 부위에 머리를 넣어 뒤집어써서 우의로 착용하고, 숙영시에는 개인천막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1956년 이후에는 국산품으로 대치보급되었다.

(3) 특수우의

특수우의는 지원병과 요원들 작업시 활동에 편리하도록 고안된 것으로서, 상의에는 두건, 하의에는 어깨띠가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 우의는 복제의 범주에서 제외된 것이다.



일반우의



판초우의

〈우의(1950년～현재)〉

第2章 現代 軍服飾

패전국 일본군이 두고 간 재고품과 미 군원품에만 의존하면서 6·25전쟁을 수행한 우리 국군은 전쟁기간중인 1950년대 초에는 해외유학이나 주요행사를 제외하고는 항상 야전복장인 전투복 차림을 하였다. 또한 전시(戰時)기간이었던 관계로 복장에 대한 착용규정도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육군회보(陸軍會報)나 인사지시(人事指示)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하달 시행해 왔다. 아래의 인사지시 내용은 이를 잘 대변해 주는 예이다.

* 1955년 12월 7일자 인사 제2232호 : 예복 착용에 대한 지시

1. 예복에 대한 한국식 제식이 잠정규정 제7호(1955. 6. 15.)로서 제정되어 있으나 복지 관계로 일괄 제작 지급은 불가한 실정임.
2. 따라서 앞으로 지급되는 미식 예복을 한국식 예복과 병용 착용하여도 무방함. 끝.

그러나 휴전 후인 1954년부터는 완제품으로 도입하던 군원군복(軍援軍服)도 과거와는 달리 복지(服地)로 도입함으로써 우리 나름대로의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제복으로 제작 가능한 여유도 생기면서 이를 국내조변(國內調辦)으로 보급하였는가 하면, 지금까지 하달되었던 지시내용도 종합 정리하여 비록 잠정규정이었으나 '육군규정'으로 규제하여 무질서하였던 복제제도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1960년대 초인 5·16군사정변 후에는 육·해·공군의 제복을 국가차원에서 통합하여 각령(閣令)으로 군인복제를 공포 시행하였는데, 창군 후 이때까지의 기간을 복제사적 측면에서 볼 때 과도기로 볼 수 있다.

군복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 차원으로 높아지면서 1962년의 〈각령 제700호〉로 규제하였던 군인 복제규정은 1967년에 다시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격상되어 공포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같은 조치는 군복식사적 측면에서 볼 때 획기적인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부터 한국군의 고유성을 지닌 자주적인 군복식으로의 정립(定立)이 시작된 시기이다.

1962년 4월 27일의 〈각령 제700호〉에 의한 복제규정이 지니는 의미란, 건군 이후 1950년대까지 무질서하였던 군인복제를 정립시켜 최초로 군인이 착용하는 제복 중에서 장교와 사병이 공통적으로 착용하는 예장·정장·근무장·전투장 등에 관한 형태와 차림새 그리고 착용시기 등이 규제 공포하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자주독립국가 군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는 점에 있다. 아래에 주요 내용을 수록한다.[1]

○ 각령 제700호 군인복제

공포 : 1962년 4월 27일

제 1 조(목적) : 본령은 군인이 착용할 제복의 제식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제복의 착용수칙) : 군인은 본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복장과 용의(容儀)를 단정히 하며, 군인으로서의 규율과 품위를 보지하여야 한다.

제 4 조(군모) : 군모는 정모 및 작업모로 한다.

제 6 조(제복) : 제복은 예복·정복·야회복·만찬복·근무복·작업복·외투 및 우의로 한다.

제 7 조(군화) : 군화는 단화·전투화·훈련화로 한다.

제 8 조(계급장) : 계급장은 견장(肩章)·금장(襟章)·수장(袖章)으로 한다.

제 9 조(標識章) : 표지장은 병과휘장·부대표지·부대기·지휘관표지·참모휘장·정근(精勤)표지·흉장·완장·장관기(將官旗)·견식(肩飾) 및 충장(衷章)으로 한다.

제19조(특수제복의 제식 등) : 군인은 본령에서 규정된 제복 이외에 특수모·특수복 및 특수화를 착용할 수 있다.

이후, 군인 복제제식은 점차적으로 수정 보완을 거쳐 나갔으며, 예를 들면, 이듬해 3월 18일에는 〈각령 제1232호〉로 군모를 정모·예모 및 작업모로 개정하는 등 필요에 따라 부분 개정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갔다. 군인복제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개선활동으로 군복은 고유성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으나, 군복이 지니는 바 큰 의미 중의 하나인 품질 면에서의 개선은 여러 면에서 질적 향상을 위한 시도는 있었으나 당시의 제한된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점도 많았다.

---

1) 내용 안에는 육군편 服制 내용 외 他軍의 내용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된 1967년부터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장·정장·근무장·전투장 등의 기본 제복들을 간소화하고 품위를 높이려는 노력이 보다 고조되었고, 각령에 의해 규제되었던 군인복제도 대통령령으로 격상됨으로써 그 시행에 있어서도 더욱 강력한 바탕이 마련되어 갔다.

군인 복제제식이 1967년 1월 9일, 〈대통령령 제2869호〉로 공포되면서 예장의 차림새가 정립되고, 장교의 정모수식과 사병의 정복과 외투 그리고 전투복 등이 개정되었으며, 하약정복이 새로이 제정되었고, 대신 근무복은 폐지되었다. 개정된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대통령령 제2869호 군인복제개정의 건

1967년 1월 9일

제 2 조(정의) : 이 영(令)에서 '군복'이라 함은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 및 예식도(禮式刀) 등을 말한다.

제 4 조(군모) : 군모는 예모·정모·약모·전투모 및 특수모로 구분한다.

제 5 조(제복) : ①제복은 연미복·만찬복·예복·정복(약정복을 포함한다)·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우의 및 보조의(補助衣)로 구분하고, 만찬복·예복 및 정복은 이를 하복과 동복으로 나누며, 전투복은 해군장교에 한하여 하복과 동복으로 나누고, 약정복은 육군의 여군에 있어서는 동복, 기타의 군인에 있어서는 하복에 한한다.

②외투는 일반외투·특수외투 및 케이프로 구분하고, 우의는 일반우의와 특수우의로 구분한다.

③보조의는 와이셔츠·내의·장갑(掌匣)·넥타이 또는 보타이·양말 및 요대 등으로 구분한다.[2)]

제10조(복장의 종류) : 군인의 복장은 이를 예장(禮裝)·정장(正裝)·평장(平裝) 및 전투장(戰鬪裝)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미군의 복장 영향권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단적인 예로서 정복의 색상이 미군복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흑갈색과 카키색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

2) 원문의 '와이샤쓰'는 '와이셔츠'로, '掌甲'은 '掌匣'으로 수정하였음.

1970년대는 우리의 국가경제가 안정과 고도성장을 추구하여 끈질긴 노력이 경주되어 온 시기로써, 군도 미군의 영향을 벗어나 우리의 체질과 고유의 전통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을 꾀하여, 전반적으로 군복의 국산화와 단순화를 기하면서 군복식의 발전을 시도하는 토착화단계에 접어들었다. 1970년 이후의 군인복제 변천과정은 1970년대의 토착화 제1기와 1980년대의 토착화 제2기로 구분할 수 있다.

토착화 제1기 10년간은 5·16 군사정변 이후인 1960년대에 각령과 대통령령으로 이어지는 군인복제의 정립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의 체질과 전통에 부합되는 고유의 제복을 제정, 이를 토착화하려고 노력한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4차에 걸친 군인복제령의 개정(1971·1973·1975·1977년)은 보다 나은 군인제식을 향한 꾸준한 노력의 소산이었다. 특히 1971년의 〈대통령령 제5538호〉는 정장에 있어서 하나의 혁신을 일으켰고, 예장은 근검 절약하는 국가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1971년에 폐지하였던 예장과 1967년에 폐지하였던 근무복을 비롯한 장관급 장교의 제복을 위시하여 각종 특수요원의 행사복 등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1970년대의 10년간은 우리 민족의 5천년 역사상 경제적으로 가장 큰 발전을 이룩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성장을 배경으로 하여 1970년대는 군복에 있어서도 건군 이래 가장 큰 변혁을 가져와 우리 체질에 알맞도록 토착화시킨 기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보다 나은 발전을 향하여 1980년대를 맞으면서 또다시 한차례의 개선을 가져오게 되었다. 한국적 특징을 상징하고 군복으로서의 위엄과 품위를 견지하며 국제적 우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군인복제 개선사업은 박정희대통령의 지대한 관심 아래 1978년 5월부터 1979년 10월까지 오랜 기간의 연구와 여러 차례의 산고 끝에 이루어졌으며, 1980년 1월 9일 〈대통령령 제9713호〉로 공포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에 있어 가장 중요시한 부분은 국제적 우위성에 대한 사항으로, 1970년대에 이룩한 국가경제의 눈부신 성장에 따른 국력의 신장을 국내·외에 알리고자 군인의 품위를 돋보이게 하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창군 30년을 넘어선 육군이 그간 군복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다시 제정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동안 군복의 전통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으며, 그동안 군의 성장과 더불어 군복도 장족의 발전을 가져옴에 따라 약간의 개선보다는 전통성을 유지하는데 더욱 관심을 두고 개선한 것이다.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제복과 차림새는 정복의 색상을 보다 위엄성이 있는 색상으로 개정한 것과 예장과 정장에 부착하는 표지장으로 무궁화금장(無窮花襟章)과 육군휘장을 새로이 제정하고,

예복 계급장을 보다 품위있게 개정한 것을 위시하여, 1983년에는 외투의 색상을 정복 색상에 맞추어 개정하고, 1985년에는 하사관 예복을 장교에 준하여 확대 제정하는 한편 전투모와 전투화를 개정(1983년)하고, 1990년에는 전투복장 일체를 얼룩무늬 위장색으로 개정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第1節 服 裝

1. 一般服裝

가. 禮 裝

1948년 이후 인사지시(人事指示)에 의해 착용하여 오던 미군 제식의 예복은 1954년 이후 육군잠정규정(陸軍暫定規定)으로 제정하여 계속 착용하여 왔으나, 1958년 8월 15일, 〈육군규정 제670-1호〉에 의거, 새로이 제식을 제정하면서 종전에 착용하였던 예복은 정복으로 전환하여 착용하게 하였다. 새로 제정된 예복은 일반예식 때 착용하는 예복과 야회에 참석할 때 입는 야회복[燕尾服] 그리고 연회에 참석할 때 착용하는 만찬복 등 3종류로 구분함으로써 육군복제사 초유의 획기적인 제식이었다.

야회복은 구한말 문무대관들의 복식이 서구화될 때 주로 문관들이 대례복(大禮服)으로 착용하던 것과 같은 모양이었고, 만찬복 역시 서양식 제복을 모방한 것이었다. 비록 예복들이 서양식을 본떠 모양은 같았으나, 우리 군으로서는 창군 이후 최초로 제정된 제식이었고, 당시 해외 근무장교들이나 국내에서 외국군과 자주 접촉을 갖는 고급장교들에게는 한국군으로의 자긍심을 갖는데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1959년에는 여군의 예복도 새로운 제식으로 개정하였다.

1958년에 제정된 예복과 야회복 그리고 만찬복 등의 예장 복식은 1962년에 일부 개정되어, 소매의 수장과 하의 측면 띠(봉장) 그리고 예복 계급장과 예복의 차림새 등이 개정되거나 추가되었다. 군인복제가 1967년 1월 9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면서 예장은 예장 자체의 복식과 제식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경도 하지 않았으나 다만 제복을 차려입는 차림새에 따라 호칭을 달리 구분하였고, 사병의 예복도 새로이 추가로

예장의 차림새 및 착용시기

구분	야 회 복	만 찬 복	예 복
차림새	· 예 모 · 야회복 · 단 화 · 케이프(冬期에 한함) · 계급장 및 袖章 · 훈(기)장의 정장 또는 축소훈장 · 백색 와이셔츠 및 조끼 또는 속띠 · 백색 또는 흑색 보타이	· 야회복 대신 착용하고 기타는 야회복과 동일함	· 야회복 대신 예복을 착용하고 보타이 대신 흑색 넥타이를 착용하며 기타는 야회복과 동일함
착용시기	· 대통령 이·취임식 및 취임 축하연회 참석시 · 대통령에게 신년하례시 · 재외공관 주재무관 또는 외국여행자가 當該國의 관례상 필요시 · 초청장에 지정시 · 기타 참모총장 지정시	· 국제성을 띤 연회 참석시 · 초청장에 지정시 · 기타 참모총장 지정시	· 국내외의 큰 예식에 참석시 · 외국의 고급문무관을 예방 또는 응대시 · 신년하례시(대통령에게는 야회복) · 관혼상제에 참석시 · 초청장에 지정시 · 기타 참모총장 지정시

개정함에 따라 이제 예장은 장교예장과 사병예장으로 구분되게 되었다.

장교의 예장은 특례장과 상례장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갑과 을로 세분하였는데, 야회복차림은 특례장(特禮裝) 갑(甲), 만찬복 차림은 특례장 을(乙), 예복차림을 상례장(常禮裝) 갑(甲), 정복에서 일부 복식품을 바꾸어 착용하는 예장을 상례장 을(乙)로 분류하였으며, 사병의 예장은 정모와 정복 그리고 단화를 착용하고, 계급장과 훈장 그리고 정근장(精勤章)과 기타 표지물을 부착하였다.

구 분	차 림 새	착 용 시 기
특례장甲	· 예 모 · 연미복 · 단 화 · 케이프(동절기에 한함) · 견장(예복 계급장) · 훈(기)장의 정장 또는 축소훈장 · A형 와이셔츠 조끼, 속띠 · 백색 또는 흑색 보타이	· 대통령 이취임식 및 취임축하연회에 참석시 · 대통령에게 신년하례시 · 재외공관 주재무관 또는 외국여행자가 當駭國의 관례상 필요시 · 초청장에 지정시 · 기타 참모총장이 지정시
특례장乙	· 예 모 · 만찬복 · 단 화 · 케이프(동절기에 한함) · 견장(예복 계급장) 및 수장 · 훈(기)장의 정장 또는 축소훈장 · A형 B형 와이셔츠 및 조끼, 속띠 · 백색 또는 흑색 보타이	· 국제성을 띤 연회에 참석시 · 초청장에 지정시 · 기타 참모총장 지정시
상례장甲	· 예 모 · 예 복 · 단 화 · 케이프 또는 외투(동절기에 한함) · 견장(예복 계급장) 및 수장 · 훈(기)장의 정장 또는 축소훈장 · 백색 C형 와이셔츠 · 흑색 넥타이 ※넥타이 대신 보타이를 사용하면 특례장 을로 가름함	· 국내외의 큰 의식에 참석시 · 외국의 고급 문무관을 예방 또는 응대시 · 신년하례시(대통령에게는 특례장 갑) · 관혼상제에 참석시 · 초청장에 지정시 · 기타 참모총장 지정시
상례장乙	· 정 모 · 정 복 · 단 화 · 외 투(동절기에 한함) · 견장(예복 계급장) · 훈(기)장의 정장 또는 약장 · 백색 C형 와이셔츠 · 흑색 넥타이 ※넥타이 대신 보타이를 착용하면 상례장 갑으로 가름함	· 국내외의 일반의식 및 행사에 참석시 · 신년하례시(대통령에게는 특례장 갑) · 관혼상제에 참석시 · 초청장에 지정시 · 기타 참모총장 지정시

(1) 예 복

(가) 1958년~1961년까지의 예복

1948년 이후 미 군원으로 도입된 예복을 착용해 오던 육군은 1955년 6월 15일, 〈육군잠정규정 제7호〉로 한국고유의 예복 제식을 나름대로 고안 제정하였다. 그러나 복지 획득이 곤란하여 규정만 있고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었고, 그 해 11월에 미군 예복 67,000여 벌이 군원으로 도입되자 이들 예복을 새로운 제식의 예복으로 개조하려 하였으나 바탕 모양이 완전히 달랐던 까닭에 개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지급함에 따라 새로운 제식의 예복은 시행되지도 못한 채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3] 그 후, 1958년 8월 15일, 〈육군규정 제670-1호〉로 흑색의 동복과 백색의 하복으로 구분한 정복양식을 본뜬 예복 제식을 다시 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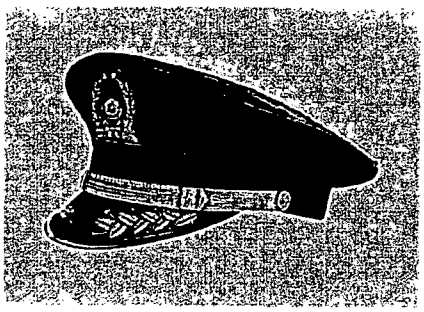
1) 남 군

1948년 이후 정모를 겸하여 착용하던 흑갈색 멜턴재질의 예모는 1954년 9월 1일, 형태의 변경없이 재질만 흑갈색의 서지재질로 바뀌었다. 1958년 8월 15일, 예복을 서양식 예장으로 개정할 때 예모도 일부 변경되어, 예모는 형태와 재질은 그대로 두고 모자의 색상과 턱끈의 색상 그리고 차양(遮陽)의 수식(修飾)을 획기적으로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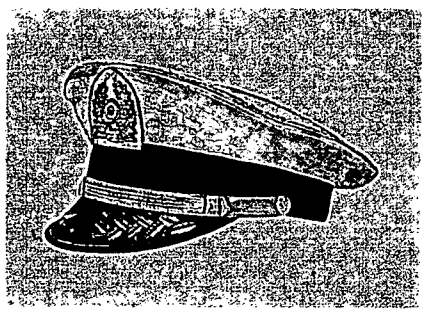
색상은 예복 색상에 맞추어 동모(冬帽)는 흑색, 하모(夏帽)는 백색으로 하고, 동·하 공히 갈색 턱끈을 황금색 금사직으로 바꾸었으며, 차양도 위관급과 소령의 것은 수장이 없는 검정색 가죽이나 비닐로, 중령과 대령 및 장관급 장교의 경우 검정색 융직 위에 황금색 금사모르로 무궁화와 무궁화 잎을 수식하였다. 이때 수식의 수효는 중령과 대령의 것은 꽃잎 14개·꽃봉오리 6개·핀 꽃 2개로 하고, 장관급 장교는 꽃잎 16개·꽃봉오리 10개·핀 꽃 2개씩을 수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식은 당시의 미군 제식을 그대로 본받은 것이었는데, 차양의 수식을 중령급 이상으로 규제한 것은 대대장급 지휘관이나 사단급 이상 부대의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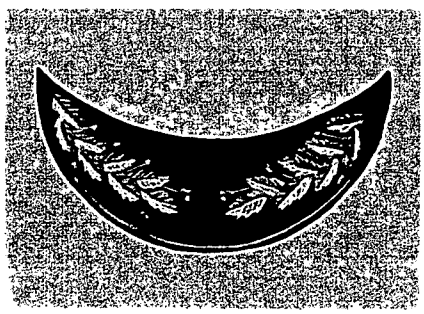
3) 아쉽게도 당시 고안되었던 예복 제식에 관련된 내용은 필자가 관련근거와 자료를 입수하지 못해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못하나, 개조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당시 제정된 제식은 상당부분 우리 민족 고유의 것을 본뜬 것으로 간주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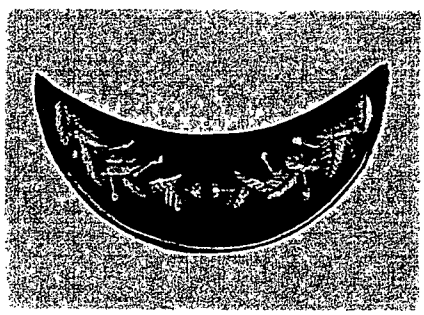
동 예모(1958년~1961년)



하 예모(1958년~1961년)



장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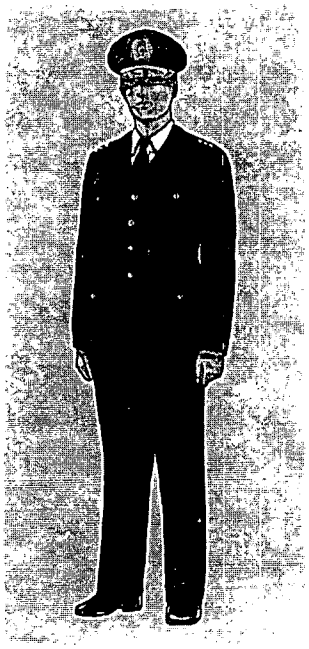
영관(소령 제외)

차양(1958년~196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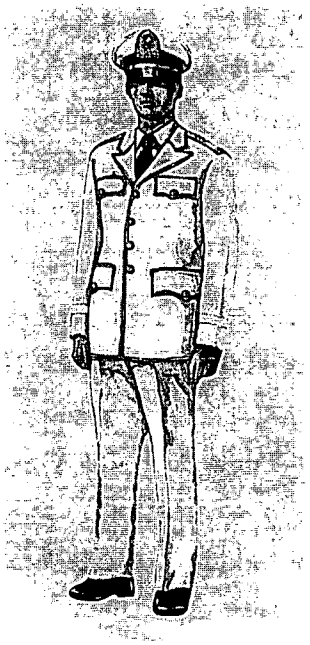
〈예모(1958년~1961년)〉

모장교의 계급을 고려한 것이었다. 예복은 야회복이나 만찬복 등의 다른 예장과 동일하게 동복은 흑색, 하복은 백색의 모직으로 제작된 신사복 형태였다. 상의는 테일러 칼라의 한 줄 4단추의 저고리로서, 어깨에는 견장대, 흉부와 허리부위의 좌·우측에는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각각 부착하였고, 소매에는 수장(袖章)으로 폭 2.5㎝의 복지색 편직 띠를 부착하였으며, 앞면의 중형 단추와 견장대 및 주머니의 소형 단추는 황금색의 금속장이었다.

하의는 일반형의 보통바지로서 둔부 좌·우측에는 I형의 속붙임 주머니(vertical slit pocket : 포켓의 입구를 수직으로 낸 포켓), 뒤쪽 상단 좌·우측에는 속붙임 뚜껑주머니(flap pocket : 뚜껑이 있는 포켓)를 각각 부착한 것이었고, 동복에 한하여 양 측면 봉제선상에 폭 2.5㎝의 검정색 편직 띠 [縫章] 를 부착하였다. 신은 흑색 가죽의 일반 군용단화를 신었고, 상의 속에는 백색 와이셔츠에 검정색 넥타이를 받쳐 입었으며, 표지물은 견장대에 계급장, 윗깃에는 '대한' 표지, 아랫깃에는 병과휘장을 부착하였다.



동 복



하 복

〈예복(1958년~1961년)〉

2) 여 군

여군장교의 예복은 6·25전쟁 이전부터 간호장교들이 착용하여 오던 정복 제식의 예복을 1954년 9월 1일, 〈육군잠정규정 제24호〉로 여군의 정식 예복으로 규정하였다. 동예복은 흑갈색 모직의 서지재질이고, 하복은 카키색의 포럴재질이었다. 1959년 2월 15일에는 종전의 예복 제식을 〈육군규정 제652-2호〉로 재확정하였지만 실제로 착용한 적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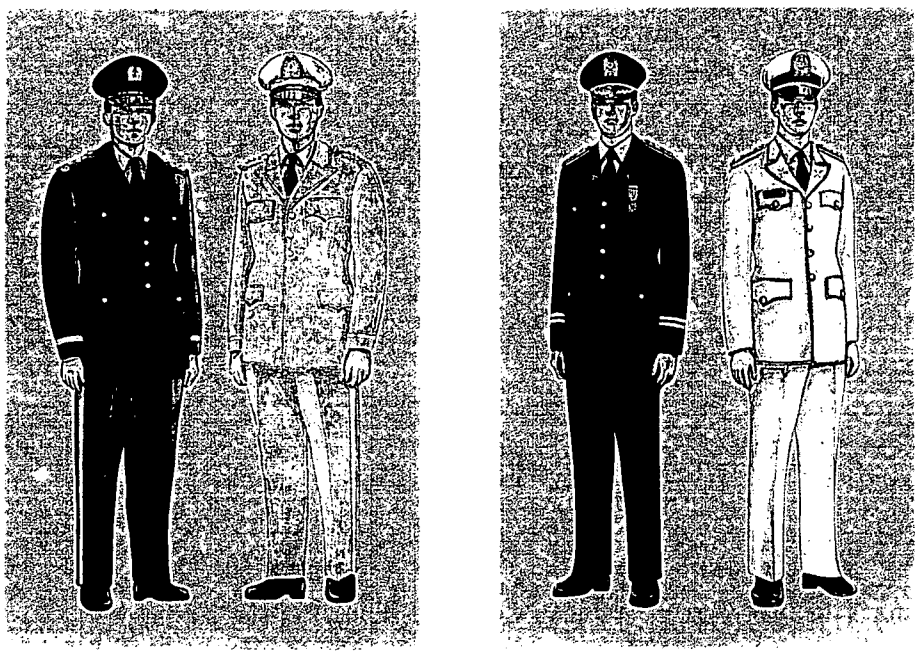
(나) 1962년~1970년까지의 예복

1) 남 군

1958년에 제정된 예복은 착용빈도로 보아 그 필요성이 과거에 비해 감퇴되었음은 물론 보급마저 부진하여 이를 폐지하고, 1962년 4월 27일, 〈각령 제700호〉로 정모와 정복의 복식을 일부 보완하여 예복으로도 겸용하도록 하였다. 예모는 정모의 윗 덮개 위에 예복의 상의색상에 맞추어 동복에는 검정색 덮개, 하복에는 흰색 덮개를 씌

워서 착용하도록 하였다. 예복은 동·하정복(동복은 흑갈색, 하복은 카키색)의 상의 소매에 개정된 야회복과 만찬복에 부착한 수장과 같은 형태의 황금색 편직 띠를 위관은 폭 1.5㎝ 1조·영관은 폭 3㎝ 1조·장관은 폭 3㎝ 1조와 1.5㎝ 1조를 붙이고 그 위에 ♧형의 수식을 각각 부착하였고, 하의의 측면 봉제선상에는 관등의 구분없이 폭 3㎝의 황색 편직 띠[縫章]를 부착하였다.

기타 복식으로는 흰색 와이셔츠에 검정색 넥타이를 받쳐 입고, 흰색 장갑을 끼었으며, 어깨에는 새로 제정된 예복 계급장을 달고 양측 깃에는 병과휘장을 각각 부착하였다. 그후 이같은 정복과 예복의 겸용 제식은 모자의 윗 둘레를 바꾸는 일과 예복의 상의 수장과 하의 봉장을 바꾸는 일 등이 번거로워, 1963년 3월 18일에는 종전 1962년 이후에 착용하던 예복과 같은 형태의 동·하예복을 다시 제정하였다. 예모는 정모의 골격 위에 동예복을 착용할 때에는 흑색 모테에 검정색의 모자 덮개가 붙은 것을 씌우고, 하예복을 착용할 때에는 흑색 모테에 흰색의 모자 덮개가 붙은 것을 씌워 착용하였다.



동 복 하 복
1962년~1963년

동 복 하 복
1963년~1970년

〈예복(1962년~19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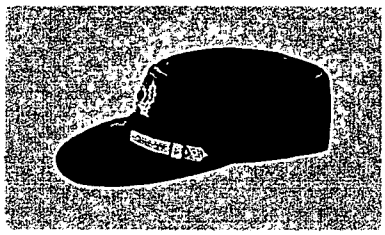
예복의 상의는 테일러 칼라에 1줄로 황금색 금속장 단추 4개를 부착한 저고리로, 어깨에는 견장대 대신 계급장 부착고리를 아래와 위쪽에 부착하고 흉부 좌·우측과 허리의 좌·우측에는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각각 부착하였으며, 동예복에만 소매의 하단부에 황색 편직의 수장을 위관은 폭 1.5㎝ 1조·영관은 폭 1.5㎝ 2조·장관은 폭 6㎝ 1조씩을 각각 부착한 형태였다. 상의 속에는 흰색 와이셔츠에 검정색 넥타이를 받쳐 입었으며, 표지물로는 어깨에 예복 계급장을 달고 양측 깃에는 병과휘장을 부착하였다.

하의는 보통형의 일반바지로서 대퇴부 좌·우측에는 수직으로 트인 속붙임주머니, 뒤쪽 둔부 좌·우측에는 속붙임 뚜껑주머니, 앞면 우측 상단에는 수평으로 트인 소형주머니를 각각 부착한 형태였는데, 동복에만 양측 봉제선상에 흑색의 편직으로 된 봉장을 위관은 폭 1.5㎝ 1줄·영관은 폭 3㎝ 1줄·장관은 폭 1.5㎝ 2줄씩을 각각 부착하였다. 예화는 흑색의 일반 군용단화를 착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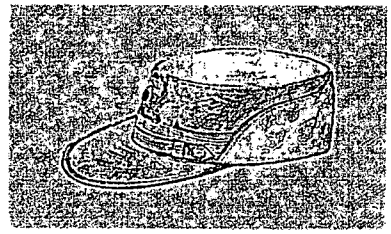
2) 여 군

여군의 예장은 남군과 같이 예복·야회복·만찬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1963년 3월 18일의 〈각령 제1232호〉에 의해 남군의 예복이 다시 제정될 때 여군은 예복만을 제정하였다. 색상은 남군과 같이 동복은 흑색, 하복은 백색으로 하였으며, 형태는 정복과 같은 모양이었으나 예모만을 새로운 형태의 모자로 제정하였다. 당시의 작업모와 유사한 원통형 모자에 양 측면에서 뒤쪽으로 연하여 밖으로 귀덮개와 같은 모자높이의 덧붙임을 부착한 형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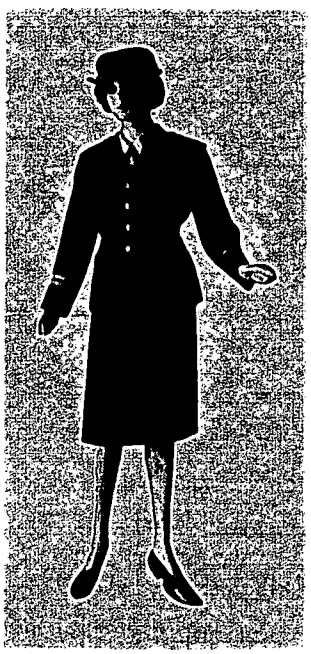
예복은 재킷과 스커트로 구성된 투피스의 슈트로서, 상의는 테일러 칼라의 한 줄 황금색 금속제 중형 단추 4개의 저고리였고, 소매에 수장으로 황색 편직 띠를 관등에 따라 위관은 폭 1.5㎝ 크기로 1줄, 영관은 폭 1.5㎝ 크기로 2줄을 부착하였으며, 상의 속에는 백색 블라우스에 검정색 넥타이를 받쳐 입었다. 하의는 H형의 타이트 스커트(Tight skirt)였고, 예화는 중간 높이의 굽이 얕은 검정색 힐(Midi heel)을 신었으며, 표지물로는 어깨에 예복계급장, 양측 깃에 병과휘장을 각각 부착하였다.



동 모



하 모



동 복



하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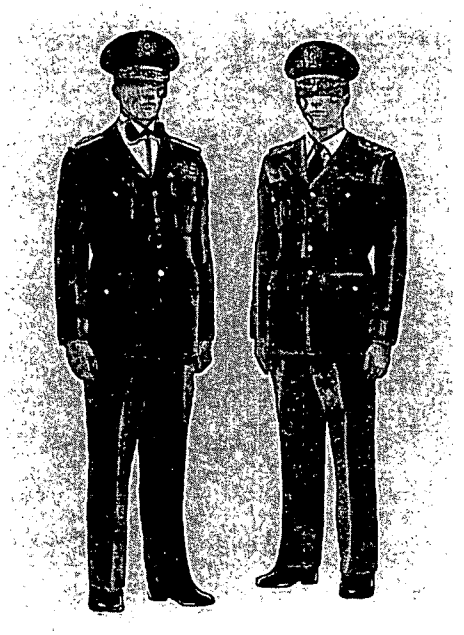
〈여군 예장(1963년~1970년)〉

(다) 1971년 이후의 예복

1958년 이후 계속 발전시켜온 야회복·만찬복·예복 등의 예장은 비록 대통령령에 의해 복제령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극히 제한된 일부 고급장교들에게만 지급되었을 뿐 대부분의 장교들에게는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따라서 각종 행사시와 의식시에 통일된 복장으로 착용할 수가 없어 누구나 손쉽게 착용할 수 있는 제복으로 단순화를 시켜야겠다는 취지로 1971년 2월 25일, 〈대통령령 제5538호〉를 공포하여, 개정된 정복을 기본으로 하는 보다 간소한 양식의 예복으로 바꾸고, 특례장과

구분	차 림 새	착 용 시 기
특 례 장	· 정 복 · 정 모 · 단 화 · 외투(冬期에 한함) · 견장 및 수장 · 훈(기)장의 정장 또는 축소 훈장 · 백색 와이셔츠 · 백색 또는 흑색 보타이 (동계 : 흑색, 하계 : 백색)	· 대통령 이·취임식 축하연회 참석시 · 대통령이 참석하는 야간연회 참석시 · 국제성을 띤 연회참석시 · 재외공관 주재무관 또는 외국여행자가 당해국의 관례상 필요시 · 초청장에 지정시 · 기타 참모총장 지정시
상 례 장	· 보통형의 백색 와이셔츠에 보타이 대신 흑색 넥타이를 착용하는 외에는 특례장과 같다.(필요시 禮式刀 휴대) · 사병의 경우는 훈기장의 약장, 수장 대신 정근장을 부착하는 외에는 장교와 같다.	※장교 사병 공통 · 대통령 이·취임식 및 국·내외의 큰 의식에 참석시 · 외국의 문무관을 예방 또는 응대시 · 관혼상제에 참석시 · 초청장에 지정시 · 기타 참모총장 지정시

상례장으로 분류하였다. 그후, 1971년에 개정된 정복 겸용 제식은 재외공관 무관과 해외여행자들이 당해국의 행사에 참석할 때 외국군 예장에 비하여 그 복장이 초라할 뿐 아니라 국내의 각종 의식행사에 참석할 때에도 문관들에 비해 고급장교들의 차림새가 뒤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 예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1975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7837호〉에 의하여 종전의 예장 제식에서 야회복만을 제외하고 만찬복과 예복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예모도 따로 제정하였다. 이때, 여군은 예복을 만찬복으로 겸용하도록 하고, 사병은 정복으로 예장을 겸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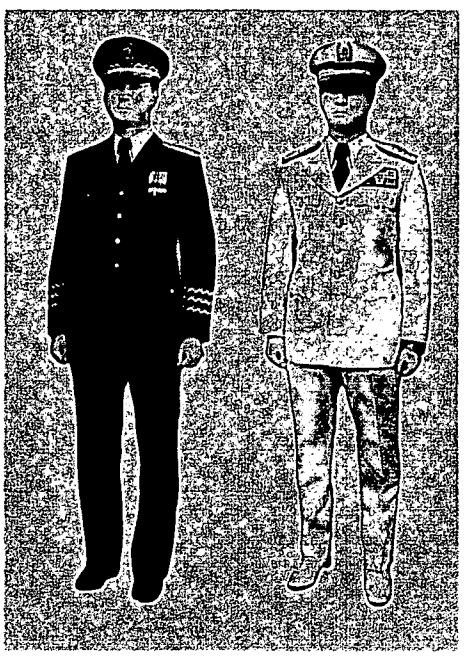
특례장 상례장

〈예장(1971년~1975년)〉

구분	차 림 새	착 용 시 기
특례장	· 예 모 · 예 복(만찬 또는 연회 참석시 만찬복) · 단 화 · 견장 및 수장 · 훈(기)장의 정장 또는 축소훈장 · 백색 와이셔츠 · 흑색 넥타이(만찬복에는 보타이) · 禮式刀(필요시)	· 대통령 이·취임식 · 대통령이 참석하는 연회 및 국제성을 띤 연회에 참석시 · 외국 고급문무관 예방 및 응대시 · 신년하례시 · 관혼상제 참석시 · 초청장에 지정시 · 기타 참모총장 지정시
상례장	· 정 모 · 정 복 · 단 화 · 외투(冬期에 한함) · 훈(기)장의 정장 또는 그 약장 · 계급장, 정근장 및 기타 표지물 · 백색 와이셔츠 · 흑색 넥타이	· 장교에 준함

새로 제정된 예복의 색상은 다른 예장과 같이 동복은 흑색, 하복은 백색이었으며, 형태는 정복과 같은 모양이었다. 어깨에는 예복 계급장걸이를 붙이고, 흉부 좌·우측과 허리의 좌·우측에는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각각 부착하였으며, 동복에만 만찬복과 같이 소매에는 수장을 두고, 바지의 양측 봉제선상에 흑색 편직띠를 부착하였고, 모자와 예화도 예복 색상에 맞추어 동복에는 흑색, 하복에는 백색의 예모와 예화를 각각 착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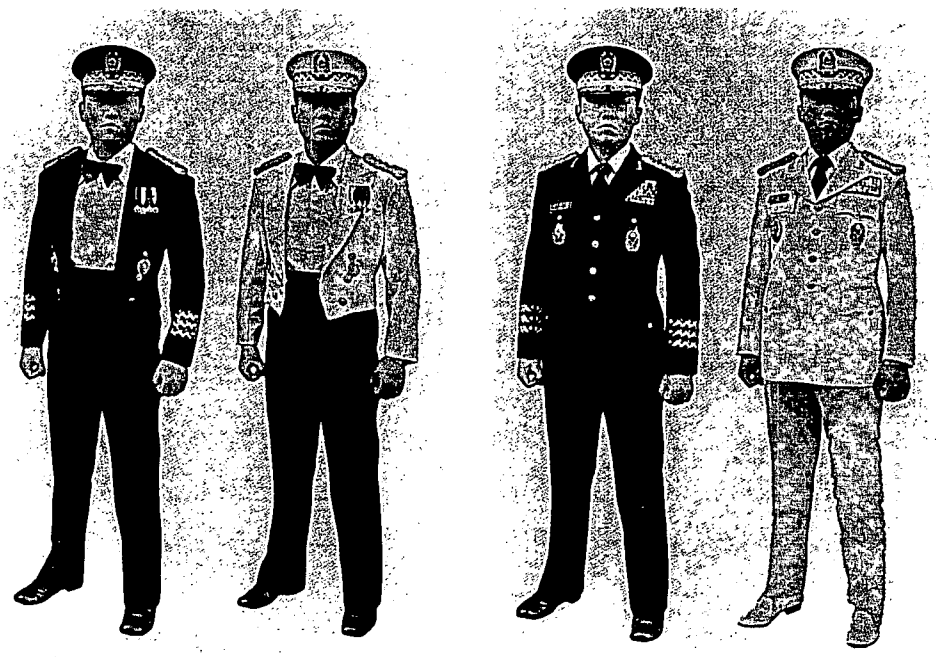
1980년 1월 9일, 〈대통령령 제9713호〉에 의해, 장교의 예복과 만찬복은 제식면에서는 변함이 없었으나 복식품의 일부인 예복 계급장이 변경되고 무궁화금장과 육군휘장을 1980년 7월 1일부터 부착하게 되면서 예장의 차림새도 일부 달라졌다.



동 복 하 복

〈예복(1975년~1979년)〉

예복차림에는 어깨에 변경된 예복 계급장을 부착하고, 양측 윗깃에는 무궁화금장, 아랫깃에는 병과휘장(장관급 제외), 우측주머니 중앙에는 육군휘장을 각각 부착하게 되었으며, 근속(勤續) 30년이 된 장병은 근속 30년 기념휘장을 우측주머니 중앙에 육군휘장을 우선하여 부착하고, 지휘관 휘장은 우측주머니 중앙에 부착하도록 하였다.(만찬복에는 무궁화 금장만을 부착하지 않을 뿐 예복 계급장과 육군휘장이나 근속 30년 기념휘장 그리고 지휘관휘장은 예복에 준하여 부착하였다.)



동 복 하 복 동 복 하 복

만찬복 예 복

〈장교 예복(1980년~1990년)〉

1985년 9월 13일에는 〈국인근 제24171-893호〉로 사병의 예복 제식을 장교와 동일한 색상과 형태로 제정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별도의 예복 제식 없이 정복을 예복으로 착용함에 있어 품위가 미흡하고, 장교의 예복 차림새와 일치하지 않음은 물론 주요행사에 초청되거나 참석시에 보다 품위를 향상시킬 필요성에서 제정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한정된 인원(육본·연합사의 주임상사 등)에게만 보급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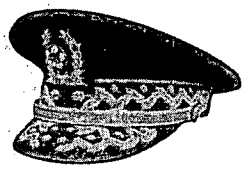


〈사병 예복(1983년~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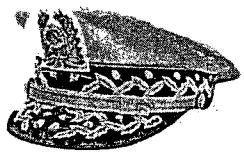
되는 부착물은 정복에 준하여 양측 팔의 상단에는 정장 계급장, 하단에는 정근장을 부착하고, 양측 깃에는 병과휘장, 좌측주머니 중앙에는 직위휘장을 부착하였다.

1) 예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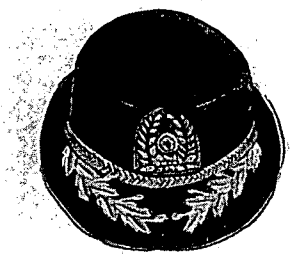
예모의 형태와 수식은 정모와 동일한 제식으로 제정하였으나, 예모의 윗둘레만은 예복의 상의 색상에 맞추어 동모는 검정색, 하모는 흰색으로 하였고, 모테와 차양은 동·하모 공히 검정색으로 하였다. 차양의 수식은 정모의 차양 수식과 동일하게 관등에 따라 장식하여, 장관급 장교의 모테에는 차양의 무궁화 수식과 같은 형태의 무궁화 수식(꽃잎 38개·꽃봉오리 18개·핀 꽃 2개)을 황금색 금사모르로 장식하였으며, 모테 상단과 윗둘레 하단의 접촉 부위에는 폭 0.3㎝의 황금색 금사모르로 엮은 보조띠를 부착하였다. 장교의 턱끈은 폭 1.5㎝의 황금색 편직이고, 사병의 턱끈은 검정색 비닐 또는 가죽이었다.(여군의 예모도 형태와 수식은 정모와 같게 하였으나 색상만은 예복에 맞추어 동모는 검정색, 하모는 흰색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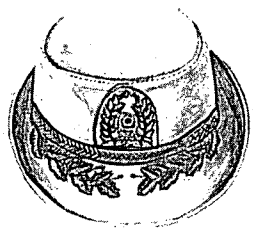
동 모



하 모



여군동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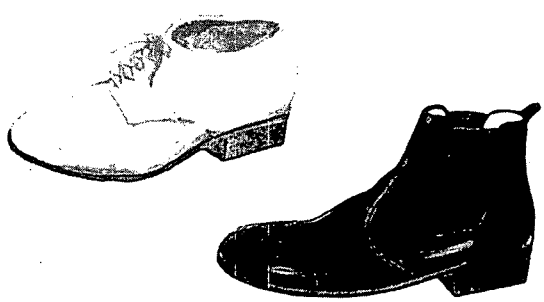


여군하모

〈예모(1975년~1990년)〉

2) 예 화

예화는 흑색과 백색의 2종류가 있었으며, 흑색 예화는 목이 긴 구두로서 목부위 양 측면 중앙에 신축성을 지닌 폭 7㎝ 내외의 고무편직(編織)을 부착한 모양이었고, 백색 예화는 단화로서 5쌍의 구멍에 끈을 매도록 한 일반 군용단화 형태였다. 이들 예화는 예장의 바지 색상에 맞추어 착용하였는데, 흑색 예화는 동·하 만찬복과 동 예복에 착용하고, 백색 예화는 하예복에 착용하였다.



〈예화(1975년~1990년)〉

(2) 약례장(1980년~1990년)



〈약례장(1980년~현재)〉

군인복제령에는 예장이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장관급 장교와 주외(駐外) 무관 그리고 일부 고급장교의 수행원에게만 한정 보급함에 따라 예복을 지급받지 못하는 장교들이 많았다. 이에 정복으로 예장차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바로 약례장(略禮裝)이다.

정복차림에 예복 계급장을 부착하고, 참모 견식(參謀 肩飾)이 아닌 예복용 견식을 패용하고, 백색 와이셔츠를 착용하도록 하였다.(여군장교는 예복 계급장을 부착하고, 견식 줄만 추가하면 예장으로 대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 약례장의 착용시기는 예장에 준하도록 하였다.

(3) 야회복

(가) 1958년~1962년까지의 야회복

야회복(Evening dress)은 서양에서 야간에 제1예복[4]으로 착용하였던 옷으로, 상의의 뒷자락이 제비 꼬리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연미복(燕尾服 : Swallow tail coat)이라고도 불렀다. 육군에서는 주·야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야회복과 모닝 코트(Morning coat)[5]를 겸용하는 제복으로 이 복장을 제정하였다. 흑색 방모직(紡毛織)의 나사지(羅紗地)로 제작된 야회복은 예모·예화·보조의(補助衣 : 와이셔츠·조끼·보타이) 등이 일습(一襲)으로 구성되었다.

상의는 깃의 몸판 깃 머리부분이 날카롭고 뾰족한 모양의 칼 깃과 두 줄 6개 단추 저고리에, 어깨에는 일반 연미복에서는 볼 수 없는 견장대를 달고, 소매에는 흑색 수장으로 폭 2.4㎝의 편직 띠를 부착하였다. 황금색 금속제 중형 단추를 앞면에는 6개, 뒷면 허리부위에는 2개를 달았다. 상의 속에는 윙 칼라(Wing collar : 목 뒷부분은 목주

4) 만찬회·觀劇·무도회 등에 참석할 때 착용하는 복장
5) 20세기에 접어들면서 晝間에 남성 예복으로 착용되는 코트이다. single breast와 1개의 단추, 斜線으로 된 앞 라인과 뒤에 깊은 center bent가 특징이다.

위를 따라 세워지고, 앞부분은 목에서 떨어지면서 마치 새가 날개를 펼친 것처럼 젖혀진 칼라)형 와이셔츠에 검정색 나비 넥타이(bow tie)를 매고, 그 위에 조끼를 겹쳐 입었다.

하의는 일반형의 보통 바지로서, 둔부 좌·우측에는 수직으로 트인 속붙임주머니, 뒤쪽 상단 좌·우측에는 속붙임 뚜껑주머니, 앞면의 우측 상단에는 작은 속붙임의 한쪽입술 주머니(jetted[6] double pocket)를 각각 부착한 형태였고, 하의의 양 측면 봉제선상에는 관등(官等)을 표시하는 흑색 편직 띠를 위관은 폭 1.5cm 크기로 1줄, 영관은 폭 3cm 크기로 1줄, 장관은 폭 2.5cm 크기로 2줄을 부착하였다. 표지물은 견장대에 계급장, 양측 깃에는 병과휘장을 부착하였다. 예화는 흑색 가죽의 일반형 군용 단화를 착용하였다.

(나) 1962년~1970년까지의 야회복

1962년 4월 27일의 〈각령 제700호〉로 개정된 야회복은 1958년에 최초로 제정되었던 연미복과 같은 형태였으나, 상의의 소매 수장과 하의의 측면 띠인 봉장을 다르게 하고, 어깨에 견장대가 없는 제식이었다. 상의의 수장은 소매의 하단부에서 위쪽으로 7cm되는 위치에 황금색 편직 띠를 관등에 따라 위관은 폭 1.5cm 크기로 1줄, 영관은 폭 3cm 크기로 1줄, 장관급은 폭 3cm와 1.5cm 크기를 각각 1줄씩 부착하고, 그 위쪽에 관등에 구분없이 크로바문양(♧)을 봉직(縫織)한 형식이었다. 하의의 측면 봉장은 관등의 구분없이 전 장교가 폭 3cm의 황색 편직 띠를 부착한 형식이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예복 계급장이 제정되면서 어깨의 견장대는 없애고, 어깨부위의 위와 아래쪽에 폭 0.5cm의 복지색 띠를 가로로 부착하였다. 다음해인 1963년 3월 18일에 야회복 제식은 〈각령 제1232호〉로 일부 수정되면서, 종전의 수장에 부착한 크로바문양이 그 형상이 조잡하고 봉직시에 불편이 있어 이를 제거하고 황색 편직 띠만을 위관은 폭 1.5cm 크기로 1줄, 영관은 폭 1.5cm 크기로 2줄, 장관은 폭 6cm 크기로 1줄을 부착한 형태로 변경하였고, 하의 혹은 종전의 황금색 편직 띠는 야회복이 지니는 차분한 분위기에 맞지 않아 보다 엄숙하고 심원(深遠)한 느낌을 주는 검정색 편직 띠로 변경하면서 관등에 따라 위관은 폭 1.5cm 크기 1줄, 영관은 폭 3cm 크기로 1줄, 장관급은 폭 1.5cm 크기로 2줄씩을 각각 부착하였다.

---

6) 뚜껑이 없고 박은 자리가 겉으로 보인다는 의미.



1958년～1962년



1962년～1963년



1963년～1967년

〈야회복(1958년～1967년)〉

(4) 만찬복

(가) 1958년～1962년까지의 만찬복

엄격한 의미에서 만찬복(晩餐服)은 서양에서 착용하던 디너 재킷(Dinner jacket : 야간의 약식 예장)을 뜻하는 것이나, 군에서 제정한 만찬복의 모양은 이와는 다른 메스 재킷(Mess jacket) 형태로서, 메스 재킷은 연미복에서 꼬리를 잘라 낸 형태의 만찬복을 말한다.[7] 동복의 상·하의는 흑색이었고, 하복의 경우 상의는 백색이고 하의는 흑색이었으며, 재질과 형태는 동·하복이 같았다. 만찬복의 제식은 앞에서 기술한 야회복의 상의와 유사한 형태였으나 뒷자락이 없는 모양이었으며, 어깨에는 견장대, 소매의 수장은 관등의 구분없이 폭 2..5㎝의 복지색 편직 띠를 부착하였고, 앞면의

7) 메스 재킷은 1950년대 초까지 보여지지만, 오늘날에는 레스토랑 관계자들의 유니폼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이다.



동만찬복



하만찬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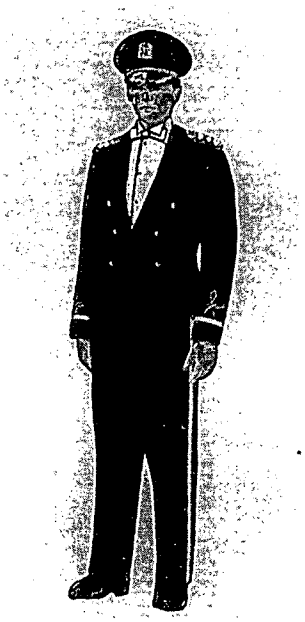
〈만찬복(1958년~1962년)〉

중형 단추와 견장대의 소형 단추는 황금색 금속제(金屬製)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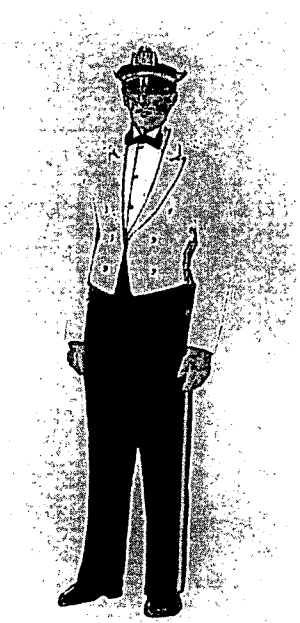
하의는 일반형의 보통 바지로서 둔부의 좌·우측에는 수직으로 트인 속붙임주머니, 뒷면 상단 좌·우측에는 속붙임 뚜껑주머니, 앞면 우측 상단에는 작은 속붙임의 한쪽입술주머니를 각각 부착하였고, 양 측면의 봉제선상에는 관등을 표시하는 흑색 편직 띠를 관등에 따라 위관은 폭 1.5㎝ 크기로 1줄, 영관은 폭 3㎝ 크기로 1줄, 장관급은 폭 1.5㎝ 크기로 2줄을 각각 부착하였다. 상의 속에는 야회복에 착용하였던 윙 칼라형의 와이셔츠에 검정색 나비 넥타이를 매고, 그 위에 백색조끼를 받쳐 입었으며, 표지물 역시 야회복과 같이 견장대에 계급장, 양측 깃에는 병과휘장을 각각 부착하였다. 예화는 흑색 가죽의 일반형 군용단화(5쌍의 구멍에 끈을 묶은 형)를 착용하였다.

(나) 1962년~1970년까지의 만찬복

1962년 4월 27일의 〈각령 제700호〉에 의거, 만찬복은 동복의 상의 수장과 동·하복의 하의 봉장을 야회복과 동일한 형태로 변경하였다.



동만찬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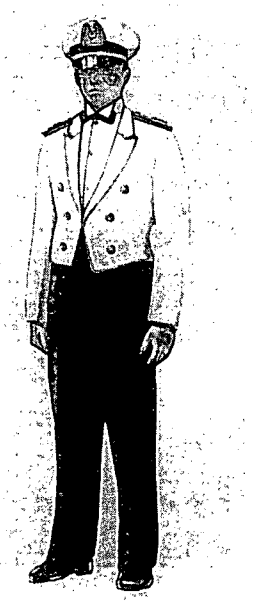


하만찬복

〈만찬복(1962년~196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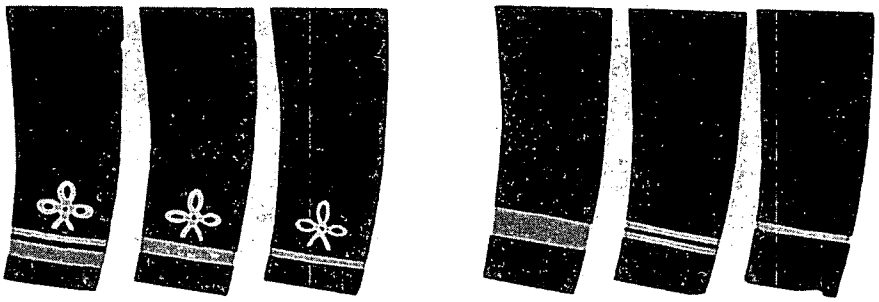


동만찬복



하만찬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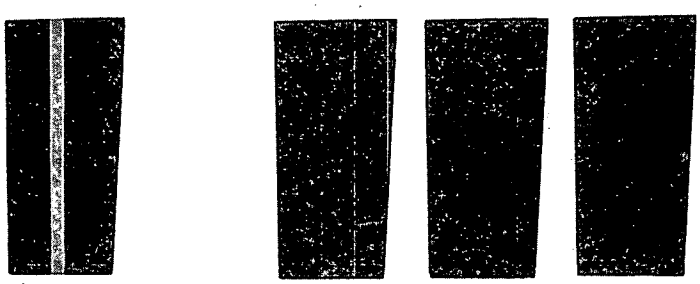
〈만찬복(1963년~1970년)〉



장관 영관 위관 장관 영관 위관

1962년 1963년

수 장



공통 장관 영관 위관

1962년 1963년

바지띠

〈수장 및 봉장(1962년~1970년)〉

하복의 경우 백색 상의의 백색 수장은 제거하고, 동복의 흑색 상의에만 수장으로 황색의 편직 띠를 관등에 따라 위관은 폭 1.5cm 크기로 1줄, 영관은 폭 3cm 크기로 1줄, 장관은 폭 3cm 크기의 1줄과 1.5cm 크기의 1줄씩을 각각 부착하고 그 상단부에 황색의 크로바문양(♧)을 부착하였으며, 하의의 봉장은 동·하복 공히 야회복과 같이 관등에 관계없이 폭 3cm의 황색 편직 띠를 부착하였다.

그후 1963년 3월 18일의 〈각령 제1232호〉에 의거, 만찬복의 수장과 봉장도 야회복과 동일한 형식으로 변경하였다. 동복 상의 수장은 종전의 크로바문양은 없애고, 황색 편직 띠만을 위관은 폭 1.5cm 크기로 1줄, 영관은 폭 1.5cm 크기로 2줄, 장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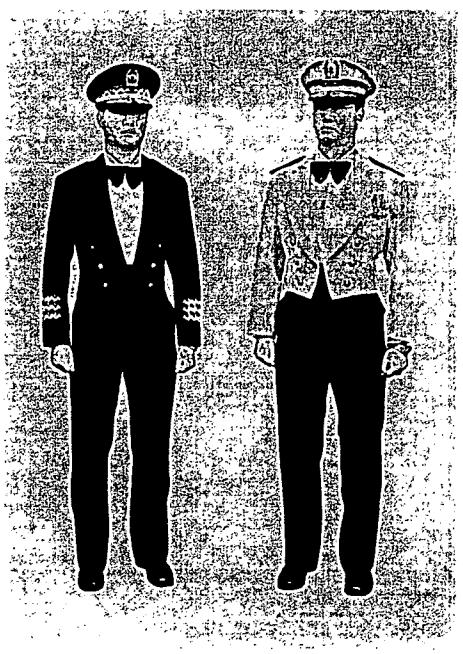
폭 6㎝ 크기로 1줄씩을 각각 부착하였고, 동복과 하복의 하의 측면 띠도 관등에 따라 위관은 폭 1.5㎝ 크기로 1줄, 영관은 폭 3㎝ 크기로 1줄, 장관은 폭 1.5㎝ 크기로 2줄을 각각 부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다) 1971년 이후의 만찬복

만찬복은 동복의 소매에 황금색 금사로 무궁화 꽃잎 24개·꽃봉오리 10개·핀 꽃 2개의 수식을 위관은 1줄, 영관은 2줄, 장관은 3줄씩을 각각 장식하였다. 하의는 뒷주머니가 없는 보통형 바지에 양 측면 봉제선상에는 봉장으로 흑색 편직 띠를 관등에 따라 그 폭을 위관급은 2㎝, 영관급은 3㎝, 장관급은 4㎝ 넓이로 하여 부착하였다.

상의 속에는 예복용 백색 와이셔츠를 받쳐 입고, 검정색 보타이를 매었으며, 허리에는 검정색 속띠를 두르고, 검정색 예화를 착용하였다.

여군 만찬복도 동복은 흑색, 하복은 백색이고, 남군과 동일한 형태의 야회복 상의에 H형의 타이트 스커트를 착용하였다. 여군 만찬복이 남군 만찬복과 다른 점은 보타이 대신 반달형 타이를 맨 점이다.



〈남군 만찬복(1975년~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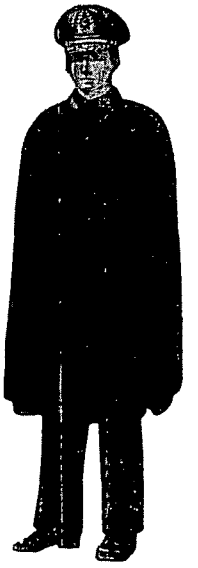
〈여군 만찬복(1975년~1990년)〉

예화는 예복과 동일한 색상의 굽이 높은 단화를 착용하였다. 표지물은 남녀 공히 양 어깨에 예복 계급장, 윗 단추와 중간 단추와의 중앙부위에 자격(資格)휘장을 달고, 병과휘장은 부착하지 않았다.

(5) 케이프

(가) 1958년~1971년까지의 케이프

1958년 8월, 예복·야회복·만찬복 등의 예장이 새로 제정되면서 동절기에 예장과 함께 착용할 외투로 케이프(망토)를 제식화하였다. 이 케이프는 종전에 착용하였던 케이프와 동일한 재질과 형태로 하되, 색상만을 검정색으로 변경하였다. 스텐 칼라형에 기장은 무릎에서 아래로 5㎝ 이상 내려가지 않는 미디 코트(Midi coat)였으며, 양측 가슴부위에는 I 자형의 슬래시 포켓(Slash pocket : 절개를 하여 만든 포켓)을 부착하였고, 표지물은 종전과 같이 양측 깃에 계급장만 부착하였다.



〈케이프(1958년~1962년)〉

(나) 1971년~1979년의 폐지까지의 케이프

1971년에 야회복과 만찬복을 폐지하고, 정복을 기본으로 한 예장차림으로 개정할 때 예장용 흑색 케이프도 새로운 예장(정복)의 색상에 맞추어 녹회색 케이프로 개정하였는데, 이 케이프 제식은 1971년에도 육군복제규정 〈육규 제1-7호〉에 수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관급(官給)이 된 예는 없었고, 필요에 따라 개인이 맞춤 착용하는 실정이었으며, 1979년에 정식으로 폐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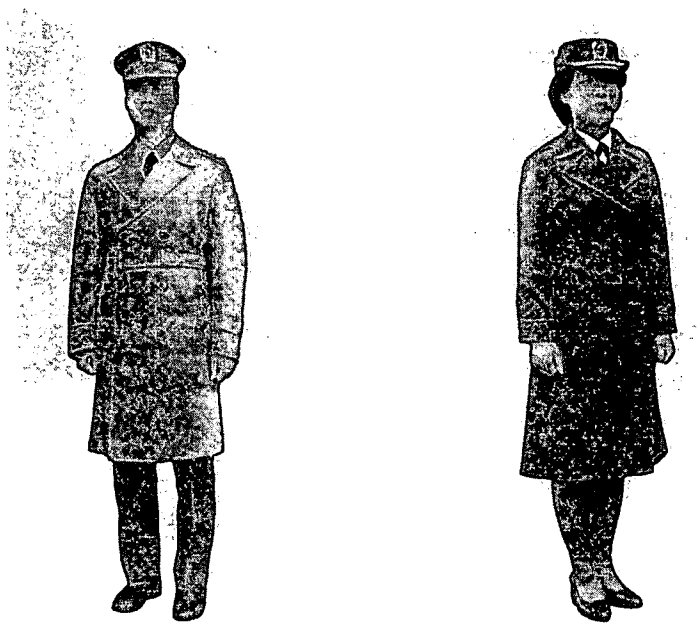
(6) 외 투

(가) 1963년~1982년까지의 외투

창군 이후 다른 군복과 마찬가지로 외투 역시 미 군원에 의존하여 오면서, 1954년

이후에는 장교는 바바리 코트와 반외투, 사병은 흑갈색 모직의 미군 사병 외투로 규제 착용하여 왔으나, 1958년 말경부터 도미유학 후 귀국하는 대부분의 장교들이 연한 자갈색의 미군 장교 외투를 착용하는 추세에 접어들었고, 이에 정장에 착용할 정식 외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63년 3월 18일, 〈각령 제1232호〉로 새로운 제식의 장교 외투를 제정하였는데, 이때의 외투 역시 미군 장교 외투와 동일한 형태의 연한 자갈색이었으며, 복지만 국내생산품이었다.

외투의 형태는 바바리 코트와 같은 테일러 칼라에 2줄 6개의 복지색 대형 단추를 부착하고, 허리띠가 달린 트렌치 코트(Trench coat)[8]형으로서, 어깨에는 견장대, 허리의 양측에는 입술이 달린 속붙임 사선주머니가 달리고, 소매의 하단에는 반띠를 부착하였으며 뒷면 하단 중앙을 절개한 형태였다. 여군의 외투는 다른 제복과 마찬가지로 여미는 부분만 반대일 뿐 재질·색상·형태 등이 같았다. 사병의 외투에는 견



〈외투(1963년~1982년)〉

8)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 군인이 야전에서 착용했던 코트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앞에 storm flat와 등부분에 caped back(소매없이 어깨와 팔을 덮는 겉옷이 붙은 등 혹은 붙은 듯이 보이는 의미)을 덧대어 단추로 고정하며, double breast(좌우 앞길의 여밈이 겹쳐 겹자락이 된 옷)로 벨트·견장 등을 부착한 코트이다.

장대를 부착하지 않았다. 부착물은 계급장만을 부착하였는데, 장교는 견장대, 사병은 양측 팔에 각각 정장 계급장을 부착하였다.

(나) 1983년~1990년까지의 외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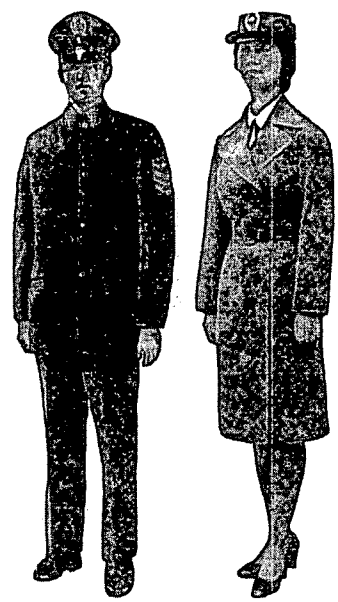
1963년 이후 착용하여 오던 연한 자갈색의 외투는 1980년에 정복 색상이 흑청녹색으로 변경됨에 따라, 외투 색상이 정복과 근무복 색상과 어울리지 않아 외투의 형태는 종전의 제식 그대로 하되, 색상을 정복과 근무복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1983년 12월 31일에 〈대통령령 제11314호〉로 흑청녹색으로 변경하였다.

(다) 사병 외투(1967년~1971년)

1950년대부터 미 군원에 의존하던 사병 외투는 신장 차이에 의한 규격이 커서 대부분을 개조 보급해야 할 형편이었는데,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것마저도 도입이 부진하여, 1967년 1월 9일 〈대통령령 제2869호〉로 우리 나름대로의 황갈색 모직으로 제작된 반외투 제식을 제정하였다. 테일러 칼라에 한 줄 4단추의 반외투로서, 허리의



〈외투(1983년~현재)〉



〈사병 외투(1967년~1971년)〉

좌·우측에는 속붙임 사선주머니를 부착하였고, 앞면의 조임단추는 황금색 금속제 단추였으며, 외투의 길이는 상의가 덮일 정도로서 1971년까지 정복이나 근무복에 착용하였다.

1963년에 제정되었던 연한 자갈색의 여군외투는 복지의 연간소요가 극소량일 뿐만 아니라 국내조변은 소요에 비해 예산이 많이 들어, 1968년 1월 15일, 병참감의 요청에 의해 여군 장교외투와 동일한 색상과 제식으로 통일시켰고, 견장대만 제거하였다.

나. 正 裝

(1) 장교 정복

(가) 1956년~1962년까지의 정복

1946년 9월에 제정되어 미 군원에 의존하여 착용하여 오던 종전의 아이크 점퍼형태의 동정복과 와이셔츠식의 하정복은 휴전 후 국가재건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1956년에 번거로운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제거하고 동·하절기에 공용할 수 있는 간편한 점퍼형태의 정복으로 개정하였으나, 이것 역시 하절기에 착용하기에는 부적절하여 1959년에 다시 동·하복으로 구분한 신사복 제식으로 개정하였다. 여군도 같은 해인 1959년에 남군과 같이 테일러 칼라의 상·하의가 분리된 슈트인 투피스 제식으로 개정하여 품위를 보다 고양하였다.



〈남군 정복
(1956년~195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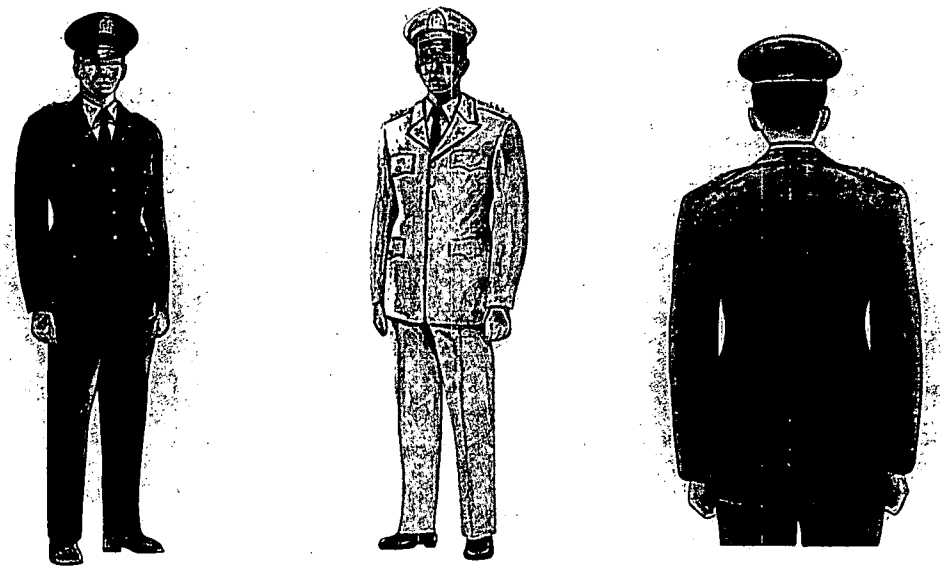
1) 남 군

1956년 1월 1일, 〈육인사 제2349호〉(1955. 12. 7)에는 1946년부터 착용하여 오던 점퍼형의 동정복과 와이셔츠형식의 하정복은 군원의 부진과 착용의 불편으로 보다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한국군 고유의 정복으로 개정한다는 취지로 동·하복의 구분없이

흑갈색 서지재질로 제작된 스텐 칼라형(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착용할 수 없는 형태)의 점퍼제식으로 개정하였다.

어깨에는 견장대, 흉부 좌·우측에는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부착하고, 허리에는 조임대모양의 허리띠를 부착하였으며, 앞면에는 복지색 플라스틱제 단추를 달았으나 단추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였고, 표지물은 어깨의 견장대에 계급장을 부착하고 양측 깃에는 병과휘장을 부착하였다.(단, 사병은 양측 팔에 정장 계급장, 오른쪽 깃에는 '대한'표지, 왼쪽 깃에는 병과휘장을 각각 부착하였다.)

하의는 일반형의 보통 바지였으며, 둔부 양측에는 I 형의 속붙임주머니, 뒷면 상단 양측에는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각각 부착한 형태였다. 정모는 갈색 차양과 턱끈을 부착한 흑갈색의 서지재질로 제작된 미군의 정모형태와 동일한 모양이었고, 신은 갈색의 일반 군용단화였다. 이 정복 제식의 특징적인 점은 착용하는 모자와 군화의 종류에 따라 정복차림과 근무복차림으로 가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모에 단화를 착용하면 정장차림이 되고, 작업모에 전투화를 신으면 근무복차림으로 간주되었다.



동 복　　하 복　　후 면

〈남군 정복(1959년~1962년)〉

한편 1946년 이후에 착용하여 오던 흑갈색의 허리띠가 부착된 종전의 예복은 1958년에 새로운 제식의 예장이 제정됨에 따라 정복으로도 일시 겸용하기도 하였다.

1956년부터 착용하여오던 점퍼형의 정복은 하절기에 착용하기에는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정복으로서의 품위가 미흡하여, 1959년 2월 15일, 신사복 형태의 동·하정복으로 개정하였다. 동복은 흑갈색의 모직 서지였고, 하복은 카키색 포럴이었으며, 모양은 같은 형태였다.

상의는 테일러 칼라의 한 줄 4단추 저고리에 어깨에는 견장대, 흉부 좌·우측과 허리부위 좌·우측에는 각각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부착하였고, 뒷면에는 중앙 하단트임(center vent)[9]에 양측 겨드랑이로부터 상단에 이르기까지 곡선으로 합장 봉한 형태였다.

하의는 보통형의 바지로서, 양 측면 상단에 수직으로 트인 속붙임주머니, 뒷면 좌·우측 상단에는 속붙임 뚜껑주머니, 앞면 우측 상단에는 수평으로 트인 속붙임 소형주머니를 각각 부착한 형태였다. 정모는 1946년 이래 착용하여 오던 정모와 같은 형태였고, 신은 갈색의 일반 군용단화였다.

표지물은 견장대에 정장 계급장, 양측 아랫깃에는 병과휘장을 부착하였고, 상의 속에는 카키색 와이셔츠에 검정색 넥타이를 받쳐 입었다. 다만, 당시의 정복은 개인체촌(個人體寸)의 어려움 때문에 완제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군원으로 수령한 복지를 개인에게 지급하여 지정 제조업소에서 맞춤 착용하도록 하였고, 사병은 특정인원에게만 완제품으로 지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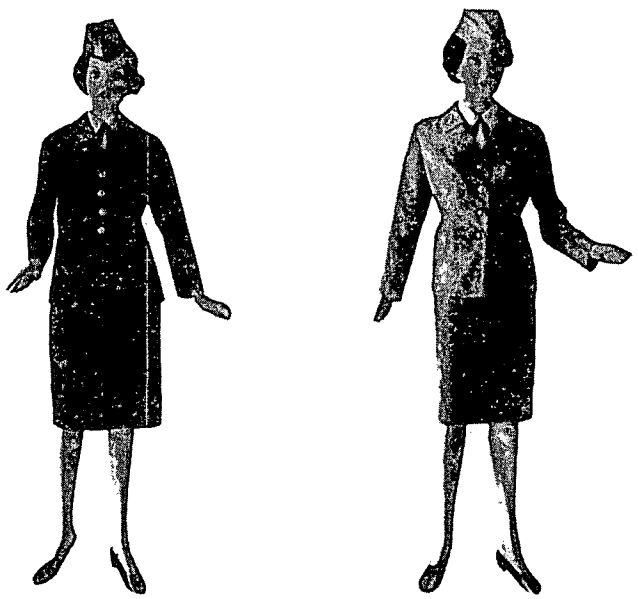
2) 여 군

1956년 이후 도미유학에서 귀국하는 여군장교들이 유학 교육기간중 착용하던 미 여군장교 정복을 그대로 착용하고 귀국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복장이 당시 국내에서 착용하고 있던 스텐 칼라형의 점퍼형식보다 세련미가 있고 현대감각에 부응할 수 있는 제식으로 보여져, 1959년 2월 15일, 〈육군규정 625-2〉로 미 여군정복 제식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남군과 같이 미 군원으로 도입된 복지로 국내에서 제작 지급하였으며, 구(舊)정복은 1960년대까지 혼합 착용하였다. 정복의 상의는 테일러 칼라의 한 줄 4단추 저고리로서 어깨에는 견장대, 허리 양측에는 양(兩) 입술주머니(jetted double pocket)를

9) 재킷·코트 등의 hem line(의복의 가장자리선으로 일반적으로 바닥에 대해 수평을 이루는 라인이다)에 넣는 트임. 뒤 중앙에 넣는 것을 center vent, 양 옆에 넣는 것을 side vent라고 한다.

부착한 모양이었고, 앞면과 견장대의 단추는 황금색 금속제를 사용하였다. 하의는 H형의 타이트 스커트(Tight skirt)였고, 상의 속에는 백색 블라우스에 흑색 넥타이를 착용하였다.

모자는 정복과 같은 재질의 개리슨 캡형이었고, 앞면 좌측에 약장 계급장을 부착하였으며, 신은 중간 높이의 흑색 힐(Midi heel)이었다. 표지물은 견장대에 계급장, 양측의 윗깃에 병과휘장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일부 고급장교들은 이와는 관계없이



동 복 하 복

〈여군 정복(1959년~1971년)〉



동 모 하 모

〈여군 군모(1954년~196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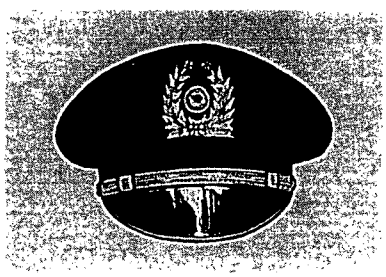
여러 가지 형태의 제복을 정복으로 착용하였는데, 이는 여성으로서의 특수한 체격 때문으로 규정에 크게 얽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나) 1962년~1967년까지의 정복

1959년부터 착용하여 오던 정복은, 1962년 4월 27일에 〈각령 제700호〉로 기본형태는 변경되지 않았으나 일부 수식이 보완되었는데, 두드러지게 바뀐 것은 정모의 차양수식이었다. 이어 다음해인 1963년에는 복식품의 일부를 개정 보완하였다.

1) 남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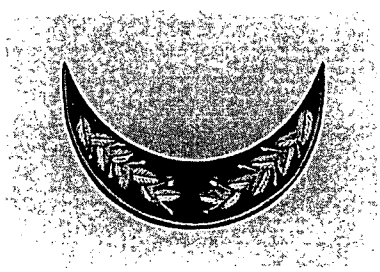
1959년부터 동모와 하모로 구분하여 착용하여 오던 정모는 1962년 4월에 동·하모의 구분없이 단일제식으로 통일하면서, 재질은 흑갈색 모직 서지재질로 바꾸었다. 다만, 정모를 예모로 착용할 때에는 계절에 따라 동예복에는 흑색, 하예복에는 백색의 모테와 윗 덮개를 정모에 덧씌워 착용하였다. 개정된 정모의 제식은, 갈색의 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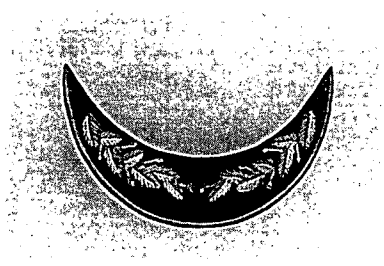
장 교



사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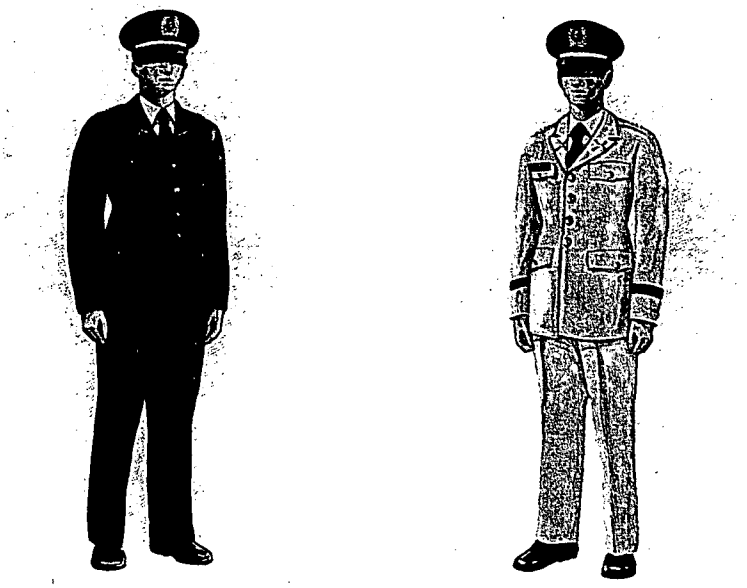


장 관



대(중)령

〈정모(1962년~1967년)〉



동 복 하 복

〈남군 정복(1962년~1970년)〉

혁제 차양을 흑색으로 바꾸고, 중령급 이상의 차양은 벨턴지 바탕 위에 무궁화와 무궁화잎을 황금색 금사모르로 수를 놓아 장식하였는데, 중령과 대령은 꽃잎 14개·꽃봉오리 8개, 장관급은 꽃잎 16개·꽃봉오리 10개·핀 꽃 2개씩을 수식하였다. 턱끈은 갈색 피혁제를 장교는 폭 1.5㎝의 황금색 금사 편직 턱끈으로 바꾸고, 사병은 흑색 피혁 또는 비닐제품으로 변경하였다.

정복의 색상과 재질은 종전과 같이 동복은 흑갈색 서지, 하복은 카키색 포럴을 사용하였다. 상의의 뒷면은 세쪽으로 봉재된 것을 중앙부위 한 곳만을 봉접하고, 하단 중앙을 절개한 센터 벤트(center vent)형태로 바꾸고, 장교의 소매수장은 관등에 구분없이 폭 3㎝의 편직띠(동복은 흑색, 하복은 흑갈색)를 부착하였으며, 정복 속에는 동·하 구분없이 카키색 와이셔츠에 검정색 넥타이를 착용하였고, 표지물은 견장대에 정장 계급장, 양측 깃에는 병과휘장을 각각 부착하였다.

정복을 예장으로 착용할 때에는 상의의 수장과 바지의 양면 봉장을 예복 제식과 동일한 형태의 황색 편직 띠로 바꾸어 부착 착용하였는데, 이같이 수장과 봉장을 바꾸어 부착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1963년 3월 18일, 〈각령 제1232호〉로 정복과 예복을



단 화　　장 교　　사 병

〈군화(1962년~현재)〉

분리하여 각각 전용 제식으로 개정하면서, 정복의 상의 수장과 하의 봉장은 제거하였으며, 정모의 모표도 새로 개정된 금속제 모표로 바꾸어 부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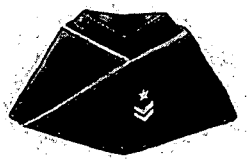
단화는 갈색을 흑색으로 변경하였다.

2) 여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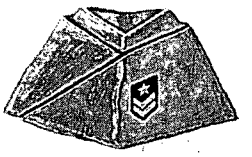
여군의 정복도 1962년 4월 27일, 남군의 정복을 개정할 때 정모의 수식과 정복 하의(스커트)의 마름상태를 보완하고, 굽이 얕은 힐 제식도 새로 규정하였다. 정모는 1954년부터 착용하여 오던 개리슨 캡의 외측 날개 가장자리(선)에 폭 0.3㎝의 편직 띠(동모에는 황색, 하모에는 흑색)를 추가로 부착하였고, 하의 스커트는 기본형태의 변경없이 앞쪽은 한폭, 뒤쪽은 두폭으로 하고, 중앙하단에 주름을 잡은 형태로 바꾸었다.

1963년 3월 18일의 〈각령 제1232호〉에는 새로운 제식의 정모를 추가로 제정하였다. A형 정모는 예모와 유사한 형태로서 뒷 차양이 올라간 부드러운 펠트(felt)[10] 모자형이었고, 재질과 색상 그리고 차양의 수식과 턱끈 등은 남군과 동일하였다. 즉, 정모의 재질은 흑갈색 모직 서지였고, 중령급 이상의 차양에는 무궁화잎 14개와 꽃봉오리 8개를 황금색 금사로 수식하였고, 장교의 정모에는 폭 1.5㎝의 황금색 편직 띠로 제작된 턱끈을 부착하고, 사병은 검정색 비닐 또는 가죽으로 제작된 턱끈을 부착하였다. 또한 A형 정모의 모표는 새로이 개정된 금속제 모표를 부착하고, B형 정모에는 계

10) 양모·헤어·인조섬유 같은 것을 습기와 열을 가해 press시킨 것. 서로 얽혀서 축융되는 성질을 이용해 일정한 두께로 굳힌 것으로 모자·슬리퍼 등에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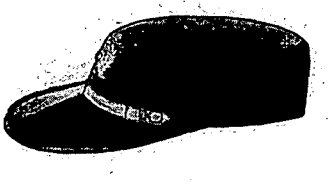


동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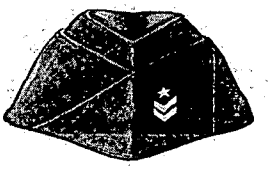


하 모

(1962년~1963년)



A형(장교에 한함)



B형

〈여군 정모(1962년~1970년)〉

급장을 부착하였다.

(다) 1967년~1970년까지의 정복

창군이래 장교와 사병의 제복을 각각 다르게 착용하였던 기간은 국방경비대가 창설되던 초창기인 1946년 1월부터 동년 3월까지의 3개월간이었고, 당시 착용했던 군복은 일본군 군복이었다. 그후 1966년까지 군복은 장교와 사병의 구분없이 제복의 색상과 재질 및 형태 등이 같은 것을 착용하였는데, 1960년대 후반기에 들면서 군복을 우리의 주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제복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욕과 노력이 경주되면서 사병 정복 제정문제도 함께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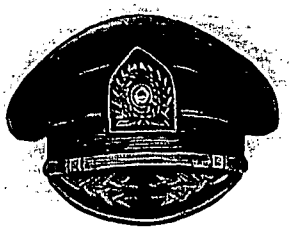
1967년 1월 9일의 〈대통령령 제2896호〉에는 1962년 이후 중령급 장교 이상의 정모차양에만 장식하던 무궁화 수식을 소령을 포함한 전 영관장교에게 장식하도록 보완 개정되었고, 장교의 정복형태와 다른 제식의 사병 정복을 새로 제정하였으며, 1950년 이후 계속 착용하여 오던 근무복을 폐지하고 그 대신 하절기에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제복으로 하약정복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1) 장교 정(예)모 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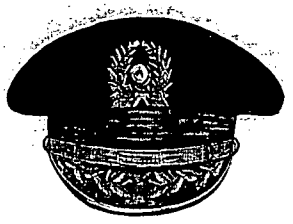
1962년 이후 중견간부인 중령급 이상 장교의 정모에 장식하고 있는 차양수식이 관등과 신분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계급장·수장 등의 타표지와 비교할 때 구분방식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고, 장관과 영관(소령 포함)으로 구분하는 수식의 문양도 장관과 영관급이 유사하여 식별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수식의 무궁화와 꽃봉오리 그리고 꽃잎 등의 수를 조정, 장관급은 늘리고, 영관은 줄여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개정하였다.

장교 정모 수식(1967년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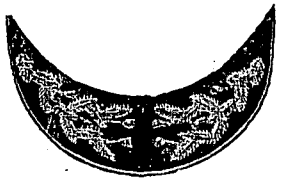
연 도	1962년 ~ 1967년		1967년 ~ 현재	
수장 / 관등	장 관	영 관	장 관	영 관
무 궁 화 잎	16개	14개	20개	14개
무궁화봉오리	10개	8개	8개	6개
무 궁 화 꽃	2개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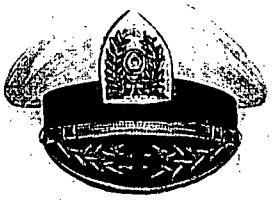
동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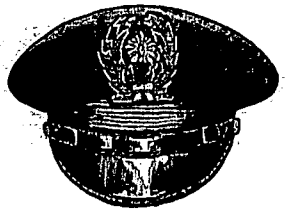
장교(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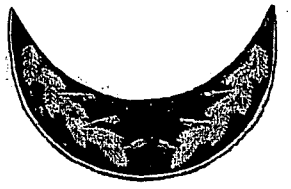
장 관



하 모



사 병



영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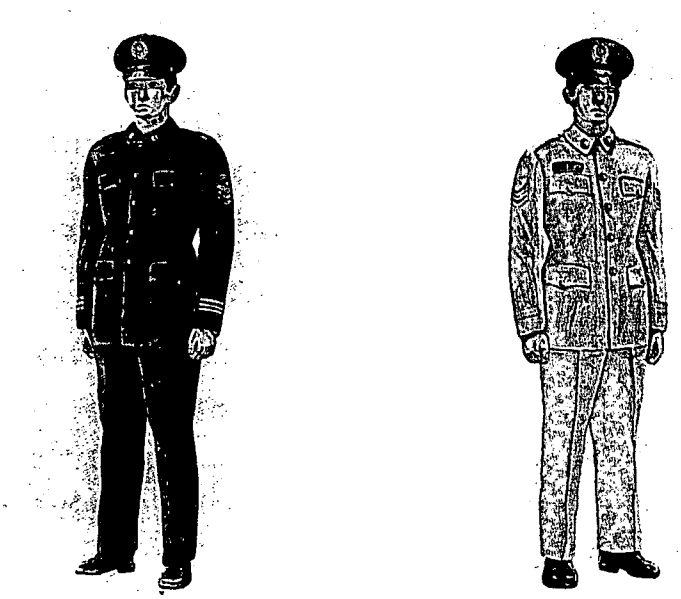
예모(장관) 정 모 차양(1967~현재)

〈장교 정(예)모 차양 수식(1967년 이후)〉

2) 사병 정복

1967년에 새로 제정된 사병 정복 색상과 재질은 장교와 같이 동복은 흑갈색 모직 서지, 하복은 카키색 모직 포럴을 사용하였고, 형태는 동·하복이 같은 모양이되 장교 정복과는 다른 제식이었다. 상의는 스텐 칼라형에 한 줄 5개의 황금색 금속제 단추를 부착한 저고리로, 어깨에는 견장대, 흉부 좌·우측과 허리의 좌·우측에는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각각 부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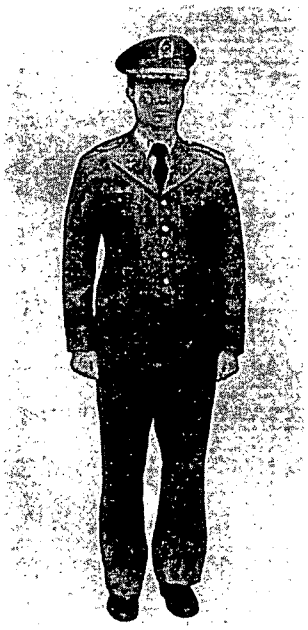
하의는 일반형의 보통바지로서 대퇴부 좌·우측에 수직으로 트인 속붙임주머니, 뒤쪽 둔부 좌·우측에 속붙임 뚜껑주머니, 앞면 우측상단에는 수평으로 트인 속붙임 소형주머니를 각각 부착한 형태였다. 정모는 동·하 구분없이 흑갈색 모직 서지로 제작된 정모를 공용하고, 신은 흑색의 일반 군용단화를 착용하였다. 표지물은 양측 팔에 정장 계급장, 양측 소매의 하단에서 5㎝ 상단부에 정근장, 양측 깃에는 병과휘장을 각각 부착하였다.



동 복 하 복

〈사병 정복(1967년~1970년)〉

(라) 1971년~1979년까지의 정복



〈정복(1971년~1979년)〉

정복은 1946년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설된 이후 미 군원에 의존, 미군의 정복을 모방하여 테일러 칼라형의 흑갈색 동복과 카키색 하복으로 제정 착용해 오다가, 1967년에 남군사병의 정복을 스텐 칼라형으로 개정함에 따라 정복의 형태는 장교와 사병이 다르고, 남군과 여군 역시 달라 매우 다양화된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1971년에 정복의 형태를 장교와 사병이 같게 하고, 색상도 남녀군 공히 같은 색상으로 통일하였으며, 단, 재질만 동복은 서지, 하복은 포럴로 다르게 하였는데, 이같은 조치는 창군 이후 처음 있는 일로 획기적인 변화였다. 1971년 2월 25일에 〈대통령령 제5538호〉로 개정된 정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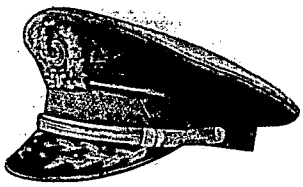
첫째, 1967년 이후 남군의 정복제식이 장교와 사병이 다르던 것을 같은 제식으로 통일하였다.

둘째, 지금까지 동복과 하복의 색상을 달리하였던 것을 동일한 색상으로 통일하였다.[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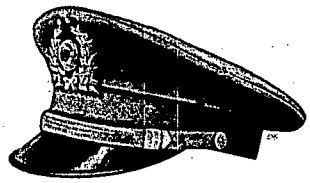
셋째, 창군 이후 제복들의 색상이 미 군복 색상의 강한 영향으로 흑갈색과 카키색을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었으나, 이를 과감하게 녹회색으로 변경하였다.

1971년 2월 25일, 정복이 개정되면서 정모도 개정되었다. 정모의 형태와 수식은 종전과 같은 형식이나 색상을 개정된 새로운 정복색상으로 바꾸었다. 상부 덮개는 녹회색, 모테는 보다 무게가 있는 청회색으로 바꾸었으며, 1971년 2월 25일부터 중령급 이상에게만 부착하던 차양 수식을 소령급을 포함한 전 영관급 장교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된 정모는 1975년 10월 1일 예장(만찬복·예복)이 새로 제정되고 장관급 장교의 계급장이 개정(별 밑부위에 무궁화표지로 받침)될 때 장관급 장교의 정모도 재질을 연녹색의 구레바모직으로 바꾸고 모테에는 예모와 동일한 형태의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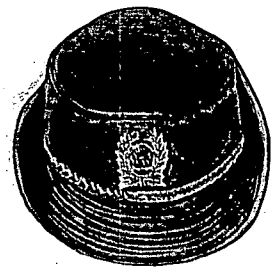
11) 당시 동·하복의 색상을 같은 색상으로 통일한 이유는 동·하복을 바꾸어 착용하는 10월 1일과 5월 1일의 환절기 기온이 일정하지 않아 기온조건에 따라 본인이 적절한 정복을 선택 착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관(1971년~197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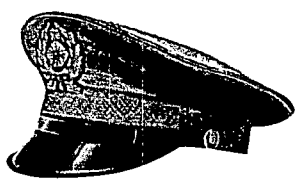
장 교(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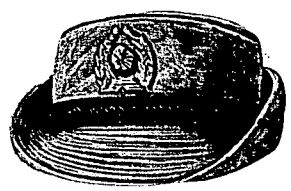
여군장교(위관)



장관(1975년~1979년)



사 병



여군사병

〈정모(1971년~197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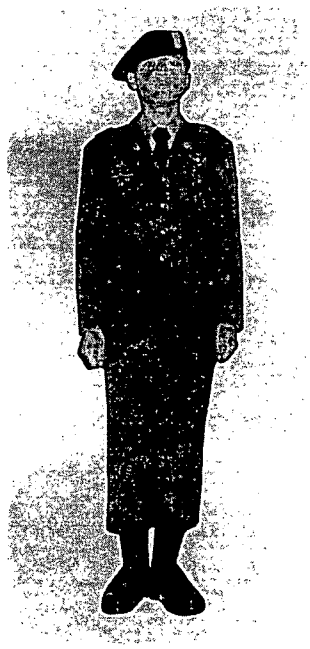
궁화 수식으로 장식하였다. 또한 여군의 정모도 창군이래 계속 착용하여 오던 B형 모자(약모)는 폐지하고, 1963년 이후 장교만이 착용하여 오던 A형 모자를 뒷 차양이 올라가고 앞 차양은 평탄한 모양의 펠트모형(帽型)으로 바꾸고 장병이 공용하도록 하였으며, 색상도 정복색상과 동일한 녹회식으로 변경하고, 틱끈은 화섬(化纖)실로 꼬은 노끈으로 엮었다. 그 색상은 장교는 황색, 사병은 검정색이었으며, 영관급 장교의 차양에는 남군과 같은 무궁화 수식으로 장식하였다.

1) 남 군

개정된 정복의 복식 상의는 좌우측 흉부의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겉붙임 뚜껑주머니로 바꾸고, 1963년 이후 부착하지 않았던 장교의 소매수장인 흑색의 편직 띠를 1971년 2월 25일부터 다시 부착하였다. 관등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은 넓이로 소매의 하단부에서 7㎝ 상단부에 부착하였다.

관등 \ 연도	1971	1975
將 官	4.5cm	4cm
領 官	2.5cm	3cm
尉 官	1.5cm	2cm

사병도 1967년부터 부착하여 오던 근무년한 표시의 정근장(精勤章)의 길이 15cm를 정장 계급장의 길이에 맞추어 8cm로 줄였다. 1976년 6월 28일에는 〈국인근(國人勤) 제203.2-401호〉에 의거, 특수전(特殊戰)요원용 특전정장(特戰正裝)이 제정되었다. 정복에 베레모와 전투화를 착용하는 제식으로서, 이는 특전부대원의 특수성과 우방국 특전요원들과 함께하는 행사에 균형있는 복장차림으로 유대를 증진시킴은 물론 위용을 과시하고 비상사태하에서도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었다.



〈특전정복
(1976년~1979년)〉

2) 여 군

여군의 정복도 1971년 2월 25일, 남군과 함께 개정하면서 색상만을 바꾸고 형태는 종전과 같았다. 상의는 테일러 칼라의 한 줄 4단추 저고리, 하의는 타이트 스커트를 착용한 분리식의 투피스형 슈트였으며, 장교의 수장과 사병의 정근장은 남군과 동일하였다.

(마) 1980년~1990년까지의 정복

1980년 1월 9일, 〈대통령령 제9713호〉에 의한 복제 개정과정에서 정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중에서도 색상을 가장 중요시하였는바, 1971년 이전부터 착용하여 온 녹회색의 동·하정복은 그 색상이 너무 순박한 색이어서 군인으로서의 패기와 위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위엄과 품위를 겸비한 색상으로서 동근무복과 동일한 색인 흑녹색으로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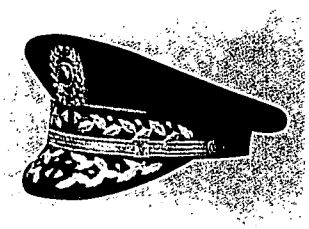
그외에도 정복에 부착하는 복식품들이 너무 단조로울 뿐만 아니라 복지의 모직혼

방률(毛織混紡率)이 낮아 품위가 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는데 역점을 두어 개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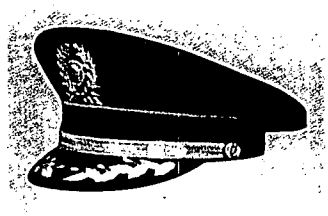
먼저 개정된 정모를 보면, 그 재질은 개정된 정복의 색상과 같은 흑녹색 멜턴지로 바꾸고, 모자의 전체 모양은 종전과 같은 형태였으나 외국군의 정모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상부 덮개와 모테와의 접합부위에 황금색 보조띠를 봉착(縫着)하고, 차양 수식과 턱거리는 종전과 같은 형식이되 황금색 금속재질로 바꾸어 보다 품위를 돋구고 조기에 변색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1975년부터 부착하여 오던 장관모의 모테 수식은 너무 과도하여 오히려 품위를 저하시키는 현상으로 보여, 1979년 11월 7일, 〈국인근 제918.2-565호〉에 의거하여 제거하기로 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영관급과의 식별이 곤란하여 모테 양 측면의 턱거리 단추부위로부터 앞면에만 종전과 동일한 형태의 황금색 금속제 무궁화 수식(핀 꽃 2개·꽃봉오리 6개·무궁화잎 16개)을 부착하면서 차양의 수식도 금속제 황금색 수식으로 변경하였다. 이같이 규제함으로써 장병의 정모형태와 색상은 통일되었으며, 차양과 모테의 수식 그리고 턱거리의 색상 등만 다르게 규제하면서 관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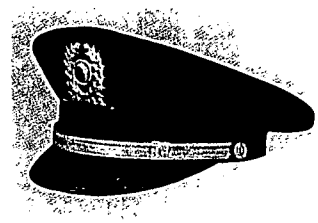
또한 여군의 정모도 남군과 같은 색상과 재질로 바꾸었을 뿐 제반 제식은 종전과 같게 하였다. 새로 개정된 정복은 그 형태는 종전 그대로 두고 다만 색상과 복지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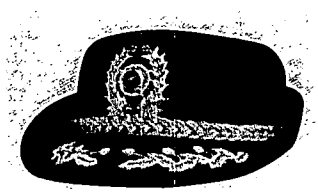
장 관



영 관



위 관



여군영관
〈정모(1980년~현재)〉

변경하였는데, 색상을 1976년부터 개정 착용하여 오던 동근무복 색상과 같은 흑녹색으로 바꾸고, 재질은 모혼방률을 50 : 50에서 70 : 30으로 높여 재질을 고급화하면서 소매의 수장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1975년에 정한 수장의 폭보다 1㎝ 넓게 하여, 장관은 5㎝, 영관은 4㎝, 위관은 3㎝로 개정하였다. 장교의 표지장 부착제도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첫째, 무궁화 금장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옷깃의 윗깃에 부착하고, 병과휘장은 종전과 같이 아랫깃에 부착한다.

둘째, 우측주머니의 중앙부위에는 새로 제정한 육군휘장을 달았는데, 근속 30년 기념휘장의 부착대상자인 경우에는 육군휘장에 우선하여 부착하도록 한다.

셋째, 직위 휘장은 좌측주머니 중앙부위에 종전과 같이 부착한다.

한편, 여군의 정복도 남군과 같이 제식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색상과 재질만을 흑녹색의 모혼방으로 바꾸고, 부착물은 남군과 같으면서 종전과 동일한 요령으로 부착하였다.



정 복



특전정복

〈정장(1980년~1990년)〉

이같이 개정된 정복은 추가예산의 소요로 인해 1980년부터 1984년까지 연차적으로 보급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1980년에는 전 장관급 장교와 육사 및 3사출신 초임장교, 1981년에는 전 초임장교와 대령급 장교, 1982년에는 대령을 제외한 영관급 장교와 여군, 그리고 1983년에는 전 위관급 장교, 1984년에는 전 하사관 순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때 기간중인 1984년까지는 정복을 혼합 착용하도록 하였다.

(2) 하약정복

(가) 1967년~1970년까지의 하약정복

대다수 장병들이 야전에서 근무함에 따라 근무복은 그 착용빈도가 희소할 뿐만 아니라 긴소매의 하근무복은 여름철 혹서기에 착용하기에는 부적절하여, 1967년 8월 7일, 〈대통령령 제3172호〉에 따라 근무복 제식은 폐지하고 혹서기에 간편하고 품위있게 착용할 수 있는 제복으로 반소매 제식의 약식정복을 제정하였다. 기본제식으로



1967년~1970년
남 군



1967년~1968년



1969년~1970년
여 군

〈하약정복(1967년~1970년)〉

정모에 단화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정모와 단화를 휴대하지 않는 야전근무 장교와 정모와 단화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병들을 감안하여 작업모에 전투화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남 군

1967년에 새로이 제정된 하약정복은 종전의 하근무복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이 크게 변형된 것이다.

① 긴소매가 반소매로 바뀌었다.

② 셔츠 칼라의 깃이 스포츠 칼라형으로 바뀌었다.

③ 앞가리개를 추가로 부착하였다.

상의는 어깨에 견장대(사병은 미부착), 흉부 좌·우측에는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부착하고, 장교는 우측 깃에 계급장, 좌측 깃에 병과휘장을 부착하였으며, 사병은 양측 팔에 정장 계급장, 양측 깃에 병과휘장을 각각 부착하였고, 앞면의 여밈단추와 견장대 및 주머니 단추는 복지색의 플라스틱제 소형 단추였다.

또한 하의는 종전과 같은 일반형의 보통바지였으며, 재질은 카키색의 면직 개버딘이었으나 일부장교들은 카키색의 모직 포럴로 개인맞춤하여 착용하기도 하였다. 이 하약정복이 1967년부터 시행되면서 폐지된 동·하근무복은 비기준(非基準)피복으로 전환하여 영내에서 일상근무할 때나 일과 후에 작업이나 정비할 때 주로 착용하였다.

2) 여 군

1963년에 개정된 재킷과 스커트로 구성된 슈트제식의 근무복은 일부 고급장교를 제외하고는 실제로는 착용해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1967년에 이르면 동근무복은 폐지되었고, 하근무복만은 카키색 모직 포럴재질을 청회색의 모직 포럴로 변경하여 명칭도 하약정복으로 개칭하여 계속 착용하였다. 상의는 스포츠 칼라형의 한 줄 4단추의 반소매 저고리였으며, 어깨에는 견장대, 허리부위 양측에는 속붙임 사선형의 입술주머니를 부착하였고, 우측 깃에는 계급장, 좌측 깃에는 병과휘장을 각각 부착하였으며, 앞면의 단추와 견장대의 단추는 황금색 금속장이었다. 하의 스커트는 좌·우측에 수직으로 트인 속붙임주머니를 부착하였고, 우측 허리부위에는 길이 15㎝의 지퍼를 부착한 형태였으며, 모자는 B형 정모를 쓰고, 신은 단화나 굽이 낮은 힐을

착용하였다. 이같은 제식의 하약정복도 1968년 11월 29일, 〈陸人制 421〉에 따라 형태의 변경없이 재질만을 카키색 모직 포럴로 변경하고, 1969년도부터 시행하였다.

(나) 1971년~1975년까지의 하약정복

1971년 정복의 색상이 녹회색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약정복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였다. 개정된 제식은 남·녀군 공히 정모에 연회색 반소매셔츠의 상의와 하정복의 하의(남군은 바지, 여군은 스커트)를 착용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이 하약정복 제식은 1975년에 남·녀 하근무복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단, 여군의 하약정복은 하근무복으로 개칭하고 그대로 착용하였다.

1) 남 군

남군 하약정복은 연회색 상의와 녹회색 하의로 구성된 콤비형이다. 상의는 윙 칼라(Wing collar : 목 뒷부분은 목 주위를 따라 세워지고, 앞부분은 목에서 떨어져 새날개를 펼친 것처럼 젖혀진 칼라)를 본떴고, 아랫깃이 없는 스포츠 칼라형의 반소매셔츠이다.



〈하약정복(1971년~1975년)〉

어깨에는 견장대, 흉부 좌·우측에는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부착하였다. 앞면 단추와 견장대 및 주머니단추는 모두 황금색 금속제 소형 단추를 부착하였는데, 이는 외의(外衣) 정장으로 착용할 때 품위를 고려한 것이었으며, 깃의 형태를 아랫깃이 없는 스포츠 칼라형으로 한 것은 당시 유행하였던 남방셔츠의 깃을 모방한 것으로서 이 또한 새로운 패션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하의는 일반형의 보통바지인 정복바지를 그대로 착용하였다. 이외에 품위를 고양하기 위하여 계급장을 토시형[12]으로 하여 어깨에 부착하였다. 양측 깃에는 병과휘장을 부착하였으며, 사병은 양측 팔에 정장 계급장, 양측 깃에는 병과휘장을 각각 부착하였다.

2) 여 군

여군의 하약정복은 연회색의 스포츠 칼라형의 상의와 녹회색의 타이트 스커트로 구성한 콤비형이었다. 상의는 한 줄 4단추 셔츠로 어깨에는 견장대, 흉부 좌·우측에는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부착하였다. 하의는 타이트 스커트로서 정복하의를 그대로 착용하였으며, 부착물과 표지물은 남군과 같은 요령으로 부착하였다.

다. 勤 務 服

(1) 1954년~1961년까지의 근무복

창군이후 계속 착용하여 온 와이셔츠형의 근무복은 1950년의 6·25전쟁 이전까지는 정모에 단화나 반장화를 착용하여 왔으나, 1950년 이후에는 정모와 단화 및 반장화의 보급 부진으로 작업모에 전투화를 착용하여 왔다.

그후 1956년 1월 1일, 정복이 스텐 칼라형의 정복으로 개정되면서 6·25전쟁 이후부터 착용하여 오던 테일러 칼라의 아이크 재킷형의 정복은 근무복으로 전환하여 와이셔츠형의 근무복과 혼합 착용하였다. 근무복으로 전환 착용하게 된 아이크 재킷형의 근무복은 장교의 경우 견장대에 계급장, 양측 깃에 병과휘장을 부착하였고, 사병의 경우 좌측주머니 우측에 약장계급장을 부착(정복으로 착용할 때에는 양측 팔에 정장 계급장 부착)하고, 오른쪽 깃에는 '대한'표지, 왼쪽 깃에는 병과휘장을 각각 부착하였다.

---

12) 토시[吐手]는 원래 팔뚝에 끼어 추위와 더위를 막는 소품을 뜻한다.



동근무복



하근무복



정복 겸용제식(1956년～1958년)

〈근무복(1954년～1962년)〉

그러나 이 점퍼형의 근무복은 착용에 불편하고 보급마저 부진하여, 1958년에 폐지하고 와이셔츠형의 근무복만을 착용하였다. 그후 1960년 7월 23일, 〈육인처 제421호〉에 의해 긴소매의 카키색 와이셔츠는 소매를 절단하여 반소매로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군의 근무복은 1951년부터 착용하여 오던 근무복을 변함없이 그대로 계속 착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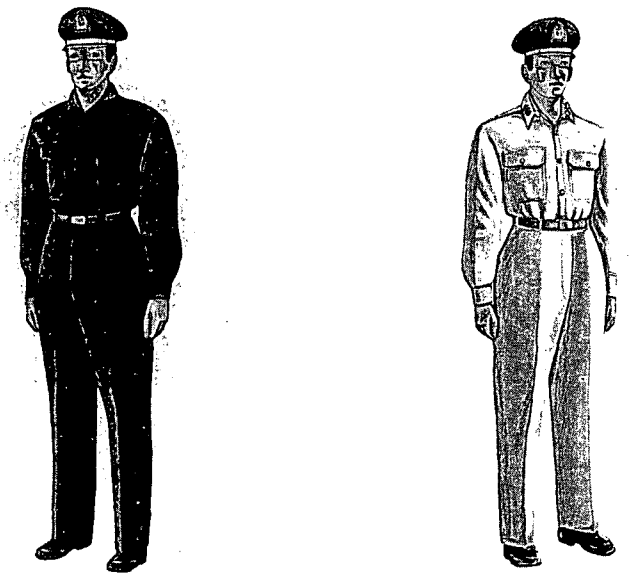
(2) 1962년～1967년까지의 근무복

1962년 4월 27일, 군인복제가 〈각령 제700호〉로 공포되면서, 남군은 1946년 이후 계속 착용하여 오던 와이셔츠형태의 근무복을 재확정하였으나, 여군은 1951년부터 착용하여 오던 흑갈색의 점퍼 및 바지제식의 동복과 카키색 원피스제식의 하복은 폐지하고 재킷과 스커트로 된 슈트제식으로 개정하여 새로운 제식의 하약정복이 제정되는 1967년까지 착용하였다.

(가) 남 군

1962년에 군인복제로 재확정된 근무복은 동·하 공히 와이셔츠형에 정모와 단화를 착용하거나 작업모에 전투화를 착용하는 제식이었다. 동복은 흑갈색의 서지, 하복은 카키색의 포럴 또는 면직 개버딘이었다. 와이셔츠형의 상의는 어깨에 견장대, 흉부 좌·우측에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부착하였고, 우측 깃에는 계급장, 좌측 깃에는 병과휘장을 부착하였다.

하의는 정복의 하의와 동일한 일반형의 보통바지였다. 단화는 검정색의 일반 군용단화였다. 그러나 일부장교들은 동복의 흑갈색 모직 서지 대신 당시 정복지로 지급받은 흑갈색의 모직 크래버넷(cravenette : 防水布 : 원래 상표명이며, 일명 '구레바'라고도 함 : クレベネット), 카키색 면직 개버딘 대신 모직 포럴로 개인맞춤으로 착용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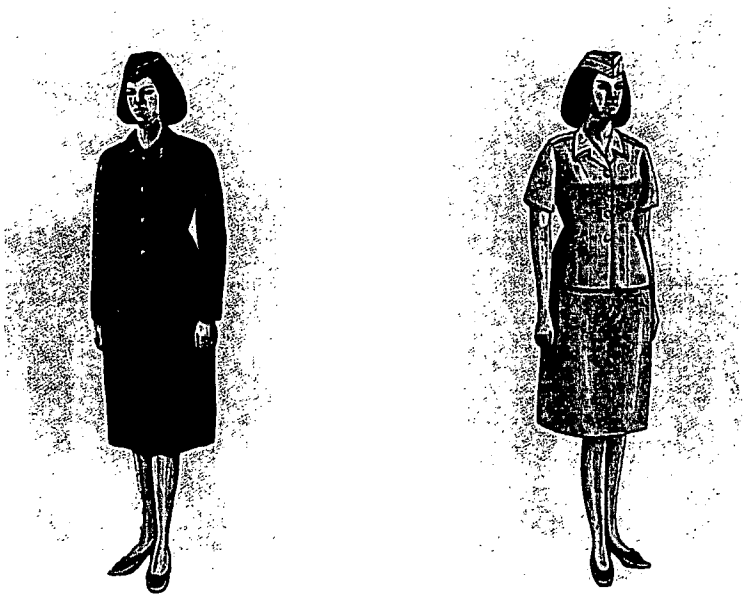


〈남군 근무복(1962년~1967년)〉

(나) 여 군

1962년 개정된 근무복의 동복은 흑갈색 모직 서지로 제작된 더치 칼라(Dutch collar)형의 상의와 스커트를 착용한 투피스형의 슈트였고, 하복은 다갈색(茶褐色) 모직 포럴로 제작된 스포츠 칼라의 상의와 스커트를 착용한 투피스형의 슈트이다. 동·하복 공히 상의는 한 줄 4단추 저고리(single breasted buttons : 상의나 재킷에 있어서 앞여밈이 홑자락인 것에 부착된 단추)로서, 동복은 긴소매, 하복은 반소매이고, 어깨에는 견장대, 허리의 양측에는 속붙임 사선주머니를 부착하였으며, 오른쪽 깃에 계급장, 왼쪽 깃에 병과휘장을 각각 부착하였다. 앞면의 중형 단추와 견장대의 소형 단추는 황금색 금속장이다. 하의는 H형의 타이트 스커트로서, 앞면은 2폭, 뒷면은 3폭이었고, 허리의 우측부위에는 절단선을 따라 15㎝의 지퍼를 부착하였다.

동절기에는 필요에 따라 하의의 스커트 대신 바지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바지의 상단 좌·우측에는 수직으로 된 속붙임주머니를 부착하였고, 우측 허리부위에는 절단선을 따라 길이 15㎝의 지퍼를 부착한 형태였다. 모자는 근무복과 동일한



동 복 하 복

〈여군 근무복(1962년~1967년)〉

색상의 개리슨 모를 착용하고, 신은 검정색의 굽이 얕은 힐을 착용하거나 단화를 착용하였다. 또한 1963년 3월 18일, 〈각령 제1232호〉에서 하복의 연한 자갈색 모직 포럴재질을 카키색 화섬(化纖)으로 변경하고, 1967년에는 동근무복은 폐지하고 하근무복은 약정복으로 개칭 착용하였다.

(3) 1975년~1979년까지의 근무복

1967년에 근무복이 폐지되고, 하약정복이 제정되어 하근무복으로 착용할 수는 있었으나, 동·하절기에 야전에서 일상근무시와 영외로 출타시 간편하고 단정한 차림을 할 수 있는 제복이 필요하여, 1975년 7월 3일, 〈국인근 제203.2-488호〉로 다시 근무복 제식을 제정하였다. 당시 제정된 근무복 제식은 장교와 사병복을 각각 다르게 제정하였는데, 장교는 정복과 같이 동·하복을 같은 녹회색으로 하면서 재질을 다르게 하였으며, 사병은 1967년 이전에 착용하던 근무복과 같이 동복은 흑갈색이고 하복은 카키색이었다.



동복(1976년~1979년) 하복(1976년~현재)

〈장교 근무복(1976년~1979년)〉

이들 근무복은 정모에 단화를 착용하는 차림새 외에도 야전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고려하여 전투모에 전투화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전부대원들은 전투모 대신 베레모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하면, 장관급 장교는 평상시에 전투화 대신 반장화모양의 근무화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관급 장교의 근무화는 197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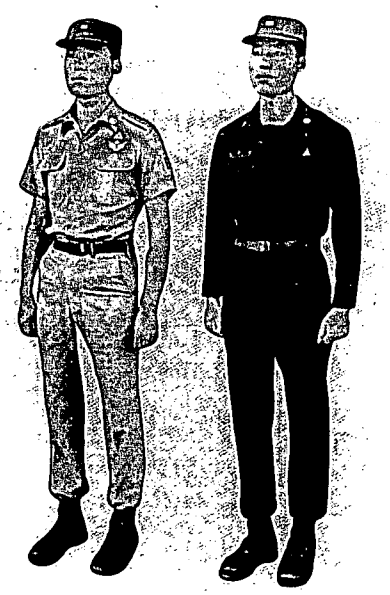


1975년～197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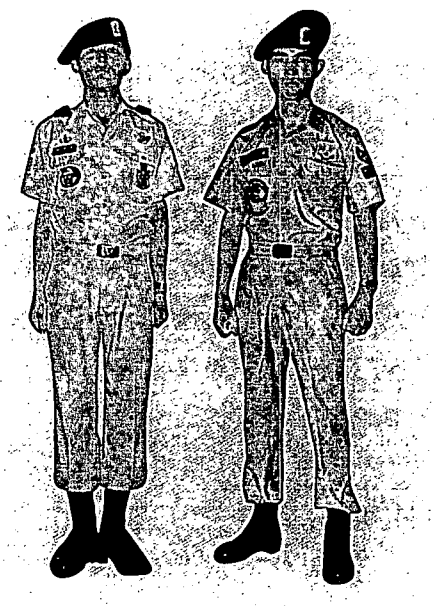
1980년～현재

〈장관급 장교 근무화(1975년～1990년)〉



동 복 하 복

사병(1975년～1980년)



1976년～1977년 1977년～현재

특전요원

〈사병 근무복(1975년～1980년)〉

9월 30일, 품위향상을 주목적으로 예복과 장관급 장교의 계급장 및 권총요대 등을 개정할 때, 일상근무시에 근무장이나 전투장 차림시에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는 흑색 피혁의 반장화모양의 근무화를 새로 제정하였는데, 이 근무화는 6·25 전쟁 이후에 착용하던 갈색의 반장화와 동일한 형태였다. 그후 이 근무화는 착용과정에서 근무화가 발에 꽉 끼지 않아 양말이 벗겨지고 발에 힘을 줄 수 없고 피로가 쉽게 옴에 따라 1978년 5월 9일, 〈육인사 제150.2호〉에 의해 근무화의 목부위를 전투화의 목길이와 같은 길이로 하고 끈 대신 근무화의 내측면에 지퍼를 부착하는 제식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장교의 근무복은 전반적인 시행에 앞서 색상이 정복 색상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강직한 감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져, 1976년 6월 23일, 〈국인근 제203.2-481호〉에 의거 하복은 종전의 하약정복 제식으로 하고, 동복은 상·하의를 흑청록색으로 다시 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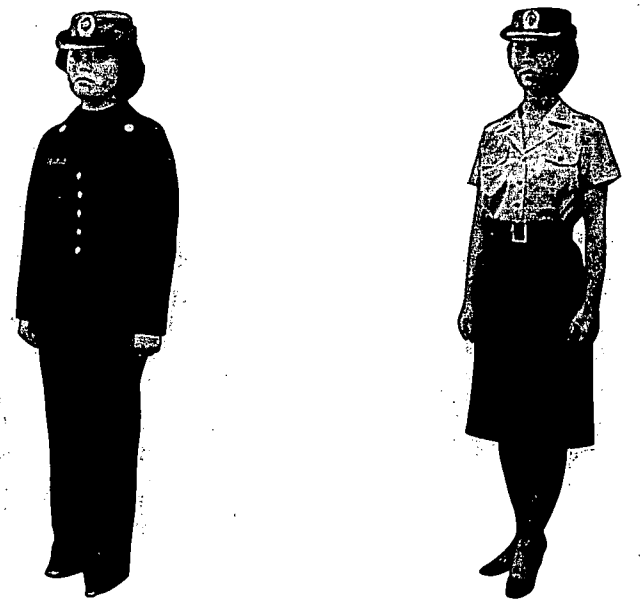
(가) 남 군

근무복의 제식은 장병이 색상만이 다를 뿐 형태는 동일한 스포츠 칼라형의 노타이 셔츠이다. 동복은 긴소매에 앞가리개가 부착되고, 하복은 앞가리개가 없는 반소매였으며, 동·하복 공히 어깨에는 견장대, 흉부 좌·우측에는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부착하였고, 앞면의 단추와 주머니 및 견장대의 단추는 복지색 플라스틱제 소형 단추이었다.

장교의 하근무복 소매 하단은 폭 3㎝의 밑단(접어 넘긴 단)을 부착한 형태였다. 그리고 부착물은 동·하복 공히 장교는 우측 깃에 약장계급장, 좌측 깃에 병과휘장을 각각 부착하였다.

(나) 여 군

여군의 하근무복은 하약정복을 명칭만 하근무복으로 바꾸어 그대로 착용하였고, 동근무복은 흑갈색의 화섬 서지재질의 재킷과 바지가 분리된 슈트제식이었다. 상의는 오블롱 칼라(oblong collar : open collar의 일종으로서 깃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둥근 느낌을 주는 타원형 칼라)형의 한 줄 5개 황금색 금속제 중형 단추를 단 저고리로서, 어



동 복 하 복

〈여군 근무복(1976년~1979년)〉

깨에는 견장대, 요부 좌·우측에는 속붙임주머니를 부착한 형태이다. 상의 속에는 풀오버(pullover : 트임이 없고 착용할 때 머리로 덮어써서 입는 형식) 스웨터를 받쳐 입었다. 하의는 일반형의 바지로서, 우측 상단에 길이 15㎝의 지퍼를 부착한 형태였다.

그후 1976년에는 장교의 근무복 제정에 따라 사병의 동근무복도 색상과 재질을 장교의 동근무복과 같은 제식으로 통일하였다.

(4) 1980년 이후의 근무복

1975년에 다시 부활되어 1976년부터 시행하여 온 근무복은 1980년에 녹회색의 정복 색상이 흑청녹색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근무복의 하의 색상도 자동적으로 흑청녹색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하근무복의 부착물도 일부 변경되었는데 계급장과 병과휘장을 양측 깃에 부착하던 제도를 새로 개정된 토시계급장을 어깨의 견장대에 부착하고, 양측 깃에는 금속제 병과휘장을 바로 세워서 부착하였다.

이렇게 정복과 장교의 근무복이 흑청녹색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병의 근무복 색상(동복은 흑갈색, 하복은 카키색)이 정복 색상과 다를 뿐만 아니라 장교의 근무복 색상과도 상이함으로써 군의 복색이 다양해져, 1981년 3월 26일, 〈국인군 제918.2-226〉에 따라 사병의 동·하근무복 색상을 장교의 근무복 색상으로 개정하였다.



1980년~1990년

〈장교 하근무복〉



남군 동근무복



남군 하근무복



여군 동근무복
1984년~1990년

〈사병 근무복(1980년~1990년)〉



1980년~1985년



1985년~現在

〈장교 하근무복 부착물 부착요령〉

또한 1984년 12월 7일에는 여군의 동근무복 형태를 변경하였는데, 종전의 동근무복 깃의 모양이 오블롱 칼라형(oblong collar : 긴 타원형 칼라)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유아복의 깃형태와 유사하여 장년기 여성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깃의 형태를 정복의 깃형태와 같은 테일러 칼라 형태로 변경하였다. 1985년 7월 1일에는 장교의 동·하근무복 부착물이 상이하여 〈육인사 150. 2〉로 하근무복의 토시계급장을 폐지하여 하근무복도 동근무복과 같게 우측 깃에는 계급장, 좌측 깃에는 병과휘장을 부착하도록 변경하였다.

라. 戰 鬪 裝

(1) 전투복

(가) 1954년~1965년까지의 전투복

초창기인 1946년부터 착용하여 오던 큰 주머니형태의 미군원작업복이 6·25전쟁이 끝난 다음해인 1954년에 작은 주머니형태의 작업복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잉여 작업복이 6·25전쟁을 통하여 모두 소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새로 도입되는 군원작업복도 새로운 형태의 작업복으로 바꾸어져 가는 것이다. 1954년 9월 1일, 〈육군규정 제23호〉에 따라 6·25전쟁 기간중 착용하였던 잡다한 제복을 정리하면서 작업복도 새로 개정된 미군 작업복을 모방한 형태로 개정하였다. 다만, 색상과 재질은 종전과 같은 국방색 면직이었으며, 형태도 주머니형태만을 변경하였을 뿐 전반적인 모양은 종전과 같은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작업복(1954년~1965년)〉

상의는 컨버터블 칼라(Convertible collar : 셔츠 칼라의 일종으로 맨 윗까지 단추를 잠그거나 풀 수 있는 변화 가능한 칼라)형의 한 줄 5개 단추 저고리에 흉부 좌·우측에는 근무복과 같은 작은 형태의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부착하였다. 하의는 양측 대퇴부

부위에 겉붙임 사선주머니, 뒤쪽 둔부 양측에는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각각 부착한 형태였다. 그리고 표지물은 전과 같이 장교는 우측 깃에 계급장, 좌측 깃에는 병과 휘장을 부착하였고, 사병은 상의 좌측주머니 뚜껑 우측에 약장 계급장을 부착하였다.

그리고 여군의 작업복은 남군작업복을 그대로 보급받아 착용하였으므로 제식상에서 다른 점은 없었으나, 남군이 갈색 전투화를 착용한데 반해 여군은 전투화와 단화(끈으로 매도록 된 뒷굽이 얕은 신발)를 혼용한 것이 다를 뿐이었다.

(나) 1965년~1967년까지의 전투복

1964년까지 착용하여 오던 작업복의 형태는 장교와 사병의 구분없이 같은 형태였는데, 1960년대에 들어선 당시의 야전부대에서는 진지의 개축이나 신축 등의 작업이 비교적 많은 편이어서 작업복의 마모율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보급경제의 측면까지 고려되어, 1965년부터 사병의 작업복에 한하여 기본형태의 변경없이 마모가 심한 부분에 덧붙임을 한 형태로 보완하여 지급하였다.



〈사병 전투복
(1965년~1967년)〉

상의에는 어깨와 팔꿈치, 하의에는 무릎과 엉덩이 부위에 같은 재질의 복지를 각각 부착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형태의 덧붙임 작업복은 영내에서 교육훈련이나 작업시에는 별문제없이 그런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으나, 외출이나 휴가시에는 정복이나 근무복이 지급되지 않는 사병들이 착용하기에는 외관상 좋지 않게 보일 뿐만 아니라 군복으로서의 품위가 미흡하여, 대부분 덧댐 부위를 제거하고 착용하는 폐단이 생겨 경제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낭비를 가져오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결국 1967년 1월 9일, 〈대통령령 제2869호〉에 의거 시행된 지 2년 만에 종전의 형태로 환원 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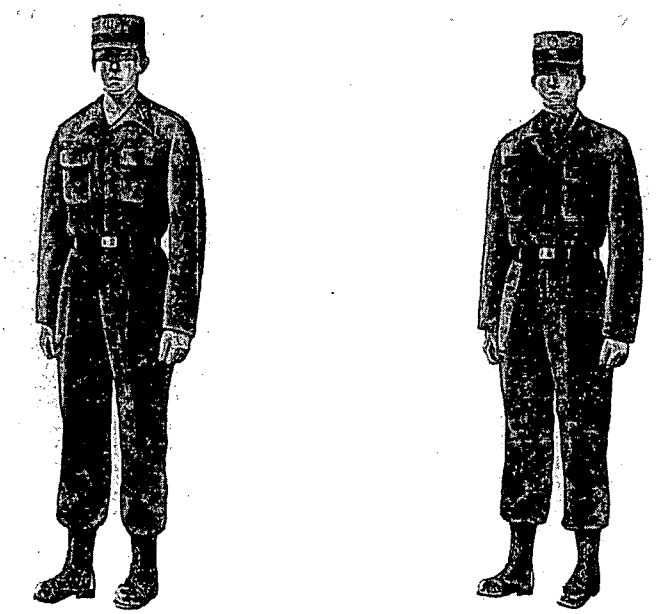
(다) 1967년~1971년까지의 전투복

1965년에 덧붙임형태로 바뀌었던 사병 작업복이 1967년 1월 9일로부터 종전의 형태로 환원되면서 장병의 작업복이 견장대를 제외하고는 (장교 작업복에는 견장대 부착) 동일한 형태로 통일되었고, 호칭도 바꾸어 작업복을 전투복, 작업모를 약모(略帽)로 개칭하였다.

이렇게 장교와 사병의 전투복이 견장대를 제외하고 그 형태가 동일하게 통일되자, 일부 몰지각한 초급 간부들이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전투복을 부당하게 착용하는 사례가 생겨, 결국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1967년 8월 7일, 〈대통령령 제3172호〉에 의거 장교의 전투복에 한하여 깃의 형태를 다르게 하였다.

상의는 아랫깃이 없는 스포츠 칼라형의 한 줄 5단추 저고리로서, 어깨에는 견장대, 흉부의 좌·우측에는 겉붙임주머니를 각각 부착한 형태였다. 하의는 종전과 같은 일반형의 보통바지로서 양 측면에는 속붙임 사선주머니, 둔부 양측에는 뚜껑이 없는 속붙임주머니를 부착한 형태였다.

한편 표지물은 장교의 경우 우측 깃에 계급장, 좌측 깃에는 병과휘장을 부착하였



장 교 사 병

〈전투복(1967년~1971년)〉

고, 사병은 좌측주머니 뚜껑 우측에 약장 계급장을 부착하였다. 여군의 전투복은 남군과 동일한 형태였으나 다만 앞면의 여미는 부위가 남군과 반대인 것이 다를 뿐이었다. 한편, 1967년부터 파월하는 장병에게는 국내에서 착용하던 전투복과는 달리 전술행동에 편리하도록 고안된 전투복과 미군이 착용하던 정글화(전투화와 같은 형태였으나 발목부위 상단에 織造物을 부착)와 동일한 모양의 정글화를 일정한 규정이나 규제를 세울 여유가 없이 지급 착용하게 되었다.



〈파월장병 착용 전투복
(1966년~1973년)〉

(라) 1971년~1980년까지의 전투복

1971년 2월 25일, 〈대통령령 제5538호〉에 의하면 1967년도부터 착용하여 오던 전투복을 그동안 월남전선에서 전술행동시 불비(不備)하였던 점과 미군의 정글복형태를 한국인의 체질에 부합되도록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착용하는 제식으로 바꾸었으며, 전투모도 우리 고유의 형식으로 변경하였는가 하면, 6·25전쟁 당시부터 착용하여 오던 목도리(머플러)도 1971년 3월 1일 부터 〈육인 제421호〉에 의거 폐지하고, 동절기에는 전투복의 맨 윗단추까지 여미어 착용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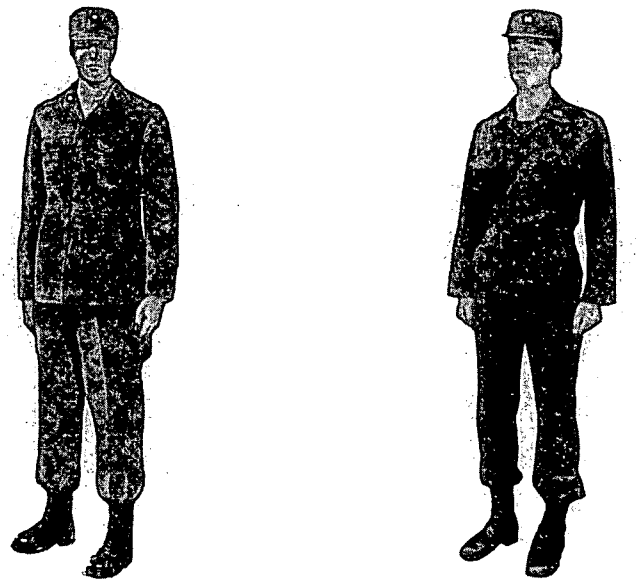
그러나 이같은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착용하는 전투복도 월남의 지형조건과 전투양상이 한국전선에서 그대로 적응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기유지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어, 1973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6884호〉에 따라 남군의 전투복 상의를 하의 속으로 넣어 착용하는 제식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지금까지 장교와 사병용으로 다르게 규제하였던 전투복은 1971년 2월 25일에 남군과 여군의 형태를 다르게 규제하고, 장교와 사병의 전투복을 같은 모양으로 통일하였으나, 장교와 하사관의 품위를 보다 높이기 위하여 재질을 사병과 다르게 하였다. 장교와 하사관용은 폴리에스테르와 레이온의 합섬물(合纖物)이었고, 사병용은 면(綿)과 폴리에스테르의 화섬(化纖)이었다.

1) 남 군

1971년 2월 25일 개정된 전투복은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착용하는 제식으로 컨버터블형 깃에 한 줄 5개의 복지색 단추를 부착한 저고리로서, 어깨에는 견장대, 흉부좌우측에는 겉붙임 뚜껑주머니, 좌측 안쪽하단에는 비상용 사선주머니를 각각 부착하였고, 허리 안쪽에는 야전상의와 같은 허리 조임끈을 부착하여 필요시 조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용도를 다양하게 하였으며, 하의는 6·25전쟁 당시의 전투복과 같이 대퇴부의 양 측면 봉제선상에 커다란 다용도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부착하고 그 위쪽에 사선주머니를 부착한 모양이었다.

그후, 1973년 10월 4일 개정된 전투복은 상의 허리부위의 조임끈과 안쪽하단에 부착하였던 비상용주머니는 제거하고 앞가리개를 새로이 부착한 형태였고, 하의는 대퇴부 양 측면의 다용도 큰주머니는 제거하고 보통바지와 같은 사선주머니를 부착한 형태였는데, 장교에 한하여 뒷면 둔부의 양 측면에 속붙임주머니를 부착하였다.



1971년~1973년　　1973년~1989년

〈남군 전투복(1971년~1989년)〉

2) 여 군

1971년 2월 25일에 개정된 새로운 제식에서의 여군 전투복 상의는 더치 칼라형에 한 줄 5개 단추의 저고리로서, 허리에는 조임식 허리띠를 부착한 모양이었으며, 허리띠 앞면 중앙 양측에는 조임용 단추를 달아 여미도록 하였고, 허리띠 뒷면 중앙부위 아래에는 절개한 형태였다. 어깨에는 견장대, 허리의 양 측면에는 속붙임 사선주머니를 달았고, 소매는 셔츠소매였다. 하의는 양 측면에 속붙임 사선주머니를 달았고, 우측 요부에는 길이 15㎝의 지퍼를 붙였으며, 바지 하단 외측에는 조임띠와 단추를 달았고, 신은 평상시에 단화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여군 전투복
(1971년~198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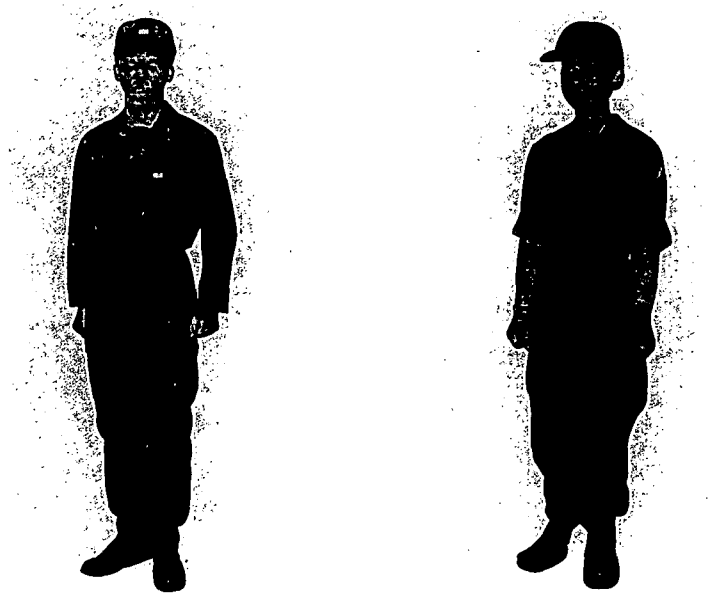
(마) 1983년 이후의 전투복

아웅산 사건이 발생한 1983년의 후반기 예비군동원훈련장(제5군단 지역)에서 대통령이 '북한이 우리의 전투복을 조총련계통을 통하여 반입하여 대남공작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함에 따라, 1983년부터 1년여에 걸쳐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전투복장에 대한 개선 연구의 결과, 얼룩무늬 전투복으로의 개선안이 결정되었으나 예산상(약 160여억 원 소요)의 문제로 유보하여 오다가, 1990년 11월 23일(대통령령 제13166호), 정식으로 개정 승인되었다.

첫째, 품위를 유지하면서 한국적 특색을 부각시키고,
둘째, 전술행동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셋째, 위장효과를 증대시킴은 물론 위엄성을 겸비할 수 있고,
넷째, 4계절 착용이 가능하고 세탁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한다.

1990년 11월 23일에 개정된 전투복은 그 재질을 장병의 구분없이 면(綿)과 화섬(化纖)의 혼방(混紡) 50 : 50으로 바꾸고, 색상은 우리 나라의 4계절 환경을 고려한 녹색(30%)·갈색(30%)·모래색(20%)·흑색(20%)으로 구성한 얼룩무늬 위장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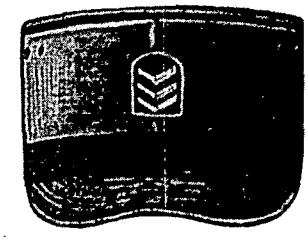
상의는 컨버터블형 깃에 한 줄 5개의 국방색 플라스틱형 단추가 달린 저고리로서, 어깨에는 견장대, 흉부 좌·우측에는 중앙에 주름이 잡힌 중형 주머니를 달았으며,



〈**전투복**(1990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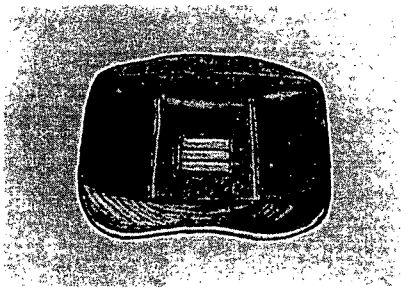
소매끝 부위에는 화생방전과 동절기 방한목적 조임띠와 국방색 플라스틱 단추를 달았고, 앞면의 잠금단추는 군장시(軍裝時) 장애가 없도록 보이지 않게 하였다. 하의는 대퇴부 양측에 속붙임 사선주머니, 양측 봉제선상에는 주름잡힌 대형의 다용도 뚜껑주머니, 뒷면 둔부 좌·우측에는 속붙임주머니를 각각 부착하였고, 무릎부위에는 활동에 편리하도록 주름을 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여군은 1971년부터 착용하여 오던 더티 칼라형의 전투복을 폐지하고 개정된 얼룩무늬 전투복을 그대로 착용하였으나, 다만 상의의 앞면 여미는 부위가 남군과 반대이다. 전투복이 이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남군과 여군이 다르고, 남군은 장교와 사병의 제식이 다르던 양식이 통일되게 되었다.



〈작업모(1956년~1971년)〉

(2) 전투모



〈전투모(1971년~198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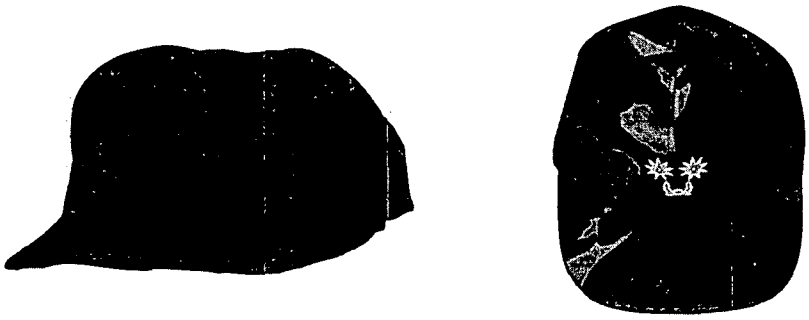
1954년 〈육군규정 제23호〉에 의거 새로이 개정된 제식에서 작업모와 전투화는 종전과 같았으나 당시 미군 고문관들이 작업모 속에 두꺼운 종이를 넣어 빳빳하게 하여 착용하는 것을 본받아 1956년 이후에 민간군장품(民間軍裝品) 판매업소에서는 작업모의 윗둘레에 철사를 넣어 빳빳하게 만들어 판매하였고, 이를 대부분 구입하여 착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그 후, 1962년 4월 27일, 〈각령 제700호〉에 따라 모든 군복이 각령(閣令)으로 규제되면서 작업모는 빳빳한 모양의 형태로 정식 개정되었다.

1971년 2월 25일, 작업모를 전술행동에 편리한 형태로 변경하면서 고대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착용하던 사모(紗帽)모양을 가미한 우리 고유의 형태로 개정하였다.

앞면을 3등분으로 분할하고, 윗부분을 동글게 하여 봉접하고, 뒷면은 원통형모양이되 내면에는 동절기의 방한은 물론 모자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귀덮개를 부착하였다.

그후, 1971년 이래 한국의 고유특성을 살려 제정된 전투모[紗帽型]는 그동안 착용과정에서 멋을 내면서 딱딱한 포직물(비닐로 포장)로 제작된 비규격(非規格)전투모가 시중에 유통되어 이를 구입 착용하는 사례가 증대됨에 따라, 198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1314호〉에 의거 그 형태를 1960년대부터 1985년까지 미군이 착용하던 운동모형태의 전투모로 개정하였다.

1983년에 개정된 운동모형태의 전투모는 당시 장교의 전투복지인 국방색 화섬혼방(폴리에스테르와 레이온의 혼방)을 겹으로 하여 제작된 것으로, 6개의 삼각형조각을 모자의 상단 중앙부위에서 합치도록 봉직한 둥근 모양이었는데, 안쪽뒷면(차양의 양측끝 부위에서 뒤쪽)에는 모자의 형태를 유지함은 물론 동절기에 귀를 보온할 수 있는 귀덮개를 부착하였다. 이같은 재질과 모양은 전투모의 혁대와 모관이 용이하고 수시로 자유로이 세탁할 수 있고 필요시 철모나 방한모도 겹쳐 착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었으며,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다가 1990년 11월 23일, 전투복의 색상이 얼룩무늬 위장색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투모도 형태는 그대로 두고 색상만 개정된 전투복의 얼룩무늬 위장색으로 바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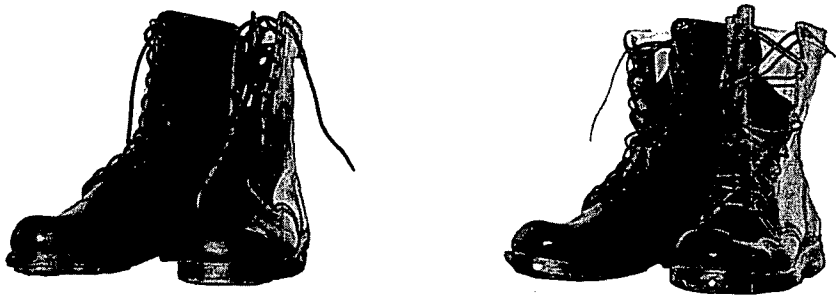


〈전투모(1983년 ~)〉

(3) 전투화

1970년대 초에 간부의 피복 보급제도가 판매소 구입제도로 바뀌면서 장교의 전투화 제식도 앞 코가 없는 형태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하여 장교와 사병의 전투화 제식이 상이하게 되었는데, 실제 앞 코부위의 덧붙임이 없어도 전투화의 수명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음은 물론 오히려 덧붙임으로 인해 연간 22억 원이라는 추가예산이 소요되고 있었다.

이에 1983년 2월 28일, 〈국인근 제918.2-179호〉에 의거 사병의 전투화를 장교전투화 제식과 통일하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앞면 코부위의 덧붙임을 제거하였고,



사병용(1983년) 장병 공동(1983년~1990)

〈전투화(1983년~현재)〉

동년 5월 4일에는 〈대통령령 제11121호〉로 전투화의 착탈(着脫)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동시에 착용시간을 단축하여 유사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군화 끈의 결속구멍 10개를 7개로 줄이고, 결속 부위의 직선형을 S자형(밑부분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간격을 넓게 함)으로 변경함과 동시 군화 끈의 직경도 0.3㎝를 0.2㎝로 줄이고, 끈은 항시 군화 끈 결속구멍에 끼워둔 형태로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착용시 윗구멍 부위의 끈을 당기면 밑에서부터 조여들면서 신속히 결속되어 야간 출동시에도 결속이 가능하여 민첩한 행동이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도 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침수방지를 위해 앞가리개도 상단 결속구멍 부위까지 봉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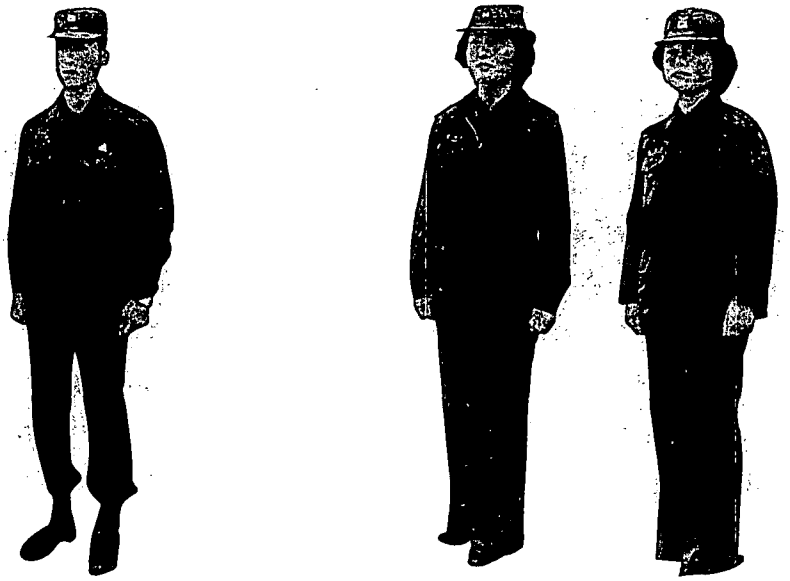
(4) 야전상의

(가) 1958년~1980년도까지의 야전상의

미 군원 야전상의가 1958년부터는 종전에 착용하던 단추잠금 형식에서 지퍼잠금 제식으로 바뀌었는데, 재질과 기본형태는 종전과 같은 국방색 개버딘에 깃은 컨버터블형이고, 소매는 서츠소매에 플라스틱제 중형 단추로 잠그는 형태였으며, 앞면 여미는 부위는 날개 덧붙임 천을 붙인 모양으로 안쪽에는 지퍼를 부착하고 날개부위에는 눌림단추를 부착한 형태였다.

어깨에는 견장대, 흉부 좌·우측에는 뚜껑이 달린 신축성이 있는 큰주머니, 허리의 양측에는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각각 부착하였고, 허리와 밑단 부위에는 조임끈을 부착하여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시에 착·탈식 내피를 끼워서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지물은 계급장과 명찰만을 부착하였는데, 장교는 어깨의 견장대에 정장 계급장, 사병은 좌측주머니 뚜껑 우측에 약장 계급장을 각각 부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 군원 야전상의의 보급은 일부분에 불과하였고, 1963년부터는 국내조변품으로 충당하기 시작하였는데, 지퍼와 눌림단추의 품질이 다소 불량하여 지급품보다는 암시장에서 미제 야전상의를 개인구입하여 착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후 점차 국산 야전상의의 품질이 향상되어 1960년대 후반기부터는 미제 야전상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남 군 여 군

〈야전상의(1958년~1970년)〉

이어 1971년 2월 25일부터 간부의 피복 보급제도가 변경되면서 제복의 질도 향상되었으며, 깃의 형태도 스포츠 칼라형태로 변경되고, 등 뒤 양측에 아코디언형식의 주름을 설치하고, 팔꿈치부위도 팔을 접었다 폈다 하기에 편리하도록 보완하였다.

(나) 1990년 이후의 야전상의

이후 야전상의는 아웅산 사건이 발생한 1983년의 후반기부터 1년여에 걸쳐 전투복장에 대한 개선 연구의 결과 얼룩무늬 전투복으로의 개선안이 결정되고, 예산상의 문제로 유보하여 오다가, 1991년 1월 3일에 〈국인군 제24172-25호〉로 정식으로 개정 승인되면서 전투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1991년 1월 3일, 〈국인군 제24172-25호〉에 의거 형상의 변경없이 색상만을 전투복과 같은 문양의 위장색으로 개정하였다. 원래 야전상의는 전투복과 함께 연구되고 개선 건의되었으나 특수복장인 관계로 기본복장인 전투복의 색상이 결정된 연후에 조치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승인이 조금 늦어져 1991년 초에 승인되었던 것이다.

(5) 장교 점퍼

(가) 1975년~1980년까지의 장교 점퍼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복제면에서 장교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켜준 것으로는 1975년 7월 30일, 〈국인근 제203.2-488호〉에 의거 장교 점퍼를 새로이 제정한 것이었다. 이 장교 점퍼는 1950년대부터 미 항공조종사들이 착용하였던 제복으로, 국군 장교들 중에서 일부 고급장교들이 이 항공 점퍼가 일상 근무시 편리한 차림일 뿐만 아니라 품위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을 동경한 나머지 즐겨 착용하였었다.

항공 점퍼는 1950년 초 당시에는 황갈색 개버딘지로 제작된 스텐 칼라형의 점퍼였고, 1950년대 말에는 '탱크 점퍼'라고 하는 현재의 장교 점퍼와 유사한 형태였으며, 그 외에도 사제(私製) 가죽점퍼 등이 즐겨 착용되어 일률적으로 이렇다 할 수 없을만큼 다양한 형태의 점퍼들이 규정과는 관계없이 착용되어 왔으며, 마치 고급장교의 권위의 상징처럼 간주되어 왔다. 그후 1960년대에 와서 항공장교들에게 우선적으로 항공 점퍼의 착용을 승인하자 일반장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1960년 말부터 1970년 초까지 월남에서 귀국하는 장교들마저 미제 항공 점퍼를 휴대 귀국함에 따라 계층의 구분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착용하게 되어, 점퍼의 현실화가 필연적인 사실로 대두되었다.

1975년 7월 30일, 영관급 장교 이상만이 착용하도록 하는 규제가 제정되었다. 점퍼의 외피는 은회색 화섬[나일론]이었고, 내피는 비상시 구명신호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주황 오렌지색으로 하였으며, 깃은 피터 팬 칼라(Peter Pan collar[13] : 가장자리가 둥글고 평평한 칼라)이고, 허리의 양 측면에는 사선형의 속붙임주머니, 어깨에는 견장대를 부착하였고, 소맷부리와 허리에는 조임식 편직을 부착한 형태였다. 그리고 혹한기 방한을 위해 별도의 착탈식 내피를 부착하였고, 장관급 장교는 복지색의 착탈식 털깃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영관급 장교의 깃이 화섬으로 쉽게 더러워지고 아동복의 깃과 같은 형태로 품위가 미흡하여, 1976년 6월 28일의 〈국인근 제203.2-481호〉에 의거 허리와 소매

13) James M. Barrie의 희곡 「피터 팬」 중에서 주인공이 입었던 옷의 칼라 형태를 가리켜 피터 팬 칼라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아동복에 많이 사용되는 귀여운 칼라로 여성의 블라우스 칼라에도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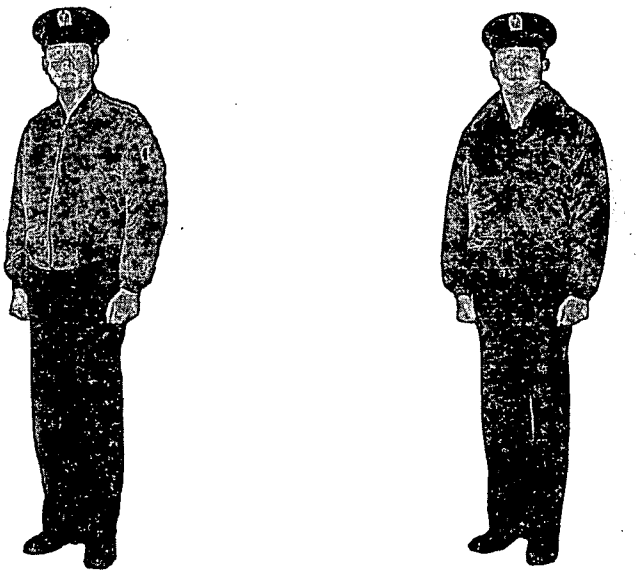
장 관 1975년 이후 | 영(위)관 1975년~1976년 | 영(위)관 1976년~1979년 | 1979년 이후

〈장교 점퍼(1975년 이후)〉

부위의 편직과 같은 조임식 편직물 깃으로 변경하였다. 그후 1978년 1월 1일에는 장교의 품위 유지를 위해 위관급 장교까지 확대착용하도록 하였으며, 1979년 11월 7일에는 영관과 위관급 장교들에게도 동절기 보온과 품위향상을 고려하여 장관급 장교와 동일한 형태의 털깃을 부착하도록 개정하여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나) 1981년 이후의 점퍼

1975년에 영관급 이상 장교만이 착용하던 항공 점퍼를 1978년 1월 1일부터 위관급 장교까지 그 착용범위를 광대하면서 그 명칭도 항공이 아닌 장교 점퍼로 개칭하였는데, 당시 이같은 형태의 점퍼는 해·공군에서는 하사관들까지 착용하고 있었으나 육군의 하사관들은 전투복과 근무복에 야전상의를 착용하고 있어 타군과의 균형은 물론 근무복 착용시의 품위까지 고려하여, 1981년 3월 26일, 〈국인근 제918-226호〉에 의거, 하사관도 장교 점퍼의 털깃을 제거한 형태의 점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제 그 명칭도 제한된 범위를 의미하는 장교 점퍼가 아닌 '점퍼'로 개칭하였다.



1981년~1983년　　1984년 이후

〈하사관 착용 점퍼(1981년 이후)〉

이같은 점퍼의 회색 빛깔은 미 항공 점퍼를 모방한 것이었고 그동안 일부 전역장교들이 전역 후에도 계속 착용함을 고려하여, 1983년 10월 7일, 〈국인근 제918.2-770호〉에 의거 근무복과 전투복과의 중간색인 녹회색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1984년 2월 9일에는 하사관 점퍼의 품위와 보온 그리고 장교들과의 균형과 제복 제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하사관들도 털깃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다) 얼룩무늬점퍼와 가죽점퍼

1) 얼룩무늬점퍼

새로이 개정된 얼룩무늬점퍼를 제식과 색상면에서 조종사나 전차병이 착용하는 점퍼들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 제식

구 분	견 장 대	털 깃
일 반 장 병	○	○
조 종 사	×	×
전 차 병	○	×

· 색상

구 분	외 부	내 부	털 깃
점 퍼	청 록 색	국 방 색	은 회 색
조 종 사	청 록 색	국 방 색	
얼룩무늬점퍼	얼룩무늬	녹 색	녹 색

2) 가죽점퍼

가죽점퍼를 항공조종사 점퍼와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일 반	항공조종사
재 질		양 가 죽	양 가 죽
색 상	외 부	청 록 색	암 갈 색
	내 부	청 록 색	암 갈 색
소매 및 허리단		고 무 목	원 단
계 급 장		철제정장	철제정장
부 대 표 지		×	○
명 찰		×	○

〈비교표〉



〈가죽점퍼〉

마. 雨 衣

(1) 1959년~1967년까지의 일반우의



〈일반우의(1959년~1967년)〉

1950년대부터 군원품으로 지급되어온 일반우의는 그동안 아무런 규제 없이 착용하다가, 1959년에 비로소 일반우의(판초·특수우의 제외)만을 육군규정에 포함시켜 군복제의 일부분으로 장교용과 사병용으로 규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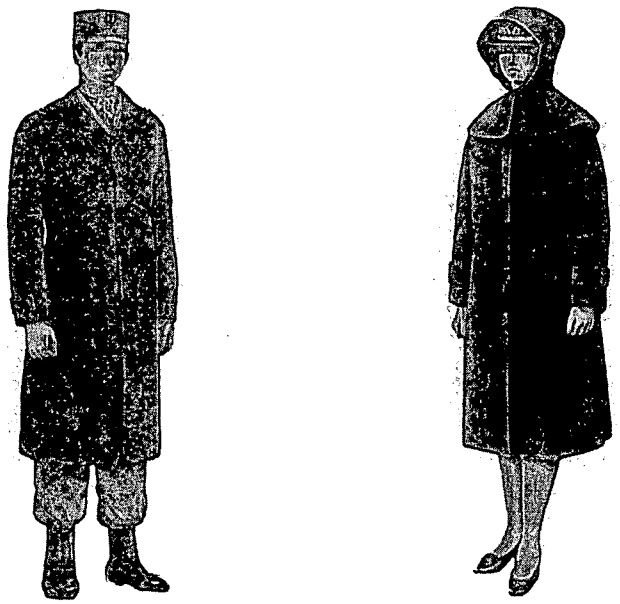
이때부터 1962년의 각령으로 공포될 때까지도 계속 미군원품 우의가 지급되고 착용되었는데, 장교용은 밝은 자갈색(밝은 자주색 기미의 고동색) 우의재질로 제작되어 컨버터블형 칼라에 두 줄 6개의 복지색 대형 단추를 부착한 형태로서, 어깨에는 견장대, 허리 양측에는 속붙임 사선주머니를 부착하였고, 소매에는 조임띠를 부착한 스트랩트 소매(Strapped cuffs : strap은 끈이 있다는 의미임)였으며, 허리에는 복지색의 플라스틱제 장식이 부착된 폭 5㎝의 요대를 부착하였고, 표지물은 견장대에 계급장만을 부착하였다.

사병용 우의는 창군 이후 계속 착용하여 오던 국방색 일반우의로서, 컨버터블형 깃의 한 줄 5개 단추가 부착되었고, 앞면 여미는 부위에는 안쪽에 날개 덧천을 붙이고 단추는 보이지 않게 여미도록 하였으며, 허리의 양 측면에는 속붙임 사선주머니를 부착한 형태였고, 표지물은 부착하지 않았다.

여군 우의는 장교우의와 동일한 형태였으나, 견장대가 없고 여미는 부위가 반대였다.

(2) 1967년~1971년까지의 일반우의

1962년에 각령으로 규제된 연한 자갈색의 우의는 미군의 잉여품 제식으로 1967년까지 영관급 이상 장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급되었으나, 국군의 체격에 맞지 않아 착용이 어려워, 1967년 8월 7일, 〈대통령령 제3172호〉에 의거, 다른 제식으로 개정하였다. 그렇다고 이 제식이 새로운 형태는 아니었고, 다만 종전에 사병우의에서 규제된 형태이었던 컨버터블형의 깃에 한 줄 5개의 복지색 플라스틱제 대형 단추를 부착하고, 앞면에는 덧천을



남 군 여 군

〈일반우의(1967년~1971년)〉

부착하여 단추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였으며, 소매는 넓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반띠(cuff band)를 부착하였고, 뒷면 하단은 절개되었으며, 장교의 우의에만 견장대를 부착하였다. 여군 우의는 착탈식 두건이 별도로 있고, 앞면 여미는 부위가 남군과 반대인 것이 다를 뿐이었다.

(3) 1971년 이후의 일반우의

1967년부터 우리 나름대로의 우의가 제정되고 보급되었으나, 그 제식이 창군 당시에 착용하던 우의형태여서 미군의 우의와 비교하여 미관상 좋지 못할 뿐 아니라 우의의 재질과 제작기술이 미흡하여 우의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대부분의 장교들이 미군 우의를 즐겨 착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1971년 2월 25일, 〈대통령령 제5538호〉에 의거 장교의 우의를 종전에 지급된 미군 우의형태로 개정하였다. 테일러 칼라형태에 두 줄 6개 단추에 허리띠가 달린 우의로서, 어깨에는 견장대, 허리의 양측에는 속붙임 사선주머니, 소매에는 폭 4㎝의



남 군



여 군

〈일반우의(1971년 이후)〉

반띠, 등에는 물받이 덧붙임을 각각 부착한 형태였으며, 앞면의 단추는 복지색 플라스틱제 대형 단추였고, 허리띠는 5㎝의 폭에 복지색 플라스틱제 장식이 부착된 것이었다. 사병용 우의는 1967년 이후 변함이 없었으나, 하사관의 경우 피복 보급제도가 개인 구입제도로 바뀜에 따라 1977년 8월 16일, 〈대통령령 제8648호〉에 의거 장교용 우의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여군의 우의는 장병의 구분없이 장교 우의와 같은 모양이었으나, 다만 여미는 부위가 반대이고, 착탈식 두건이 있다.

2. 特殊服裝

특수복장이라 함은 특정된 인원(특전부대·전차병·항공조종사·수도경비부대·방위병·간호요원·헌병·군종요원·법무요원)이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평상임무시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제복과 행사에 참가하는 행사요원(의장대·군악대·여군·英顯兵)이 의(예)식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할 때 착용하는 제복, 그리고 무관후보

생(육사·3사·간호)이 상징적 표시나 교육기간에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제복들을 총칭하여 말한다.

가. 特戰要員 制服

특전요원 제복은 1957년 당시의 제1전투단에서 특전요원의 위용을 과시하고 임무수행시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베레모에 상·하의가 붙은 제복, 그리고 전투화를 착용하는 제식으로 건의되어, 동년 2월 1일, 승인된 일이 특수복에 관한 최초의 일이었다. 이 복식은 1963년 9월 20일 〈육인사 제421호〉로 정식 제정 승인되었으나, 상·하가 붙은 형태의 제복이 생각과는 달리 착용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모직으로 만들어진 동복의 경우 쉽게 마모되었고, 상·하의 중 어느 것이든 먼저 손상되거나 또는 지퍼가 고장나면 상·하 공히 착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1966년 12월 2일, 상·하의 분리식으로 개정하면서 색상을 얼룩무늬 위장색으로 변경하였다. 당시 동복은 동절기의 위장과 방한을 위하여 안쪽을 백색으로 겹옷으로 하고, 동·하복 공히 상의에는 단추 대신 지퍼를 부착한 형태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 제복도 1970년 5월 26일 〈육인근 제150.2호〉에 의거 위장색 구도가 작고 조잡하여 무늬의 구도를 크게 하면서 색상을 진한 색으로 바꾸는 한편 동복의 안감을 없엔 동·하복 공용 제식으로 개정하였다. 그후 1980년 2월 18일에는 1970년 이후 연속 착용하여 오던 얼룩무늬 위장복이 그 색상이 녹색 계열 위주로 구성되어 여름철을 제외한 봄·가을·겨울철의 위장에는 부적합하고, 방위병이나 예비군복의 위장색과 구도가 흡사하여 특수요원의 품위에 손상이 간다고 판단되어, 색상을 다시 갈색 계열(모래색·녹색·밤색·검정색)로 바꾸고 무늬도 크게 개선하였다.

특전복을 착용하는 대상은 초기에는 현(現)특전부대의 전신인 제1전투단에서 착용하다가, 제1공수특전단을 거쳐 1969년 12월 17일 이후에는 당시의 제1·2유격여단과 대적(對敵)선전대대를 통합한 특전부대원 전원이 교육훈련과 작전임무 수행간 착용하였다.

(1) 특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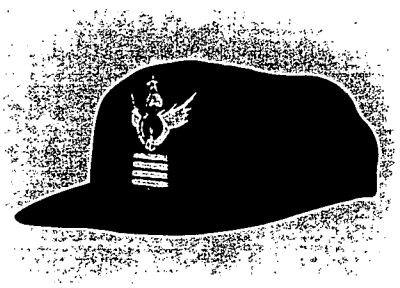
1963년 2월 20일 최초로 특전복의 일습(一襲)으로 제정된 특전모는 감청색의 약모(베레모) 제식으로서, 이는 대다수 외국군의 특수부대원들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였

다. 약모는 고공낙하시에 철모를 착용하기에 편하고, 머리와 귀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전에서의 행동에 편리하고 휴대에 간편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감청색 베레모는 주간 위장에 미흡하여, 1970년 5월 26일, 특전복의 위장무늬 구도를 변경할 때 보다 위엄성을 지니고 강인하게 보일 수 있도록 검정색 베레모로 개정하였다.

이들 특전모의 표장(標章)은 제정된 초기(1963년)에는 장병 공히 계급장을 부착하고 그 상단에 낙하산 휘장을 부착하였으나, 1966년 10월 13일 특수전 휘장이 제정되면서 장교는 낙하산 휘장 대신 특수전 휘장을 위에 달고 그 아래에 계급장을 부착하였으며, 사병은 특수전 휘장만을 부착하였다. 1983년 2월 18일부터는 장교 계급장이 계급장 하단에 무궁화표지를 부착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특수전 휘장의 부착이 곤란하여 계급장만을 부착하였다.

1981년 3월 26일 〈국인근 제918.2-226호〉에 따라 현행 베레모제식의 약모가 위장에 미흡하고 특히 우천시에 빗물이 얼굴에 뿌리고 햇빛이 나는 날에는 직사광선으로 인하여 눈이 부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모자가 필요하여 얼룩무늬 위장색의 운동모형태의 특전(特戰)전투모를 별도 제정하였다.



〈특전전투모(1981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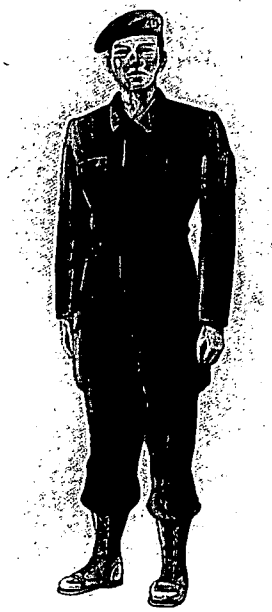
(2) 특전복

1963년 2월 20일 제정된 최초의 전투복은 위·아래가 붙은 연결된 내리닫이(Jump suit) 형태였고, 동·하복의 색상과 깃의 모양을 다르게 하였는데, 동복은 컨버터블형의 깃으로 된 흑갈색이고, 하복은 테일러형 깃의 얼룩무늬 위장색복이었다.

이 상·하 붙임식 내리닫이 제복은 허리에 폭 5㎝ 내·외의 복지색 요대를 부착하였으며, 상의의 흉부 좌·우측에는 속붙임 뚜껑주머니, 좌측 팔 상단부에는 필기구를 넣을 수 있는 소형 겉붙임 주머니를 부착하고, 앞면은 지퍼로 여미도록 하였다.

하의는 허리띠 아래부위의 좌·우측에 사선주머니, 대퇴부 좌·우측에는 겉붙임 다용도 큰주머니를 각각 부착한 형태였다.

그후 1964년 2월 25일에는 제1공수특전단의 건의에 의거, 동복의 색상을 작전임무수행에 적합한 흑녹색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동절기에 공중침투작전시 해상이나 하천



동복(1959년 ~ 1964년)



하복(1959년 ~ 1970년)



동복(1964년 ~ 1966년)



1970년 ~ 1980년



1980년 이후

〈특전복차림(1959년 ~ 1990년)〉

등의 수상점프나 잠수함 등에 의한 해상침투작전시에 물빛과 조화될 수 있는 것으로 고려되고, 산악작전시 주위환경의 색채와도 어울리도록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상·하 붙임식 특전복은 상·하의 중 어느 것이든 먼저 손상되거나 지퍼가 고장나면 상·하의 모두 착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1966년 12월 7일 〈육인근 제421호〉에 의거 상·하의 분리제식으로 개정하였고 또한 동·하복 공히 위장색 얼룩무늬로 통일하였다. 동복은 동절기의 설상위장(雪上僞裝)을 고려하여 안감을 백색으로 하였고, 앞면을 지퍼로 여미도록 하였으며, 흉부 좌·우측에는 주름잡힌 겉붙임 큰주머니를 부착한 형태였다.

하의는 대퇴부 좌·우측에 겉붙임 다용도 큰주머니, 오른쪽 허리부위에는 사선형의 겉붙임 칼주머니를 각각 부착하고, 바지의 앞면에는 지퍼로 여미도록 하였으며, 바짓가랑이 바깥부위에는 길이 20㎝ 내외의 지퍼를 달아 조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970년 5월 26일에는 위장복 얼룩무늬의 구도가 조잡하다고 판단하여 문양을 보다 크게 하고 색상도 보다 진하게 하였는데, 이같은 색상도 1974년 이후에는 위장색이 녹색계열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위병이나 예비군도 이와 유사한 색상의 제복을 착용함에 따라 1980년 2월 18일에는 모래색과 밤색, 녹색, 흑색, 카키색 등으로 구성한 갈색계열의 얼룩무늬 위장색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3) 특수화

전투복과 함께 착용하던 일반전투화는 긴급출동시 끈의 결속이 불편하여, 1972년



1972년~1975년　　1978년 이후

〈특전화(1972년~1990년)〉

5월에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결속할 수 있도록 기성(旣成)전투화의 내측면에 지퍼를 부착한 형태로 변경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장시간 행군시 결속한 형태가 느슨해지면서 양말이 벗겨짐은 물론 발에 물집이 생기고 습지를 걸을 때는 지퍼 하단부로부터 물이 스며드는가 하면 지퍼가 고장났을 때에는 응급처치가 불가능한 점 등 많은 결함이 발견되어 1975년에 다시 일반전투화 제식으로 환원하고, 1978년 5월 스키의 착용에 용이하도록 앞 콧등 부위를 각이 지게 하였다.

(4) 야전상의

1980년 2월 18일, 특전복의 위장색이 녹색계통에서 갈색계통으로 변경되었으나 야전상의는 일반장병의 국방색 야전상의를 계속 착용하게 됨에 따라 특전복의 위장색과 조화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장효과도 미흡하여, 1983년 1월 31일 〈육인사 제150.2호〉에 의거 특전요원의 야전상의 색상을 1980년에 개선된 특전복의 얼룩무늬 위장색으로 변경하였다. 이때 방한모를 별도로 휴대하는 번거로움과 장비의 경량화를 위해 야전상의의 깃 뒤쪽에 두건을 부착하였는데, 착용하지 않을 때는 겹으로 된 깃속에 넣어 지퍼로 잠가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제식으로 개정된 야전상의는 예산상의 문제로 1990년까지도 제식만 승인되었을 뿐 실제 보급되지는 못하였다.



〈야전상의(1983년 이후)〉

나. 機甲服裝

기갑복 제식은 1974년 기갑학교에서 기갑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갑장비의 정비와 조작에 편리하고 전차 내부에서의 활동과 승·하차 및 비상탈출에 용이하도록 고려하여 건의된 제복이 최초이다. 당시 연구발전사령부에서 3차례의 착용실험과 보완을 거치고, 두 차례의 심의평가 후 1975년 7월 30일 〈국인근 제203.2-488호〉로 제정된 제복으로서, 얼룩무늬 위장색의 베레모와 기갑복 그리고 동절기용 점퍼 등 3

가지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얼룩무늬 위장색이 당시의 방위병복이나 예비군복과 유사한 녹색계통의 위장색으로 위장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품위와 위엄성마저 결여되어, 1989년 7월 24일, 제복의 형태는 그대로 두고, 색상과 재질만을 개정하였는데, 1990년에 개정된 일반장병의 전투복과 동일한 색상과 구도로 통일하고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기갑병 제복은 기갑장병들이 영내에서 근무할 때와 작전임무를 수행할 때에만 착용하도록 하고, 일상근무할 때와 출타할 때에는 일반제복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1) 약 모(베레모)

전차병이 전차내를 출입하는데 용이하고 조준경과 잠망경을 조작할 때 전투모를 뒤로 돌려 착용하는 불편을 해소하면서 송·수화장구의 착용이 편리하도록 베레모 형태로 하고, 색상은 얼룩무늬, 재질은 모혼방의 멜턴이었으며, 모장(帽章)은 흑색바탕에 황색으로 자수한 기갑병과 표지를 부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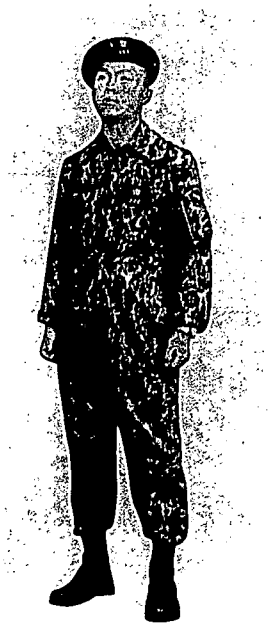
(2) 기갑복

1975년 7월 30일 최초로 제정된 기갑복은 화섬 혼방재질로 제작되어 위와 아래부분이 하나로 연결된 내리닫이 형태로서, 깃은 폭이 넓고 끝이 둥근 플랫 칼라(flat collar : 깃고대가 없는 칼라)형이었다. 기갑복은 임무수행에 편리하도록 다양한 주머니(상의 흉부 우측상단에 지퍼로 잠그는 속붙임 주머니, 좌측 팔 중간부위에 필기구 삽입용 겉붙임 지퍼주머니, 허리의 양측 팔에는 겉붙임 사선주머니, 좌측 무릎위와 양다리 외측면에는 지퍼로 잠그는 겉붙임 주머니)를 붙이고 흉부 좌측에는 흑색바탕에 황색으로 자수된 기갑병과표지를 부착하였는데, 제식을 결정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전차 안에서 활동시 가능한 한 걸리는 곳이 없도록 하였다.

첫 째, 상·하의를 붙인 것은 착·탈의시간을 단축하고 전차내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고,

둘 째, 앞면에는 단추 대신 위에서 아래로 지퍼를 붙여 착탈이 용이하게 하였으며,

셋 째, 허리와 양측 소매끝 부위에는 조임용 띠를 부착하고 단추로 잠그도록 하였고,



기갑복



기갑점퍼



1990년 이후

〈기갑병복(1975년～현재)〉

넷 째, 바지 하단부에는 조임용 고무줄을 넣고,

다섯째, 등 윗부위에는 가로로 지퍼를 달고 그 속에 부상자를 전차 외부로 구출이용이하도록 구출용 끈을 등부위에서 엉덩이부위까지 붙였고,

여섯째, 허리의 앞쪽에서 두 다리의 사이(사타구니)로 하여 허리 뒤쪽까지 부분 개폐식으로 지퍼를 부착하여 용변시 필요 이상으로 벗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상의 깃의 뒤쪽 속에는 방한용 방풍모를 부착하였다.

(3) 점 퍼

점퍼는 일반방한용 야전상의가 전차 안으로의 출입과 전차 안에서의 활동에 많은 불편한 점이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차병복과 동일한 재질로 제작하되 장교 점퍼와 같은 형태의 점퍼였다. 깃과 소매끝 그리고 허리부위에는 조임편직물을 부착하고, 앞부위에는 지퍼로 여미도록 하였으며 허리부위 양측에는 속붙임 사선주머니

를 달았고 좌측 가슴부위에는 전차병복에 부착한 것과 같은 기갑병과 표지를 부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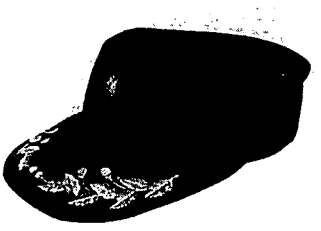
다. 飛行服裝

6·25전쟁이 발발된 직후인 1950년 10월 1일 〈육본일반명령 제80호〉에 의거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의 항공과로 발족된 항공분야는 1973년 1월 30일 〈법령 제2456호〉에 의거 항공병과로 승격 창설되면서, 지금까지 각 병과에서 특파되어온 인원들로 구성되었던 항공인들은 병과의 창설로 긍지와 자부심도 대단하였는데, 이러한 자부심은 그들의 복장에서도 잘 나타났었다.

즉 전쟁중에 모든 인원이 전투복을 입었는데 비해 육본 작전교육국의 항공과 기간요원과 항공장교는 일상근무할 때에 근무복에 정모와 단화를 착용하도록 하고, 항공기를 조종할 때에는 비행복(정복, 비행복, 단화)을 착용하도록 1952년 3월 29일 〈육군회보 제56호〉로 지시됨으로써 항공조종사로서의 품위를 높이고 긍지를 심어 주었다. 이때의 비행복은 미 군원으로 도입된 미군의 비행복을 그대로 착용하였다.

1955년 10월 2일 〈육인사 제1934호〉로, 조종사에 한하여 항공 점퍼를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1961년 5월 26일에는 정식으로 착용을 승인하였다. 그후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비행복도 국산화되어, 동·하복을 구분 제작하여 착용하였으나 정식으로 복장이 인가된 것은 1981년 4월 1일이었다. 그러나 동복과 하복의 색상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동복은 내피가 부착되어 있어 항공기를 조종할 때 조종에 불편하고 동·하복 공히 비내화성 화학섬유로서 화염에 취약하여, 1984년 4월 9일 〈육인사 제150.2호〉에 의거 공군조종사들이 착용하는 전천후의 내화성 재질의 비행복으로 개정함으로써 비행복은 육·해·공군이 통일되었다.

(1) 비행모



〈비행모〉

비행모는 1986년 7월 1일 육군복제규정 〈육규 제150-1호〉로 처음 규제되었다. 규제되기 이전까지는 일반전투모를 그냥 착용하였으나, 1980년대에 들면서 항공부대의 증편에 따라 부대특성을 살리고 애

국심과 부대의 단결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비행모의 착용을 규제하게 된 것이다.

그 형태는 전투모와 같이하되 색상만 국방색이 아닌 다른 색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색상은 항공단장이 결정하도록 하였고, 영관급 장교 이상의 차양에는 정모와 같은 형태의 수식을 하도록 하였다.

(2) 비행복

1981년 4월 1일에 규제된 비행복은 위와 아래부분이 하나로 연결된 내리닫이 옷으로써, 동복은 청회색이었고, 하복은 연회색이었다. 비행복의 깃은 끝부위가 둥근 플랫 칼라형이었고, 흉부 좌·우측에는 속붙임 사선주머니, 좌측 팔의 중앙부위에는 필기구삽입용 겉붙임 주머니를 부착하였으며, 우측 대퇴부 앞면에는 속붙임 가로주머니, 좌측 대퇴부 앞부위에는 속붙임 세로주머니를 부착하였는데, 모든 주머니에는 지퍼로 잠그도록 하였으며, 바지가랑이 앞쪽에는 가랑이 넓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임용 지퍼를 부착하였다.



하복(1981년~1983년) 동 복 1984년 이후

〈비행복(1981년 이후)〉

복식품은 항공조종사로서의 긍지를 갖게 하면서 유사시에는 구급신호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오렌지색 머플러를 착용하였고, 표지물로는 우측 깃에 계급장, 좌측 깃에 병과휘장, 좌측 흉부에는 명찰, 우측 흉부에는 항공단 표지를 각각 부착하였다. 그후 1984년 4월 19일에 개정된 비행복은 동·하복 구분이 없는 단일제식의 내화성 화섬제품으로 하였고, 모든 형식과 부착물은 종전과 같았다.

(3) 전투화

1980년대에 들면서 당시까지 착용하여 오던 일반 전투화는 불의의 사고로 수면(水面)에 추락되었을 때 신속한 탈화가 불가능하여, 1980년 11월 25일, 항공 안전관리측면과 신속한 출동태세를 갖추기 위한 일환으로 현행 일반전투화의 내측면에 지퍼를 부착한 제식으로 개정하고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전투화(1980년 이후)〉

(4) 항공 점퍼

1952년 이후 미 군원에 의해 도입된 항공 점퍼를 착용하여 왔으나, 1971년부터는 일반장교의 점퍼가 규제되면서 항공 점퍼도 제식을 일부 개정하여, 형태는 미제 항공 점퍼와 같게 하였으나 재질은 국산화하였는데, 일반장교의 점퍼와 다른 점은 어깨에 견장대가 없고, 앞면의 여미는 부위에 부착한 지퍼가 보이는 것과 좌측 흉부에 계급장 꽂이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다.



〈항공 점퍼(1971년 이후)〉

라. 防衛兵服(1967년~1990년)

1967년부터 방위병 제도가 생겼으나 1971년까지는 내무부의 관장하에 있었기 때문에 방위병의 제복을 군복제로 규제할 수 없었으나, 1971년 〈병무법 제36조〉에 의해 방위소집병이 실역화(實役化)되어 군에서 관장하게 됨으로써 방위병 제복도 군인복제로 규제하여 착용하게 되었다.

최초 내무부 관장하에 있던 1967년부터 1971년까지는 전투복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고, 전투모는 현역군과 동일한 형태의 전투모에 예비군 표장을 부착한 것이었다. 단, 전투복은 상의를 하의 밖으로 착용하는 제식으로서, 상의는 컨버터블형 깃의 한 줄 5개 단추를 부착한 저고리에 흉부와 허리의 좌·우측에는 겉붙임 뚜껑 주머니를 각각 부착한 형태였고, 하의는 현역군의 전투복 하의와 동일한 형태로 요대와 버클은 일정한 규제없이 개인이 구입 착용하였고, 신은 정글화나 훈련화를 착용하였다.

표지물은 상의 좌측주머니 상단부에 황색바탕에 방위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명찰은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그후 방위병이 실역화된 1971년부터 〈국방부령 제224호〉에 의거, 방위병의 제복을 규제하였으나 그 제식은 종전과 같은 형태의 것이었다. 그러다가 1973년 10월 5일에 국방부령은 폐지하고, 다음해인 1974년 3월 5일, 〈국인근 제203.2-1111호〉에 의거 새로운 제식의 제복으로 개정하였다. 이때의 복장은 당시의 현역사병과 같은 전투모에 전투복과 전투화를 착용하는 제식이었으며, 표지물도 전투모와 전투복에는 이등병 계급장을 붙이고 상의의 우측주머니 상단에는 현역병과 같은 형식의 명찰을 부착하였다. 다만 현역군과 다른 점은 상의의 좌측주머니 뚜껑 상단에 황색바탕의 '방위' 표지를 부착한 것이었는데, 이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 복장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첫 째, 복장으로서는 현역군과 명확한 구분이 불가능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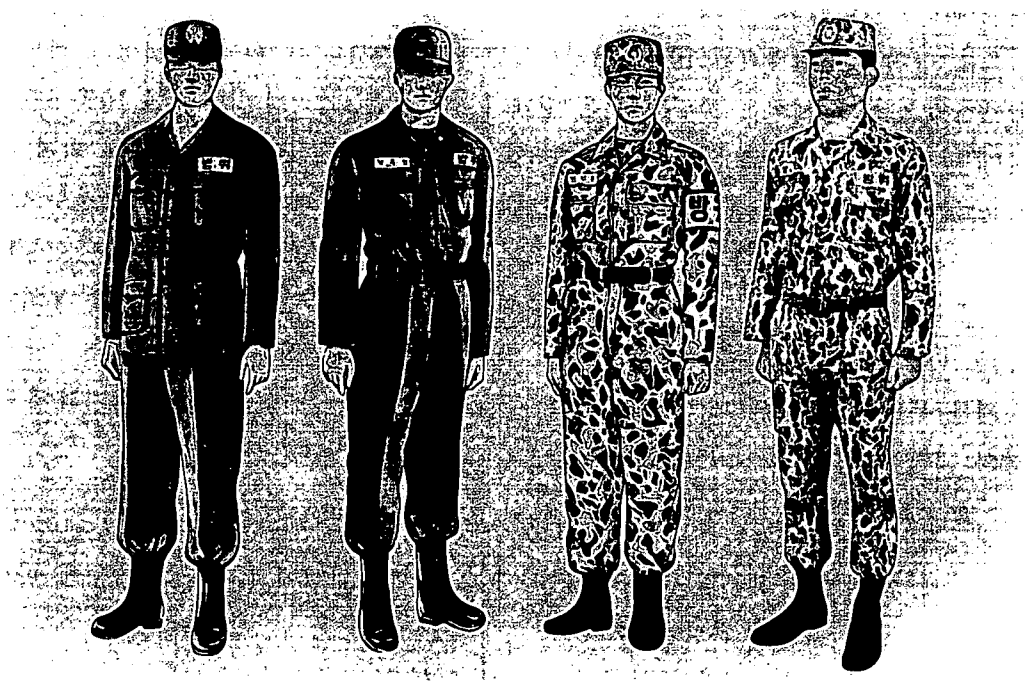
둘 째, 현역군 복장차림으로 경찰관서나 일반 지방관서에서 근무하게 됨에 따라 군의 위상에 손상을 주고,

셋 째, 과다한 유동병력과 문란한 언동과 언행으로 국민에게 군에 대한 나쁜 인상을 주게 되었으며,

넷 째, 소집해제시 예비군복의 별도지급이 필요하게 되었고,
다섯째, 군수품의 유출이 우려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1974년 5월 1일, 〈국인근 제203.2-230호〉에는 전투모와 전투복의 색상을 국방색 계열의 얼룩무늬 위장색(모래색·국방색·갈색·흑색으로 구성)으로 바꾸고, 모자에는 자수제(刺繡製) 사병모표를 달고, 상의의 '방위' 표지는 없애고 대신 좌측 팔에 황색바탕에 흑색글씨로 '방위'라고 새긴 완장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완장도 외관상으로 불미하고 경계근무에도 취약성이 노출됨은 물론 하절기에 소매를 걷어올릴 때는 보이지 않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1978년 12월 11일, 〈육인제 제901.3호〉에 의해 완장을 없애고 대신 '방위' 표지를 상의의 좌측 윗주머니 뚜껑 상단에 다시 부착하도록 하였다.

또한 1980년대에 들어서는 담당지역의 경계임무를 방위병으로 충당하는 부대가 증가하면서 현역군과 다른 얼룩무늬 위장색 전투복을 착용하고 근무함으로써 오히려 방위병의 취약성이 노출되어, 이의 예방책으로 1981년 11월 18일부터 군부대에 근무



1967년~1974년　　1974년　　1974년~1978년　　1978년 이후

〈방위병복(1967년~현재)〉

하는 방위병은 현역군에 준한 전투복을 착용하게 하고, 향토방위를 담당한 방위병만 얼룩무늬 위장색 전투복을 계속 착용하게 하였다. 그후 1987년 1월부터는 향토방위병도 현역병과 동일한 국방색 전투복장(전투모·전투복·전투화)을 착용하도록 하면서 부착물도 현역병에 준하여 계급장과 명찰만을 부착하였다.

마. 看 護 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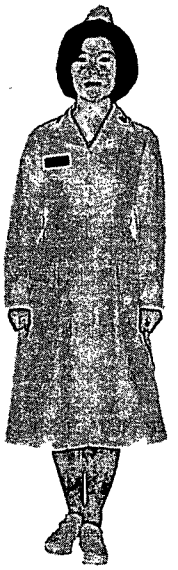
1948년 8월, 육군군의학교에서 처음으로 간호장교가 현지임관되어 병원부대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면서 일정한 규정도 없이 일반병원의 간호원복과 동일한 형태의 원피스형의 간호복을 착용하다가, 1950년부터 6·25전쟁 기간에는 작업복(전투복)을 그대로 착용하고 간호업무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일반사회에서 남자 간호원제도가 생기면서 군에서도 여자 간호장교로서는 간호에 불편한 점이 많은 특수병실(수술실, 정형외과, 정신신경과, 비뇨기과)에 입원된 환자를 위해 1973년 12월 11일, 〈국의정(國醫政) 제938-1091호〉에 의거 남자 간호장교제도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이 착용할 남자간호복도 제정하게 되었다. 또한 1979년 11월 7일에는 특수환자(정신신경계통)의 간호와 열차근무시의 불편은 물론 동절기에 야전에서의 보온 등을 고려하여 여자 간호장교에게도 바지 제식의 간호복을 추가로 제정 착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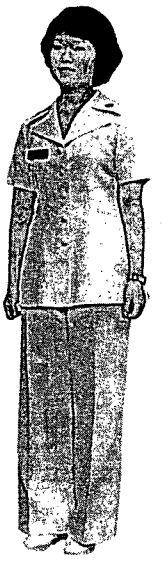
(1) 여자 간호복

1948년부터 착용하였던 간호복은 위·아래가 붙은 내리닫이의 백색 원피스 간호복으로서 허리에 폭 5㎝ 내외의 허리띠를 부착한 스포츠 칼라형이었는데, 앞면의 허리띠 위에는 복지색의 중형 단추 3개를 달았고, 허리띠 아래는 플레어 스커트(flared skirt : 신체선을 따르지 않고, 허리에서 도련까지 나팔꽃 모양으로 벌어진 여유 있는 스커트)형이었다. 그후 1979년 11월 7일에 새로 개정된 바지제식의 간호복은 상·하의 공히 백색의 화섬혼방이다.

상의는 스포츠 칼라형에 한 줄 5개의 복지색 단추를 부착한 저고리로서, 허리 양측면에는 뚜껑이 없는 속붙임주머니를 부착한 형태였고, 하의는 근무복과 같은 형태의 바지였다. 신은 백색 피혁으로 제작된 로 커트(low cut)의 신발로 앞면에는 끈을 매기 위한 3쌍의 구멍이 뚫린 것이다.



원피스제식



투피스(바지)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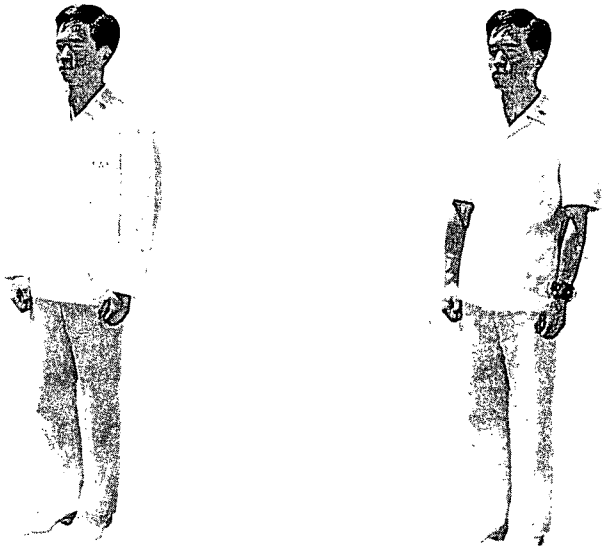
〈여자 간호복(1948년~1990년)〉

이들 간호복은 긴소매와 반소매의 2가지 제식이 있었으며, 동절기에는 간호복 위에 실내착용 모(毛)스웨터를 겹쳐 입었다.

(2) 남자 간호복

창설 초기인 1973년부터 남자 간호복이 제정된 1975년까지는 일반군의관들이 착용하는 군의관 가운을 그대로 착용하였는데, 이 군의관 가운은 위·아래가 붙은 내리닫이로, 환자의 간호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군의관과의 식별도 곤란하여 1975년 7월 30일, 〈국인근 제203.2-488호〉로 남자 간호복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간호복의 색상과 재질은 백색의 면직 또는 혼방이었으며,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착용하는 형태로서, 긴소매와 반소매제식이 있었으며, 상의는 스포츠 칼라형에 한 줄 5개의 복지색 단추를 부착한 저고리에 흉부와 허리의 양 측면에는 뚜껑이 없는 겉붙임주머니를 부착한 형태였고, 하의는 근무복 상의와 같은 형태였으나 뒷주머니에 뚜껑을 달지 아니하였다.



동 복　　하 복

〈남자 간호복(1975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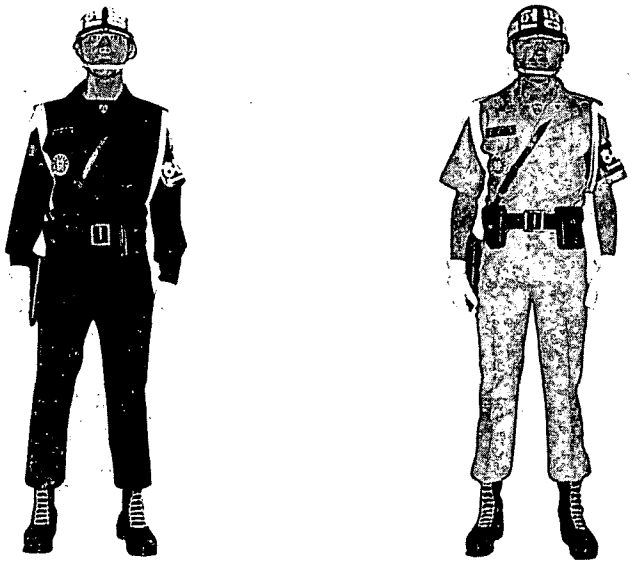
신은 제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백색 단화를 착용하였다.

바. 首警司 勤務服

1973년 말과 1974년 초에 수경사에서는 근위부대원으로서의 긍지와 명예심을 고취시키고 외모를 단정히 함은 물론 시민과의 접촉시 전투복차림에서 오는 긴박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근무복차림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1974년 5월 1일, 〈국인근 제203.2-230호〉에 의거 흑갈색의 동복과 카키색의 하복을 각각 승인 제정하였다.

이때 승인된 근무복은 동·하복의 형태는 같았으나, 동복은 긴소매였고, 하복은 반소매였다. 상의는 스포츠 칼라형에 한 줄 5개의 복지색 단추를 부착한 셔츠형 저고리였으며, 어깨에는 견장대, 흉부 좌·우측에는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부착하였고, 앞면 깃부위에는 앞가리개를 부착하였으며, 동복의 소매는 셔츠 소매형이었다.

하의는 일반근무복과 같은 모양의 바지로서, 대퇴부 좌·우측에는 사선주머니, 뒤쪽 둔부 좌·우측에는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부착하였다. 부착물은 일반장병과 같은



동 복 하 복

〈수경사 근무복(1974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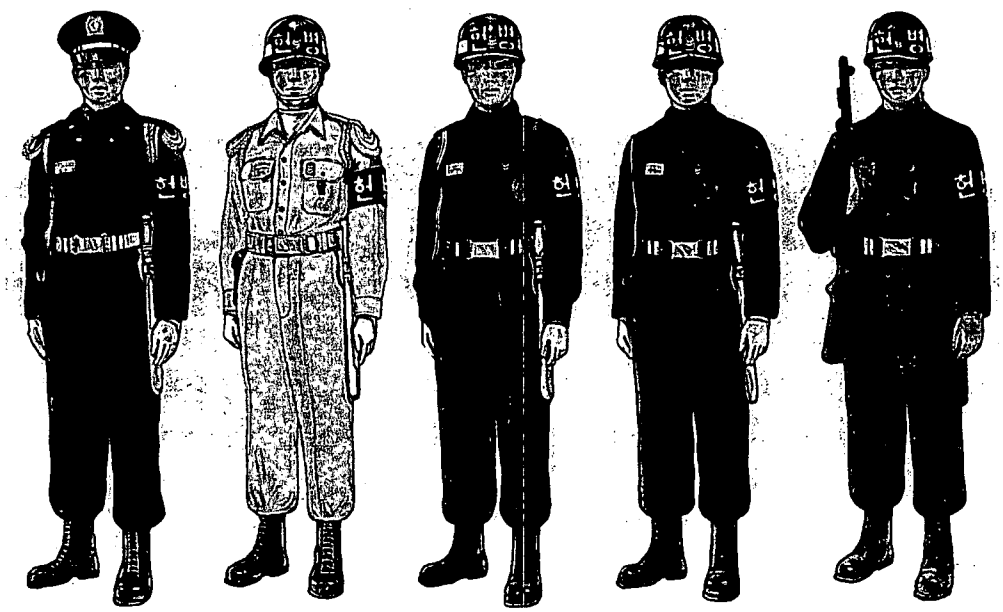
방법으로 부착하였으나, 앞가리개의 중앙에 부대표지를 축소한 것을 추가로 부착하였다.

사. 憲兵 勤務服

헌병복장은 여행장병의 안내와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부여된 기본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복장으로서, 최초로 규정한 것은 1955년 9월 30일, 〈헌기(憲紀) 제3033호〉에서이다.

당시에 규제된 복장은 별도의 제복을 제정한 것이 아니고 일반장병의 제복에 헌병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복식품과 장비를 휴대하거나 착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 복장은 1962년 군인복제가 각령으로 공포될 때까지 헌병의 기본 복식품인 완장·요대·곤봉·견식(肩飾)줄 등을 휴대 및 장식하면서 그 차림새에 따라 1·2·3급의 3개 복장제식으로 구분하여 착용하였다.

	차 림 새	착 용 시 기
1급복장	· 군모 : 정모 또는 화이버모(백색 턱끈 부착) · 제복 : 동기－동정복, 하기－하근무복 · 군화 : 전투화(백색 구두끈 결속) · 백색 개인장구 요대, 권총 및 곤봉 백색 머플러(근무복 착용시), 견식 및 완장	· 국경일의 의식행사 참가시 · 의(예)식 및 중요고관의 경호시 · 기타 지휘관 지시시
2급복장	· 군모 : 화이버모(백색 턱끈 부착) · 제복 : 근무복 또는 전투복 · 군화 : 전투화(갈색 구두끈 결속) · 국방색 개인장구 요대, 권총 또는 카빈소총 견식, 완장 및 곤봉, 담녹색 머플러	· 위병근무 · 순찰 및 평상업무 · 군법회의 경호시 · 칠도 및 열차경비 · 교통정리, 죄수 경호
3급복장	· 군모 : 화이버모 또는 철모 · 제복 : 전투복 · 군화 : 전투화(갈색 구두끈 결속) · 국방색 개인장구 요대, 카빈소총 및 대검 완장 및 곤봉, 담녹색 머플러	· 야전헌병업무 수행시



1급 동복　　1급 하복　　2급 동복　　2급 전투복　　3급 전투복

〈헌병 근무복〉

이후 군인복제가 각령으로 규제된 1962년 이후에는 행사에 참가할 때와 주요지역의 경계임무에 임할 때에는 정모와 정복에 전투화를 착용하였는데 이러한 제식이 불합리하여, 1971년 9월 26일, 〈국인근 제203.1-3688호〉에 의거 주요시설의 경계임무를 거행할 때와 주요 의(예)식 행사에 참가할 때에는 그때의 환경에 따라 정복에 정모나 화이버모를 착용하고 전투화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후 1974년에는 창군 제25주년 기념행사를 대비한 행사복이 타행사요원 제복과 함께 제정되면서 지금까지 착용하던 헌병 근무복은 이 행사복으로 대치 착용하였다.

아. 行 事 服

행사복은 특정한 인원(헌병·의장·군악·국악·여군·영현봉송)이 의(예)식 행사나 지정된 행사에 참가할 때 착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복을 말하며, 최초에 제정된 제복은 1962년 9월 10일, 〈육인처 제421.2호〉에 의거, 육군사관학교의 졸업 및 임관식 행사와 빈번히 방문하는 외국무관에 대한 영접행사에 참가하는 사관생도들의 제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련한 육사 군악대 복장이었다. 그후 1966년 9월 13일에 10월 1일의 국군의 날 행사에 참가하는 의장대와 군악대 그리고 국악대원들의 위용을 과시함은 물론 위엄과 품위를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행사복을 제정하였으며, 1967년 7월 1일에는 여군의 행사복을 제정하면서 도보요원복(徒步要員服)과 드럼메이저복을 따로 구분 제정하였다.

1971년에는 행사복의 소요를 충족하기가 곤란하던 차에 연회색의 정복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동년 9월 28일, 〈국인근 제203.1-3688호〉에 여군을 제외한 헌병·의무대·군악대 및 국악대원의 행사복을 정장 제식으로 변경하였다. 1974년에는 창군 제25주년 기념행사를 범국가적인 행사로 치르기 위한 조치로 국방부에서 육·해·공군 각군별로 특색있는 제복을 착용하도록 지시되어, 1974년 4월 12일 〈국인근 제203.2-195호〉로 화려하면서도 지정된 인원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제복을 제정하였다. 제복은 깃의 형태와 하의 색상을 같게 하고, 다만 상의와 모자의 색상만을 다르게 하여 직분별로 구분되게 하였다.

당시 제정된 행사복은 매년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였으며, 1979년에는 영현행사복의 필요성이 새로이 대두되어, 타행사복의 형식에 맞추어 동년 11월 7일에 추가 제정하였다.

각 행사복의 형식(색상)

구 분		모 자	상 의	하 의
헌 병		백 색(검정색 모테)	수 박 색	은색(검정색 측면띠)
의 장 대		수박색(〃)	〃	백색(붉은색 측면띠)
군 악 대		백 색(〃)	붉 은 색	백색(붉은색 측면띠)
국 악 대		백 색(〃)	붉 은 색 (엷은 황색 덧거리)	〃
여군	도 보	백 색(주황색 모테)	주황색(백색 조끼)	
	드럼메이저	백 색(〃)	백 색(주황색 조끼)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절기에 착용할 수 있는 덧옷을 고려한 행사복에 착안하여 혹한기 행사시에 보온은 물론 외관상 품위면에서도 일층 돋보일 수 있도록, 1984년 2월 18일, 각 행사요원별로 색상을 달리한 스텐 칼라형에 2줄 10개의 금속 중형단추를 부착한 반코트형의 외투를 제정하였다. 어깨에는 견장대, 허리의 양 측면에는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부착한 형태로서, 깃과 내피는 인조털로 제작된 착탈식이었다.

분야별 외투색상

구 분	코 트 색 상	깃 색 상
헌 병	수 박 색	검 은 밤 색
의 장 대	수 박 색	〃
군 악 대	붉 은 색	〃
국 악 대	붉 은 색	〃
영현봉송요원	검 정 색	〃
여 군	주 황 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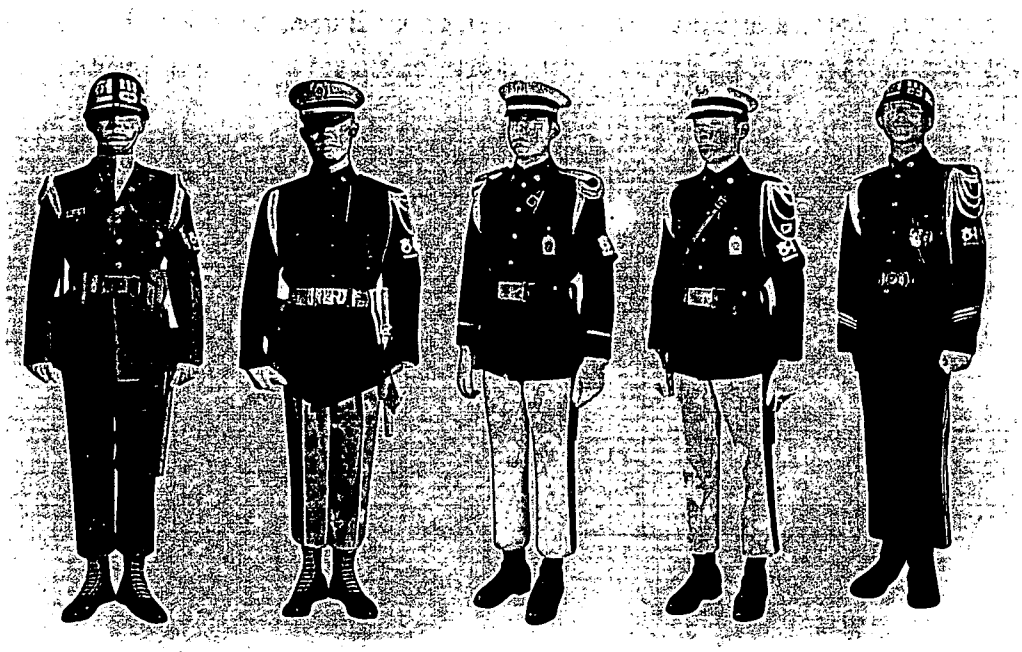
(1) 헌병복

1974년 4월 12일, 〈국인근 제203.2-195호〉에 의거 헌병행사복으로 일반헌병 행사복과 사이드카헌병 행사복(근무복 겸용)의 2종류를 제정하였다.

(가) 일반 헌병복

헌병행사복의 모자는 검정색 차양과 백색 턱끈을 부착하였고, 그 형태는 일반정모와 같다. 모테는 검정색, 윗 덮개는 연회색(은색)이었으며, 모테와 윗 덮개와의 봉합부위에 폭 0.3㎝의 황색 융띠를 부착하였다. 행사복은 장병 공히 상의는 헌병병과 정색(定色)인 수박색이고, 하의는 연회색(은색)이다. 상의는 스텐 칼라형에 한 줄 4개의 반월형 황금색 금속형 단추를 부착한 저고리로서, 어깨에는 견장대, 흉부 좌·우측에는 겉붙임 뚜껑주머니, 허리의 양측에는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각각 부착한 형태이다.

하의는 일반형의 보통바지에 양 측면 봉합선상에 폭 2.5㎝의 검정색 편직 띠[縫章]를 부착한 모양이었다. 이 행사복은 착용한지 얼마 안되어, 하의의 연회색 색상이 세탁 후에도 마치 세탁하지 않은 옷과 같이 보여, 1976년 4월 16일에 연회색을 백색으로 바꾸고, 양 측면의 검정색 편직 띠를 수박색(상의 색상)으로 바꾸었으며, 1977년 12월에는 모자의 연회색 윗 덮개도 같은 이유로 백색으로 변경하였다. 행사



1971년~1974년 1974년~1976년 장교(1976년~) 사병(1976년~) 1987년~

〈헌병 행사복(1971년~)〉

복에 부착되는 표지물은 장교의 경우 양측 어깨(견장대)에 예복 계급장, 양측 아랫깃에 병과휘장을 달았고, 사병은 양측 팔에 정장 계급장, 양측 깃에 병과휘장, 좌측주머니 중앙에 헌병휘장을 각각 부착하였다.

복식품은 개인장구 요대와 갈색가죽으로 제작된 Y형 어깨 띠를 매고, 양측 어깨에는 견장줄(장교는 황색, 사병은 백색)을 패용하였으며, 좌측 팔에는 헌병완장을 두르고, 허리에 곤봉을 휴대하였다. 이 같은 수박색 상의와 백색 하의로 구성된 콤비제식의 행사복은 화려하고 안정되어 보이나 한편으로는 위엄성이 결여되고 키가 작아 보일 뿐만 아니라, 의장대 행사복과도 유사하여 행사장 주변에 분산배치되었을 경우 의장대와 구분이 되지 않아 산만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 1987년 5월 14일, 보다 위엄을 과시할 수 있도록 하의도 상의와 같은 수박색으로 개정하면서 제식도 일부 변경하였다.

스텐 칼라였던 상의의 깃을 스탠드 업 칼라(stand up collar : 똑바르게 선 칼라)로 바꾸고, 팔에도 폭 1㎝의 백색 띠 3선을 새로이 추가하였으며, 하의에도 폭 1㎝의 백색 띠 2줄을 부착하였다. 또한 개인장구 요대 대신 헌병병과휘장이 양각된 장식을 부착한 가죽 요대(동절기는 갈색, 하절기는 백색)를 새로이 제정하였으며, 모자도 정모와 화이버를 공용하도록 하였다. 헌병행사복 차림에서 특이한 점은 전투화를 착용한다는 점이다.

(나) 사이드카 헌병복

사이드카 헌병복은 일상시 순찰이나 경호임무를 수행할 때나 주요행사에 지원되었을 때 단정하고도 간편하게 입을 수 있고 장비조작에도 불편이 없도록 고안된 제복이다. 모자는 사이드카에 장비된 안전 화이버모를 착용하고, 신은 갈색 장화를 착용하였으며, 제복은 긴소매의 백색 와이셔츠에 검정색 넥타이, 수박색의 승마복(일명 단고)형 하의(양 측면 봉제선상에 폭 3㎝의 황색 편직 띠 부착)를 착용하였다.

복식품으로는 허리에 헌병휘장이 양각된 버클이 부착된 갈색 가죽 요대, 어깨에는 Y형의 갈색 가죽 띠, 양측 어깨에는 황색 견식줄, 좌측 팔에는 헌병완장을 각각 착용하였다. 동절기에는 갈색의 인공피혁 반코트를 착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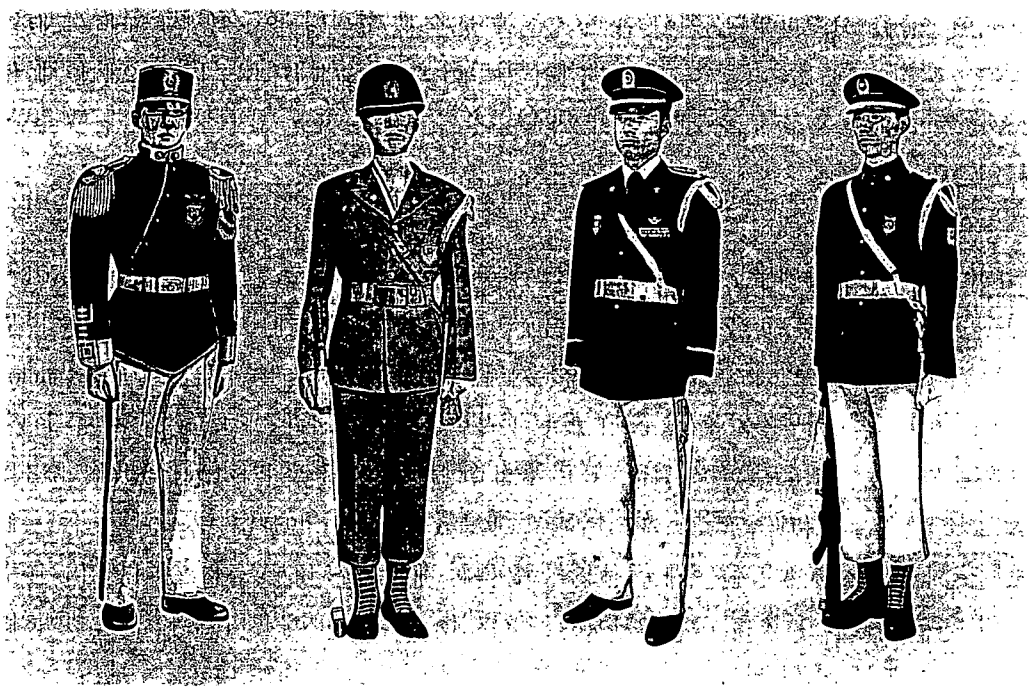


〈사이드카 헌병복〉

(2) 儀仗服

의장대는 각종 의(예)식 행사시 육군의 위용을 과시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그 임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위엄과 품위를 겸비한 화려한 제복이 요구된다. 1966년 9월 13일, 〈육인근 제421호〉로 최초의 의장복이 제정되었다. 모자는 흑색 차양에 백색 턱끈을 부착한 감청색의 원통형 모자로서, 원통의 상·하단에는 폭 1.5㎝의 황색 편직띠를 부착하였다.

상의는 모자와 같은 감청색에 붉은 색의 스탠드 업 칼라형이고, 앞면 중앙 하단부가 V자형으로 마름질된 저고리였으며, 앞면에는 깃의 중앙부에서 우측 허리까지 폭 0.5㎝의 황색 도련[14]을 사선으로 붙이고, 그 속에 지퍼를 달아 여미도록 하였으며, 사선 띠 바로 옆으로 연하여 5개의 황금색 금속제 중형단추를 장식으로 부착하였다.



1966년~1968년　정장차림(1968년~1973년)　장교(1974년~)　사병(1974년~)

〈의장대복(1966년~1990년)〉

14) 두루마기나 저고리 자락의 끝 둘레.

소매 밑 부위에는 폭 8㎝의 붉은 색 소맷동(cuffs)을 달았는데, 소매와 소맷동의 봉접부위 아래와 위쪽을 겹쳐서 황색 '수(壽)'자 문양의 수장(袖章)을 봉착하였다. 하의는 일반형의 보통바지로서, 양 측면의 봉접선에는 폭 3㎝의 감청색 편직 띠를 부착한 형태였다. 복식품으로는 양 어깨에는 태극문양으로 장식되고, 황색 꼬임 수술을 부착한 견장을 부착하였으며, 좌측 어깨에는 황색 견식줄을 패용하였고, 허리에는 개인장구 요대와 유사한 백색 요대를 착용하였다.

1971년 9월 28일, 모든 행사요원의 제복이 새로 개정된 연회색의 육군정복으로 통일됨에 따라 의장대원 복장도 정복으로 바뀌었는데, 복식품 중 종전의 견장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장식품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후, 1974년 4월 12일 〈국인근 제203.2-195호〉에 의거, 창군 제25주년 기념행사를 대비하여 타행사요원의 제복과 함께 새로 제정한 의장대 행사복은 모자와 상의는 수박색이고, 하의는 백색이었다. 모자는 흑색 차양과 백색 턱끈(장교는 황색)을 부착하고, 검정색 모테에 수박색 윗 덮개를 부착한 형태로서, 모테와 윗 덮개의 접합부위에는 폭 0.3㎝의 황색 보조띠를 부착한 것이었다. 수박색 상의는 스텐 칼라형에 한 줄 5개의 황금색 무표지 반원형 단추를 부착한 저고리로서, 어깨에는 견장대, 허리의 좌·우측에는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부착한 형태였다. 흰색 하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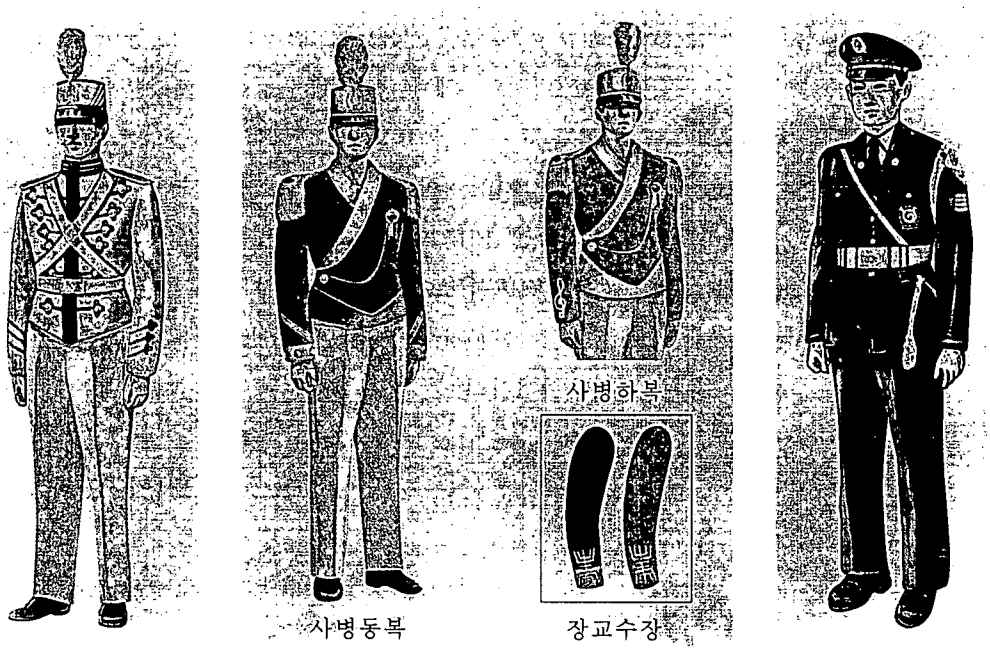
〈의장대원 외투(1984년~)〉

일반형의 보통바지로서, 주머니 없이 양 측면 봉제선상에 폭 3㎝의 붉은 색 편직 띠를 부착한 모양이었다. 군화는 흰색 조임끈을 맨 검정색 전투화를 착용하였다.

한편 장교의 행사복은 정복과 같은 형태였으나, 소매의 수장이 황색이었고, 상의 속에는 흰색 와이셔츠와 검정색 넥타이를 받쳐 입었으며, 검정색 단화를 착용한 것이 사병 제식과 다른 점이었다. 부착물로는 계급장을 장교는 양 어깨에 예복 계급장, 사병은 양측 팔에 정장 계급장을 부착하였고, 장병 공히 양측 깃에는 병과휘장, 좌측 흉부에는 의장대휘장을 부착하였으며, 복식품으로는 장병 공히 백색 요대와 Y형 어깨 띠를 착용하고 좌측 어깨에 황색 견식줄을 패용하였다.

(3) 軍樂隊服

1950년대까지만 해도 군악대원은 특수복이라고 칭할 만큼 별도의 제복이 없이 행사의 성격에 따라 정복이나 근무복 또는 전투복 등의 기본복장차림을 하였으나, 1960년대에 들어와서 육군사관학교에서 학교군악대원의 제복이 학교에서 행하여지는 의(예)식



육사군악대
1962년~1974년

육본군악대
1966년~1968년

1968년~1973년

〈군악대복(1962년~1974년)〉



장교복



사병복



현 재

〈군악대복(1974년~)〉



〈행사요원 외투(1984년~)〉

행사에 참여하는 사관생도들의 예복에 비해 그 품위가 미흡하여, 1962년 9월 10일에 군악대원복을 생도예복에 맞추어 제정한 것이 최초이다.

그후 1966년 9월 13일에 육군본부 군악대원복도 의장대원복을 제정할 때 함께 제정되었으나, 1971년 9월 28일, 〈국인근 제203.1-3688호〉에 의거, 모든 행사요원복을 정복 제식으로 통일 규제할 때 다시 정복 제식으로 개정됨으로써 특수복으로서의 의미는 상실되게 되었다.

1974년 창군 제25주년 기념행사를 범국민적 행사로 거행하게 됨에 따라 육군의 위용을 대내·외에 과시할 목적으로 군악대도 행사복의 개념으로 1974년 4월 12일 붉은 색 상의와 흰색 하의로 재제정되어 그 해 국군의 날인 10월 1일부터 착용하였으며, 이후 현재의 복식으로 개정되었다. 이 행사복은 혹한기 보온과 품위유지를 위해 1984년 2월 18일부터 행사복 상의와 동일한 색상의 반코트를 제정 착용하였다.

(가) 육사 군악복

1962년 제정된 군악복은 군악대가 사관생도의 각종 행사시 동반하는 점에 착안하여 사관생도의 예복과 조화를 이루는데 주안을 두고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제식은 모자에서부터 신발에 이르기까지 생도예복과 대단히 유사하였다. 당시 사관생도복장이 청백대열(靑白隊列)을 의미하여 모자와 상의가 청색인데 비해 군악대의 모자와 상의는 붉은 색이었고, 소매의 수장을 소매의 중간까지 뻗치게 하고 매듭으로 마감한 것과 어깨에 견장을 부착한 것 외의 모든 제식은 물론 백색 하의와 흑색 단화를 착용한 것까지 동일하였다. 그후 1974년 4월 12일, 군악대 행사복이 타행사복과 함께 제정되면서 전군의 군악대원복을 통일함에 따라 보급되는 군악복을 착용하였다.

(나) 일반 군악복

1966년 9월 13일, 최초로 제정된 육군본부 군악대제복은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하였다. 동복은 감청색 상의에 흰색 하의, 하복은 자주색 상의에 흰색 하의로 하고, 모자와 신은 동·하 구분없이 동일하게 하였다. 동복은 목둘레에서부터 우측 늑골하단까지 폭 5㎝의 홍색 공단을 부착한 저고리로서, 앞섶이 교차되는 부위는 V자형으로 여미도록 하고, 섶의 바깥쪽 가장자리에는 폭 7㎝의 황색 띠를 봉착하였고, 그 속에

는 지퍼로 사선으로 잠그도록 하였다. 소매의 하단부에는 폭 8㎝의 붉은 색 공단을 봉착하였는데 장교는 봉합부위에는 위와 아래에 걸쳐 황색의 '수(壽)'자를 배치하고, 사병은 직경 2㎝의 무늬가 없는 반월형 금속제 중형 단추를 달고, 붉은 공단 반띠 상단에는 황금색 선 3조를 바깥쪽에만 사선으로 붙였다.

장식으로는 상의 우측 허리부위에 직경 5㎝의 무늬없는 반원형 황금색 대형 단추를, 좌측 흉부 상단부에는 군악대휘장을 패용하였으며, 휘장에서 단추까지는 장식용 황색 줄을 드리웠다. 하의는 일반형의 보통바지로서 양측 봉제선상에는 폭 3㎝의 황색 편직 띠를 부착한 것이었다. 하복의 상의와 하의 제식은 상의의 색상과 수식이 달랐다. 색상은 자주색이었고, 목둘레에서 우(右) 늑골부위까지 흰색 공단을 봉착하고 소매의 외측에는 황색 띠로 장교는 '수'자, 사병은 높은음자리표(𝄞)를 수식하였다. 허리에는 폭 17㎝의 복대(腹帶)를 착용하였는데, 상의하단에 동복은 자갈색, 하복은 흰색의 V형 공단을 각각 부착하고, 그 우측에는 같은 색깔의 수술이 달린 띠를 늘어뜨려 장식하였다.

모자는 붉은 색의 원통형으로서 검정색 차양에 흰색 턱끈을 부착하고, 모표 위에는 흰색 깃털을 꽂았다. 이외의 복식품으로 사병은 동·하복 공히 양 어깨에 황색 편직으로 제작된 양파모양(∂)의 견장을 부착하였다. 이 견장은 하단부 둥근부위에 태극표지를 수놓고 그 바깥 둘레에 황색 끈으로 꼬은 수술을 늘어뜨린 형태였다. 계급장은 정장 계급장을 사용하여 장교의 경우 어깨의 견장대에, 사병의 경우 양측 팔에 각각 부착하였다.

그후 군악복은 1971년 9월 28일에 의장대복과 함께 폐지되고 정복 제식의 새로운 군악복을 착용하였다. 허리에는 갈색가죽의 요대, 우측 어깨에는 Y형의 어깨 띠, 좌측 어깨에는 황색 견식줄을 각각 착용하였고, 상의 좌측주머니 중앙부에는 군악대휘장을 부착하였으며, 모자는 정모에 흰색 턱끈을 부착하였고, 구두는 검정색의 군용 단화를 착용하였다. 또한, 1974년 4월 12일, 타행사복과 함께 제정된 군악복은 타행사복과 그 형태는 같았으나 색상만 달랐다. 모자와 행사복의 상의는 붉은 색, 하의는 흰색이었고, 신은 검정색 단화였다.

장교의 행사복은 정복과 같은 테일러 깃의 한 줄 4단추 저고리에 붉은 색 봉장이 부착된 보통바지를 착용하고, 상의 속에는 백색 와이셔츠에 검정색 넥타이를 착용한 형식이었다. 사병은 스텐 칼라형에 한 줄 4개의 황금색 금속제 반월형 단추를 부착한 저고리에, 어깨에는 견장대, 허리의 좌·우측에는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부착한 상

의와 일반형의 보통바지에 양측 봉제선상에는 폭 3㎝의 붉은 색 편직띠를 부착한 것이었다. 장식물은 장교의 경우 소매에 황색 수장(영관은 2줄, 위관은 1줄)을 부착하고, 어깨에는 예식용 계급장을 달았으며, 장병 공히 좌측 어깨에는 황색 견식줄을 매고, 허리와 어깨에는 예식용 흰색 요대를 착용하였으며, 좌측 흉부에는 군악대휘장을 각각 부착하였다. 사병은 견장대에 군악대휘장의 약장을 부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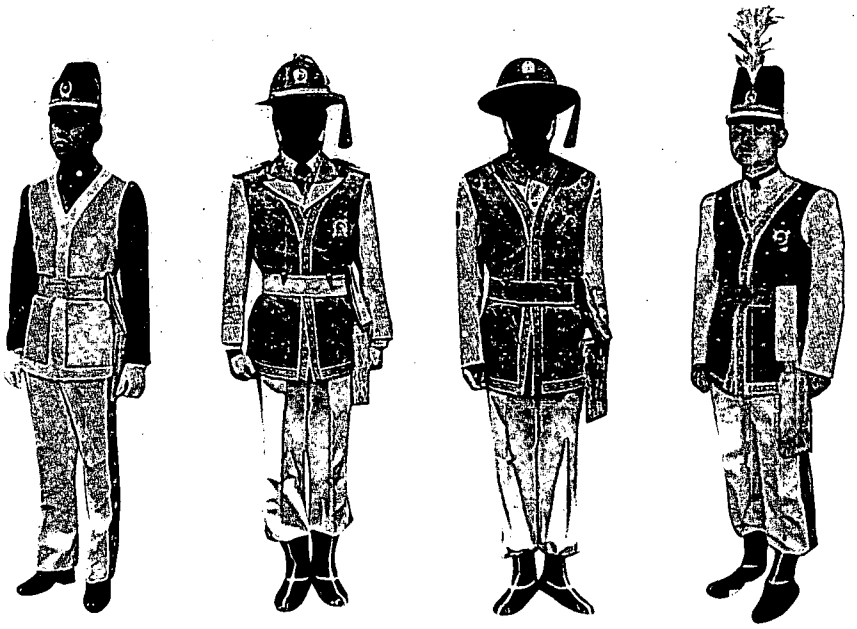
(4) 國樂服

1967년, 참모총장 특별지시에 의해 잠정 편성되었던 국악대는 1968년 9월 21일[국일명(육) 제44호], 정식 창설되면서 이들이 착용할 제복도 전년도인 1967년 9월 1일, 〈육인제 제421호〉에 의거 군악대와 동일한 형태의 제복으로 통일 규제하였으나, 1971년 9월 28일, 타행사요원(의장대·군악대)의 제복이 정복으로 개정될 때 국악대도 정복으로 개정되었다. 그후, 1974년 4월 12일, 다시 타행사복과 함께 새로운 제식으로 개정되었다. 모자는 우리의 옛 고전을 가미한 검정색의 사모형(紗帽型)이었고, 상의는 군악대행사복 위에 삼국시대의 저고리[襦]를 원용한 연한 황색의 덕거리를 겹쳐입는 제식이었으며, 신은 검정색 군용단화를 착용하였다.

그러나 이 행사복은 군악대 복장에 정모모양의 행사모 대신 사모를 쓰고 덕거리만 추가한 것으로 고전적인 특징과 고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모에 단화를 착용한 것이 마치 갓을 쓰고 양복을 입은 것과 같아, 1979년 11월 7일, 〈국인근 제918.2-565호〉로 고전과 현대감각이 조화되도록 모자와 상의, 그리고 구두를 새로운 형식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모자가 조선시대의 전립형(戰笠型)이라 악기를 다루는데 장애가 되고 불편하여, 1983년 10월 7일, 〈국인근 제918.2-770호〉에 의해 모자만 자주색의 사모형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1967년 9월 1일 제정되고 다음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시부터 착용한 최초의 국악복은 1966년 9월 13일에 제정된 국악복과 동일한 형이었으나, 다만 하의의 양측면에 부착한 봉직 띠의 색상이 붉은 색이 아니고 진한 청색(감청색)인 것이 다를 뿐이었다. 타행사요원과 같이 정복을 착용한 1971년 5월 1일부터는 견식줄과 휘장을 그대로 착용하고 새로이 같색 가죽의 예식용 요대와 어깨 띠를 추가로 제작 착용하였다.

1974년 4월 12일 우리의 고전의상을 가미하여 제정한 새로운 국악복 제식의 사모는



장 교 사 병

1974년~1979년 1979년~1983년 1983년~이후

〈국악대 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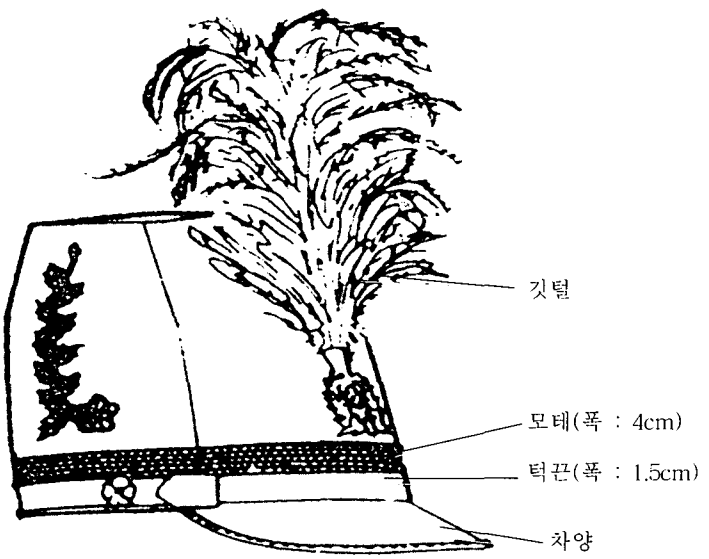
차양과 윗부분이 흑색이고 턱끈은 백색이었으며, 연한 황색의 덕거리는 조끼모양 팔과 소매가 없고 기장은 상의보다 조금 길게 하고 어깨부위에서 앞면의 겹쳐지는 부위(여밈부위)와 아래쪽 단부위에는 폭 4.5㎝의 백색도련 〔襈〕 을 붙이고 뒷면 중앙부위에는 아랫단에서 위쪽으로 20㎝ 길이로 절개하였으며, 허리에는 좌측 부위에 황색 수술이 달린 폭 7㎝의 황색 공단(貢緞)으로 제작된 예식용 띠를 둘렀으며, 신은 흑색 단화를 신었다.

1979년 11월 7일에는 사모형의 모자를 무관의 전형적인 모자인 전립형의 붉은 색 모자로 변경하였는데, 턱끈은 정모와 같이 장교는 폭 1.5㎝의 황금색 편직, 사병은 폭 1.5㎝의 흰색 비닐을 양 측면에서 황금색 소형 금속제 단추로 고정시켰으며, 모자의 정상에는 금속쇄(金屬鎖)를 꽂고 여기에 백색 상모(象毛)를 달고, 황색과 백색 줄로 꼬운 꼬임줄을 좌측 귀단추까지 연결하고, 다시 귀단추에서 밑으로 붉은 색 수술을 늘어뜨렸으며, 구슬로 엮은 턱끈(장교는 황색과 투명한 구슬, 사병은 붉은 색과 유리구슬)을 구영(具纓)으로 대신하였다.

상의(스텐 칼라형의 붉은 색 군악복)는 스탠드 업 칼라형 황색 저고리로 바꾸고, 연한 황색의 덕거리는 붉은 색으로 바꾸었으며, 덕거리의 도련은 청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아(亞)'자 문양을 4㎝ 폭으로 수놓은 것을 부착하였고, 앞면에는 양 어깨 부위에서 아랫단 부위까지 무늬가 없는 반월형 황금색 금속제 중형 단추 6개씩을 두 줄로 달고, 허리의 예식용 황색 띠도 장교는 황색, 사병은 청색 띠로 바꾸었으며, 부착물로는 양측 깃에 병과휘장, 좌측 가슴부위에는 국악대휘장을 부착하였다.

하의는 종전과 같은 백색을 그대로 착용하였으나, 신은 흑색 단화를 옛 무복(武服)에 착용한 목화(木靴)를 닮은 흑색의 반장화형(半長靴型)으로 변경하고, 신의 안쪽면에 지퍼를 부착하였다.

1983년 10월 7일에는 전립형 모자가 의장행동시 소총을 다루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 다시 사모형으로 개정하였다. 재질은 내부가 파이버 텍스이고, 외부에는 우단을 부착하였고, 검정색 차양과 폭 1.5㎝의 흰색 턱끈을 부착한 자주색의 사모형으로서 뒷면이 앞면보다 높은 형태였으며, 모자의 양 측면에는 장교 금장(襟章)과 유사한 황금색 무궁화 금장모양의 수식을 장식하고 모자의 밑부위에는 폭 2.5㎝의 황금색 금사직(金絲織)을 부착(그후 폭 4㎝로 개정되었다)하였으며, 모표의 상단에는 백색 깃털을 꽂았다.



〈국 악 모〉

(5) 女軍服

여군행사복은 의식이나 특정된 행사에 참가하는 인원이 착용하기 위하여 따로 제정된 제복이다. 여군대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시에 가두의 시민들로부터 많은 환호와 갈채를 받는 부대 중의 하나이며, 국토방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도보요원과 군악대의 일부로 구성되어 드럼을 치는 드럼요원, 그리고 그들을 선도하는 드럼메이저(drum major)의 대형으로 통상 구성된다.

이들이 착용하는 행사복은 군의 위용을 과시함은 물론 여성의 단체미도 함께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도보요원복과 드럼메이저복으로 구분하여 제정하였다. 이들 행사복은 비록 군복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남자의 제복과는 그 성격이 달라 해를 거듭하면서 그때 그때 여성복의 유행을 가미하여 보다 화려하고 활동적인 형태로 변천되어 왔다.

최초의 제복은 1967년 7월 21일, 〈육인제 제421호〉로 제정되어 그해 국군의 날 행사 때부터 착용하였으며, 도보요원복과 드럼메이저요원복 공히 투피스형으로 기본형태는 같게 하고 색상만을 다르게 하였다. 도보요원복의 제복은, 모자는 남색의 개리슨모였고, 모자의 가장자리에는 폭 0.5㎝의 황색 띠를 붙여 돋보이게 하였으며, 상의와 하의가 구분된 슈트로서, 상의는 테일러 칼라형의 한 줄 4단추 저고리에, 어깨에는 견장대, 양측 허리부위에는 속붙임주머니를 부착한 형태였고, 상의 속에는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색 넥타이를 받쳐 입었으며, 하의는 H선형의 타이트 스커트였다. 구두는 굽이 높은 검정색 구두를 신었다.

드럼메이저복은 흰색 개리슨모의 가장자리에 검정색 보조띠를 부착하였고, 상의는 테일러 칼라형의 한 줄 4단추가 부착된 붉은 색 저고리에, 어깨에는 황색 견장대, 허리 양측에는 주머니 대신 폭 1㎝의 황색띠로 'ㄱ'자형의 수식을 붙이고, 소매에는 폭 2.5㎝의 황색 수장을 부착하였으며, 상의 속에는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색 넥타이를 받쳐 입었고, 흰색 하의는 H선형의 타이트 스커트였다. 구두는 검정색 부츠였다.

1973년, 이상의 투피스 형태의 제복이 색상만 화려할 뿐 모양은 정복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개인장구도 휴대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아래·위가 붙은 퀼로트 스커트(culotte skirt)[15]형의 원피스 형태로 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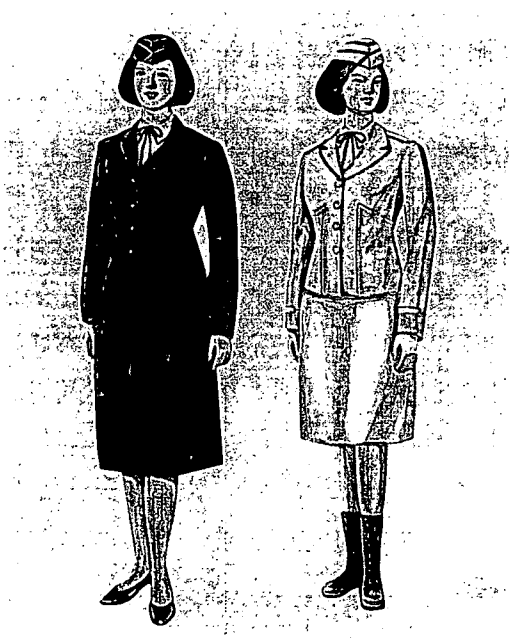
---

15) culotte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말까지 프랑스 귀족남자가 입었던 다리에 꼭 낀 반바지를 의미하는 프랑스어이다. 여성의 경우 처음에는 승마시 이용된 스커트이다. 얼핏 보아 앞·뒤 중앙에 플리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바지형식으로 가랑이가 있는 스커트이다.

도보요원은 연회색의 정모에 스포츠 칼라형의 한 줄 4단추를 부착한 반소매 상의에 흉부 양측에는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부착한 형태로서, 우측 어깨의 견장대에는 연한 주황색 스카프, 좌측 어깨의 견장대에는 검정색 스카프를 각각 붙이고 끝이 허리부위까지 내려오도록 늘어뜨리고, 허리에는 국방색 개인장구 요대를 착용하였으며, 신은 검정색의 목이 짧은 부츠를 신었다.

드럼메이저요원은 모자와 제복 그리고 부츠 등 모두 흰색을 사용하여, 정모형의 모자에는 폭 3㎝의 주황색 모테를 둘렀고, 제복은 오블롱 칼라형의 두 줄 8개 단추가 부착된 저고리에 퀼로트 스커트를 착용한 형태였으며, 전면에는 양측의 단추에서 중앙부위(여미는 부위)까지 폭 1㎝의 황색 꼬임줄을 사선(V자형)으로 붙여 장식하였고, 양 어깨에는 황색 견식줄을 매고 이를 맨 아랫단추에 걸어 밑으로 늘어뜨렸으며, 허리에는 폭 3.5㎝의 붉은 색 요대를 둘렀다.

그러나 이렇게 개정된 행사복은 색상면에서 서로 조화가 되지 않아 시행해 보지도 못하였으며, 1974년 4월 12일, 〈국인근 제203.2-195호〉로 제25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대비하여 모든 행사요원의 제복을 일제히 통일 개정할 때 여군행사복도 기본형태는



도보요원복 드럼메이저요원복

1967년~1972년



도보요원복 드럼메이저요원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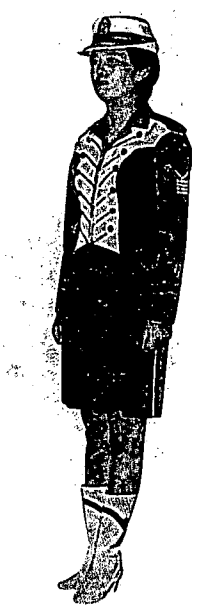
1973년



도보요원복　　드럼메이저요원복
1974년～1977년



도보요원복　　드럼메이저요원복
1978년～현재



1981년～1986년



1987년～

〈여군복(1967년～현재)〉

변경없이 그대로 하고 색상만 변경하면서 드럼메이저복을 기초로 하여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색상과 일부 복식품을 서로 다르게 하였다.

도보요원의 모자는 폭 3.5㎝의 주황색 모테를 부착한 흰색의 정모형태였으며, 상의는 주황색의 스포츠 칼라형의 반소매저고리에 미니형 퀼로트 스커트를 부착한 원피스 위에 한 줄 4개의 반구형 금속제 단추를 부착한 흰색 조끼를 겹쳐 입고, 국방색 개인장구 요대를 착용하였으며, 목이 짧은 검정색 부츠를 신었다. 드럼메이저요원은 도보요원과 같은 흰색 모자에 행사복은 스포츠 칼라형의 반소매저고리에 미니형 퀼로트 스커트를 붙인 흰색 원피스 위에 2줄 6개의 반구형 황금색 금속제 단추가 부착된 주황색 조끼를 착용하였는데, 조끼에는 양측 단추에서 중앙의 여미는 부위로 폭 1.5㎝의 황색 편직띠를 V자형으로 붙였고, 어깨에는 견장대를 부착한 형태였다. 양 어깨에는 황색 견식줄을 패용하고, 조끼의 맨 아랫단추에 걸어 끝을 아래로 늘어뜨렸으며, 신은 목이 긴 흰색의 가죽 부츠를 착용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하여 착용하여 오던 행사복도 해가 거듭되면서 퇴색되고 매년 착용자의 체위에도 맞지 않아 재제작해야 할 형편에 이르자 차제에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또한 반소매 제복이 우리 나라 9·10월의 기후조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1978년 4월 21일, 〈국인근 제203.2-237호〉로 긴소매 제식으로 바꾸었다.

도보요원복은 주황색 상의 소매에 폭 1㎝의 황색 편직띠로 ℓ형의 수장(袖章)을 붙이고, 하의 스커트 양측에는 폭 7㎝의 흰색 편직 위에 폭 2㎝의 편직띠를 부착한 봉장을 달았으며, 조끼에도 양측 단추에서 중앙의 여미는 부위로 V자형으로 1㎝의 황색 편직띠를 부착한 형태로 보완하였다.

드럼메이저요원복은 제복의 형태와 수장 그리고 조끼의 앞면 장식과 스커트의 측면 장식 등은 도보요원복과 같은 모양으로 하고, 색상만을 도보요원복과 정반대 색상으로 하였으며, 부츠의 뒷굽도 장시간 착용에 지장이 없도록 5㎝를 4㎝로 줄였다. 그러나 이 제식도 색상이 주황색과 흰색으로 구성되어 너무 단조로워 군복으로서의 강직성이 결여되고 부츠의 뒷굽이 높아 장시간 착용시 피로감이 증대되자, 1981년 8월 18일, 〈국인근 제918.2-645호〉로 제복의 기본형태는 그대로 두고 도보요원의 흰색 조끼 양 측면에 군청색을 추가하고, 스커트의 양측 흰색 띠도 군청색으로 바꾸었으며, 부츠도 목길이를 줄이고 중앙상단부에 V자형의 군청색 띠를 추가로 부착하였다. 또한 1987년 8월 3일에는 도보요원복의 미니스커트가 착용자의 연령과 시대 흐름에 부적합하여 스커트의 길이를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하고, 조끼의 앞면 단추 6개를 5

개로 줄였으며, 부츠의 양측 남색 띠를 제거하였다.

(6) 영현봉송요원복

영현행사요원복은 1971년 9월 28일, 〈국인근 제203.1-3688호〉에 의한 의장대와 군악대 복장을 정복차림의 행사복으로 개정할 때, 국립묘지에 근무하는 영현봉송요원이 영현의 봉송과 안장식 때에 보다 근엄한 차림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복이다.

정모의 검정색 턱끈을 흰색으로 바꾸고, 좌측 어깨에는 황색 견식줄, 허리에는 흰색의 개인 장구요대를 각각 착용하였으며, 신은 검정색 군용단화를 착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복차림의 행사복이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는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1971년에 보급된 제복이 1979년까지 보충이나 교환 없이 장기간 착용해옴에 따라 퇴색되고 마모되어 재보급해야 할 형편에 이르렀던 차에 정복의 개정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터였으며, 한편으로는 타행사요원인 의장대·군악대·국악대·헌병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행사복을 착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였다.



1979년 이전



1979년~현재

〈영현행사요원복〉

영현봉송요원을 위한 복장은 1979년 11월 7일, 〈국인근 제918.2-565호〉로 보다 간편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지니면서 경건한 마음가짐을 지닐 수 있는 행사복으로 제정되었다. 흰색 모자에 검정색 상의와 흰색 바지를 착용하고, 검정색의 군용단화를 착용하는 제식이었다. 모자는 검정색 차양과 흰색 턱끈을 부착하고 검정색 모테에 흰색 덮개를 씌운 정모형태였으며, 상의는 스텐 칼라형에 한 줄 5개의 황금색 금속제 중형 단추를 부착한 저고리에, 어깨에는 견장대, 흉부 좌·우측에는 겉붙임 뚜껑주머니, 허리의 좌·우측에는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각각 부착한 형태이다.

하의는 일반형의 보통바지로서 대퇴부 양측에는 속붙임 사선주머니, 뒷면 둔부 좌·우측에는 속붙임주머니를 부착하고, 양 측면 봉제선상에는 폭 4㎝의 검정색 편직띠를 부착하였다. 부착물은 양측 팔에 정장 계급장, 양측 깃에는 병과휘장을 부착하였으며, 복식품으로는 좌측 어깨에 황색 견식줄을 패용하고, 허리에는 흰색의 개인장구요대를 착용하였다. 이렇게 제정된 제복은 승인되기에 앞서 1979년 11월 3일, 고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행사시에 최초로 착용하였다.

(7) 예포대복(禮砲隊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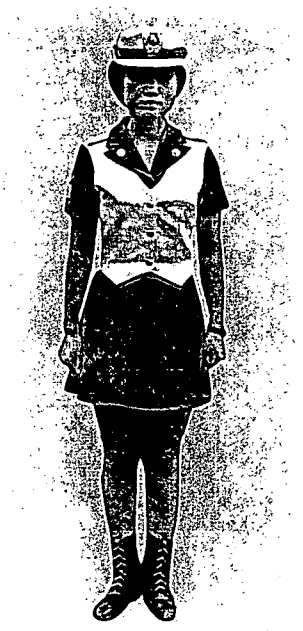
군과 국가행사에 지원되는 예포대(禮砲隊)는 사단포병의 1개 포대가 행사시마다 지원하면서 특수한 제복 없이 평상복인 전투복이나 근무복을 착용함에 따라 행사에 참석하는 타지원병력인 의장대원·헌병경호요원·군악대원 등에 비하여 복장면에서 품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1981년 6월 12일, 〈육인사 제150.2호〉에 의거 의장대원 행사복과 동일한 제식의 제복과 복식품을 지급하고, 모자는 은색 철모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예포대휘장도 제정하여 패용하도록 하였다.

(8) 합창복

합창복은 1976년 10월 1일의 제28주년 국군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국내·외에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군에 대한 신뢰도와 국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군군악제 행사를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 도시에까지 순방하면서 거행한다는 계획이 수립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남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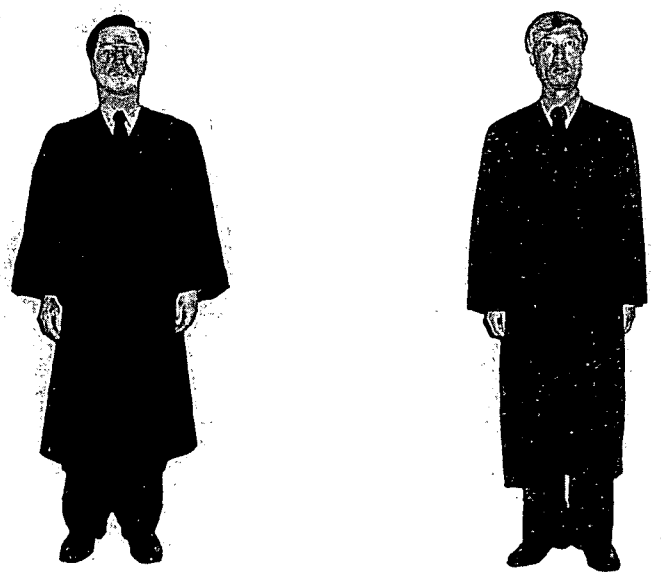
여 군

〈합창복(1976년～)〉

당시 편성된 합창단요원은 남군 249명, 여군 61명이었다. 이들이 씩씩하게 보이면서 활동에 편리함은 물론 제복의 단순화를 기할 수 있고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제정된 합창복은 남군의 경우 당시 착용되고 있던 군악복에 모자만 검정색 모테를 붉은 색으로 바꾸었을 뿐 기타 복식품이나 장식품은 부착하거나 휴대하지 않았다. 여군합창복의 경우는 여군의 도보행사요원복과 같은 형태의 제복을 착용하였으며, 복식품은 남군과 동일하게 부착하거나 휴대하지 않았다.

자. 法　　服

법복은 군법회의에 임하는 재판요원이 착용하는 제복이다. 1987년 이전에는 군법회의 재판관으로 임명된 자는 정복을 착용함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전·후방 각급부대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장교들이 대부분 정복을 휴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지라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전투복이나 근무복 또는 정복 등 다양한 제복을 착용함으로써 재판권의 존엄성과 신선성(新鮮性)이 결여되는 소지가 많았다. 게다가 계엄이



〈법복(1987년~)〉

선포되었을 경우 일반법관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87년 7월 29일, 법복을 새로 제정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법복의 제식은 검정색의 위·아래가 붙어 있는 내리닫이의 옷으로서, 일반사회 법관의 법복과 동일한 형태였으며, 서기관의 제복은 법복과 같은 형태였으나 양쪽 어깨부위에서 흉부까지의 주름띠가 없는 것이 달랐다.

차. 宗教祭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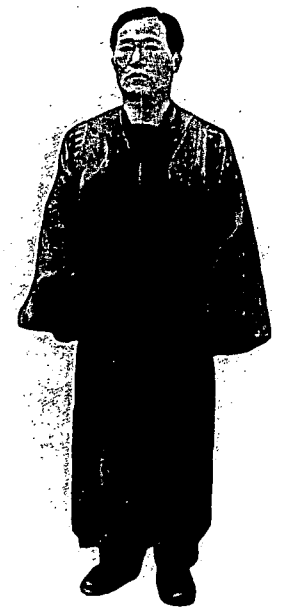
군에서는 부대내에 교회·성당·법당을 두고 종교행사를 집행하고 있으며, 이들 행사를 관장하는 군목·신부·군승은 군종병과내에 두고 있다. 한편, 이들 군종장교들이 종교의식 때 착용하는 종교제복은 각 종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에서 별도로 규제한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규정되지 못했던 종교제복은 1968년 11월 12일 〈국군종 제939-354호〉에 의거, 국방부에서 군승제도를 연구하면서 종교제복을 채택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하여 육군에서도 1972년 6월 1일, 군종



군목 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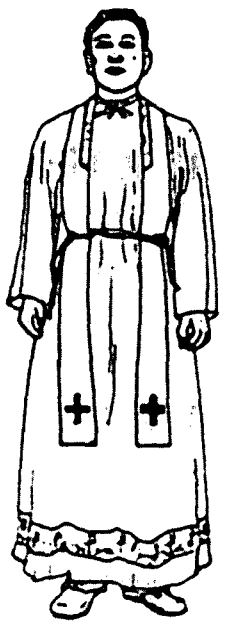


군목 동복



군승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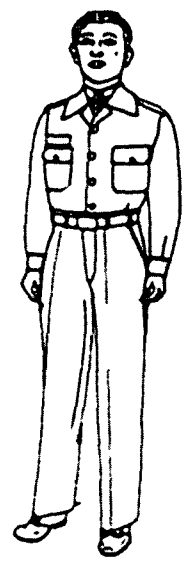
〈군목 · 군승 종교제복 ①〉



의식복(장백의)



수단(평상복)



로만칼라(근무복, 전투복)

〈신부 종교제복 ②〉

장교들의 제복을 육군규정(육규 1-7 복제규정)에 포함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종교 제복을 종교의식 행사상 필요한 때만 착용한다는 규제만을 두었을 뿐, 그 제식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았다. 그후 1978년에는 종교의식시에만 착용하던 군종신부의 로만 칼라(roman collar : 검은 옷에 달린 흰색 칼라)를 평상시에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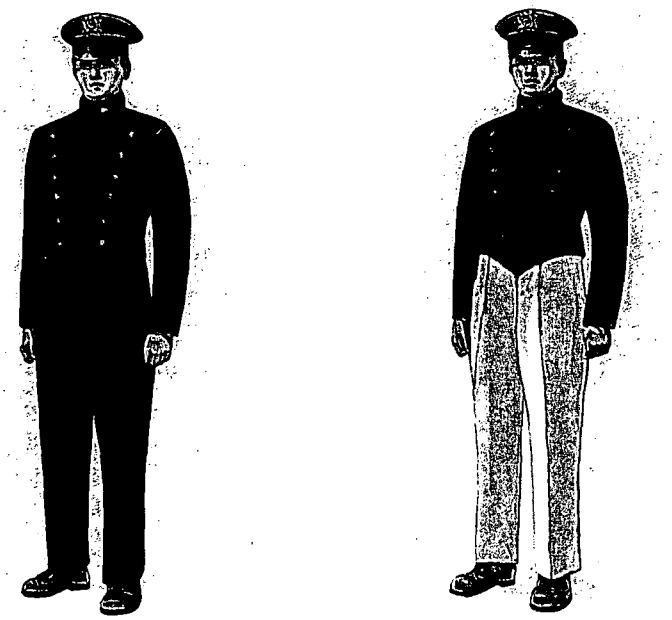
카. 陸軍士官學校 士官生徒服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제복은 1953년 휴전이 될 때까지의 전쟁을 치르는 혼란기라 사관생도로서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특수복은 마련할 수 없었으나, 휴전이 된 후 생도제복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이때의 제복은 예복과 하정복만 부분 개정하면서 오랫동안 그대로 착용해 오다가, 1970년에 정모와 정복 그리고 외투 등이 크게 바뀌고, 1974년 제26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대비하여 각군 사관생도복을 개선할 때 생도예복을 우리의 고전미를 살릴 수 있는 형식으로 개정하고, 다른 제복도 부분 개정하였다.

(1) 예 복

사관생도들의 예복은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되어 1953년에 첫 선을 보였다. 예모는 정모와 기본형태는 같았으나 색상만 군청색이었고, 모테의 뒤쪽으로 턱끈과 같은 규격의 흰색 보조띠를 부착한 점이 정모와 다른 점이었다. 예복의 색상은 군청색이었으나 하복의 하의만이 흰색이었으며, 상의는 스탠드 업 칼라형에 두 줄 12개의 황금색 금속제 단추를 부착한 저고리로서, 기장은 허리까지 내려오게 하고, 허리부분은 꽉 끼게 하면서 하단중앙부를 V자형으로 조금 뾰족하게 하였으며, 앞면은 지퍼로 잠그게 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지퍼를 위에서 아래로 잠그게 한 것이었다.

장식으로는 깃의 앞 도련과 상단부에 폭 1㎝의 검정색 편직띠를 붙이고 황금색 단추를 부착하였으며, 앞면은 지퍼의 좌·우측에 폭 1.5㎝ 의 검정색 편직띠를 각각 붙이고 양측 6개의 단추로부터 중앙부위로 가느다란 검정색 띠를 사선으로 부착하였으며, 양측 소매에도 수장으로 가느다란 검정색 띠 3줄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비스듬히 부착하였다. 하의는 일반형의 보통바지로서 주머니가 없으며, 군청색의 동복하의에는 양 측면 봉접선상에 폭 3㎝의 검정색 편직띠를 부착하였다. 그후 1957년 3월에 예모의 형태와 동예복의 하의 색상을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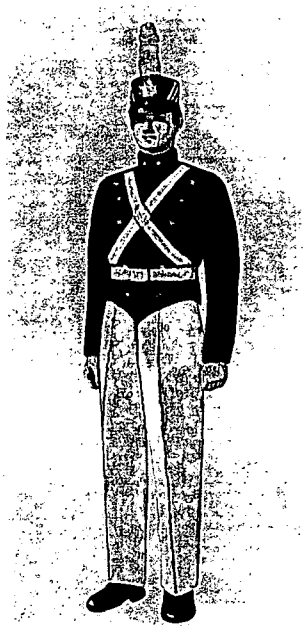


동 복　　하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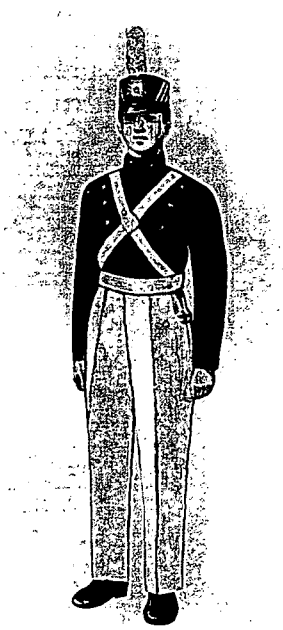
〈육사생도 예복(1953년~1957년)〉

예모는 일반 정모형태에서 검정색 차양과 턱끈을 부착한 군청색 우단의 원통형(圓筒形)으로 변경하였다. 모자의 수식으로 앞면의 모표 좌·우측에 3개의 황금색 금사직띠를 사선으로 부착하고, 모표 위에는 흰색 깃털(일명 화랑깃)을 꽂았으며, 모표의 원통하단 둘레에는 턱끈 넓이의 금사 편직띠를 둘렀고, 모자의 덮개 표면에는 황색의 무궁화장을 자수하고 무궁화장 속에는 태극문양을 두었다. 동예복하의의 군청색을 하예복의 하의와 같은 백색모직으로 변경함으로써, 예복은 동·하복 구분 없이 상의는 군청색, 하의는 백색으로 변경되게 됨에 따라 이때부터 청·백대열(靑·白隊列)이란 낱말의 대명사가 탄생되었다. 예복은 1967년까지만 해도 학년을 나타내는 표시가 없어, 1968년에 상의의 양측 깃에 부착되어 있는 황금색 단추 대신 우측 깃에는 학년을 나타내는 학년장, 좌측 깃에는 육사생도임을 표현하는 생도휘장을 각각 부착하였다.

한편, 당시 예장에 의식을 위해 무장을 할 때에는 예식용 어깨띠를 착용하였는데, 장교직위 생도는 Y형 어깨띠, 일반 사관생도는 X형 어깨띠를 각각 착용하였고, 1968년부터는 흰색의 예식용 허리띠를 붉은 색의 예식용 띠로 변경하였으며, 예식용 띠의 좌측에는 같은 색의 기다란 수술 두 개를 달아 멋을 한층 더해 주었다.



1957년~196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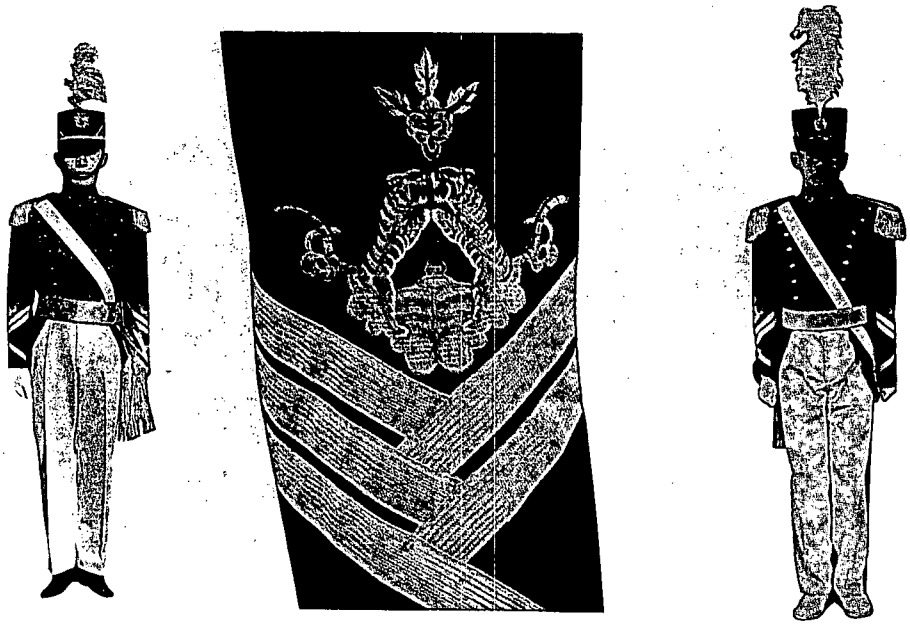
1968년~1974년

〈육사생도 예복〉

이와 같은 예복의 제식은 근본적으로 미 육사생도 예복을 모방한 것이어서, 위용을 더 높이려는 의도에서 1974년 4월 12일 〈국인근 제203.2-195호〉에 의거 조선시대의 투구와 철릭(天翼 혹은 帖裏) 그리고 무관의 흉배(胸背), '아(亞)'자 문양과 단청(丹靑) 등을 고증재료로 참고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데 주안을 두고 보완하였다. 우선 기존의 예복 색상인 상청하백(上靑下白)의 기본색상은 그대로 유지하고, 앞면에 붉은 색 흉복을 대어 청적(靑赤)의 태극색(太極色)을 상징하도록 하였으며, 형태상 상의의 뒷부분을 연미복 형태로 만들었다.

예복의 장식으로는 앞섶에 '亞'자 문양의 완자무늬를 검정색 실로 자수하여 고전미를 가미시켰으며, 붉은 색 흉복 좌·우측에는 무늬가 없는 반구형의 황금색 금속제 중형 단추 5개씩을 달고, 소매에는 운호(雲虎) 장식을 자수로 수식하고, 어깨에는 견장(예복 학년장), 허리에는 붉은 색 예식용 띠 대신 황색 예식용 띠를 착용하였다.

그후, 1984년 10월 27일에는 예복의 품위를 제고하기 위하여 재질을 개선하면서, 35%의 모혼방률을 50%로 높이고, 색상도 상의 군청색을 조금 밝은 감청색으로 바꾸



1974년~1984년　　1984년~

〈육사생도 예복〉

었으며, 표지가 없었던 무표지(無標識)단추도 육사생도 모표문양이 삽입된 단추로 변경하고, 하의측면의 군청색 봉장도 검정색 편직띠로 개정하였다.

(2) 정 복

1946년 5월 1일,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로 창설 당시 후보생의 제복은 다른 모든 군복이 그러했듯이 별도의 생도제복이 있은 것이 아니라 미군복이나 일본군복을 개선하여 착용하였다.

상의는 미군 점퍼형(아이크 점퍼)이고, 하의는 일본군의 장교복인 승마복, 군화는 목이 달린 편상화(編上靴)를 착용하였다. 표지로는 견장대에 황금색 네모꼴 바탕 위에 '사(士)'자를 부착한 후보생 표지, 깃에는 경비대 표지, 좌측 팔 상단에는 녹색 원형 속에 황색 영문글씨로 'OTS'라고 새긴 표지, 그 밑에 직위 표지를 각각 부착하고, 장교용 가죽 요대를 착용하였다. 그후 1948년 8월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동년 9월 5일, 경비사관학교가 육군사관학교로 개칭되면서 정복도 새로운 제식으로 바뀌었다.



1946년~1948년



1948년~1950년

〈생도정복(1946년~1950년)〉

이 정복은 당시 미군이 착용하던 예복으로서, 흑녹갈색의 테일러 칼라형의 한 줄 4개의 황금색 금속제 단추가 달린 저고리에, 어깨에는 견장대, 흉부 좌·우측에는 겉붙임 뚜껑주머니, 허리의 좌·우측에는 속붙임 겉주머니를 부착한 형태에, 소매에는 소매끝에서 위쪽으로 10㎝되는 곳에 폭 1.5㎝의 감청색 띠 한 줄을 수장으로 부착하고, 어깨에는 후보생 표지, 좌측팔에는 녹색의 학교 표지, 좌측 흉부에는 녹색원(圓)에 황색의 무궁화가 새겨진 생도흉장을 각각 부착하였다. 하의는 일반형의 보통바지에 양면 봉제선상에는 폭 2.5㎝ 감청색 편직띠를 부착한 것이었고, 신은 갈색의 일반 군용단화를 착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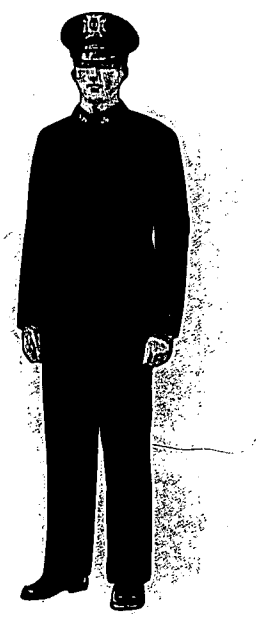
6·25전쟁시에는 임시 폐교되었던 학교가 1951년 4년제 사관학교로 재개교되었으나 전쟁기간중이라 전투복을 착용하다가, 1953년에야 비로소 생도정복을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 제정하였다. 동복은 암갈색이고 하복은 카키색이었으며, 제식은 스텐칼라형에 기장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짧은 형으로 허리품은 체격에 맞추어 좁게 하고, 앞면은 지퍼로 여미도록 한 형태였다. 그후 1967년에는 하복의 카키색을 일반장병의 근무복과 동일하다고 하여 흰색으로 바꾸었다가, 1968년에는 긴소매의 하정복

이 혹서기에 부적합하여 반소매 제식의 하약정복을 추가로 제정하였으나, 흰색 하의가 쉽게 더럽혀져 1969년에 하의의 흰색을 청회색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이어 1970년에는 동정복의 청회색을 연한 청회색으로 변경하면서, 하복도 종전의 하정복과 하약정복은 폐지하고 반소매의 하정복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반소매의 하정복은 환절기에 착용하기 곤란하여 1984년 10월 27일 〈국인근 제918.2-963호〉로 동정복과 같은 형태의 하정복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가) 동정복

1953년 제정된 최초의 동정복은 암갈색의 모직으로서, 상의는 스텐 칼라형에 허리는 체형에 맞추어 좁게 하고, 기장은 허리까지 내려오도록 한 짧은 모양에, 앞면은 지퍼로 위에서 아래로 여미도록 한 형태였다. 지퍼를 위에서 아래로 잠그게 한 것은 목부위가 열리는 것을 예방하고 허리부위를 좁게 하고 기장을 짧게 한 것은 앉을 때 불편이 없도록 고려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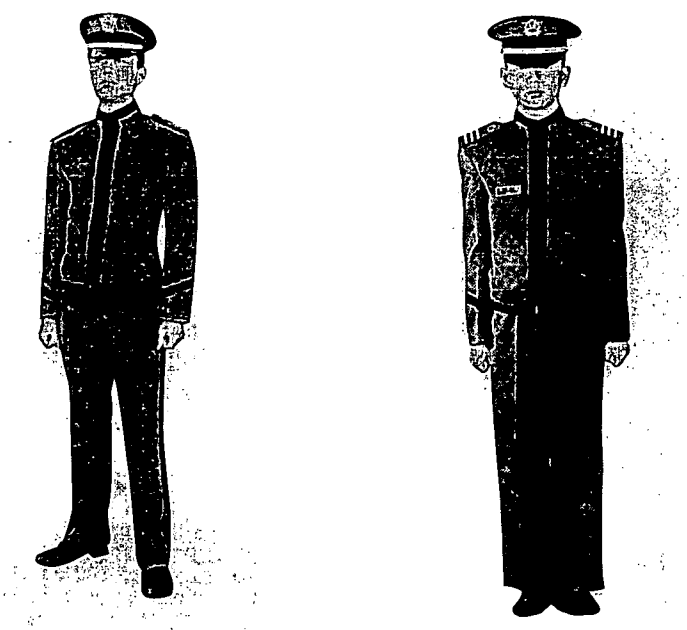
1953년~1969년
〈생도 동정복〉



1964년 이후
〈정복 상의 표지〉

장식으로는 앞면의 지퍼부위 좌·우측과 밑단 그리고 등뒤의 양측에는 폭 2.5cm의 검정색 편직띠를 붙이고, 소매에는 학년을 표시하는 수장을 1학년은 폭 2.5cm 1조, 2학년은 폭 2.5cm 1조와 폭 1.5cm 1조, 3학년은 폭 2.5cm 2조, 4학년은 폭 2.5cm 2조와 폭 1.5cm 1조를 각각 부착하였으며, 양측 깃에는 생도휘장을 부착하였다. 하의는 일반형의 보통바지로서, 둔부 좌·우측에만 속붙임 주머니를 부착하였고, 양 측면 봉제선에는 폭 3cm의 흑색 편직띠를 부착하였으며, 모자는 정복과 같은 재질에 검정색 차양과 턱끈을 부착하고, 모표는 육사모표, 귀단추는 황금색 금속제 소형 생도단추를 달았고, 신은 일반 군용단화를 착용하였다.

그후 1964년에는 정모의 검정색 턱끈을 장교의 정모 턱끈을 모방한 황색 턱끈으로 변경하고(장교는 1962년에 황색으로 변경), 상의 깃의 표지도 양측 깃에 생도표시를 부착하던 것을 좌측 깃에는 생도표시, 우측 깃에는 학년장을 부착하는 형식으로 변경하였다. 1970년에는 지금까지 착용하던 암갈색 정복은 엄숙한 감을 줄 뿐 화려한 감이 미흡하여 보다 젊고 발랄하면서도 생동감을 줄 수 있도록 색상을 연한 청회색으로 바꾸면서 제식과 복식도 일부 변경하였다.



1970년~1983년　　현 재

〈생도 동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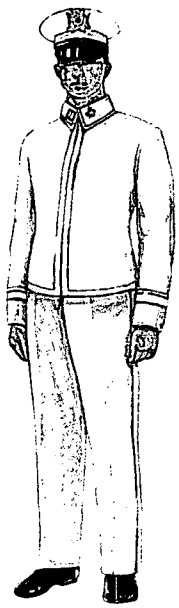
상의는 깃을 스탠드 업 칼라형으로 바꾸고, 학년별로 다르게 표시하던 소매의 수장도 학년의 구분 없이 전 학년이 폭 1.5㎝의 검정색 편직띠 1줄을 사선으로 부착하도록 하면서, 학년표시는 별도의 학년견장을 제정하여 어깨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자와 하의도 색상만 연한 청회색으로 바꾸었을 뿐 모든 형식은 변경하지 않았다. 그리고 1984년 10월 27일에는 제식의 변경없이 색상과 재질만을 변경하였는데, 색상은 연한 청회색을 보다 밝은 청회색으로 변경하고, 재질은 모혼방률 40%를 50%로 높여 제복의 품위를 제고시켰다.

(나) 하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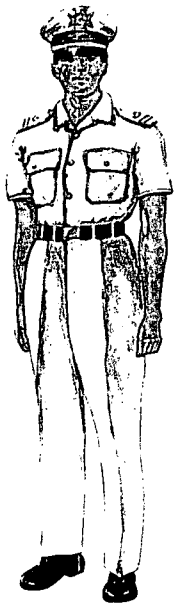
1953년에 동정복과 함께 제정된 하정복은 색상만 동정복과 다른 카키색일 뿐 다른 모든 제식은 동정복과 같았다. 그후 1957년에는 카키색 하정복은 일반장병의 하복 색상과 같아 보다 개성이 있고 산뜻해 보이는 흰색으로 바꾸면서 검정색의 편직띠도 흰색 편직띠로 변경하였으며, 정모도 옷의 색상에 맞추어 흰색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



1953년~1956년



1957년~1970년



1968년

〈생도 하정복(1953년~1970년)〉

같은 긴 소매의 두터운 편직의 흰색 하정복은 무더운 혹서기에 착용하기에는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활동에 불편하여, 1968년 5월 16일 〈육인제 제421호〉에 의거 혹서기에 착용할 제복으로 반소매형태의 하약정복을 추가로 제정하면서 모자와 상·하의 모두를 흰색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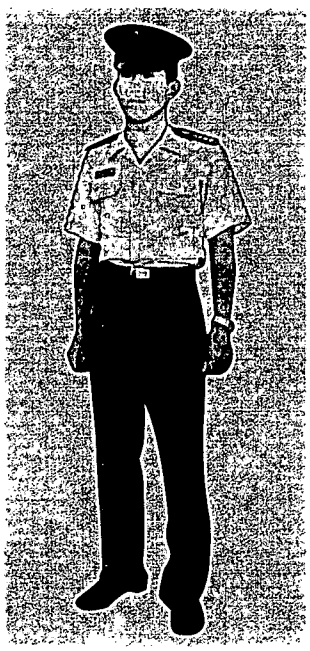
모자는 차양과 모테는 검정색이고, 턱끈은 황색이었으며, 반소매 상의는 스포츠 칼라형에 흉부 좌·우측에는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부착하고, 어깨에 흰색바탕의 학년견장을 부착하였다.

하의는 하정복의 하의와 같은 일반형의 보통바지였으나, 측면의 봉장은 부착하지 않았고, 요대는 검정색 요대를 착용하였다. 그리고 1969년에는 지금까지 착용해 오던 하약정복의 흰색 하의는 쉽게 더러움을 타고 또한 검정색 단화에서 검정색 구두약이 묻는 결함이 있어 흰색 하의를 청회색으로 변경하면서 하의 측면에 폭 3㎝의 검정색 편직띠를 부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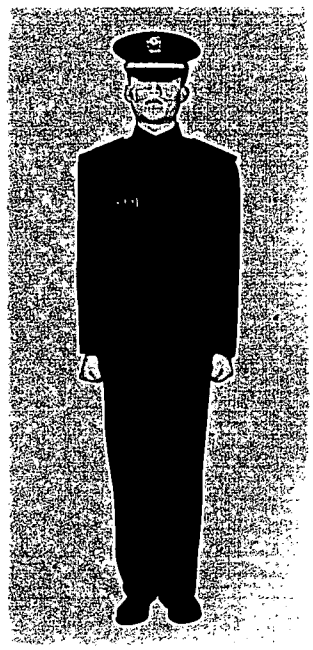
또한 1970년에는 동정복을 연한 청회색으로 변경할 때 하정복과 하약정복을 폐지하고 새로운 제식의 하정복을 제정하였다. 상의는 스포츠 칼라형의 반소매 와이셔츠



하정복(1971년)



하약정복(1969년~1970년)



현 재

〈생도 하정복(196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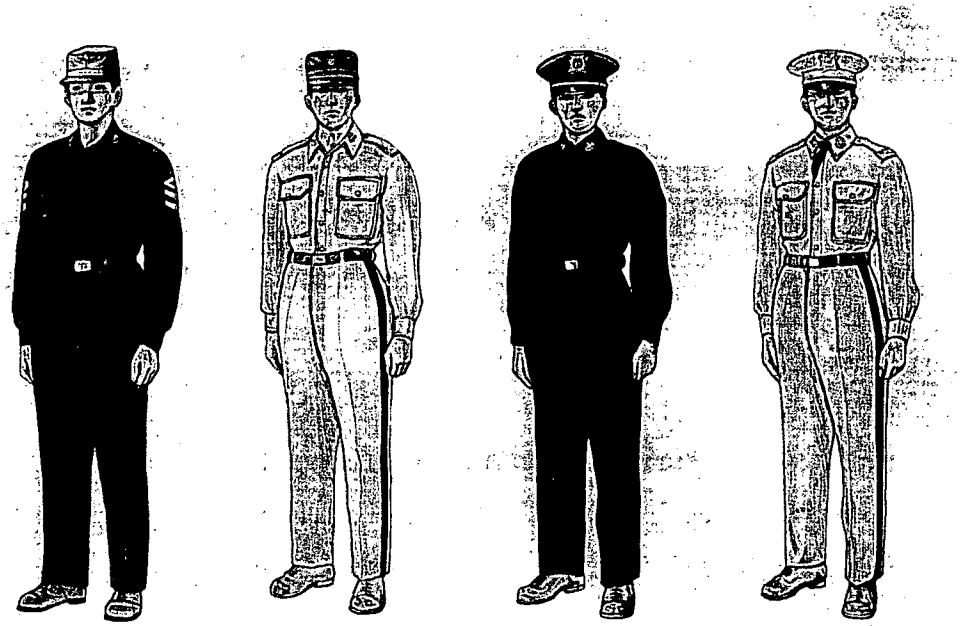
형에 흉부 양측에는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부착한 형태였고, 하의는 동정복 하의와 같은 연한 청회색이었으나 재질은 모직 포럴이었으며, 정모와 어깨에 부착하는 학년 견장은 동정복용을 겸용하였다. 그리고 1984년에는 동정복의 색상과 재질을 변경할 때 종전에 착용하던 하정복이 반소매로 춘·추의 환절기에 착용하기에 부적합하여 1984년 10월 27일에 동정복과 같은 형태의 하정복(춘·추복)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색상은 동정복보다 연한 청회색으로 하고 재질은 모 50%의 혼방이었다.

(다) 근무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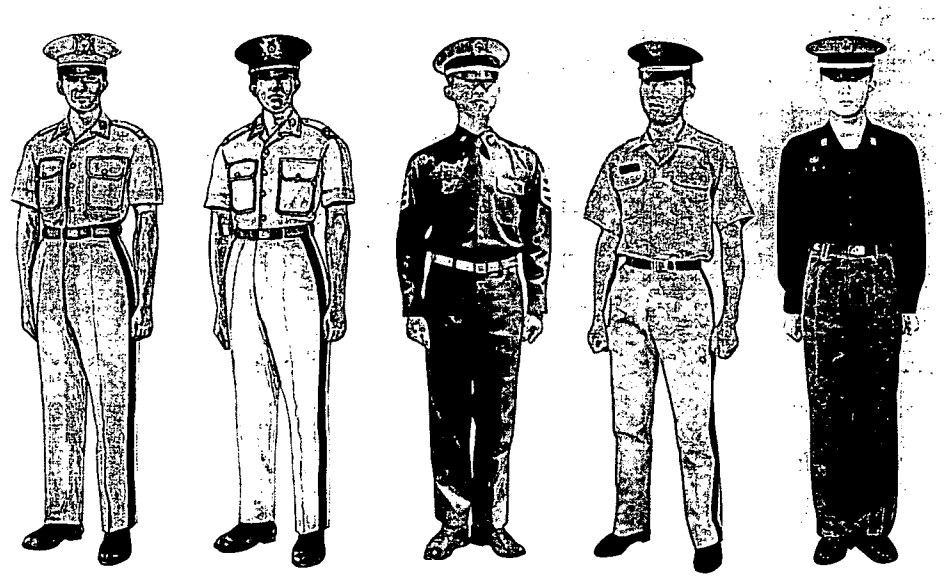
사관생도의 근무복은 1953년에 정복과 함께 일과시간과 과외활동시에 간편하게 착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복이다. 동복은 흑갈색 모직 서지이고 하복은 카키색의 면직으로서 동·하복 공히 상의는 셔츠 칼라형의 긴소매 와이셔츠로서 어깨에는 견장대, 흉부 좌·우측에는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부착한 형태이다. 하의는 일반형의 보통바지로서, 대퇴부 양측에는 속붙임 사선주머니, 둔부 좌·우측에는 속붙임 가로주머니를 부착하고, 양측 봉제선상에는 폭 3㎝의 검정색 편직띠를 부착한 형태였다. 모자는 전투모, 신은 갈색의 일반 군용단화를 신었으며, 표지물로는 우측 깃에 학년장, 좌측 깃에는 생도휘장을 부착하였다가, 1955년부터는 전투모 대신 정모를 쓰고, 상의에는 검정색 넥타이를 착용하였다.

1961년에 긴소매에 넥타이를 착용하는 하복 제식이 무더운 혹서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상의를 반소매의 넥타이를 매지 않는 간편한 노타이제식으로 변경하였으며, 1968년에는 모자도 하정모 대신 동정모를 겸용하다가, 1975년 7월 30일, 〈국인근 제203.2-488호〉에 의거 생도의 동·하정복을 개정할 때 동근무복의 색상을 연회색(1971년 개정된 장병 정복 색상)으로 바꾸고, 동기에는 넥타이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표지물은 종전과 같이 우측 깃에 학년장, 좌측 깃에는 생도휘장을 달고 양측 팔에는 생도직위장을 부착하였다.

그리고 1981년 3월 26일에는 사병의 근무복과 함께 동·하근무복의 제식을 장교의 동·하 근무복제식으로 개정하였는데, 동복은 흑청녹색, 하복은 상의는 연회색, 하의는 흑청녹색으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근무복의 제식이 개정됨에 따라 다양하였던 육군의 근무복 제식은 단일제식으로 통일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장교로 임관된 후에도 착용할 수 있는 이점도 겸비하게 되었다.



동 복 1953~1954 | 하 복 1953~1954 | 동 복 1955년~1970년 | 하 복 1955년~1960년



하 복 1961년~1967년 | 하 복 1968년~1970년 | 동 복 | 하 복 1971년~1980년 | 현 재

〈생도 근무복(1953년~)〉

(라) 외 투

1953년에 타제복과 함께 제정된 생도외투는 당시 영관코트라고 칭하면서 고급장교에게만 지급되어 착용하던 황갈색의 두 줄 6개의 복지색 플라스틱제 단추를 부착한 반외투였다. 생도용은 원래의 복지색 플라스틱제 단추를 황금색 금속제 대형 단추로 바꾸고, 복지색 요대는 제거하고, 양측 소매에는 동정복과 같은 모양의 검정색 학년 표시수장을 부착한 제식으로서 외출시와 휴가시에만 착용하였다.

그후, 1959년 12월 1일에는 종전의 반코트를 미디 코트(midi는 중간길이라는 뜻의 middle length의 약어, 혹은 중간이란 뜻의 형용사 mid의 파생어로서, 장딴지 중간길이의 코트)로 개정하였는데, 재질과 색상은 종전과 같은 황갈색의 낙타재질이었다. 제식은 진한 밤색의 스텐 칼라형에 두 줄 16개의 황금색 금속제 생도단추를 부착한 중간형의 코트로서, 어깨에는 견장대고리를 부착하고, 허리의 좌·우측에는 사선형 속붙임 입술주머니를 부착하였으며, 허리의 뒷부위에는 하프 벨트(허리부분에 옆솔기나 등부분에 부착된 벨트)를 부착하고, 허리띠에는 3개의 황금색 금속제 생도단추를 가로로



반코트 1953년~1969년 | 롱코트 1959년~1970년 | 외 투 1970년~1983년 | 1984년~현재

〈생도 외투(1953년~현재)〉

부착한 형태이다. 장식으로는 어깨에 밤색 바탕의 학년견장을 부착하고, 소매에는 검정색의 학년표시수장을 부착하였다. 이같이 외투제식이 변경되면서 종전에 착용하던 반코트는 일상시에 정복이나 근무복 또는 전투복에 착용하였다. 그후 1970년, 암갈색의 동정복 색상을 청회색으로 변경하면서 외투의 색상도 동정복 색상에 맞추어 연한 청회색으로 변경하고, 단추도 두 줄 16개를 두 줄 14개로, 깃의 색상도 밤색을 검정색, 양측 팔의 학년표시수장은 폭 2.5㎝의 검정색 수장으로 바꾸면서 학년표시는 배제한 가운데 한 줄을 사선형으로 부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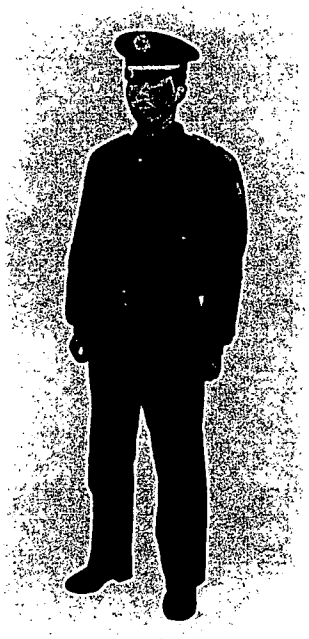
한편 그간 동정복과 근무복 및 전투복과 함께 착용하던 황갈색의 반코트는 군원의 중단으로 1969년부터 폐지하고, 그 해 겨울부터 반코트 대신 연회색의 점퍼를 새로이 제정 착용하였다. 이어 1984년 10월 27일 〈국인근 제918.2-963호〉에 의거 동정복이 청회색으로 변경됨에 따라 외투의 색상도 동정복의 색상에 맞추어 연한 청회색을 보다 밝은 청회색으로 변경하고 무표시 황금색 금속제 단추를 생도모표문양이 새겨진 황금색 금속제 대형 단추로 바꾸었다.

(마) 점 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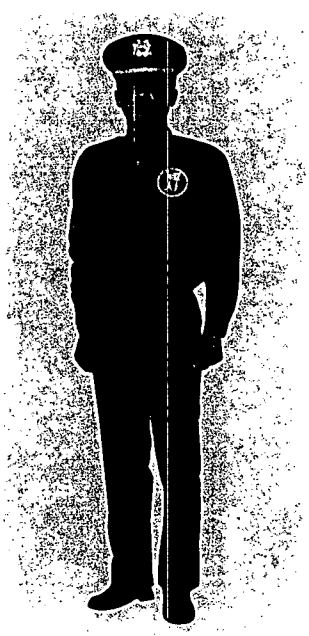
1959년에 긴 기장의 황갈색 외투가 제정되면서 이전에 착용하던 황갈색의 반코트는 영내에서 일상시에 정복과 근무복 및 전투복에 착용하여 왔으나, 군원의 중단으로 1969년 11월 7일에 폐지하고 반코트 대신 항공조종사 점퍼와 유사한 연회색의 생도점퍼를 새로이 제정 착용하였다.

연회색의 스카이론지로 제작된 이 점퍼는 목부위와 소맷부리, 하단의 밑단 부위에는 녹회색의 신축성이 있는 편직물을 부착하고, 어깨에는 견장대, 허리의 좌·우측에는 속붙임 사선주머니를 부착하였고 앞면 중앙부에는 지퍼를 부착하되 지퍼가 보이지 않게 덧붙임을 부착한 형태였으며, 부착물로는 견장대에 학년장, 좌측 흉부에는 육사표시, 우측 흉부에는 포제 명찰을 각각 부착하고, 근무복과 전투복차림에 착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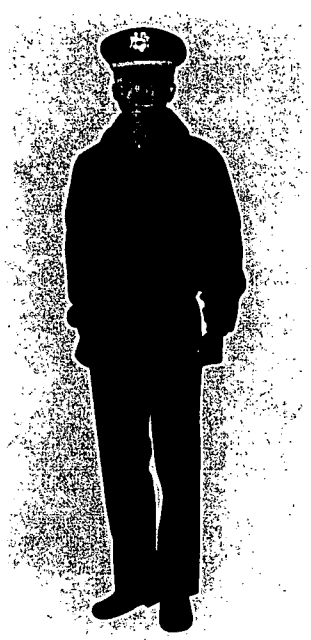
그후 1984년 2월 9일 〈육인사 제150.2호〉에 의거 동절기의 보온을 고려하고, 또한 제식이 다른 동질성의 제복을 통일한다는 취지에서 점퍼형태를 장교와 하사관이 착용하는 점퍼제식으로 개정하였다. 이로써 종전제식과 달라진 것은 색상이 연회색에서 녹회색으로 바뀌고, 앞면의 여미는 부위 덧붙임이 제거됨과 동시 털깃이 추가로 부착되었다.



1969년~1982년



1983년~1984년



1984년~현재

〈생도 점퍼(1969년~현재)〉

第2節 階級章

계급장이란 군인의 복장이나 집무실 또는 차량과 항공기 등에 달아 계급을 나타내는 표지장(標識章)으로서 계급의 등급, 군복의 종류에 따라 부착위치를 다르게 하고 있으며, 크기와 형태 또한 달리하고 있다. 1946년에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설된 후 최초로 제정된 계급구조는 구한말(舊韓末)의 계급구조와 유사한 것이었으며, 그동안 몇 차례의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계급구조에 따라 계급장의 형태도 때때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1. 將校 階級章

가. 正章·略章·軍帽章

1946년 1월 15일, 남조선 국방경비대의 창설과 함께 제정된 장교의 관등과 계급구조 그리고 호칭은 구한말과 같이 관등은 위관과 영관으로 구분하고, 위관의 계급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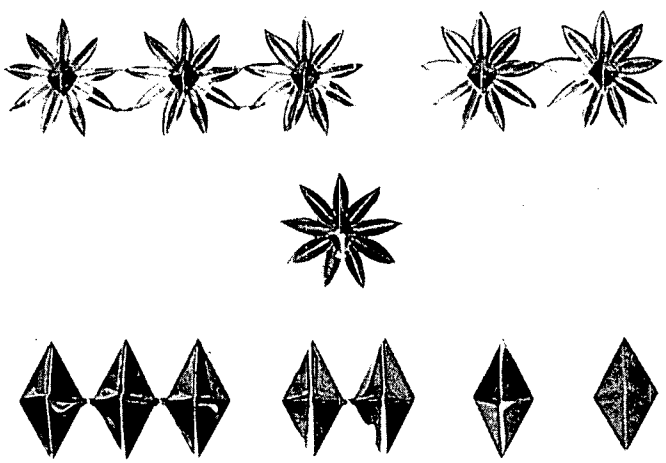


〈장교 계급장(1946년~1954년 5월)〉

준위(准尉)·참위(參尉)·부위(副尉)·정위(正尉), 영관의 계급은 참령(參領)·부령(副領)·정령(正領)으로 구성하였으며, 창군 당시의 병력과 부대규모 및 편성 등으로 비추어 보아 장관급은 필요성이 없어 두지 않았다.

1946년 1월 16일, 최초로 제정된 계급장은 당시 국방경비대의 창설에 수반하여 장차 임관될 장교의 계급장 제식이 시급하긴 하였으나 적절한 안이 확정되지 않아 당시 국방사령부산하 경비국의 경찰이 무궁화모양의 계급장과 모표를 부착하고 있음을 모방하여 임시로 경찰모의 귀단추모양을 위관급장교의 계급장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그후 한달도 채 안된 1946년 2월 1일 채병덕 정위가 참령으로 진급하게 되자 영관급 계급장이 제정되지 못한 실정이라 부득이 정위계급장에 무궁화표지 1개를 더한 4개의 무궁화표지로 임시 참령계급장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영관급을 포함한 새로운 계급장의 제정이 절박해지자 당시 미군정청 국방사령부 군무국의 비숍대령이 미군계급장(미 준위계급장)을 모방한 형식으로 고안한 것을 1946년 4월 6일, 채택하여 이를 계급장으로 정식 제정하게 되었다.

이때의 계급장 규격은 미군의 준위계급장 크기와 같은 가로 1.5㎝×세로 4.5㎝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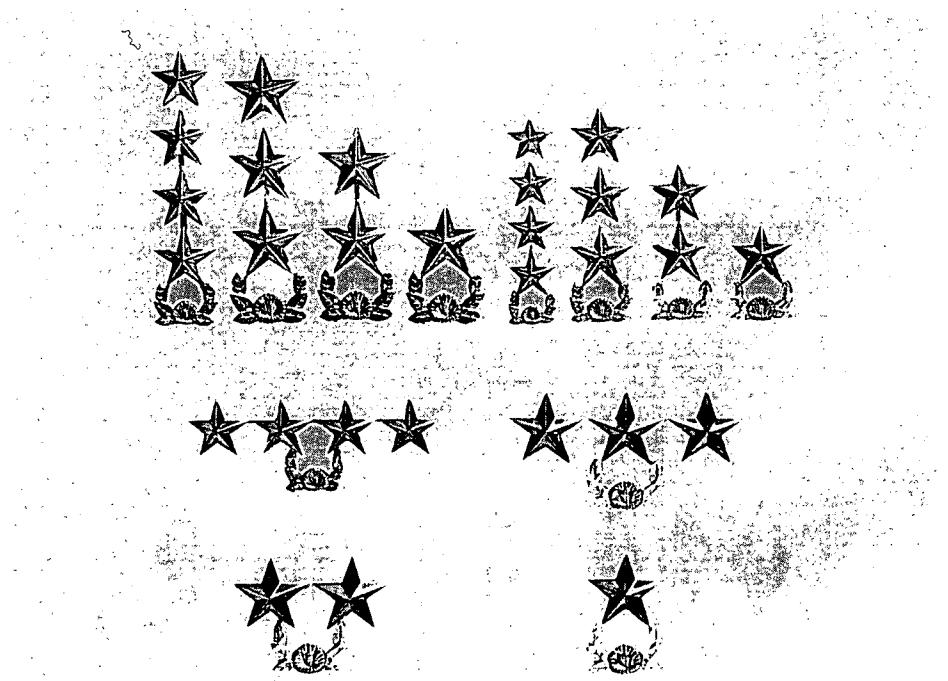
〈장교 계급장(1954년~1961년)〉

직사각형 황금색 금속(黃銅板) 바탕 위에 위관은 금속제 입체형의 작은 네모꼴 은색 표지를 계급에 따라 참위는 1개, 부위는 2개, 정위는 3개씩을 붙인 것이었고, 영관은 황금색 바탕 위에 은색의 태극표지를 위관과 같이 참령은 1개, 부령은 2개, 정령은 3개씩을 각각 부착한 것이었으며, 준위는 아무런 표지가 없는 민판이었다. 그후, 1946년 12월 1일, 당시의 계급칭호가 구한말의 것과 같은 것이어서 시대감각에 맞지 않는다 하여, 위관은 준위·소위·중위·대위, 영관은 소령·중령·대령으로 각각 개칭하고, 당시의 계급구조에 장관급을 추가하면서 준장·소장·중장·대장으로 구

계급장 규격

단위 : cm

구 분	별				무궁화			
	정 장		약 장		정장·모장		약 장	
	지름	두께	지름	두께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대장 ~ 원수	20	4	15	3	20	15	15	11
준장 ~ 중장	25	5	20	4	25	17	20	15



〈장관급 장교 계급장(197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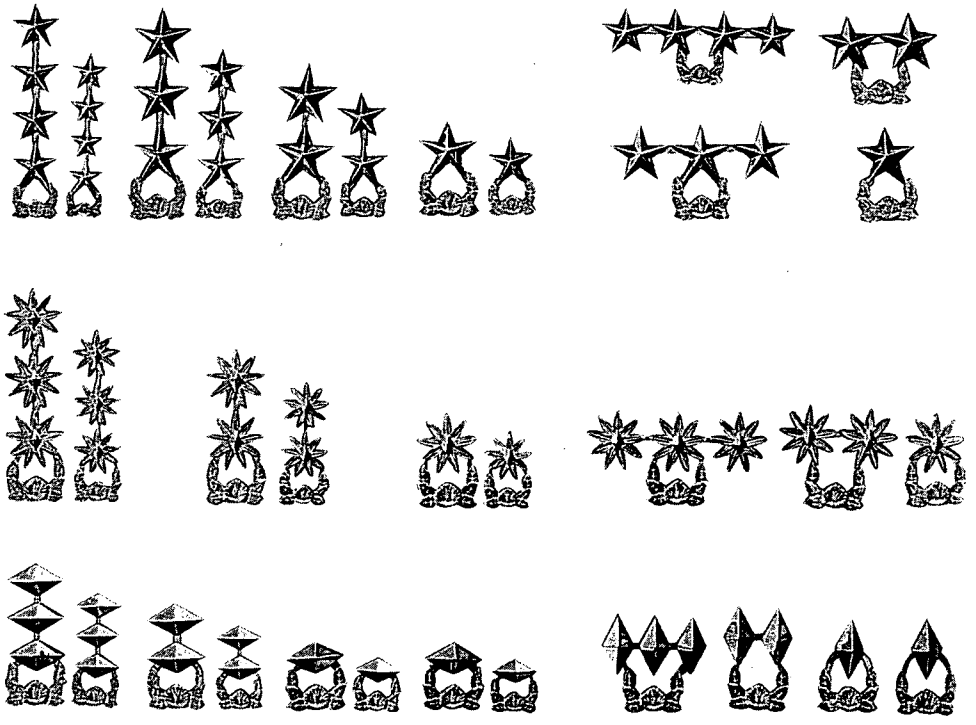
분하였으며, 계급장은 미군과 같은 '별' 형태로 정하고 준장은 1개, 소장은 2개, 중장은 3개, 대장은 4개를 각각 부착하였다.

한편 기술장교와 군의장교에게는 계급 앞에 기술이나 군의란 호칭(예 : 기술중위, 군의소령 등)을 붙이다가 1949년부터 이러한 호칭제도도 폐지하였다. 6·25전쟁을 치르는

위·영관급 계급장 규격

단위 : cm

구 분	계 급 표 지								무궁화표지			
	정장·모장				약 장				정장·모장		약 장	
	지름	두께	가로	세로	지름	두께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영 관	25	4			20	4			2	17	20	15
위 관		5	15	25		4	10	20	25	17	20	15



〈장교 계급장(1980년~)〉

동안 전투복 일색이던 장교의 옷차림이 휴전이 되면서 정복과 근무복을 착용하는 빈도가 점차 늘어나면서 계급장의 형태와 크기가 이들 제복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군과 공군 그리고 해군과 해병대의 장교 계급장 형태가 각각 상이하여 혼란은 물론 계급식별이 곤란하여 1954년 5월 15일, 각군의 계급장 제식을 통일 규제하였다. 장관급 장교의 계급장 형태는 그대로 두고, 영관과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 형태를 개정하면서, 위관급은 가로 1㎝×세로 2㎝ 크기의 은색 마름모(菱形)의 입체형으로 소위는 1개, 중위는 2개, 대위는 3개를 가로로 나란히 연결한 모양이었다. 준위는 황금색 마름모 1개였다. 영관은 직경 2㎝의 원에 내접(內接)하는 크기에 은색의 대나무[竹]잎 9개를 둥글게 배열하고, 중앙부에 위관급 계급표지의 작은 마름모 모양을 세워놓은 형태로 소령은 1개, 중령은 2개, 대령은 3개를 가로로 연결하였다.

이같은 계급장의 형상과 계층을 보면 위관의 마름모는 금강석(금속 중에서 가장 단단하면서 깨어지지 않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초급간부로서 국가수호의 굳건한 干城임을 상징)으로 지하층에 위치하고, 영관의 대나무(사계절 항상 푸르름과 굳건한 기상 그리고절개를 상징)는 지상의 식물이고, 장관의 별(스스로 빛을 내는 天體로서 군에서의 모든 경륜을 익힌 완숙된 존재임을 상징)은 우주공간의 천체로서 지하(위관), 지상(영관), 우주(장관) 등의 차례와 층을 표현한 것이다.

1961년 7월 1일에는 현재의 계급장 크기가 작아서 정복의 견장대에 부착하였을 때 식별이 곤란한 뿐만 아니라 품위가 미흡하여 당시의 계급장보다 큰 규격의 새로운 정장 계급장을 추가로 제정하고, 종전의 계급장은 약장으로 규제하였다. 새로 제정된 위장급 장교의 계급장은 가로 1.5㎝×세로 3㎝ 크기의 마름모 형태였고, 영관급 장교의 계급장은 직경 3㎝의 원에 내접하는 크기였으며, 장관급 장교의 계급장은 직경 2.5㎝의 원에 내접하는 크기였다.

그후 1975년에는 지금까지 시행하여 오던 장관급 장교 계급장의 '별' 모양이 미국을 비롯한 외국군의 계급장 형태와 동일하여 한국군의 특성을 표현한다는 취지로 별의 밑 부위에 무궁화표지를 추가로 부착하여 1975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7837호〉로 개정하고,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때 정장과 약장 외에도 전투모·방한모 등의 모자에 부착하는 군모장(軍帽章)제식을 추가로 제정하였다.

이와 같이 장관급 장교 계급장의 형태가 변경됨으로써, 첫째로는 장관급 장교와 위(령)관급 장교 계급장 형태 사이에 무궁화표지의 유무로 일관성이 없고, 둘째로는 경찰관의 계급장과 유사하다는 점은 전투복차림을 하였을 때 위관급은 순경에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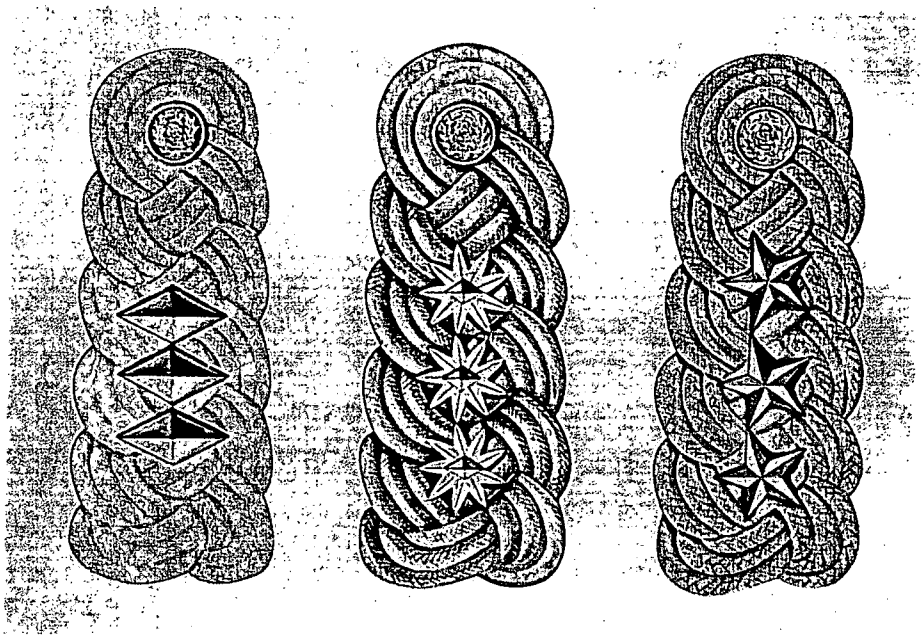
찰까지의 계급장과 영관급 계급장은 경위에서 경정까지의 계급장과 유사하여 식별에 혼란을 가져올 때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되면서 1980년 1월 9일, 〈대통령령 제9713호〉로 위관과 영관급 장교의 계급장에도 무궁화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나. 禮服 階級章

구한말의 제복에는 견장 계급장이 있어 예식을 목적으로 착용하는 제복에는 이 계급장을 부착하였으나, 창군 이후 1961년까지도 별도의 예복 계급장이 없어 일반계급장을 예복이나 연미복 그리고 만찬복의 견장에 직접 부착함으로써 예장(禮裝)으로서의 품위와 위엄이 결여되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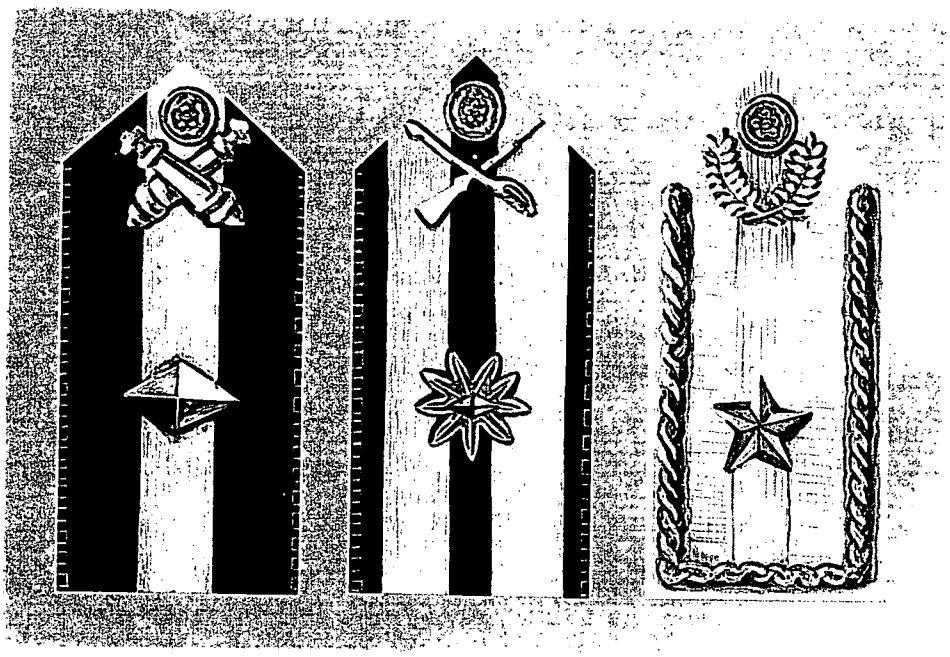
예복 계급장은 1961년 7월 1일, 〈국방 제4672호〉로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예복계급장은 직경 0.5㎝의 끈 3줄을 나란히 하여 꼬아 엮은 것으로 크기는 가로 6㎝×세로 15㎝였으며 상단부에 육군표지가 양각된 황금색 금속제 소형 단추를 달고, 중앙부에 균형을 이루면서 금속제 계급장을 달았다. 바탕 색상, 즉 노끈의 색상은 관등에 따라 달리하여 위관급은 백색, 영관급은 은색, 장관급은 황색으로 규제하여 구분하였다.

이 예복 계급장은 당시의 연미복과 만찬복에만 부착하였고, 만일 정복을 예복으로 착용할 때에는 일반계급장을 부착하였다. 그후, 1963년 3월 18일, 새로운 형태의 예복으로 변경 제정될 때 예복 계급장도 새로운 모양으로 변경하였다. 바탕은 가로 6㎝×세로 14㎝의 직사각형에 목부위 쪽은 괄자형으로 파서 5각형 모양을 가진 알루미늄판 위에 위관과 영관은 검정색 벨턴 복지로 씌우고, 양측 가장자리에 황금색 금사선으로 'ㄷ'자형의 성곽무늬를 장식한 다음 폭 1.8㎝의 황금색 편직띠를 위관은 1줄, 영관은 2줄을 붙인 후, 목부위의 '八'자 위치에 황금색 금속제 소형 단추와 병과 휘장을 아래쪽으로 차례로 부착한 다음 이 기본바탕 위에 계급을 표시하는 금속제 계급장을 부착한 형태였다. 장관급은 바탕을 황금색 사(絲)의 편직으로 덮어, 양 측면과 하단부를 연하여 은색 사를 꼬임줄 형식으로 부착하고, 목부위 '八'자에는 황색 금속제 소형 단추를 달았으며 그밑에 2개의 월계수 가지가 밑부위에서 교차되도록 하였으며, 기본바탕의 여백 중앙부에 계급을 표시하는 금속제 계급장을 부착하였다. 이같이 개정된 예복 계급장은 하예복을 제외한 모든 예장에 부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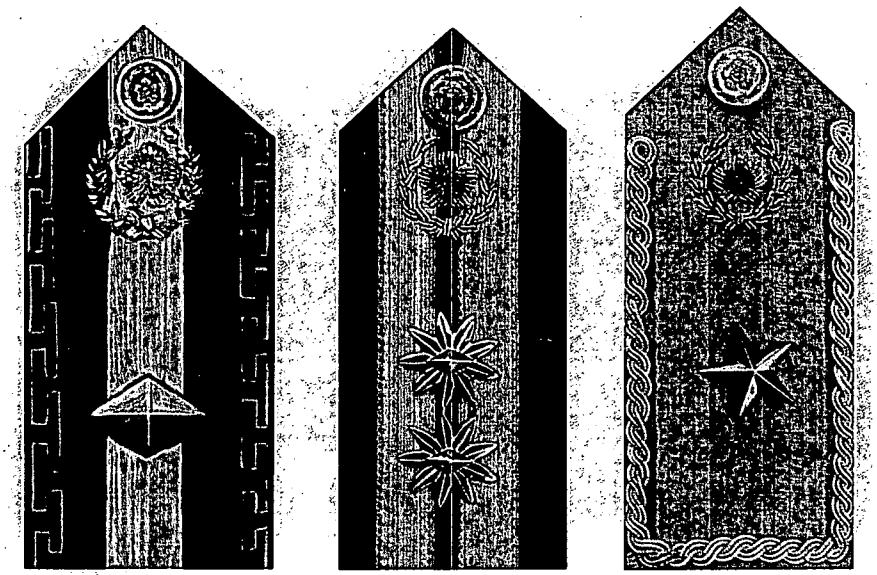
위 관　　영 관　　장 관

〈예복 계급장(1961년~1963년)〉



위 관　　영 관　　장 관

〈예복 계급장(1963년~196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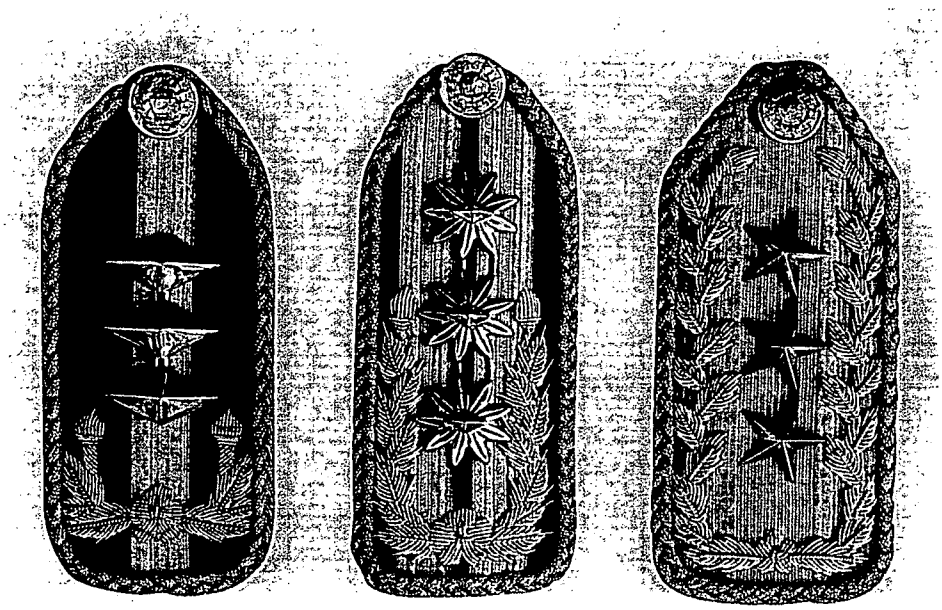
위 관　　영 관　　장 관

〈예복 계급장(1967년~1971년)〉

그후 1967년 1월 9일, 〈대통령령 제2869호〉에 의해 예복 계급장의 형식을 부분적으로 변경하였다. 계급장 상단부의 금속제 소형 단추 밑에 부착하였던 위·영관급 장교의 병과휘장과 장관급 장교의 월계수 표지를 관등의 구분없이 무궁화표지(중앙부의 핀 꽃을 무궁화잎으로 둥글게 감싸는 형태)로 바꾸고, 위·영관급 장교 계급장의 양측가장자리에 사용한 'ㄷ'자형의 성곽무늬를 완자문양(卍字文様)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병과휘장과 월계수형태를 무궁화표지로 변경한 것은 위·영관급 장교는 예복의 깃에 병과휘장을 부착함을 감안한 것이고, 'ㄷ'자 문양을 완자문양으로 변경한 것은 'ㄷ'자형의 성곽모양은 단순하다고 판단하여 방호의 의의를 지닌 전통성을 유지하고 품의를 제고시킨다는데 있었다. 이같이 변경된 예복 계급장은 하예복에도 처음으로 부착하였다.

그후, 1971년 2월 25일, 〈대통령령 제5538호〉에 의해 정복을 새로운 색상인 연회색으로 개정하면서 지금까지 별도로 제정하여 착용해 오던 예장(야회복·만찬복·동/하예복)은 국가경제시책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정복을 예장차림으로 겸용하는 검소한 예장차림(特禮裝·常禮裝)을 제정함에 따라, 예복 계급장



위 관　　영 관　　장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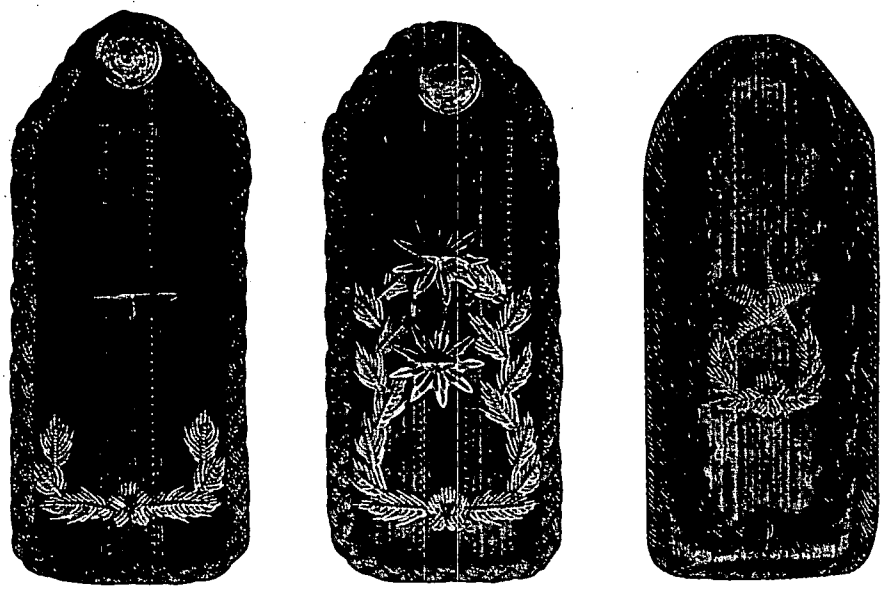
〈예복 계급장(1971년~1975년)〉

도 이 개정된 예장에 조화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계급장의 바탕에는 위·영관급의 새로운 복지색인 연녹회색의 복지를 깔고 그 위에 폭 1.8㎝의 금사 편직띠를 위관급은 1줄, 영관급은 2줄을 붙였으며, 장관급은 황금색 금사 편직포(編織布)로 깔았다.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관등의 구분없이 금사 꼬임줄을 두르고, '八'자부위에 황금색 금속제 소형 단추를 부착하였으며, 계급장의 아랫부위에 윗방향으로 양쪽으로 은색 사로 무궁화표지를 관등에 따라 그 수를 다르게 수식하고, 중앙부위의 여백공간에 금속제 계급장을 부착한 형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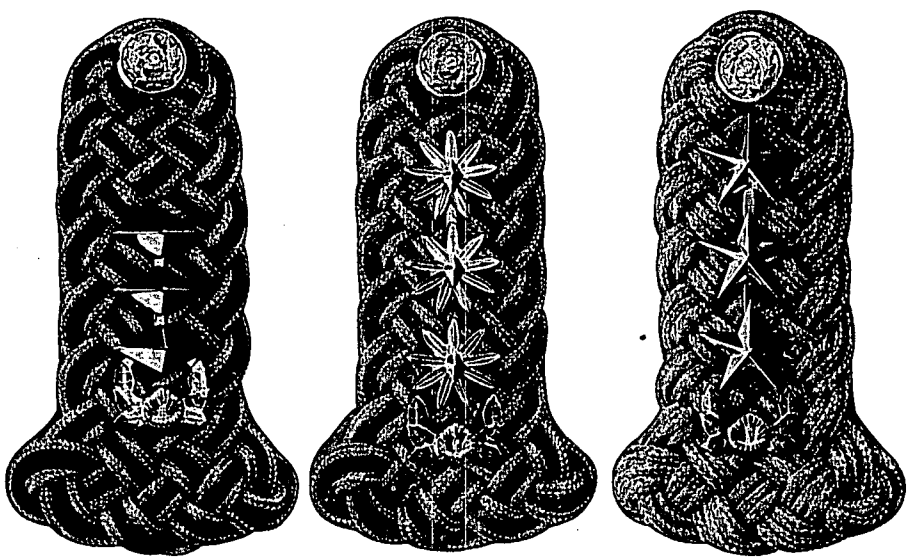
1975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7837호〉로 장관급 장교의 계급장 형태가 별 밑에 무궁화표지를 부착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1971년에 폐지되었던 만찬복과 흑·백색의 동·하예복이 다시 부활되면서 장관급 장교의 예복 계급장도 다시 변경하였는데, 내부에 부착하였던 금속제 계급장 대신 새로 변경된 계급장을 은색 사로 수식하였으며, 은색 사의 무궁화표지는 금색 사의 무궁화표지로 바꾸고 가장자리의 금색 꼬임줄도 금사장식으로 변경하면서, 전체의 균형 유지를 위해 금속제 소형 단추도 제거하였다.

그러나 위관과 영관의 예복 계급장은 변경없이 종전의 것을 그냥 사용하였다.



위 관　　영 관　　장 관

〈예복 계급장(1975년~1980년)〉



위 관　　영 관　　장 관

〈예복 계급장(1980년 이후)〉

1980년 1월 9일, 〈대통령령 제9713호〉에 의거 정복의 색상이 흑청녹색으로 바뀌면서 정장의 제식을 개정할 때, 위·영관급 장교의 계급장에도 장관급 장교의 계급장과 같은 모양의 무궁화표지를 부착하는 제식으로 개정되고, 이를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수반하여 예복 계급장도 변경하여야 할 형편에 이르게 되었고, 또한 당시의 위·영관급 장교의 연회색 바탕 예복 계급장이 예복이나 새로 개정된 정복으로 예복을 대신하는 약예장 색상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예복이 지니는 품위에 비해 그 격이 뒤떨어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그 형식을 변경하였다.

이때 개정된 예복 계급장의 형식은 바탕을 굵기가 0.4㎝의 노끈을 3가닥으로 나란히 하여 꼬아서 폭 4.8㎝×길이 14㎝ 크기의 형태(밑부위 3.5㎝는 폭이 7.5㎝)로 만든 후 바탕의 윗부위에 황금색 금속제 소형 단추를 달고, 나머지 공간에 상·하, 좌·우로 균형을 잡아 중앙부위에 금속제 계급장을 달았으며, 관등은 3가닥 끈의 색상으로 구별하였는데, 위관은 3가닥의 가운데줄 색상이 청색이고, 영관은 붉은 색이었으며, 장관은 3가닥 모두가 황색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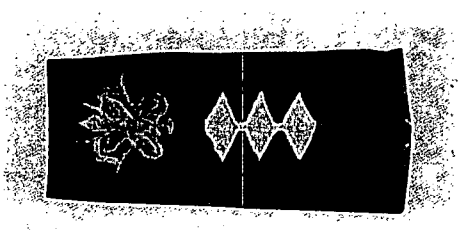
다. 토시型 階級章

토시형 계급장이란 토시모양으로 만든 복지 위에 계급을 표시하여 견장대에 끼워서 착용하는 계급장으로서, 토시 위에 금속제 계급장을 부착하거나 계급을 토시에 직접 자수나 직조하여 계급을 표현한 일종의 포제(布製) 계급장을 말한다. 이 토시형 계급장이 최초로 제정된 것은 1971년 2월 25일에 연회색 반소매 노타이형식의 하약정복이 제정되면서 계급과 병과를 표시하는 표지로 고안된 것이다. 정복 색상인 연녹회색 바탕 위에 위쪽에는 황색의 병과표지, 그 밑쪽에는 원색의 계급표지를 수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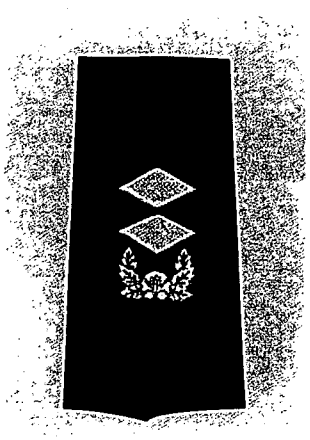
그후 1976년에 근무복을 새로 제정하면서 1971년 이후 착용하여 오던 하약정복의 명칭이 하근무복으로 바뀌고, 동근무복만을 별도 제정하였는데, 이때 제정된 동·하근무복에 부착하는 병과휘장과 계급장을 전투복과 같은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종전에 하약정복에 부착하던 토시형 계급장은 폐지하였다. 그러다가 1980년 1월 9일, 정복의 색상이 다시 변경되고 위·영관급 장교 계급장에 무궁화표지를 가미한 제식으로 변경되면서, 일상 근무시에 빈번히 착용하는 하근무복과 야전상의

및 점퍼에 품위를 보다 제고하고 평소 자주 세탁하면서 띠었다 붙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제복에 토시형 계급장을 다시 부착하도록 규제함에 따라 토시형 계급장이 부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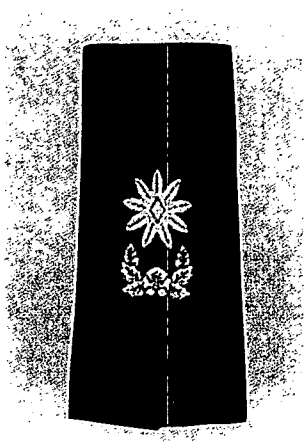
이때의 제식은 1971년에 하약정복에 부착하였던 토시형 계급장과 달리 황색의 병과휘장은 제거하고 계급표지만을 계급장의 원색에 맞추어 토시바탕에 직접 직조한 것으로서, 바탕색을 근무복과 점퍼용은 흑청녹색(동근무복 색상), 야전상의용은 국방색으로 하고, 규격은 길이를 11㎝(야전상의용은 12㎝)로 하고 위쪽 넓이는 4.3㎝, 아래쪽 넓이는 5.3㎝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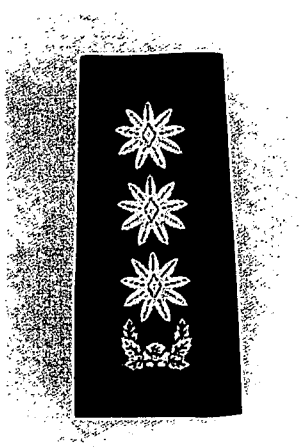
1971년 ~ 1976년



하근무복 점퍼용



야전상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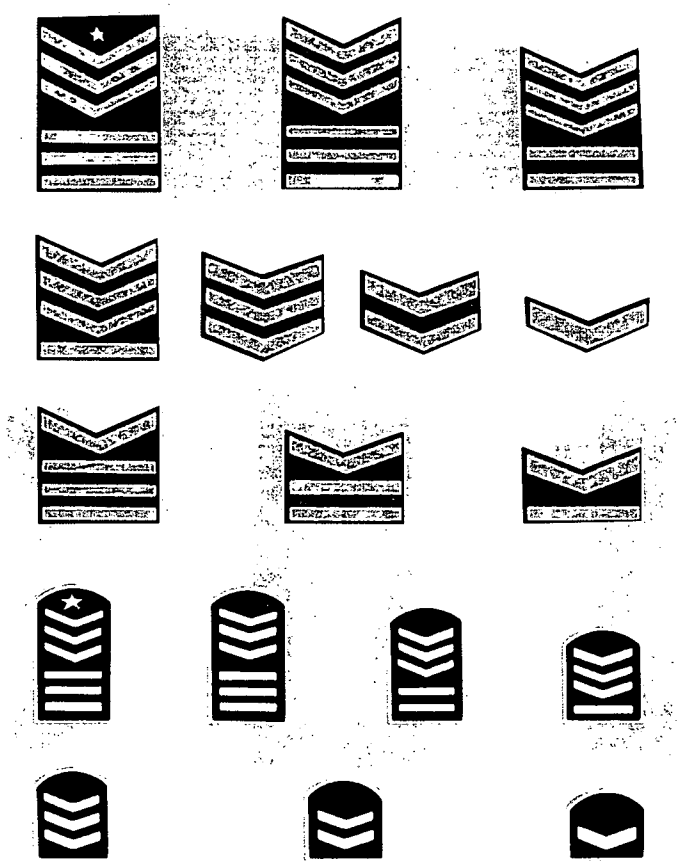
지휘관용

1980년 이후

〈토시형 계급장(1971년 이후)〉

2. 士兵 階級章

1946년 1월 15일,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설될 때 사병의 계급구조는 하사관이 6등급으로 참교(參校)·부교(副校)·특무부교(特務副校)·정교(正校)·특무정교(特務正校)·대특무정교(大特務正校)로 구분되고, 병은 이등병사와 일등병사의 2등급으로 구분하였으나, 실제 계급장은 제정되지 못하였다. 그후, 1946년 4월 5일, 당시 미군정청 군무국의 비숍 대령에 의하여 장교 계급장과 함께 사병 계급장도 고안되고 제정되었다. 당시의 계급장 형태는 미군 사병 계급장의 ∧자형(chevron : 갈매기 모양의 袖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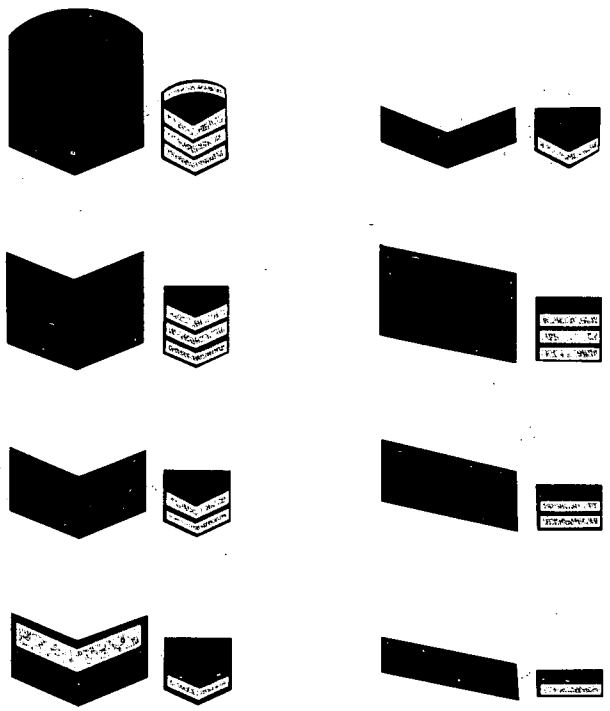


〈사병 계급장(1946년~1962년)〉

거꾸로 놓은 V자형을 가미한 형태였으며, 계급장의 재질은 흑갈색의 모직 서지재질 바탕 위에 계급표지는 붉은 색 모직의 멜턴지를 부착한 것이었다.

1946년 12월 1일에는 장교와 함께 계급 호칭이 변경되면서 하사관은 하사·이등중사·일등중사·이등상사·일등상사·특무상사로, 병은 이등병·일등병으로 개칭되었으며, 이때 기술하사관은 계급 앞에 '기술'이란 호칭을 붙여 부르다가 1949년부터 기술하사관제도가 폐지되면서 이 호칭제도도 폐지되었다. 6·25전쟁을 거치면서 사병의 복장이 전투복 일색이 되자 계급장도 전투장차림에 부착이 용이하고 위장에도 도움이 되도록 폭이 2.5㎝ 크기의 약장계급장을 제작 부착하였다. 황동판에 계급표지는 양각되고, 바탕인 음각부분에는 짙은 녹색이 칠해진 금속제였으며, 이는 '깡통' 계급장이란 자학적인 별칭까지도 지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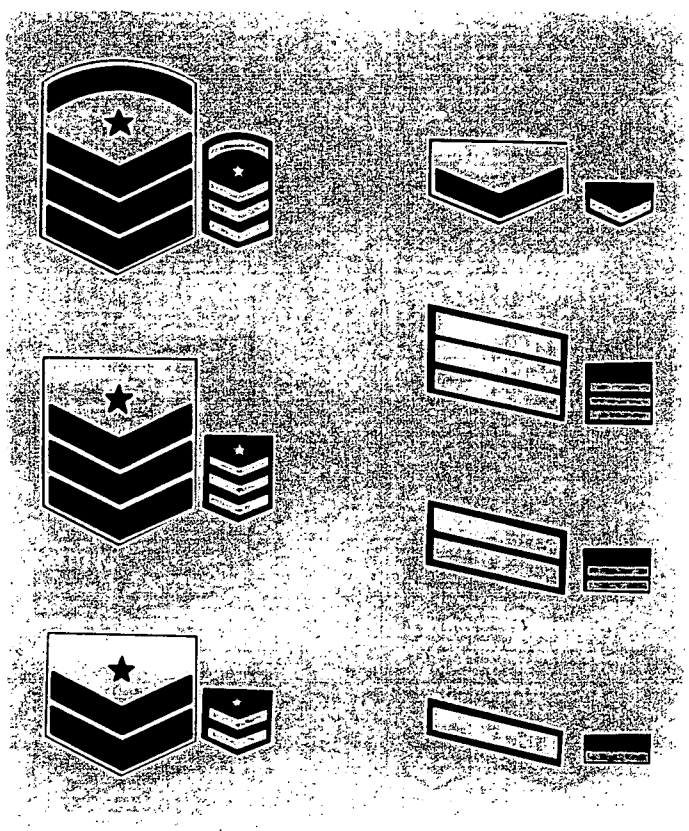
그후, 5·16 군사정변 후인 1962년 4월 27일, 〈각령 제700호〉에는 현행 병역법과



〈사병 계급장(1962년~196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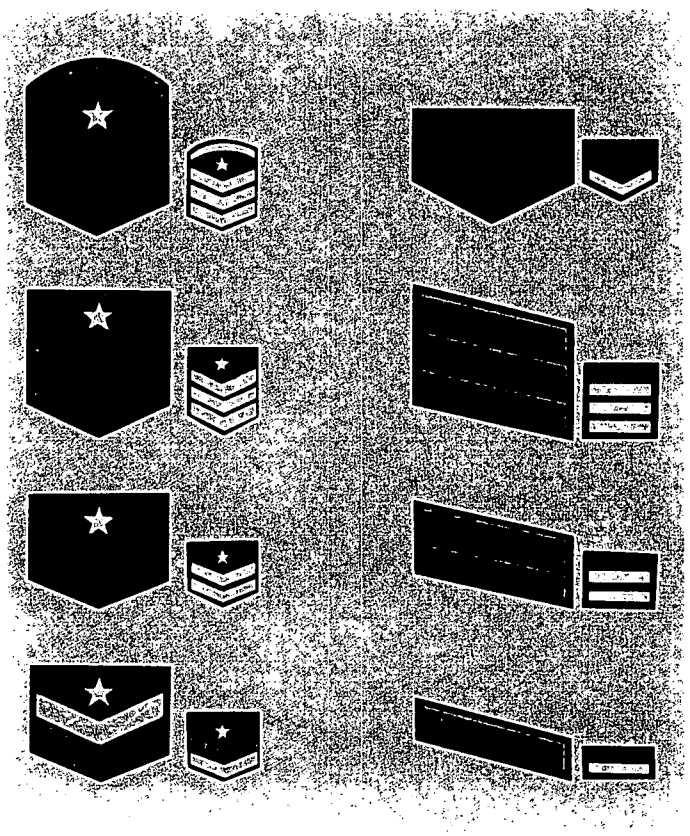
군의 편성구조 등을 고려, 사병 계급구조를 하사관(분대장급 이상의 직위나 직급을 가진 자)은 상사·중사·상사의 3등급으로 정하고, 병(의무복무자인 일반 구성원)은 이등병·일등병·상등병·병장의 4등급으로 개편됨에 따라, 계급장 제도도 계급구성에 맞추어 개정하였다. 병장 이상의 계급표지는 V자형으로 하고, 상등병 이하 병의 계급표지는 일자형이되, 좌상우하(左上右下)의 사선모양으로 하고 계급표지는 국방색 바탕에 붉은색으로 하였다. 한편, 같은해 7월 30일에는 모자와 전투장에 부착하는 작은 규격의 계급장이 필요하게 되어 약장계급장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착·탈이 편리하도록 재질을 금속제로하고, 계급표지는 양각된 황색이었으며, 양각된 바탕은 검정색으로 도색하였다. 그리고 병의 정장계급표지인 일자형은 사선이 아닌 수평형으로 변경하였다.

그후 1967년 1월 9일, 〈대통령령 제2869호〉에 의거 사병의 정복이 따로 제정됨에 따라 사병 계급장도 보다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상을 변경하고, 하사관의 계급장에



〈사병 계급장(1967년 1월~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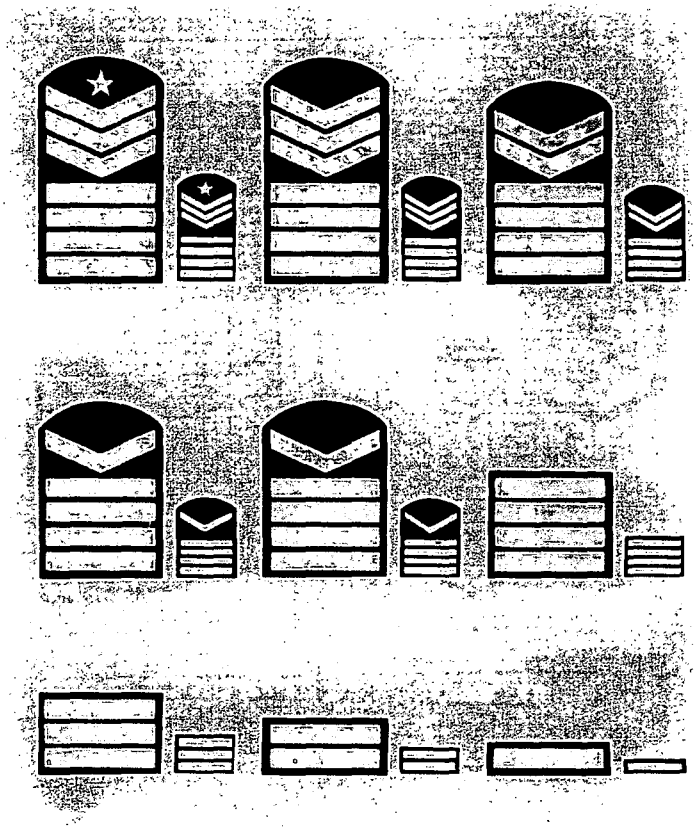
'별'을 추가하여 직업군인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고 계급장의 단순함을 벗어나 품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정장의 색상은 병장 이상의 경우 흰색 바탕색에 계급표지를 검정색으로 바꾸고, 상등병 이하의 경우 검정색 바탕색에 계급표지를 흰색으로 바꾸었다. 또한 약장의 색상은 병장 이상의 바탕색은 검정색, 계급표지는 황색으로 하였으며, 상등병 이하의 바탕색은 검정색, 계급표지는 회색(은색)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개정된 계급장이 착용과정에서 정장에 부착할 경우 흰색이 복지색상과 조화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쉽게 더러워져 미관상 좋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채, 동년 8월 7일, 〈대통령령 제3172호〉로 다시 개정하였다. 바탕색은 정복색상에 맞추어 동정복용은 국방색, 하정복용은 카키색으로 바꾸고, 계급표지는 동·하복 구분없이 붉은 색으로 표시하였으며, 약장은 동·하 구분없이 바탕색을 검정색으로 하고 계급표지는 황색으로 하였다.



〈사병 계급장(1967년 8월~1971년)〉

1971년에는 장병의 정복형태가 통일되고, 색상도 연녹회색으로 변경되면서, 사병의 계급장도 1971년 2월 25일, 〈대통령령 제5578호〉로 다시 개정하여 동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특이한 점은 하사관과 병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병은 일자형 표지로만 구성하고 하사관은 병의 일자형 표지 위에 V자형을 추가한 것으로서, 병과 하사관의 계급표지가 연속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종전에 하사관의 계급장 상단에 부착하였던 '별'을 제거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주임상사의 계급장에는 '별'을 그대로 부착하고, 주임상사의 직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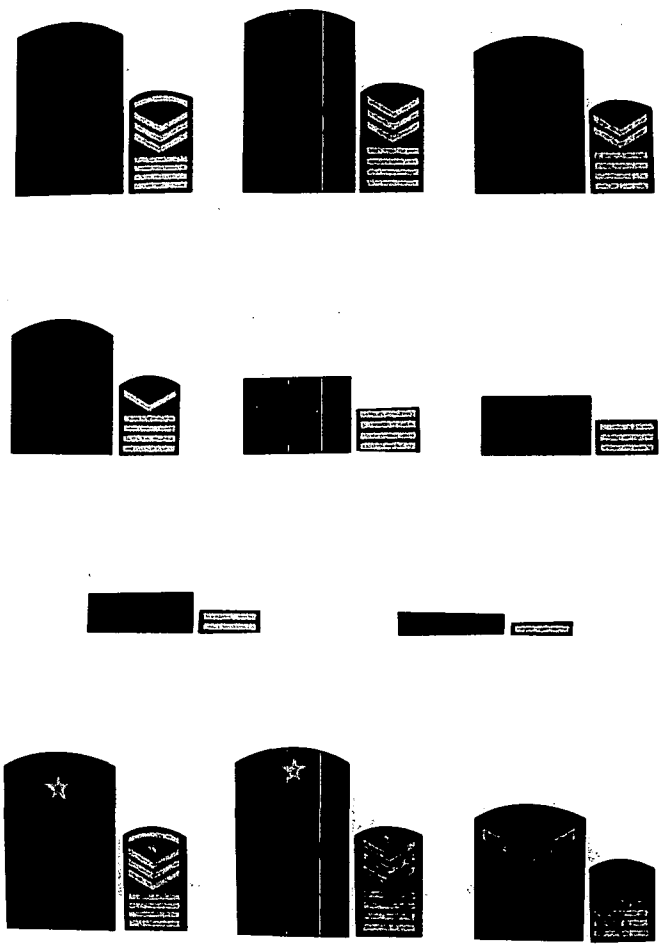
이같이 개정된 계급장의 정장은 바탕색을 복지색으로 하고, 계급표지는 붉은 색으로 하였으며, 약장은 국방색 바탕에, 계급표지는 황색으로 표시하였다. 약장의 재질은 금속제와 포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 금속제는 광택으로 인한 위장(僞裝)장해와 전술훈련시의 불편으로 부착을 피하고, 포제계급장만을 부착함에 따라



〈사병 계급장(1971년~1989년)〉

관급계급장도 포제[織造製] 계급장만을 보급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포제계급장을 부착하게 되었다. 개정된 계급장에서 일자형이 의미하는 바는 지구의 지표면을 상징하고, 하사관의 V자형은 지표면상에 성장하는 식물을 상징함으로써 병과 하사관의 계층을 지표하(地表下)와 지상(地上)과의 관계로 표현하였다.

1980년 5월 1일부터 부대표지를 다시 부착하게 되자 반팔의 하근무복에는 부대표지와 계급장을 위·아래로 나란히 부착하여야 했고, 이때 상사와 주임상사의 경우 계급장의 길이가 길어 짧은 소매에 부착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정복에도 균형이 맞지 않아,



〈사병 계급장(1989년 이후)〉

1982년 3월 22일, 〈국인근 제918.2-235호〉로 정장계급장 규격 폭 7㎝를 6㎝로 줄이고길이도 이와 같은 비율로 축소하여, 1983년 1월 1일부터 정근장과 함께 시행하였다. 그후 1989년 8월 18일, 〈대통령령 제12780호〉에는 군인사법개정으로 하사관의 계급구조가 3등급에서 하사·중사·이등상사·일등상사의 4등급으로 증가됨에 따라 증가된 1개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장을 추가 제정하여야 했고, 종전의 상사계급장을 개칭된 이등상사의 계급장으로 하고, 추가된 일등상사의 계급장은 이등상사계급장 상단에 초생달형의 관(冠)을 추가한 모양으로 제정하고, 규격은 약장을 부착하는 복장(하약정복과 전투복의 주머니뚜껑의 부착공간)을 고려하여 전체의 길이를 이등상사계급장과 같은 길이로 하였다.

주임상사의 경우 계급구조의 변경으로 대대급 이상부대에서 임명하는 주임상사의 계급은 부대특성에 따라 이등상사 이상의 계급에서 임명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등상사계급장 상단에도 '별'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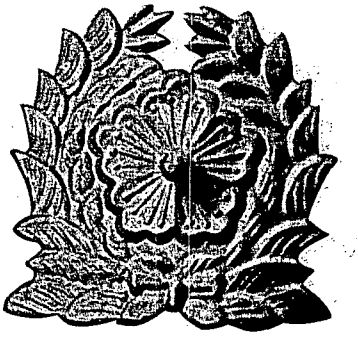
第3節 帽 標

모표(帽標)란 군인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군모(軍帽)에 부착하는 표지장(標識章 : 帽章)을 말하며, 모장은 장교·사병·사관생도용으로 구분 규제하고 있다. 1946년 1월,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설되면서 군복은 비록 일본군 군복을 착용하였으나 모표만은 우리의 것을 제정 부착하였는데, 최초에 제정된 모표는 장교와 사병용의 구분없이 장병 공용이었다. 그후 1946년 4월, 장교와 사병의 계급장을 제정할 때 모표도 장교용과 사병용을 따로 구분하여 제정하였다. 사관생도의 모표는 학교의 창설과 더불어 제정하였으며, 학교의 표장(標章 : 部隊旗 表象)과 같은 형태로 하였다.

1. 將校 帽標

1946년 1월, 경비대의 창설과 함께 최초에 제정된 모표는 장병 공용으로서, 재질은 황금색 금속제[黃銅]를 사용하였고, 양각(陽刻)된 표상이었다. 활짝 핀 무궁화형태를 중앙에 두고 무궁화잎을 꽃의 밑부위에서 양 측면을 연하여 상단부위로 감싼 형태이다. 무궁화잎이 교차된 하단 중앙부위에는 양측으로 감싸 올라간 무궁화잎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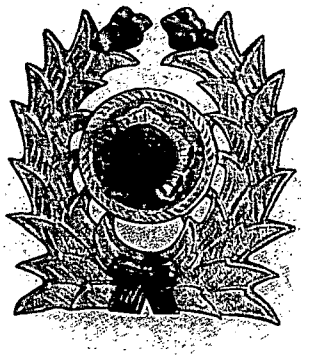
나비모양의 매듭으로 맺었다. 동년 4월에 제정된 장교용 모표는 종전의 외형(무궁화 잎 형태)은 그대로 두고, 내부의 무궁화모양만 그 형상을 바꾸었다. 중앙에는 직경 2 ㎝ 크기의 원을 그려놓고 그 속에 개화(開花)한 무궁화모양을 그리고, 무궁화 속에는 다시 직경 0.8㎝ 크기의 태극표지를 수식한 것으로, 검정색 바탕에 무궁화잎은 황금색 나비매듭과 잎사귀 상단의 꽃봉오리와 중앙부의 무궁화는 은색의 모르(포 mogol)[16]사(絲)로 엮어 수놓은 형상이었다.



〈장병 공용 모표(1946년 1월)〉



자수제



금속제

〈장교용 모표(1946년 4월~현재)〉

16) 본래 인도의 모르 지방에서 생산된 데서 유래된 말로, 緞子(生絲 또는 練絲로 짠 광택이 많고 두꺼운 무늬 絹織物)와 비슷한 '돋을무늬'를 넣은 직물. 金絲를 사용한 것을 '金모르', 銀絲를 사용한 것을 '銀모르'라 한다.

그후 1963년에는 당시까지 부착하여 오던 금·은모르 자수제 모표는 당시의 생활환경여건이 미비(모든 생활연료는 연탄 사용)하여 금·은모르가 조기에 변색되어 품위를 떨어뜨려, 1963년 3월 18일, 〈각령 제1232호〉로 황동 금속제로 다시 개정하여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모표가 지니는 상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의 태극과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며, 애국심을 표현
둘째, 무궁화 외부의 사슬원(圓)은 굳은 단결을 표현
셋째, 무궁화잎과 꽃봉오리는 유구한 역사와 무궁한 발전을 상징
넷째, 무궁화잎 하단의 나비형 매듭은 민·관·군의 굳건한 결속 표현

2. 士兵 帽標

사병용 모표는 금·은모르 장병용 모표로 장교와 함께 사용하여 오다가, 1963년 3월 18일, 장교 모표를 자수제에서 금속제로 개정할 때 사병 모표의 형태를 변경하였다. 모표 가운데에는 은색의 무궁화를 두고, 무궁화 하단부로부터 양 측면을 연하여 무궁화잎을 오무린 형태로 감싸게 하였으며, 잎사귀 상단부위에는 은색 꽃봉오리를 두고, 하단중앙부에는 3단의 받침을 두면서 은색의 나비형 매듭으로 묶었다.

그후, 1980년 1월 9일, 〈대통령령 제9713호〉에 의거 사병의 모표형상이 육군의 표장인 장교모표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군모장으로서의 품위와 위엄성이 결여되고, 일반관공서나 기업체의 수위(守衛)모표와 유사하여, 육군의 표장인 장교 모표를 닮은



1963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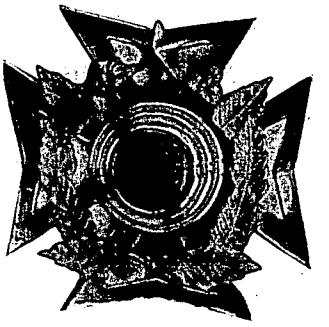
1980년 이후

〈사병용 모표(1963년~현재)〉

형태로 변경하였다. 내부의 무궁화는 종전과 같은 모양으로 그냥 두고, 중앙부의 원형과 주위의 무궁화잎사귀는 장교의 모표형태와 같은 모양으로 하였으나, 다만 크기만을 조금 작게 하였다.

3. 陸軍士官生徒 帽標

1946년 5월 1일 창설 당시에는 생도전용의 별도 모표없이 일반장병의 공용 철제 모표를 부착하였으며, 1953년 12월에 4년제 정규 육군사관학교로 재개교함에 따라 육사의 특성을 가미한 별도의 모표를 제정하여 부착하였다. 모표의 형태와 상징은 다음과 같다.



〈육군사관학교 모표(1953년~현재)〉

- 모표 중앙의 태극 : 세계 속의 중앙에 위치한 대한민국을 상징
- 태극 주위의 백색 3원 : 삼천리 강토와 삼천만 겨레를 표현
- 별 : 대한민국의 장래를 양 어깨에 짊어진 육군을 의미
- 태극을 둘러싼 월계수 : 승리의 영광
- 월계수의 상단 무궁화 :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무궁한 발전을 상징
- 월계수 밑의 나비형 매듭 : 굳은 단결과 결속을 의미
- 방패의 백십자모양 : 상무(尙武) 호국정신을 표현

第4節 徽 章

휘장(徽章)이란 신분·직위·명예·자격 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군복에 부착하는 표지물(標識物)을 말하며, 창군 이래 필요성에 따라 제정 사용하여 왔다. 휘장류는 제정 목적과 성격에 따라 명칭 또한 달리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성격의 것이라 하더라도 부착위치에 따라 형태나 크기도 다르다. 창군 초기의 휘장으로는 병과휘장과 지휘관휘장만을 부착하였다. 대부분의 휘장은 1960년대 이후에 제정되었는데, 이는 1953년 휴전 이후에 점진적인 군의 발전과 성장에서 나타난 결과였으며, 점차 그 종류도 증가되고 모양도 다양화되어 신분·직위·명예 그리고 자격 등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① 성격에 따른 분류

- 신분장(身分章) : 군인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병과를 표시하거나 어떤 부대의 소속원임을 표시하는 휘장
- 직위장(職位章) : 현재의 직위를 표시하기 위한 휘장
- 명예장(名譽章) : 휘장을 부착함으로써 명예심과 자부심을 갖게 되어,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휘장
- 자격장(資格章) : 국가 또는 군에서 설치한 일정수준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부착하는 휘장

② 부착위치에 따른 분류

- 모장(帽章) : 군모에 부착하는 표지장
- 금장(襟章) : 제복의 깃에 부착하는 표지장
- 견장(肩章) : 제복의 어깨에 부착하는 표지장
- 흉장(胸章) : 제복의 가슴에 부착하는 표지장
- 수장(袖章) : 제복의 소매에 부착하는 표지
- 봉장(縫章) : 제복의 하의 양 측면 봉접선상에 부착하는 표지

그간 육군이 사용했던 휘장 중 주요 종류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휘 장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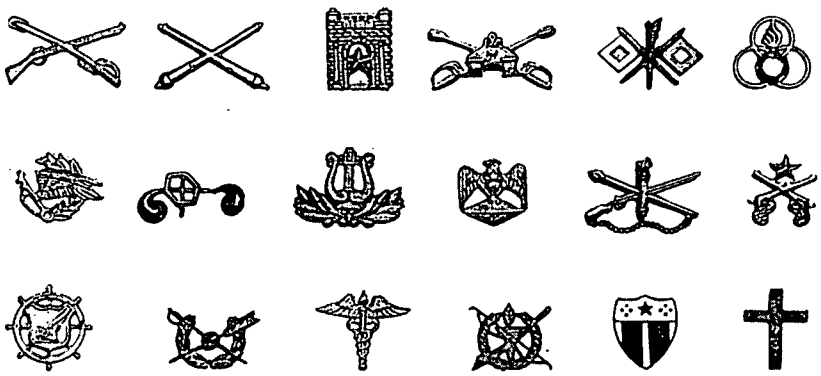
구 분	휘 장 명	제 정 시 기	비 고
신분장	병과 휘장	1948년 12월 15일	1971년 5월 10일 개정
	육군 휘장	1979년 11월 7일	
	무궁화 금장	1979년 11월 7일	
	특수전 휘장	1966년 10월 31일	1977년 10월 10일 정장폐지
	헌병 휘장	1974년 8월 2일	1981년 10월 20일 개정
	의장대 휘장	1959년 6월 5일	1971년 5월 1일 정식인가
	군악대 휘장	1966년 9월 13일	1971년 2월 12일 개정
	영현행사요원 휘장	1979년 11월 7일	
	예포대 휘장	1981년 6월 30일	
직위장	지휘관 휘장	1949년 5월 12일	1971년 5월 10일 개정
	참모 휘장	1955년 3월 1일	
	주임상사 휘장	1967년 3월 6일	
	교관 휘장	1975년 6월 24일	
명예장	근속 30년 휘장	1979년 11월 7일	
	선봉 중대장 휘장	1970년 8월 22일	1973년 폐지
자격장	항공 및 항공정비 휘장	1951년 3월 3일	
	낙하산·낙하산정비 휘장	1959년 2월 1일	1963년 2월 19일 개정
	모범 운전병 휘장	1963년 9월 22일	
	유격 휘장	1964년 6월 15일	1977년 11월 28일 폐지
	사격 휘장	1969년 6월 15일	1977년 11월 28일 폐지
	전차사격 휘장	1969년 12월 31일	1977년 11월 28일 폐지
	체력 휘장	1966년 7월 4일	1977년 11월 28일 폐지
	기능사 휘장	1977년 10월 10일	

1. 兵科 徽章

조선경비대시대를 전후하여 병과부대가 창설되면서 잠정적이나마 병과의 개념과 윤곽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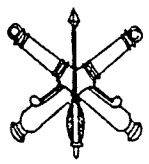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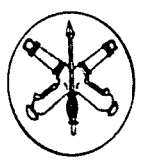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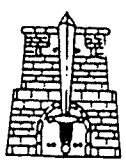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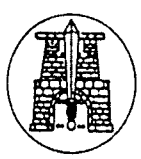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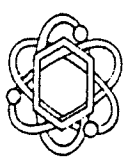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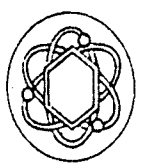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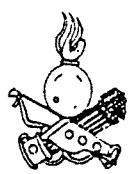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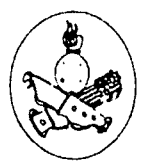
그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국군이 창군되면서 1948년 12월 15일, 〈국군조직법 제3장 제12조〉에 의하여 보병·기병·포병·공병·항공병·통신병·헌병 등 병과가 최초로 생기고, 그후 점진적으로 부관·감찰·법무·병참·경리·군의·병기병과와 일반참모(인사·정보·작전·군수) 제도가 생겨나면서 병과의 식별수단으로 병과휘장과 병과정색(定色)을 제정 사용하게 되었다.

6·25전쟁이 발발되자 전쟁기간중에 수송·기갑·항공·화학·군종 등의 병과가 추가로 창설되었으며, 휴전 후에는 정훈병과와 군종병과의 군승(軍僧)이 생기면서, 정훈병과휘장은 1966년 11월 7일에 〈육인근 제421호〉로 군승휘장은 1968년 11월 12일에 〈국군종 제939-354호〉로 각각 추가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제정된 병과휘장의 형태가 미군의 병과휘장을 모방한 것이라 우리 나라의 특성에 맞지 않고, 우리의 전통적인 고유의 무기체제와 전쟁수행의 제반(諸般)수단과 사상 등을 적절히 조화시킨 새로운 형태의 병과휘장 고안이 요구되던 중 1970년에 들어서면서 정복 개정을 기회로 새로운 병과휘장을 제정하였다. 이 안은 1970년 10월 10일, 〈국인사 제203.2-2718호〉로 잠정승인되어 197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오다가, 1971년 5월 10일에 〈국인사 제203.2-1907호〉로 정식 승인되었으며, 법적조치는 1973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6884호〉로 공포되었다. 1973년 1월 30일에 〈법률 제2456호〉로 항공병과가 창설되어 항공병과휘장이 제정되었으며, 1979년 11월 7일에는 〈국인근 제918.2-565호〉에 의해 군종병과의 신부(神父)휘장이 제정되어 1980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17] 1983년 7월 1일에는 정보병과가 창설되면서 병과휘장이 제정되고 이어 1996년 5월에는 박쥐에 대한 혐오감과 빛과의 부조화로 개정을 보았다.



〈초기의 병과휘장〉

17) 軍宗병과휘장은 타병과와 달리 군목·신부·군승으로 구분 제정된 것은 군승휘장이 1968년에 이미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종교가 갖는 이질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특별히 제정하였다.

보병		기갑		포병	
장교	하사관, 병	장교	하사관, 병	장교	하사관, 병
					
정보		공병		통신	
장교	하사관, 병	장교	하사관, 병	장교	하사관, 병
					
항공		화학		병기	
장교	하사관, 병	장교	하사관, 병	장교	하사관, 병
					
병참		수송		부관	
장교	하사관, 병	장교	하사관, 병	장교	하사관, 병
					

〈1971년 개정 이후의 병과휘장〉

구분	1971년 이전의 미군 모방기 휘장	1971년 이후 새로 고안된 휘장
보병	소총 두 개를 교차시킨 미군 보병휘장에서 1개의 소총을 칼로 대치시켜 총과 칼을 교차한 형태로서, 보병의 기본무기임을 상징	고대무사의 방패와 검으로서 기본전투병과를 표시
포병	2개의 포신을 교차시킨 형태로서 미군휘장과 동일하였으며, 박격포의 포신과 공이와 포열받침 및 앞장덮개를 표현	조선시대의 飛天雷砲와 將軍箭
기갑	총과 칼이 교차된 옛 기병의 형태에 전차형을 넣은 미군의 것과 같았으며, 기동·화력 충격과 장갑에 의한 보호의 특성을 표현	보병휘장에 말발굽을 첨가하여 기갑의 시초인 기병을 표시
정보	영원불멸의 정보활동을 고려, 박쥐를 삽입. 박쥐의 눈은 관측능력을, 발톱은 수집과 판단을, 날개는 우주공간을 의미. 영원한 발전을 의미하는 횃불	현대전의 특징인 정보/전자전 양상을 나타내고, 정보병과의 임무 및 기능을 표현(1996년)
공병	독립문과 별로 구성된 형태로서 독립문은 건설과 요새를 의미하고 별은 육군을 의미하며 조국의 독립과 수호 및 건설을 상징	한국의 전형적인 古代성곽과 검으로서 전투공병을 상징
통신	적·백의 신호기 중앙에 횃불을 세운 미군과 동일한 형태. 횃불은 고대 통신수단인 봉화를, 신호기는 수기신호수단을 표현하며, 별은 육군을 상징	고대 통신수단인 봉화와 비둘기날개 및 현대통신의 상징인 마이크로 웨이브(microwave)와 전파 표시
항공		날개는 항공을 상징하고, 칼과 화살은 전투병과 화력지원 임무를 상징
화학	Benzene(核)에다 증류기 2개를 교차시켜 놓은 형태로서 핵의 분자식(C6H6)을 구조식으로 단순하게 표시하고 증류기의 모형을 그대로 도시한 미군의 휘장과 동일하였으며, 화학병과의 중요병기인 여러 화학작용제약품과 장비를 상징하는 동시 군화학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	Benzene고리와 원자핵
병기	포탄과 화염으로 병기를 상징한 미군의 휘장에 3개의 고리를 추가한 것. 화염과 화통은 평상시에는 원활하나 유사시에는 폭발하여 훨훨 타는 것을 표현하고, 3륜은 차량·화포·탄약의 핵심체를 뜻하며 삼천리강토와 천·지·인을 상징	고대병기인 활[弓]과 화살[箭] 및 竹火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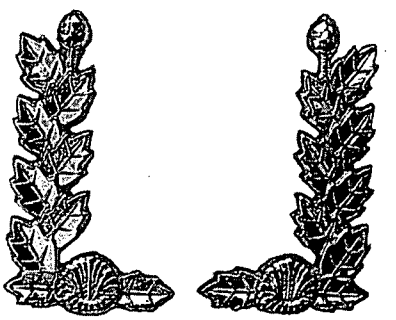
구분	1971년 이전의 미군 모방기 휘장	1971년 이후 새로 고안된 휘장
병참	열쇠와 날개 그리고 벼잎으로 구성되었으며 열쇠는 補給統制機能, 벼잎은 I 종보품, 날개는 보급의 신속한 지원을 상징	열쇠는 보급관리, 벼잎은 1종 보급품, 달과 깔대기는 1·3종 보급품을 상징
수송	배의 舵輪 속에 방패가 들어 있고 방패 속에는 날개를 단 차륜이 철로 위에 놓여 있는 형태로서 미군의 휘장과 같고, 5대 수송수단인 육로·수로·항로·철로·송유관 수송을 상징	육상[車輛], 해상[노, 櫓], 공중(날개), 철로(rail)의 수송기능을 상징
부관	기본형태는 미군. 백색 바탕에 붉은 색의 큰별 1개와 작은별 8개가 있고, 3선은 백색, 4선은 흑색, 2선은 적색의 9개 수직선으로 구성. 방패모양은 군의 중추기관을, 9개의 선은 창군 당시의 9개사단, 큰별은 육군본부, 백색은 국기의 바탕, 청색과 홍색은 태극의 음과 양, 4개의 흑색선은 국기의 4괘를 상징	두루마리는 행정, 깃털은 붓, 검은 군을 상징
헌병	권총 2개를 교차한 기본형태는 미군과 같음. 38구경 권총 2정을 교차시킨 중앙상단에 별이 놓여 있는 형태. 권총은 공공질서를 위한 군사경찰업무의 수행을 표현하고 별은 육군을 표시	고대의 육모방망이는 敎導 및 징계를 상징하며, 혁대는 명령에 의한 사법권 행사 등을 상징
경리	금강석 위에 독수리를 추가한 형태로서, 금강석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국고금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독수리는 군의 재정운영을 담당하는 중책을 지니고 있음을 상징	고대의 화폐인 刀錢과 주산알 3개로 예산, 회계, 감사를 상징
정훈	총·칼과 횃불 및 별로 구성되었는데 총과 칼은 위엄과 용맹을, 횃불은 정의와 광명을, 별은 육군을, 활은 신속정확한 목표달성을 상징	종은 자유를 뜻하며, 봉화는 민주이념을 밝히며, 붓은 홍보 및 정신교육활동을, 검은 정의를 상징
의무	미군의 휘장과 같은 형태로서 지팡이에 두 마리 뱀이 감겨 있고 그 상단에 쌍날개가 펴있는 모양으로서, 고대 그리스神 Hemes가 가지고 다니던 날개가 달리고 뱀이 감긴 단장을 Caduceus라고 불리게 되고 의술의 상징으로 됨	평화봉사와 헤르메스의 지팡이로서 공통표식을 하고, 하단에 齒醫·獸醫·醫政·看護병과를 표시함
법무	월계수 관 위에 칼과 화살촉을 거꾸로 교차시키고 그 중앙에 태극표지를 추가한 형태. 월계수는 정의와 평화를 뜻하고, 화살촉은 법관의 직무를 표현하며, 칼은 군을 상징하고, 중앙의 태극은 대한민국의 國章을 표현	法書와 저울[天秤]로서 공명정대한 재판을 표시하며, 망치는 법정 및 판결을 상징

구분	1971년 이전의 미군 모방기 휘장	1971년 이후 새로 고안된 휘장
군목	미군휘장과 같음. 그리스도의 정신을 상징하는 십자형표지로서 경신(敬神)·박애·희생·봉사를 뜻함	십자가로서 그리스도의 인류애를 상징
신부		십자가는 인류의 부활을 뜻하며, 종려가지는 殉敎精神을 상징
군승	한국 고유의 병과. 둥근 형상 속에 八正道와 三寶를 표현. 세계공통의 불교 표시로서 佛法僧을 의미	八正道와 三寶로서 불교를 상징
여군	미군은 지혜의 여신 Minerva의 좌측면 얼굴을 표현하였고, 우리는 新羅 原花의 우측면 얼굴을 표현. 투구는 원화의 상무정신, 여인상은 유관순과 애국정신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의 형상은 여군의 화랑정신을 상징	거울로서 전 여성의 귀감임을, 대나무로서 중절을, 은장도로 여성의 무기를 상징
감찰	검과 활을 교차시키고 중앙부위에 횃불을 둔 형태로서 활은 군을 상징함과 동시 멀리까지 그 위력을 미칠 수 있는 권위, 칼은 정의의 상징으로 명철하고 외로운 마음으로 사악을 징계하는 권한과 집행, 봉화는 권위와 단결의 표시로 사리의 명확한 판단, 월계수는 승리의 상징으로 군의 발전과 영광	고대의 마패는 지휘관명에 의한 감찰권을, 검은 정의, 붓은 지휘관에 대한 보좌역을 상징
군악	무궁화나무가지와 잎을 하단에서 양쪽으로 벌려 놓고 그 위에 하프를 올려놓은 형상으로 하프는 군악[洋樂]을 표현하고 무궁화나무가지는 대한민국과 무궁한 발전을 상징	고대악기인 나팔과 승전고로서 승리를 상징
일반참모	칼과 붓을 교차시킨 다음 아래에 사슬을 묶고 중앙에 별을 둔 것으로서 칼은 전투병과, 붓은 행정병과를 표현하고 사슬은 이들 병과간의 상호협조체제를 뜻하며 별은 육군을 상징	용은 장군을 보좌함을, 붓은 참모활동을 상징
전속부관	미군과 동일한 형태로서 방패 위에 독수리가 앉아 있는 형태. 방패상단부의 별의 수로 피수행자의 계급을 표시. 독수리는 지휘관의 진취성을 표현하고 방패는 개인참모로서 지휘관에 대한 보좌업무 상징	용은 장군을 보좌함을, 두루마리 및 붓은 행정을 상징
사병	사병의 휘장은 원형 금속바탕에 장교 병과휘장을 양각함	사병의 휘장은 원형 금속바탕에 장교 병과휘장을 양각함

2. 無窮花 襟章

무궁화 금장은 1980년에 개정된 정복과 예복의 양측 깃의 윗깃에 부착하여 제복의 품위를 높이면서 한국군 장교의 상징적 표시로서 표현될 수 있도록 1979년 11월 7일, 〈국인근 제918.2-565호〉에 의거 제정된 휘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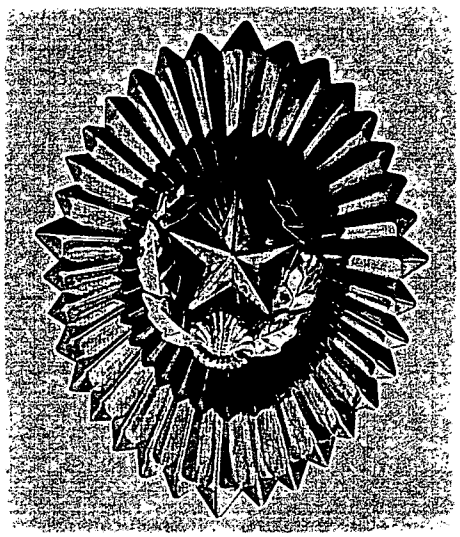
기본 골격은 'L'자형태이고, 하단부에는 무궁화를 중앙에 두고 2개의 잎사귀를 양측으로 뻗게 한 다음 위쪽으로 7개의 잎사귀를 서로 겹치게 쌓아올린 후 상단에 꽃봉오리를 둔 황금색의 금속제 휘장이다. 서로 겹친 잎은 장교의 높은 기상과 무궁한 진취성을 상징한 것이다.



〈무궁화 금장(1979년~현재)〉

3. 陸軍 徽章

육군 휘장은 무궁화 금장과 함께 1979년 11월 7일의 〈국인근 제918.2-565호〉로 정복과 예복의 상의 우측 윗주머니 중앙부에 패용하여 정복과 예복의 품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휘장이다. 형태는 아래로 긴 모양의 타원형으로서, 외곽에는 튼튼한 국토방위의 임무를 상징하는 34개의 부대수를 의미하는 황금색 검과 상무(尙武) 호국정신을 상징하는 34개의 검정색 검을 타원형으로 둘렀으며, 중앙에는 육군을 표현하는 황금색의 큰 별을 두고, 별의 주위에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무궁한 발전을 상징하는 은색의 무궁화와 무궁화잎으로 둘러쌓았다. 패용시에는 근속 30년 기념휘장을 받은 자의 경우 육군 휘장에 우선하여 상의 우측 윗주머니 중앙부위에 패용하도록 하였다.



육군 휘장(1979년～)



휘장 패용모습

〈육군 휘장과 패용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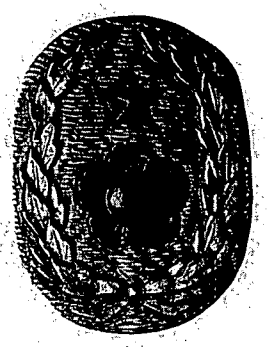
4. 指揮官 徽章

지휘관 휘장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상징으로 명예와 사명감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외투와 우의를 제외한 모든 제복의 상의 좌측주머니 부위에 패용하는 금속제 휘장이다. 1949년 5월 12일, 당시 여단이 사단으로 승격되면서 〈육군복장령 제17호〉와 〈제18호〉가 잠정 공포되었고, 그 해 8월 15일부터 중대장 이상 사단장까지의 지휘관(5개 梯隊)이 최초로 패용하였다. 휴전 이후인 1953년 9월 1일에는 〈육군잠정규정 제22호〉로 군단장 휘장을 추가로 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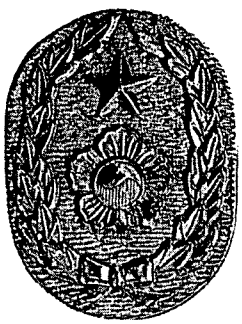
1964년 5월 15일에는 〈육군규정 670-2〉에 의해 지휘관 휘장은 육군규정으로 정식 규제하였으며, 이어 1965년 8월 30일에는 〈육군규정 670-2 수정〉에 의해 군사령관과 참모총장의 휘장도 추가로 제정하였다. 지휘관 휘장은 패용함에 있어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다. 먼저, 1950년대에 임시 제정한 것으로 재질이 나쁘고 형태도 단조로워 품위가 미흡하였고, 제대별로 필요시 수시 제정되어 동(同)계급자이면서도 직위에 따라 각각 다른 휘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면, 대령으로 여단장이나 연대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 외의 계급에서도 같은 경우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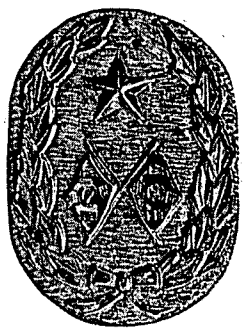
군단장(1953. 9~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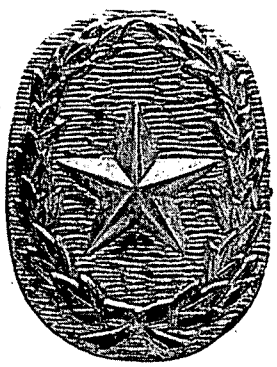
사단장(1949. 8~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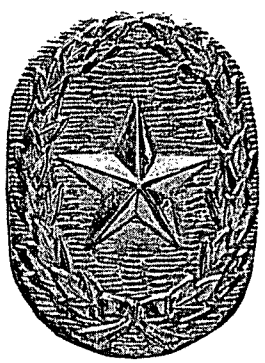
여단장(1949. 8~1971)



연대장(1948. 9~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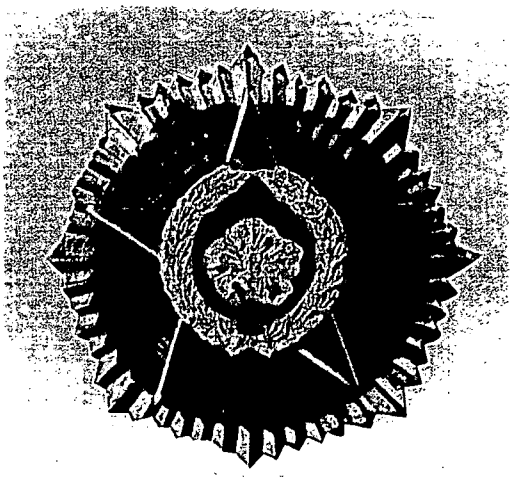


대대장(1948. 9~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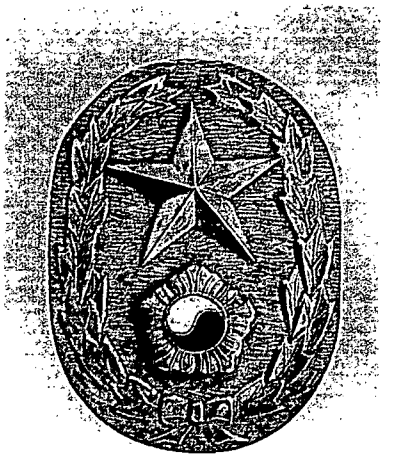


중대장(1948. 9~1971)

〈지휘관 휘장(1948년~197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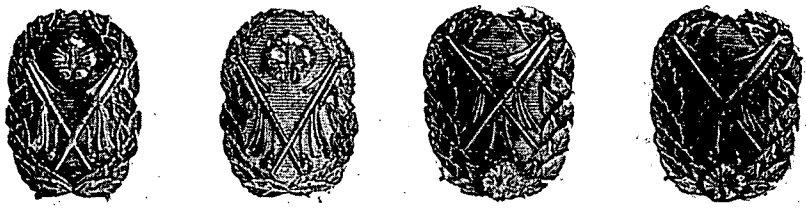


참모총장(1965년 8월~1978년 3월)



군사령관(1965년 8월~1971년)

종 류	의 의
중 대 장 대 대 장	· 주위의 무궁화잎은 국토방위의 뜻 · 무궁화잎의 밑 나비형의 매듭은 군은 단결과 결속을 의미 · 별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양 어깨에 짊어진 육군을 상징
연 대 장	· 주위의 무궁화잎은 국토방위의 뜻 · 무궁화잎의 밑 나비형의 매듭은 군은 단결과 결속을 의미 · 교차된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상징 · 별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양 어깨에 짊어진 육군을 상징
여 단 장	· 주위의 무궁화잎은 국토방위의 뜻 · 무궁화잎의 밑 나비형의 매듭은 군은 단결과 결속을 의미 · 태극은 대한민국을 상징 · 별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양 어깨에 짊어진 육군을 상징
사 단 장 군 단 장 군사령관	· 주위의 무궁화잎은 국토방위의 뜻 · 무궁화잎의 밑 나비형의 매듭은 군은 단결과 결속을 의미 · 태극과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상징 · 별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양 어깨에 짊어진 육군을 상징



군사령관　　장관급　　영관급　　위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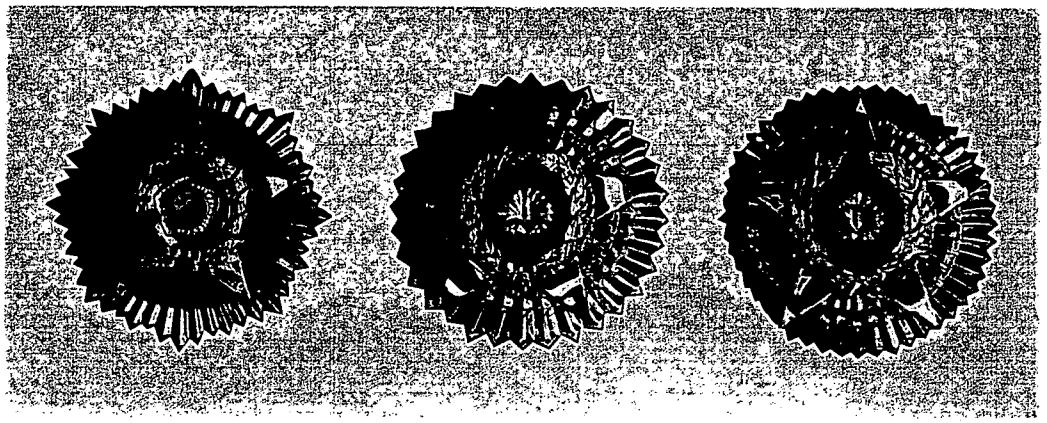
〈지휘관 휘장(1971년~)〉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1년 5월 10일, 〈국인근 제203.2-1907호〉로 병과휘장과 함께 관등별(官等別 : 위관·영관·장관·군사령관)로 구분된 지휘관 휘장으로 개정하면서 모양도 달리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휘장은 무궁화와 그 잎 그리고 등(籐)나무 지휘봉으로 구성되어, 관등에 따라 무궁화의 배열 위치를 달리하고, 장관급과 군사령관용은 색상을 다르게 하였다. 외곽의 무궁화잎은 국토방위를 뜻하며, 무궁화는 으뜸의 상징으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무궁한 발전을 상징하고, 등나무 지휘봉은 조선시대 무장(武將)이 휴대하던 지휘용 채찍으로 지휘관을 상징한다.

5. 參謀 徽章

참모 휘장은 1955년 3월 1일, 〈육군본부 내규 제1호〉에 의해, 육군본부의 일반참모부에 근무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제정된 휘장이다. 외곽의 은색 검은 신선한 국토방위의 임무를 상징하고, 황색의 완자 문양의 원은 굳건한 단결과 상호 협조정신을 표현하며, 중앙의 큰 은색 별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양 어깨에 짊어진 육군을 의미하고, 중앙의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뜻하며, 무궁화를 둘러싼 황금색의 무궁화잎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무궁한 발전을 상징하였다.

최초 제정 당시에는 참모총장과 참모차장, 인사·정보·작전·군수·관리참모부와 병비국(兵備局)의 과장급 이상, 기획통제실의 기획분석관·보도부차장·일반참모비서실 보좌관 이상의 인원들이 무장을 하지 않는 제복에 패용하였다. 그후, 육군본부의



참모총장
1978년~

참모차장·부장
1975년~

참모부차장·처장·과장
1955~

〈참모 휘장(1995년~)〉

기구개편에 따라 패용 대상자의 불합리점이 발생하여, 1964년 1월 17일에 〈육인제 제421호〉로 그 패용 대상자를 일반참모부와 이에 준하는 국(局)·실(室)인 기획통제실과 병비국 보도부, 일반참모비서실의 과장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무장시에도 패용하도록 하였다.

1965년 8월 30일에는 참모 총장 휘장을 별도 제정함에 따라 패용 대상자도 참모차장 이상 일반참모부의 과장급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새로 제정된 참모총장 휘장의 형태는 참모 휘장과 유사하였으나 외곽 은색 검의 안쪽에 둥글게 엮은 동검(銅劍)을 추가한 모양이었으며, 그 의의는 다음과 같다.

- 8방으로 뻗은 검 : 무한의 힘
- 무궁화 : 대한민국을 상징
- 무궁화잎 :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무궁한 발전을 상징
- 별 : 명예로운 육군
- 중앙으로의 집점(集點) : 강력한 지휘권의 장악

이렇게 패용하던 일반참모 휘장은 1966년 3월 14일에 〈육인근 제421호〉로 휘장패용 직위에서 24개월 이상 근속하면 직책이 변경되더라도 우측 흉부에 영구적으로 패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1971년 2월 12일에 〈육인제 제150.2호〉에 의거 영구패용제도는 폐지하고, 휘장을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일반참모 휘장은 참모총장을 제외한 모든 패용 대상자가 동일한 형태의 휘장을 패용함에 따라 휘장이 지니는

특수성이 잘 표현되지 못하고 일반화 경향이 있어, 1975년 9월 5일, 〈육인제 제903.1호〉로 참모차장과 참모부장이 패용하는 참모부장 휘장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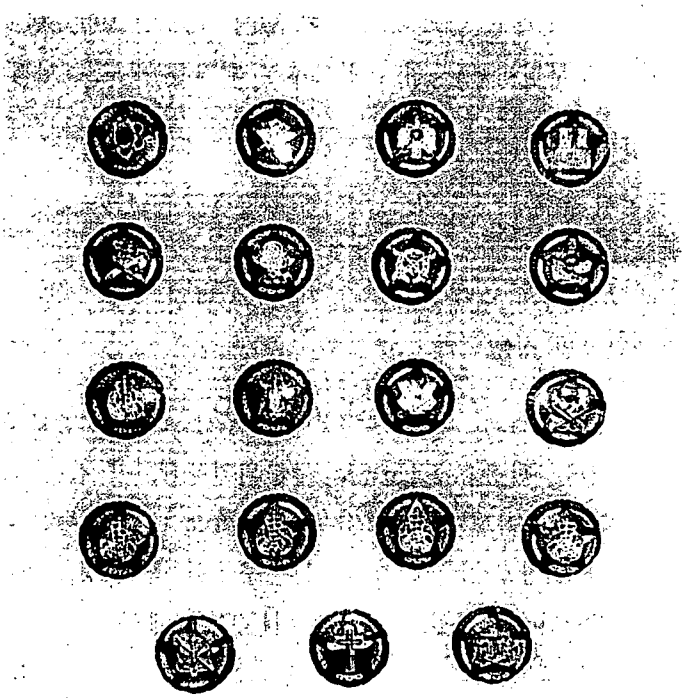
- 외부 검 : 원활한 참모활동
- 내부 검 : 육군의 핵심
- 완자 : 원활한 참모협조와 단결을 상징
- 무궁화잎 :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무궁한 발전
- 무궁화 : 대한민국의 상징

이 참모 휘장은 참모총장과 참모차장 및 참모부장 그리고 참모부차장 이하 대령급과장 이상이 패용하는 휘장 등 3종류로 구분되었는데, 이 같은 휘장은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모방하여 제정됨에 따라 참모총장 휘장과 참모부장 휘장의 구분이 곤란하여, 1978년 4월 1일 참모총장 휘장의 내부 무궁화 속에 장교모표와 같이 태극을 추가하였다. 그후, 1983년 2월 1일, 〈육인사 제150.2호〉에서는 육본 정책부서에 근무하는 자의 권위의식과 책임감을 심어 주고 자부심과 명예심을 고취시킨다는 취지에서 일반참모 휘장(참모부차장 및 과장용)의 패용 대상을 일반참모부에 근무하는 모든 영관장교로 확대하였다.

6. 兵科長 徽章

1983년 2월 1일부터 일반참모 휘장의 패용 대상이 일반참모부에 근무하는 모든 영관급장교로 확대됨에 따라 대령 또는 장관급 장교인 특과장(特科長)과장에게도 병과장으로서의 책임의식을 심어줌은 물론 권위의 표상으로 삼기 위하여, 1982년 12월 28일, 19개 특과병과장(공병 · 통신 · 항공 · 화학 · 병기 · 병참 · 수송 · 부관 · 헌병 · 경리 · 정훈 · 의무 · 법무 · 군종 · 여군 · 치의 · 수의 · 의정 · 간호)이 패용할 병과장 휘장을 제정하였다.

모양은 일반참모 휘장과 같은 형태였으나, 내부의 무궁화와 무궁화잎을 해(該)병과의 휘장 [뱃지] 로 한 것이 달랐다. 외형의 은색 검은 무(武)와 용(勇) 그리고 승리를 나타내고, 황금색의 둥근 완자는 제병과(諸兵科)와의 협조를 표현한 것이며, 중앙의 병과휘장은 해(該)병과장을 상징한 것이다. 이 병과장 휘장은 1983년 1월 1일부터모든 복장에 항시 패용하였으며, 지휘관이나 일반참모직에 근무하는 병과장은 보직된 직위의 휘장을 패용하되 해(該) 병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에는 해 병과장 휘장을 패용하도록 하였다.



〈병과장 휘장(1982년~)〉

7. 敎官 徽章

교관 휘장은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무질서하게 임의로 제작 패용함에 따라 휘장이 지니는 가치성의 상실을 막고, 패용이 허용된 교관들로 하여금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명예심을 진작시킬 목적으로 1975년에 육군의 최고학부인 육군대학과 병과 구분이 없는 장교양성기관인 육군사관학교의 교관만이 패용하도록 규제하였다.

가. 陸大敎官 徽章

육대에서는 교관과 피교육자와의 식별을 위해 1953년 6월 25일부터 일반참모 휘장(병과휘장)을 부착하여 왔다.

1975년 6월 24일, 〈육인제 제150.2호〉로 제정된 육대교관 휘장은 직경 4.5㎝의 둥

큰 원 속에 복합십자원(複合十字圓)을 두고, 십자원의 하단부에는 황금색의 작은 별 4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나란히 배치하였으며, 상반부에는 황금색의 날개를 편 독수리와 독수리의 등 위에는 '대(大)'자가 새겨진 방패를 놓았고, 방패의 머리 위에 펜촉 그리고 양측에는 두 마리의 사자가 마주서 있는 형태였다.



〈육대교관 휘장(197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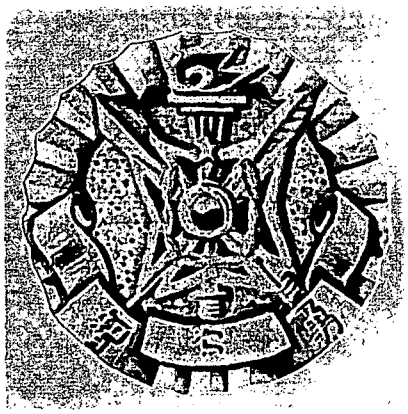
- 외곽원 : 단결, 통일 및 영구불멸을 상징
- 복합십자원 : 광명, 지식의 무한대(無限大)와 육군의 진로를 표현
- 독수리 : 대학의 영구한 발전과 지휘관의 진취성을 비유
- 사자 : 지휘관의 용맹성과 과감성을 비유
- 펜 : 군 최고학부로서의 학구도량(學究道場) 표현
- 방패 : 국토방위, 지휘관 및 참모의 임무와 책임 의미
- 별 : 4성장군을 표상(表象)하여 지휘관의 앞날을 상징
- 대(大) : 대학을 상징

나. 陸士教授 徽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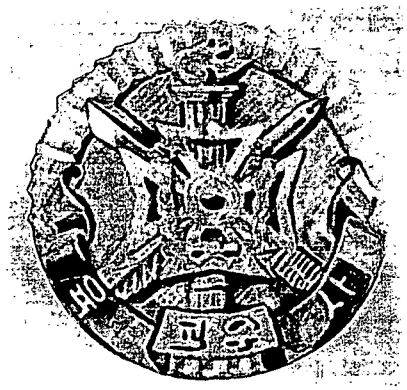
1967년부터 학교 자체에서 제작 패용하여 온 비인가(非認可)휘장은 직경 4.5㎝의 원형 표면 중앙부에 생도모표를 수식하고, 중앙부에 봉화, 그리고 칼과 붓을 교차시킨 형태로 장식하고, 주위에는 황금색의 검을 배치하였으며, 하단부에는 폭이 좁은 장식띠를 펼쳐 놓은 위에 학교의 교훈인 '지·인·용(智·仁·勇)'자를 새겨놓은 형태였다.

1975년 7월 9일에 통일 규제된 휘장은 종전부터 패용하여 오던 비인가휘장과 거의 같은 모양이었으나, 다만 학교의 교훈인 '지·인·용'을 '육사교수'로 바꾼 것이 다를 뿐이었다.

- 외곽원 : 단결 및 전인(全人)교육
- 펜 : 교육자와 학구의 도장 표현
- 칼 : 국토방위와 군인의 충성심
- 횃불 : 진리탐구 및 연구
- 육사모표 : 육사를 상징
- 글자 : 육사교수를 표현



1967년~197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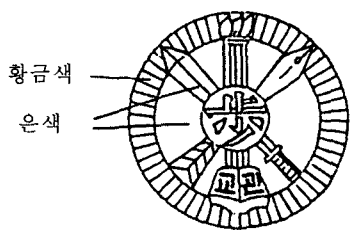


1975년 이후

〈육사교수 휘장(1967년~)〉

다. 기타 學校機關 敎官徽章

육사를 제외한 학교기관의 교관휘장은 아래 형태에 원내에 학교별 약자를 한자로 삽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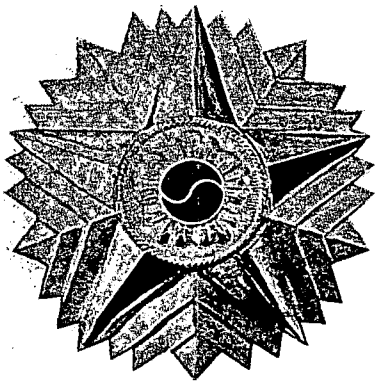


〈기타 학교기관 교관휘장〉

8. 勤續 30年 記念徽章

건군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동안 건군 10주년과 20주년 기념기장(記章)을 제정 패용하여 오다가, 30주년이 되는 1979년 초에 건군 30주년 기념기장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장차 40·50·60주년시에 계속적으로 기념기장을 제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일단 30주년 기념기장의 제정을 보류(제정권자 : 국방부장관)하였다.

한편, 육군에서는 임관 또는 임용일로부터 30년 이상 되는 장기근속자에게 그 공적을 높이 칭송하고 명예를 선양한다는 취지로, 1979년 11월 7일(국인근 918.2-565), 근속30년 기념휘장을 순금과 은으로 제작하여 수여함으로써 필생의 공헌을 기리고 가보(家寶)로서 계승할 수 있는 명예의 유형적 상징으로 간직할 수 있게 하였다. 휘장의 형태는 직경 5.5㎝ 크기에 내접하는 원형크기에 30개의 검을 양각한 은판(銀板) 위에 직경 5.2㎝에 내접하는 금별을 배치하고, 다시 그 위에 직경 2.1㎝의 작은 원 속에 은으로 양각한 무궁화와 칠보를 넣은 태극을 넣어 3단으로 구성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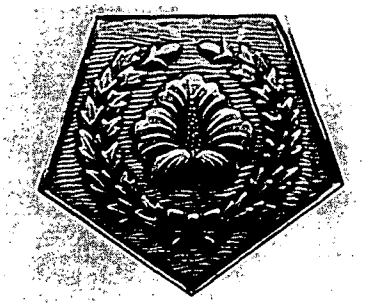
〈근속30년 기념휘장 (1979년~)〉

- 태극과 무궁화 : 대한민국을 상징
- 내부원(꼬임 사슬) : 굳건한 단결과 국가보위를 표현
- 별 : 대한민국의 장래를 양 어깨에 짊어진 육군을 표상
- 바탕의 30개 검 : 30개 성상(星霜)을 호국에 바쳐온 충성 표현
- 금·은 재질 : 변함없는 애국충정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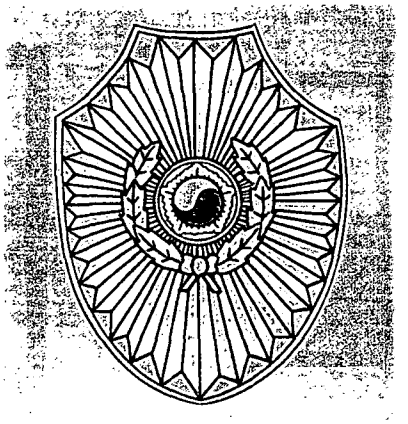
이 휘장은 예복·정복·근무복의 상의 호주머니 중앙에 패용하되, 예복이나 정복을 착용할 때에는 육군 휘장에 우선하여 패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主任元士 徽章

현재의 주임원사 직위가 생기기 전인 주임상사 시기에 만들어진 주임상사 휘장은 1967년 2월 22일, 하사관의 권위 신장방침인 〈육인사 제220호〉에 따라 연대급 이상 부대에서 지휘영역으로부터 벗어나 부대운영이나 사병의 복지면에서 지휘관을 보좌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직책인 주임상사에게 패용시킨 휘장으로 1967년 3월 6일, 〈육인제 제421호〉로 제정되었다. 직경 5㎝의 원에 내접하는 5각형을 거꾸로 한 형태 속에 사병모표와 같은 표지를 넣었다.



〈주임상사 휘장〉



〈주임원사 휘장〉

- 5각 방패 : 인내와 자중(自重)을 표현
- 무궁화 : 대한민국을 상징하며 애국심을 표상
- 무궁화잎 :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무궁한 발전 상징
- 나비형 매듭 : 굳은 단결과 결속을 표현
- 은색 : 광명과 순결
- 사병모표 : 하사관 및 병을 대표함을 의미

이후 개정된 주임원사 휘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방패(외형) : 국토방위(은색)
- 햇살 : 불멸의 충성심(금색)
- 월계수 : 평화(금색)
- 리본 : 인화단결 · 화합
- 무궁화 :대한민국 상징(은색)
- 재질 : 백동

10. 先鋒中隊長 徽章

선봉중대장 휘장은 1967년에 제1군사령부에서 예하 전 중대 가운데 5개 중대를 엄선하여 시상하였던 것을 1970년 8월 22일부터는 〈육인제 제421호〉로 정식 승인을

받아, 그 범위를 보병은 사단에서 1개 중대, 포병은 군단에서 1개 포대, 공병은 군단에서 5개 중대, 통신과 병기부대는 군에서 2개 중대, 기갑·수송·병참·헌병·의무·화학 등은 군에서 1개 중대씩을 선발하여 시상하였던 휘장이다.



〈선봉중대장 휘장
(1970년~1973년)〉

이와 같은 제도는 중대장으로 하여금 선의의 경쟁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명예심과 자부심은 물론 사기를 진작시켜 각종 사고를 근절하는데 노력하는 정신을 고양시키고자 제정되었다. 직경 5.8㎝에 내접하는 8각형 속에 뒤쪽에는 '선봉중대장'이란 양각된 글씨를 새기고, 중앙부에는 제1군사령부 표지, 그리고 하단에는 두 개의 월계수가지를 아래쪽에서 교차되게 한 모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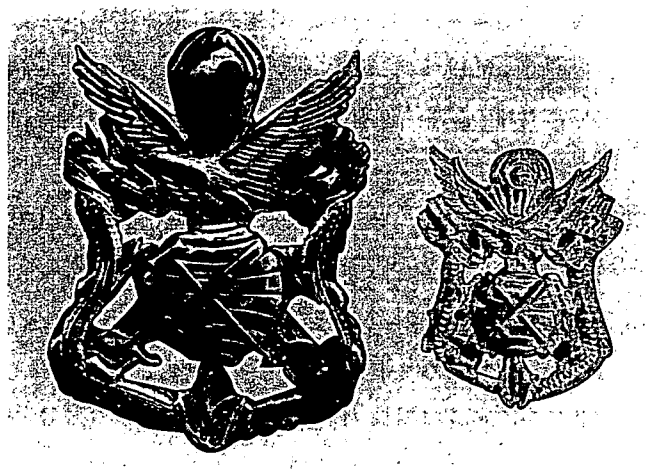
- 선봉중대장 문자 : 선봉중대의 중대장임을 표현
- 중앙의 제1군사령부 표지 : 제1군사령부 예하부대임을 뜻함
- 월계수 : 으뜸과 명예스러움을 상징

다만, 이 제도는 1973년에 제3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부대가 분리되고 평가제도마저 연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11. 特殊戰 徽章

특수전 휘장은 특전사령부의 전신인 제1공수특전단에서 1966년 초에 특수전요원이 베레모에 부착하는 모표로 건의되어 1966년 10월 31일, 〈육인군 제421호〉에 의거 제정되었다. 이 특수전 휘장이 제정되기 전에는 특전모인 베레모에 낙하산 휘장을 부착하였는데, 이 낙하산 휘장은 특수전요원이 장기간 동안 받아야 하는 각종 특수훈련 중에서 단 4주간에 불과하고 특수전요원이 아니더라도 4주간의 교육과 소정의 낙하경력만을 인정받으면 누구나 부착할 수 있는 휘장이기 때문에 특전모의 모표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휘장을 제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새로 제정된 특수전 휘장은 정장과 약장으로 구분 제정되었다. 정장은 가로 4.7㎝×세로 6.3㎝의 크기로 정복차림과 예복차림시 상의 좌측주머니 중앙부위에 패용하



〈특수전 휘장(1966년~)〉

였으며, 약장은 가로 3.2㎝×세로 3.8㎝ 크기로 베레모의 모장으로 부착하였다.

- 상단의 태극 : 대한민국을 상징하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
- 상단의 낙하산 : 공중침투능력을 표현
- 독수리 : 용맹성과 민활성, 예리한 판단력을 표상
- 중앙의 지구 : 지상의 어떠한 장소에서도 임무수행 가능함을 표현
- 좌·우측 용 : 해상침투가능 표현(강인한 성격과 적지역 주민의 신망도)
- 칼과 도끼 : 지원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 표현
- 하단부위의 불꽃 : 생존을 상징(불꽃처럼 영원히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기 바라는 뜻)

이렇게 정장과 약장으로 구분하여 부착하였던 특수전 휘장은 1976년에 정복에 베레모와 전투화를 착용하는 제식인 특전(特戰)정장이 제정되면서 정복에는 정장, 베레모에는 약장을 부착하게 됨을 고려하여 다음해인 1977년 10월 10일, 〈육인제 제150.2호〉에 의거 정복에 부착하던 정장은 폐지하였다.

12. 憲兵 徽章

헌병 휘장은 헌병의 예방경찰제복인 근무복장과 행사복장의 품위와 위엄성을 높임은 물론 솔선수범하는 병과로서의 긍지와 명예심을 고취시키고, 군의 사법경찰관으로

서 사법권 행사에 대한 투철한 사명의식과 그 존엄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근무헌병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1974년 8월 2일, 〈육인제 제150.2호〉로 제정되었다. 헌병 휘장은 정장과 약장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장은 가로 5㎝×세로 7㎝ 크기로 하고, 부착복장인 행사복과 근무복의 상의 왼쪽주머니 중앙에 부착하였다. 약장은 가로 2.4㎝×세로 4㎝로 하여, 부착복장의 견장대 중앙부위에 부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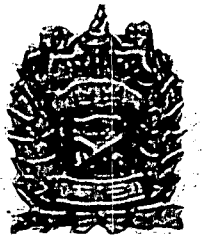
- 횃불 : 선봉
- 사자 : 용맹성
- 월계수 : 명예
- 병과표지 : 교도(敎導)와 징계

그후 1981년 10월 20일, 〈육인사 제150.2호〉에 의거 종전에 부착하던 휘장의 상단의 사자상은 헌병병과와는 전혀 무관한 표상이고, 휘장 주위에 뾰죽하게 나온 날카로운 무궁화잎은 찍히거나 심지어는 보호자를 동행시 상처를 입히는 경향도 있어, 병과의 상징물인 독수리를 삽입한 방패형으로 개정하고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 방패 : 충성, 국토방위
- 독수리 : 용맹성, 예리한 관찰로 불의를 척결, 정의 구현
- 중앙의 병과휘장 : 교도와 징계



정 장
1974년~1981년



약 장



1981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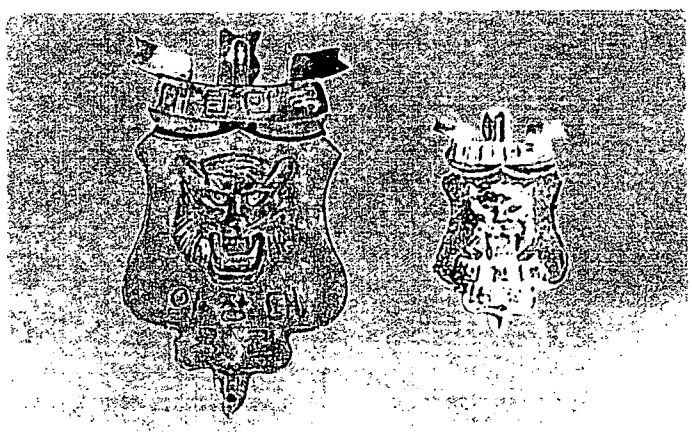
〈헌병 휘장〉

- 병과휘장을 둘러싼 원 : 굳건한 단결
- 무궁화와 무궁화잎 :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무궁한 발전을 표현
- 하단의 검 : 부조리 척결, 질서 유지
- 별 : 육군을 상징
- 3개의 볼트 : 헌병훈(憲兵訓)인 명예·솔선·봉사

13. 儀仗隊 徽章

의장대 휘장은 1959년 6월 5일부터 의장대의 멋과 품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휘장이다. 1971년 5월 1일, 의장대 제복이 정복 제식으로 바뀔 때 정장과 약장으로 구분하여 정식 인가되었다. 정장은 가로 5.9㎝×세로 9.4㎝로서 행사복의 상의 오른쪽 윗주머니 중앙에 부착하고, 약장은 가로 2.8㎝×세로 4.4㎝로서 행사복의 견장대 중앙에 각각 부착하였다. 방패모양의 붉은 색 바탕에 호랑이 머리가 양각되고, 방패 뒷면 중앙에는 세로로 대검을 아래로 향하게 하였으며, 방패의 상단에는 '대한민국'이란 글씨가 음각으로새겨진 매듭장식이 놓여 있고, 방패 하단에는 '의장대'란 글씨와 '육군'이란 작은 글씨가 양각으로 새겨진 형태이다.

- 방패 : 국가수호
- 대검 : 공격정신
- 호랑이 : 용맹스러운 의장대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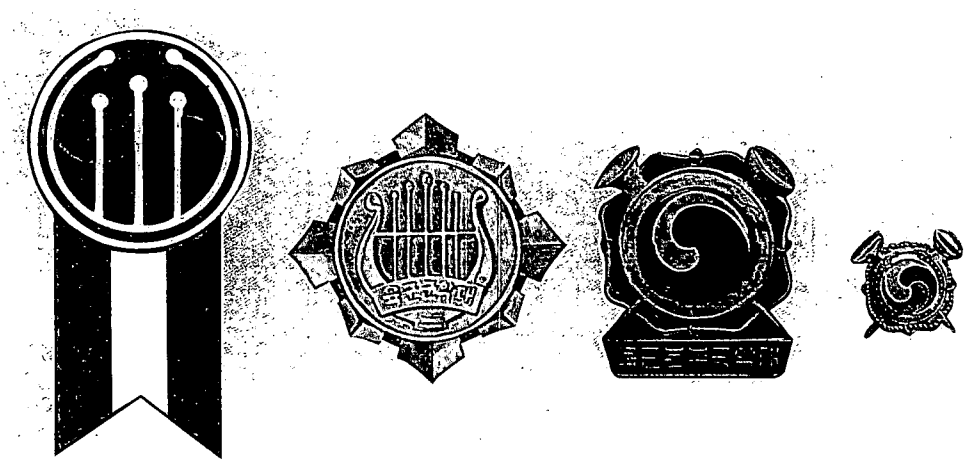
〈의장대 휘장(1959년~)〉

- 매듭장식 : 군건한 단결
- 글씨 : 대한민국의 육군 의장대 표현

14. 軍(國)樂隊 徽章

군(국)악대 휘장은 최초의 군악대 행사복인 아리랑복과 함께 1966년 9월 13일에 제정되어 행사복의 상의 왼쪽 가슴부위에 부착하였으며, 일명 악장(樂章)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직경 6cm의 원형 금속판에 7보를 박은 적·청색의 태극 위에 직경 5cm의 백색 하프형을 얹고, 원형판 아래에는 폭 4.8cm ×길이 6cm의 금속 장식끈이 세로로 3등분되어 적·백·청의 3색으로 7보를 박았다.

이 휘장은 1967년에 창설된 국악대도 함께 패용하였으나, 1968년 8월에는 군악대와 국악대의 신분을 글씨로 구분할 수 있는 휘장으로 변경하였다. 그 형태는 직경 4.5cm의 황금색 원 속에 양각된 하프형을 두고 그 아래에 '육군군악대' 또는 '육군국악대'의 신분을 표시한 은색 장식띠를 두었으며, 원형 둘레에는 상·하·좌·우에 황금색 검을 배열하고 그 사이에 교차되게 4개의 은색 검을 둔 형상이었다. 이 휘장은 정장과 약장으로 구분하여, 정장은 행사복 상의 왼쪽주머니 중앙에 부착하고, 직경 3.5cm의 약장은 행사복의 견장대에 부착하였다.



1966년~1967년　　1968년~1970년　　1971년~현재

〈군(국)악대 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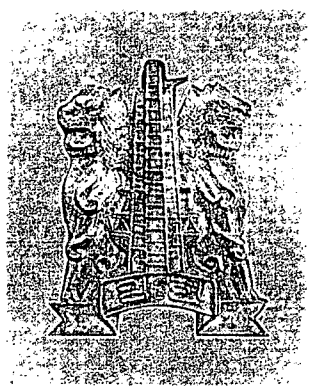
- 원형 : 영원한 인화단결
- 하프 : 군악을 상징
- 검 : 발전과 전진을 표현

그후 1971년 2월 12일에는 정복이 연회색으로 바뀌고 병과휘장도 우리의 고전을 가미한 모양으로 바뀌면서 군(국)악대 휘장도 새로 개정된 군악병과휘장과 유사한 모양으로 다시 개정되었다. 휘장의 하단부에 소속과 신분(군악대 또는 국악대)을 양각으로 새긴 받침대를 받치고, 군악대와 국악대를 식별하도록 하였다. 휘장은 정장과 약장의 두 종류로 구분하였으며, 정장은 가로·세로 7.5㎝로 행사복의 상의 왼쪽 중앙에 패용하고, 약장은 가로·세로 3.5㎝로 행사복의 견장대에 부착하였다.

- 북, 세납 : 승리의 승전고
- 내부 3태극 : 대한민국을 상징하며, 우주본체인 천·지·인을 의미
- 외부꼬임줄 : 굳건한 단결
- 하단문자 : 소속과 군·국악대 명칭

15. 英顯行事要員 徽章

영현행사요원 휘장은 1979년 11월 7일에 영현봉송요원 행사복이 제정될 때 타행사요원(의장대·군악대)과의 보조를 맞추면서, 이들의 사명감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중앙에 충혼탑(忠魂塔)을 두고, 그 밑에 향로를 놓았으며, 충현탑과 향로의 좌·우측에는 사자가 마주보고 서있는 형상이다. 휘장은 정장과 약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제식으로서, 크기는 가로 3.7㎝×세로 4.7㎝이며, 행사복의 상의 견장대의 중앙부위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영현행사요원 휘장
(1979년~)〉

- 충혼탑 : 숭고한 애국애족의 충의(忠義)를 표현
- 향로 : 고인에 대한 명복의 상징
- 사자상 : 영원불멸의 수호신을 상징

16. 禮砲隊 徽章

1981년 6월 30일부터 국가 의장행사에 지원되는 예포대원들이 행사지원시에 일반장병들이 착용하는 전투복차림 대신 보다 품위있고 경건한 차림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장대행사복을 지원하면서 휘장도 제정하였다. 형태는 방패모양의 붉은색 바탕에, 야포를 위에서 본 평면도를 양각한 모양으로서, 정장은 가로 6㎝×세로 7.2㎝로 행사복의 상의 좌측주머니 중앙부에 부착하고, 약장은 가로 3.2㎝×세로 4㎝로 상의의 견장대에 부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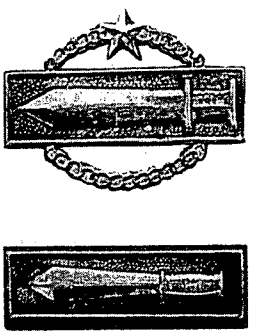
〈사진〉 예포대 휘장(1981년~)

- 방패 : 국토방위의 역군(役軍)임을 상징
- 야포 : 예포대를 표현
- 바탕의 붉은 색 : 포병을 상징

17. 遊擊 徽章

유격 휘장이 언제 제정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1964년 6월 15일에 최초로 〈육군규정 제670-2호〉에서 규제하고 있다. 그 종류가 장교용과 사병용으로 구분되었고, 피(被)수여대상자는 정식 유격교육과정이 설치된 보병학교와 제1군하사관학교의 유격교육과정을 이행한 자로 제한하였다.

장교용은 가로 5㎝×세로 1.3㎝의 청색 바탕에 대검을 장식한 직사각형에 상단과 하단부에는 타원형의 쇠사슬을 두고, 상단 중앙부위에 별을 부착한 형태였다. 사병용은 위·아래의 쇠사슬과 별이 없는 청색 바탕의 직사각형 속에 대검만이 들어 있는 형태였으며, 모든



〈유격 휘장〉

제복의 상의 왼쪽주머니 상단에 부착하였다.

그후 1966년 이후에는 피수여대상자를 장교는 4주(176시간), 사병은 2주(88시간)의 유격교육을 마친 자로 변경하면서 휘장도 해당교육책임 지휘관이 수여하도록 하였다가, 1976년 6월 16일 이후에는 다시 장병 공히 2주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누구나 패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7년에는 부대교육방침이 수정되어 전 장병이 의무적으로 유격교육을 받도록 규제됨으로써, 유격 휘장이 지니는 가치성이 상실되어, 1977년 11월 28일, 〈육인제 제901.3호〉에 의거 유격 휘장의 부착제도는 폐지하였다.

18. 航空操縱士 및 航空整備士 徽章

항공조종사 휘장과 항공정비사 휘장은 6·25전쟁 기간중인 1951년도에 항공조종사와 항공정비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제정된 휘장이다. 항공조종사 휘장은 1951년 3월 3일, 〈육군규정 제13호〉에 의거 자격기준에 따라 조종·선임조종·지휘조종의 3종류로 구분하였고, 항공정비사 휘장은 동년 11월 6일, 〈육군회보 제86호〉에 의거 정비·선임정비의 2가지 휘장으로 구분 제정하였다.

조종사 휘장은 항공을 표현하는 독수리의 날개가 좌·우측으로 활짝 편 모양에 육군항공대를 상징하는 '육'자가 양각된 원이 중앙에 놓여 있는 형상에 패용자의 자격에 따라 '육'자가 새겨진 원형 위에 '별' 또는 '월계수'로 둘러쌓인 별을 올려놓았다. 은색의 조종사 휘장의 크기는 가로 7㎝×세로 1.6㎝이고, 금속제와 포제[刺繡製]의 2종류로 규제되어, 금속제는 정복·예복·근무복 그리고 포제는 조종사복과 전투복의 왼쪽가슴(주머니 상단)부위에 각각 부착하였다. 황금색의 정비사 휘장은 중앙의 원형 주위에 엔진모양 (7개 기둥)을 장식한 것으로서, 크기와 패용방법은 조종사 휘장과 같다. 종류별 패용자격은 다음과 같다.

- 조종사 휘장 : 조종훈련과정 이수자, 항공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 선임조종사 휘장 : 조종사 경력 7년 이상인 자, 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인 자, 불가항력 사고를 제외한 항공사고기록이 없는 자
- 지휘조종사 휘장 : 조종사 경력 15년 이상인 자, 비행시간 3,000시간 이상인 자, 특수계기비행 자격자



〈항공조종사 및 정비사 휘장(1951년~)〉

- 정비사 휘장 : 항공학교 정비교육과정 이수자, 국내에서 소정의 교육 이수자
- 선임정비사 휘장 : 7년 이상 정비 실무종사자, 소형사고 이상의 정비 및 지상사고가 없는 자

19. 落下傘 및 落下傘整備 徽章

일명 공수(空輸)휘장이라고도 하는 낙하산 휘장은 1959년 2월 1일, 〈육인처 제200.6호〉에 의한 특전복 제정과 함께 잠정 제정되었다. 패용자격은 4주간의 낙하훈련을 필하고, 항공기 낙하경험이 있는 자에게 수여되었으며, 경력에 따라 동색의 기본휘장과 은색의 숙달휘장 그리고 황금색의 선임휘장을 부착하였다.

4회 이상 낙하경력자가 패용하는 기본휘장은 중앙에 활짝 핀 낙하산과 그 하단에 무궁화를 놓고 그 주위에 독수리날개를 밑에서 위로 둘러쌓은 형태였고, 14회 이상인 숙달휘장은 중앙에 활짝 핀 낙하산과 그 위에 무궁화를 놓고 독수리날개를 밑에서 위로 돌려쌓은 형태였으며, 65회 이상인 선임휘장은 숙달휘장과 같은 모양이되 낙하산 위의 무궁화에 월계수를 둘러쌓은 형태였다. 이 낙하산 휘장은 모든 제복의 좌측 호주머니 상단과 전투모의 계급장 상단에 부착하였으며, 특수전투휘장이 제정되기 이전인 1966년까지는 베레모에도 부착하였다.



1959년~1962년 1963년~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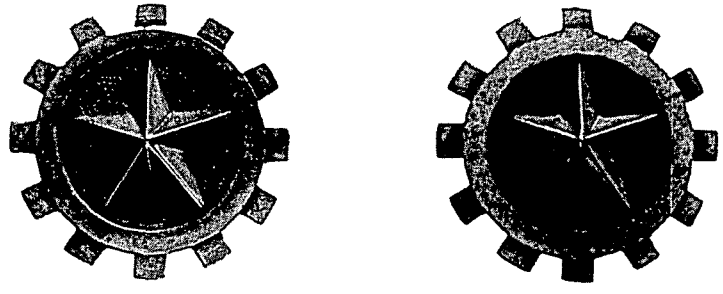
〈낙하산 및 낙하산정비 휘장(1959년~)〉

그러나 이상의 휘장 형태는 공수특전단 창설초기에 미군에게 위탁교육을 받으면서 수료할 때 받은 휘장을 모방하여 제작된 것으로, 미군의 낙하산 휘장과 흡사할 뿐만 아니라 동색의 기본휘장은 변색이 심하고 퇴색되었을 때 숙달휘장인 은색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1963년 2월 19일, 〈육인사 제421호〉에 의거 공수특전복의 베레모를 제정할 때 모든 휘장의 색상을 은색으로 통일하면서 형태도 변경하였다. 또한 이와 동시에 낙하산 정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비휘장도 추가로 제정하였다.

형태는 기본적으로 중앙에 무궁화를 장식하고, 무궁화 주위에서 좌·우 상단으로 향하여 날개를 활짝 편 형상이었으며, 숙달휘장은 낙하산 상단에 별을 올려놓았고, 선임휘장은 월계수가 둘러쌓인 별을 올려놓은 형상이었다. 그리고 정비휘장은 낙하산 휘장의 기본형 중앙부위에 한글로 'ㅈㅓㅇㅂㅣ'라고 양각하였다. 휘장의 크기는 가로 5.4㎝×세로 2.9㎝이다.

20. 技能士 徽章

1970년대 후반, 육군은 국가시책에 부응하고자 많은 유자격기능공을 양성 획득하기 위하여 기능사 자격획득제도를 마련하여 전문기능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근무의욕도 증가시킨다는 목적으로 1977년 10월 10일, 〈육인제 제150.2호〉에 의거, 기능사 휘장을 제정하였다. 휘장은 직경 2.5㎝의 원내에 톱니바퀴와 별을 양각한 모양으로서, 1·2급으로 구분하고, 1급기능사 휘장은 은색, 2급기능사 휘장은 동색으로 하였다. 별은 육군을 표현하고, 톱니바퀴는 기능사를 상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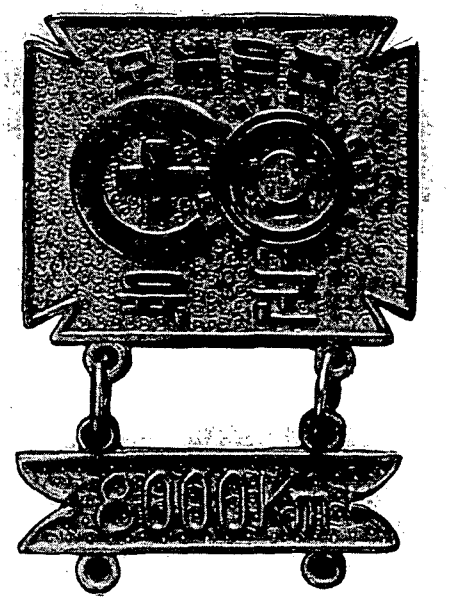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

〈기능사 휘장(1977년~)〉

21. 模範運轉兵 徽章

모범운전병 휘장은 모범운전병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고 우월성과 다른 운전병에게 귀감을 보임으로써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차량사고 예방에도 기여하면서 운전병 상호간에 무사고를 위한 선의의 경쟁의식을 갖게 하기 위하여 1963년 9월 22일에 제정하였다.



〈모범운전병 휘장(1963년~)〉

이 휘장은 모범운전병을 상징하는 정장(正章)과 무사고 운행기록을 표시하는 부장(副章)으로 구분되어, 정장은 십자성 모양의 사각형 속에 상단에는 '모범운전', 하단에는 '육군'이란 글씨를 양각하고, 공간의 좌측에는 안전을 표시하는 원과 십자형표지, 우측에는 전동차의 바퀴를 양각한 형태이다. 부장은 가로로 직사각형 속에 안전 주행거리를 새긴 것으로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은 8,000km 이상 또는 24개월 이상 무사고로 운행한 일반하사(장기근무하사관이 아닌) 이하 병에게만 수여하였다.

- 사각의 십자성 : 타의 우월성과 귀감임을 상징
- 원과 십자 : 안전을 표현
- 자동차바퀴 : 운전자를 표현

22. 體力 徽章

1966년 7월 4일, 〈육인근 제200.6호〉에 의거, 장병의 체력향상을 위한 방책으로 체력장(體力章)제도를 신설하여 특급합격자에게 수여했던 휘장이다. 직경 2.5㎝의 은색 원형 상단에 '特'자, 중간 상단에는 독수리, 그 밑으로 별과 꾸부린 팔을 아래로 나

란히 놓고, 하단에서 좌·우측으로 연하여 위쪽으로 월계수, 그리고 반대쪽에 '體力'이란 글씨를 양각한 형상이다. 그러나 체력장제도의 시행에서 유자격자가 과다히 선발됨에 따라 휘장이 지니는 가치성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변보급하는 체제마저 확립되어 있지 않아 1977년 11월 28일, 〈육인제 제901.3호〉에 의거하여 휘장의 패용제도는 폐지되었다.



〈체력휘장(1966년~1977년)〉

- 독수리 : 군인다운 기상과 용맹성
- 별 : 육군을 상징
- 월계수 : 명예를 상징
- V자형의 팔 : 건강한 체력과 우위성
- 特·體力 : 특급 체력합격자임을 표시

23. 射擊 徽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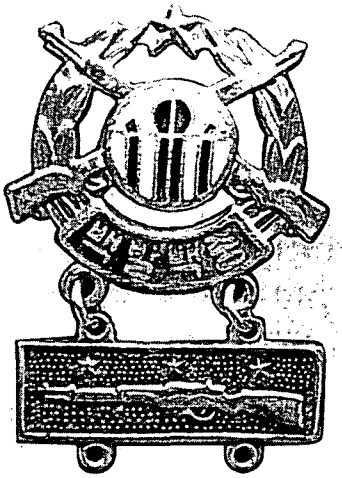
휴전 이후 부대정비와 전력향상에 주력해 오다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부대교육을 통하여 우세한 사격실력을 갖춘 장병을 획득할 목적으로 자격사격과정에 특등·1등·2등·등외 등의 등급을 설정, 평가하는 제도를 제정하고, 2등사수 이상자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사격우수자임을 과시하게 하여 보다 많은 우수사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책으로 1964년 6월 15일, 〈육규 제670-2호〉에 의거, 사격우수자 휘장을 제정 패용하게 하였다.

이 휘장은 우수사수임을 상징하는 정장(正章)과 등급과 해당 화기를 표현하는 부장(副章)으로 구성되었다. 정장은 직경 2.5㎝ 크기의 원형모양에 하단에는 붉은 색 바탕의 장식띠 위에 '백발백중'이란 글씨를 양각하고, 장식띠의 좌·우측에서 위쪽을 향하여 월계수를 둥글게 뻗게 한 다음 월계수의 끝이 마주치는 중앙상단에 작은 별을 새겨 놓고, 중앙부에는 검정색 가늠자와 가늠쇠가 들어 있는 직경 1㎝의 흰색원을 두고 그밖으로 원을 중심으로 2개의 총을 X자형으로 교차시킨 형태였다. 부장(副

章)은 직사각형 속에 소총(M1·CAL·AR·LMG·권총)과 등급을 나타내는 별, 특등은 3개, 1등은 2개, 2등은 1개를 양각하였다.

- 중앙의 가늠자와 가늠쇠 : 사격술을 표현
- 2개의 교차된 소총 : 군의 기본화기를 상징
- 상단 별 : 육군을 상징
- 월계수 : 사격능력 우수자임을 상징
- 백발백중 : 사격술의 달성목표를 표현

그러나 이 휘장은 시행과정에서 규제된 등급수준이 낮아 수여대상자의 과다로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1977년 11월 28일, 〈육인제 제901.3호〉에 의거, 사격휘장의 패용제도는 폐지되었다.



〈사격휘장(1964년~197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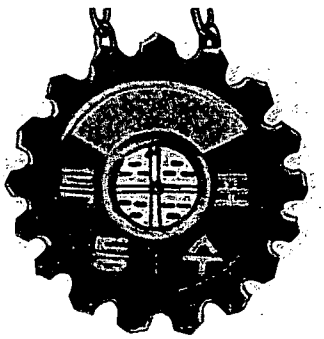
24. 戰車兵 射擊徽章

전차병 사격휘장은 전차병의 사격기술력을 배양 향상시키고 우수사격능력자의 사기진작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1969년 12월 31일, 〈육인제 제421호〉에 의거 제정되었다. 휘장은 우수 전차사수임을 상징하는 정장(正章)과 능력과 등급을 표현하는 부장(副章)으로 구성되었다. 정장은 직경이 2.5㎝ 크기의 원형모양에 하단에는 붉은 색 바탕의 장식띠에 '백발백중'이란 글씨를 양각하고, 장식띠의 좌·우측에서 위쪽으로 향하여 월계수가 둥글게 뻗게 한 다음 월계수가 마주치는 상단중앙부에 작은 별을 새겨 놓고, 중앙부에는 전차모형을 양각한 형태였다. 부장은 정장과 같은 크기의 톱니바퀴 속에 황·청·적의 3원색과 조준경을 양각한 것이었다.

- 중앙의 전차모형 : 전차를 표현
- 상단의 별 : 육군을 상징
- 월계수 : 사격우수 능력자임을 표현
- 백발백중 : 사격술의 달성목표를 표현



정 장



부 장

〈전차병 사격휘장(1969년~1977년)〉

- 부장이 중앙조준총 : 명중률을 상징
- 황·청·적색 : 기갑·보병·포병의 협동작전을 위한 전투병과를 표현
- 톱니바퀴 : 전차의 민첩한 기동력을 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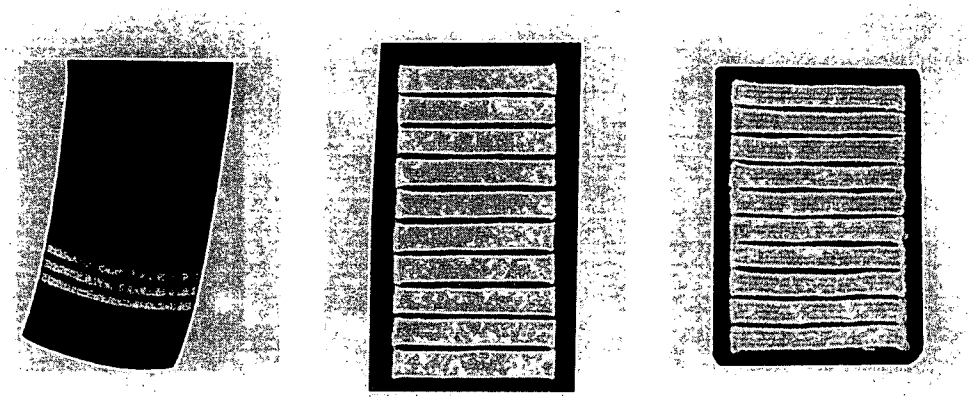
전차병 사격휘장은 사격 휘장과 함께 유명무실해져, 1977년 11월 28일, 〈육인제 제901.3호〉에 의거 패용제도를 폐지하였다.

第5節 標 識

1. 士兵 精勤章

정근장은 사병들의 정복과 예복의 소매에 부착하여 근속 연한을 표시하는 표지(標識)인 동시에 수장(袖章)이기도 하다. 이 정근장은 1967년 1월 9일에 〈대통령령 제2869호〉로 사병 정복 제식이 처음 제정되면서 새로이 제정된 정복의 품위를 높이면서 긍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196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정근장의 규격은 폭이 1㎝×길이가 15㎝의 황색 편직띠로서, 부착대상은 실복무기간만을 합산(근무중 탈영·服刑·停職 등 휴직기간은 제외)하여 3년당 한 줄씩 부착하도



1968년~1970년　　1970년~1982년　　1982년~

〈사병 정근장(1968년~)〉

록 하였으며, 부착위치는 소매하단으로부터 6㎝ 위에 첫 줄의 하단이 오도록 하고, 2줄 이상일 때는 그 간격을 0.8㎝로 하였다. 그후 1971년 2월 25일, 〈대통령령 제5538호〉에 의거, 정복이 장병 공용제식으로 바뀌면서 종전에 부착하던 정근장의 길이가 15㎝로 너무 길어서 4줄 이상 부착하였을 때에는 정근장으로 인하여 오히려 계급장의 품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돋보이지도 않아 계급장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급장의 길이와 같은 7㎝로 변경하였으며, 부착 위치는 소매 외측면 하단으로부터 7㎝ 상단에 첫 줄의 하단이 오도록 하고, 2줄 이상의 표지를 부착할 때에는 그 간격을 계급장의 간격에 맞추어 0.3㎝로 하였다.

이어 1982년 5월 4일에는 〈대통령령 제11·121호〉에 의거, 사병계급장의 정장규격이 변경될 때 정근장의 규격도 이와 함께 변경되었다. 이는 1983년부터 하사관의 근속 연한이 3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정근자의 표지도 9~10줄을 부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됨으로써 정근장의 맨 윗부위가 제복의 팔꿈치까지 올라가게 되어 외관상 불미스러워 7㎝의 길이를 6㎝로 줄이고, 폭도 1㎝를 0.3㎝로 대폭 축소 개정하여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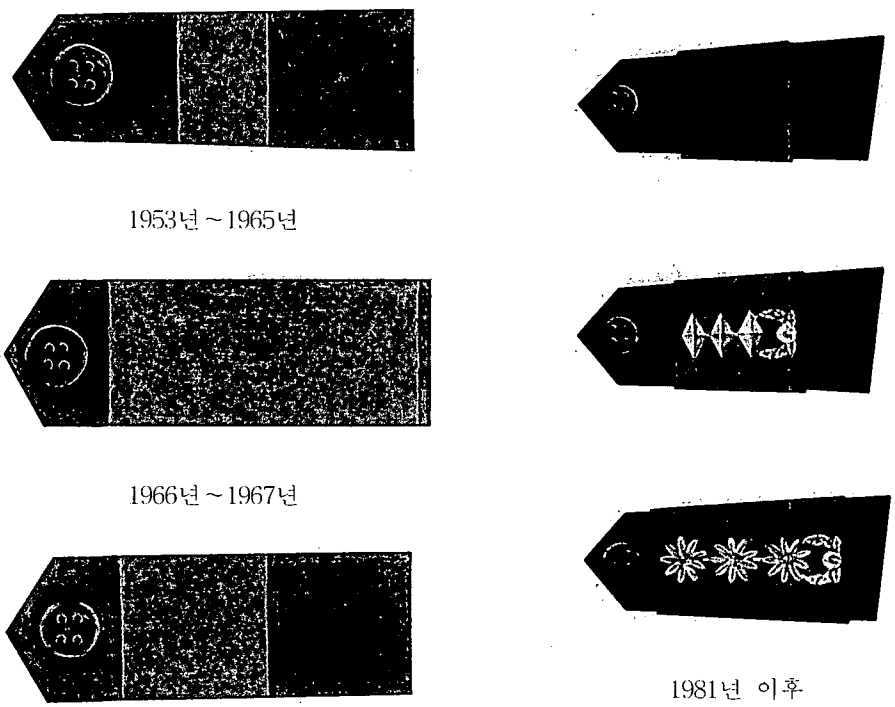
2. 指揮官 標識

지휘관 표지는 휴전직후인 1953년 9월 1일, 〈잠정규정 제22호〉에 의거, 전투지휘관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분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부착한 표지이다. 가로 3cm×세로 5cm의 녹색 비닐 또는 모직으로 제작된 토시형 표지로서, 모든 제복의 견장대에 끼워 착용하였다.

그후 시행과정에서 지휘관 표지 위에 계급장을 부착하는데 있어 표지의 규격이 작아서 일부계급(대위·중령·대령·중장·대장)은 계급장과 표지가 조화되지 않아, 1966년 3월 14일, 〈육인근 제421호〉로 그 규격을 가로 10cm×세로 5cm로 확대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넓은 표지는 식별이 용이하고, 야전상의와 점퍼에 계급장을 부착하는 점에 있어서도 매우 편리하다는 이점은 있었으나, 너무 커서 품위가 없어 보여, 1년 후인 1967년 1월 31일, 〈육인제 제421호〉로 그 규격을 가로 5cm×세로 5cm로 다시 축소 개정하였다.

그후 1980년에는 장교계급장 하단에 무궁화표지가 추가됨에 따라, 일부계급은 표지의 크기보다 길어서 상호조화가 되지 않아, 1981년 4월 1일에 〈육규 제150-1호〉에



1953년~1965년

1966년~1967년

1967년~

1981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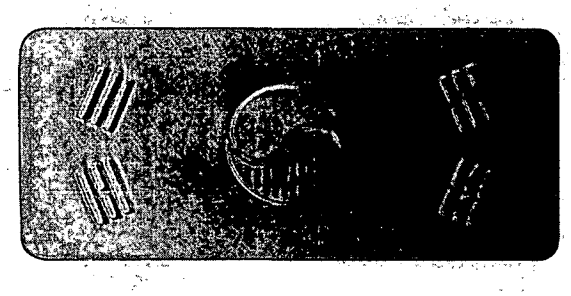
〈지휘관(자) 표지(1953년~)〉

의거, 계급장에 맞추어 정복과 외투에 부착하는 표지의 규격을 대령·중령·대장용은 가로 9.5㎝×세로 5㎝로, 대위·중령·소장용은 가로 7㎝×세로 5㎝로 각각 확대하고, 그 외의 계급과 제복용은 종전과 같이 5㎝×5㎝로 변경없이 시행하였다.

3. 警備隊 및 大韓 標識

1946년 1월 15일, 남조선 국방경비대는 창설시에 계급장과 함께 남조선 국방경비대임을 상징하는 표지를 제정하여 제복의 양측 깃에 부착(계급장은 양측 어깨의 견장 등에 부착)하였다. 경비대 표지는 가로 6㎝×세로 2.5㎝의 사각형의 황금색 금속[黃銅]판 바탕 위에 태극기모양을 양각하였다.

그후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고, 동년 12월 15일, 〈국군조직법〉이 공포되면서 병과가 설치되고 병과휘장을 제정하였으며, 이때 대한민국의 국군임을 상징하는 '대한' 표지를 미군의 'US'표지를 본떠서 모방 제정하였고, 국방경비대 표지는 폐지되었다.



〈경비대 표지(1946년~1948년)〉



장 교



사 병

〈대한 표지(1949년~1959년)〉

새로 제정된 대한 표지는 장교용과 사병용으로 구분되었다. 장교용은 가로 2.5㎝×세로 2㎝의 황금색 금속[黃銅]판에 '대한'이란 글씨를 양각하였고, 사병용은 병과휘장과 같은 크기의 직경 2.5㎝의 원형바탕에 '대한'이란 글씨를 양각하였다. 장병 공히 정복에는 양측 깃의 윗깃에 부착하고, 근무복과 전투복에는 사병만이 우측 깃에 부착(좌측 깃에는 병과휘장 부착)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과정에서 전쟁이란 특수상황이 발생되어, 전투복만 착용하던 전쟁기간에 광택이 나는 금속표지를 부착하게 되면 위장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세탁시에도 불편하였다. 결국 뒤늦게나마 1954년 5월 22일, 〈육인사 제1222호〉에 의거, 전투복에는 부착하지 않도록 하고, 정복과 근무복에만 부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56년 1월 1일부터는 〈육인사 제2349호〉에 의거, 장교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사병만 계속 부착하다가, 1959년에 스텐 칼라형의 점퍼제식의 정복 겸용 근무복이 폐지되면서, 사병만이 부착하던 대한 표지의 부착제도도 폐지되었다.

4. 名　札

명찰을 언제부터 부착하기 시작하였는지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으나, 화보와 사진자료에 의하면 군복이 처음 등장한 1946년부터 6·25전쟁 기간중의 전투복이나 해외 유학장교들의 복장에서 명찰을 부착한 것을 볼 수 있어, 아마도 1951년경부터 명찰을 부착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6·25전쟁 기간중에는 주로 전투복만을 착용하다가 휴전 후에는 근무복도 착용하게 됨에 따라 근무복에도 부착하였고, 정복류에 명찰을 확대 부착하게 된 시기는 1962년 이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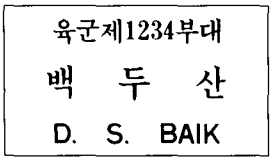
가. 將校 名札

6·25전쟁 중인 1950년 말과 1951년 초에 부착한 장교 명찰은 가로 7㎝×세로 4㎝의 흰색 천에 검정색 글씨로 위로부터 소속과 성명을 쓰고, 성명 아래에 영문으로 이름자의 첫 영문자와 성을 표기하였다. 명찰은 상의의 왼쪽 주머니뚜껑 오른쪽에 부착하였다. 그후, 1951년부터는 도미유학하였던 장교들이 귀국하면서 가로 5.5㎝×세로 2.5㎝의 흰색 종이 위에 검정색 글씨로 성명을 기입하여 가로 7㎝×세로 4㎝의 갈색 가죽케이스 속에 넣어 부착하였고, 유엔군에 소속된 장교는 성명 밑에 영문으

로 성명을 표기하였다.

1955년에는 가로 7.5㎝×세로 2.5㎝의 녹색 모직포 바탕 위에 황색실로 성명을 표기하고 그 아래에 영문으로 이름자의 첫 영문자와 성을 자수로 표기한 것을 부착하였다. 이 녹색 포제는 전투복과 근무복에 겸용하였으나 가죽제는 근무복에만 부착하도록 하였다.[18] 1956년부터는 녹색 포제명찰의 영문성명의 표기방식을 변경하여 한글성명 밑에 영문으로 성만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1962년 4월 27일에는 각령 제700호에 의거, 새로운 제식의 정복이 제정되면서 가



(1950년대 초)



(1951년~1955년)



(1955년~1956년)



(1956년~1962년)



1962년 이후 베이클라이트



(1964년 이후 포제)



(1971년 이후 하약정복용)

〈장교 명찰(1950년~)〉

18) 가죽명찰은 1963년 1월 25일의 〈陸人處 제421.2호〉의 지시에서, 근무복에 베이클라이트제 명찰을 부착하도록 지시하면서도 종전의 가죽제 명찰을 겸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면 많은 수의 장교들이 가죽명찰을 즐겨 부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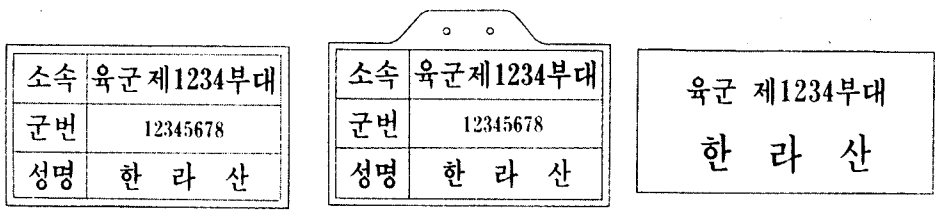
로 7.5㎝×세로 2.5㎝ 크기의 검정색 합성수지인 베이클라이트(Bakelite)[19]에 흰색으로 한글성명을 표기하고 그 아래에는 영문으로 성만을 표기한 정복용 명찰이 사용되었다. 전투복에는 종전과 같은 녹색 포직(布織)의 명찰을 그대로 사용하여 황색실로 한글성명을 표기하고 그 아래에 영문으로 성만을 표기한 것이었다.

이렇게 시행해 오던 과정에서 녹색의 포제명찰은 색상이 전투복 색상과 조화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직인 관계로 명찰의 가장자리가 쉽게 모멸되어, 1964년 8월7일, 〈육인제 제421.2호〉에 의거, 녹색 명찰을 복지색으로 변경하고, 규격을 가로 9㎝×세로 2.5㎝로 크게 제작하였다.

나. 士兵 名札

6·25전쟁 기간중 사병 명찰은 장교 명찰과 같은 규격인 가로 7㎝×세로 4㎝ 크기의 흰색 종이에 투명한 아세테이트(acetate)를 씌운 것으로, 위로부터 소속·군번·성명을 표기하였으며, 장교와 다른 점은 영문자가 없고 그 대신 군번을 추가한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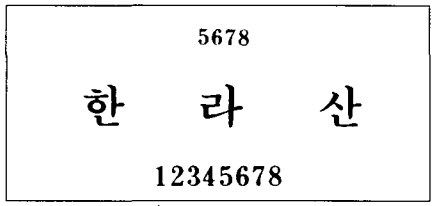
휴전 무렵에는 흰색 모직포로 바꾸고 검정색 실로 자수하여 장교와 동일하게 상의 우측주머니 뚜껑 좌단에 부착하여 좌측주머니 우단에 부착한 계급장과 조화를 이루었다. 1956년에 크기를 가로 7.5㎝×세로 3.5㎝로 줄이고, 표기내용에서 군번을 없애고 소속과 성명만을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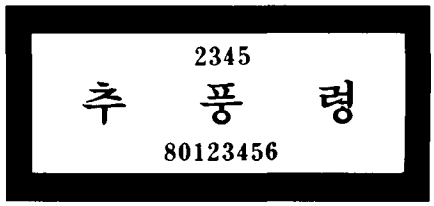
전쟁 중　　전쟁 후　　1956년~1964년

〈사병 명찰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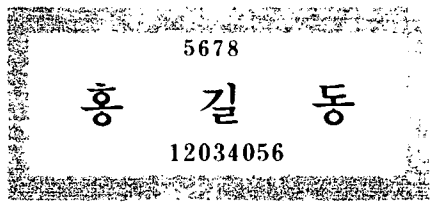
19) 商標名에서 출발된 베이클라이트는 각종 熱 硬化性 합성수지로서 발명자인 Leo Hendrik Baekeland(1863~1944)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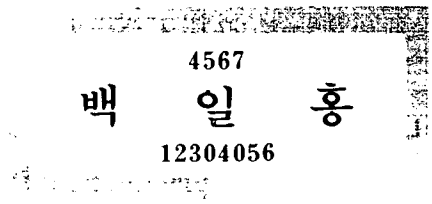
육본 및 육직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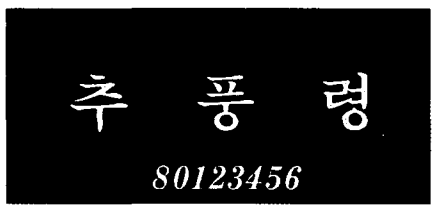
제1군부대



제2군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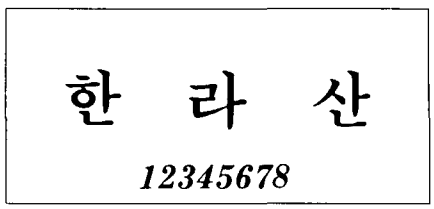


(1964년~1967년) 교총부대



하사관

(1967년~197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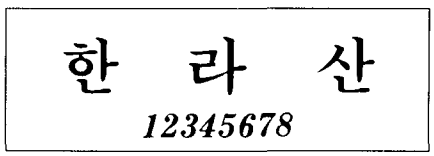


병



베이클라이트

(1971년~1977년)



포제



(197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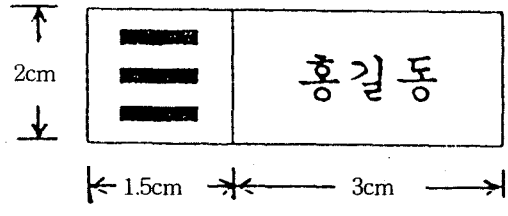
〈사병 명찰 ②〉

그후 1964년 6월 10일, 〈육규 제670-2호〉에 의거, 소속감을 주입시키고 유동병력을 통제할 목적으로 명찰의 형식과 표기방법을 변경하였다. 가로 7.5㎝×세로 3.5㎝ 크기의 투명한 비닐을 겹(2중)으로 하여 테두리에는 소속 군을 상징하는 폭 0.5㎝의 색채 띠(육본·육직부대 : 백색, 제1군부대 : 녹색, 제2군부대 : 황색, 전투병과교육사령부·학교부대 : 적색)를 두른 명찰 틀에 부대 통상명칭(종래와는 달리 숫자만 표기)과 성명 및 군번을 표기한 흰색 켄트지를 틀의 측면으로 끼워 부착하는 제식이었다.

그러나 색채로 소속 군을 구분하는 명찰은 소속부대가 변경될 때마다 바꾸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었고, 특히 무엇보다도 명찰에 통상명칭을 표기하는 것이 보안상 문제점이 있어, 1967년 2월 24일, 〈육인제 제421호〉에 의거, 식별색상과 부대통상명칭을 없애고 성명과 군번만을 표기하는 제식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동시에 하사관과 병의 명찰을 색상으로 구분하기로 하여, 하사관은 검정색 면직포 바탕 위에 황색 글씨로 자수하고, 병은 흰색 면직포 바탕 위에 검정색 글씨로 자수하였다.

1971년에는 정복이 연회색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년 6월 10일, 〈육인제 제421호〉에 의거, 사병 정복에 부착하는 명찰을 장교와 동일한 검정색 베이클라이트로 바꾸고 크기도 같이 하되, 성명과 군번을 황색 글씨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포제명찰의 규격도 베이클라이트명찰과 같은 크기로 축소하였다. 이렇게 되자 명찰은 장교와 사병이 다르고, 하사관과 병이 각각 달라졌으며, 게다가 병의 백색 명찰은 야간위장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쉽게 더러워지는 결함이 있어, 1977년 10월 10일, 〈육인제 제150.2호〉에 의거, 사병의 포제명찰을 장교 명찰과 동일하게 해(該)제복의 복지색으로 변경하고, 성명과 군번은 자수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혹서기복장으로 실내 탈의 근무가 가능한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에 병은 좌측 가슴에 가로 4.5㎝×세로 2㎝ 규격의 명찰을 부착하고 있다. 바탕은 백색이며, 계급은 적색, 성명표기는 흑색으로 한다.



〈사병 혹서기복장 명찰〉

5. 防衛兵 標識

방위병 표지는 1971년에 국방부령 제224호로 방위병제복이 제정될 때 국방색 제복을 착용하는 현역군인과 전투경찰과의 구분을 위해 제정된 표지이다. 가로 11㎝×세로 5㎝ 크기의 황색 포직물 위에 검정색 고딕체 글씨로 '방위'라고 새기고, 상의 좌측 호주머니 상단에 부착하였다. 그후 1974년 5월 1일, 〈국인근 제203.2-230호〉에 의거, 방위 전투복이 국방색에서 얼룩무늬 위장복(예비군복 색상)으로 바뀌면서 얼룩무늬 바탕에는 황색 방위표지가 뚜렷하게 식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비군과의 구별도 곤란하여, 폭 11㎝의 황색 완장으로 변경하여 좌측팔에 부착하였다. 이것은 보급되는 피복에 직접 부착되어 지급되었다.

그러나 이 완장은 시행과정에서 하절기에 팔소매를 걷어 올릴 경우 완장표지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대 보조근무에 임하였을 때 멀리에서도 방위병이란 신분상의 취약점이 노출되어, 예기치 않았던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1978년 12월 8일, 〈육인제 제901.3호〉에 의거하여 완장을 폐지하고 다시 초기에 부착하였던 가로 11㎝×세로 4㎝의 황색 포직제 표지로 바꾸고, 상의 좌측주머니 상단에 부착하게 하였다.



〈방위병 표지(1974년 이후)〉

6. 部隊 標識

부대 표지는 그 부대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부대가 창설 도는 개편될 때 부대기와 함께 제정되어 부대의 전통과 명예를 나타낸다.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사단 및 군단급 부대에 소속된 편제상의 고유부대는 제외)와 학교기관에 한하여 제정 승인하고 있다.

최초에 사용된 시기는 1946년 연대가 창설되면서 각 연대별로 임의로 제정하여 부착하다가, 후에 여단으로 개편되고 사단으로 승격된 후에도 연속 부착하였으며, 1950년 6·25전쟁 초기에도 사단별로 임의의 표지를 제정 사용하였다. 부대 표지가 정식으로 인가된 것은 1952년 10월 25일이었고, 전쟁기간중에는 각종 제복의 팔 상단부에 부착한 것 외에도 부대간판이나 철모 그리고 휴가자 운송버스 등에 부착하기도 하였다.

○ 1968년 8월 5일 : 일제히 제거 : 〈육인제 제150.2호〉(1968년 5월 20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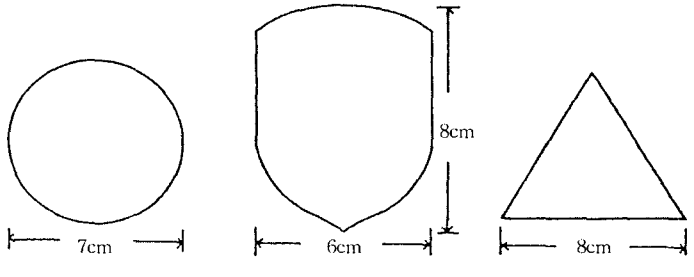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무장공비가 아군의 복장에 부대 표지를 부착하고 침투한 사실과 부대 표지 부착으로 야기되는 제반 보안상의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제거하였다.

○ 1975년 10월 1일 : 재부착 : 〈육인제 제901.3호〉(1975년 5월 1일자)

부대의 전통성을 유지하고 소속감과 애대심(愛隊心)을 조성함은 물론 부대구성원으로서의 단결심을 고취시켜 군풍기 확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시 부착하였다. 1975년 10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는 준비문제와 실험적으로 부착한다는 뜻에서 우선 휴가·출장·외박 및 행사시에 한해서만 부착하게 하고, 1976년 1월 1일부터는 GOP 및 DMZ근무자와 해안경비대원을 제외한 전 부대원이 항시 부착하였다.

○ 1976년 7월 12일 : 제거 : 〈陸人事電 제122호〉(1975년 7월 10일자)

1976년 초여름, 중동부전선 양구(楊口)지구에 침투하였던 무장공비가 아군의 복장에 부대 표지를 부착한 사실이 발견되어 다시 일제히 제거하게 되었다. 단, 1976년 8월 1일부터 수도경비사령부와 통상명칭이 부여되지 아니한 학교기관에 한해서 계속 부착하게 하였다.



〈부대 표지〉

○ 1982년 5월 1일 : 재부착 : 〈육인제 제901.3호〉(1982년 2월 15일자)

군의 경계태세가 완비되고 사회정세가 안정됨에 따라 국방에 자신을 갖게 되자, 부대의 보안보다는 사기면을 더욱 중시하여 부대의 명예와 긍지를 갖게 하고 소속감과 애대심을 조성시켜 부대 단결과 군풍기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1982년 5월 1일부터 접적부대와 해안경계인원(휴가시는 부착)·정보부대원 그리고 훈련중인 신병과 하사관후보생을 제외한 전 장병이 모든 제복에 항시 부착하도록 하였다.

부대 표지의 크기는 부착제복과 타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1982년 8월 1일, 〈육규 제150-1호〉에 의거 같은 크기로 통일 규정하였다.

- 삼각형 : 각변이 8㎝
- 방패형 : 가로 6㎝×세로 8㎝
- 원형 : 직경 7㎝
- 다각형 : 위와 유사한 형태의 면적에 상응하는 크기

7. 海外派遣者 標識

해외파견자 표지는 해외에 교육이나 군사목적으로 파견되는 자가 대한민국 육군의 일원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지이다. 직경 6㎝의 원 속에 태극을 그리고, 그 상단에 원주의 1/3만큼 폭 1.5㎝의 청색 장식띠에 흰색으로 'KOREA'란 글씨를 자수한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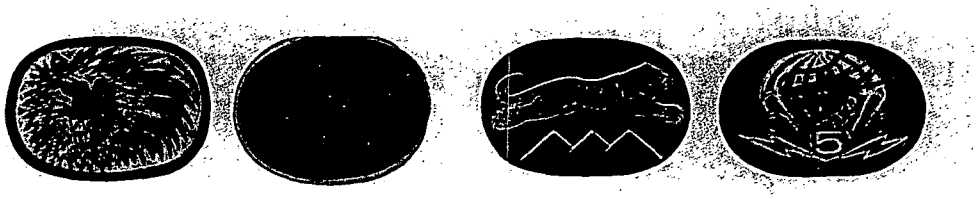


〈해외파견자 표지〉

이 표지는 1950년대에 도미유학하는 장병들이 부착한 것이 시초였으며, 1968년에 부대 표지를 일제히 제거할 때 이 표지도 중지되었다가, 1982년에 부대 표지를 다시 부착하면서 해외파견자들이 각자의 소속부대 표지를 부착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시정 통일하여 종전의 표지로 하였다.

8. 特殊戰 標識

특수전 표지는 특수전 과정을 마치고 숙달기준에 합격하고 동시에 특수전부대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부대의 상징(여단장 이상 부대에 인가)으로 부착하는 표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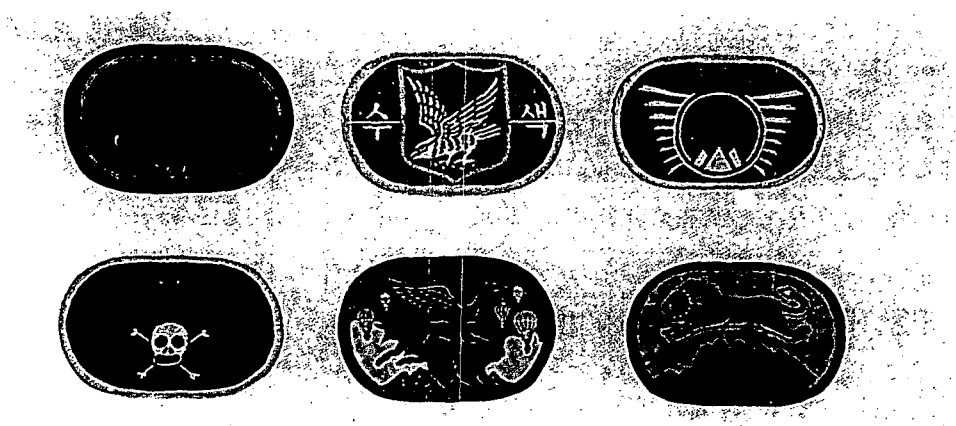


〈특수전 표지(일부)〉

1973년 1월 22일, 특전사령부와 예하 5개 부대의 표지가 제정된 것이 최초이고, 그후에 창설된 부대는 부대기 및 부대 표지와 함께 제정되어 특전복·전투복·야전 상의 좌측주머니 중앙부위에 부착한다. 가로 10㎝×세로 7㎝의 직조제(織造製)표지이다.

9. 搜索隊 標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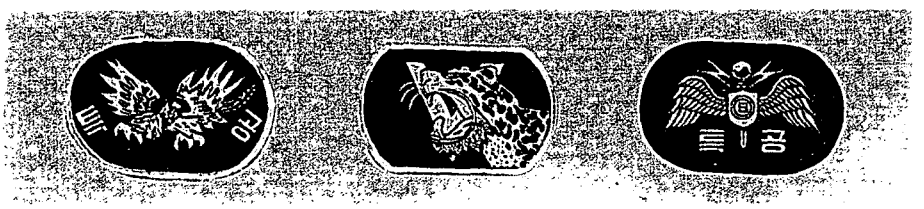
수색대 표지는 야전군의 여단급 이상부대의 수색대원들이 지닌 임무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명감과 명예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표지이다. 1975년 11월 13일, 〈육인제 제150.2호〉에 의거, 각 부대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표상을 새긴 가로 10㎝×세로 6.5㎝의 타원형 표지로 제정 승인되었으며, 1976년 4월 1일부터 근무복·전투복·야전상의 좌측주머니 중앙부에 부착한다.



〈수색대 표지(일부)〉

10. 特攻隊 標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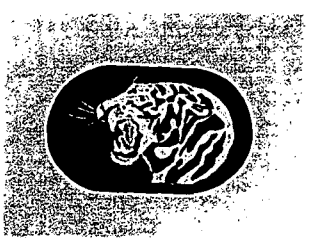
특공대 표지는 1982년 9월 12일 이후 야전군의 군단예속부대로 창설된 특공연대원의 사명감과 명예심을 고취시키고 소속감을 주입시켜 부대단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대기와 함께 제정되었다. 가로 10㎝×세로 6.5㎝의 타원형으로 근무복·전투복·야전상의 등의 상의 좌측주머니 중앙부위에 부착한다.



〈특공대 표지(1982년~)〉

11. 前哨大隊 標識

전초대대 표지는 야전군의 접적부대(GOP 부대)인 전초대대원의 사명감과 명예심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1987년 9월 1일, 〈육인사 제150.2호〉에 의거 제정된 이 표지의 특징은 각 부대의 특성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전방 투입부대의 경계지역노출을 예방할 목적으로 단일 표상으로 통일하였다는 점이다. 가로 10㎝×세로 6.5㎝의 타원형으로, 타(他)특수요원 표지와 같은 형태이며, 근무복·전투복·야전상의 등의 상의 좌측주머니 중앙부위에 부착한다.



〈전초대대 표지
(1987년~)〉

12. 陸軍 射擊指導團 標識

1975년에 육군 사격지도단이 창설되면서 부대의 명예와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표지이다. 1975년 9월 5일, 〈육인제 제901.3호〉에 의거 제정되었다. 직경 8㎝ 원형 속에 백발백중을 상징하는 표적과 총을 교차한 형상 위에 육군

을 표시하는 별, 그리고 승리와 영광을 표현하는 녹색 월계수를 백색 바탕 위에 표현하고, 단결과 평화를 상징하는 외곽 원 위에 '백발백중'과 '육군사격지도단' 글씨를 수식한 형상이었다. 1981년 부대해체와 함께 폐지되었다.



〈사격지도단 표지(1975년~1981년)〉

13. 토우(TOW) 射擊要員 標識

1960년대 말 토우(Tube-launched Optically-guided Wire-tracked missile :對戰車有線誘導미사일)가 도입되어 1976년에 토우중대가 편성됨에 따라, 특수장비의 중요성과 이를 운용하는 장병의 긍지와 사기앙양을 위하여 1976년 3월 30일, 〈육인제 제150.3호〉에 의거 제정된 표지이다.

직경 8㎝의 연한 하늘색 원형 속에 토우부대를 상징하는 녹색의 토우장비를 두고 부대단결을 표상하는 폭 0.5㎝의 청색 원이 둘린 형상이며, '초전박살' 과 '적전차



〈토우 사격요원 표지(1976년~)〉

파괴용사'란 글씨가 자수된 형태이다. 전투복·근무복·야전상의 좌측주머니 중앙부에 부착한다.

14. 勤務者 標識(腕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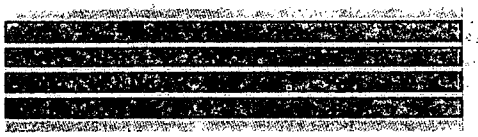
1964년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설된 직후부터 6·25전쟁 발발시까지 근무자는 주번근무자와 공용자(公用者) 표지를 사용하였다. 주번근무자는 일본군의 근무표지제도를 모방하여 폭 10㎝의 흰색 대수(大綬 : 어깨에서 허리에 걸쳐 드리우는 큰 어깨 띠)에 폭 1㎝의 붉은 색 띠를 주번사령의 경우 3줄, 주번사관은 2줄, 주번하사관은 1줄을 그린 표지를 착용하였다.

공용자 표지는 폭 10㎝의 검정색 바탕에 흰색으로 '공용'이란 글씨를 새긴 완장형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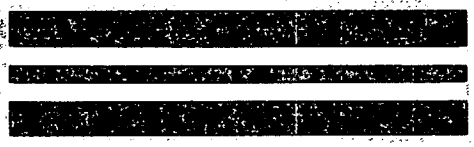
명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6·25전쟁 기간중에 주번근무자의 대수표지는 야전부대에서 사용하기에 번거로움이 많아 폭 10㎝의 검정색 완장으로 바꾸었다. 이 완장에는 근무의 명칭(주번사령·주번사관·주번하사·주번병)을 흰색 글씨로 표기하고, 그 좌·우측에 폭 0.8㎝의 흰색 띠로 주번사령의 경우 4줄, 주번사관은 3줄, 주번하사는 2줄, 주번병은 1줄을 각각 부착하였다.

이와 같은 근무자 표지가 어떤 근거에 의해 착용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당시 미군의 복식규정(AR 670-7)에 의하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정의 완장(brassard)을 사용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식의 대수제식 대신 미국식의 완장제식이 당시의 국방사령부 군무국 미군들의 조언에 의하여 제작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근무자 표지는 1972년 8월 10일, 군인복무규율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명문화(明文化)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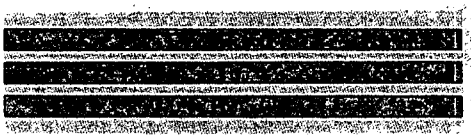
완장의 규격은 가로 40㎝×세로 7㎝로 통일되었고, 그 종류로는 당직근무자(황색바탕에 붉은 색 띠)와 위병근무자(군청색 바탕에 흰색띠) 그리고 불침번근무자(군청색바탕에 흰색 글씨)·공용(군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군기순찰자(군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 등이 있었다. 이외에 완장제식에 헌병완장이 있다. 헌병완장은 1953년 9월 20일, 당시의 헌병사령부에서 제정한 헌병복장규정에 의하여 가로 36.5 ㎝×세로 9.5㎝의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헌병'이라고 표기한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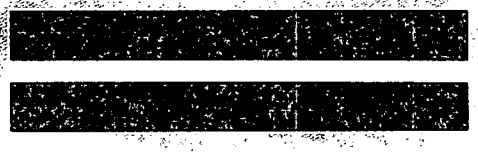
당직사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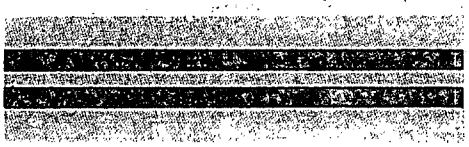
위병장교



당직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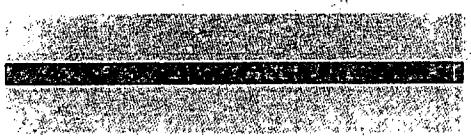
위병하사관



당직사관



위병조장



당직하사관



불침번



당직병



공 용



헌 병



군기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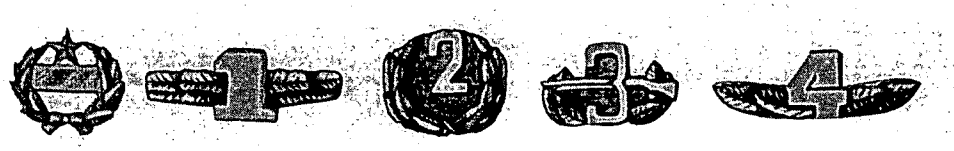
〈근무자 표지 완장(1972년 이후)〉

15. 陸軍士官學校 士官生徒 標識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표지에는 생도휘장과 학년장·견장·모장 등 전 생도가 다 함께 부착하는 것과 성적이 우수한 우등생휘장 및 특정된 직위생도만이 부착하는 근무자직위장 등이 있으며, 이들 표지는 생도제복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각각 달리 부착하고 있다.

가. 生徒徽章 및 學年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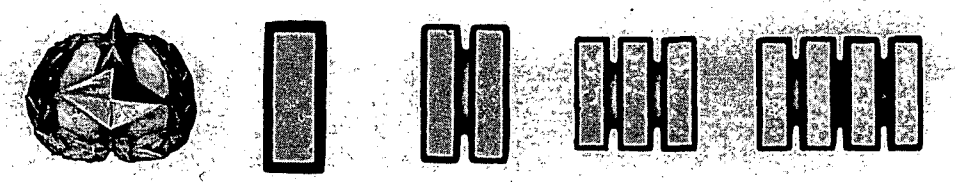
최초의 생도휘장과 학년장은 1951년 10월 31일, 4년제 육군사관학교로 재개교하면서 제복과 함께 제정되어 상의의 깃에 부착하였다. 생도휘장의 모양은 당시의 장교 계급장 형태를 옆으로 놓은 황금색 직사각형 위에 작은 별을 올려 놓고, 좌·우측으로



1951년 10월~1955년 2월



1955년 3월~1959년 2월



1959년 3월~현재

〈육군사관생도 휘장 및 학년장(195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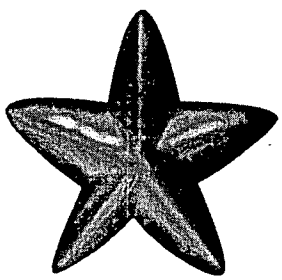
둥글게 월계수를 감싼 형태였다. 학년장은 백색 칠보로 학년을 표시하는 아라비아숫자에 좌·우측으로 황금색의 무궁화잎을 장식한 형태였다.

생도휘장은 제복의 좌측 깃, 학년장은 우측 깃에 각각 부착하였다. 그후, 1954년 5월에 장교계급장의 형태가 변경됨에 따라, 1955년 3월, 생도휘장을 바꾸면서 학년장도 변경하였다. 생도휘장의 크기와 모양은 종전과 같게 하되, 내부의 황금색 직사각형을 새로 개정된 소위 계급장형태와 같은 마름모꼴 금강석형태로 변경하였으며, 학년장은 가로 0.5㎝×세로 1.5㎝ 크기의 은색으로 도금된 사각형모양을 학년당 1개씩으로 정하고, 학년이 오르면 1개씩을 가로로 증가시켜 배열하였다.

1959년 3월에는 생도휘장과 학년장의 기본형태는 변경하지 않고 다만 크기와 형태만을 조정 보완하여, 생도휘장은 3·4학년휘장의 폭과 균형이 맞게 좌·우측을 약간 넓혔으며(가로 3.5㎝), 학년장은 한 개의 크기를 가로 0.7㎝×세로 2㎝로 조금 크게 하고, 백색 칠보를 입혀 선명하면서 돋보이게 하였다. 이 같은 생도휘장과 학년장은 정복, 예복, 근무복 그리고 전투복 등 모든 제복에부착하였다가 1980년 이후에는 장병의 계급장을 포제로 제작보급함에 따라 전투복에는 금속제 대신 포제생도휘장과 학년장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優等生 徽章

우등생 휘장은 일반학과 군사학의 성적이 90% 이상인 생도에게 수여하여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타 생도들을 자극시켜 학구열을 높이기 위해 1952년에 제정된 휘장이다. 직경 1㎝ 크기의 원에 내접하는 입체형의 황금색 별로서, 모든 제복(예복·정복·근무복·전투복)의 우측 깃 학년장 옆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우등생 휘장(1952년~)〉

다. 勤務生徒 職位章

근무생도 직위장이란 생도들이 상급학년이 되면 임관 후에 실병지휘를 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배양해 주기 위하여, 기성부대의 연대 또는 여단기구로 편성된 생도대를 아래로는 부분대장(副分隊長)으로부터 위로는 여단장까지의 직위와 각급제대의

참모직위에 임명하여 자치제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이들 근무생도들을 외형적으로 직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제정된 표지를 말한다.

4년제로 재개교된 1952년부터 연대규모로 편성된 생도대는 1972년 2월 2일 〈육인제 제150.2호〉에 의해 생도수가 증가하면서 여단규모로 확대 편성되었고, 직위표지도 다시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직위표지는 녹색의 나사지바탕에 황색 나사지로 표시한 것은 근무복과 전투복의 오른팔에 부착하고, 녹색 나사지바탕에 황금색 금사로 수식한 것은 예복의 양측 팔에 부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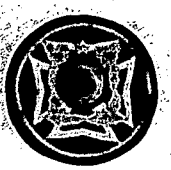
라. 肩章(學年章)

생도견장은 어깨에 부착하여 학년을 표시하는 표지이다. 처음 부착하기 시작한 것은 1959년에 생도용 반코트가 폐지되고 긴코트 외투가 제정되면서 양측으로 처진 어깨 부위를 보완함과 동시에 품위를 높이고 위엄성도 갖출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외투 깃과 같은 색의 진한 밤색 우단바탕으로 목 방향이 팔자형이면서 폭이 약간 좁아지는 5각형 모양에, 위쪽에는 생도단추, 아래쪽에는 생도휘장을 부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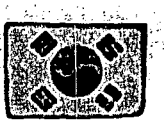
1968년 5월 16일, 〈육인제 제421호〉에 의거, 흰색 반소매의 하약정복이 새로 제정되면서 생도휘장과 학년장을 양측 깃에 부착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게 되었고, 이에 생도의 신분과 학년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견장으로 개정하였다. 하약정복인 흰색 면직포 바탕 위에 상단에 생도단추, 중앙부에 생도휘장 그리고 하단부에는 학년을 표시하는 황금색 금사직 띠를 학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착하였다.

- 1학년 : 0.8㎝ 폭 1조
- 2학년 : 0.8㎝ 폭 1조와 0.4㎝ 1조
- 3학년 : 0.8㎝ 폭 2조
- 4학년 : 0.8㎝ 폭 2조와 0.4㎝ 1조

그후 1970년에 동정복이 개정되면서 외투에 부착한 견장이 미관상 좋다는 평에 따라 동정복에도 견장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이 동정복용 견장은 동정복지인 회색 바탕 위에 상단에는 종전에 부착하였던 생도단추는 제거하고, 생도휘장을 부착하고, 그 하단에 학년을 표시하는 황금색의 폭 0.8㎝ 금사직 띠를 학년당 1조씩 부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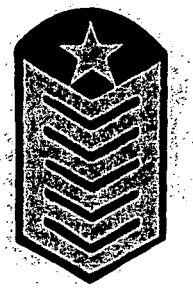
교기기수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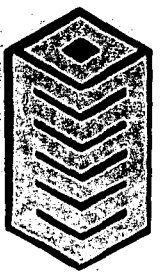
국기기수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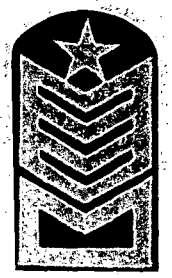
여단기수호위생도



여단장생도



부여단장생도



여단인사참모생도



여단과외활동
참모생도



여단작전
참모생도



여단군수
참모생도



여단체육
참모생도



여단인사참모
보좌관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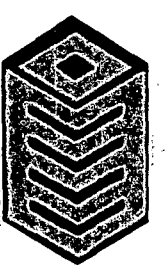
여단군수참모
보좌관생도



여단선임
하사관생도



연대장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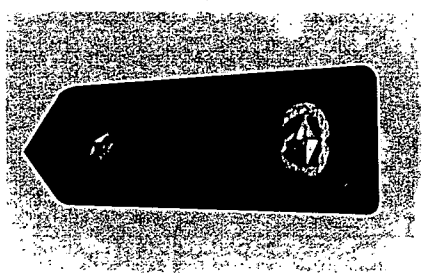


부연대장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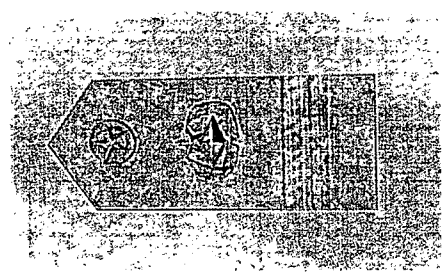
〈육군사관생도 근무직위장(1972년 이후)〉

1971년에는 하약정복의 하의를 동정복 색상인 회색으로 바꾸고 명칭도 하정복으로 바꾸면서 흰색 견장도 동정복에 부착하는 회색 바탕의 견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외투의 견장도 밤색 바탕을 외투 복지색 바탕인 진회색으로 바꾸고, 수식도 생도휘장과 학년표지만을 부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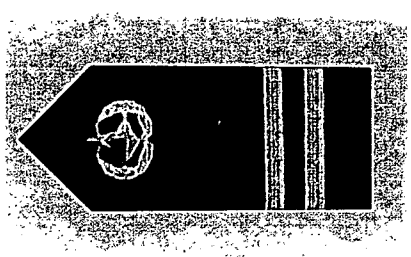
1974년, 예복 상의의 앞면 흉부부위를 붉은 색으로 단장한 형태로 바뀔 때 예복에도 견장을 부착하게 되었다. 새로 제정된 예복견장은 군청색 바탕에 가장자리에는 폭 0.5㎝ 넓이의 금사 모르로 장식하고, 하단부의 둥근부분에는 길이 5㎝의 황색 견사 꼬임줄을 부착하였다. 바탕의 표지는 상단에 황금색 반구형 단추를 달고, 중앙부위에는 칠보로 단장한 학년장을 부착하였으며, 하단의 둥근부분 내부에는 3개의 동심원을 두고 그곳에 태극을 수놓고 그 주위는 무궁화잎으로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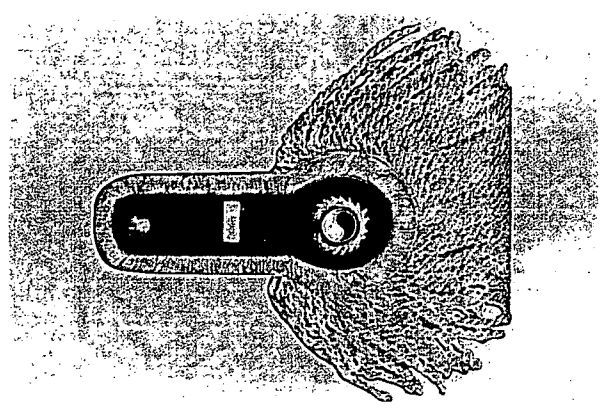
외투용(1959년~1970년)



하약정복용(1968년~1970년)



정복외투용(1970년~)



예복용(1974년~)

〈육군사관생도 견장(1959년~)〉

第6節 服 飾 品

군복의 복식품은 표지장의 범주에는 포함시킬 수 없지만 군복차림 자체를 보완하거나 실용적 부수품으로 장식적 효과도 내면서 표지장과 함께 직위나 신분도 나타내게 하는 것이다. 이에는 단추·요대·버클·권총 요대·견식줄·목도리(머플러)·예식도·지휘봉 등이 있으며, 이 복식품들은 전 장병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종류, 또는 특수직위나 신분 및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자만이 사용하는 종류 등 비교적 다양한 상태에 있다.

1. 단 추

군은 1950년대 초반까지는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주로 전투복만을 착용하고 정복은 거의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속제 단추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여유가 별로 없었다. 게다가 행사시 등에 간헐적으로 착용하는 정복도 미 군원으로 도입된 미군복을 그냥 지급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제식이라고 할 수 없었다.

1958년, 연미복·만찬복·예복 등이 최초로 제정되면서 금속제 단추를 제작 부착한 것이 고유 단추사용의 시작이 되었다. 장교용은 활짝 핀 무궁화문양을 사용하였고, 사병용은 무늬가 없는 평탄한 형태였으며, 크기를 2개로 하여 직경 2㎝의 중형 단추는 제복의 앞면에 부착하고, 1.5㎝의 소형 단추는 견장대·주머니의 잠금용·모자의 귀단추·예복계급장 등에 사용하였다.



1975년 이전　　1975년 이후

〈단추(1975년~)〉

그후 1962년 4월 27일, 〈각령 제700호〉에 의거하여 군인복제가 정부 차원의 규제사항으로 정해지면서, 장병의 구분없이 장교 모표문양이 들어 있는 것으로 통일하고, 크기는 종전과 같게 하였다. 다만, 사병정모의 귀단추만은 사병 모표문양이 들어있는 검정색 금속제 단추를 달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이듬해인 1963년 3월 18일에 〈각령 제1232호〉로 검정색을 황금색으로 바꾸었다.

1967년 1월 9일에는 〈대통령령 제2869호〉에 의거, 외투용 대형 단추를 추가 제정하였고, 동년 8월 7일의 〈대통령령 제3172호〉로 사병용 단추의 문양도 장교 모표문양으로 통일하면서, 규격을 직경 2.6㎝ 내외의 대형, 직경 2.3㎝ 내외의 중형, 직경 1.7㎝ 내외의 소형으로 구분 규정하였다. 1975년 9월 30일에는 〈대통령령 제7837호〉로 당시까지 부착하여 오던 단추의 문양 중 가장자리의 무궁화 잎사귀 형상이 복잡하고 품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도 조잡하여, 무궁화 잎사귀 문양을 선명하게 개선하고 그해에 재(再) 제정된 만찬복과 예복에 우선적으로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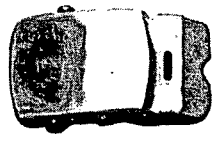
2. 腰帶 및 버클

군복을 착용함에 있어서 필수적 부수품인 요대와 버클제식이 정식으로 규제된 것은 1962년 4월 27일의 〈각령 제700호〉이다. 요대와 버클은 창군 이후 미군이 착용하여 오던 것과 같은 모양을 착용하였으며, 요대는 폭 3.5㎝의 소폭(小幅)으로 짜인 편직물이었고, 버클은 금속제였다. 1967년 1월 9일, 〈대통령령 제2869호〉에 의한 군인복제령이 개정되면서 버클의 형식도 A형과 B형으로 구분하였다.

A형은 당시까지 착용하여 오던 가로 4..8㎝×세로 3.6㎝ 크기의 황동판 평면형이다.

B형은 가로 4.7㎝×세로 4.5㎝ 크기의 사각형 고리모양으로 착용하였을 때 폭 0.5㎝의 사각·골격부분만이 보인다. B형 버클은 1963년 3월 18일의 〈각령 제1232호〉에 의하면 해병대용으로만 한정되었던 것이었으나, 잠정적으로 타군도 착용하도록 인가하면서 주로 사병에게만 지급하였다. B형 버클은 A형 버클이 포복훈련시 표면이 거칠어지는 단점을 메꾸기 위해 자주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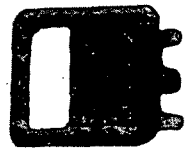
월남전을 수행하였을 때는 파월장병들이 현지에서 검정색 요대를 지급받아 착용하는 사례가 많아, 1967년 7월 8일, 〈육인제 제421호〉에 의거, 카투사로 파견된 장병들과 파월장병에 한하여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검정색 요대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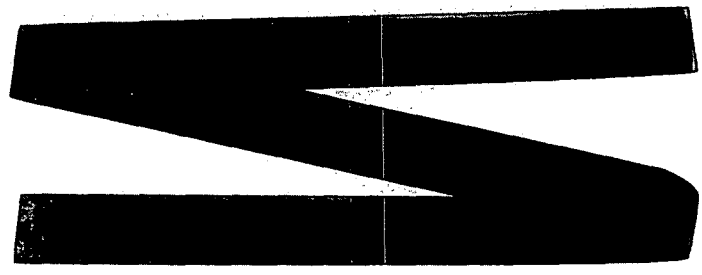
1971년 이전



1971년 이후
B형 버클



1971년 이후
A형 버클



〈요대 및 버클(1971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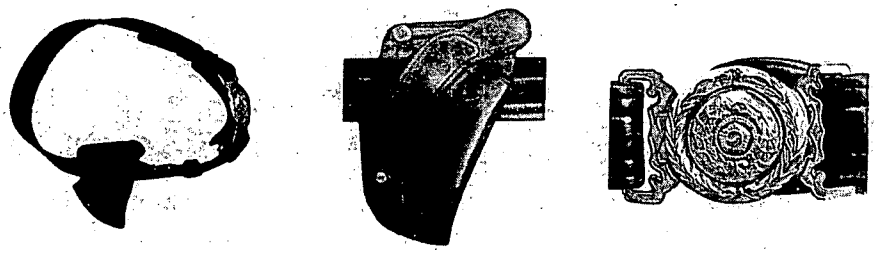
그후 1960년대 후반기부터 파월한 장병들이 A형의 황금색 버클이 위장에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검정색 테이프를 붙여 착용함에 따라 1971년 2월 25일, 〈대통령령 제5538호〉에 의거, 검정색 무광채로 바꾸고, 요대의 색상도 각군의 다양한 제복 색상을 고려하여 각군 실정에 맞는 색상을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여기에 1976년 7월 10일에 새로이 제정된 흑청녹색의 동근무복과 흑청녹색 요대가 추가로 제정됨에 따라, 요대의 색상은 국방색·연회색·흑청녹색 총 3종류로 늘게 되었다.

3. 구경 38 拳銃腰帶 및 집

구경38 권총요대와 집은 장관급 장교가 지급되는 권총을 휴대할 때 품위를 고려하여 고안 사용된 복식품을 뜻한다. 장관급 장교들이 애초에 권총을 별다른 규정없이 임의로 미군식 요대를 사용하여 착용한 것은 장관급 장교들에게 지급된 권총 자체가 45구경이 아닌 리볼버라는 특수한 권총이었고, 이와 동시에 '장군'이라는 특수 신분과 위엄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전 장병에게 지급되었던 개인장구인 요대를 사용하지 않았음은 확실하다.

6·25전쟁 기간에는 별이 입체적으로 양각된 버클이 부착된 갈색 요대의 미군의 것을 그대로 착용하였으며, 휴전 후에는 버클의 내부 원형에 장관급 장교와 군을 상징하는, 큰 별이 양각되고, 외부 테두리 원에는 무궁화잎이 장식된 은색 또는 황금색을 도금한 버클이 부착된 요대를 착용하였다.

그후, 1963년 3월에 장교모표가 자수제에서 금속제로 변경됨에 따라 그 문양이 명확하고 보기가 좋아지면서 권총 요대버클은 별문양에서 장교모표문양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식이 당시의 육군규정에 규정되지는 못하였고, 〈육군규정 제1-7호〉로 최초로 규정한 시기는 1969년 9월 1일이다. 그러나 당시의 권총요대가 검정색 가죽에 백동으로 제작된 버클이 부착된 요대에 권총집을 끼워 착용하는 형태로 규정은 되었으나, 다만 일괄 지급되지 못하여 각양 각색의 것을 착용하는 실정이었다. 1976년 1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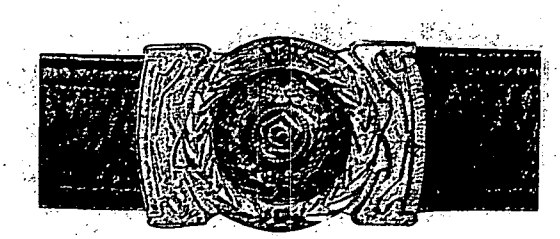
요 대　　집　　버 클

〈권총 요대 및 집〉

〈국인근 제203.2-31호〉에 의거, 장관급 장교의 권위를 신장시키고, 복장의 품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괄지급이 되면서 비로소 그 제식이 통일되게 되었다. 이렇게 규제된 권총요대는 권총집을 착탈식으로 하였으며, 전투복과 근무복을 착용하고 실외활동을 할 경우 필요에 따라 요대에 끼워 착용하도록 하였다.

4. 가죽 腰帶(將官級 將校)

폭 4㎝의 장관급 장교용 흑색 가죽요대는 당시 모든 제복에 착용하고 있는 소폭 편직요대가 착용제복의 복지색에 맞추어 제작되어 품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서, 장관급 장교들의 품위를 고양하면서 필요시에는 권총집만을 끼우면 권총까지 용이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1985년 9월 4일, 〈육인사 제150.2호〉에 의거, 장관급 장교는 평상시 근무복과 전투복차림에 착용하게 되었다.



〈가죽 요대(1985년 이후)〉

5. 肩飾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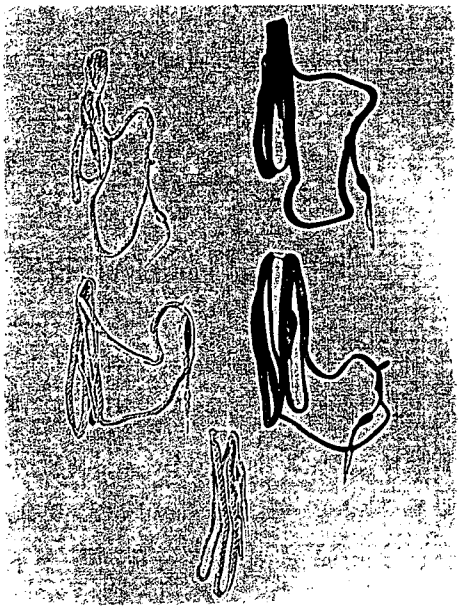
견식줄이란 실끈을 '八'자 모양으로 연속 엮어서 만든 장식용 줄이다. 이에는 제복의 견장대에 걸어서 어깨와 허리 부위를 장식하는 행사요원용 일반견식과 가슴부위를 장식하는 참모견식 그리고 약례장 차림을 할 때 어깨부위를 장식하는 약례장견식 등이 있다.

가. 參謀 肩飾

창군 후, 1949년 5월, 여단이 사단으로 승격되면서 동년 8월 15일부터 미군제

식에 따라 사단급 이상 부대의 일반참모와 고급부관 그리고 전속부관이 착용하였다. 이 제식이 정식으로 규정된 것은 6·25전쟁 기간중인 1952년 12월 15일의 〈육인사 제2241호〉였으며, 당시의 패용대상은 다음과 같았다.

- 참모차장
- 육본 일반참모비서실장
- 사단급 이상 참모장 및 일반참모
- 시종무관
- 외국주재 대사관 무관



〈참모 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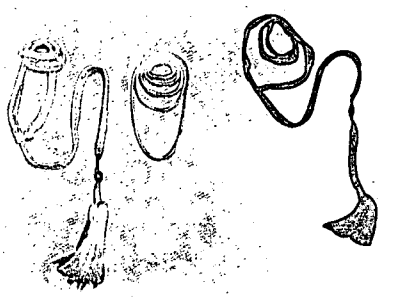
1962년 이후에는 군인복제가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면서, 이에 따른 세부규칙을 각군의 사정에 맞도록 규정하도록 하였고, 참모 견식은 1964년 6월 15일, 〈육군규정 제670-2호〉에 의거, 그 종류와 패용범위 그리고 패용요령에 대하여 규정되었다. 패용시기는 일반 및 특별참모의 경우 의식행사와 지휘관의 지시가 있을 때 패용하였고, 장관급 장교의 전속부관은 항시 패용하도록 하였다.

참모 견식의 종류와 패용 요령

종 류	품질 및 색상	패 용 범 위	패 용 복 장	패용요령
1 종	금색 견사 및 금사	일반참모	예복·정복	오른쪽 어깨
2 종	국방색 견사	〃	근무복·전투복	〃
3 종	은색 견사 및 은사	부관참모	예복·정복	왼쪽 어깨
4 종	청색 견사	〃	근무복·전투복	〃
5 종	금색 견사 및 금사	전속부관	전 복장	〃

나. 一般 肩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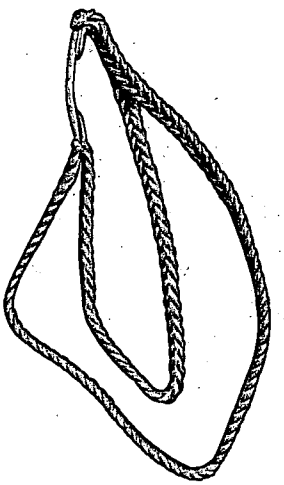
일반 견식은 헌병들이 일상근무시나 행사복을 착용할 때 패용하는 흰색 견식줄과 행사요원들이 의(예)식 행사시에 장식목적으로 패용하는 홍색 견식줄의 2종류가 있으며, 통상 좌측 어깨에 패용하나 헌병과 여군의 드럼메이저들은 양측 어깨에 패용한다.



〈일반 견식〉

다. 略禮裝 肩飾

1979년, 새로이 규제된 예복이 예산문제로 제한된 인원(장관급 장교·주외무관)에게만 지급하게 됨에 따라 예복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반장교들에게 정복으로 예복차림을 대신할 수 있는 약례장(정복차림에 흰색 와이셔츠와 예복계급장을 부착함)제식이 11월 7일, 〈국인근 제918.2-565호〉에 의해 제정되면서 보다 장식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약례장 견식줄을 추가로 패용하였다. 황금색 견사를 꼬아서 만든 약례장 견식은 우측 어깨에 패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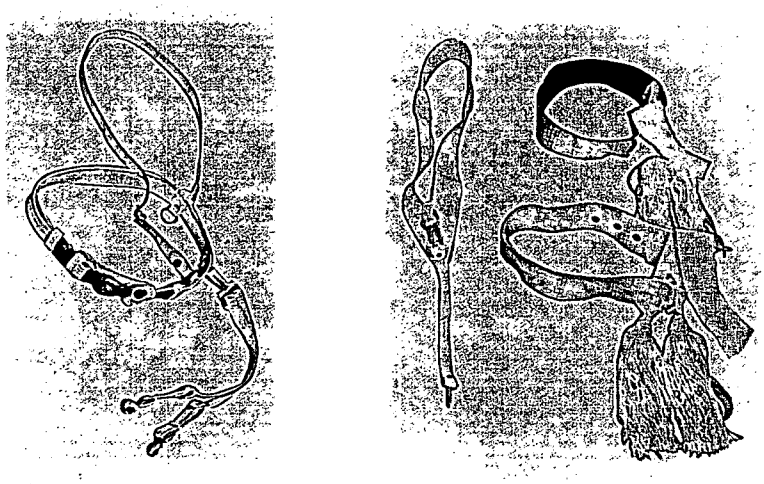


〈약례장 견식〉

6. 禮 式 用

예식용 띠는 행사요원이 의(예)식 행사복차림을 할 때 행사복과 함께 착용하는 띠로서, 양측 어깨에 걸치는 X형 띠와 한쪽 어깨에만 걸치는 Y형 띠 그리고 허리에 두르는 예복 띠 등이 있다. X형 띠는 창군과 동시 미군의 것을 모방하여 의장대의 기수가 부대기를 휴대하거나 군악대원이 악기를 휴대할 때 착용하기 시작하였고, 그후 1953년부터 육사생도의 예복이 제정되면서 기수생도도 착용하였다. Y형 띠는 헌병이나 행사요원들이 허리띠가 내려가지 않도록 어깨에 걸어 허리띠에 결속 착용하였다.

예복 띠는 1968년 5월 16일, 〈육인제 제421호〉에 의거, 육사생도 예복에 붉은 색 예



X형 띠　　Y형 띠　　예복 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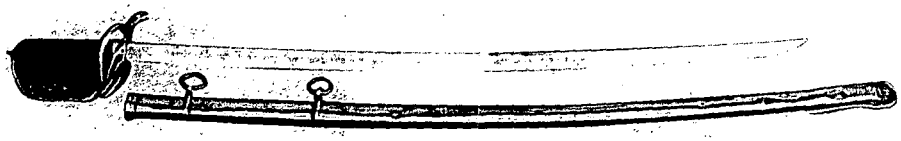
〈예식용 띠〉

식용 띠를 착용한 것이 시초였다. 1974년의 국군의 날 행사에 대비하여 육사생도의 예복이 개정되면서 붉은 색을 황색 띠로 변경하였고, 국악대원도 황색 띠를 착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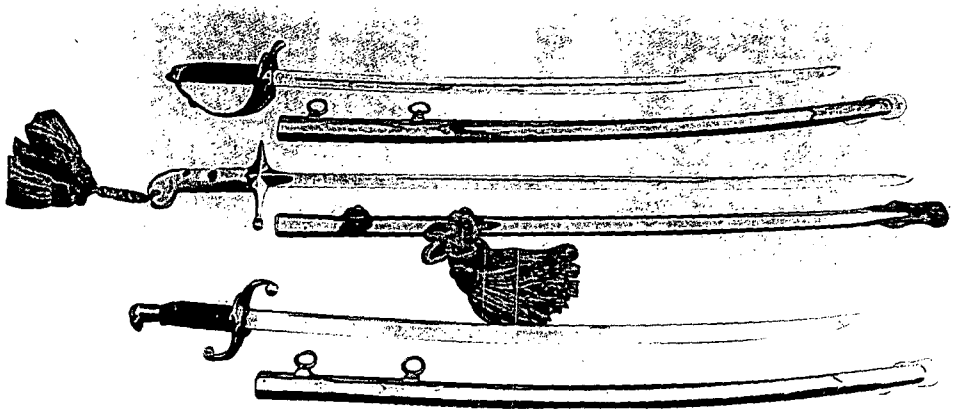
7. 禮 式 刀

육군에서 공식적으로 예식도를 휴대하기 시작한 것은 6·25전쟁 기간중인 1951년 9월 3일, 경북 대구에서 육군의장대가 편성되면서 의장대장의 휴대장비로 규정되었다. 다만, 특정한 제식이 있은 것이 아니고 일본군이 휴대하던 일본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후 육군의장대 편성이 확대 개편되면서 소요가 늘어나게 되자 일본도의 획득이 곤란하여 모조품으로 대신하여 1960년대까지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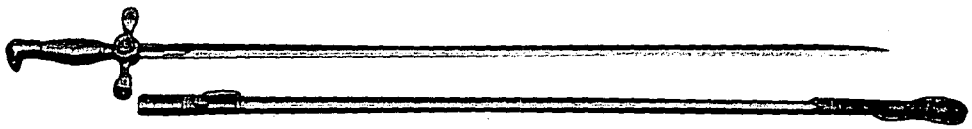
한편 육군사관학교에서는 1955년 이후 장교직위에 임명된 근무자생도에 한하여 의식행사시에 예식도를 휴대시켰다. 육사생도들이 휴대하는 예식도는 육군의장대와는 달리 미 육사(West Point)의 예식도를 모방한 것이었다. 그후 1971년 2월 25일, 〈대통령령 제5538호〉로 처음으로 예식도 제식이 규정되어, 육·해/해병대·공군 공히 새로운 제식의 예식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제식은 모양이 둔하고 무거워 의장대나 육사에서는 종전의 예식도를 계속 사용하여 오다가, 1976년에 육사에서 당시까지 사용하여 오던 예식도가 낡고 미 육사생도용 제식일 뿐만 아니라 길이와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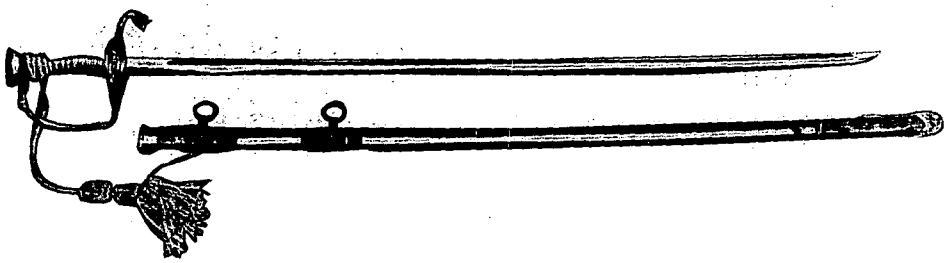
초대 의장대장 李康石소위 휴대 일본도



모조 일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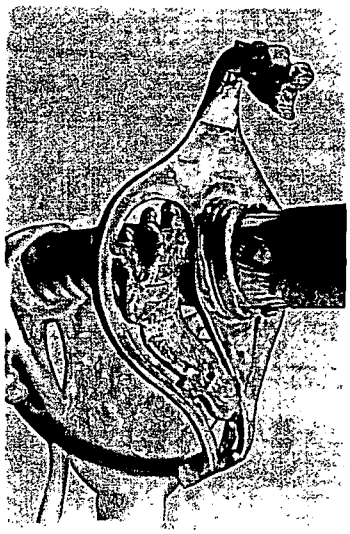


육사 예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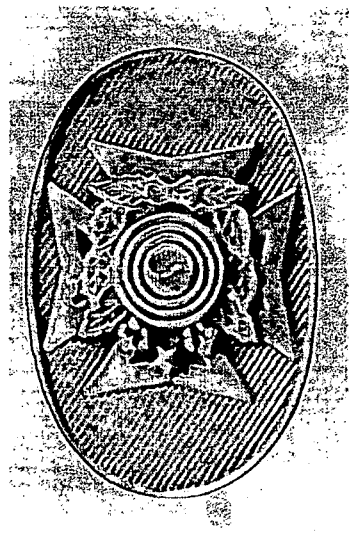


육군 예식도

〈예 식 도〉



예식도 格 무늬



首의 육사부대 표지

〈예식도 무늬〉

게 등이 우리의 체질에 부적합하여 새로운 제식이 건의되었고, 육군에서는 이를 예식도 제식으로 결정하여, 1977년 8월 16일, 〈대통령령 제8648호〉로 확정 개정하였다.

통일된 예식도의 총 길이는 90㎝, 손잡이의 길이는 12㎝였으며, 격(格)에 용의 머리를 조각하여 품위를 제고시키고, 호랑이를 장식하여 용맹을 과시하였으며, 무궁화를 새겨 애국애족과 민족정기를 표현하였다. 수(首)에는 부대 표지를 새겨 소속을 나타내었다.

8. 指 揮 棒

지휘관 고유의 지휘권을 상징함은 물론 위엄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사용되어 오던 지휘봉은 일정한 규격이나 사용에 관한 규정없이 내려오다가, 이것이 군 복제의 일부로서 인정된 것은 1976년 1월 23일의 일이다. 〈국인근 제203.2-31호〉에 의거, 장관급 장교들은 대통령 하사품으로 지급받았고, 육군에서는 사용한계와 휴대요령에 관한 사항을 1976년 2월 1일, 〈육군규정 제1-7호〉로 규정하게 되었다. 지휘봉은 흑색 가죽으로 길이는 60㎝이고, 손잡이 뒷면의 두부에는 대통령 문장인 봉황표지가 새겨진 금속판을 붙혔다. 이 지휘봉은 예복 착용시와 대통령이 임석하는 주요행사에 휴대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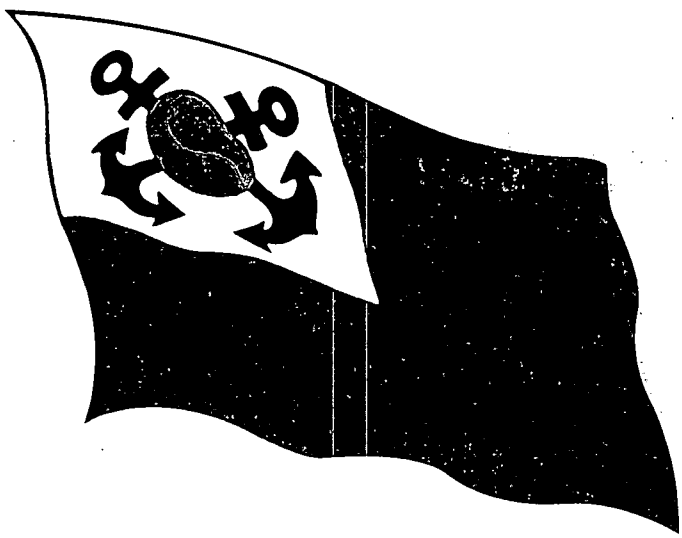
머리쪽 문양



지휘봉

〈지 휘 봉〉

第 2 篇
海軍・海兵隊



海　　軍

오랜 기간 동안 해군의 복장은 육군처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착용되어 왔으며, 이는 18세기 중반까지 계속되어 온 현상이었다. 대략 1860년대에 이르면서 해군의 군대복장이 대두되기 시작였으나, 그나마 대단히 간단하면서도 각국이 거의 같은 형태와 형식의 군복을 착용하였다.[1]

각국이 해군 복장의 표준형으로 삼은 것은 영국 해군 복장이었다. 당시 영국 해군은 19세기의 해상(海上)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 점은 각국 해군의 복장까지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1900년대로 접어들면서 각국의 해군복장은 복장의 형태 뿐만 아니라 계급장 표시에 있어서까지 더욱 더 영국형을 닮아 갔다.

해군 복장의 첫 착용시기 색(色)은 짙은 청색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다만 하절기와 적도부근에서의 활동시에는 흰색 리넨(linen : 亞麻布. 유럽이 원산지로서 껍질의 섬유로 실을 짠다)을 대신 착용하였다. 단추나 서열(序列)을 구분하기 위한 것 등은 모든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금색을 사용하였으며, 은색 단추나 뱃지를 착용하는 자들은 행정직(行政職)을 의미하였다. 세계 각국의 해군은 색상과 복식의 구조 면에서 공통적인 재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색상 유래와 구조의 공통성은 아래와 같다.

○ 세계 각국 해군 복장의 색상 유래

세계 각국 해군 복장의 색상은 주로 청색과 백색 및 흑색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영국 해군에서 유래된 것으로, 청색과 흑색은 바다에서 주로 활동해야 하는 관계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 백색은 육지에서 깨끗하고 단정한 이미지를 표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영국 해군성이 청색 및 백색을 해군 색으로 선정한 시기는 1745년이었고, 당시 조지 2세가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되어 있었다. 조지 2세는 이를 결정하기

1) Herbert Knötel, Jr., and Herbert Sieg, *Uniforms of the World*, London : Arms and Armour Press, 1956, pp. 443-444

직전 당시 해군장관 부인인 베드포드 공작부인이 공원에서 청색과 백색의 승마복을 갖추고 승마하는 모습을 보고 이 복장에 마음이 이끌리어 해군 복제의 기본색을 청색과 백색으로 정하였다고 전한다. 이 일화의 진위 여부야 어떻든 이후 세계 각국의 해군 복제는 주로 청색과 백색 및 흑색의 색상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 복제의 특징

해군이 사용하는 복제 중 대부분은 해상에서의 자유로운 활동과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로 유사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 해군 사병의 정모 (일명 : 빵모자)

해군 사병의 정모는 일명 '빵모자'라고도 한다. 이는 백색 면사로 되어 있어 수축성이 뛰어나며, 머리에 썼을 때 쉽게 날리지 않고, 심한 바람이 불 경우 이를 눌러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투시 철모를 썼을 때는 머리보호대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의 조난시 물받이용 도구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치장깃

해군 사병의 흑색 치장깃은 원래 땀을 닦는 수건이었다. 흑색은 더러움을 감춰 주고, 머리를 땋은 당시에는 상의가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이나 목에 목도리 모양으로 걸고 다녔다. 흑색 치장깃은 넬슨(Nelson, Horatio : 1758-1805) 제독 장례식에 함장의 사망을 애도하는 뜻에서 영국함 장병들이 치장깃을 잘라서 한쪽은 팔에, 다른 한쪽은 모자에 둘러 싸매기도 하였다.

사병들의 치장깃에 세 개의 백색줄을 두르는 것에 대해 넬슨 제독의 3대 해전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특별한 의미가 없고, 장식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치장깃은 함정에서 원거리 방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경우 바람방향에 따라 소리 모음막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 나팔바지

수병들의 나팔바지는 엎드려서 갑판 청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쉽게 걷어 올

릴 수 있도록 바지 밑을 넓혔으며, 또한 단정(短艇) 등을 타고 해안으로 접근시 바지를 쉽게 걷어 올리고 얕은 물에 가볍게 들어가 단정을 용이하게 육지에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바지 깃을 묶어서 구명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 넥타이

넥타이는 해군의 복장 특징상 모든 복장 착용시에 사용되어 오다가 편의성 추구면에서 일부 복장에서는 넥타이를 제거하기도 하였다. 넥타이는 해상 조난시 인명구조용 끈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상어가 공격할 때에는 다리에 묶어 상어 공격을 피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특징을 지닌 해군 복장은 세계 각국 해군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주변 환경과 조화된 위장색상(특히 청색)의 경우 지금까지 모든 해군의 공통적인 기본 색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第 1 章 創軍 前後의 服制

第 1 節 創軍 以前의 服制

1. 古代의 水軍活動과 組織

수군이란 물과 관련된 지역, 다시 말해서 해안지역이나 큰 강 주변지역의 치안 또는 국방을 위하여 수상(水上)에서 전투를 담당하던 군대로서, 우리 나라의 수군은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지 않았으며, 수군의 중요한 임무란 육상군대를 보조하는 군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의 지형적 조건을 고려한다면 우리 나라 수군의 기원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빠를 것으로 추정되며, 기록을 통해서 그 사실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위만조선(魏滿朝鮮) 때부터이다. 물론 위씨조선 때에도 수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중국 한(漢)나라의 누선장군(樓船將軍)[1] 양복(楊僕)이 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 발해를 거쳐 왕검성을 칠 때 중국의 누선군의 수가 적은 기회를 이용하여 누선을 공격하여 누선군을 패배시킨 기록을 보아,[2] 위씨조선에서도 침략에 대비한 수상방위력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것이다.

삼국시대 고구려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중국군은 지상군과 수군의 양면작전을 수차례에 걸쳐 수행했었고 고구려군이 이를 훌륭히 격퇴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고구려에도 중국의 수군에 대비하기 위한 수군이 있었을 것은 거의 자명한 사실이다. 백제에도 일찍부터 수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초고왕 이후 해로(海路)로 중국의 여러 나라 및 일본과 교통량이 많았고 탐라(耽羅)를 복속

---

1) 樓船이라 함은 최대 10층의 樓를 짓고 배의 높이는 10여 丈에 달하는 중국 고대시기의 艦船을 뜻하며, 遠航시에 자주 동원되었다. 3천 명에 달하는 병사가 탔었다는 기록도 보인다.(包遵彭, 『中國海軍史』 上冊, 中華叢書編審委員會, 1970, pp. 48-99)

2) 『史記』 卷 115, 朝鮮列傳 : "遣樓船將軍楊僕從齊浮渤海, 兵五萬人, …… 樓船將軍將齊兵七千人先至王險, 右渠城守, 窺知樓船軍少, 卽出城擊樓船, 樓船軍敗散走" : 이상의 기록은 『三國遺事』 卷 1, 紀異 第 2, 魏滿朝鮮편에서도 그대로 보인다.

시킨 사실과 나·당(羅·唐)연합군을 맞아 당나라 군대에 대한 방어책이 '당나라 군대가 백강(白江)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기록[3] 등은 백제에 수군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신라에도 일찍부터 수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선부(船府 : 배에 관한 일을 담당한 관청)의 존재이다. 선부는 원래 병부(兵部)에 속하였다가 678년에 분리 설치된 것으로 수군의 존재를 입증하는 좋은 예가 된다. 또한 512년에 이사부(異斯夫)가 병선(兵船)을 거느리고 우산국(于山國)을 복속시킨 사실[4]이나 당항성(黨項城) 축조나 장보고(張保皐)의 청해진(淸海鎭) 활동 등등은 이 사실을 더욱 확증해 준다.

고려시대도 아직은 조선시대처럼 법제상 수군제도가 확립되지는 못하였으나 후백제 공략에 성공한 고려 태조의 왕성한 수군 활동으로 보아 수군은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다고 보아진다. 특히 고려조에는 해적의 침입이 잦거나 해상경비를 필요로 하는 곳에 선병도부서(船兵都部署)를 중심으로 수군이 조직되어[5] 해상방어와 경비를 담당하여 그 군사활동은 자못 활발하였다.

그후 조선시대 세종 때에 이르러 수군은 군액(軍額)·병선(兵船)·각포설진(各浦設鎭) 등의 규모와 편제 면에서 제도적으로 정비되었다. 수군의 편제는 조선 건국초에 각 포진(浦鎭)마다 수군도절제사(水軍都節制使)·수군도첨절제사(水軍都僉節制使)·수군처치사(水軍處置使) 등을 두었으며, 세종 때 수군도절제사가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가 되었으며, 그 휘하에 도만호(都萬戶)·만호(萬戶)가 배치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수군도 진관체제(鎭管體制)[6]에 따라 각 도마다 주진(主鎭)·거진(巨鎭)·제진(諸鎭)으로 편제되어, 주진에는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거진에는 첨절제사(僉節制使), 제진에는 만호가 배속되어 있었다.

---

3) 『三國史記』 卷 28, 百濟本紀 6, 義慈王 20年 : "事急矣, 知之何面可乎? 興首曰 唐兵旣衆, 師律嚴明, 況與新羅, 共謀掎角. 若對陣於平原廣野, 勝敗未可知也. 白江(或云伎伐浦)·炭峴(或云沉峴), 我國之要路地也. 一夫單槍, 萬人莫當, 宜簡勇士往守之. 使唐兵不得入白江"

4) 『三國史記』 卷 4, 新羅本紀 4, 智證麻立干 13年條

5) 다만 船兵都部署는 항시적인 것이 아니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기간 설치되었다.

6) 鎭管體制는 道를 단위로 하는 조선시대의 지역방위체제이며, 이후 유사시에 鎭管의 지휘관이 소속된 군사를 이끌고 本鎭을 떠나 배정된 방어지역으로 가서 싸우는 制勝方略體制로 바뀌게 되었다.

2. 舊韓末의 海軍 創設 및 關聯 服制

가. 背 景

임진왜란 이후 해방(海防)에 대한 조야(朝野)의 관심은 점점 희박해져 영·정조(英正祖) 이후 수군력(水軍力)은 거의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지경으로 빠져든 반면 조선해역(朝鮮海域)에는 색다른 모양의 선박 출몰이 빈번해져 갔고, 서양의 근대식 포함(砲艦)의 위력은 애초의 호기심에서 출발되어 이제 점차 공포의 대상으로 변모되어 갔다.

조선정부로서는 수차례에 걸친 양요(洋擾)를 겪으면서 서양 포함의 위력을 경험했으므로 포함의 확보야말로 당시 열강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던 중국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오랜 염원이었다. 이런 염원은 대원군(大院君)이 1867년 3월에 착수한 철전함(鐵戰艦)과 수뢰포(水雷砲)의 제작으로 나타나 이양선(異樣船)으로부터 해방(海防)을 위한 자주적 조치로 나타났지만, 몇 차례의 시도와 좌절 끝에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후 고종(高宗)시대에 포함(砲艦)도입을 위한 시도가 3차례 있었다. 그 첫 시도는 1881년 당시 일본통으로 개화당에 깊이 관여했던 승려 이동인(李東仁)에 의해 극비리에 추진되었으나, 일본군의 역공작에 말려들어, 1881년 3월, 수구파(守舊派)에 의해 암살됨으로써 실패로 돌아갔다. 이어 1887년에는 인천소재 독일상사 세창양행(世昌洋行 : E. Meyer & Co.)에 군함 도입 교섭을 의뢰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다시 1891년에는 평안도 일대의 탄광채광권을 담보로 영국에서 군함을 도입하고자 시도했었으나 성사되지 못함으로써, 결국 10년간의 노력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우리 나라가 근대적 해군 창설을 시도했던 시기는 1893년부터이다.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을 해군으로 전환시켜 남양부(南陽府)에 창설하는 한편, 해군무관학교(海軍武官學校)설치령을 1893년 3월 22일 발표하였다. 동년 5월 1일에는 교섭통상사무독변(交涉通商事務督辦) 남정철(南廷哲)이 청국(淸國)의 총세무사(總稅務司)에게 해군무관학교 건립비의 지원을 요청하고, 이의 일부를 수령하여 강화도(江華島)에 해군무관학교가 건립되고, 영국 영사에게 영어 교관과 항해·포술·군사학 및 군사 교련을 담당할 교관과 영국제 군함 구매 가능성을 타진했다. 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무관생도 50명(15세~20세 미만)과 수병 500명을 모집, 훈련시킬 계획까지 수립하였다.

1893년 10월 7일에는 수병 300명을 모집하여 최초의 근대식 해군을 발족시켰으나,

불행히도 군함 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청·일(淸·日)전쟁의 발발로 창설된 해군은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이후에도 1904년 9월 12일에 개정된 군부관제(軍部官制)에 따르면 육군 편제에 해군 편제를 추가한 군부(軍部)를 법제화하고, 기구를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하였으나, 동년(同年)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되면서 이 군부관제 역시 무산되고 말았다.

나. 최초의 海軍 艦艇 導入과 關聯 服制

우리 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군함은 양무호(揚武號)였다. 이 군함이 도입된 경위는 고종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각국 외국 사절들이 자국함대를 이끌고 인천에 입항하여 축포를 쏘게 되면 이때 예포를 쏘아 답례를 해야 하는데 월미도 포대에 있는 장비는 야포(野砲)뿐인지라, 군함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은 러시아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군함을 한국정부에 기증하고 각종 해상이권을 점유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이를 적극 저지하고 그 대신 자신들의 배를 판매하기 위해 주한 일본공사관과 일본의 삼정물산(三井物産)이 의견을 나누어, 1888년에 영국에서 건조한 화물선(船名 : 파라소)으로서 1894년에 삼정물산이 자사(自社)의 석탄 운반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노후된 중고 화물선을 개조하여 여기에 일본 해군 함정의 고대포(古大砲)를 장착하여 우리 나라에 팔게 된 것이다. 당시 우리 측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군함도입에 따른 관리계약업무에 관한 전문가마저 없어 많은 손해까지 보면서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군함은 고종황제의 관심 속에 1903년 4월 1일, 양무호(揚武號)라 이름을 짓고, 그 해 4월 16일, 인천항에 도착되었으며, 이 선박이 한국 최초의 군함이었다. 애초 이 군함은 동년 8월 19일에 초대 함장으로 임명된 일본 동경 상선학교 항해과 출신인 신순성(愼順晟)이 72명의 대원을 선발하여 일본 해군에서 파견된 사관으로부터 교육·훈련을 받고 직접 운항을 시도할 계획이었으나, 해군편제나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었다. 당시 함장과 선원의 복장은 도리없이 일본측 해군의 복식을 본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어, 1902년 11월에는 대한제국 정부가 처음으로 일본 천기조선소(川崎造船所)에 선박을 발주 의뢰하였고, 이 선박 광제호(光濟號)를 운항하던 선원들의 복장도 일본 해군의 복식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였다.

다. 海軍 服制의 構造

구한말(舊韓末) 군(軍)의 복제 변천은 한마디로 자주적인 복제보다는 주로 일본과 러시아의 복식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최초로 군함을 도입할 당시의 해군 복제는 시기적으로 우리 군복식이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던 시대이기도 하다.

다만, 1900년대 초기, 당시 일본의 해상력이나 해운력도 서구 열강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었고, 그들의 복식제도 역시 해상력에 있어 앞선 나라들인 유럽과 미국 등의 모형을 본뜬 것으로서, 일본 고유의 자주적인 것이 아닌 서구형의 복제를 사용한 것이기에 일본복식이란 중개자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전세계 해군의 복제는 거의가 다 비슷한 목적하에서 유사한 복식을 사용하고 있었고, 현재에도 그러하기 때문에[7] 더더욱 이 모방의 현상은 다른 군에 비해 해군이 뚜렷하였다.

3. 美 軍政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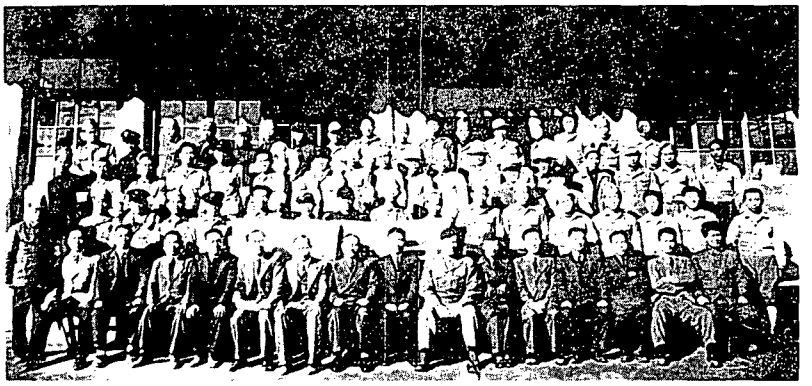
1945년 11월 11일에 창설된 해방병단(海防兵團)의 초기시기에는 주로 일본 해군의 복장유형(服裝類型)에 미국 해군식 계급장과 표지장을 사용하다가, 점차 미 해군복으로 변경되어 가던 중 1952년에 비로소 해군 복제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1945년 11월부터 1951년 말까지는 명확히 제정된 복제규정이 없었다. 당시 착용했던 복장류를 사진과 그림을 통해서 알아본다.

가. 海防兵團 創設

1945년 11월 1일, 해사협회(海事協會)가 미(美) 군정당국(軍政當局)과 수차에 걸친 협의 끝에 200명 인원으로 해안경비대(Coast Guard)를 조직하여 사령부를 진해에 설치하고, 이어 사관학교(士官學校)를 설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동년 11월 11일, 표훈전(表勳殿 : 서울 관훈동)에서 해방병단(海防兵團) 결단식이 거행되었다. 다음 사진은 그 당시의 복장이다.

---

7)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해군에서 해군 복장 중 사병 복장의 깃, 치장깃, 점퍼, 나팔바지 등에 대하여 복제위원회가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복장 변경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79%가 현재의 복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취소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설식 때의 모습(1945년 11월 11일)〉

나. 階級 부여 후의 服裝

해방병단(海防兵團)은 단원이 증원되고 기구가 확장됨에 따라 단원간의 통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1946년 2월 1일, 구한말(舊韓末) 시대의 계급을 참고하여 계급을 부여하였다. 다음 그림은 당시 최초로 분대장에 임명된 사람들의 복장이다.



〈분대장 일동(1946년 3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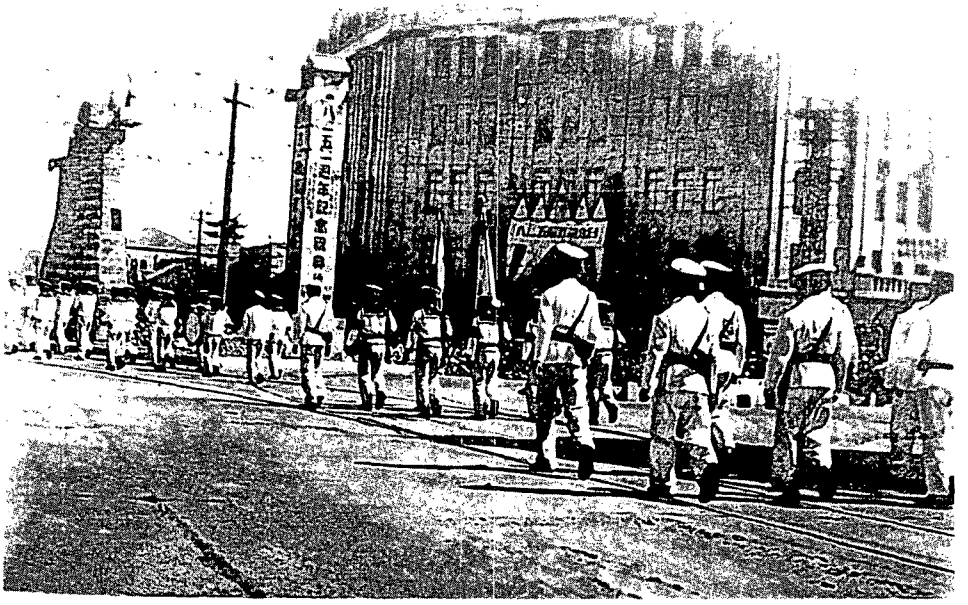
〈초창기의 복장(1946년 3월)〉

다. 朝鮮 海岸警備隊 發足

1946년 6월 15일에 공포된 군정법령 제86호에 의거 해방병단(海防兵團)은 조선 해안경비대로 새로이 발족하게 되었다. 동년 9월, 해안경비대는 미 군사고문단 16명을 배정받았고, 이들에 의해 해사(海事)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실시되었다. 이어 함정이 도입됨에 따라 전국 요항(要港)에 기지(基地)를 설치하



〈조선 해안경비대 발족(1946년 10월 1일)〉



〈해안경비대의 시가행진 모습(1946년 8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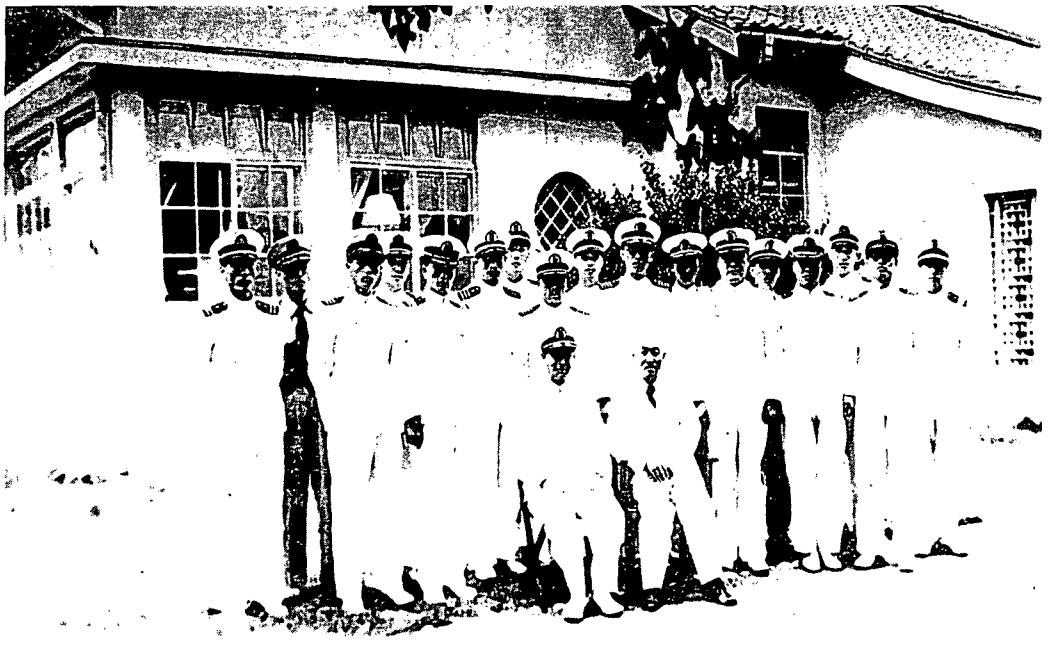
고, 부산과 여수에 특무정대를 창설하였으며, 동년 10월 1일에는 총사령부를 서울로 이전하고, 진해에는 특설기지를 설치하였다. 위의 사진은 당시의 모습과 8·15광복절 제1주년 기념행사시의 조선 해안경비대의 시가행진 모습이다.

第 2 節 創軍 以後의 服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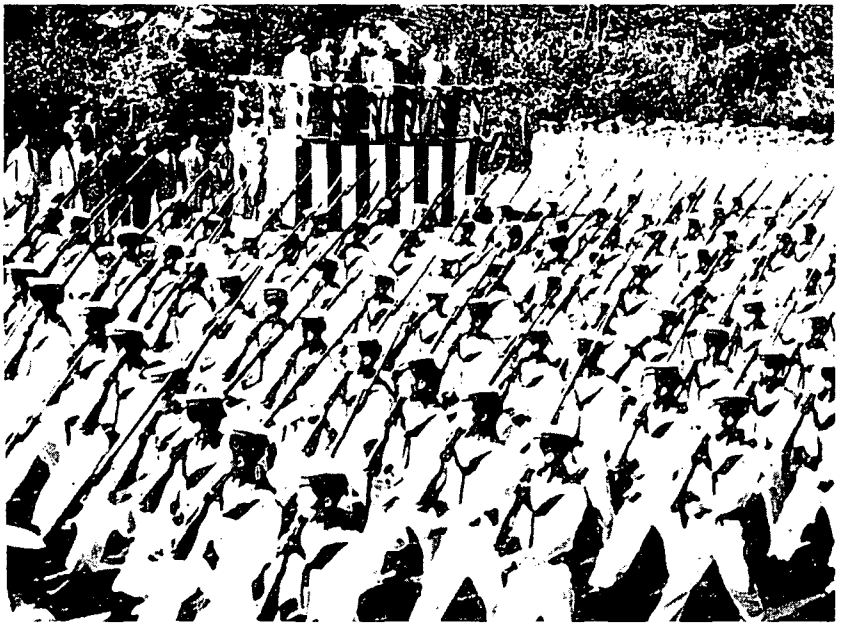
1. 政府樹立과 海軍創設期

가. 海軍 創設

조선 해안경비대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 해군으로 정식으로 발족하였으며, 해안경비와 해상수호의 중임(重任)을 완수하기 위하여 체제를 정비 강화하였다. 다만 아직은 국군조직법이 입법 공포되지 않음으로써 정식 출범은 되지 못하였다.



〈지휘관들의 제복(1949년 9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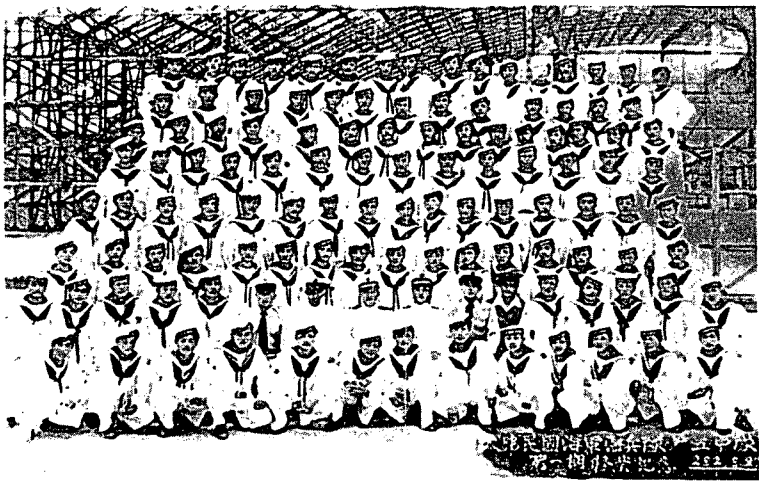
〈초창기의 해군 분열(1949년 8월 8일)〉

나. 海兵隊 創設

3면이 바다인 입지적 조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의 전훈(戰訓)에 따라, 1949년 4월 15일, 장교 26명과 하사관 54명 및 병사 300명 등 비록 적은 수의 병력과 빈약한 일본식 구식장비를 소지하였지만 진해 덕산(德山)비행장에서 해병대 창설식을 거행하였다. 아래 사진은 당시의 간부들의 모습과 해군 해병대 제1기생 수료 당시의 제복모습으로서, 대부분의 격식은 당시 해군 제식에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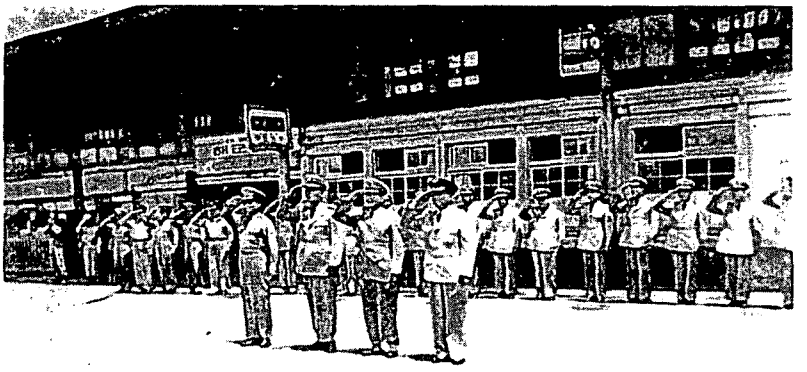
〈창설 초기 해병대 간부 제복〉



〈해군 해병대 제1기 수료당시 제복(1949년 8월 27일)〉

2. 6·25戰爭期

1950년 6월 27일 정부와 해군본부가 수원으로 이전하게 되자, 해군은 모든 지휘권을 진해 통제부사령관에게 일임한 후 해군본부를 소수 인원으로 편성 조직하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수원을 거쳐 6월 28일 대전으로 이동하였다. 그후 전투사령부는 7월 1일, 작전본부로 기구를 간소화하였고, 7월 8일, 통제부사령관으로부터 지휘권을 인수받아, 10일, 부산 제1부두 항만청으로 이전하고, 동년 9월 5일에는 작전본부의 기구를 정비하여 해군본부로 개편하였다. 이 당시의 장교들의 제복은 아래 사진과 같다.



〈부산 해군본부 장교의 제복(1950년 9월 5일)〉

第 2 章　近現代 服裝

第 1 節　基本 服制

1. 軍　　帽

가. 禮　　帽

(1) 장관급

1952년 당시의 해군 복제제식은 제정될 당시 예모는 별도의 예식을 제정하지 않았고, 정모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당시의 예모(정모)는 차양이 달린 보통형 군모로 모자 커버는 흑색(겨울용)·백색(여름용)·카키색(춘·추용)의 3종이 있었으며, 재질은 겨울용이 모직물, 여름용은 면직물, 춘·추용은 포라 혹은 개버딘지를 사용하고, 모자 프레임 가장 바깥둘레에 약 4㎝로 흑색 모테를 둘렀다.

한편, 해병 장관급의 예모는 해군 장관급 예식을 적용하였고, 춘·추용 모자 카바는 그린색 모직을 사용하였다. 턱끈은 공히 황금색 금사(金絲) 수식으로 하고, 차양은 흑색 벨턴지 위에 수식한 무궁화 표시를 하였는데, 꽃잎 16개와 꽃봉오리 10개 그리고 핀 꽃 2개를 배열하였다. 그후 1967년 1월 9일, 〈군인복제령〉 개정시 장관급 예모의 차양에 있는 무궁화 표시는 잎이 20개·꽃봉오리 8개·핀 꽃 2개로 조정하였다.

1975년 9월 30일에 개정된 〈군인복제령〉에는 과거 정모를 예모로 대용하던 것을 바꾸어 예모를 신규 제정하였는데, 모자의 형태는 정모와 같으나 윗둘레를 백색 모직 또는 혼방(해병 동일)으로 하였다. 차양과 턱걸이는 정모와 같이 관등(官等)에 따라 다르게 표식하였으며, 장관급 모테에는 차양과 같은 무궁화 수식(무궁화잎 38개·꽃봉오리 18개·핀 꽃 2개)을 황금색 금사 모르로 배열하고, 모테 상단에는 폭 3㎜의 황금색 금사로 된 보조띠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해병 장관급의 턱끈은 적(赤)색과 황(黃)색의 혼합 꼬임으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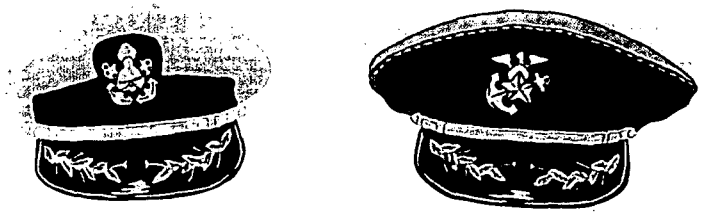


해군용　　해병용

〈장관급 모자(1975년~현재)〉

(2) 중령 이상 영관급

중령 이상 영관급의 예모는 장관급의 예모제식과 동일하였으나 차양의 표식이 달랐다. 영관용의 차양은 1952년부터 1966년까지는 무궁화잎 14개·꽃봉오리 6개·핀꽃 2개를 배열하였다가, 1967년 1월 9일의 〈군인복제령〉 개정시에는 무궁화잎 14개와 꽃봉오리 6개만 배열하였다. 해병 영관장교는 동일한 제식에 모자 커버 색만 해병 장관급용과 같았다.



해 군 (1952년~1966년)　　해 병 (1952년~1966년)



해 군 (1967년~현재)　　해 병 (1967년~현재)

〈영관급 모자〉

(3) 소령급 이하 장교

해군·해병 소령급 이하 장교의 예모는 정모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정모편을 참조하면 된다.

(4) 사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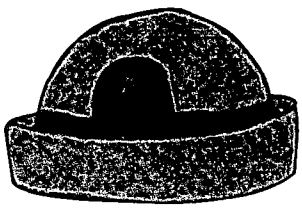
해군·해병 사병용 예모 역시 정모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5) 간호장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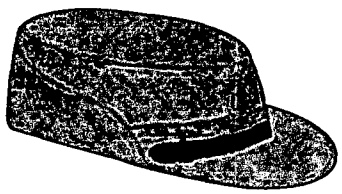
해군 간호장교용 예모는 1952년 〈해군복제령〉 제정시 그 제식이 제정된바, 모자의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았으며, 하절기에는 백색 커버지에 폭 3cm의 금줄을 둘렀다. 중앙에는 해군장교 모표를 넣었으며, 모표는 백색 바탕에 흑색 수실을 넣었다.

이후 1967년 1월 9일에 제정된 〈군인복제령〉에 의해 육·해군의 여군예모와 정모는 구분하지 않고, 동절기에는 모두 흑색 모직 또는 혼방을, 하절기에는 백색 모직 또는 혼방재질을 사용하였으며, 차양은 복지색이고, 턱끈은 폭 1.5cm의 금색을 사용하였으며, 모테는 복지색 조직(條織)으로 폭을 4cm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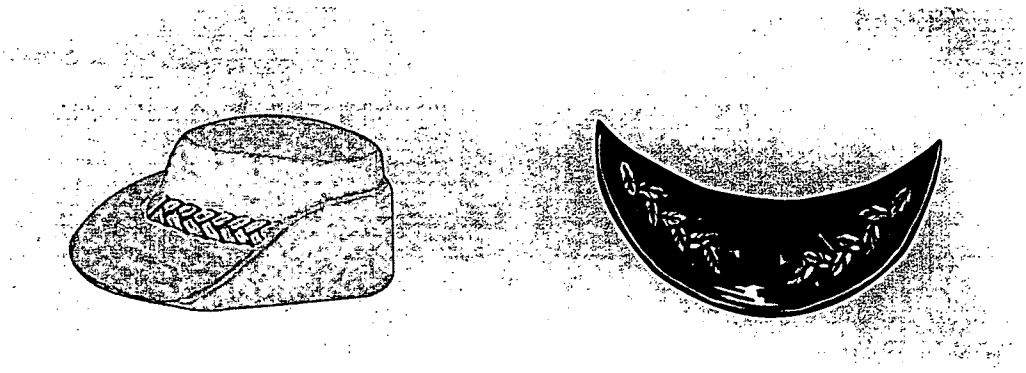
그후 1971년 2월 25일에 제정된 〈군인복제령〉으로 여군 예모제식은 정모와 동일하게 정하여졌으며, 이는 각군 여군 장병 공용의 정모제식으로 재정되었다. 이 제식은 군 정복지를 재질로 하여 누빈식 앞뒤 차양에 폭 4cm의 조직 모테를 두르고, 폭1.4cm의 금색 꼬임 턱끈을 달며(사병은 흑색), 영관급 장교는 앞 차양에 무궁화잎 14개·



〈여군 간호장교 모자(1952년~1966년)〉



〈개정된 모자(1967년~1970년)〉



〈1971년부터 현재까지의 여군모〉

4개·꽃봉오리 6개를 복지에 수를 놓아 장식하였다. 이후 1980년 1월 9일에 재질을 군 정복지에서 멜턴지로 바꾸고 색상도 흑록색으로 바꾸었다.

(6) 사관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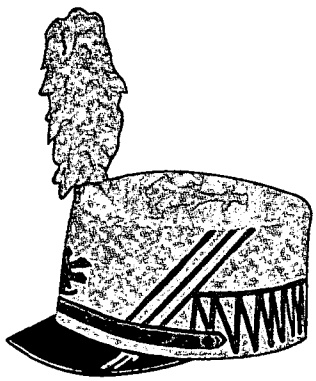
1946년 1월 17일, 해군병학교(海軍兵學校 : 현 사관학교) 창설기는 일본식 제복을 주로 사용하였다가, 1952년 〈해군복제령〉이 제정된 이후 사관생도의 복장은 미국 해군식으로 개정되었다. 이 당시의 생도들의 예모는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정모를 예모로 사용하였다. 즉, 모자의 형(型)은 장교 모자와 동일하되 금줄 턱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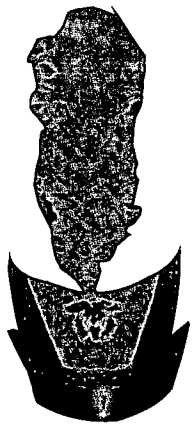
1952년～1973년　　1974년～현재

〈사관생도 정모〉

폭은 장교보다 좁은 0.85㎝로 하였다. 그러나 모자 커버는 장교 모자 커버와 동일하였으며 귀단추 역시 장교 모자 귀단추를 사용하였다. 그후 1974년 10월 1일에 제정된 규정에 따라 사관생도의 예모는 변경되어 사용되었으며, 모자 커버 중앙의 해군 앵커(백색 자수)는 1976년 10월에 폐기되었다. 이후 생도 예모는 색의 일부 조정을 거쳐 사진과 같이 변하였다.



1974년～1976년



1977년～현재

〈사관생도 예모〉

나. 正　　帽

(1) 장관급

장관급 예모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해군 장관급의 정모는 예모와 같은 제식이었으나, 1975년 9월 30일, 예모의 제식이 제정되면서 예모와 정모의 제식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이때 정모는 해군 중사 이하를 제외한 해군·해병 전 장병이 동일한 분리식 모형으로 제정되었으며, 단 색상이나 부속물의 재질 혹은 모양만을 구분하도록 하였다. 해군 장관급 정모는 폭 15㎜의 금색 턱끈을 달고, 모자 차양의 재질은 흑색 비닐지를 사용하였으며, 귀단추는 군별 소형 단추를 사용하였다. 커버 재질은 동절기에는 흑색의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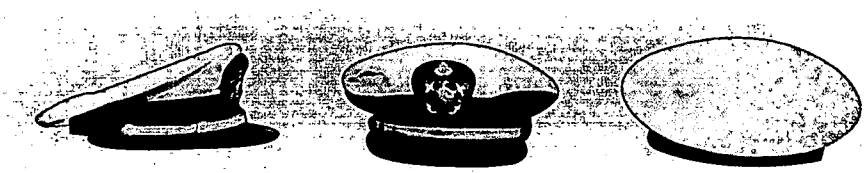
직 또는 혼방지(해병 장관급은 그린색의 모직 또는 혼방)를, 하절기에는 카키색·백색의 모직 또는 혼방지(해병 장관급은 그린색)를 사용하였으며, 모테 둘레의 장식은 예모와 같이 무궁화잎 38개·꽃봉오리 18개·핀 꽃 2개를 수놓았으며, 앞 차양의 장식 역시 예모와 같이 무궁화잎 20개·꽃봉오리 8개·핀 꽃 2개를 수놓았다.

(2) 중령 이상 영관급

중령 이상 영관급 장교의 정모는 1967년에 제정된 예모와 동일한 제식의 정모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3) 소령 이하 장교

소령 이하의 장교의 정모는 해군에서는 상사까지 착용하고, 해병에서는 소령 이하 사병까지 같은 제식의 정모를 착용하였다. 해군의 소령 이하 상사까지의 정모 제식은 분리식 모형에 폭 15㎜의 금색 턱끈(사병은 흑색)을 달고, 모자 차양의 재질은 흑색 비닐지를 사용하였으며, 귀단추는 해군 소령 단추를 사용했고, 정모 커버의 재질은 장관용과 동일하였다. 해병의 소령 이하 전 사병의 정모 제식은 상기와 동일한 제식에 귀단추를 해병 소령 단추를 사용했으며, 정모 커버의 재질은 해병 장관용과 동일하였다.



해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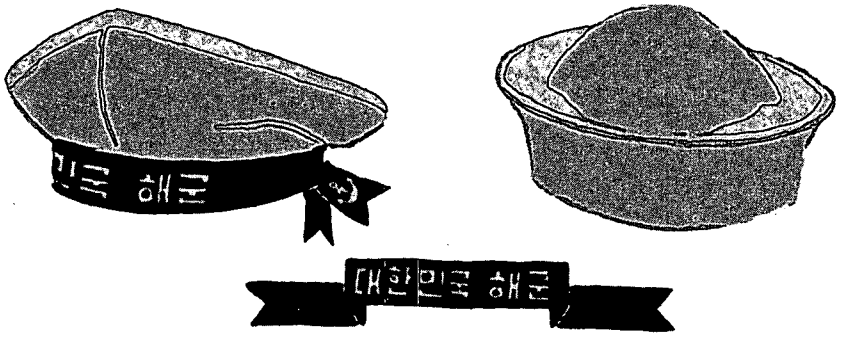
해 병

〈해군·해병 중사 이상 정모(1952년~현재)〉

(4) 해군 중사 이하

1952년 11월 26일 해군의 복제령에 의하면, 해군의 중사 이하 정모는 예모와 동일한 제식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중사 이하 정모는 A·B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는데, A형은 주로 예식 행사 때 착용하였으며, B형은 일상근무나 작업시에 착용하였다.

A형의 제식은 앞 차양이 없는 원형으로서, 재질은 하절기에는 백색 면직, 동절기에는 흑색 벨턴지였고, 흑포 전반부에 '대한민국 해군'이란 페넌트를 붙이고, 뒷 꼬리에 닻 포석을 하여 아래로 늘어뜨렸다. 이 페넌트의 제식은 폭 38㎜×길이 686㎜로 하고 '대한민국 해군'과 '닻'은 금색실로 수를 놓았다. 글자의 한 변의 길이는 1/2"가 되게 하였다. 반면 B형 정모는 일명 '빵모자'라 하여, 백색 면사를 사용하여 수축성이 있게끔 함으로써 머리에 썼을 때 쉽게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하였으며, 전투시 철모를 이 위에 착용할 경우는 머리보호대 역할이 가능하고, 해상 조난시는 물받이용 도구로도 사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머리부분을 제외한 외곽은 5㎜ 실선으로 누비어 단단히 하였다. 이후 1980년 1월9일, 〈군인복제령〉이 개정되면서 하사·중사의 정모는 해군 상사의 정모와 동일한 형으로 변형되었다.



A형 B형

〈해군 중사 이하 정모(1952년~현재)〉

(5) 간호장교

창설 초기 해군 장교의 정모는 미 해군 간호장교의 제식을 본떠서 동절모는 흑색 모직, 하절모는 백색 모직 또는 개버딘지로 만들었다. 또 모자날개 변두리에 폭 3㎜의 테를 둘렀는데, 동정모는 금줄로 하고, 하정모는 흑색 모테로 하였다. 이후 1967년 1월 9일, 〈군인복제령〉이 개정되면서 정모의 제식이 개정되어 재질을 동모일 경우 흑색 모직 또는 혼방을, 하모일 경우 카키색 수직 또는 혼방을 사용하였으며, 모자날개 변두리의 테는 이전과 동일하였다.

그후 1971년 2월 25일, 〈군인복제령〉이 개정되면서 예모와 정모가 동일한 제식으로 변경되어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6) 사관생도

사관생도의 정모는 해군 위관급 장교와 같은 제식 및 동일한 변천을 거쳐 창군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차양의 자바라 폭이 장교보다 좁고 모자 중앙의 모표는 해군사관학교의 모표를 사용하는 점이 다르다.

다. 戰 鬪 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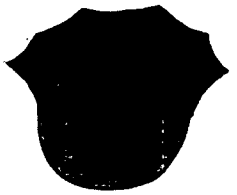
〈해군복제령〉이 제정된 1952년 이후 60년대까지 전투모라는 명칭의 모자는 없었다.

1971년 2월 25일, 〈대통령령 제5538호〉로 군인복제에 처음으로 '전투모'라는 명칭의 모자 제식이 결정되었다. 전투모는 육·해·공군의 장병 공용 및 해병대 장병용으로 분류하였고, 육·해·공군용 전투모 재질은 전투 복지를 사용하였으며, 해병대 장병용 전투모는 국방색 면직 또는 혼방을 재질로 사용했다. 전투모에 부착하는 계급장은 모두 각군의 약장을 사용하였다.

그후, 1975년 9월 30일, 〈군인복제령〉이 개정되면서 육·해·공군 장병용 전투모의 재질은 면직 또는 혼방으로 바뀌었다가, 1980년 1월 9일, 〈군인복제령〉이 개정될 당시 전투모의 색상이 변경되면서 해군 전투모의 색상은 청색으로 바뀌었고, 해병대는 국방색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육·해·공군 장병용



앞 면



측 면

해병대 장병 공용

〈전투모(1971년~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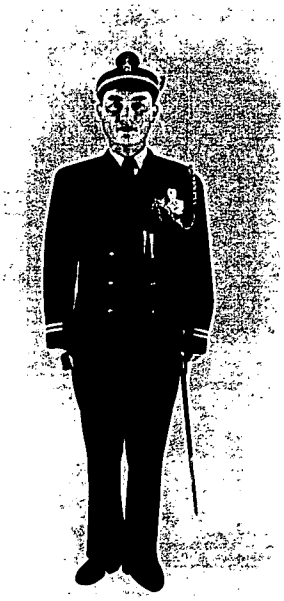
2. 制　　服

가. 禮　　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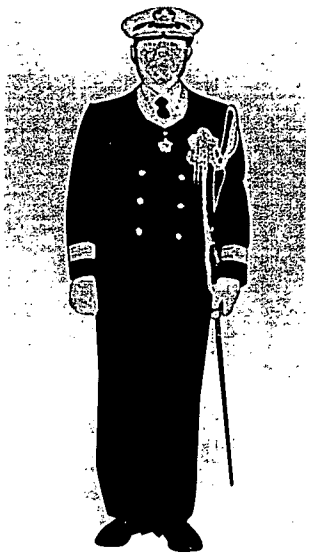
(1) 해군 장교

1952년에 제정된 〈해군 복제규정 시행안〉에 의하면 초창기의 예복은 별도로 제정된 제식이 없었으며, 정복을 겸용으로 사용하였다. 그후 1967년 1월 9일, 〈군인복제령〉이 제정되면서 예복의 제식이 제정되었다. 재질은 동절기에는 흑색 모직 또는 혼방을, 하절기에는 백색 면직 또는 혼방을 사용하였다.

동복 상의는 견장대가 없는 반면, 하복 상의에는 견장대가 있었으며, 동복 상의는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목부분을 둥근형으로 하였고, 하복 상의의 목부분은 세운 깃을 달았다.



1953년~196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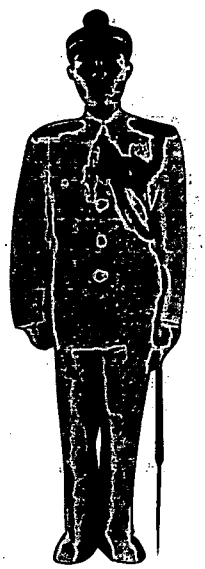


1967년~198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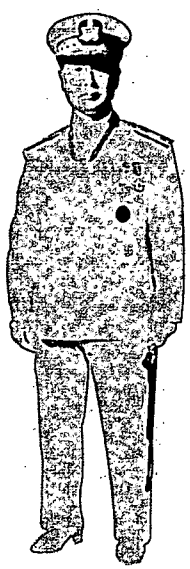


1987년~건장 제거 이전

〈연도별 동예복〉



1953년~1966년



1967년~현재

〈연도별 하예복〉

동복 상의의 앞부분은 모표를 배열한 직경 25㎜의 금색 단추를 전면에 3개씩 6개를 달았으며, 소매에는 수장을 하였고, 뚜껑없는 속붙임주머니를 양쪽에 배치하였다. 하복 상의에는 동복 상의와 동일한 규격의 단추를 일렬로 5개를 달았으며 소매에 수장이 없었다. 특히 동복 상의의 흑색 넥타이 대신 보타이를 함으로써 특례장으로 대신하였고, 하복 상의에 약장을 패용한 경우는 하정복으로도 간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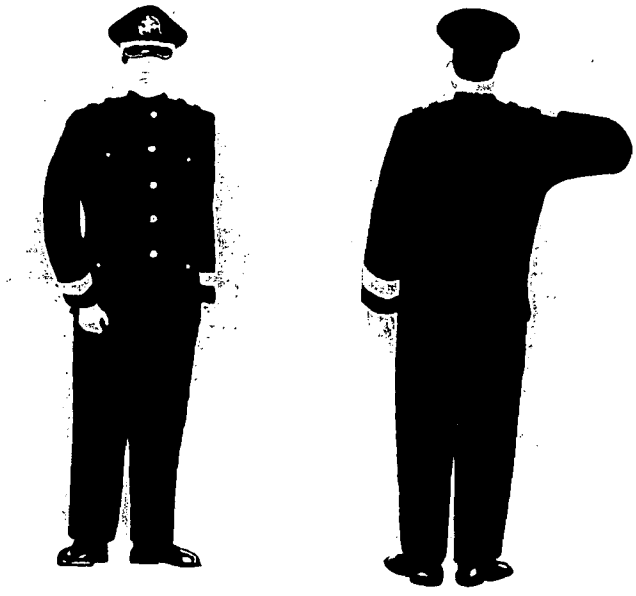
동복 하의는 왼쪽 밴드고리 밑에 시계주머니를 달고, 뒷면에는 뚜껑없는 속붙임주머니를 달았으며, 바지 봉합선상에 뚜껑없는 속붙임 세로주머니를 달았다. 그러나 하복의 바지는 바지 봉합선상에 속붙임 세로주머니를 달았다.

(2) 해병 장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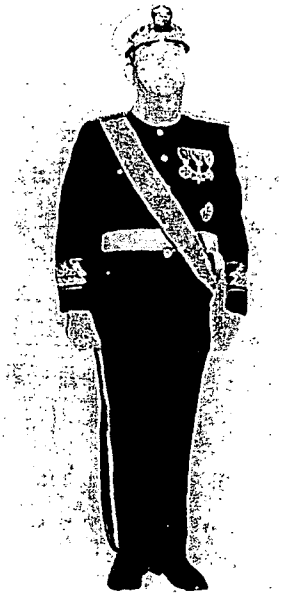
해병 장교용 예복 역시 창군기 초기에는 정복과 동일하였으나, 1960년 초에 예복이 제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제식을 사용하였다. 착용범위는 준위에서 장관으로 하고, 칼라는 세운 깃에, 재질은 모직 또는 혼방을 사용하였으며, 동절기에는 흑색을, 하절기에는 백색을 사용하였다. 어깨에는 견장고리를 부착하였으며 소매의 수장은 동절기에만 사용하였다.

동·하복 공히 상의 중앙에는 금색 대형 단추를 직선으로 5개를 달았으며, 주머니 단추는 금색 중형 단추를 달았다. 상의 하단 포켓은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양 옆에 배열하였으며, 상의 상단의 포켓은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좌·우에 배열하였다. 하의는 전면 우측에 시계주머니, 양 옆에는 뚜껑없는 속붙임 세로주머니를 달았으며, 뒷포켓은 좌·우에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배열하였고, 동복에 한하여 폭 40㎜의 홍색 수식을 하였다.

그후 1975년 9월 30일, 예복의 제식을 일부 변경하여, 동복 상의의 세운 깃 주위를 황색 깃 바탕에 금색 무궁화잎 자수를 하였는데, 꽃잎 50개·꽃봉오리 9개·핀꽃 2개를 수식하였으며, 단추의 크기는 대형은 중형으로 중형은 소형으로 조정하고, 허리에는 폭 60㎜ 적색 꼬임 밴드를 둘렀다. 수장에는 금색 무궁화잎을 수식하였는데, 장관급은 꽃잎 69개·꽃봉오리 7개·핀 꽃 4개를, 영관급은 꽃잎 45개·꽃봉오리 7개·핀 꽃 2개를, 위관급은 꽃잎 24개·핀 꽃 2개를 수식하였으며, 허리에는 2줄의 적색 수실을 부착하였다. 또한 동복 하의의 적색 바지줄의 폭을 장관급은 4㎝·영관급은 3㎝·위관급은 2㎝로 하였으며, 하절기 예복의 제식 변경은 없었다. 단추의 크기 조



〈해병 장교용 예복(1953년~1974년)〉



1975년~1979년



1980년~

〈해병 장교 동예복〉



1975년~

〈해병 장교 하예복〉

정은 동예복과 동일하였다.

그 이후 1980년 1월 9일, 동예복 상의 제식이 일부 조정되어, 허리 둘레의 밴드와 2줄의 적색 수실을 제거하였다.

(3) 해군 사병

1) 상 사

해군 상사의 예복은 정복의 제식과 동일하였으며, 정복의 제식은 장교 정복의 제식에 준하였다.

2) 중사 이하 하사관 및 사병

해군 중사 이하 사병의 예복 역시 정복의 제식과 동일하였다.

(4) 해병 사병

해병 사병의 예복 역시 별도의 제식이 없었고 정복을 겸용하였다.

(5) 간호장교

해군 간호장교용 예복은 〈해군복제령〉이 제정된 초기인 1952년부터 1966년까지는 정복과 동일한 제식으로, 정복과 겸용하였다. 그후 1967년 1월 9일, 〈군인복제령〉이 개정되면서 예복과 정복의 제식이 분리되었다. 즉, 초창기에 겸용한 예복 겸 정복이 예복으로 사용되면서, 정복의 제식이 1967년 1월 9일에 개정되었다가, 1971년 2월 25일, 다시 해군 간호장교 및 타군 장교들의 예복이 정복과 같은 제식으로 변하게 되었다.

초기단계인 1952년부터 1966년까지는 예복 겸 정복의 제식기간으로, 복제의 재질은 동절기에는 흑색의 모직 또는 혼방을 착용하였으며, 하절기에는 백색의 면직 또는 혼방을 사용하였다. 견장과 수장은 남자 장교용과 동일한 것을 착용하였으며, 셔츠는 백색 보통 와이셔츠를 착용하고, 상의 우측 상단에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달았다. 상의 중앙의 단추는 금색 25㎜ 단추 4개를 달고 칼라는 둥글게 하고 상의 폭은



동 복



하 복

1953년~1974년



동 복



하 복

1975년~

〈여 군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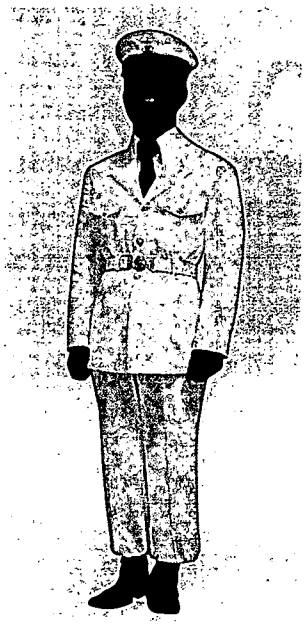
앞·뒤를 4폭으로 하였으며, 수장은 금색으로 계급을 표시하였다. 하의의 밴드고리는 그 폭을 45㎜로 하였으며, 주름없은 두 폭의 스커트형 하의를 착용하였고, 하의 우측에만 속붙임주머니를 달았다.

그후 1975년 9월 30일, 〈군인복제령〉이 개정되면서 여군의 예복이 만찬복과 겸용하게 되었고, 재질은 동복인 경우 흑색의 모직 또는 혼방을, 하복은 백색의 모직 또는 혼방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칼라는 둥근형에, 견장과 수장은 남군과 동일하게 하고, 반달형 넥타이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와이셔츠는 핀탁형 스탠드의 칼라형을 사용하였으며 상의 중앙부분의 단추는 양쪽에 3개씩 금속제 해군의 중형 단추를 달게 하였다. 하의는 상의와 같은 재질에 15㎝의 지퍼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허리띠 위로 속띠를 하게 하였는데, 겨울은 흑색, 여름은 백색을 착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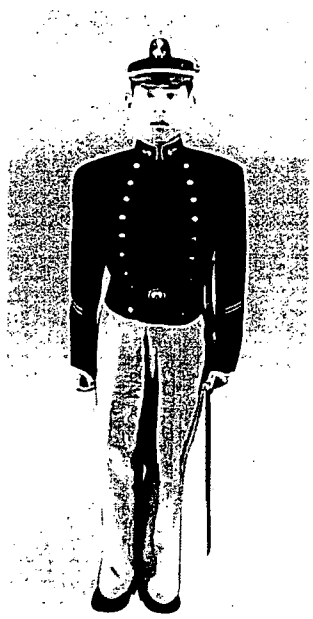
(6) 사관생도

1946년 1월 17일 사관학교(당시 海軍兵學校)가 창설된 이후, 1952년에 제정된 〈해군복제령〉에 의한 사관생도의 예복 제식은 상의는 흑색 사지 또는 기타 모직으로 세운 깃에 두 줄 단추복으로 하고, 변두리는 궁형으로 하였다. 또한 깃의 위와 옆 변두리는 1/4″의 금줄을 부착했다. 상의의 길이는 하의의 밴드를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짧게 하고, 정복 중형(中型) 단추를 한 줄에 9개씩 두 줄로 궁형이 되게 부착하였다. 등은 4폭으로 하고, 양단 폭을 궁형으로 봉합하였으며, 양 깃에 사관생도 금장을 부착하고, 소매에는 수장을 부착하여 학년을 표시하였다. 하의는 표백색 개버딘 또는 면직으로 하고, 긴바지 보통형으로 하였다. 우측 뒷면에는 안으로 뚜껑없는 주머니를 내고, 허리에는 밴드가 눈에 띄지 않게 허리를 높게 올려 멜빵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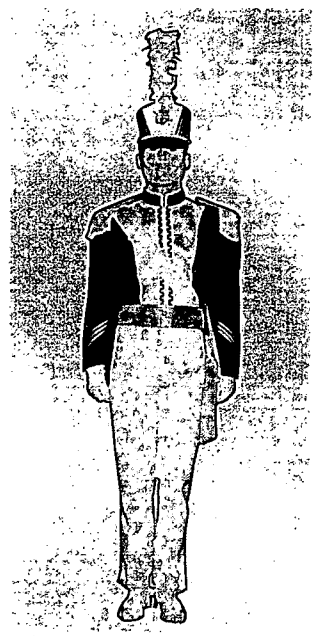
이후 1974년 10월 1일부터 이를 일부 개정하여, 상의의 재질을 흑색 모직 또는 혼방으로 하고, 허리에는 황색띠를 두르고, 두 줄의 중형 단추를 백색 단추로 바꾸었으며, 견장은 금색 수실로 수를 놓아 학년 표시를 하였다.



1946년～1953년



1954년～1974년



1974년～

〈사관생도 예복〉

나. 正　　服

(1) 해군 장교

해군 장교의 정복은 1952년에 〈해군복제령〉이 제정된 이후 큰 변화는 없었으나, 1986년 12월 20일, 해군 장교의 계급 식별을 용이하게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 견장에 계급장을 부착하는 일부 수정이 있었다가, 1992년 10월 22일, 이를 다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해군형으로 개선하면서 견장의 계급장 부착이 종전처럼 환원되었다.

동정복 상의는 그 재질을 흑색의 사지 또는 모직을 사용하였으며, 전면에는 해군의 중형 단추 3개씩을 두 줄로 달고 오른쪽으로 여미도록 하였다. 좌측 가슴부위와 좌・우 복부에 뚜껑없는 주머니를 안으로 달았으며, 좌측 옆구리에는 예식도용 구멍을 뚫었다. 또 양 소매에는 금줄 계급장과 과(科)별 표지를 부착하였다. 상의 안에는 흰색의 와이셔츠에 검은색 일반형 넥타이를 매도록 하였다. 동정복 하의는 상의와같은 재질과 색상으로 보통형으로 하고 커프스를 하지 않았으며, 측면 좌・우에



1952년 ~ 198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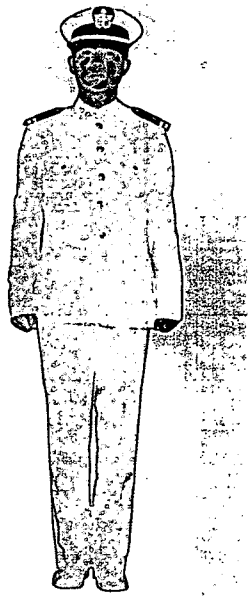


1987년 ~ 199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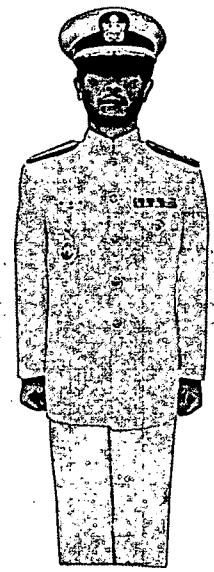


1992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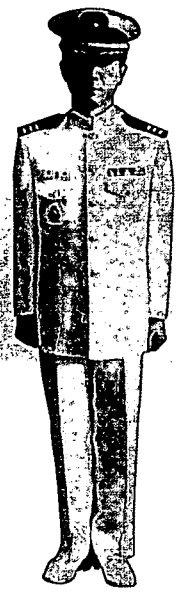
〈장교 동정복〉



1953～1979년



1980년～198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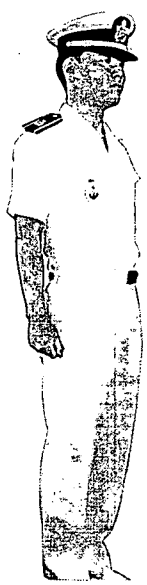


1987년～

〈장교 하정복〉



1953년～1986년



1987년～



카키색 약정복
1953년～1984년

〈장교 하약정복〉

주머니와 뒤측 좌·우에 뚜껑없는 주머니를 달되 뒤 좌측 주머니만 단추를 달았고, 전면 우측 안에 작은 주머니를 달았다.

하정복의 상의 재질은 표백한 면직물 흰색 개버딘지를 사용하였으며, 세운 칼라에 다 앞에는 외줄로 5개의 해군 소형 단추를 오른쪽으로 여미도록 달았으며, 흉부 좌우에 뚜껑없는 주머니를 달고, 좌측 옆구리에 예식도용 구멍을 뚫었다. 어깨 양쪽에는 견장 고리를 하였으며, 등은 4폭으로 하여 가운데 두 폭과 양 끝의 두 폭은 궁형으로 봉합하였다. 또한 뒤트기가 없는 반면 양 옆트기가 있었다.

하정복의 하의는 상의와 같은 색과 재질로써 커프스를 하지 않은 보통형으로 만들었으며, 좌우에 속붙임주머니가 있었으나 뒷주머니는 없었다. 이 하정복의 제식은, 1971년 2월 25일, 〈군인복제령〉 개정시 해군의 하예복으로만 사용되었고, 하정복의 제식은 카키색 모직 또는 혼방으로 카키색 약정복의 제식을 채택 착용하다가, 1980년 1월 9일, 이 제식을 다시 동정복 상의 제식으로 변경한 후, 1985년 9월, 다시 하예복을 겸용한 종전의 백색 하정복 제식으로 환원하게 되었다.

또한 장교들의 정복에 백색과 카키색의 두 가지 약정복을 제정하였다. 백색 약정복의 제식은 상의를 백색 개버딘지로 하여, 깃을 벌려 제친 깃으로 하고, 보통형 노타이 셔츠 형식을 취하였으며 소매는 팔꿈치까지 오는 반소매고, 양 어깨에 견장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양쪽 흉부에는 뚜껑있는 주머니를 달고, 백색 소형 뿔단추 1개를 달아 잠그도록 하였다. 또 전면은 백색 소형 뿔단추 5개를 달고, 오른쪽으로 여미어 잠그었다. 하의는 상의와 같은 색의 재질을 사용하였으며, 기타 제식은 하정복의 하의와 같았다. 백색 약정복에는 예식도나 훈기장의 약장을 패용할 수 있었다.

반면 카키색의 약정복 상의는 카키색 포라 또는 모직으로 V자형의 벌린 깃으로 하였으며, 외줄 단추를 4개 달되 단추 크기는 해군 25㎜형 단추를 달았다. 앞 흉부 좌·우와 허리띠 하부 좌·우에 뚜껑있는 주머니를 달고 흉부 쪽은 15㎜형, 허리 하부 좌·우 주머니에는 해군 20㎜형 금색 단추를 달았다. 또한 흉부 안쪽 좌우에 안주머니를 달았으며, 허리에 통띠를 두르게 하고, 뒤쪽 띠 중앙 하부를 전부 트고, 양어깨에 견장을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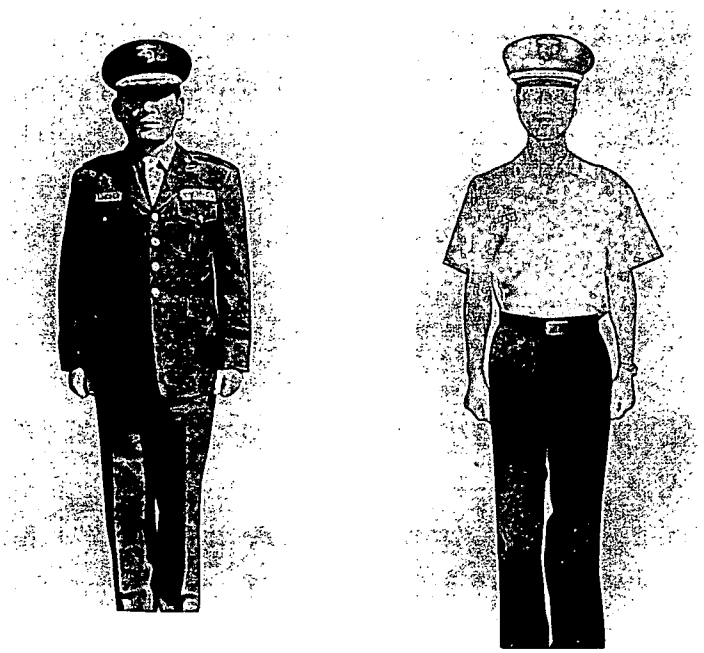
하의는 상의와 같은 색의 재질로써 보통형으로 커프스를 하지 않았으며, 제식은 예식복 하의와 동일한 제식을 사용하였으나, 이 카키색 약정복의 제식은 1971년 2월 25일, 정식으로 해군의 하정복으로 채택되었다가, 1980년 1월 9일에는 이 제식을 일부 변경하여 카키색으로 동정복과 같은 제식으로 하정복으로 대체하였다. 1985년 9

월 30일, 하정복을 종전 하정복 제식으로 변경하여 이를 예복과 겸용하도록 한 후, 카키색 하약정복의 제식은 폐지하게 되었다.

(2) 해병 장교

해병 장교의 정복 제식 역시 초창기에는 예복과 같은 제식이었으나, 정복의 제식 자체가 창군 초기에 미 해병대의 제식을 많이 모방한 것이었다. 정복 상의는 모직 또는 혼방을 재질로 사용하였으며, 색상은 동절기에는 그린색을, 하절기에는 카키색을 사용하였다. 이 정복은 준위부터 장관급에 이르기까지 공통으로 적용되었으며, 견장대를 양 어깨에 부착하였다. 흉부 좌·우측에 겉붙임주머니를 달고 좌측 주머니 위에 약장을 달았으며, 상의 앞부분은 직경 20㎜의 해병 단추 4개를 달고, 허리부분의 좌·우측 겉붙임주머니와 흉부 좌·우측의 주머니는 직경 15㎜의 해병 단추를 각 하나씩 달았으며, 상의 뒷면 중앙 봉제선 하단을 절개하였다. 하의는 예복 하의의 제식과 동일하였으나, 수식이 없었다.

그후 1970년 해병장교의 정복 일부가 개정되어 소매부분에 수장을 추가한 반면



〈하정복과 하약정복〉

재질은 그린색 모직 또는 혼방을 동절기용으로, 그린색 면직 또는 혼방을 하절기용으로 사용하였고 카키색 정복을 폐지하였다. 또한 해병 장교용 하약정복의 제식이 정복과 같이 제정되어, 노타이 와이셔츠에 반소매로서, 카키색 모직 또는 면직 및 혼방을 재질로 사용하였다.

정복의 제식 중 크게 변화한 제식은 없으나, 1986년에 그린색 상의 재질이 수박색 상의 재질로 변화되었으며, 1987년 1월부터 카키색 와이셔츠 깃에 부착하던 계급장을 제거하였다.

(3) 해군 사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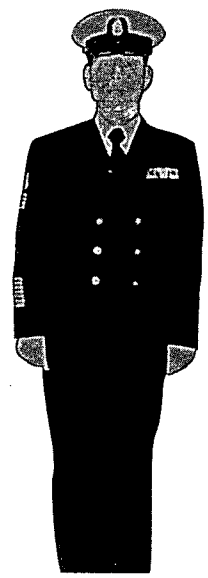
1) 상사(병조장)

해군 사병의 정복은 상사(당시 병조장)와 중사 이하로 구분하여 착용하였다.

상사의 정복은 예복과 겸용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제식은 장교의 정복 제식에 준하였다. 그러나 동정복의 소매 끝부분은 장교와 같이 수장 대신 상사 계급장과 정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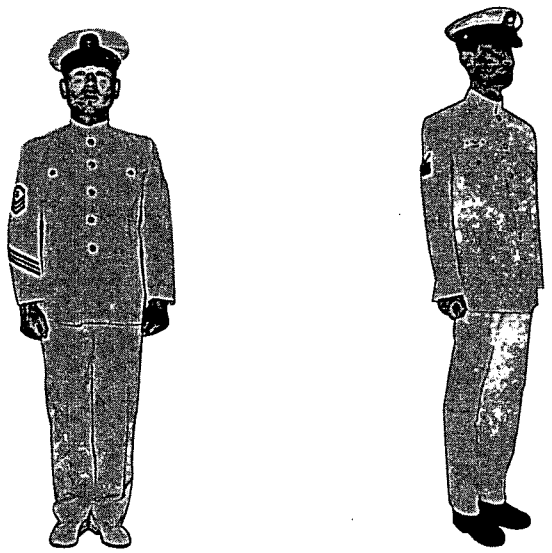


1946년~195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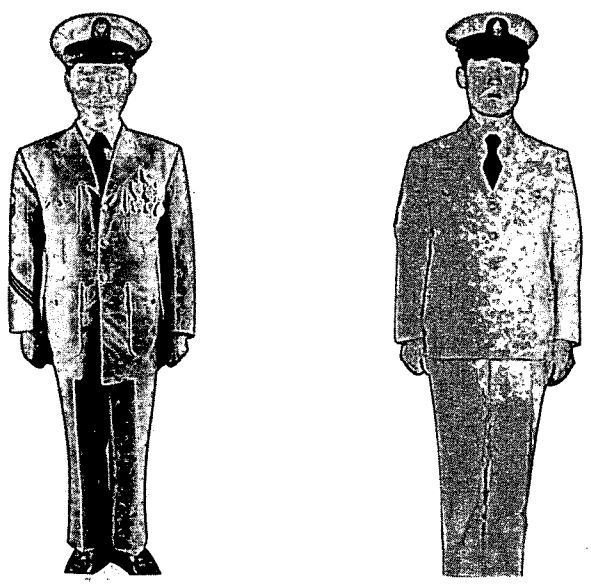


1953년~

〈동 정 복〉



〈상사(하사관) 하정복(1946년～1983년)〉



상사 카키색 약정복
1946년～1953년

상사 카키색 약정복
1953년～198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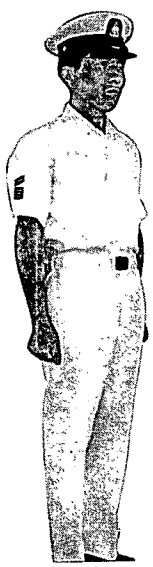
〈상사(하사관) 하정복〉

장을 부착하였으며, 하정복에는 견장을 부착하지 않고 소매에 계급장 및 정근장을 동정복과 같은 위치에 부착하였다. 카키색 약정복 역시 장교의 복장 제식과 동일하였으나 견장은 부착하지 않았으며, 소매에 계급장 및 정근장을 부착하였고, 백색 약정복에는 소매에 하정복용 계급장만 부착하였다.

그후 1971년부터는 동·하정복 공히 어깨 및 소매부분에 개정된 계급장과 정근장을 부착하였으며, 카키색 약정복의 소매부분 정근장은 1953년부터 폐지되었다. 상사의 정복은 해군 장교와 같은 제식의 변천을 겪게 되었다.

2) 중사 이하 사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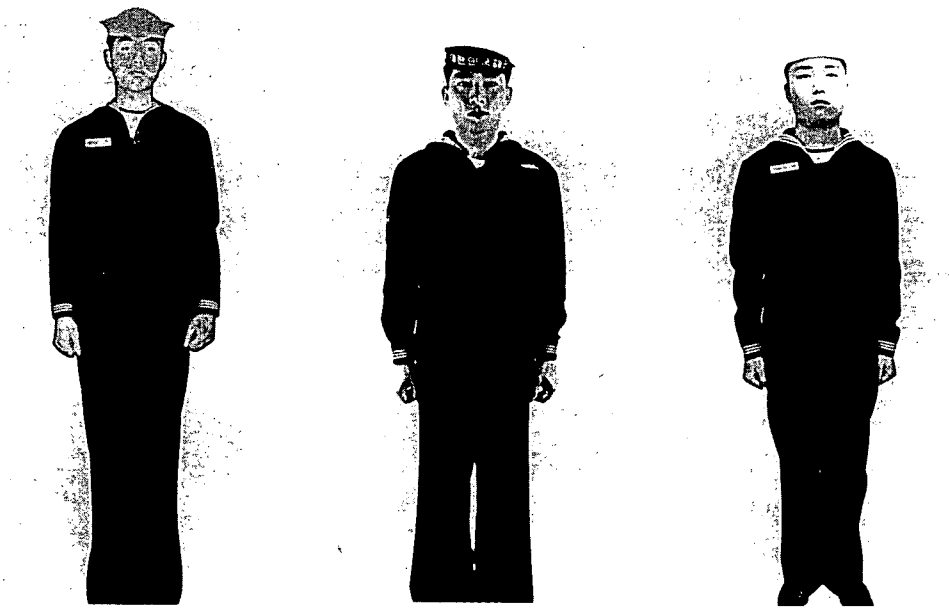
중사 이하 사병의 정복은 1952년 〈해군복제령〉 개정 이후부터 세라복을 정복과 예복으로 겸용하여 착용하다가 하사 및 중사의 정복 예식이 1980년 1월 9일, 〈군인복제령〉 개정으로 인하여 장교 및 상사의 제식과 동일하게 변경되고, 수병은 세라복을 계속해서 착용하여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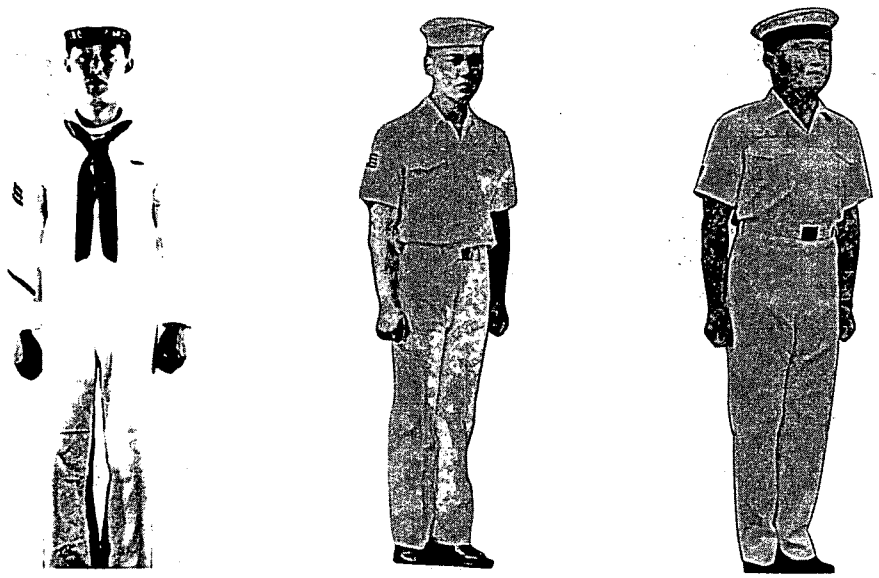
〈하사·중사 하정복〉

〈해군복제령〉에 의한 세라복의 제식은, 동정복 상의는 흑색 사지나 모직을 재질로 하여, 목부분을 자루형으로 트고, 네모난 치장 깃을 분리식으로 달도록 하였다. 상의의 길이는 하의의 밴드부분을 덮을 수 있도록 길게 하고, 등쪽의 깃에는 3/18″의 백색줄을 3/16″ 간격으로 3개를 두르도록 하였으며, 이 깃은 가장자리에서 1/4″ 떨어지게 하였다. 소매끝은 커프스를 하며 2개의 단추로써 잠그도록 하였고, 커프스 중앙에 수평으로 폭 3/16″의 백선(白線) 3개를 3/16″ 간격으로 넣었다. 겨드랑이 기장은 소매 기장보다 짧게 하고, 왼쪽 가슴에 뚜껑없는 주머니를 안으로 달았으며, 옆구리의 지퍼는 밖에서 보이지 않게 달았다.

동정복 하의는 상의와 같은 색과 재질을 사용하여 나팔식 긴바지로 하고, 다리는 한폭으로 하여 내측에 봉합선이 있게 하였다. 양 옆에는 시계주머니식 큰주머니 2개를 달았고, 커프스를 하지 않았다. 하정복 상의는 백색 개버딘이나 면직을 재질로 하였는데, 깃 역시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이용하였으며, 소매는 커프스를 하지 않고 통소매로 하였으며, 기타 제식은 동정복과 같았으나 치장 깃은 지휘관의 지시에 의거부착 내지 제거하였다. 하의는 상의와 같은 재질을 이용하였으며, 제식은 동정복의 하의 제식과 같았다.



〈세라복 동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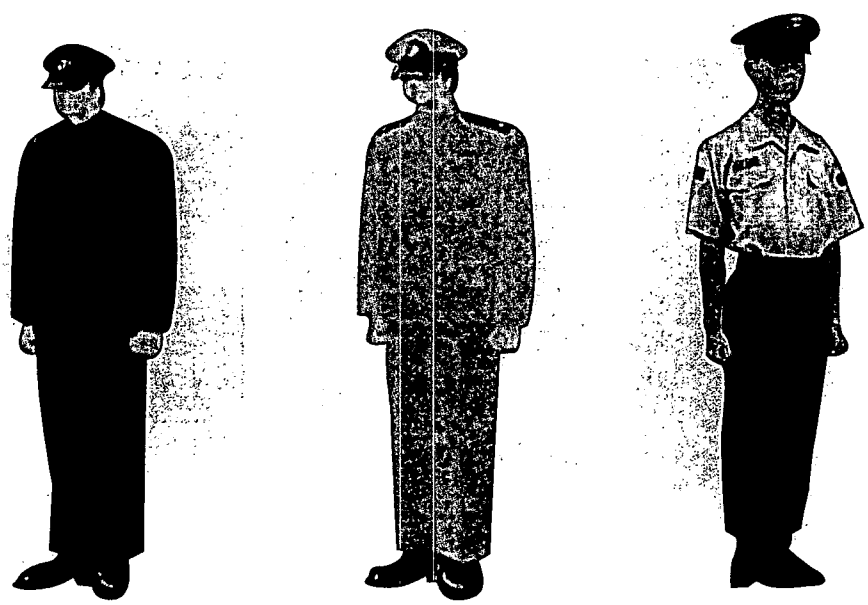
〈세라복 하복〉

상의의 치장 깃은 흑색 상의와 같은 재질로, 밑변 11″×윗변(목부분) 12″×양측변 9″인 제형(梯形)의 등부분과 이와 연결된 앞 깃 부분으로 구분하였고, 앞 깃 끝의 폭은 1¾″에서 차차 넓어져 길이를 11″로 하였다. 등부분의 3변두리와 앞 깃에 변두리에서 1/4″ 떨어져서 백선 3개를 부착하였으며, 백선은 폭이 3/16″이고 선간의 간격은 3/16″로 하였으며, 등부분과 앞 깃의 백선이 연결되도록 하였다.

세라복에 착용한 넥타이는 특이한 형태로 흑색 견직이나 교직으로 겹으로 만들었으며, 밑면이 55″×높이 3½″인 제형(梯形)식이었다. 이후 1980년 1월 9일, 〈군인복제령〉이 개정되면서 하사 및 중사의 정복 제식은 장교 및 상사의 정복 제식과 동일하게 변경되었으며, 수병들의 하정복은 열림식 목부분이 반소매형으로 변경되었고, 나팔식의 바지가 직선형의 바지로 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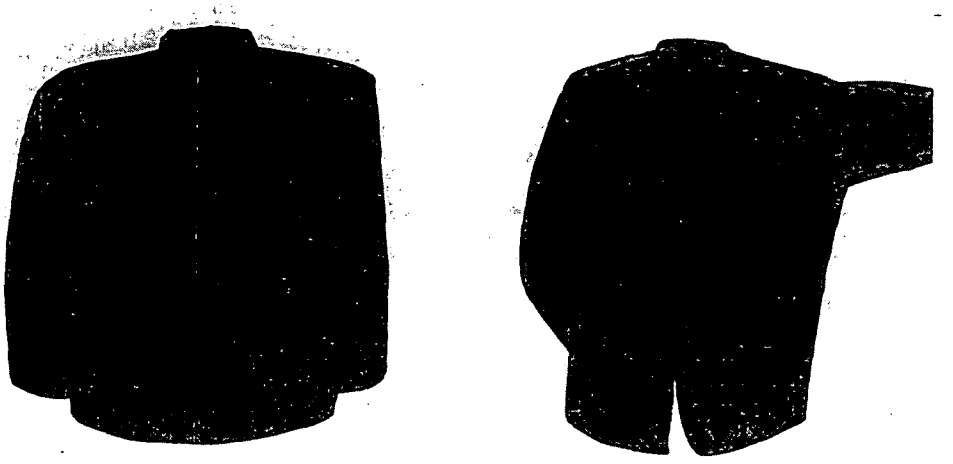
(4) 해병 사병

초기의 해병대 사병 정복은 이병에서 상사까지 공통으로 적용되었다. 재질은 동절기에는 모직 또는 혼방의 그린색을, 하절기에는 카키색의 면직 또는 혼방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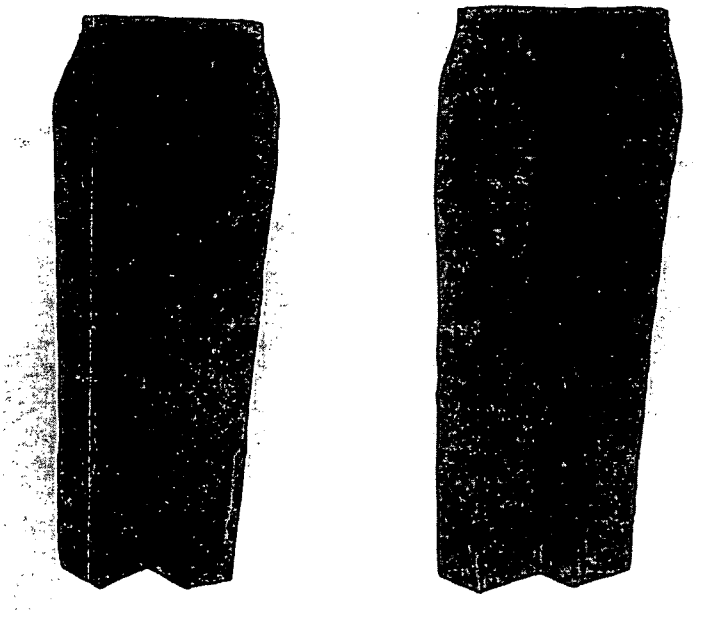
1953년~1966년　　1967년~1970년

〈해병 사병 정복〉　　〈사병용 약정복〉



전 면　　후 면

상 의



전 면　　후 면

하 의

〈해병 사병 정복〉

하였으며, 목부분은 단추 잠금식으로 하고, 어깨부분의 견장부분을 덧붙임식으로 하여 단추로써 잠그도록 하였다. 팔부분에는 양쪽으로 계급장을 붙였는데, 동절기에는 붉은 색으로 계급을 표시하였고, 하절기에는 흑색으로 계급을 표시하였다. 소매부분에는 정근장을 달도록 하였고, 상의 앞부분에는 5개의 일렬식 단추를 달아 오른쪽으로 여미도록 했으며, 가슴 양쪽에는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달고, 허리 아랫부분에는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달았다. 모든 단추의 크기는 직경 20㎜의 해병 금색 단추를 사용하였으며, 상의 뒷부분의 중앙 봉제선은 절개하였다. 하의는 상의와 같은 색의 재질과 색상으로 전면 우측 밴드 밑부분에 시계주머니를 달고, 뒷면에는 허리 아랫부분 양쪽에 속덧붙임 뚜껑주머니를 달았으며, 양 옆 봉합선상에 속주머니를 달았었다. 이 복장은 정복과 예복 겸용으로 사용되었다. 그후 1967년 1월 9일, 〈군인복제령〉이 개정되면서 상의의 제식이 일부 변경되어 상의 칼라를 세운 깃으로 변경하고, 상의의 일렬 배치식 단추를 종전 5개에서 7개로 조정하였다.

또 1971년 2월 25일에는 카키색 재질을 전부 폐지하고, 그린색 모직 또는 혼방만으로 동절기용 사병 정복을 만들었으며, 상의 앞면의 단추 크기를 직경 25㎜ 해병 중형 단추로 바꾸고, 가슴부분과 허리 밑부분의 주머니 단추는 종전 크기의 단추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 시기에 장병 공히 착용하는 하약정복 상의(하절기용)의 복식을 제정하여 카키색 면직 또는 혼방으로 노타이 반소매형 상의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제식은 장교들과 같았다.

그후 1975년 9월 30일에는 사병 중 상사의 정복을 장교의 정복 제식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며, 상의 소매부분에 계급장과 정근장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또한 1980년 1월 9일, 〈군인복제령〉 개정시는 하사관의 정복 복장을 장교의 정복 제식과 동일하게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5) 간호장교

해군 간호장교용 정복은 〈해군복제령〉이 제정된 1952년 이후부터 1966년까지는 예복과 같은 제식의 복장을 착용하였으며, 동정복의 상의는 흑색 사지 또는 모직을 재질로 사용하였고, 외줄 단추복에 젖힌 칼라깃을 채택하여 그 위에 둥근 칼라를 덮게 하였다. 단추는 상의 왼쪽에 해군 중형 단추 4개를 달고 왼쪽으로 여미도록 하였다. 또한 흉부 양쪽에 뚜껑있는 주머니를 안으로 달고 소매에 수장을 부착하도록 하



1952년 ~ 1966년



1967년 ~ 1970년



1971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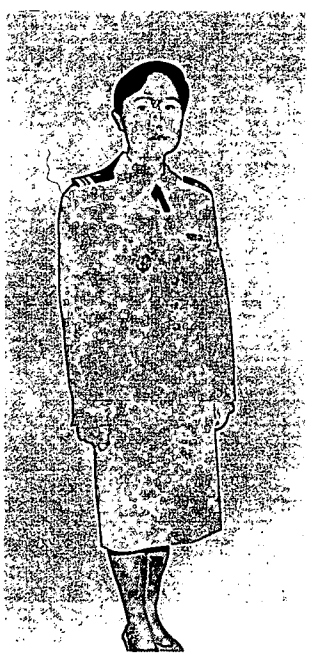
〈간호장교 동정복〉



1952년 ~ 196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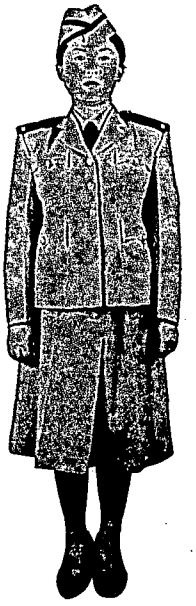


1967년 ~ 1970년



1971년 ~

〈간호장교 하정복〉



1971년 이전



1971년 이후

〈간호장교 약정복〉

였으며, 앞과 등은 각 4매씩을 봉합하였다. 스커트는 상의와 같은 색의 재질로써 보통형 6매로 된 형으로, 길이는 무릎을 덮게 하고 허리에는 폭 1¾″의 띠를 두르게 하였으며, 허리띠에 부쳐서 양 옆에 안으로 주머니 2개를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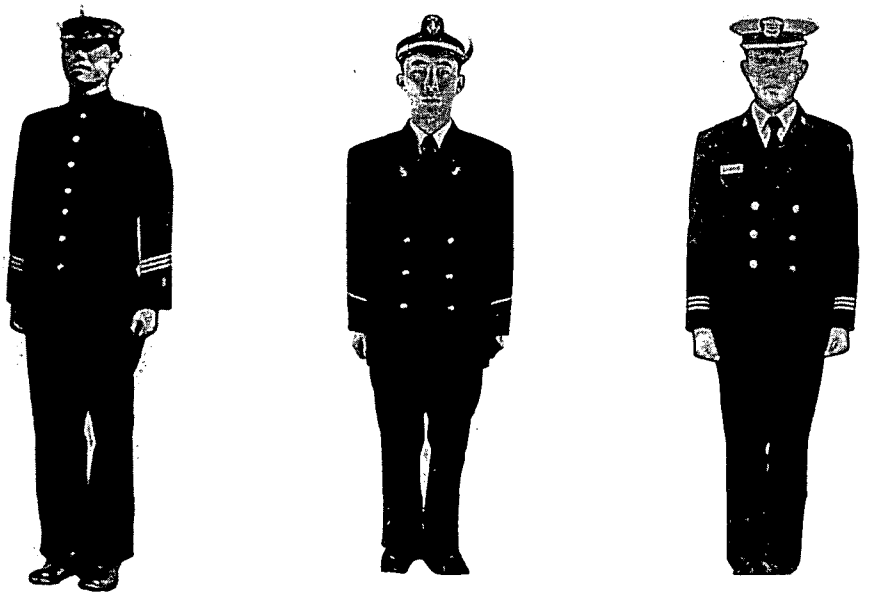
하정복 상의는 백색으로 표백한 면직이나 개버딘지로 제식은 동정복과 같았다. 하정복 하의인 스커트는 상의의 색과 재질과 동일하며 제식은 동정복과 같았다. 약정복 제식은 상의가 남자 장교들의 카키색 약정복과 같았으며, 약정복 하의인 스커트는 상의와 같은 색과 재질로 동정복의 스커트와 같은 제식을 채택하였다. 그후 1967년 8월 7일, 〈군인복제령〉 개정시 해군 간호장교의 정복 제식을 개정하여, 동정복은 흑색 모직 또는 혼방으로, 하복은 반소매로 카키색 모직 또는 혼방을 재질로 하여 원피스형 모형으로 길이는 무릎 아래 종아리 부분까지 내리고, 허리부분을 밴드로묶고, 보통형 뿔 버클로 고정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허리부분 우측에는 뚜껑없는겉붙임주머니를 달았으며, 밴드의 폭은 5㎝로 하였다.

이후 1971년 2월 25일, 〈군인복제령〉 개정시 다시 정복을 예복과 같은 모형으로 개정하였으며, 재질을 개선하여 동복은 흑색 모직 또는 혼방을 사용하고, 하복은

백색 면직 또는 혼방을 사용하였으며, 상의는 둥근 칼라로 앞·뒤 4폭으로 하고, 하의는 스커트를 앞·뒤 각각 전폭으로 하였다. 또한 여름용 약식정복을 제정하여 노타이의 반소매형 상의에, 전면에 백색 해군 중형 단추 4개를 달아 왼쪽으로 여미도록 하였으며, 좌·우 허리부분에 뚜껑없는 속붙임주머니를 달았다. 한편 카키색의 약정복은 1985년 9월에 착용이 폐지되었으며, 1987년에는 하정복의 수장을 제거하였다.

(6) 사관생도

사관생도 정복은 해군 장교들의 동·하정복과 같은 색상 및 재질을 사용하였으며, 제식 또한 장교들과 동일하였으나 상의의 양 깃에 사관생도 금장을 부착하였고, 수장 및 견장에 학년표시를 부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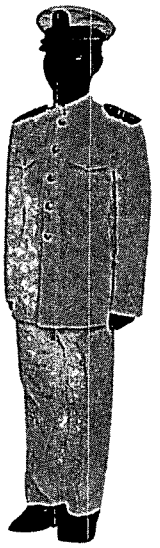
1946년~1953년　　1953년~1960년대 초　　1975년~

〈사관생도 동정복〉



1946년～1953년

〈사관생도 하정복〉



1953년～1960년대 초



〈사관생도 하약복〉

다. 戰 鬪 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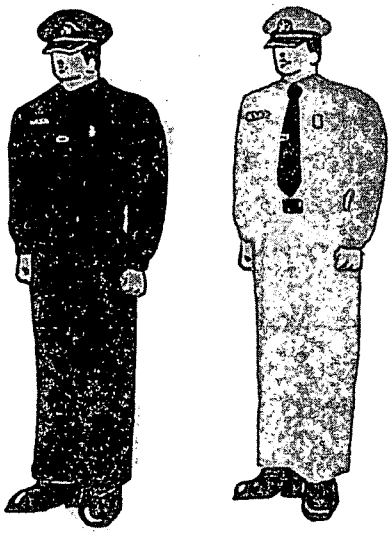
1945년 11월 11일 해군병단 창설 이후 초기에는 일본 해군 복제식에서 출발하여 점차 미국 해군의 복제를 따르면서, 전투복이라는 복식 제정은 없었으나 작업복을 전투복으로 대신 착용하였다. 그후 1952년, 〈해군복제령〉을 제정하면서 전투복 복식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변천을 거치게 되었다.

(1) 해군 장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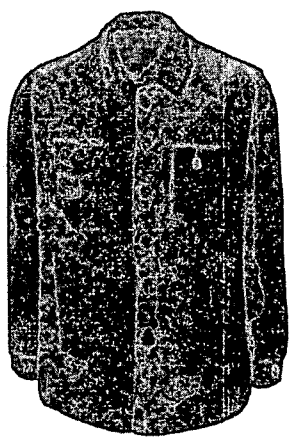
1950년대 초기의 해군 장교 전투복은 전방 근무자 평장(현 근무복)에 해당하는 복장으로, 이 제식은 칼라식 긴소매에 검은 색 넥타이를 하고 정모를 착용하였다. 재질은 동복에는 흑색 모직 또는 혼방을, 하복에는 카키색 모직 또는 혼방을 사용하였으며, 상사 이상 장교가 착용하였다. 전투복 상의는 양쪽 가슴부분에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달았으며, 소매는 커프스형으로 하였다. 또한 상의 양 칼라에는 약장 계



해군 장교 전투복(동·하계)
1952년~1966년



해군 상사 전투복(동·하계)
1952년~196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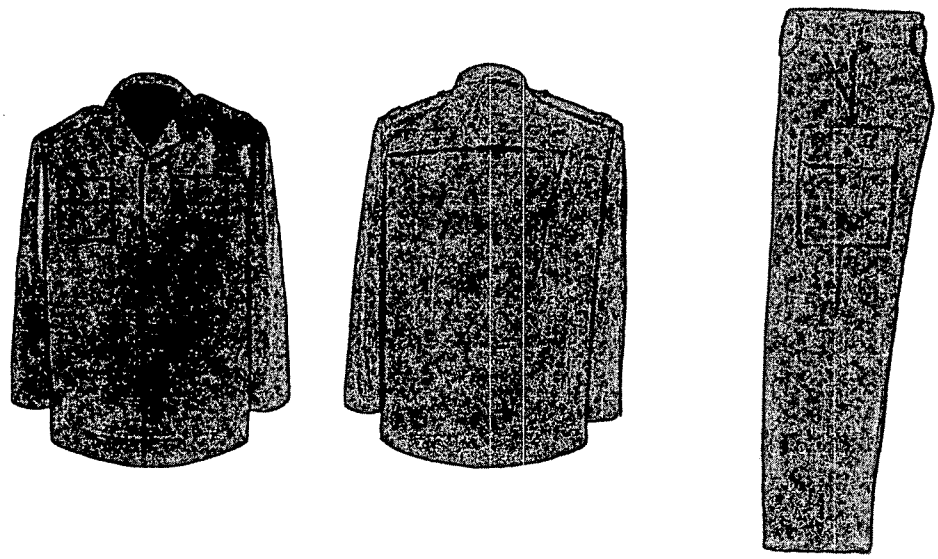


상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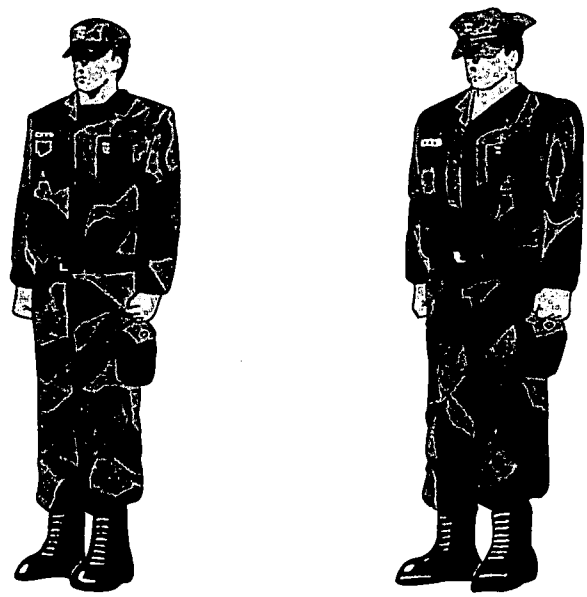
하 의

해군장교 및 상사 전투복 (1967년~1970년)



상 의　　하 의

〈각군 장병 공용 전투복 ①(1971년~1990년)〉



해 군　　해 병

〈각군 장병 공용 전투복 ②(1991년~　　)〉

급장을 부착하였으며(상사는 좌측 가슴부분), 카키색 약복을 하절기에 착용하도록 하였다.

그후 1967년 1월 9일, 〈군인복제령〉이 개정되면서 이를 일부 개정하여, 해군 장교의 전투복 상의를 보통형 와이셔츠식으로 하되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달았으며, 하의의 제식은 정복 제식과 동일하게 하고, 재질은 동절기에는 흑색 모직 또는 혼방을, 하절기에는 카키색 면직 또는 수직 및 혼방으로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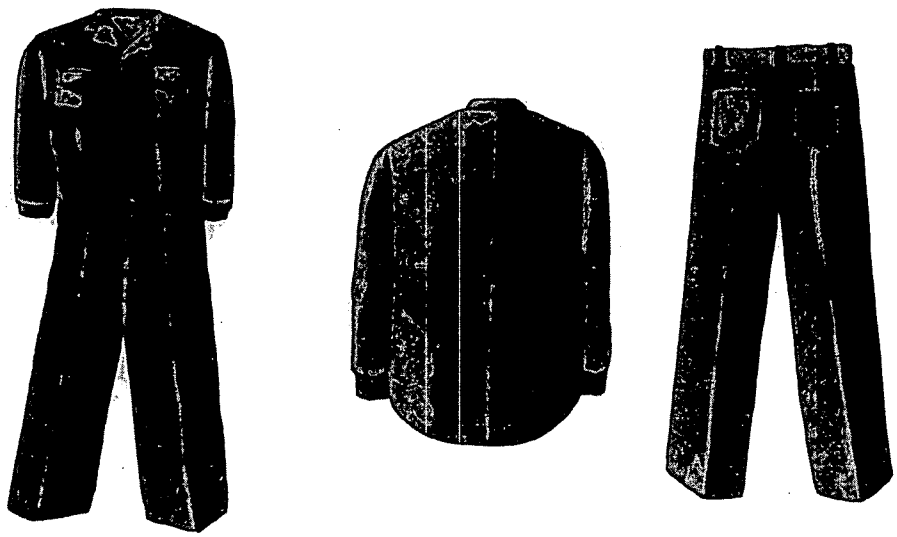
그후 1971년 2월 25일, 〈군인복제령〉이 재차 개정되면서, 각군 장병의 전투복을 통일하여 단일 제식으로 변경하였고, 재질은 연한 청록색 면직 또는 혼방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전투복 상의는 노타이 차림에 양 어깨에 견장대를 대도록 하고, 양쪽 가슴에는 겉붙임주머니를 달고 허리 조임끈을 달았으며, 속붙임 비상주머니를 좌측 허리 윗부분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의의 뒷면은 어깨 이중받침의 모형을 하였다. 하의는 사선 속붙임주머니를 달았으며, 하의 뒷주머니를 제거한 반면 상의가 하의 밖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이후 1975년 9월 30일에는 상의 목부분에 가리개를 하였다가, 1990년에는 전투복의 색상을 얼룩무늬로 전군이 통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해병 장교

초창기에 제정된 해병 장교용 전투복은, 착용 대상을 준위부터 장관급 장교까지로 하고, 모자는 약모를 착용하였으며, 모자 중앙에 계급장을 부착하였다. 목부분의 머플러는 없었고, 양 가슴부위에 겉붙임주머니를 단 와이셔츠형 상의를 착용하였다. 하의는 양쪽에 속붙임주머니를 달고, 뒷면에는 뚜껑없는 겉붙임주머니를 양쪽에 달았으며, 재질은 단일 국방색 면직 또는 혼방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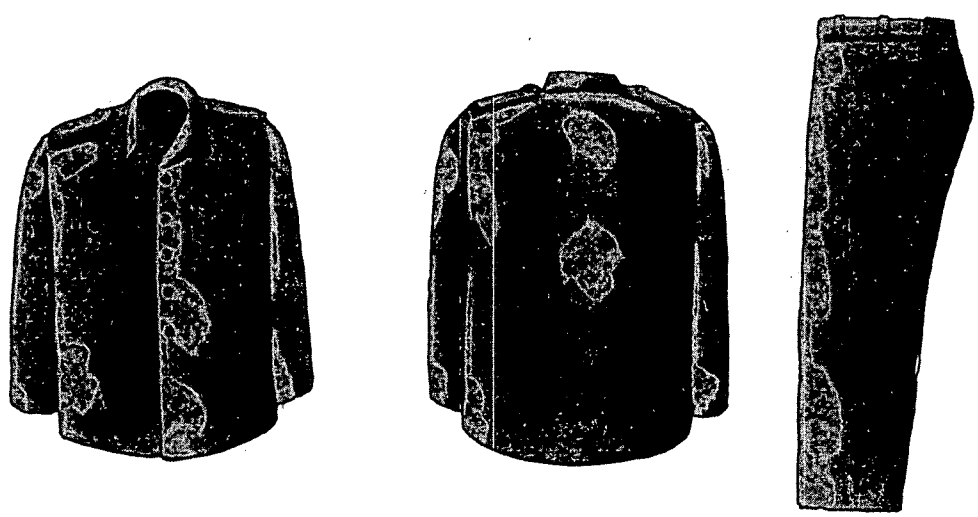
이후 1967년 1월 9일, 〈군인복제령〉이 개정되면서 해병 장교의 전투복 제식이 일부 변경되었다. 재질과 색상은 변동이 없었으나, 상의 앞면에 5개의 국방색 뿔 단추를 달았으며, 견장대를 부착하고 소매를 통소매로 하였다. 하의는 종전과 같은 제식으로 사용하였다. 그후 1971년 2월 25일, 각군 장병 공용 전투복이 제정되면서, 해군 장교의 복장 제식과 거의 유사하게 되었으나, 상의 앞부분의 국방색 단추와 가슴부분의 주머니 단추가 숨은 단추로 변했으며, 견장대가 없는 반면 하의 뒷주머니에 해병만 단추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1975년 9월 30일 이후 〈군인복제령〉 개정과, 1990년의 얼룩무늬 색상의 전투복 제식은 해군 장교의 전투복 제식과 동일하게 변

화되었다. 해병 장교의 1971년 이후 현재까지의 전투복 제식은 해군 장교의 전투복 제식과 같다.



상 의　　하 의

〈해병 장교 전투복 상·하의(1952년~196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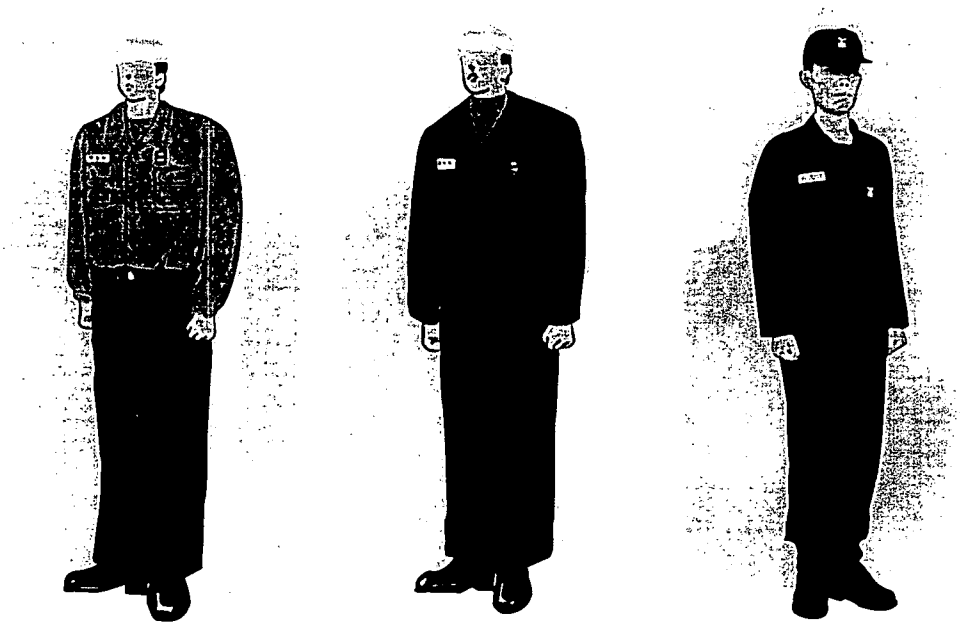
상의 전면　　상의 후면　　하 의

〈해병 장교 전투복 상·하의(1967년~1970년)〉

(3) 해군 사병(중사 이하)

해군 사병의 전투복 제식도 해군 장교의 전투복 제식 변경과 같은 변천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해군복제령〉이 제정된 1952년 이후 초창기의 해군 사병 전투복 제식은 상의의 재질을 청색 모직 또는 면직으로 하여 와이셔츠형으로 하고 양쪽 가슴 부분에는 뚜껑없는 주머니를 달았으며, 계급장을 좌측주머니 바로 위에 달았다. 견장대는 없었고, 모자는 B형 정모를 착용했다. 하의는 청색 모직 또는 면직으로 하고, 앞·뒤에 4개의 겉붙임주머니를 달았으며, 바지통을 나팔식으로 하였고, 전투복 A형 상의는 하의 안으로 넣도록 하였고, 전투복 B형 상의는 하의 위로 나오도록 하였다. 가슴부분의 주머니가 없고, 허리부분에 뚜껑없는 겉붙임주머니를 두 개 달았다.

그후 1967년 1월 9일, 〈군인복제령〉이 개정되면서 제식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었으며, A형에 한하여 하절기에 반소매로 하도록 하였다. 1971년 2월 25일 이후 전군의 장병 공용 전투복이 제식되었으며, 그후의 제식은 장교와 같이 변천되었다. 1971년 이후 해군 중사 이하 사병들의 전투복 제식은 해군 장교의 전투복 제식과 같다.



1953년~1966년

*하의는 종전과 동일
1967년~19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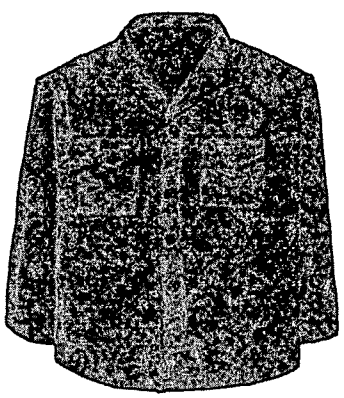
〈중사 이하 전투복〉

(4) 해병 사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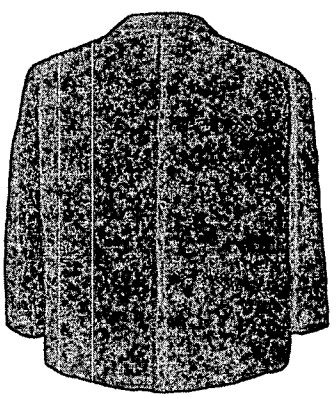
초창기 해병 사병의 전투복은 이병에서 상사까지를 착용 대상으로 하였으며, 재질이나 색상과 모든 제식이 초창기 해병 장교 전투복과 거의 같았으나, 단지 하의 뒷부분의 주머니가 장교는 뚜껑없는 주머니인 반면 사병의 하의에는 뚜껑있는 주머니가 다른 점이었을 뿐이다. 이후 1967년 1월 9일 〈군인복제령〉이 개정되면서 해병 장교와 같이, 사병의 전투복 제식도 다소 변경되었다. 이 당시 변경된 전투복 제식은 육군·공군·해병 사병의 전투복이 통일된 것으로 보통형 노타이 와이셔츠 형식에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양쪽 가슴에 달았으며, 상의 전면의 단추는 네 개로 국방색 뿔 단추를 사용하여 오른쪽으로 여미도록 하였다. 하의는 장교 전투복의 하의 제식과 동일하였다. 1971년 2월 25일, 각군 장병 공용 전투복이 개정되면서 해병 장교의 복제와 거의 유사하게 변경되었으나, 단지 해병 사병의 전투복 하의는 뒷면 사선 속붙임주머니가 없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1975년 9월 30일 이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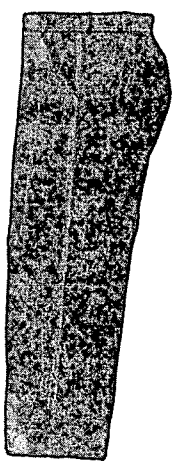
〈해병 사병 전투복 (1953년~1966년)〉



상의 전면



상의 후면



하 의

〈해병 사병 전투복(1967년~1970년)〉

변화는 해병 장교의 전투복 제식과 동일하였다.

1971년 이후의 전투복 제식은 각군 장병이 공통으로 변경된바, 해군 장교 장교의 전투복 제식과 동일하다.

(5) 해군 간호장교

해군의 간호장교용 전투복 제식은 임무 성격상 특별히 제정되지는 않았었으나, 1971년 2월 25일, 〈군인복제령〉 개정시 각군 장병 공용의 여군 전투복 제식이 제정되면서 복식을 갖추게 되었으며, 그 당시 복식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상의의 칼라는 스포츠 칼라 형태의 깃에다, 양쪽 어깨에 견장대를 부착하였으며, 허리띠를 선단 붙임식으로 하고, 허리부분은 양쪽에 사선 속붙임주머니를 달았다. 소매는 커프스형에 단추 조임식으로 잠그도록 하였으며, 허리띠 아래 중앙선을 절개하였고, 재질은 국방색 면직 또는 혼방을 사용하였다.



〈간호장교 전투복 (197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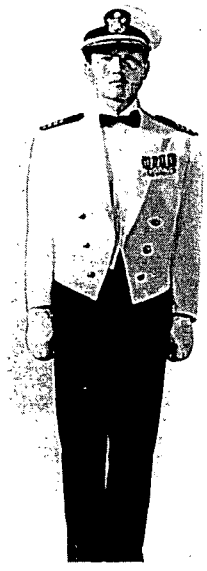
라. 晩 餐 服

해군복 개념이 제정된 1952년도의 만찬복 제식은 다음과 같았다.

(1) 해군 장교

당시 해군 장교가 착용한 만찬복은 만찬회복과 오찬회복으로 크게 구분하여 그 복식을 제정하였으나, 복장지급은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교에게만 보급되어 착용에 제한을 두었다. 동만찬복(冬晩餐服)의 상의는 흑색 고급 모직으로 연미형(燕尾形)으로 만들었으며, 해군 장교 정복의 중형 단추를 앞부분 양쪽에 3개씩, 뒤 허리부분에 2개를 달았다. 상의의 앞부분은 열어 놓든가 또는 고무밴드로써 걸어 붙이든가 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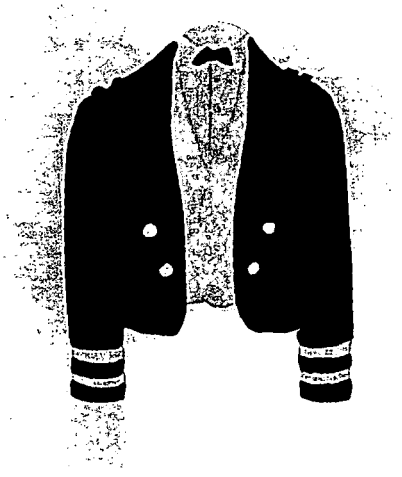
다. 소매부분은 금줄 계급장과 병과별 표시를 부착하였으며, 깃 위에 축소형 훈·기장을 패용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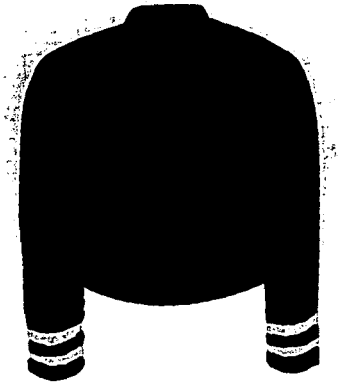
하 복
〈해군 장교 만찬복
(1953년~1966년)〉

하의는 상의와 동일한 색과 재질로 만들며 허리를 높게 올리고, 보통형 만찬회복 하의와 같게 하고 커프스를 하지 않았다. 조끼는 표백색의 면직·린넨·기타 모직으로 깃이 있게 제작되어 양 앞에 주머니를 달며, 외줄 단추복으로 정복 중형 단추 3개를 오른편에 달고 잠그도록 하고, 셔츠는 백색 포플린(poplin)을 사용한 날개 깃으로 된 보통형 셔츠로 금색 단추와 커프스 링크(cuffs link)로 잠그도록 하였으며, 넥타이는 네모나고 단순한 백색 나비넥타이(bow tie)를 사용하였다. 반면 하만찬회복(夏晩餐會服)은 하정복에 백색 수갑을 착용하고, 축소형 훈·기장을 패용하였다. 오찬회복은 동·하정복을 겸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동복 착용시 넥타이를 나비넥타이로 바꿔 매었다. 이후 1967년 1월 9일, 〈군인복제령〉이 개정되어 각군이 동일한 만찬복 제식으로 바뀌면서 해군 만찬복의 제식은 크게 변동이 없었으나, 재질과 색상은 변동되어 동만찬복은 흑색 모직 또는 혼방으로 되었으며, 하만찬복은 백색의 모직 또는 혼방을 사용하게 되었다. 소매에는 수장만을 착용하도록 하고 해군의 병과 표시가 없어졌다. 또한 소매수장은 동복에 한하도록 제식이 바뀌었다. 하의 역시 기존 해군의 만찬복 하의와 거의 같은 제식이었다. 이후 1975년 9월 30일, 〈군인복제령〉이 다시 개정되면서 제식이 변경되어 상의의 재질을 동복은 흑색의 모직 또는 혼방을, 하복은 백색의 모직 화섬 또는 혼방으로 바꾸고, 양 어깨에 견장대를 대고(단, 동복은 제외하였음) 칼라를 둥근 깃형으로 하되, 동절기는 흑색 우단을, 하절기에는 백색 우단을 달았으며, 상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복부부분 양쪽에 소형 금색단추를 달았다. 또한 앞부분의 양쪽에 해군 금색 중형 단추 2개씩을 달도록 했으며, 소매부분의 수장은 동복에 한하여 부착하였다. 안쪽의 셔츠는 백색 주름와이셔츠를 착용하고, 넥타이는 흑색 보타이를 착용하였다. 특히 허리부분에는 복띠를 두르도록 하여 해군과 해병을 구분하였는데, 해군 동만찬복의 복띠는 황색 공단, 하만찬복의 복띠는 흑색 공단을 사용하였고, 해병은 동·하만찬복 공히 적색 공단의 띠를 사용하였다. 하의는 멜빵으로 고정하도록 하고, 재질

은 흑색의 모직 또는 혼방을 해군과 해병 모두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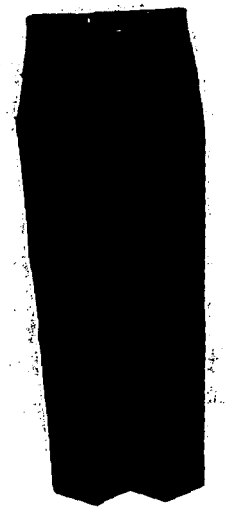


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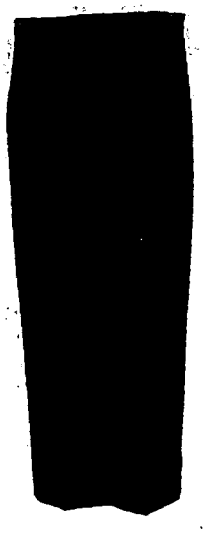


후 면

상의(해병 장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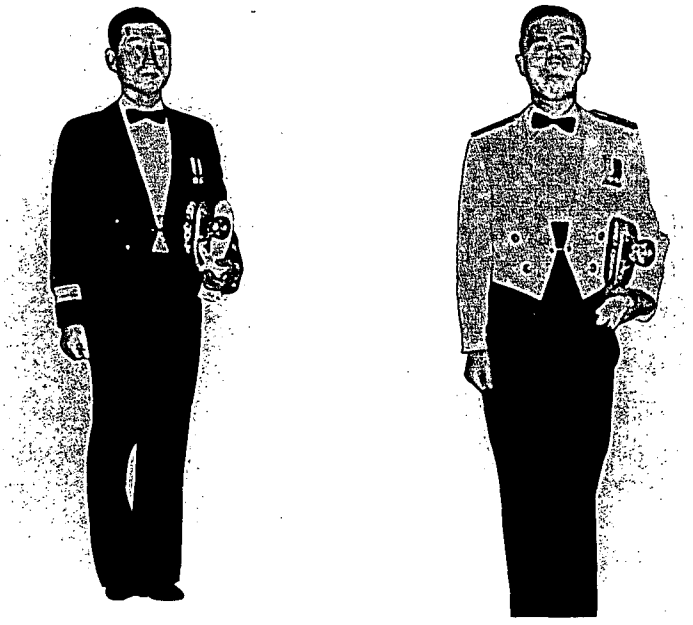
전 면



후 면

하의(해병 장교 제외)

〈해군 장교 만찬복(1967년~1974년)



동 복　　하 복

〈해군 장교 만찬복(1975년～현재)〉

(2) 해병 장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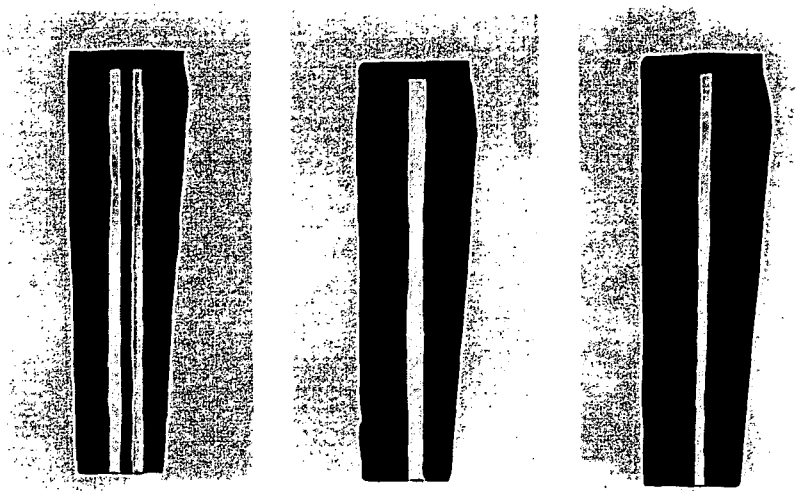
〈해군복제령〉이 제정된 초기의 해병 장교의 만찬복은 해군 장교의 만찬복과 유사한 형태의 제식으로, 만찬복은 주로 특례장 '을'(乙)이 많이 사용되었다. 만찬복 상의의 재질은 모직 또는 혼방으로, 동복은 흑색, 하복은 백색을 사용하였고, 연미형으로 만들었다. 상의의 왼쪽 가슴 부분에는 축장을 부착하였으며, 상의 양쪽에 해병 금색 중형 단추를 2개씩 달았고, 동복 소매에만 수장을 부착하였다.

와이셔츠는 백색의 높은 깃셔츠를 착용하였으며, 넥타이는 보타이를 착용했다. 조끼는 백색 모직 또는 면직으로 앞부분에 3개의 정복 중형 단추를 달아 오른쪽으로 여미도록 하였고, 소매부분의 수장은 장관급은 소매끝으로부터는 8㎝, 위에서부터는 6㎝를 금색으로 하고, 금색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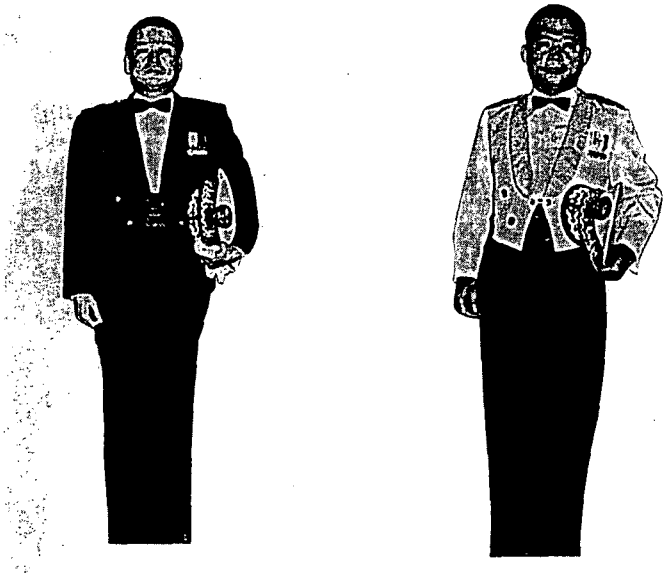
〈해병 장교 만찬복
(1953년～1966년)〉

깥부분은 2㎜씩 양쪽을 홍색으로 둘렀다. 영관급의 수장은 소매끝 8㎝부터 3㎝ 간을 금색으로 두르고 홍색 띠를, 위관급은 소매끝 10㎝부터 1.5㎝ 간을 금색으로 두르고 홍색띠를 양쪽으로 2㎜씩 두르게 하였다.



장 관　　영 관　　위 관

〈해병 장교 만찬복 하의(1967년~1974년)〉



동 복　　하 복

〈해병 장교 만찬복(1975년~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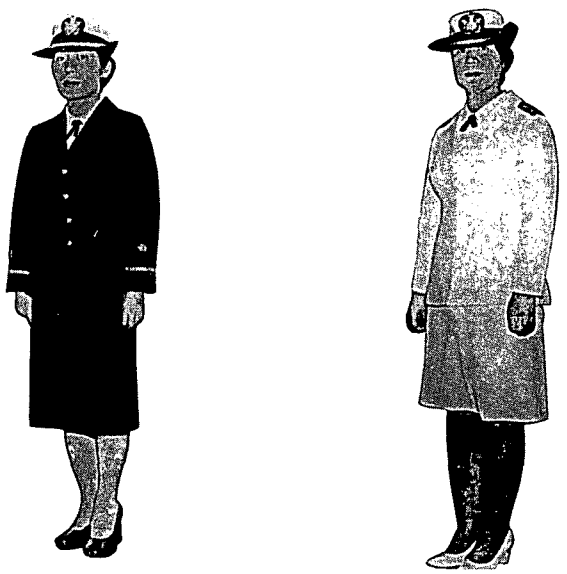
하의는 흑색 모직 또는 혼방으로 일자형 일반 바지형에 측면에 4㎝ 굵기의 홍색 수식을 넣었다.

이후 1967년 1월 9일, 〈군인복제령〉이 개정되면서 전군의 만찬복 제식이 통일되어 앞서 기술한 해군 장교의 만찬복 제식과 같았으나, 하의만은 그림과 같이 조정되었고, 1975년 9월 30일, 또 한차례 개정된 만찬복에서는 해군 장교의 만찬 제식과 동일하게 변하고 단지 복띠로써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병 장교 만찬복 제식 중 1967년부터 1974년까지의 복장은 해군 장교 만찬복과 같다.

(3) 간호장교

간호장교용 만찬복은 1952년 〈해군복제령〉 제정 당시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확실한 근거가 없고, 1960년의 〈해군복제규정〉에 의한 만찬복의 종류와 제식은 다음과 같다. 만찬복은 동만찬복과 하만찬복으로 구분하였으며, 해군 남자 장교들과 같이 오찬회복도 동·하절기로 구분하여 착용하였다. 동만찬복의 상의는 흑색의 가벼운 모직으로



〈간호장교용 만찬복(1953년~1974년)〉

하였으며, 이의 모형은 '이튼'(Eton jacket)[8]형으로 하고, 외줄 단추복에 벌려 젖힌 깃 위에 둥근 칼라를 덮었으며, 양 앞에 한 줄씩 3개의 단추 구멍(사용치 않는)과 3개의 정복 단추를 달았으며, 수장을 부착하고, 축소형 메달을 왼쪽가슴에 패용하였다.

스커트는 상의와 동일한 색과 재질로서 만들었으며, 긴 원형 스커트에 주름을 잡아 내렸다. 셔츠는 백색의 견·인조견·나일론으로 작고 뾰족하게 접은 깃의 보통형 셔츠로, 목은 백색 소형 뿔단추로 잠그고, 그 아래는 소형 정복 단추로 잠그게 했다. 소매는 반소매로 하였다. 넥타이는 간호장교 동정복에 착용한 넥타이를 사용하였으며, 구두는 흑색 높은 힐형을 신었다. 또한 상의와 스커트 색과 동일한 색의 인조견으로 폭 2½″ 장식용 밴드를 착용하였다.

모자는 반달형 왕관식의 흑색 모자로 장교모표를 부착하였다. 하만찬복은 하정복을 겸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동오찬회복은 동정복을, 하오찬회복은 하정복을 겸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1975년 9월 30일, 〈군인복제령〉이 개정되면서 여군의 예복 겸 만찬복이 정식으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앞 예복편 참조)

마. 外　套

(1) 해군 장교

해군의 복제령이 제정된 당시의 해군 장교외투는 동외투와 동근무외투가 있었다.

동외투는 흑색 멜턴(melton) 또는 모직을 재질로 하여 깃을 바깥깃으로 하고, 두 줄 단추복으로 하였다. 전체 길이는 무릎에서 땅까지 ⅓이 되게 하고, 허리 뒷부분에 반띠를 달고, 정복 대형 단추 2개를 달았다. 또 반띠 아래는 적당한 길이의 뒤트기를 하였으며, 왼쪽 옆구리에 예식도(禮式刀) 걸이용 구멍을 냈다. 앞부분은 두 줄로 5개씩의 정복 대형 단추를 달되, 제일 위의 하나씩은 깃 바로 밑에 달았다. 보통 착용시는 우측 아래 4개의 단추만을 사용했으며, 필요시 맨 윗부분의 단추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복부부분의 좌·우에 뚜껑없는 주머니를 안으로 달았으며, 양 어깨에 견장을 부착하였다.

---

8) 영국의 이튼학교 제복에서 유래된 등길이가 짧은 재킷. 폭이 넓은 흰 플랫 칼라가 붙어 있으며, 앞 단추는 채우지 않은 채 입는다.



장 교



하사관

〈동외투(1953년 ~ 1966년)〉



〈동근무외투(1953년 ~ 현 재)〉

동근무외투는 동외투와 같은 색의 재질로서, 깃을 바깥깃으로 하고 두 줄 단추복으로 하였다. 전체 길이는 동외투와 같았으며, 허리부분에 통띠를 두어 버클로 매게 하였다. 소매 끝부분은 반띠를 두르고, 소형 흑색 뿔단추 4개씩을 달았다. 단추 부착요령은 동외투와 같았으나, 앞부분의 두 줄 단추는 대형 흑색 뿔단추를 달았다. 복부 좌·우에는 뚜껑없는 주머니를 안으로 달았으며, 양 어깨에 견장대를 달고, 약견장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안에는 라이너(liner)를 소매없이 하여 지퍼로 착탈이 가능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1967년 1월 9일, 〈군인복제령〉 개정시 각군 장교 및 여군 장교의 외투를 일반외투로 통일하여 복식을 제정하면서, 해군 장교 및 간호장교의 재질을 흑색 모직 또는 혼방으로 바꾸고, 폭 5㎝인 허리띠를 통띠로 매게 하였으며, 소매 끝부분은 해군 장교의 동근무외투에 적용했었던 반띠를 두르게 하고, 소형 흑색 뿔단추를 4개씩 달았다. 또한 외투 앞부분의 단추는 복지와 같은 색의 25㎜ 단추를 양쪽으로 4개씩 달고, 어깨에 견장대를 부착토록 하였다. 뒷부분은 중앙 봉제선 하단을 절개식으로 하여, 해군의 동근무외투와 대동소이하게 만들었다. 이후 1975년 9월 30일, 〈군인복제령〉을 개정할 때에는 상기 외투 제식에서 육군 장병은 별도의 외투 제식을 정하였으며, 해군은 변동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해병 장교

해병 장교용 외투는 〈해군복제령〉이 제정된 시기에 제식이 결정된 것으로, 재질은 그린색의 모직 또는 혼방을 사용하였다. 전면은 해병 금색 대형 단추 4개를 달아 오른쪽으로 여미도록 하고, 허리 바로 아래 부분에 속붙임 뚜껑없는 주머니를 달았다. 또 허리부분은 양 옆구리 부분에 덧붙임을 대었으며, 양쪽 어깨부분에 견장대를 부착하였다.

그후 1967년 1월 9일, 〈군인복제령〉 개정시 각군 장교 및 여군장교의 외투를 일반외투로 통일할 때 해군 장교의 외투 제식 형태와 똑같이 변하였으며, 다만 색상만 그린색으로 하고, 재질은 모직 또는 혼방을 사용하였고, 단추색 역시 그린색 단추를 사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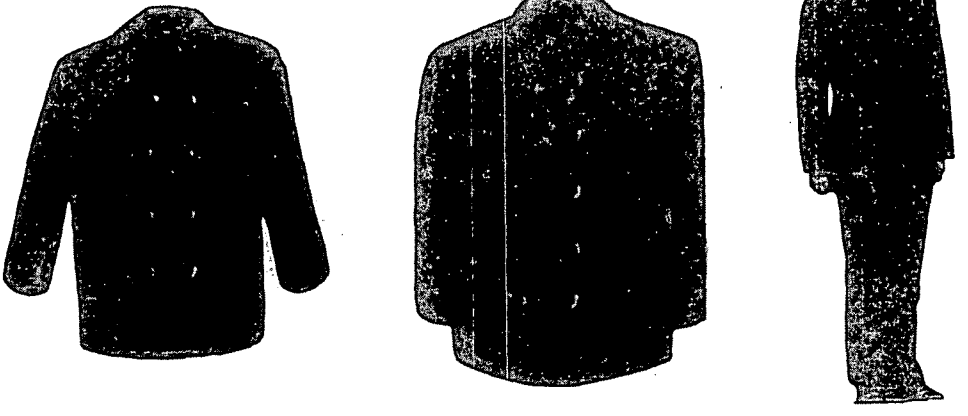
〈해병 장교용 동외투〉

(3) 해군 사병

해군 사병용 외투는 상사와 중사 이하로 구분하여 착용하였는데, 상사는 해군 장교의 외투 제식과 동일한 제식으로 동일한 변천과정을 거쳤다.

초창기 중사 이하 사병의 외투는 흑색의 두터운 모직을 재질로 사용하여 나비형 깃으로 하였다. 상의 전면을 두 줄 단추복으로 하여 한 줄에 5개씩 사병 외투단추를 달았다. 뒤는 2폭으로 하여 이를 봉합하였으며 적당한 길이의 뒷트기를 하고, 전체 길이는 보통형 반코트 길이로 하였으며, 우측 소매에 계급장을 부착하였다.

이후 1967년 1월 9일, 〈군인복제령〉이 개정되면서 각군 사병의 외투를 통일하여 새로운 복식을 제정한바, 해군 사병의 외투는 재질을 모직 또는 혼방을 사용하고, 흑색으로 만들었다. 또한 앞 줄의 두 줄 단추를 외줄 단추 4개로 변경하였을 뿐 최초의 사병 외투 제식과 거의 동일한 모양이었다. 1971년 2월 25일, 〈군인복제령〉이 개정되면서 해군 중사 이하 사병용 외투의 제식을 일부 변경하여, 앞 줄의 단추를 두 줄로 3개씩 대형 단추를 달도록 변경하였으며, 이 제식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전 면
1953년~196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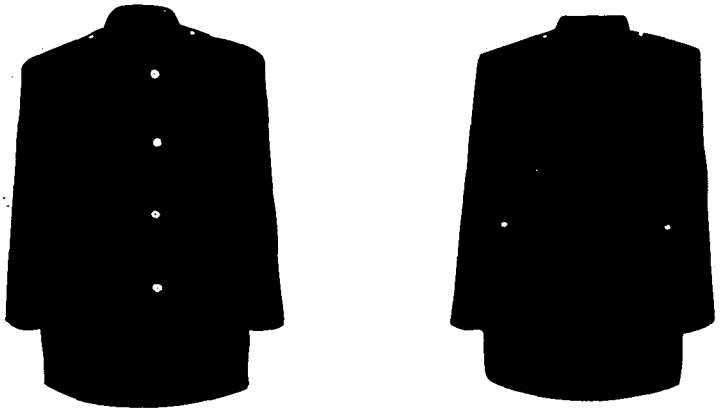
후 면
1967년~1970년

1971년~현재

〈중사 이하 사병 외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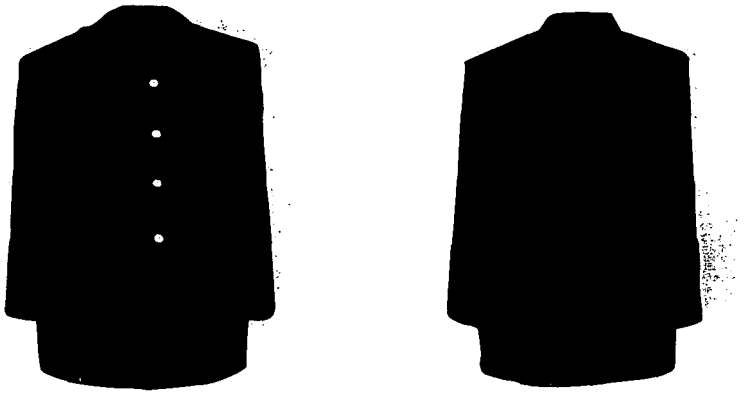
(4) 해병 사병

해병 사병용 외투는 이병에서 상사까지가 착용한 것으로 초창기 시기의 재질은 그린색의 모직 또는 혼방을 사용하였고, 어깨부분은 장교용의 견장대 대신 접은 깃을 덧붙임하였다. 단추는 외줄 단추에 해병 금색 대형 단추를 달았으며, 허리부분에 장교 외투와 같은 형식의 딧붙임을 좌·우에 하였다. 또한 좌·우에 속붙임주머니를



전 면 후 면

〈해병 사병용 외투(1953년~1966년)〉



전 면 후 면

〈해병 사병용 외투(1967년~현재)〉

달았고, 외투의 길이는 반코트로서 속 상의가 덮일 수 있을 정도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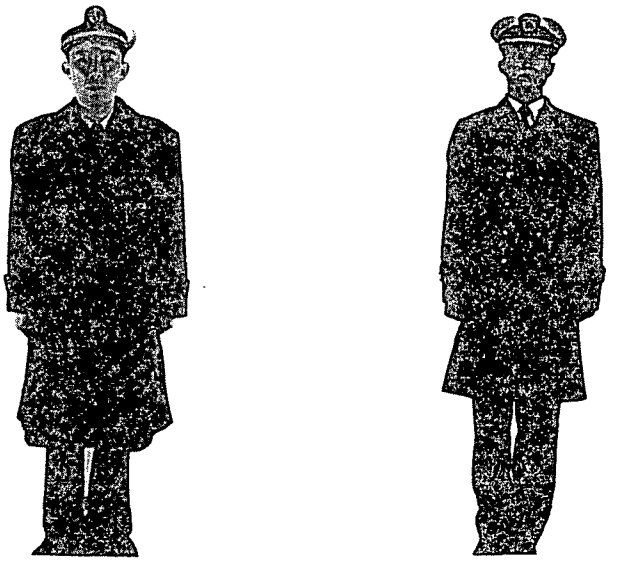
이후 1967년 1월 9일, 〈군인복제령〉이 개정되면서 각군 사병들의 외투가 통일된 제식을 채택하여, 양 허리부분의 덧붙임이 없어지게 되고 현재까지 이 제식을 사용하고 있다.

(5) 간호장교

간호장교용 외투 제식은 〈해군복제령〉이 제정된 1952년 초에 제정되었으며, 해군 남자 장교의 동근무외투 제식과 동일하였으나, 다만 단추를 왼쪽으로 여미도록 하였다. 또한 양쪽 어깨에는 견장을 부착하지 않았으며, 견장대를 부착하고 약장을 달았었다. 이후 1967년 1월 9일, 〈군인복제령〉이 개정될 당시도 해군 남자 장교들의 외투 제식과 동일하였으며, 현재까지 이 제식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장교용 외투 제식은 해군 남자 장교의 외투 제식과 같은 형태이다.

(6) 사관생도

사관생도용 외투 역시 해군 장교의 외투 제식과 동일하였으며, 변천과정도 동일하였다.



1953년~1966년　　1967년~현재

〈사관생도용 외투〉

바. 雨　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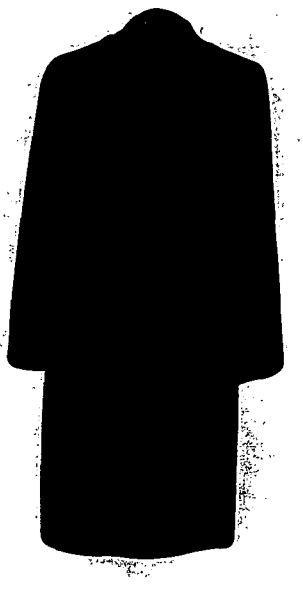
(1) 해군 장교

최초 해군 장교용 우의는 사병과 같은 제식으로 흑색 모직을 방수 처리한 재질로서, 양식은 동근무외투와 같은 제식을 본떠서 만들었으며, 양 어깨의 견장대에는 보통 뿔단추를 달고, 전면에는 숨은 대형 흑색 뿔단추 4개를 오른쪽으로 여미게 달았으며, 소매 끝부분의 덧붙임(반띠)에는 중형 흑색 뿔단추를 1개씩 달았고, 뒷부분은 중앙 봉제선 하단을 절개하였다. 견장의 계급장은 장교만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후 1967년 1월 9일, 〈군인복제령〉 개정시, 각군 장교와 사병의 우의 제식을 통일하고, 색상으로만 군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규 제식은 전면에 숨은 단추를 5개로 늘리고(겉으로 보이지 않게 겹단으로 함), 소매 끝부분의 반띠에 뿔단추를 1개에서 2개로 늘렸다. 또한 재질과 색상은 면직 또는 혼방 우의지로 하되, 해군은 흑곤색, 해병은 그린색으로 구분하였으며, 여군장교는 두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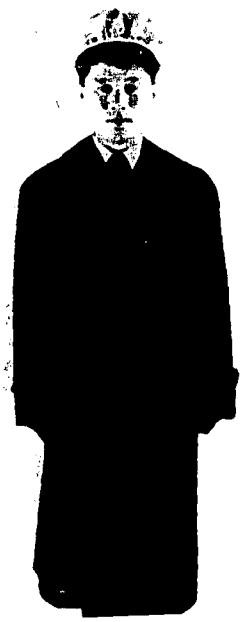


해군 장교(간호장교 포함) 및 사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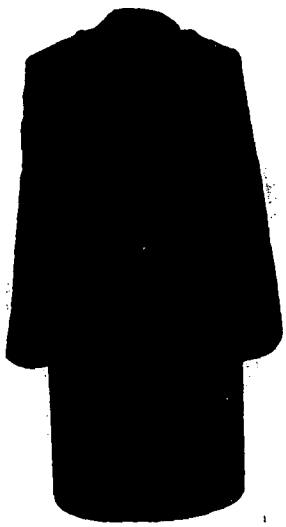


해병 장교용

〈우의 (1953년~1966년)〉



해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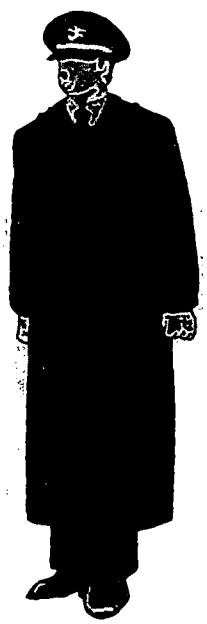


해 병

〈우의 (1967년 ~ 1970년)〉



해 군



해 병

〈우의 (1971년 ~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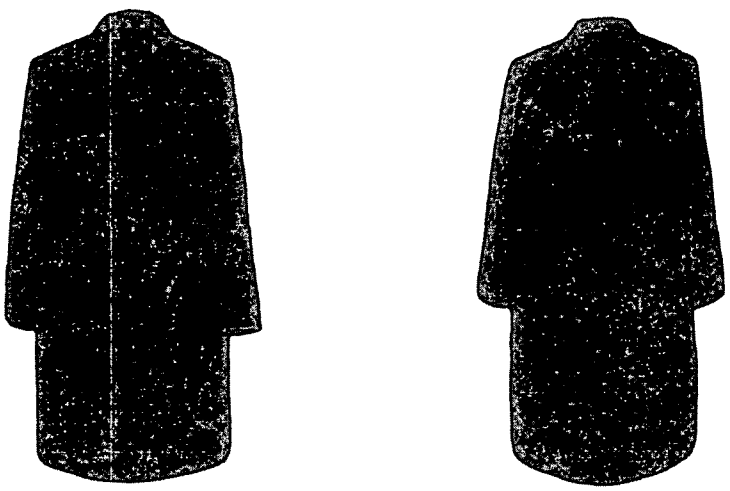
단, 사병은 우의에 견장대가 없었다. 1971년 2월 25일의 〈군인복제령〉 개정시는 이를 다시 수정하여, 해군·해병 및 간호장교와 해군 상사의 우의 제식은 해군 장교의 일반 외투 제식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해군 중사 이하 사병 및 해병 사병들의 우의는 1967년 1월 9일에 제정된 복식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2) 해병 장교

초창기 해병 장교용 우의 제식은 사병 우의를 포함하여 동일한 제식을 사용하였고, 초기의 해군 장교의 제식과 그 양식은 동일하였으나, 색상만 그린색 또는 국방색을 사용하였다. 이후 1967년 1월 9일, 〈군인복제령〉 개정시부터 해군 장교의 우의 제식 및 변천과정과 동일한 경로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해군 사병(중사 이하 병사)

해군 중사 이하 병사의 우의 제식은 초기에는 해군 장교들의 제식과 동일하였으며, 이후 1967년 1월 9일의 〈군인복제령〉 개정시는 당시 제정된 해군 장교 우의의 제식에서 견장대만 없이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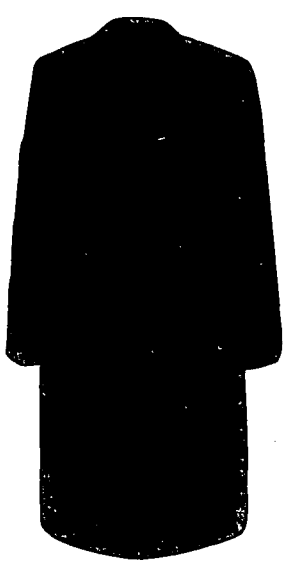


전 면　　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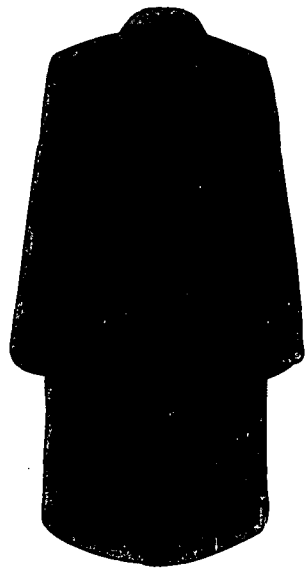
〈해군 사병용 우의〉

(4) 해병 사병

초기 해병 사병용 우의는 해병 장교 우의와 같은 제식 양식과 색상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초기 해군 장교용 우의 제식과 같았다. 이후 1967년 1월 9일, 전군의 사병이 통일된 우의 제식을 채택하게 됨에 따라 해군 사병(중사 이하 병사) 우의 제식에서 색상만 그린색으로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53년 ~ 1966년



1967년 ~ 현재

〈해병 사병용 우의〉

(5) 간호장교

해군의 간호장교용 우의 제식은 해군 창설부터 현재까지 해군 남자 장교의 우의 제식과 같았다.

(6) 사관생도

사관생도용 역시 해군 장교의 우의 제식과 대부분이 같고 변천과정도 동일 하다. 단, 사관생도들은 견장대에 생도용 앵카를 부착한 점만이 달랐다.

사. 補 助 衣

보조의란 통상 와이셔츠·넥타이·버클·요대·단추·동내의·하내의·티셔츠·팬티·양말·장갑·손가방·각반 등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다. 이 용어는 초창기 〈군인복제령〉 제정시는 사용하지 않았고, 1960년대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요대·단추 등은 복식품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다루기에 이 항에서는 보조의 중에서 와이셔츠·넥타이·버클만을 다루고, 나머지 요대나 단추 등은 복식품편에서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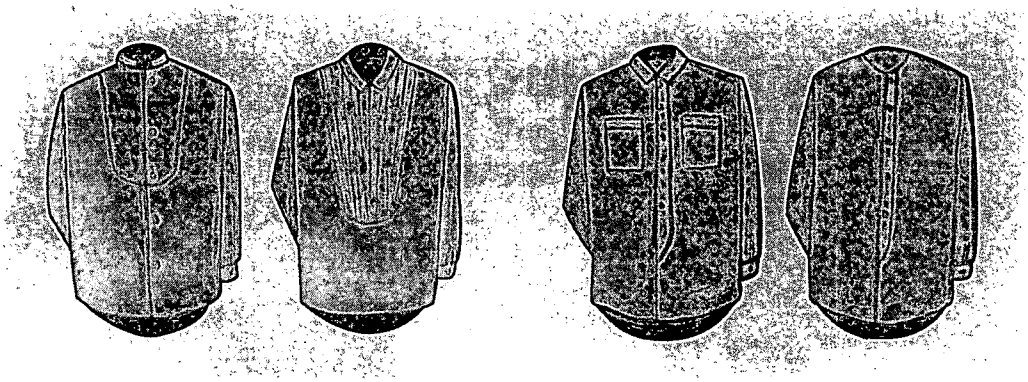
(1) 와이셔츠

1960년대 초, 와이셔츠는 A·B·C형으로 구분하여, A형은 특례장 갑(甲)인 연미복 또는 예복 착용시에, B형은 특례장 을(乙) 행사시에, C형은 정복 착용시에 주로 착용하였다.

A형의 제식은 백색 포플린 재질로, 칼라는 높은 깃으로 세우고, 소매는 커프스 단추를 달아 여미도록 하였으며, 앞면 중앙부분의 단추는 5개로 백색 조개 또는 뿔단추를 달았다. B형의 제식도 백색 포플린 재질로, 칼라는 보통 깃으로 하고, 앞면 중앙부분의 단추를 안[內] 단추 형식으로 달았다. 소매는 커프스 단추를 달았다.

C형의 제식은 백색 또는 카키색으로, 칼라는 보통 깃, 앞면 중앙부분의 단추 수량 및 종류는 A형과 같았으나, 소매를 보통단추로 여미도록 하고, 가슴부분에 겉붙임 뚜껑없는 주머니를 좌·우로 달았다.

그후 1967년 1월, 〈군인복제령〉 개정시 와이셔츠의 제식을 각군이 동일하게 통일하고 상기 A·B·C형 외 D형을 추가하였다. D형은 백색 포플린으로, 칼라 형태를 없앤 깃 없는 형 와이셔츠를 가리키며, 앞 중앙부분과 소매부분은 A형과 같게 하였다. 또한 C형의 소매단추도 보통단추에서 커프스로 일부만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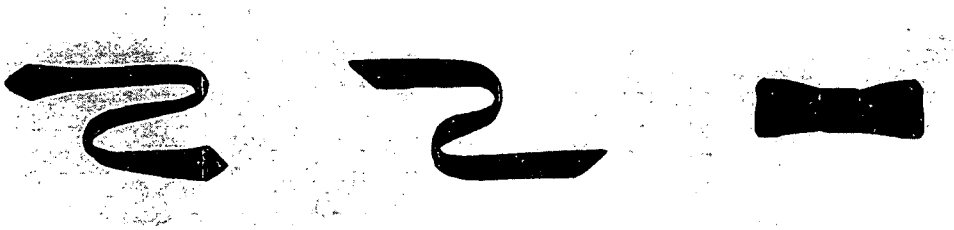
A형 B형 C형 D형

〈와이셔츠〉

그후 1971년 2월 25일, 〈군인복제령〉 개정시는 A·B·C·D형의 와이셔츠 제식을 전부 폐지하고, 일개 제식만을 제정하였다. 재질은 백색 포플린을 기본으로 하고, 각군의 특색(해군의 경우 바다색)을 보조색으로 사용하였으며, 칼라의 형태를 보통 깃으로 하고, 중앙부분의 단추는 복지색의 조개 또는 뿔단추를 5개 달도록 하였다. 또한 가슴부분의 주머니는 좌측에만 겉붙임 뚜껑없는 주머니를 달았다. 이 형식의 와이셔츠는 각군 장병이 공용으로 사용하되, 해군 중사 이하 사병과 해병대 사병은 제외시켰으며, 이 제식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2) 넥타이

〈해군복제령〉 제정 초기의 상사 이상 장교(사관생도 포함) 넥타이는 흑색 모직이나 면직 또는 합성직으로, 무늬없는 묶음 넥타이를 사용하였으며, 해병대는 같은 재질에 색상만 카키색을 사용하였다. 간호장교의 넥타이는 흑색 모직 또는 견직을 재질로 사용하여, 중앙부는 좁고 차차 넓어지면서 끝은 세모가 뚜렷하고 양끝이 대칭이 되게 하였다. 해군 중사 이하 병사가 착용했던 넥타이는 흑색 견직 또는 교직으로 겹으로 만들되, 밑면 55″×높이 3½″인 제형(梯形)의 보통형 네모묶음으로 반을 접어서 묶도록 하였다. 또한 보타이는 흑·백색 모직이나 면직 또는 합성직 재질로 무늬없는 묶음식으로 사용하였다.



상사이상 장교　　해군 중사 이하 사병　　보타이



간호장교(1953년~1966년)　　통일된 여군 넥타이(1967년~　)

〈넥타이〉

이후 1967년 1월 9일, 〈군인복제령〉 개정시 이의 일부를 개정하여, 해군의 상사 이상 장교가 착용한 넥타이의 재질을 흑색 모직으로, 해병 장병이 착용하는 넥타이는 카키색 모직으로 재질을 바꾸고, 보타이는 각군이 똑같은 제식으로 백색 또는 흑색을 사용하였으며, 간호장교 넥타이는 대칭된 양끝 부분의 삼각형을 네모로 통일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3) 버 클

해군의 버클은 〈해군복제령〉 제정 초기, 주로 미 해군의 버클 제식을 모방하여 황색 또는 흑색으로 비자성체(非磁性體)인 놋쇠로 만든 버클이었다. 이 중에서 흑색은 주로 정복 등에 사용하였으며, 황색은 훈련복 착용시 사용하였다. 당시 해병대는 주로 황색 버클을 사용하였다. 그후 1967년 4월 27일, 〈각령(閣令) 제700호〉에 의거, 버클의 색을 황색으로 단일화하였으며, 1963년 3월 18일에 공포된 〈각령 제1232호〉에 의거, 해병대에 한해서 황색 B형(현재도 이 모형사용) 버클을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1967년 1월 9일의 〈군인복제령〉으로 해병대에서 사용하던 버클 B형이 해군·공군·해병대에서 모두 착용하였다. 그후 1971년 2월 25일, 〈군인복제령〉으로 버클의 색상



A 형　　B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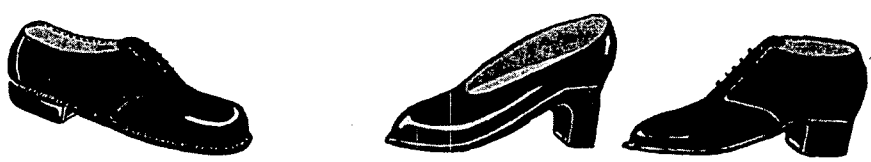
〈버 클〉

은 각군 구분없이 황금색 금속제를 흑색 무광택으로 바꾸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3. 軍　　靴

가. 短　　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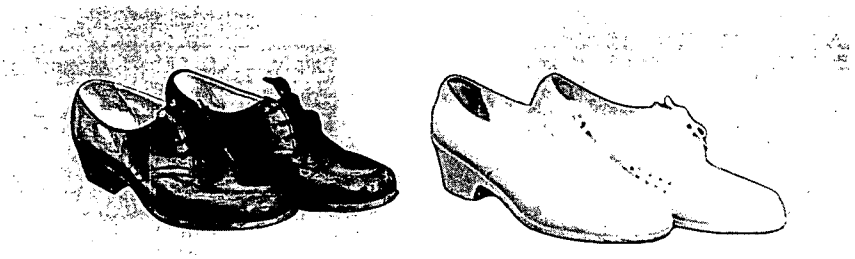
1952년에 제정된 〈해군복제령〉에 의하면, 동절기의 단화는 흑색 가죽으로, 하절기 단화는 백색 가죽으로 무늬없는 단순한 보통형으로 하되, 신 등선이 뾰족하지 않게 하였으며, 구두 앞등을 여미는 끈구멍은 10개로 하였다. 이 제식은 해병 장병과 사관생도에게도 적용되었으나, 해병 장병에게는 백색 단화 제식이 없었다. 반면 간호장교는 일반 단화일 경우, 남자 장교의 구두 제식과 동일하였으나 뒷굽의 높이를 앞에서 재어서 1-2″ 정도 높게 하였고, 정복 및 예복에 착용하는 구두는 힐(hill)형 구두로서 뒷굽의 높이를 일반 단화보다 높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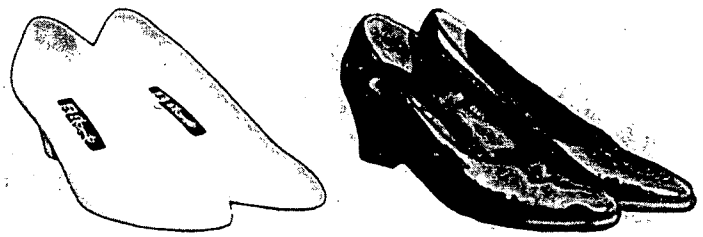
단　화　　힐형 단화　　일반 단화

간호 장교

〈단화①(1953년～현재)〉



남자 장교



간호 장교
〈단화②(1953년~현재)〉

나. 戰 鬪 靴

(1) 해 군

창군 초기 해군에게는 별도로 '전투화'라는 이름의 신발 제식이 제정되지 않았고, 1962년 4월 27일, 〈군인복제령(각령 제700호)〉이 제정되면서 타군과 같이 제식이 결정되었다. 당시는 워커형에 흑색 가죽을 뒤짚어 14개의 구멍으로 끈을 끼고, 목을 짧게 했거나 또는 가죽을 뒤집지 않고 신 코 부분에 가로 재봉선을 넣었다. 이후 1971년 2월 25일, 〈군인복제령〉 개정시 군화의 제식이 각군 공통으로 통일되어, 해군의 전투화도 워커형이 되었다. 흑색 가죽으로 신 목이 길고 좌우에 18개의 구멍으로 끈을 끼고, 신 코 부분에 가로 재봉선을 넣고, 신 코가 둥근형태의 전투화를 착용하게 되었으며, 이 제식은 현재에도 계속 사용 중이다.



1962년~1966년



1967년~현재

〈해군 전투화〉

(2) 해 병

해병대 전투화 역시 1962년 4월 27일의 〈군인복제령〉이 제정되면서 전투화의 제식이 결정되었다. 워커형으로 흑색 가죽을 뒤집어 18개의 구멍으로 끈을 끼고 목을 길게 하였다. 이후 1967년 1월 9일, 군인복제령이 개정되면서 각군의 통일(해군 제외)된 전투화 제식에 의거하여, 흑색 가죽을 뒤집지 않게 하고 기타 제식은 전술한 제식과 같이 하여 현재까지 착용하고 있다.



〈해병 전투화(1962년~현재)〉

4. 階 級 章

계급장이란 군인의 제반 군복에 부착하여 계급을 나타내는 표지장으로서, 계급의 등급과 군복의 종류에 따라 부착 위치나 크기 그리고 형태가 달랐다. 우리 나라에서 현대적 개념의 계급구조는 1894년(고종 31년) 10월 4일, 〈칙령 제10호〉가 반포됨으로써 비롯되었는데, 장교·하사관·병졸로 크게 대별하고, 장교는 대장(大將)·부장(副將)·참장(參將)의 장관급과 정령·부령·참령의 영관급, 그리고 정위·부위·참위의 위관급 등급으로 세분화하였다. 병졸은 상등병·일등병·이등병의 3개 등급으로 나누었으며, 그 외에 무관생도(武官生徒)가 있었다.

그후 1899년, 원수부(元帥府)를 설치한 뒤에는 대원수와 원수의 계급을 두었으나, 대원수는 황제이고 원수는 황태자였으므로 어떻게 보면 군인계급이라고 할 수 없었다. 계급의 표식은 당시 군복의 모자와 제복의 옷깃과 소매 끝 등에 표시하였다. 이 당시는 해군이라는 개념의 별도 계급제식이 없었다. 해군의 계급장은 1945년 11월 1일, 해방병단 결성과 함께 단원간의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1946년 2월 1일, 구한말(舊韓末)시대의 계급을 참조하여 장교에게 정식계급을 부여하였으며, 동년 6월 1일에는 미 해군의 계급을 참고하여 사병계급을 병조장으로부터 견습수병에 이르는 7단계 계급을 부여하였고, 이후 그 동안 몇 차례의 변화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 將校 階級章

(1) 철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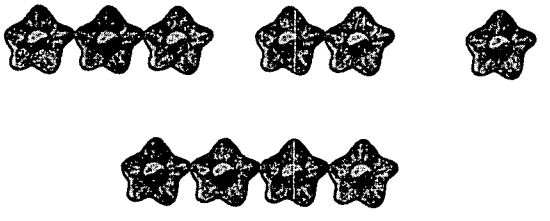
1946년 2월 1일에 임시 제정된 계급은 참령(參領)과 정위(正尉)·부위(副尉)·참위(參尉)까지로서, 이 계급장들의 제식은 미 해군 준위 계급장인 가로 1.5㎝×세로 4.5㎝의 황금색 구형(矩形) 금속 바탕 중앙에 태극무늬를 넣어 영관은 4개, 위관은 정·부·참위에 따라 작은 구형을 각각 3개·2개·1개씩으로 계급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당시의 계급 호칭이 구한말의 것과 같아 시대감각에 맞지 않는 점이 있어, 1946년 12월 1일부로 현재와 같이 영관은 대령·중령·소령으로, 위관은 대위·중위·소위·준위로 각각 변경하고, 계급구조에 대장·중장·소장·준장의 장관급을 추가하

면서 계급장도 동시에 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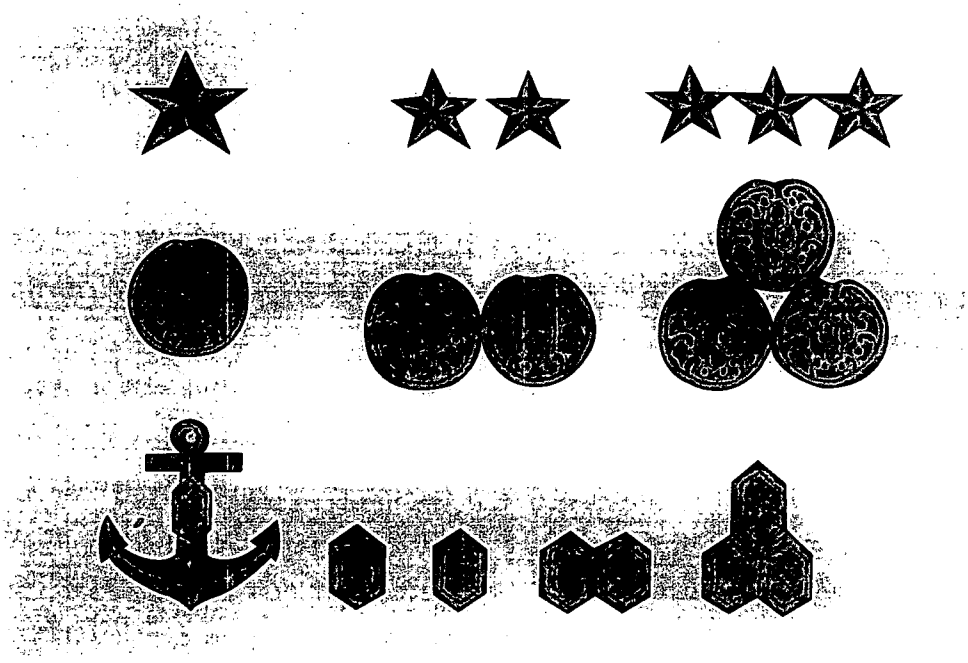
이후 1950년대 초, 6·25전쟁을 겪는 동안 전투복 일색이던 장교복장이 전쟁 후에는 예·정복의 착용 빈도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른 계급장의 형태와 크기가 정복에 어울리도록 1954년 5월 15일, 장관급 계급장은 그대로 두고 영관과 위관 계급장을 개정하였다. 즉, 영관은 직경 2㎝의 원형 속에 9개의 대나무[竹] 잎사귀를 둥글게 배열하고, 중앙에 소형 위관급 계급장인 마름모[菱形]를 세운 상태로 배열한 은색으로 하고, 위관은 세로 2㎝×가로 1㎝의 마름모를 세운 형태로서 소위·중위·대위는 은색으로, 준위는 황금색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계급장은 정복의 견장대에 부착하였을 때에 규격이 작아 식별이 곤란하여, 1961년 7월 1일부로 견장대에 부착하는 계급장을 영관은 직경 3㎝ 원형 크기로 하고, 위관은 세로 3㎝×가로 1.5㎝의 크기로 추가 제정하여 이를 정장(正章)으로 정하였으며, 그 동안 사용 중이던 작은 계급장은 약장(略章)으로 호칭하였다. 그후 1975년 9월 30일, 1946년 12월부터 사용하여 오던 장관급 계급장이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계급장과 동일하여 고유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대통령령 제7837호〉에 의거, 성형(星形) 밑에 무궁화 표지를 추가 부착하여 우리 나라의 고유 특성을 갖도록 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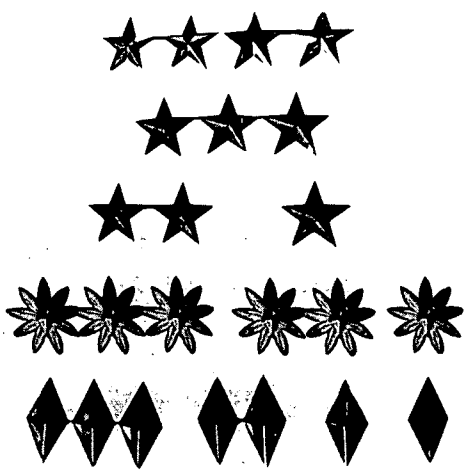
그후, 영관·위관급에는 무궁화 표지가 없어 군인계급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계급장이 경찰계급장과 유사하여 그 식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1980년 1월 9일, 〈대통령령 제9713호〉로 장관급과 같이 영·위관 계급장에도 무궁화 표지를 하도록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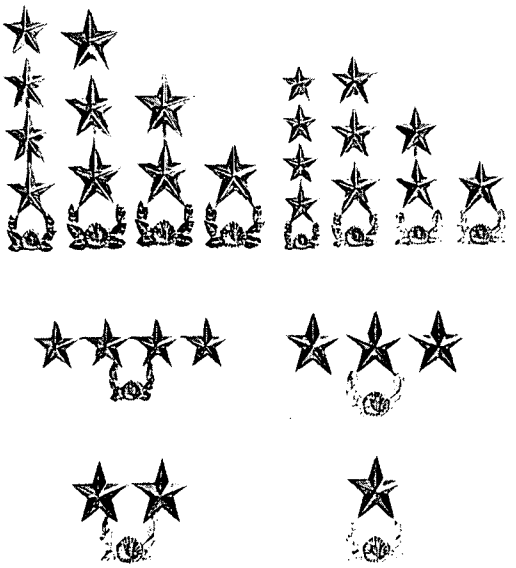
〈해군 계급장(1946년 2월 1일~11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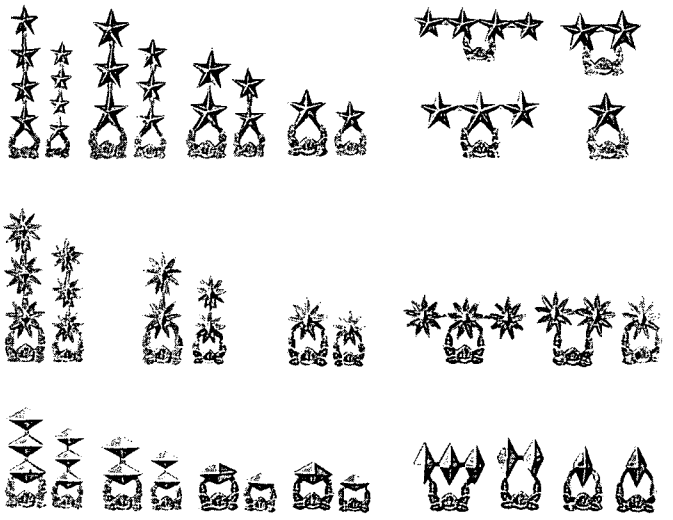
〈해군 계급장(1946년 12월 1일~1954년 5월)〉



〈계급장(1961년 이후 정장)〉



〈1975년 이후 軍帽章〉



정장 및 약장　　군모장

〈1980년 7월 1일 이후의 계급장〉

계급장의 규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46년 초창기는 참위(參尉)에서 참령(參領)까지 가로 1.5㎝×세로 4.5㎝로 하였으며, 이 당시는 정장과 약장의 구분이 없었다.
- 1946년 12월 1일부로 제정된 장교의 계급장 규격은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다만 영관 및 위관장교의 계급장 규격만 표시되었다. 영관은 직경 2㎝, 위관은 세로 2㎝×가로 1㎝ 크기였다.
- 1965년 〈군인복제령〉 개정 당시의 계급장 규격은 원수는 두께 2.12㎜, 직경 9.76㎜로 별 다섯개의 내측선이 5각형이 되게 하고, 정장 및 약장에 동시 착용하였다.
  - 대 장 : 정장 견장의 규격은 두께 9.68㎜, 직경 6.35㎜였고, 약장 금장의 규격은 두께 2.12㎜, 직경 5.4㎜였다.
  - 중 장 : 정장 견장의 규격은 두께 9.68㎜, 직경 25.4㎜였고, 약장 금장은 대장과 같았다.
  - 소 장 : 정장 견장 및 약장의 규격은 중장과 같았다.
  - 준 장 : 정장 견장의 규격은 중장과 같았으며, 약장 금장의 규격은 두께 3.17㎜, 직경 15.87㎜였다.
  - 대 령 : 정장 견장의 규격은 두께 4㎜, 직경 18㎜였고, 약장 금장의 규격은 두께 3㎜, 직경 13㎜였다.
  - 중령 및 소령은 수량만 차이가 있을 뿐 대령의 규격과 동일하였다.
  - 대 위 : 정장 견장의 규격은 가로20㎜×세로12㎜×두께5.5.㎜, 약장 금장의 규격은 가로17.5㎜×세로9㎜×두께3.5㎜
  - 중위 및 소위는 그 수량만 차이가 있을 뿐 대위의 규격과 같았다.
- 이후 1967년 1월 9일의 〈군인복제령〉 개정시부터 1975년 9월 30일의 〈군인복제령〉 개정시까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원수의 정장 견장은 직경 20㎜×두께 4㎜, 약장 금장은 직경 15㎜×두께 3㎜
  - 대장의 정장 및 약장은 원수와 동일하였다.
  - 중장의 정장 견장은 직경 25㎜×두께 5㎜, 약장 금장은 직경 20㎜×두께 4㎜
  - 소장 및 준장의 정장과 약장은 중장의 계급장 규격과 동일하였다.
  - 대령의 정장 견장은 직경 25㎜×두께 4㎜, 약장 금장은 직경 20㎜×두께 4㎜
  - 중령·소령의 정장과 약장은 대령의 계급장 규격과 동일하였다.

- 위관급의 대위 정장은 가로 30㎜×세로 15㎜×두께 8㎜, 약장은 가로 20㎜×세로 10㎜×두께 5㎜
- 중위·소위·준위가 대위 계급장의 규격과 같았다.

- 그후 1975년 9월 30일, 〈군인복제령〉 개정시 장관급 장교만 계급장에 무궁화 표식을 하면서 규격이 일부 개정되었다. 즉 대장과 원수의 정장 견장의 무궁화 지름은 20㎜, 별 두께 4㎜, 무궁화꽃 두께 3㎜, 무궁화잎 두께를 2㎜로 하고, 약장 급장의 무궁화 지름은 15㎜, 별 두께 3㎜, 무궁화꽃 두께 2㎜, 무궁화잎 두께는 1.5㎜로 하였다.

  또한 준장과 중장급 정장 견장의 무궁화 지름은 25㎜, 별 두께 5㎜, 무궁화꽃 두께 3㎜, 무궁화잎 두께 2㎜로 하고, 약장 급장의 순서는 20㎜·4㎜·3㎜·2㎜였으며, 해군(준장-중장)의 경우 약장을 15㎜로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관 및 위관급은 계급장의 제식에 변동이 없었다.

  또한 이 시기에 장관급 전투모에 부착하는 계급장을 제정하여, 재질은 각군이 공통으로 은색 직조나 금속제로 하고, 별의 지름은 준장-중장이 25㎜, 대장-원수는 20㎜로 하였으며, 별과 별 사이의 간격을 없앴다.

  무궁화 제식은 세로 17㎜×가로 25㎜였고, 가운데 무궁화꽃은 가로는 11㎜×세로 10㎜였으며, 꽃잎의 폭은 5㎜였고, 꽃과 꽃의 폭은 15㎜였다.
- 이후 영관 및 위관급 계급장에도 무궁화 표식이 부착되도록 제정된 1980년 1월 9일의 〈군인복제령〉에 의하면, 장관급 장교용의 계급장의 규격은 변동이 없었으나, 영관 및 위관장교용은 1967년 1월 9일에 제정한 영관 및 위관급 정장 및 약장의 크기에다 장관급이 부착한 크기의 무궁화를 붙였다. 또한 군모장은 정장(견장)급 크기로서 무궁화의 부착 위치는 장관급 군모장에 부착한 계급장의 제식을 따랐다.

(2) 포 제

해군에서 포제 계급장을 사용하기 시작한 연도는 확실하지 않으나, 육군의 토시 계급장이 최초 제정된 1971년경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포제 계급장은 전투복 및 훈련복에 철제 계급장을 부착했을 경우 행동에 부자연스러운 점을 없애기 위해서 처음에는 정장 크기의 계급모양을 작업복이나 작업모에 백색 실로 수를 놓아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개선하여 국방색 혼방이나 모직에 흰색 수실로 계급장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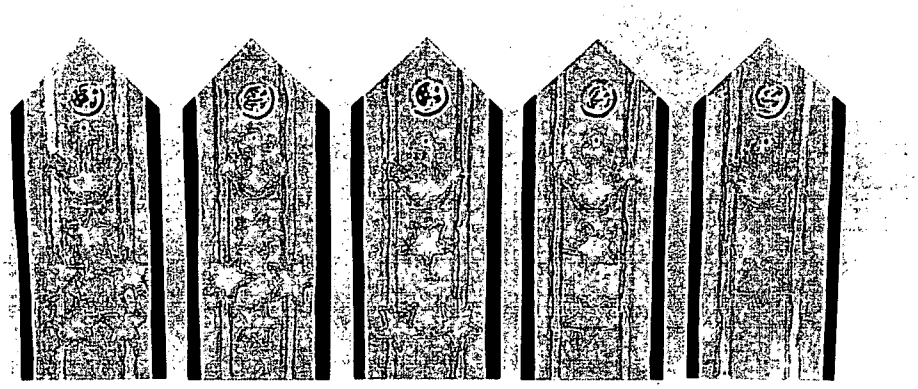
약장 크기로 수를 놓아 이를 작업복·작업모·철모 커버 등에 부착 사용하여 현재에 이른 것으로, 이의 제식은 철제 계급장과 동일하다.

(3) 견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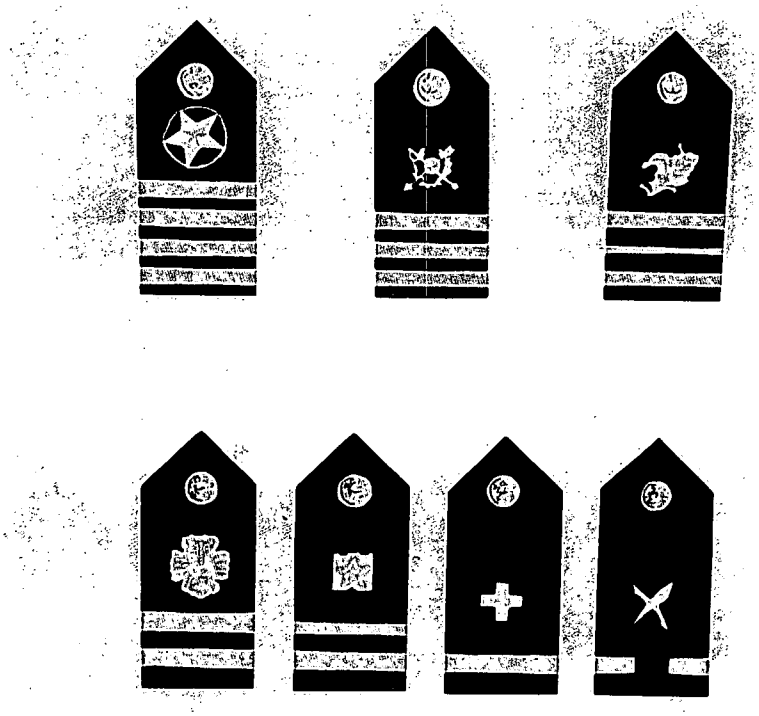
1) 해군 장교

미 해군 제식을 주로 이용한 1960년대 당시의 해군 장교의 견장 계급장 제식은 길이 5½″×폭 2¼″였으며, 바깥 끝은 직각이 되게 하고 안 끝은 100°의 삼각형이 되게 하면서, 장교모자의 귀단추를 부착했었다. 장관급 장교의 견장은 알루미늄판에 흑색 멜턴지를 입히고, 위에 폭이 2″인 금줄로 덮되 좌우 양변은 폭 ⅛″의 멜턴지가 보이도록 하였다. 금줄 중앙선에 묘형을 은실로 자수하되 묘관이 견장 바깥쪽을 향하게 하고, 첨단선에서 1¼″ 떨어진 곳에 자수하였다. 또한 묘형 위 끝은 견장의 삼각첨단부를 향하게 하였다. 묘형 규격은 전체 길이가 1⅝″, 묘간의 길이¾″, 닻 발톱간의 폭은 1⅛″로 하였으며, 계급별 제식은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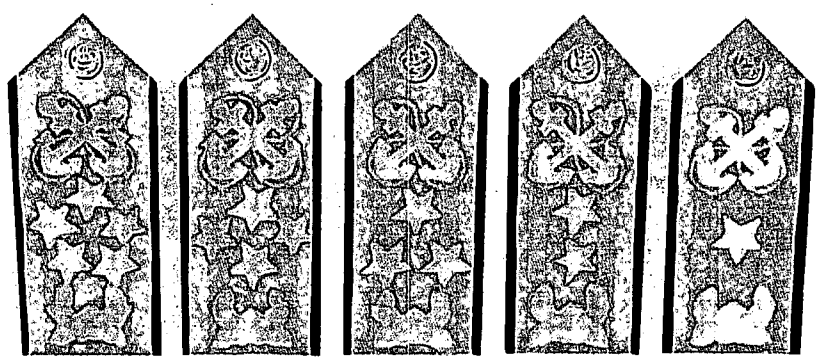
- 원 수 : 5개의 별로 폐쇄 5각형을 이루게 하고, 별의 1각들이 칼라 쪽을 향하게 하며 가장 외측에 있는 두 개의 별의 중심이 견장의 바깥 끝에서 ¾″가 되게 한다.
- 대 장 : 4개의 별로 다이아몬드형을 이루게 하고 외단 및 내단의 별은 견장의 중심선상에 오게 한다. 각별의 1각이 다이아몬드형의 중점을 향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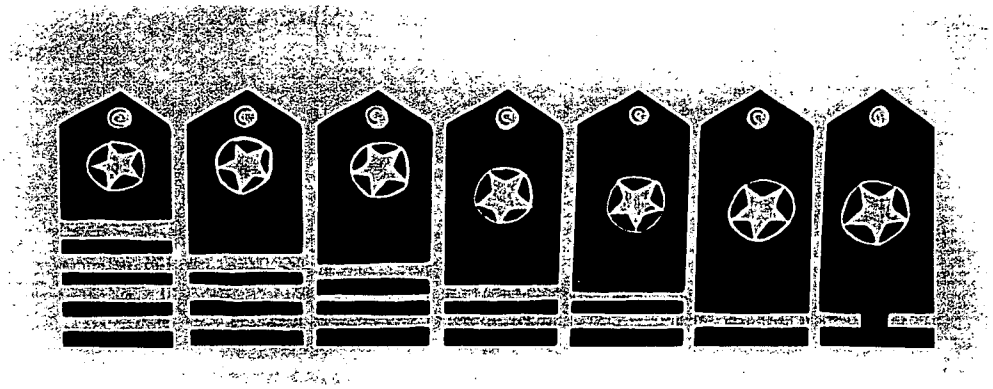
〈장관급 견장(1953년~197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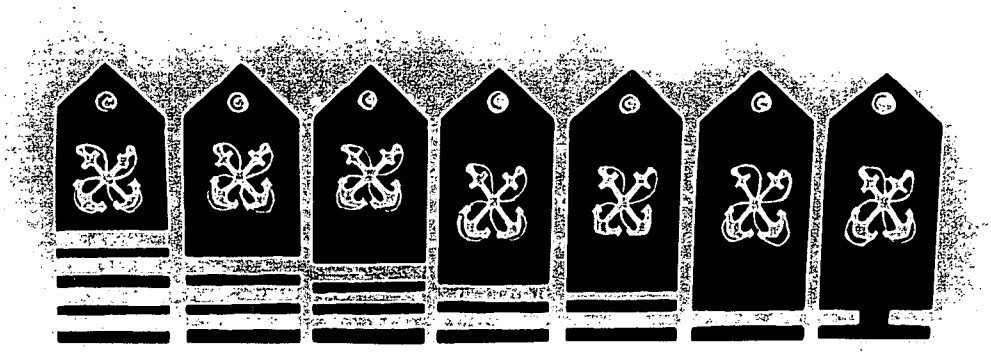
〈영관 및 위관급 견장(1953년～1966년)〉



〈장관급 견장(1975년～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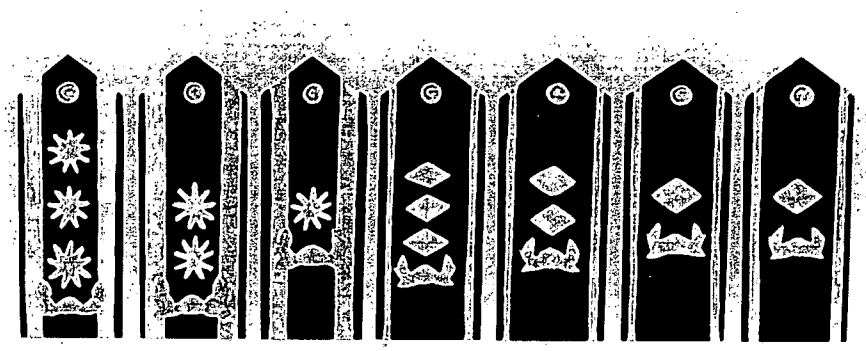


〈영관・위관급 견장(1967년~1979년)〉



〈영관・위관급 견장(1980년~1985년)〉

* 1993년부터 환원되어 재사용함.



〈영관・위관급 견장(1986년~1992년)〉

하며 외단 별의 중심이 바깥 끝에서 ¾″가 되게 하고, 각별 중심 간격이 13/16″가 되게 한다.

- 중 장 : 3개의 별로써 밑면의 높이가 1⅛″인 이등변삼각형을 이루게 하고 내단 별의 1각이 외측변을 향하게 하고, 외단 두 별의 중점이 외측변에서 ¾″되게 하며 별의 1각이 서로 맞보게 한다.
- 소 장 : 좌우 양변의 두 별을 떼면 대장의 견장과 같다.
- 준 장 : 1개의 별은 바깥 끝과 묘관의 중간이며 견장 중앙선상에 놓고, 별의 1각이 견장의 첨단부를 향하도록 하였다.
- 영관 및 위관장교의 견장은 알루미늄판에 흑색 멜턴지를 입히고, 뒤에 인조 공단을 대어, 에나멜 가죽으로 겉고리 끝에 스냅단추를 단다. 계급 및 병과별 표지는 금줄의 폭·수·위치에 있어서 수장과 동일하나, 금줄의 제일 바깥 끝이 견장 끝에서 소위와 준위는 ½″, 기타는 ¼″ 떨어지게 하였다.

이후 1967년 1월 9일, 〈군인복제령〉 개정시 제식의 일부가 수정되었다. 장관급은 변동이 없었으며, 영관 및 위관장교의 견장은 병과 표시 위치에 직경(원호의 직경)이 32㎜가 되는 별을 표시하였다. 1975년 9월 30일의 〈군인복제령〉 개정시에는, 장관급 장교의 견장대 내의 앵커 표시를 교체하여, 예전의 앵커 하나를 교차하는 형태의 앵커표시로 하고, 계급장 밑에 무궁화 표지를 하였으며, 영관 및 위관장교의 견장 제식은 변동이 없었다.

그후 1980년 1월 9일, 〈군인복제령〉 개정시는 영관 및 위관급 장교의 견장대 내에 있는 별 표시도 장관급 장교의 견장대 내에 표시된 교차형태의 앵커 표시로 제식을 바꾸었다. 1986년 12월 20일 이후에는 영관·위관장교의 견장대의 계급표시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여, 철제 약장 크기의 계급장을 부착하다가, 국제화 추세에 역행하는 계급표시라 하여 1992년 10월 22일, 영관·위관장교의 견장대의 계급표시는 종전대로 환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해병 장교

창군 초기의 해병 장교의 견장 제식은 확실하지 않고, 1962년에 제정된 〈군인복제령〉에 의한 해병 장교의 견장 제식은 다음과 같았다. 장관급 장교의 견장대는 알루미늄 표면에 흑색 수지를 입히고, 그 위에 금색 금속실로 짠 수식을 붙였다. 이면에는 가죽을 대었으며, 견장 앞면 계급장 부착 상·하로 은회색 금속실을 꼬아서 붙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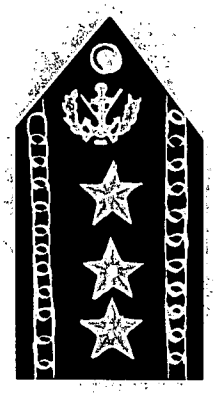
고, 위 끝은 삼각형으로 하였다. 계급장에서 삼각형 끝부분과의 중앙에는 해병대 표식을 넣었으며, 견장 끝부분은 모표가 새겨진 작은 금색단추를 달았다. 견장의 전체 길이는 140㎜, 폭은 60㎜로 하였고, 계급장 부착 상·하의 은회색 금속실 폭은 5㎜로 하였으며, 삼각형의 내각은 120° 로 하였다.

영관급 장교의 견장은 길이와 폭이 장관급 장교 견장과 같았으며, 알루미늄 표면에 흑색 수지를 입히고, 견장 상·하단부분에 폭 16㎜의 금색 금속실로 짠 수식을 하고, 수식 끝부분은 홍색 2㎜의 선을 넣었고, 나머지 부분은 장관급 장교 견장 제식과 동일하였다. 위관장교의 견장 제식은 영관장교의 제식과 비슷하나, 견장 상·하단에 폭 8㎜의 금색 금속실로 짠 수식을 하고, 수식 끝부분의 홍색 2㎜선은 영관장교의 견장과 동일하게 넣었다. 이후 1967년 1월 9일의 〈군인복제령〉 개정시에는 상기 견장의 제식이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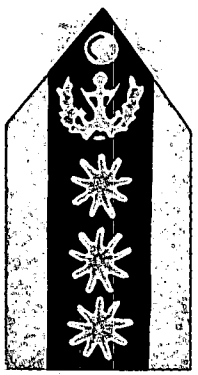
장관급 장교의 견장은 계급장 상·하단의 은회색 금속실을 없애고, 견장 상·하단 끝부분에 흑색 멜턴지를 폭 3.5㎜로 대었으며, 해병대 표식은 은색 금속실로 자수하였다. 이외 기타 제식은 종전과 동일하였다. 영관급 장교의 견장은 견장 상·하단 끝부분의 16㎜ 금색 금속실로 자수한 부분의 폭을 6㎜로 줄이고, 이를 흑색 멜턴지로 덮었으며, 이 끝으로부터 상·하 공히 15㎜를 공백으로 하고, 나머지 중앙부분의 15㎜를 흑색 멜턴으로 덮고, 이외 부분은 금색 금속실로 짠 자수를 하였으며, 기타 제식은 종전과 동일하였다. 위관장교의 견장은 견장의 중앙부분에 폭 15㎜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흑색 멜턴지로 덮고, 중앙부분은 금색 금속실로 짠 자수를 하였다. 또한 전 위관장교의 계급장을 모두 은색 금속실로 자수하였다.

이후 1975년 9월 30일의 〈군인복제령〉 개정시 해병 장교의 견장 제식이 개정되어 장관급 장교는 해군 장관급 장교의 견장과 동일한 제식을 따르게 되었으나, 소형 단추를 해병 모표를 넣은 단추로 달았으며, 교차된 형태의 앵커 대신 해병대 모표 표식이 들어간 점이 달랐다. 영관장교는 단추와 모표 표식이 해병 장관급과 동일하였으며 기타 제식은 종전과 동일하였다. 위관장교는 전체를 흑색 멜턴지를 입히고, 중앙 15㎜ 폭 상·하단에 은실로 자수하였다. 기타 제식은 종전과 같았으나, 해병 표식이 모표 표식으로 장관 및 영관급과 동일하게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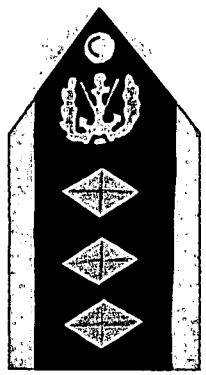
이후 1980년 1월 9일의 군인복제령 개정시에는 장관급 장교의 견장 제식은 변동이 없었으나, 영관 및 위관장교는 영관장교와 같은 견장 제식으로 통일되고, 무궁화 표지가 들어간 계급장 형태로 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장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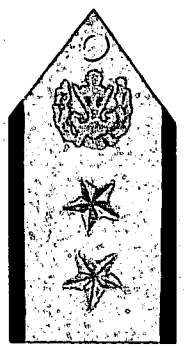


영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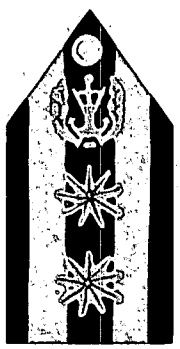


위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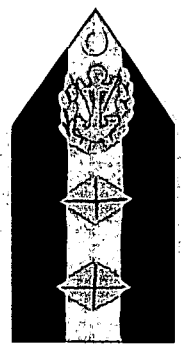
〈해병대 견장(1962년～1966년)〉



장관급



영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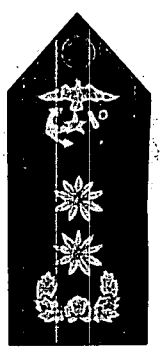


위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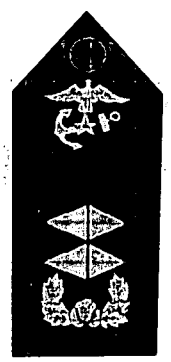
〈해병대 견장(1967년～1974년)〉



장관급



영관급



위관급

〈해병대 견장(1975년～현재)〉

나. 士兵 階級章

(1) 해군 사병

해군 사병계급은 1946년 6월 1일에 미 해군 계급을 참조하여 견습수병(이등병)·2등수병(일등병)·1등수병(상등병)·2등병조(병장)·1등병조(하사)·상등병조(중사)·병조장(상사)의 7계단 계급이었다가, 1952년, 국방부 복제안 재검토 지시에 의거, 1952년 10월 20일, 사병의 계급 명칭을 변경하였다. 새로이 개정된 계급은 2등병조가 3등병조(現 병장)로, 1등병조가 2등병조(現 하사)로, 상등병조가 1등병조(現 중사)로 개칭되었다. 그 후, 1957년 1월 7일, 〈대통령령 제1226호〉와 〈제1227호〉에 의거하여, 3등병조가 3등수병으로 개정되고 모양이 일부 변경되었다(〈해본 제116호〉, 1957년 3월 29일). 이어 5·16 군사혁명 이후 1962년 4월 27일, 〈각령(閣令) 제700호〉에 의거 사병계급 구조와 계급장 제식이 개정되어, 하사관은 상사·중사·하사의 3등급으로, 병은 병장·상등병·일등병·이등병으로 분류되었다. 1946년 6월 1일부터 1957년 3월 29일에 명칭이 개정된 당시의 계급장 제식은 다음과 같았다.

하사관의 정장은 병조장의 제식과 같았으며 계급에 따라 V자형의 수만 달랐다. 1등병조는 병조장 정장에서 제일 위의 '원'호를 제거한 것과 같았으며, 2등병조는 일등병조 정장에서 제일아래 V자형을 하나 제거한 모양이었다. 3등병조의 정장은 일등병조 정장에서 아래 2개의 V자형을 제거한 것과 같았다.

3등병조를 제외한 병(兵)의 계급표지는 폭이 ¼″×길이 3″의 평행사변형이며, 수평선과 30도의 각을 이루게 하고, 서로의 간격은 ¼″였다. 바탕의 크기는 평행사변형에서 ¼″의 여유가 있게 하였으며, 직별을 가진 병은 직별표시를 하였는데 이때는 바탕을 직별표지 위에 ¼″까지 연장하고, 직별표지는 평행사변형의 끝을 통하는 수평선상 중앙에 수놓았다. 백색 바탕일 경우에는 흑색실로 하고, 흑색 바탕일 경우에는 계급표지는 적색이고 직별표지는 백색실로 하였으며, 평행사변형의 수는 1등수병 3개·2등수병 2개, 견습수병은 1개였다.

약장은 금속물에 금색으로 도금하여 부각면이 명확하게 하고, 흑색 모직 바탕에 고정시켜 제복에 부착하였는데, 바탕은 양 측면과 아래에 여유를 두지 않고 약장과 꼭 맞게 하되 위는 ½″ 여유가 있게 하였다. 하사관 및 상등수병의 약장 계급표지 모

양은 정장과 같으며 V자형 서로간의 간격은 2㎜로 하였다. 병(상등수병 제외)의 계급표지는 평행사변형 대신 구형(矩形)으로서 V자형 및 구형의 변두리에 봉칩선 모형을 넣었고, 서로간의 사이에는 흑색을 칠했다.

그후 1962년 4월 27일, 〈각령 제700호〉에 의거 사병 계급구조와 계급장 제식이 각군이 거의 동일하게 변경되었는바, 당시 해군사병의 계급장 제식은 다음과 같았다.

상사의 정장은 그 길이를 120㎜, 폭은 80㎜로 하고, 바탕은 복지(服地)를 지질로 하였으며, 동절기는 홍색실로 하절기에는 흑색실로 자수하였다. 맨 위의 원호 바로 밑에 해군 싱글 앵커를 넣고, 휘호로부터 5㎜를 띄어서 폭 10㎜의 V자형 수를 3개 달았고, V자형의 사이각은 120°로 하였다.

중사의 정장은 길이를 100㎜, 폭은 상사와 같이 했으며, 상사 계급장의 원호만을 제거한 형태였다. 하사의 정장은 중사의 맨아래 V자형을 하나 제외시킨 형태였다. 병장은 하사의 앵커와 바로 밑의 V자형 하나를 제외시킨 형태였다. 상병 이하 이등병까지의 정장은 종전과 동일하였다. 당시에 약장도 개정되어, 상사의 약장은 폭 30㎜로 정장과 비슷한 모양을 하였으나, V자형의 폭이 5㎜이고, 2㎜의 간격을 두고 맨 밑에서부터 3개의 V자가 새겨졌으며, 앵커의 폭은 10㎜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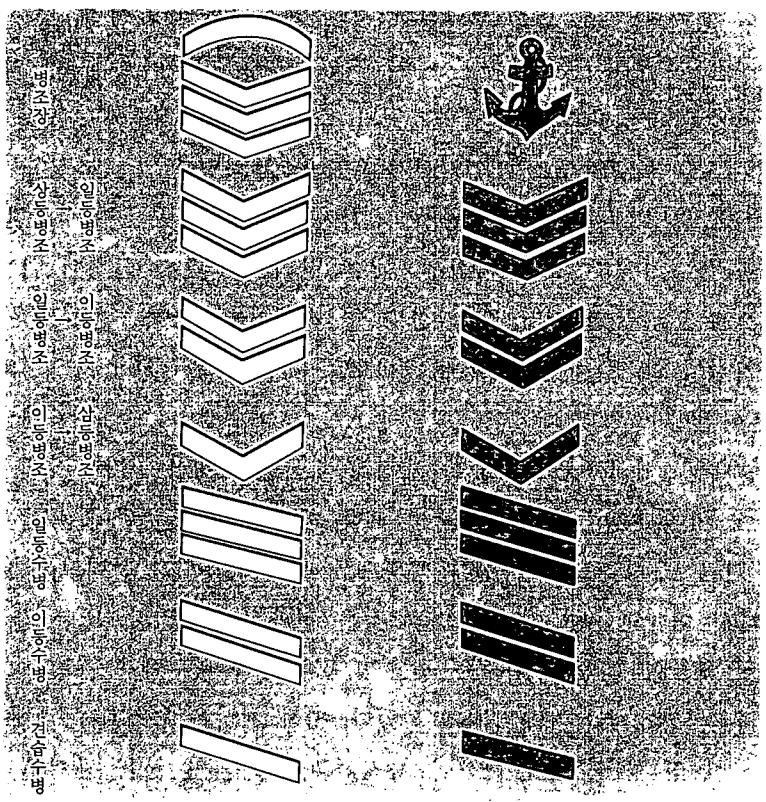
중사의 약장도 상사의 정장에서 중사의 정장 변화와 같은 순서로 변화되었으며 하사와 병장도 동일하였다. 그러나 상병과 이등병의 약장은 사선형이 아니고 수평선 형태의 모형으로 5㎜ 폭의 계급 줄이 상병은 3개·일병은 2개·이등병은 1개로 2㎜ 간격으로 새겨졌다. 흑색 금속 바탕에 금색으로 계급이 부각되게 찍고, 해군 상징의 앵커는 하사 이상만 넣었다.

이후 1967년 1월 9일의 〈군인복제령〉 개정시 계급장의 제식이 각군 공통적으로 개정되었다. 정장에 있어서 병장 이상은 백색 모직 또는 혼방지 바탕에 흑색으로, 상등병 이하는 흑색 면직 또는 혼방지 바탕에 백색으로 계급장을 오려 붙이고, 해군의 상징인 앵커표시는 하사 이상만 부착하고, 기타 제식은 전과 동일하였다. 또한 약장에 있어서도 병장 이상은 5각형, 상등병 이하는 구형의 흑색 금속 바탕에 병장 이상은 금색, 상등병 이하는 은색으로 계급이 부각되게 찍었다. 기타 제식은 종전과 동일하였다.

그러나 이 계급장 중 정장의 백색이 복지색과 조화되지 않은 관계로 동년 8월 7일, 〈대통령령 제3172호〉로 다시 개정되었다. 즉 해군 사병의 정장은 동절기에는 흑색 모직 또는 혼방 바탕에 홍색으로 계급을 나타냈으며, 하절기에는 백색 면직 또는 혼방 바탕에 흑색으로 계급을 나타낸 반면 해병사병은 정장은 동절기에 그린색 수

직 또는 혼방 바탕에 홍색으로 계급을 표시하고, 하절기는 카키색 면직 또는 혼방 바탕에 흑색으로 계급을 표시하고, 기타 제식은 전과 동일했다. 약장은 전 사병이 흑색 금속 바탕에 금색으로 해당 계급이 부각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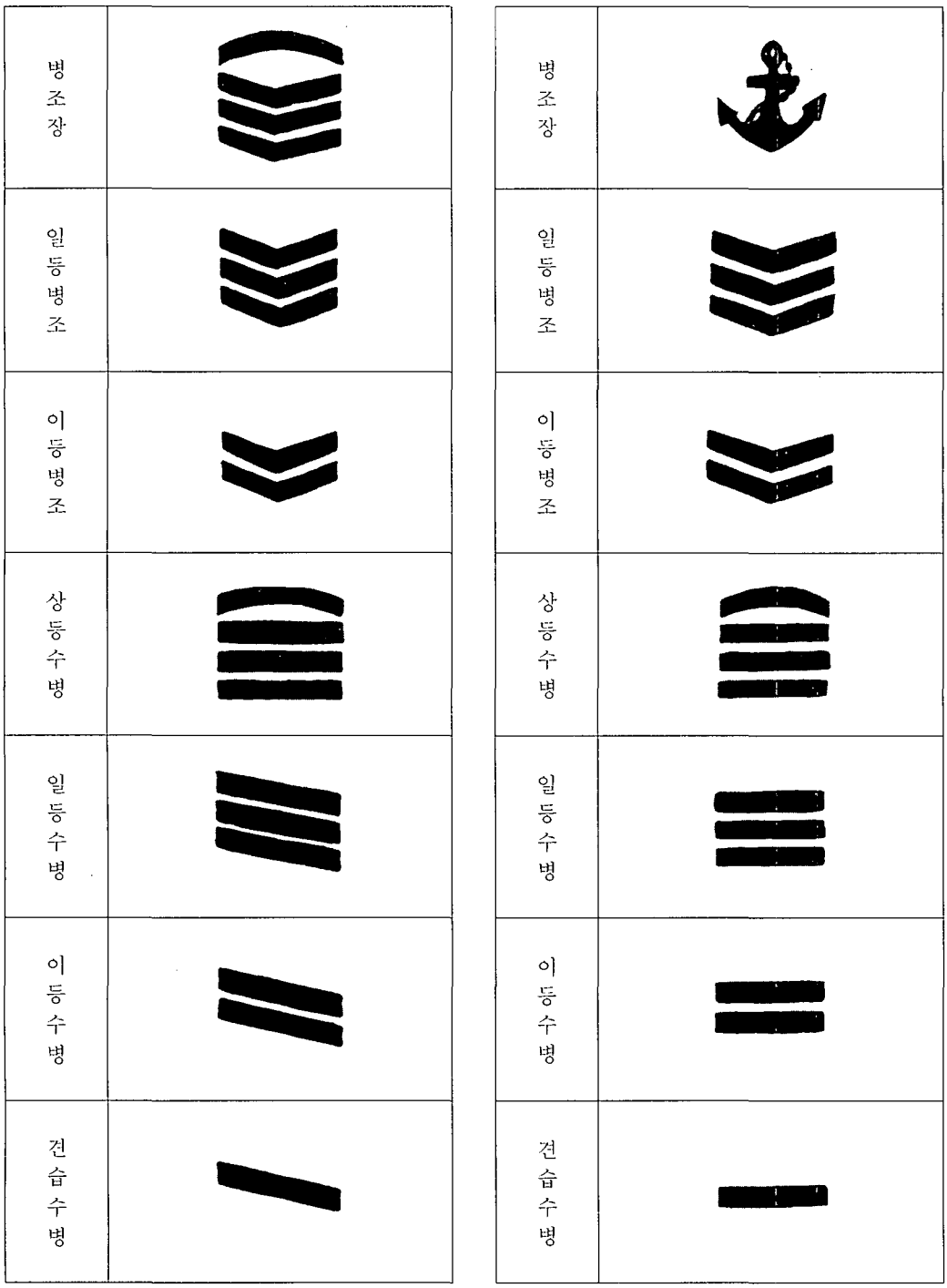
그후 1971년 2월 25일, 〈대통령령 제5578호〉에 의거 〈군인복제령〉이 개정되면서 다시 제식이 개정되어, 사병의 정장과 약장 모형이 하사 이상은 종전 계급장의 윗부분을 원형으로 하고, 병장 이하는 종전의 계급장 모형을 이용하였다. 당시 사용된 재질과 색상은 각군의 특색을 고려하여 임의로 지정하였으며, 재질은 금속 또는 직조를 사용하여, 정장일 경우 바탕은 검정색 계급의 표지는 빨강색을 택하였고, 약장일 경우 바탕은 검정색, 계급의 표지는 빨간색을 택하였다. 군모장의 바탕은 흑곤색, 계급의 표지는 흰색을 택하였다.



정 장 약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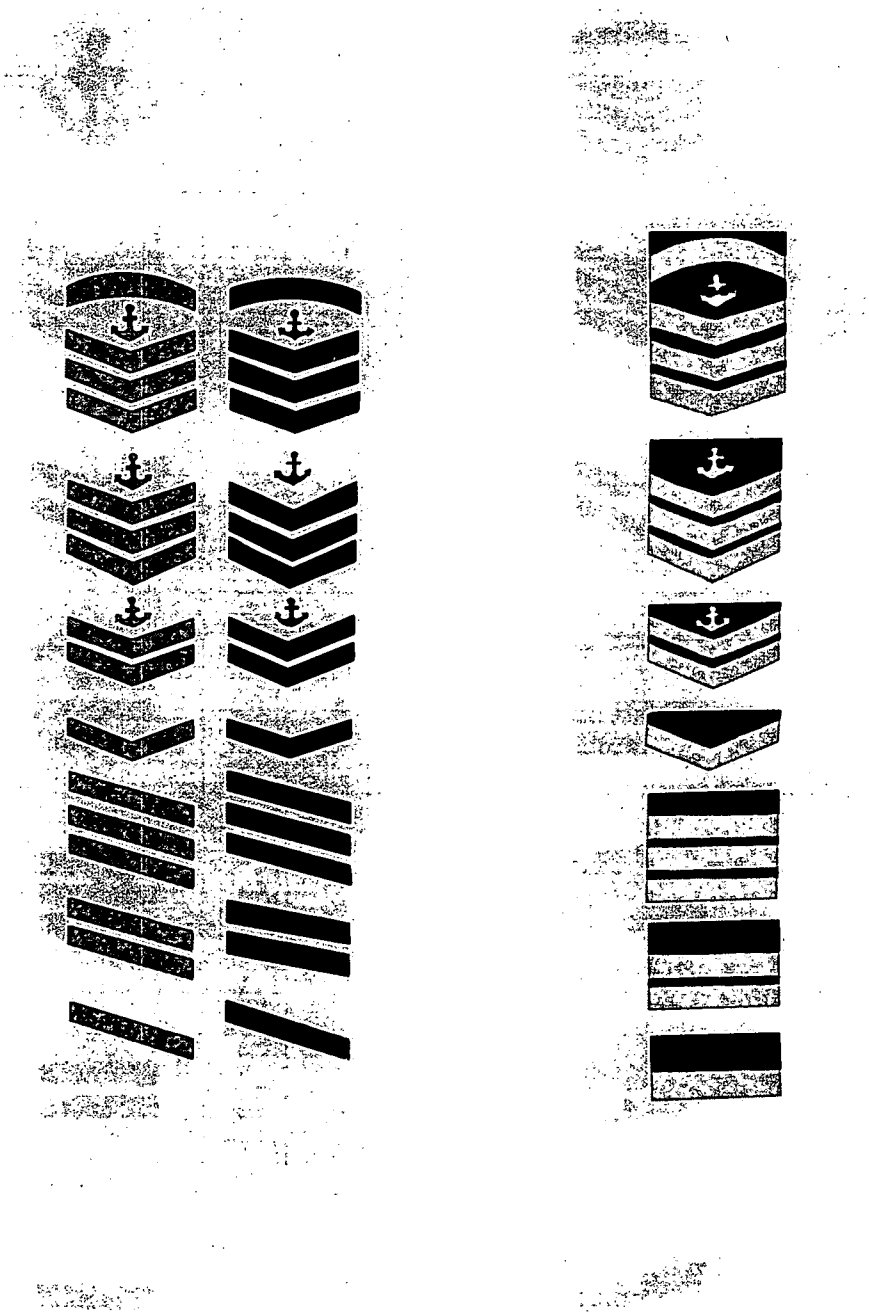
〈해군 사병 계급장(1946년~1956년)〉

* 1952년 명칭 변경



정 장 약 장

〈해군 사병 계급장(1957년~196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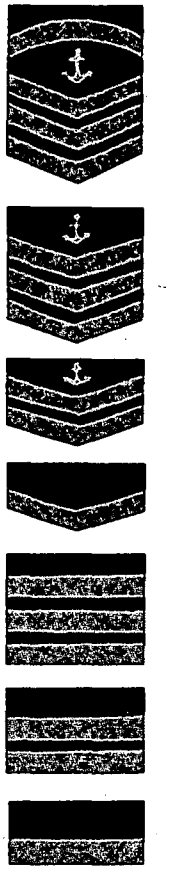


정 장　　약 장

〈해군 사병 계급장(1962년～196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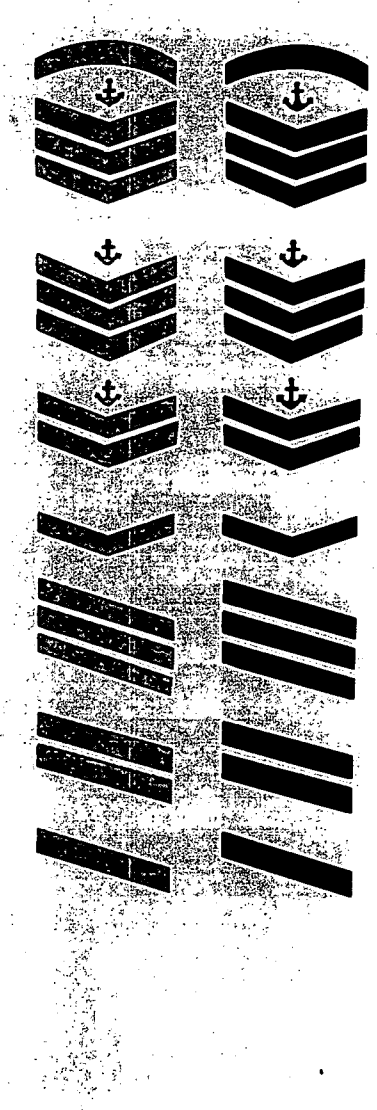


정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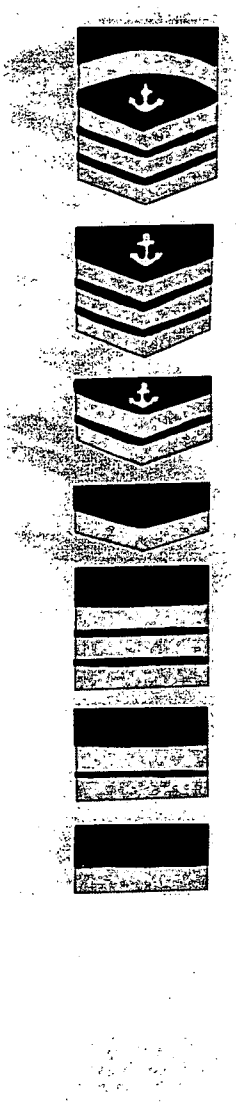


약 장

〈해군 사병 계급장(1957년 1월 9일~1967년 8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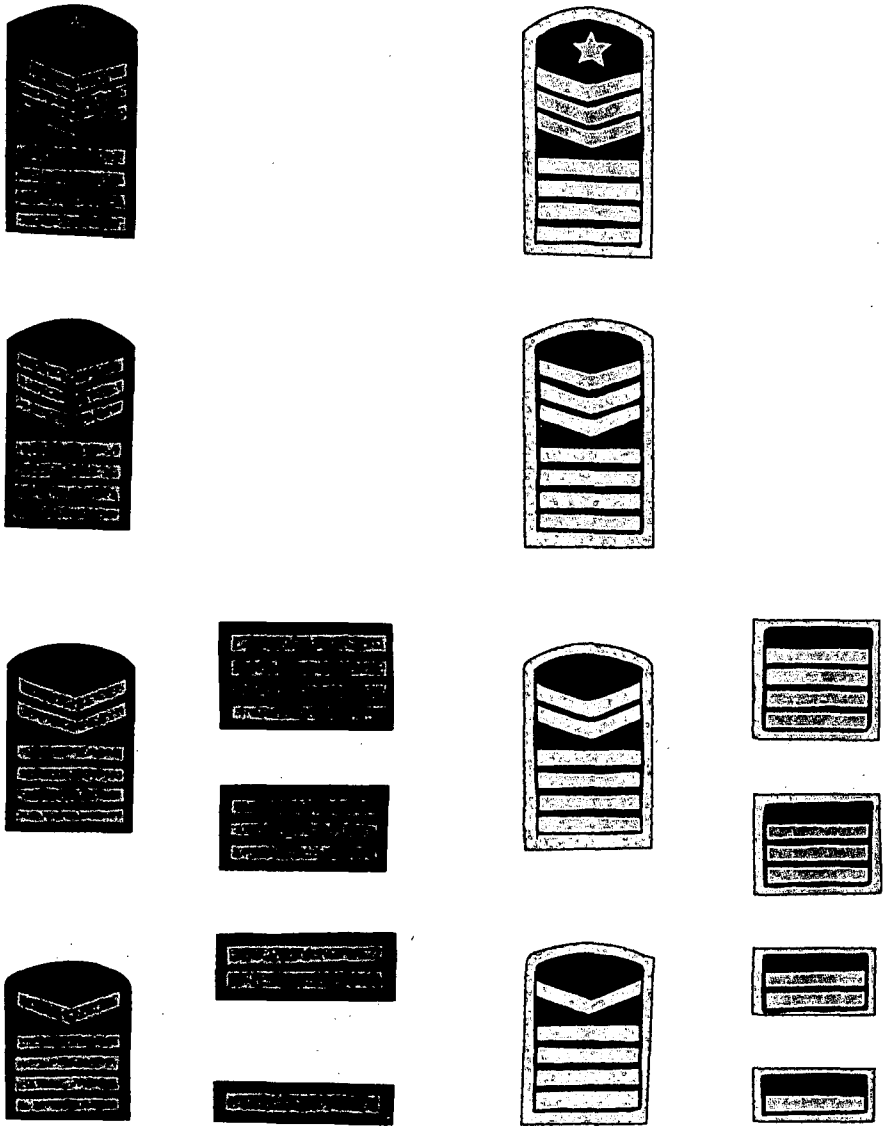


정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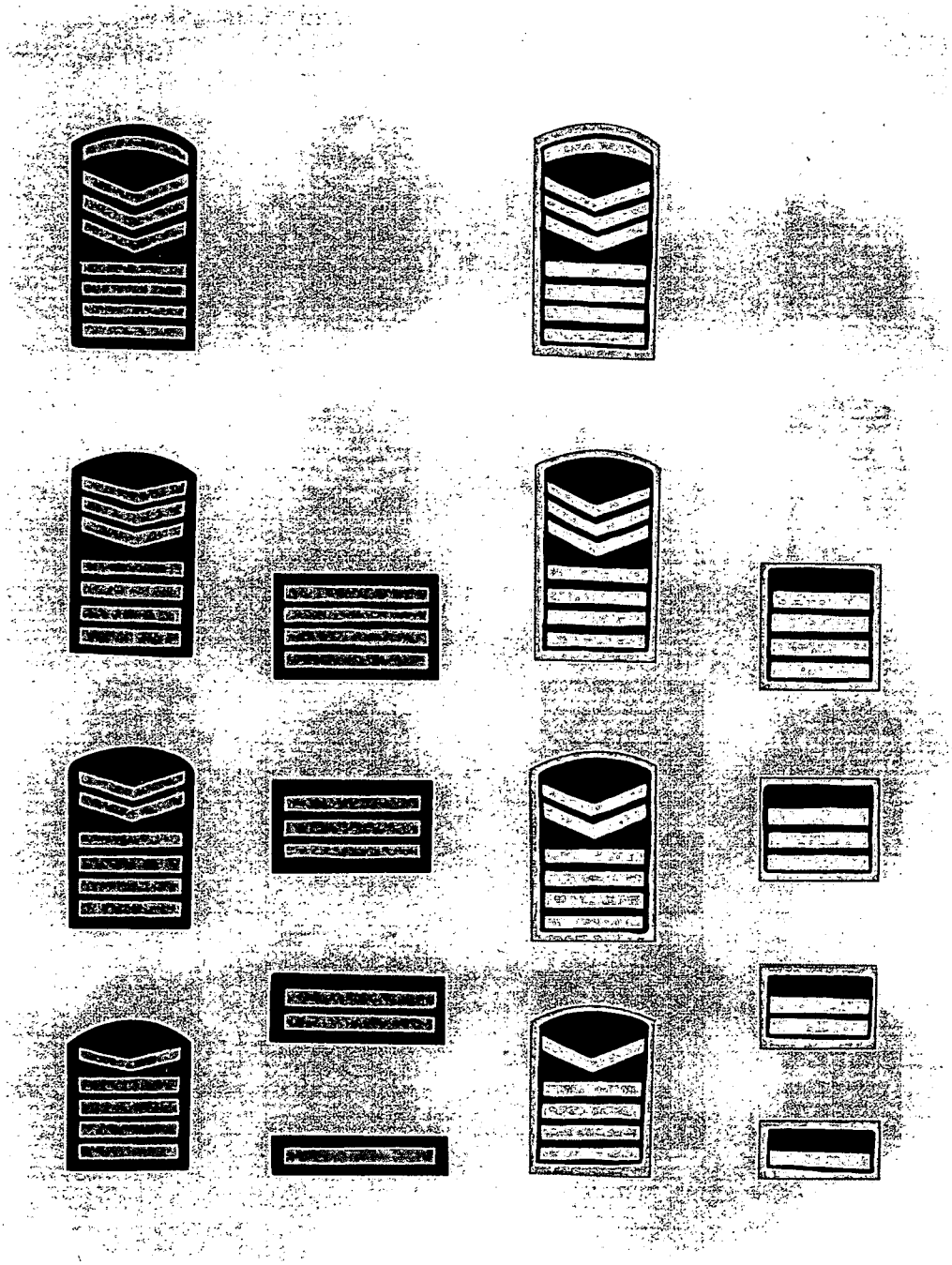
약 장

〈해군 사병 계급장(1967년 8월 7일~1970년)〉



정 장　　약 장

〈해군 사병 계급장(1971년～1990년)〉



정 장　　약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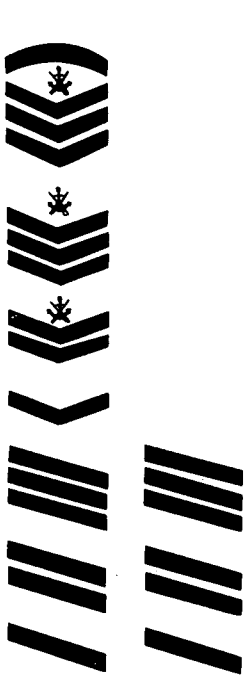
〈해군 사병 계급장(1991년~1992년)〉

(2) 해병 사병

해병 사병 계급장은 해군 사병 계급장이 제정된 1946년 6월 1일부터는 해군과 동일한 모형과 제식을 사용하였었다. 그러나 1962년 이후는 색상이 해군과 다소 차이가 났다. 정장일 경우, 복지바탕에 병장 이상은 홍(紅)실로 자수하였으며, 상등병 이하의 동복은 흑색으로 자수하였다.

약장은 흑색 바탕에 금색 금속제로 계급이 부각되게 하였고, 하사 이상은 부대표식을 원호 밑에 넣었다.

이후 1967년 8월 7일의 〈군인복제령〉 개정 당시 각군 사병 계급장이 통일되면서 정장만 색상이 달랐다. 동복은 그린색 수직 또는 혼방 바탕에 홍색으로 해당 계급을 나타냈으며, 하복은 카키색 연직 또는 혼방 바탕에 흑색으로 해당 계급을 표시하고, 약장은 해군과 같았다. 이후 1971년 2월 25일의 〈군인복제령〉 제정 당시에 해군의 사병 계급장 양식과 동일하게 변동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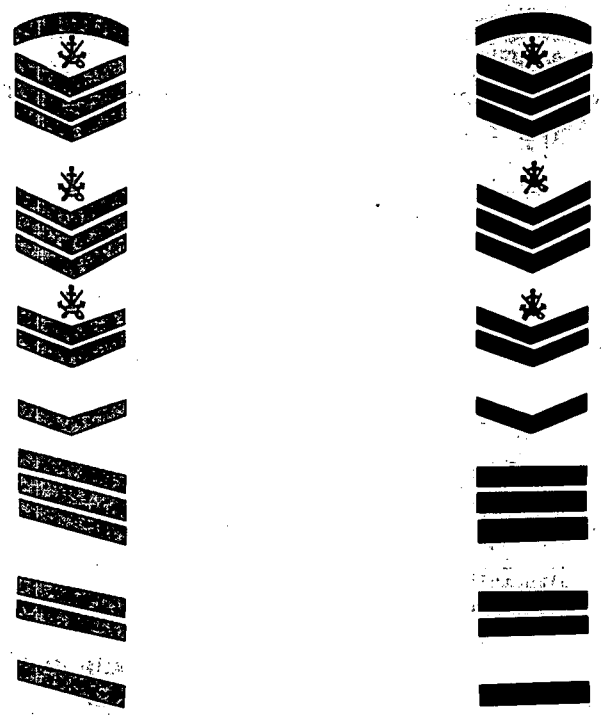


정 장



약 장

〈해병 사병 계급장(1962년~1966년)〉



정 장　　약 장

〈해병 사병 계급장(1967년~1970년)〉

5. 服 飾 標(品)

복식표란 군복의 차림에 장식적(裝飾的)인 효과를 내게 하는 물건으로서 제복의 차림을 보완함은 물론 직위나 신분을 나타나게 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며, 표지장(標識章)과 함께 사용된다. 이러한 복식표에는 단추·요대·버클·권총요대·견식·머플러와 예식도 및 지휘봉 등이 있고, 이중에는 모든 군인에게 적용되거나 또는 특수 직위나 직책에 있는 자(者)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있다. 본편에서는 여러 복식표 중에서 단추·요대·예식도에 대해 언급한다.

가. 단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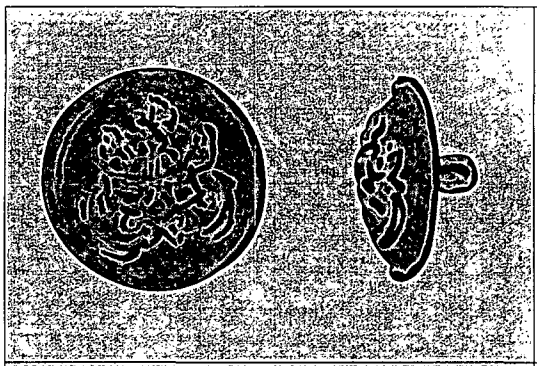
전형적인 우리 고유의 한복에는 원래 띠나 옷고름을 사용하였고, 단추는 없었다. 그러던 것이 구한말 대원군이 만주 보정부(保定府)에서의 유거(幽居)생활에서 풀려 나와 귀국할 때인 1887년에 그가 입고 들어온 만주인의 옷이었던 마고자(麻古子)와 양복이 의생활화(衣生活化)되면서 양복의 조끼를 본떠 만들어 입게 된 한복 조끼로부터 우리의 의복에 단추를 달기 시작했다. 이러한 단추는 옷을 여민다는 원래의 목적에 덧붙여 장식품으로서의 부가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의복에서는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되어 부가적인 목적이 더욱 중요시된다고도 볼 수 있다.

군복에 있어서도 단추의 구실은 장식품으로서의 중요성이 크게 인정되고 있고, 이런 점은 특히 정복·예복·외투 등에 부착하는 단추일 경우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군인복제령〉에서도 장식품으로서의 그 형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항목에서는 장식품으로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금속단추에 대해서 언급한다. 초창기의 군복은 미 해군복이 대종(大宗)을 이루었던바, 이때의 단추는 우리 고유의 제식이 아니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1952년, 〈해군복제령〉이 제정된 시기에 최초로 단추의 제식이 결정되었다.

(1) 해 군

최초 제정된 해군용 단추는 원형 금색 금속물에 부각면을 명확하게 압착(壓搾)하여 만들었다. 중앙에 장교 모표를 축소하여 넣고, 여백면(餘白面)에는 종횡으로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여 직선을 그려 넣었으며, 뒷면에는 '환'으로 된 다리를 달았다. 대형의 크기는 직경 20㎜, 중형은 15㎜로서 대형은 주로 상의의 전면(前面)에 달고, 작은 것은 주머니 뚜껑과 견장대에 달았다. 정모의 귀단추는 동일 제식에 크기가 17㎜인 단추를 사용하였다.

그후 1967년 1월 9일의 〈군인복제령〉 개정시 각군의 단추를 통일하여 그 크기를 제정하여, 대형은 25-30㎜, 중형은 20㎜, 소형은 15㎜로 하였으며, 대형 단추는 주로 외투에 부착하였고, 제식은 종전과 동일하였다. 1967년 8월 7일의 〈군인복제령〉 개정시는 단추의 크기가 조정되어, 대형은 26㎜, 중형은 23㎜, 소형은 17㎜였고, 제식은 여전히 종전과 다름없이 장교 모표를 축소하여 넣은 금색 금속제 단추였으나, 다만 외투만 무표지(無標識)·무광채(無光彩)로 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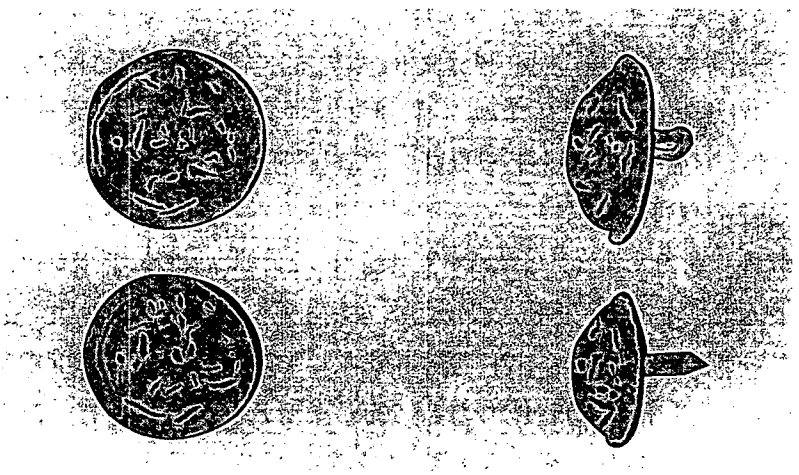
〈크 기 변 형〉

1953년~1966년	대 형	20㎜
	중 형	15㎜
	귀단추	17㎜
1967년 1월 9일	대 형	25-30㎜
~8월 7일	중 형	20㎜
	소 형	15㎜
1967년 이후 현대	대 형	26㎜
	중 형	23㎜
	소 형	17㎜

〈모자 귀단추(1953년~현재)〉

(2) 해 병

해병용 단추는 해병 장교 모표를 넣은 점 외에는 해군의 단추제식과 똑같았다.



〈해병용 단추(1953년~현재)〉

나. 腰　帶

(1) 해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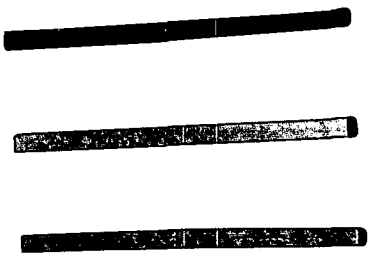
초창기 해군의 요대는 조직선직(組織線織)을 이용한 흑색·백색·카키색으로 된 요대를 제정하여, 동절기에 착용하는 복장에는 흑색 요대를, 하절기에 착용하는 복장에는 백색 요대를, 카키색 복장을 착용할 때는 카키색 요대를 착용하였다.

이후 1971년 2월의 〈군인복제령〉 개정시 요대의 색상을 각군의 복지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나, 해군의 요대는 상기 세 가지 색상을 계속 유지, 현재에 이르고 있다.

흑색 요대 :

백색 요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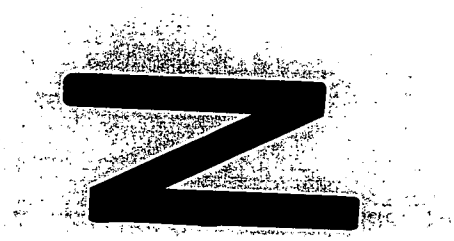
카키색 요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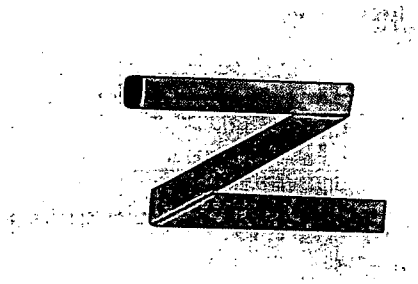
〈요대(1953년 ~ 현재)〉

(2) 해　병

초창기 해병용 요대는 조직선직(組織線織)을 이용하여 흑색과 카키색 요대를 제정하여, 카키색 제복을 착용할 때에만 카키색 요대를 착용하였으며, 그외 복장 착용시는 흑색 요대를 착용하였다. 이후 1971년 2월 25일의 〈군인복제령〉 개정시 요대의 색상이 각군의 복지에 맞도록 개정되면서, 상기 두 가지 색상의 요대를 국방색 요대로 바꾸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흑색 요대



카키색 요대



녹방색 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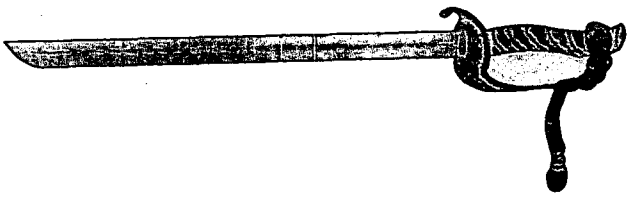
〈해병용 요대〉

다. 禮 式 刀

(1) 해 군

예식도 제식은 1971년 2월 25일, 〈대통령령 제5538호〉에 의해 처음으로 육·해/해병대·공군 공히 제정되었으나, 해군은 이미 1952년도 〈해군복제령〉 제정시 미 해군의 예식도를 본떠서 예식도의 제식을 제정하여 사용하였었다.

이 시기에 제정된 제식은 칼몸(전장 882㎜)과 칼집(전장 780㎜)으로 되어 있었으며, 손잡이에 해군표지와 무궁화꽃과 잎을 넣었으며, 종류는 중령 이상과 소령 이하로 구분하였다. 예식도의 밴드는 흑색가죽으로 폭 1¾″의 밴드와 폭 ¾″의 줄로 되어 있었으며, 이 줄의 이면은 황색(장관용), 청색(영관용), 적색(위관용)으로 구분하였다. 버클은 직경 2″의 금색 도금으로 무궁화가 선명히 부각되도록 전면에 넣었으며, 이 제식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사관생도는 소령 이하 예식도에 위관용 밴드를 사용하고 있다.



칼몸



칼집 : 중령 이상



칼집 : 소령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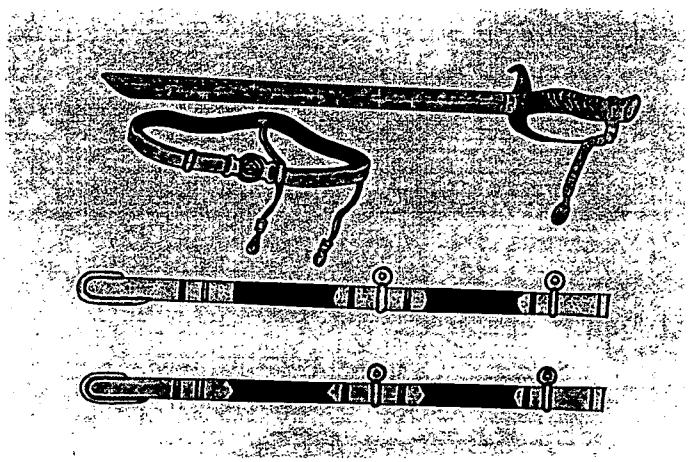


칼집 : 소령 이하

〈해군용 예식도(1953년~현재)〉

(2) 해 병

해병용 예식도는 1971년 2월 25일 〈대통령령 제5538호〉에 의거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제식은 육·공군과 동일하여, 칼은 손잡이가 11㎜, 칼의 길이는 71㎝, 칼의 폭이 3.5㎝의 규격이고, 칼집은 73㎝, 칼집의 폭은 4㎝이다. 밴드는 해군 예식도용 밴드를 사용하여 계급을 구분하였다. 예식도 손잡이 상단에는 해병표지를 넣었으며, 손잡이 뒷부분은 무궁화를 새겨 애국애족과 민족정기를 상징하였다. 이후 1977년 8월 16일의 〈군인복제령〉 개정시 예식도의 일부 제식을 변경하여, 손잡이를 12㎜, 칼의 길이를 78㎝, 칼의 폭은 2㎝로 하였고, 칼집의 길이를 80㎝, 칼집의 폭은 2.5㎝로 하여 이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해병용 예식도(1971년~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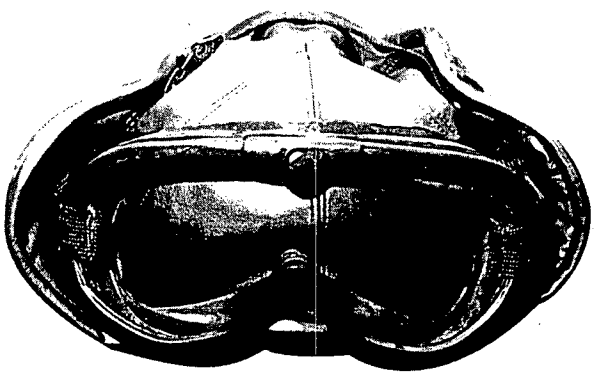
第2節 特 殊 服 制

1. 軍 帽

가. 高速艇 特殊帽

고속정 특수모는 1975년 2월 7일, 국방부의 개정 복제제식 지정(국인근 제 203.2-76호, 1975년 2월 7일) 요청에 의거, 동년 5월에 이에 관한 제식을 정하였다. 해상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정 승조원들의 시력보호와 해상전투력을 최대한 구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특수모는 재정되었다.

재질은 곤색 인조피혁으로 하고, 분리식 보안경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안경 끈을 고정하기 위하여 스냅단추 2개를 달았고, 모자 양쪽 귀 바로밑에 3개의 공기구멍을 뚫었다. 이 전투모는 고속정에 승조 근무하는 장병만 착용하도록 하였다.



〈고속정 특수모(1975년~현재)〉

나. 航空帽(조종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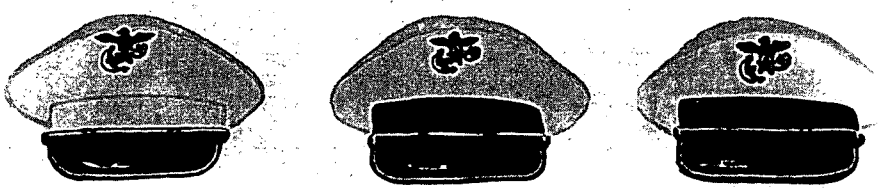
항공모의 제식은 1960년대 후반에 제정되었다. 조종사가 조종 중 또는 비행장에서 착용하기 편리하도록 제정된 제식으로, 흑곤색의 해상 전투모와 같은 재질과 제식을 사용하였다. 초기에는 모자 중앙에 부착된 계급장 밑의 차양부분에 턱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무줄을 부착하였다가 후에 폐지하였다. 계급장 0.5㎝ 위에 해당등급 포제 항공 휘장을 자수하였다.



〈항공모(1960년대 후반~현재)〉

다. 行 事 帽

행사모란 헌병・의장대・고적대(現 군악대)가 착용했던 행사용 모자를 말하는 것으로, 최초 이 모자의 제식은 동・하절기 모두 백색 모직 커버에 백색 모직 모테를 둘렀으며, 모표는 바탕없는 모표만을 부착하였고, 턱끈은 흑색 가죽으로 하여 사용하였다. 단, 의장대는 흑색 모직 모테를 둘렀고, 턱끈은 백색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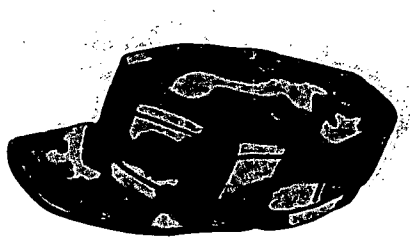
헌 병　　군 악　　의장대

〈행사모(1970년 중반~현재)〉

이후 이 제식은 1978년에 변경되어, 재질이 모직 또는 혼방으로 되었고, 색상은 전부 백색으로 하고, 모테의 경우 헌병은 백색, 군악대·의장대는 흑색으로, 턱끈은 헌병은 흑색, 군악대·의장대는 백색으로 하였다. 모표는 종전과 같이 바탕없는 모표를 사용하였다.

라. 僞 裝 帽

위장모에 관한 제식은 창군 초기에는 없었으나, 해병부대가 파월을 시작한 이후 얼룩무늬 작업복에 부합되는 약모(略帽) 형태의 모자를 착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에 관한 제식을 정하였다. 재질은 위장복지로 하고, 해병 약모의 제식과 같은 것이었으며, 모자 앞 정면에는 해병 모표를 축소한 표지를 흑색으로 압인하였다.(해병규정 제68-4호, 1972년 4월 30일, 특수복제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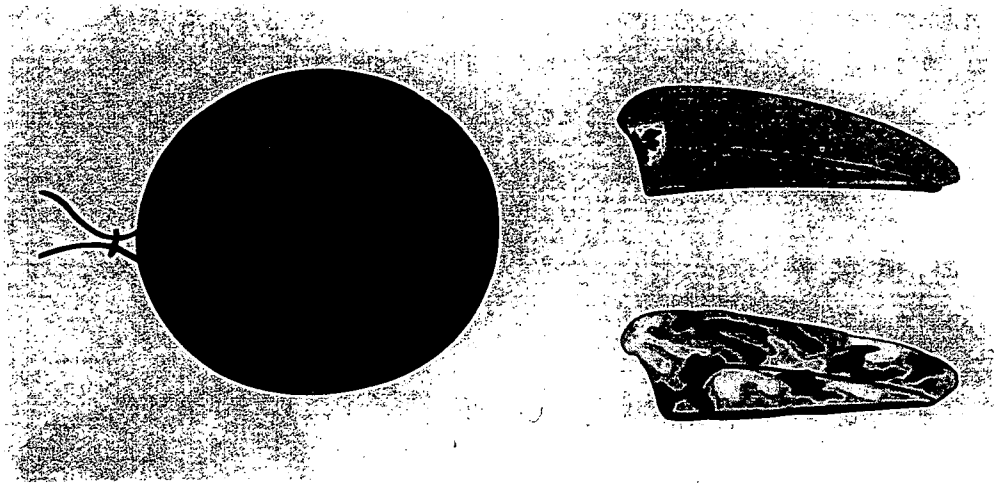
〈위장모(1958년~현재)〉

이후 1984년, 이 위장모를 해군의 특수전대 요원도 착용하기 시작하였고, 1991년부터는 해군의 잠수요원들도 이 위장모를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잠수요원 위장모의 특징은 초록색 바탕에 백색 글씨로 SSU 표시를 가로 1㎝×세로 3.7㎝로 하여 모자 정면에 부착하였다. 현재 이 위장모는 해병대 전 장병과 해군의 특수전대 및 잠수요원이 착용하고 있다.

마. 偵察帽 및 베레帽

정찰모와 베레모는 1983년 10월 10일, 〈군인복제규정 제10조〉의 특수군복제식에 제정되었다. 이 모자는 특수훈련시 위장이 가능하고 기동이 용이하며, 특수부대원의 사명감 및 긍지를 부여하는 필요성에 의하여 제정이 되었다. 정찰모는 교육·훈련·작전시에 착용하고, 베레모는 영내근무 및 행사시에 착용하도록 하였다.

착용범위는 정찰모의 경우 해군의 특수전대 요원과 해병의 상륙수색 및 기습특공부대 요원이 착용하고, 베레모는 해군의 특수전대 요원과 해병의 수색대원으로 제한하였다. 정찰모의 제식은 위장복지로 중절모 형태를 갖추었으며, 베레모는 상륙수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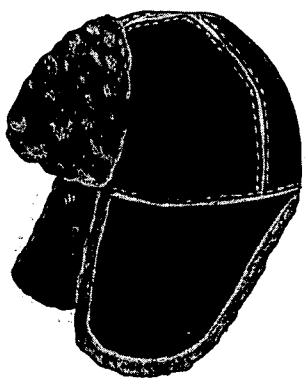
정찰모 베레모

〈정찰모·베레모(1984년~현재)〉

대 요원일 경우 그린색 천으로, 특전요원은 위장색 천을 재질로 하고, 모표는 상륙수색대는 적색 바탕에 해병 모표를, 특전요원은 위장색 바탕에 전대마크를 철제나 자수로써 표시하도록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바. 防 寒 帽

〈해군복제령〉이 제정된 후 1958년 11월, 해군 〈복제규정〉에 방한모의 제식이 규정되었다. 그 형태는 헬멧 형에다 양 날개를 붙인 모양으로, 외면은 천막지로 하고, 내면은 솜을 넣어서 누볐으며, 날개측은 모피로 하고, 날개 양면 위에는 귀덮개를 두었다.



〈방한모(1970년~현재)〉

해병대의 방한모도 해군과 비슷한 모형의 형태로, 재질을 국방색 면직 능복지(綾服地 : twill : 능직으로 표면에 사선의 두둑이 나타난 직물) 모피로서, 모자 상단 머리부분을 여섯조각으로 붙여 봉합하고, 그 안에 땀 받음대를 대었다. 좌·우의 개방식 귀덮개

는 내면에 모피를 붙여서, 귀구멍은 직경 25㎜ 크기로 주위를 둘러서 봉합하고, 모자의 차양은 마분지와 마대를 각 한겹을 내면에 붙여 빳빳하게 누비고, 아래는 모피를 덧대었다. 또한 머리부분의 모자 내면은 국방색 능복지로, 안에는 솜에 창호지를 붙여서 누볐다. 이후 최근의 방한모는 그 재질을 내피파일(pile)로 국방색으로 통일하여 공기구멍을 9개 만들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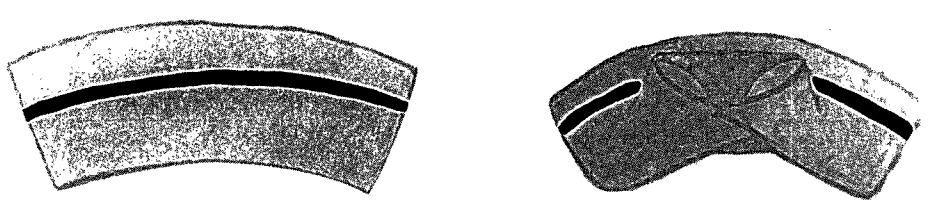
사. 看 護 帽

창군 초기의 간호모는 백색 포플린을 재질로 하여, 앞면에 수장을 하였으며, 이후 1978년, 이 모자의 형태가 일부 변경되어, 재질을 백색 면직으로 바꾼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 면 후 면

〈간호모(1953년~197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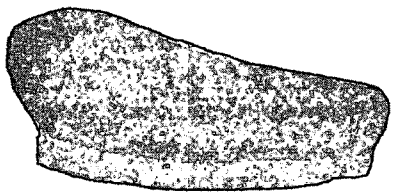


전 면 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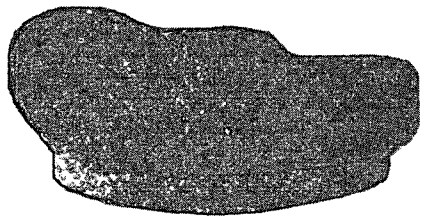
〈간호모(1978년~현재)〉

아. 手 術 帽

〈해군복제령〉이 제정된 1952년도 초창기의 수술모는 백색 옥양목을 재질로 하여, 모자의 형을 원형으로 하고, 테두리 안쪽에 땀받이 천을 한겹으로 대게 하였다.



1953년~197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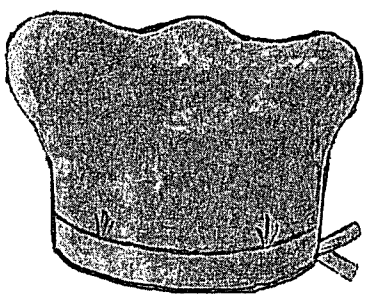
1978년~현재

〈수 술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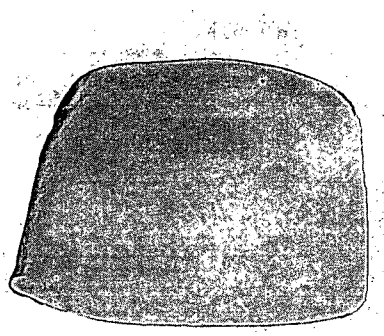
이후 1978년에는 재질을 면직 또는 혼방으로, 색상은 백색으로, 윗면에 주름을 잡았으며,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다.

자. 炊 事 帽

창군 초기의 취사모는 미 해군의 취사모 형태를 본떠서, 백색 포플린으로 머리 뒷부분을 끈으로 동여매도록 하였으나, 이후 1978년에 이를 개정하여 재질은 면직이나 혼방을 사용하고, 청·백색의 두 가지 색상을 배합하여 경사면은 청색으로, 위사면은 백색으로 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1953년~1977년



1978년~현재

〈취 사 모〉

차. 헬 멧

1978년 7월 15일의 〈해군규정 제141호〉 해군복제규정에 의한 의장대·헌병(보안) 및 위병들이 착용하는 헬멧의 제식은 다음과 같다.

(1) 의장대 헬멧

헬멧의 윗부분은 백색으로 하고, 모자 전면 중앙부분에 장교 모표(철제)를 달며, 다갈색 가죽끈(턱끈용)을 금색 금속제 고리로 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표 길이에 맞게끔 10㎜의 홍색 줄 2개와 그 사이에 금색 줄로 모자 전체를 두르도록 하였으며, 모표부분과 모자 양옆의 금색 병과표시(가로59㎝×세로65㎝) 부분은 제외시켰다. 모표의 병과 표시 간격은 각각 100㎜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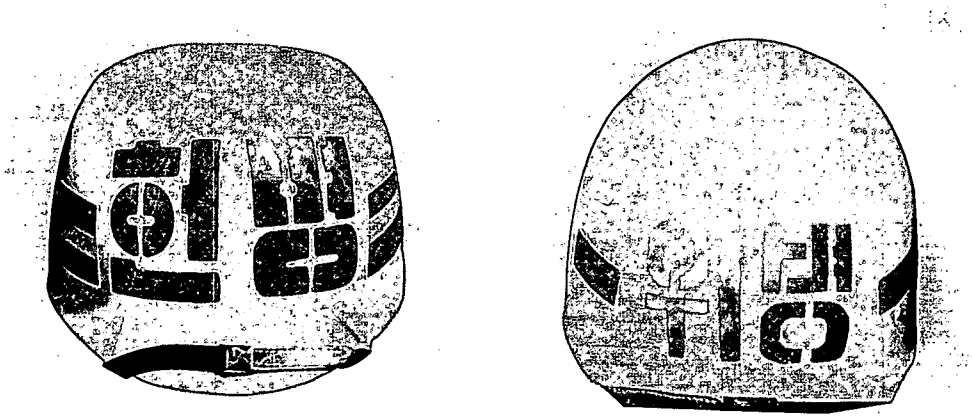
〈의장대 헬멧〉

(2) 보안 헌병 헬멧

헬멧 윗부분은 백색으로 하고, 모자 전면 중앙부분에 홍색으로 '헌병'이란 단어를 표기하고, 다갈색 가죽끈과 금색 금속제 고리는 의장대 헬멧과 동일한 제식이다. 또한 모자 주위를 폭 13㎜의 황색선 2줄과 그 사이에 폭 13㎜의 홍색선을 두르도록 하되, '헌병' 표시 부분과 양옆의 부대표시 부분은 제외시켰다.

(3) 위병 헬멧

위병 헬멧 역시 윗부분을 백색 파이버로 하고, 모자 전면 중앙부분에 청색 글씨로 '위병'이라고 표시하고, 턱끈의 제식은 상기 헬멧과 동일하였다. 또한 모자 양쪽에 부대표시를 하고, 모자 주위를 폭 20㎜의 적색선으로 두르게 하되, '위병'글자와 부대표시는 제외시켰다.



헌병 헬멧　　위병 헬멧

〈헌병·위병 헬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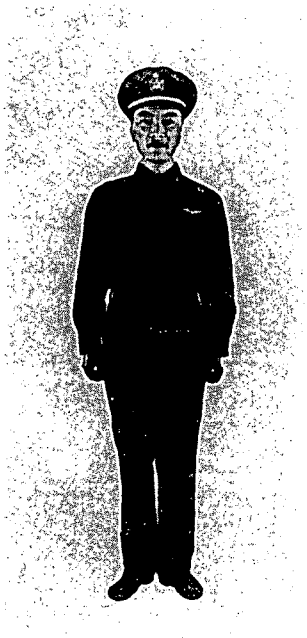
2. 制　服

가. 勤 務 服

(1) 해군 장교

1952년 〈해군복제령〉 제정 이전의 복장은 주로 미 해군의 근무복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당시의 복장을 우리 고유의 복제 제식이라 볼 수 없고, 1952년에 제정한 해군의 복제규정에 의한 제식이 해군 최초의 복제령이라고 할 수 있다.

동근무복의 상의는 흑색의 사지나 모직을 재질로 하여 당시 카키색 약정복 안에 착용하던 셔츠와 동일한 제식의 보통형과 강직한 칼라형태를 취했으며, 흉부 좌·우에 뚜껑있는 주머니를 달고, 흑색 보통단추로 잠그도록 하였다. 소매는 보통형 커프스를 하고, 앞에 보통형 단추를 한 줄로 6개를 달았으며 견장대가 없고, 깃에 금장을 달았으며, 기타는 동정복을 착용시 사용했던 넥타이, 구두, 양말을 착용했다. 동근무복 하의는 상의와 같은 색상과 재질로 동정복 하의와 같은 제식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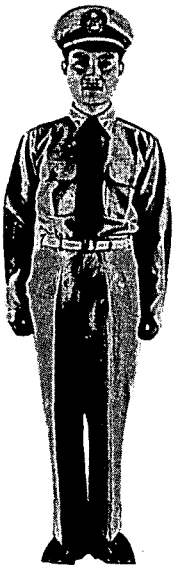


1953년 ~ 1986년



1987년 ~ 현 재

〈해군 장교 동근무복〉



1953년 ~ 198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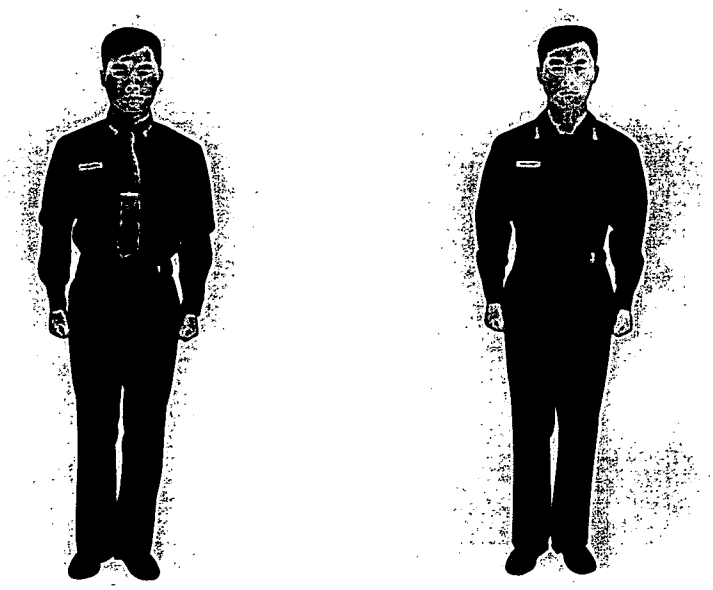
1983년 ~ 현 재

〈해군 장교 하근무복〉

하근무복은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 하나는 카키색 약정복 착용시의 상의만 벗으면 바로 이를 하근무복으로 간주했던 형태로서, 이는 1982년에 폐지되었다. 또 다른 하근무복 형태는 반소매 하근무복으로 셔츠의 소매를 반으로 자른 형태로서 카키색 색상을 이용하였으며, 기타 제식은 하근무복과 같았고 이는 1953년 이후 현재까지 착용하고 있다. 이후 1987년에 근무복 중 동근무복 상의의 제식을 일부 변경하여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은 형태로 목부분을 앞가리개 받침 형식으로 바꾸어 현재까지 착용하고 있다.

(2) 해병 장병

해병대의 근무복은 해군의 근무복 제정 당시와 비슷한 시기에 제정되었으나, 해군처럼 장·사병의 복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장병이 함께 착용했으며, 그 제식은 해군과 동일하였고, 변천과정 역시 동일하였다. 초기 해병 장병용 동근무복 상의는 그린색 사지나 모직으로 해군의 동근무복 제식과 같았으며, 하의 역시 상의와 같은 재질과 색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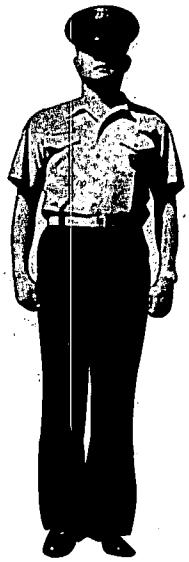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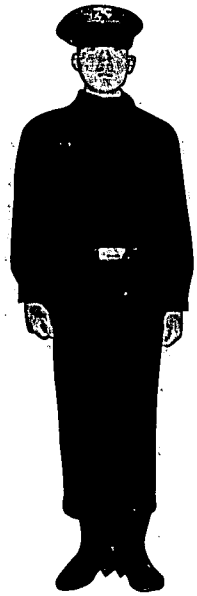
1953년~1986년　　1987년~현재

〈해병 장병 동근무복〉


1953년～1986년


1953년～1986년


1987년～현재


1953년～현재

〈해병 장병 하근무복〉

하근무복은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정복 착용시의 제식에서 하정복 상의만을 탈의한 형태이고, 또 다른 하나의 제식은 카키색 반소매 형태에 하의는 그린색 하정복 하의제식을 착용한 형태로서 두 가지 복장은 계속 혼용되다가, 1982년 이후 하근무복은 반소매 형태의 상의만을 착용하는 것으로 통일되었고, 색상이 다소 변한 것 외에 현재까지 착용하고 있다. 이후 1987년 이후 동근무복의 제식 중 상의의 제식이 노타이식 깃으로 변경된 후, 종전에 착용해 오던 카키색 넥타이 대신 목부분을 앞가리개로 변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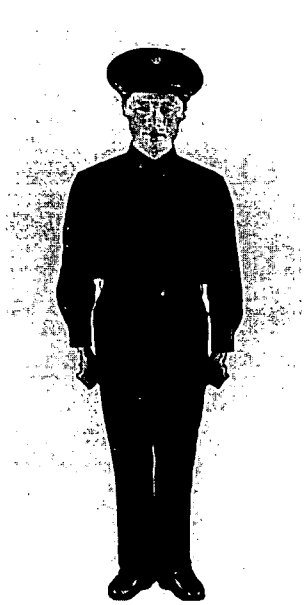
(3) 해군 사병

초창기 해군 사병의 근무복은 상사와 중사 이하 사병의 근무복이 서로 달랐다. 상사의 근무복은 장교의 근무복과 같은 제식을 사용하여 모두 같았다. 그러나 중사 및 하사는 창군 초기부터 1980년까지 당가리복을 근무복으로 착용하였으며, 그후 1981년 이후에 장교나 상사와 같은 제식의 근무복을 착용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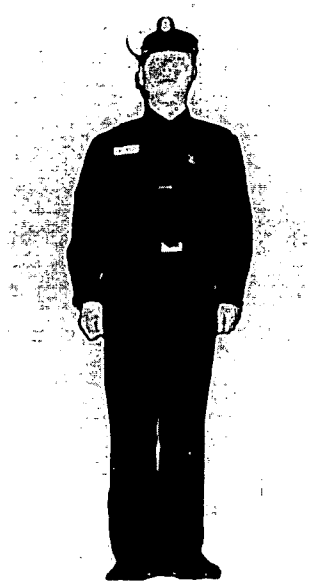
있다.

사병은 창군 초기부터 당가리복장을 현재까지 착용하고 있는데, 당가리복의 제식은 상의에 A·B형을 유지하여 오다, B형이 폐지되고 A형으로 통합되었다. 당가리 상의의 A형 제식이란 청색의 엷은 면직으로 보통형 와이셔츠 형태였으며 좌·우 양 흉부에 뚜껑없는 주머니를 밖으로 덧붙여 달고, 청색 소형 뿔단추를 하나씩 단 것을 말한다. 상의 옆면에는 청색 소형 뿔단추 5개를 달고 잠그도록 하고, 소매는 커프스를 하여 청색 소형 뿔단추를 하나씩 달았다.

B형의 제식이란 청색의 두터운 면직으로, 반달 깃을 하고 외줄 단추복에 우측 앞에 5개의 중형 흑색 뿔단추를 달았으며, 소매는 통소매로 하고, 좌·우 양 복부에 뚜껑없는 주머니를 밖으로 덧붙여 단 것을 가리킨다. A형의 제식은 주로 봄·여름·가을에, B형의 제식은 겨울철에 착용하였으며, 상사 이하의 계급장은 좌측 흉부에 약장을 부착하였다. 당가리 하의는 흑청의 모직으로 만들었으며, 보통형 하의에 커프스를 하지 않았으며, 앞·뒤 좌우에 4개의 주머니를 덧붙여 달았다.



1946년~195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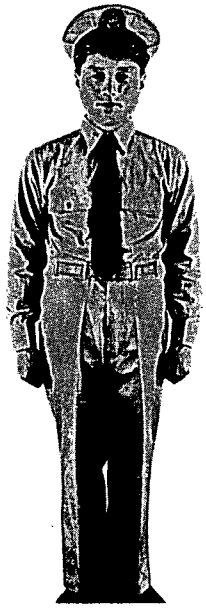
1953년~1982년



1983년~현재

〈하사관 동근무복〉

〈노타이식 동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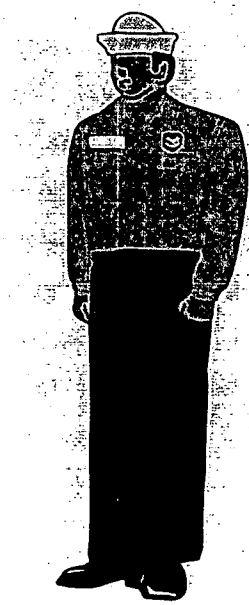


1946년 ~ 198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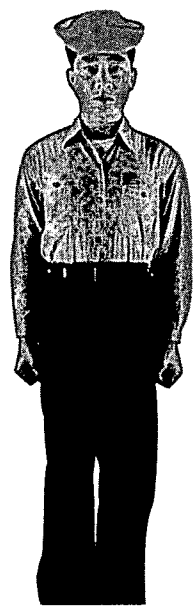
1981년 ~ 현재

〈하사관 하근무복〉



1946년 ~ 1986년

〈당가리복〉



〈동복(1946년 ~ 현재)〉



〈하복(1987년 ~ 현재)〉

(4) 간호장교

초창기 간호장교용 근무복은 미 해군 간호장교의 근무복을 참고로 하여 제정하였다. 동근무복 상의는 흑색 플란넬(flannel : 평직 혹은 능직으로 양면을 가볍게 기모시킨 직물)지나 사지 및 모직으로, 보통 셔츠형 깃에 앞을 트이게 하여 지퍼를 달고, 앞주름을 잡았다. 소매는 긴 통소매로 하되, 브라에 덧대기를 했다. 하의는 보통형 원피스에 동정복의 스커트와 같이 하여, 오른편 앞에 주머니를 달았으며, 허리는 통띠를 흑색 보통형 뿔버클로 매게 했다.

하근무복 상의는 카키색 포라 및 개버딘지로 하여 동근무복의 제식과 같았으며, 반소매로 할 수도 있었다. 하의는 상의와 같은 재질과 색상으로 동근무복의 제식과 같았으며, 동·하근무복의 기타 부착품인 넥타이·스타킹·구두·모자는 동정복 및 하정복의 규정과 같았다.

이후 1963년에 근무복의 복제를 일부 개선하여 칼라 오른쪽에 계급장을, 왼쪽에는 병과 표지를 하게 하였으며, 1978년 7월 15일에 제정된 〈해군규정 제141호〉의 복제규정으로 간호장교들에게 근무복을 추가하여 일반 동·하근무복 외에 간호근무복가운형과 간호근무복 정장형을 새로 제정하였다. 이중 일반 간호근무복은 종전과 같은 제식을 사용하였으나, 가운형 간호근무복 동복은 앞부분을 단추로 여미도록 하고, 허리 윗부분의 단추는 백색 복지로 싸인 단추를 3개 달았으며, 허리 아래부분의 단추는 속단추형으로 하여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허리부분은 뿔버클이 아닌 단붙임 허리선으로 대서 단추로 조이도록 하였으며, 허리 양쪽에 속붙임주머니를 달았고, 소매부분은 커프스 단추를 달았다.

간호근무복 하복은 동복과 같은 제식을 사용하였으나, 소매를 반소매로 하고, 소매 끝부분은 커프스형으로 하고, 동·하복 공히 색상을 백색으로 하였으며, 재질은 면직 또는 혼방을 이용하였다. 정장형 간호근무복은 상의의 앞부분을 단추로 여미도록 하여 4개의 소형 백색 단추를 달았으며, 소매는 반소매로 끝부분을 커프스형으로 하였다. 하의는 일반바지형 제식으로, 왼쪽 허리부분에 지퍼를 달아서 조이도록 하였으며, 상·하의 모두 백색의 면직 또는 혼방을 사용하였다. 망 또는 흑곤색의 면직 또는 혼방으로, 목부분을 흑곤색 복지로 싸인 단추로써 잠그도록 하고, 허리부분에 속없는 주머니를 좌·우에 달았다.



1953년 ~ 1962년



1963년 ~ 현 재

〈간호장교 동근무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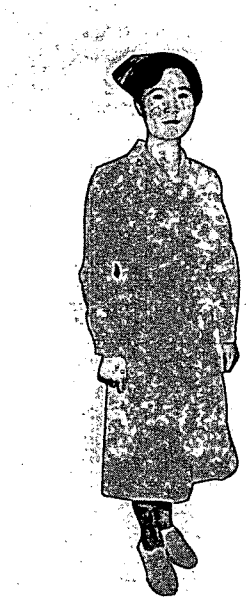


1953년 ~ 1985년



1963년 ~ 현 재

〈간호장교 하근무복〉



동 복



하 복

〈가운형 간호근무복(1978년~현재)〉



〈정장형 간호근무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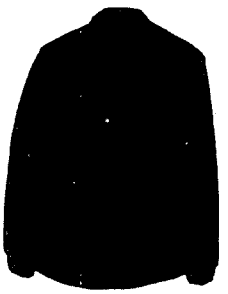
〈망토(1978년~현재)〉

(5) 사관생도

사관생도용 근무복은 장교 근무복 제식과 동일하였다.

나. 점 퍼

해군에서 점퍼를 복제규정에 포함시켜 착용하기 시작한 정확한 시기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대략 1960년대 초로 추정한다. 1968년 3월 중순에는 장교 및 상사만이 착용하는 점퍼를 중사·하사도 착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수정되었으며, 1969년 초에는 국방부로부터 사관생도 점퍼 제정에 관한 각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문서(국방 인근 제203.1-365)에 대한 해군의 회신에 그 당시에 사관생도들에게 이미 점퍼를 착용시키고 있다고 함으로써, 해군은 일찍부터 점퍼를 착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점퍼(1960년대 초~1973년)〉

그러나 1970년의 해군복제(해본 인사 교시책 : 제1020호)에 간략히 기술된 점퍼 제식에 관한 조문에는 "곤색모직으로 만든 점퍼는 그 착용 대상을 장교 및 상사로 제한하며, 동복 착용 기간중 기후에 따라 착용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어 확실한 구분없이 장교 및 하사관이 널리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후 1974년 8월 21일, 현재 착용하고 있는 곤색 점퍼가 보온성과 경제성 및 품위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내린 해군은 새로운 제식을 정하여 국방부에 상신하였다. 점퍼 재질을 나일론 원단으로 하고, 해군 색상은 흑곤색, 해병 색상은 그린색으로 지정하였으며, 목주위 깃과 소매 및 점퍼 아래부분은 메리야스로 만든 시보리(しぼり : 소매나 깃 또는 밑단에 사용되는 편성물)를 댔으며, 앞부분에 숨은 지퍼를 달았고, 앞 덮개에 스냅단추를 부착하였다. 허리 바로 윗부분 좌·우측에 사선형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달고, 역시 스냅단추를 부착하였다. 그리고 화학섬유 파일(pile)로 만든 착·탈식(着·脫式) 깃을 부착하고, 장교는 어깨부분에 견장대를 사용하여 계급장을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하사관은 앞부분 중앙의 좌측에 계급장을 부착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후 1989년 7월 12일에는 춘·추용 점퍼 제식을 건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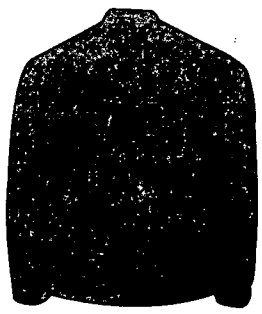
깃 탈거　　깃 부착

〈해군 장교 및 하사관 점퍼(1974년～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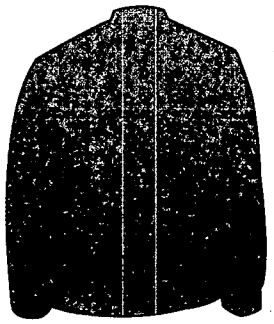
깃 탈거　　깃 부착

〈해병 장교 및 하사관(1974년～현재)〉



전 면

〈춘추용 점퍼(1989년～현재)〉



후 면



〈장성급 점퍼(1991년～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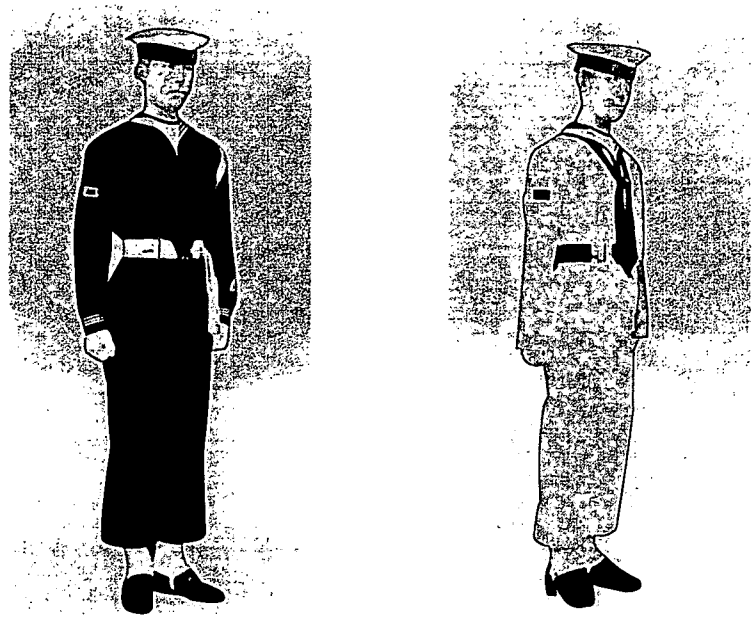
동년 동월 28일에 국방부 승인을 득하였다. 춘·추 점퍼 제식은 폴리에스틸 65%, 면 35%로 방수처리된 재질을 사용하여, 해군은 카키색을, 해병은 그린색을 채택하였다. 안 부분의 재질은 인조 견직물로 어깨 및 전면의 내측에만 부착하도록 하고, 안주머니는 왼쪽 내부에만 부착했다. 어깨부분은 철제 계급장 부착용 견장대를 대고 조임은 플라스틱 단추를 이용하였다. 칼라는 각이 있는 칼라 깃을 만들었으며, 허리 부분 뒷면에 허리 조임용 단추고리를 부착하였고, 소매부분에는 소매 조임용 단추고리를 함께 달았다. 상의 전면은 지퍼로 잠그도록 하였으며, 허리 바로 윗부분에는 좌·우에 속붙임 덮개주머니를 달았다. 이 제식은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1991년 3월말에는 장성급 장교의 점퍼 제식을 개정하여 현행 점퍼보다 내한성을 보완하고, 화생방전에도 대비할 수 있으며, 장성의 품위유지를 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한 동절기용 가죽 점퍼 제식을 제정하였다. 밤색 양가죽 외피에, 내피는 암갈색으로 하고, 고정식 깃털은 점퍼색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허리 바로 윗부분의 주머니는 양쪽에다 대고, 덮개를 붙였고, 견장대는 스냅단추를 부착하였다.

다. 儀仗隊 服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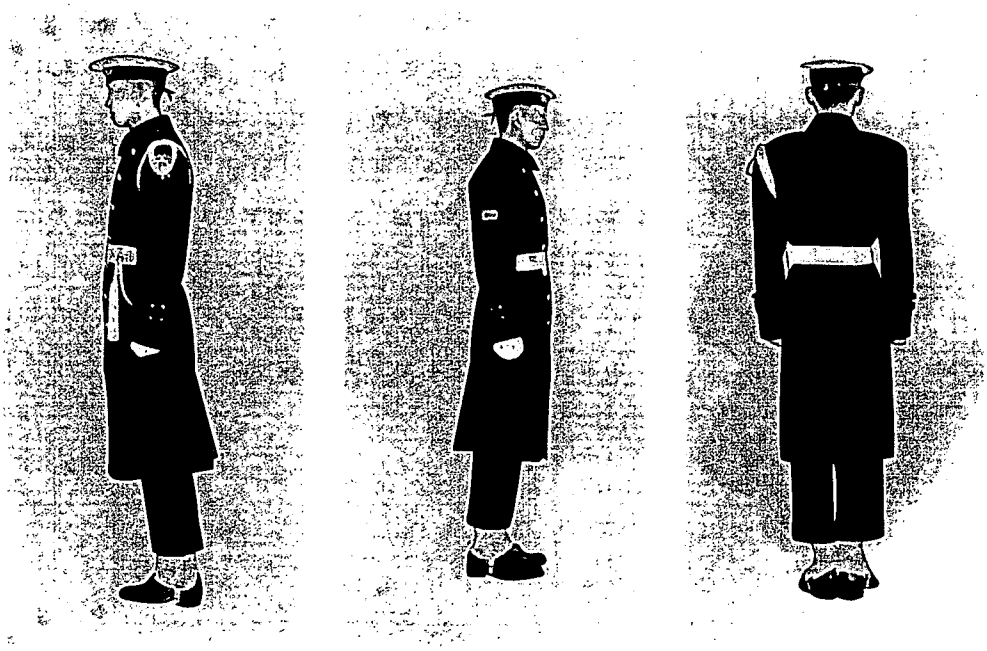
(1) 해 군

해군의 의장대는 창군 초기부터 그 복식을 제정하여 운용하였으나, 당시에는 특별



동 복　　하 복

〈해군 의장대 복제(1962년～현재)〉



〈해군 의장대 외투착용시(1984년～현재)〉

한 제식이 없이 사병의 정복을 그대로 착용하였다. 다만 정복의 좌측 소매 어깨 봉합선에서 5㎝ 떨어진 소매 외측 중앙에 의장대 마크를 부착하였고, 백색 장갑과 백색 각반 그리고 의장대 밴드를 착용하고, 밴드 좌측 옆구리에 M-1소총 단검을 휴대했다. 당시 착용한 각반은 백색 캔버스(canvas : 굵은 실로 치밀하게 짠 직물)로 만들었으며, 길이는 6½"이고, 폭은 세 폭으로 하여, 앞쪽에 쇠구멍 10개, 뒤쪽에 훅 17개를 달아 면끈으로 외측에서 걸어 잠그게 하였다. 구두 밑으로는 가죽으로 만든 밴드를 돌려 걸어서 묶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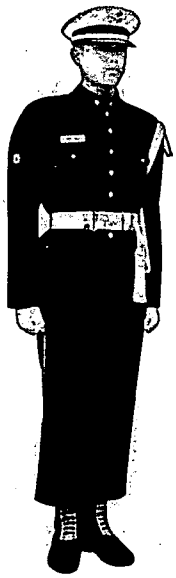
이후 1956년 4월 26일에는 해군 자체에서 의장대 복제를 일부 보완하여, 사병의 정모 대신 백색 파이버를 추가하였고, 백색 머플러를 착용하게 하였다. 또한 좌측 어깨부분에는 금색 줄을 두르도록 하였으며, 버클을 노란색으로 칠한 밴드를 착용하게 하였다. 그후 의장병 제식을 일부 재보완하여, 헬멧 대신 A형 사병 정모를 착용하게 하였으며, 우측 소매에는 포제 계급장(정장)을 달도록 하고, 밴드는 동복에는 백색 밴드를, 하복에는 흑색 밴드를 착용하였으며, 좌측 허리부분에도 금색 줄을 착용하게 하고, 머플러 대신 사병용 넥타이로 착용하였다.

1983년 11월 12일, 〈국방부 인근 제918.2--881호〉에 의거 의장대가 동절기 행사를 치를 때에는 외투 착용이 가능하게 되어, 흑색 사지로 외투를 제작하였다. 그 제식은 외투 앞면 부분에 해군 모표가 새겨진 직경 3㎝의 금색 단추를 2중으로 7개씩 달았으며, 소매부분은 덧붙임한 부분에 4개의 금색 소매단추를 직경 1.5㎝로 하여 부착하였고, 양 어깨부분에는 견장대를 부착하였으며, 목부분은 후크로 잠그게 하였다. 외투의 뒷면은 텄으며, 이 부분에는 속 뿔단추 2개를 달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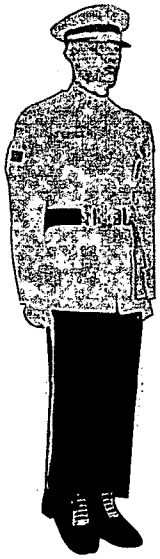
(2) 해 병

해병대 의장대의 복제 제식은, 초창기 이후 1972년 4월 20일에 개정된 〈해병 규정 08-4〉에 이를 규정하였는데, 주로 사병 정복의 제식을 따랐다. 동복 상의는 흑곤색 모직을 재질로 하여, 세운 칼라 속에 흰색의 뿔칼라를 달았고, 어깨부분에는 견장대를 부착하였으며, 해병 소형 금속제 단추로 잠그었다. 좌측 어깨부분은 금색 줄을 둘렀으며, 좌측 주머니 상단에 명찰을 부착하고, 좌·우측 어깨부분에 포제 계급장(정장)을 달았다.

혁대는 동복에는 50㎜ 폭의 백색 가죽에 해병 마크가 넣어진 버클을 사용했으며, 혁대 좌측에는 대검을 휴대하도록 하였다. 또 소매부분은 5㎜ 크기의 붉은 치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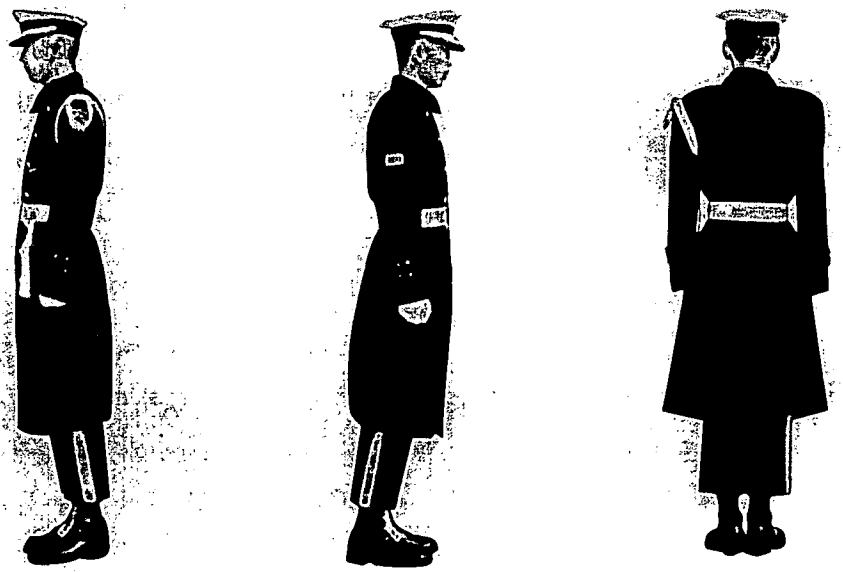


동 복



하 복

〈해병 의장대 복제(1973년~현재)〉



〈해병 의장대 외투착용시(1984년~현재)〉

(線)을 덧붙임하여 갈매기형으로 부착하도록 하였다. 앞부분의 단추는 7개의 해병 중형 단추를 달도록 하였으나, 맨밑의 1개는 흑색 뿔단추로 하였다.

동복 하의는 진청색 모직으로 하고, 바지 좌·우측면에 40㎜ 폭의 붉은 치레선을 넣었으며, 신발은 워커를 착용하였다. 하복의 상의는 백색 모직 또는 혼방으로 동복 상의와 거의 같은 제식을 사용하였으나, 혁대가 흑색 가죽이었으며, 소매부분에 붉은 치레선이 없었다. 하복의 하의는 동복의 하의와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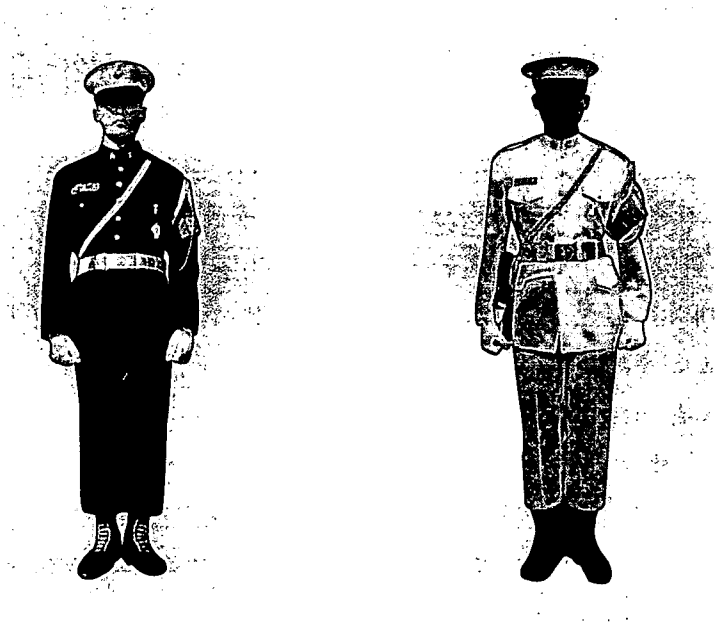
당시 의장대의 모자는 백색 파이버로 중앙에 장교 모표를 달았으며, 턱끈은 백색으로 하고, 모자 주위에 흑띠형의 페인트를 칠하고, 중앙부분에는 적색 띠를 칠하였다. 그후 변형된 해병 의장대의 복장은 종전과 거의 같은 제식이었으나, 모자가 정모형으로 되어 백색 커버에 장교 모표를 달고, 턱걸이를 백색으로 하였으며, 좌측 허리부분 어깨의 줄과 같은 색의 띠를 추가하고, 군화의 끈을 백색으로 바꾸었으며, 이외 외투의 제식은 해군 의장병과 동일한 제식의 외투를 착용하게 되었다.

라. 憲兵 行事用 服裝

헌병의 행사용 복장은 주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보안 헌병에만 국한되는 제식이다. 1973년 9월의 해군과 해병의 통합 이전에는 해군에 보안 헌병이 거의 없었고, 해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병대에서 주로 지원하였다. 그후 해군과 해병의 통합이 이루어진 현재에도 행사가 있을 경우 헌병업무를 해병 보안 헌병의 지원을 받고 있는 관계로, 여기서는 해병대 보안 헌병의 행사복에 한해서 서술한다.

해병의 보안 헌병 제식은 초창기 이후 1972년 4월 20일에 개정된 〈해병 규정 제08-4〉에 규정되어 있다. 제복은 주로 사병의 정복 제식을 본떠서 만들었다. 동복 상의는 흑색 모직 또는 혼방으로 세운 칼라 양쪽 깃에 헌병 병과휘장(소형)을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좌측 어깨에서 오른쪽 허리부분에 금색의 줄을 둘렀고, 좌측 상의 가슴주머니 부분에는 호각줄을 견장에서 주머니 부분으로 내려오도록 했다.

단추는 정복의 제식과 같았으며, 우측 소매 상단에 포제 계급장을 달고, 왼쪽 소매 상단에는 헌병 완장을 착용하였다. 동·하절기 공히 폭 40㎜의 백색 혁대를 둘렀으며, 소매수장 부착위치에는 정근장을 부착토록 하였다. 동복의 하의는 상의와 같은 색상과 재질로서 하의 측면에 폭 2㎝의 붉은 치레선을 넣었으며, 군화를 착용하고, 백색 파이버의 경우 헌병표시를 하였다. 하복 상의와 하의는 백색 면지 또는 혼



동 복　　하 복

〈헌병 복장(1953년~현재)〉

방을 사용하여 동복과 같은 제식으로 만들었으나, 하의에 붉은 치레선이 없었다.

통합 이후 이 복제의 일부가 보완되어, 파이버 대신 정모를 착용하게 되었는데, 백색 커버에 흑색의 턱끈을 부착하도록 하고, 사병모표를 달며, 우측 밴드부분에 45구경 권총집을 차도록 하고, 소매부분의 정근장 부착을 폐지하였으며, 우측 소매부분에 포제 계급장을 부착하도록 했고, 오른쪽 주머니 상단에 명찰을 착용하게 하였으며, 군화의 끈을 백색으로 바꾸었다.

마. 軍樂隊 服裝

(1) 해 군

해군의 군악대 복장은 창군 초기부터 다른 복장에 비해 비교적 빨리 복식제정이 이루어져, 동예복·하예복·춘추예복 및 약식예복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초기 군악대의 예식모는 모표와 턱끈을 제외하고는 위관장교의 정모와 같았으며, 이때 모표는

은색 도금한 닻 2개를 교차시키고, 그 위에 금색 도금한 하프를 수놓았었다. 닻의 크기는 가로 40㎜×세로 34㎜로 하고, 하프의 크기는 가로 27㎜로 닻의 위끝에서 18㎜가 더 올라가게 하였다.

동예복 상의는 흑색 사지 또는 모직으로, 깃은 세운 깃으로 하고, 외줄 단추목으로 하였다. 앞은 지퍼를 달고, 등을 4폭으로 관람식으로 하였다. 또한 세운 깃 앞 아래의 변두리에 ¼″ 금줄을 둘렀다. 길이는 허리에 닿게 짧게 하고, 양 깃에 축소한 모표를 달았다. 동예복 하의는 상의와 같은 색과 재질로 만들었으며, 긴바지형으로 옆 주머니가 없이 폭 ¼″로 양 옆에 길이로 흑색 줄을 쳤다. 바지는 보통보다 3″ 넓게 하고, 허리는 높이 올려 멜빵을 하였다. 동예복을 착용시는 흑색 양말과 흑색 단화에 백색 장갑을 착용하였다.

군악대의 하예복 상의는 표백색 개버딘지나 면직을 사용하였고, 깃은 세운 깃으로 동예복과 같이 하였으며 두 줄 단추를 달았다. 이때 단추는 정복 중형 단추를 7개씩으로 하여 우측으로 여미어 잠그었다. 기타 제식은 동예복과 같았다. 하예복 하의는 상의와 같은 색과 재질을 이용하였으며, 제식은 동예복 하의와 같고, 기타 부수 복장은 백색 양말에 구두는 흑색 단화, 백색 장갑을 착용하였다. 춘·추예복의 제식은 상의는 동예복 상의를, 하의는 하예복 하의를 착용하고, 양말·구두·장갑은 하예복 착용시와 같은 색상을 사용하였다.

군악대 복장의 하나인 약식예복은 별도의 제식이 없이 사병 정복에 백색 각반과 군악밴드를 착용하였다. 특히 동예복 위에는 흑색 사지 또는 모직으로 된 케이프(cape : 소매없이 어깨와 팔을 덮는 겉옷)를 착용하였는데, 이 케이프 안쪽은 적색 인조견으로 하였으며, 깃을 나비깃으로 하여 훅으로써 걸어 잠그게 하였다. 길이는 반코트형의 길이였다.

이후 1956년 8월 2일, 해군 자체 복제위원회에서 예복의 제식을 보완하여 하예복 하의의 측면에 폭 1㎝의 흑색선 2줄을 1㎝ 간격을 두고 부착하였다. 그러나 동년 9월 28일, 이 측면선을 통일하여 동예복 하의와 하예복 하의에 폭 3㎝의 적색선 1줄로 통일하였다. 그후 1962년 이후부터 현재, 군악대의 복장은 상기의 제식을 전부 폐지하고, 동·하정복에 A형 사병 정모를 착용하고, 군악 예식밴드만을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동절기 행사시 보온을 위하여 의장대 제식의 외투를 착용하였다.



동 복



하 복

〈해군 군악대 복장(1946년~1961년)〉



동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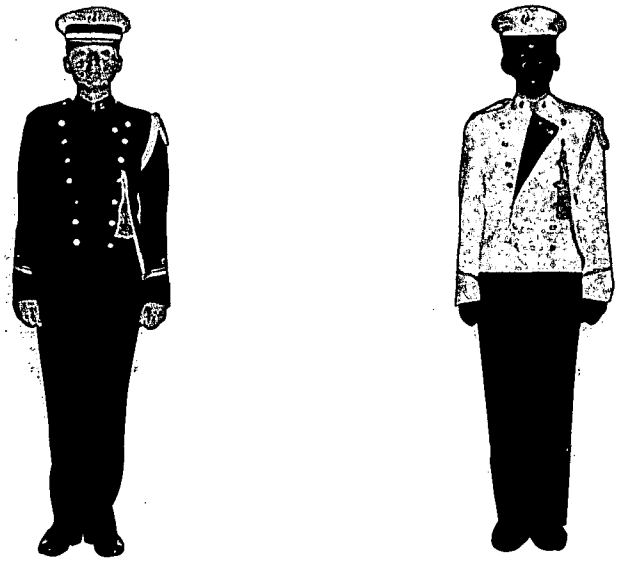
하 복

〈해군 군악대 복장(1962년~현재)〉

(2) 해 병

해병 군악대 및 고적대의 복장 제식은 해군의 〈군복제령〉이 제정된 1952년도에 같이 제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당시의 복식이 크게 변화되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창기 동복의 상의는 흑곤색 모직 재질을 사용하였으며, 깃은 세운 깃으로 하여, 양쪽에 은색의 군악 병과휘장을 부착하였다. 깃 안쪽에는 백색의 칼라를 달았으며, 어깨부분에는 폭 3㎜의 붉은 치레선을 넣었다. 가슴부분에는 삼각형을 벌린 형태의 홍색 깃을 왼쪽가슴에 오도록 부착하였다.

동복의 하의는 진청색 모직을 사용하여 바지 측면에 폭 40㎜의 붉은 치레선을 외줄로 부착하도록 하였고, 정복형태의 일반형 바지로 만들었다. 하복의 상의는 백색 모직 또는 면직을 사용하여 동복의 상의와 거의 같은 제식으로 하였으나, 어깨 견장대 위치의 치레선을 금색으로 하는 점이 달랐다. 하복의 하의는 진청색 모직으로, 동복의 하의와 같은 제식을 사용하였다. 초창기 군악대의 모자는 사병의 정모형태의 모자에 동·하절기 공히 백색 모직커버를 사용하였으며, 모표는 바탕없는 백색의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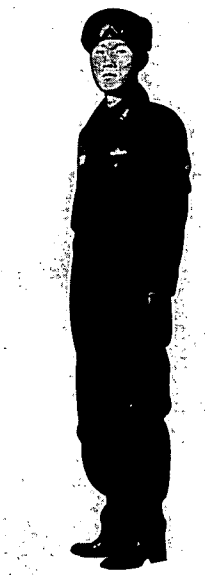
동 복　　하 복

〈해병 군악대 복장(1953년～현재)〉

병마크가 부착된 모태를 동·하절기 공히 부착하였다. 이후 변형된 현재의 군악대 복장은, 재질을 모직 또는 혼방으로 사용하여, 동절기는 상·하 흑색으로, 하절기는 상의 백색, 하의 흑색으로 바꾸고, 좌측 어깨와 겨드랑이 상단 부분에 금색 수실과 수술을 부착하도록 하여 착용하고 있다.

바. 高速艇 服裝

고속정 승무원을 위한 복식을 고려하기 시작한 시기는 최초로 고속정이 해군에 도입된 직후부터이다. 당시 고려사항으로서는, 고속정의 성능과 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모자는 바람에 날리지 않으면서 협소한 장소에서 장애가 되지 않아야 했으며, 동·하절기 공히 안면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어떤 조건하에서도 시야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형태를 취해야 했고, 승무원들의 특수한 복장은 보호색이 되어야 하고, 간편하면서 방수처리가 되어야 하며, 필요시 동기(冬期)에도 수중에서 신체보온용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점 등이 검토되었다.



〈고속정복
(1975년 7월~현재)〉

1975년 3월 20일(해본 인근 제244-1246호), 상기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해군 복제위원회에서 제정한 최초의 고속정 복장 제식은, 곤색 화학섬유 또는 혼방을 이용하여 비행복과 유사한 형태의 복장으로 내피는 겨울용 캐시밀론 분홍색을 사용하고, 여름에는 내피를 제거하였다. 왼쪽가슴에는 고속정 휘장을 달고, 오른쪽 가슴에는 명찰을 부착하도록 했으며, 사선형 주머니를 달고, 지퍼로 잠그도록 하였다. 앞면은 숨은 훅 단추 5개와 동시에 숨은 지퍼를 달았으며, 소매부분은 훅 단추 4개를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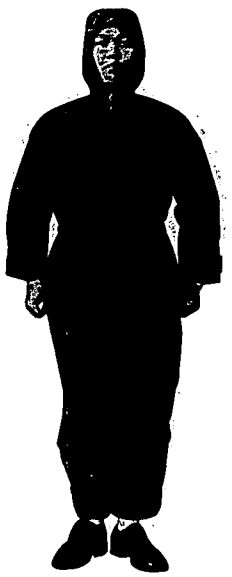
바지부분의 주머니는 측면에 일자 호주머니, 바로 앞쪽으로는 사선형 호주머니를 좌·우에 부착하고, 바지 아래는 지퍼로써 크기를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양쪽 나비형 깃에는 계급장을 장교들만 부착하고 사병은 앞 좌측부분에 계급장을 달도록 하였다. 군화는 끈구멍이 3개인 흑색 반(半)단화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특수모는 곤색 인조피를 사용하여 방한모형으로 만들고, 귀부분에 귓구멍 3개를 뚫

어 청취가 가능하도록 하고, 안경은 셀룰로이드 교환식 안경으로 고무끈을 조절대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하였다.

사. 潛水艦服 및 深海 潛水士服

잠수함 승조원을 위한 복제와 동절기 심해 잠수 해난구조원의 복제는 1991년 3월부터 동년 5월까지, 해군 자체의 심의를 거쳐 제식을 정하였다. 잠수함(정)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적합한 복장을 제정하기 위해서 당시 임시로 착용하고 있던 고속정 복장의 단점인 통기·보온·신축성 등을 해소하고 협소한 잠수함(정)내의 근무·훈련·작업·정비 및 취침에 적합한 복장을 심의하게 되었다.



〈심해 잠수사 보온복 (1991년 5월~현재)〉

색상은 네이비 블루(Navy Blue)로 상·하의를 일체식(一體式)으로 하여, 앞면 양쪽 가슴에 플라스틱 지퍼를 부착하고, 허리부분은 밴드식으로 조이도록 하였다. 허리밴드의 앞부분은 접착포로 크기를 조정하도록 하고, 바지부분의 앞면 양쪽 주머니는 지퍼를 단 속붙임식 주머니 형태로 만들었다. 좌측 가슴부분에는 잠수함 휘장을, 우측 가슴부분에는 명찰을 달도록 하고, 장교는 칼라부분에 계급장을, 사병은 좌측 중앙부분에 계급장을 달도록 하였다. 심해 잠수사복은 동계시 심해 잠수 해난구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복식으로, 잠수사의 체온을 보호하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며, 작전중 해난시의 방수 및 부력유지로 익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외피는 방수성 천을, 내피는 방수성 스폰지를 사용하였고, 외피는 오렌지색, 내피는 청색으로 하였다. 모자부분은 조임용 끈으로 머리와 얼굴을 보호하도록 하고, 좌측 어깨부분에 겉붙임주머니를 대고, 양쪽 소매부분과 허리부분은 조임용 접착포를 이용하여 그 크기를 조여서 조절하도록 하였다. 상의 부분의 앞면은 숨은 지퍼로 닫게 하였으며, 하의 발목부분도 조임용 접착포를 이용하여 크기를 조정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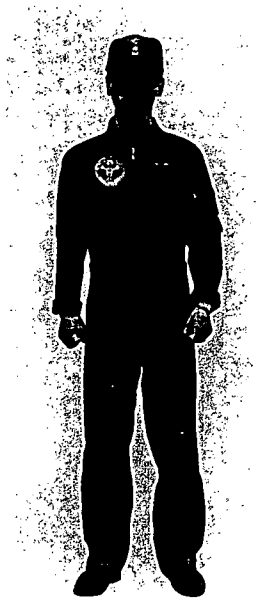
아. 飛行服·整備服·操縱士 점퍼

해군에서 비행복을 착용하기 시작한 때는, 1969년 7월 8일(해본작기 제04110-1050 : '69. 7.8) HELO 운용 준비지시 및 조림계획에 의거, HELO 운용에 대비하여 양성된 조종사 4명과 정비사 13명으로 편성된 1967년 및 1968년대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비행복에 대한 복식이 제정된 내용은 해군 자체의 복식으로 규정화하지 못하고 있다가, 1971년 11월 29일 〈해본 인근 제1020-3663호〉에 의거 해군의 특수복제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를 규정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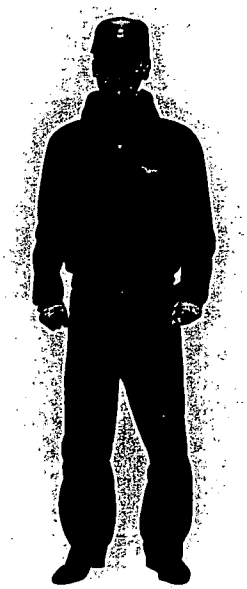
당시의 복제 제식은 비행복 상·하의를 일체식으로 하여, 재질은 겨울에는 녹회색 모직으로, 여름에는 녹회색 또는 주황색 혼방으로 하였다. 상의부분의 좌측가슴에는 명찰을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가슴부분 바로 아래에는 양쪽으로 지퍼로 된 절개식 주머니를 달았고, 허리부분은 밴드식으로 하였다. 좌측 어깨부분에는 일자형 지퍼로 된 절개식 주머니를 달았고, 소매부분은 자바라식으로 하였다. 밴드 아래부분에는 일자형 지퍼로 된 절개식 주머니를 양쪽에, 무릎부분 우측은 수평형 지퍼로 된 주머니를, 좌측은 수직형 지퍼로 된 주머니를 달고, 그 아래부분에는 좌·우에 수평형 지퍼로 된 주머니를 달았으며, 바지 아래부분은 좌·우에 치수에 따라 조일 수 있는 지퍼식 절개부분의 모형을 취하였다.

당시의 조종사용 모자는 당시 해상 전투모와 같은 재질과 제식을 사용하고, 턱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무줄을 차양 위에 추가하였으며, 계급장 위에 항공흉장을 자수하였다. 조종사가 조종임무를 수행시 비행복 위에 입었던 조종점퍼는 그 재질을 짙은 고동색 가죽을 사용하였으며, 목부분을 모피 라이너(liner)로 보호하게 하였다. 왼쪽 가슴에는 명찰을 달고, 왼편 안에는 안주머니를 세로로 달았으며, 금속제 단추로 채우게 하고, 좌·우 소매 밑의 계급장에는 공기구멍을 각 3개씩 내었다. 소매와 허리부분이 자바라식으로 고정시킨 형태를 A형 조종점퍼라고 하고, B형 조종점퍼는 재질을 회색 합섬으로 하고, 안감을 오렌지색 화섬으로 하였으며, 속감은 모피를 사용하였다. B형 점퍼는 칼라와 소매부분을 자바라식으로 A형과 동일하게 하였으나 목부분을 A형과 달리 자바라 형식으로 보호하였다.

항공기의 정비를 위한 정비복은 비행복과 동일한 형태의 일체식으로, 재질을 국방색 또는 청색의 모직 또는 혼방을 사용하였고, 좌측 가슴부분에 명찰을 달도록 하고, 양 흉부 위에 단추식 주머니를 부착하였으며, 바지부분에 무릎 바로 위 양쪽으로



점퍼 탈의



점퍼 착용

〈비행복 동복(1975년～1989년)〉



점퍼 탈의



점퍼 착용

〈비행복 하복(1975년～1989년)〉



함정 정비복



항공 정비복

〈정비복(1975년~현재)〉

역시 단추주머니를 부착하였다. 소매는 자바라 조임식으로 조였으며, 허리밴드로 허리부분을 조이도록 하였다. 이 정비복은 현재도 똑같은 제식으로, 함정 정비복은 청색, LVT정비복은 국방색, 항공 정비복은 국방색 내지 청색으로 색상만 달리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후 1975년에는 비행복의 색상을 흑곤색과 녹색으로 개정하였으나, 오래지 않아 이를 다시 원래의 녹회색과 주황색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이 비행복은 비행 목적 외로 기갑요원과 특전요원들의 동절기 훈련을 위한 방한 복장으로도 사용되는데 제식은 모두 같으나, 색상이 기갑요원과 특전요원들의 경우 위장 무늬로 된 점이 다르다.

자. 特 戰 服

특전복은 해군 특수부대 임무수행에 따른 복장으로, 임무수행에 적합한 제식의 복장을 갖추어야 하나, 1955년 U.D.T.부대가 창설된 이후에도 복장 제식이 제정되지

않아 해상 전투복(국방색)을 근무복과 훈련복으로 겸해서 착용하여 왔다. 결국 이 복장이 부대 임무수행상 적절하지 못하다는 결정으로 1975년 1월 14일, 함대사령부의 〈함인인 제224－68호〉에 의거, 〈특수요원 복제규정안〉을 상신하였다.

상신했던 당시 복제안은 제1·2전투복으로 구분되어, 제1전투복은 연한 청록색 면직 또는 혼방을 재질로 하여 상의의 양 어깨부분에 견장대를 부착하고, 국방색 뿔단추로 잠그도록 하였다. 칼라는 일반 와이셔츠형 칼라로 하고, 양 가슴부분에 겉붙임 주머니를 달았으며 역시 국방색 뿔단추로 이를 잠그도록 하였다. 상의 전면은 4개의 국방색 뿔단추로 오른쪽으로 여미도록 하고, 허리부분은 허리 조임끈을 넣어 조이도록 하였으며, 상의의 좌측 하단에만 안붙임 비상주머니를 달도록 했다. 상의 우측주머니 상단에는 명찰을, 좌측주머니 상단에는 U.D.T. 흉장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하의는 상의와 같은 재질과 색상으로, 양측면에 사선형 속붙임주머니를 부착하였으며, 겉붙임 뒷주머니를 양쪽에 달았고, 일반형 바지형태로 만들었다. 모자는 국방색 면직 또는 혼방의 팔각모를 착용하고 U.D.T. 모표를 부착하였으며, 신발은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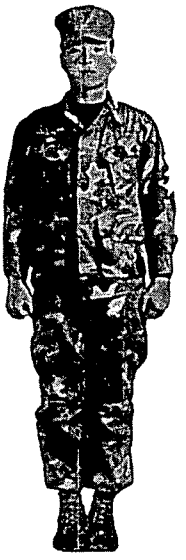


1955년～1974년

제1전투복



1975년～1981년



1975년～1982년

제2전투복

〈특 전 복〉



〈전투복(1989년~현재)〉



1975년~1987년



현 재
〈야전 점퍼〉

형 워커를 착용하였다.

제2전투복은 훈련 및 전투시의 위장복으로, 육군의 특수부대인 공수 및 수색대가 특수복을 10여 년 전부터 착용하여 위장 효과에 탁월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해상작전 임무수행에 적합한 복장의 제식이 요구된 실정을 감안한 복제였다. 그 제식은 얼룩무늬로 된 면직 또는 혼방을 재질로 하였고, 상의는 제1전투복의 제식과 비슷하였으나, 가슴부분의 주머니 단추가 2개였으며 하단 부분의 주머니도 양쪽에 부착하여, 2개의 단추로 잠그도록 하였다. 이 단추들은 수중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숨은 단추로 하였다. 하의도 제1전투복의 하의와 거의 같은 제식이었으나, 좌우 측면에 주머니를 달아 두 개의 숨은 단추로 이를 잠그도록 하였으며, 특히 하의의 맨 끝부분은 발목을 조이는 끈을 넣었다.

상의의 명찰과 기타 부착물은 제1전투복과 달리 일절 부착하지 않았으며, 모자는 얼룩무늬로 된 면직 또는 혼방의 팔각모를 착용하고, 군화는 워커형의 정글화를 착용하였다. 동계작전을 위하여 야전점퍼를 신규로 제정한바, 이는 당시의 야전점퍼와

같은 색상 및 재질을 채택하였다. 이후 1982년 9월 23일, 제2전단 사령부 〈해병행 제373-682호〉에 의거, 특수공작대의 부대 개편에 따라 복장 제식 일부가 개정되어 그 종류를 근무복과 전투복으로 구분하고, 근무복은 얼루무늬 위장복, 장군화, 베레모에 각종 마크를 부착하여 평상시 근무시나 여행 및 휴가중에 착용하도록 하고, 전투복은 얼룩무늬 위장복, 위장모, 장군화에 각종 마크를 부착하지 않았으며, 전투시, 교육, 훈련, 기타 출동시에 착용하도록 하였다.

1988년 4월에 특전요원의 복제를 재검토하여, 상의부분의 가슴부분 주머니를 20° 경사진 겉붙임주머니로 개조하고, 상의의 모든 주머니와 하의의 측면주머니는 밑에 2개의 물 배출구 구멍을 뚫어 주머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개조하였으며, 야전 점퍼의 제식도 일부 개선하여 모자를 착·탈식으로 개조하고, 평상시의 깃의 상태는 세운 깃으로 하였다. 또한 혹한시의 잠수작전 및 수영 후의 체온 보온과 산악 훈련시 착용하도록 비행복 제식의 복장에 혼방 털내피와 착·탈식 모자를 착용하도록 한 위장색 특전 방한복을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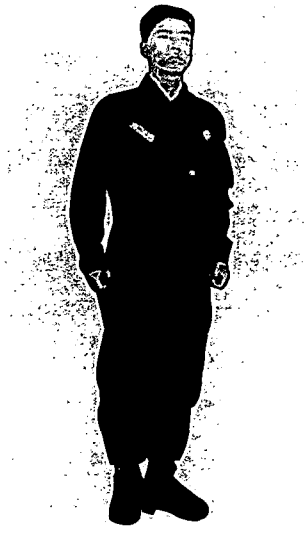
차. 機 甲 服

기갑복은 해병 기갑장병들의 전투복장으로, 전차 및 LVT부대 근무요원들이 착용하는 복장이다. 창군 초기의 기갑복은 별도의 제식이 없이 해병 장병의 전투복에다 장비운용에 필요한 부수장비를 착용하고 근무하였으나, 1980년 7월 29일, 해병 제1사단(인근 제244-4863호)에서, 〈해군 규정 2-14 제20조(특수제복 착용)〉에 의거 기갑장병들을 위한 복제 제정을 건의하였다. 즉 당시의 일반 전투복이 상·하의가 분리되어 기갑장병들처럼 좁은 공간에서 활동시에 흐트러지기 쉬우며, 또한 일반 전투복이 품위와 외모에 어느 정도 역점을 둔 복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하여 중장비 취급요원이 이 복장을 그대로 착용할 경우 활동에 제한을 주게 되며, 혁대·혁대고리·단추 등의 부착물이 협소한 공간에서 활동시 제한을 줄 뿐만 아니라, 긴급상황시 착·탈의가 불편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기갑장비와 조화되지 않은 색상인 관계로 위장면에서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그 시정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건의된 새로운 복제는 해병 위장복을 재질로 하여, 상·하 붙임식으로 앞면을 2중 지퍼로 하고, 착·탈의가 신속하고 견고성을 유지하도록 한 반면, 어깨 주머니를 겹봉제로 하였으며, 정비 및 기타작업시 유실물의 방지를 꾀하면서 작업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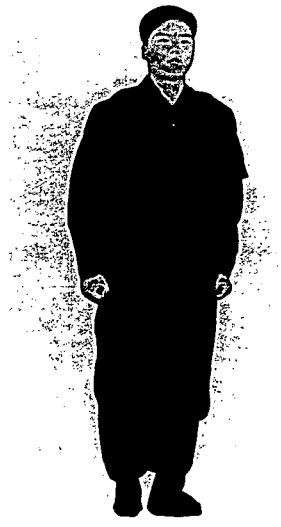


1953년～1980년



1981년～현재

〈기갑복〉



1989년 11월～현재

〈기갑 점퍼〉

건에 따라 융통성을 갖도록 소매 조임을 지퍼식으로, 벨트는 복제 원단으로 대붙임을 하였다. 또한 신체조건에 따른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후골붙임은 단추로, 히프조임은 지퍼로 하였으며, 하의는 안 호주머니를 달고, 뒷주머니는 겹봉제로 부착하도록 하여 활동에 용이성을 부여하였다. 이후 이 복제는 1983년 10월 10일, 〈해본인근 제236－12326호〉에 의거 국방부에 건의 및 승인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기갑장병을 위한 점퍼는 해병 위장복으로 춘·추점퍼의 제식에 맞춰서 복제화하여 1989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착용하고 있다.

카. 病 院 服

(1) 간호의

해군 간호장교들의 제식은 해군 창설 이후 오늘날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초창기 간호의(看護衣) 제식은 상·하의 모두 백색 포플린을 재질로, 보통형

원피스형으로 만들었으며, 칼라부분은 벌린 깃으로 하여 금장을 달도록 하였다. 앞부분은 백색 뿔단추를 허리띠 상·하에 각 3개씩을 달았으며, 소매 길이는 손목 관절로부터 1.5cm 위로 하고, 소매 끝부분은 와이셔츠형 커프스에 백색 단추 1개를 달고, 허리에 폭 3cm의 통띠를 하고, 앞은 혹으로 잠그게 하였다. 주머니는 흉부 좌측과 허리띠 하부 양측에 바깥쪽으로 달도록 하였다.

통상 스타킹은 백색 또는 살색 스타킹을 착용하고, 구두는 보통형 백색 힐구두를 착용하였다. 하복은 원피스형 반소매로 하거나, 일반 바지형에 반소매 상의를 착용할 수도 있었는데, 이때 상의는 앞에 3개의 백색 단추로 여미도록 하고, 기타 제식은 원피스형 상의 제식과 같았다. 동절기는 원피스형 긴소매 복장에 검은색 스웨터를 착용함으로써 동복으로 대용하였고, 원피스형 제식은 춘·추복으로 사용하였다. 현재의 간호의는 좌측 흉부의 주머니와 허리띠 하부 양측의 주머니를 없애고, 재질을 백색의 면직 또는 혼방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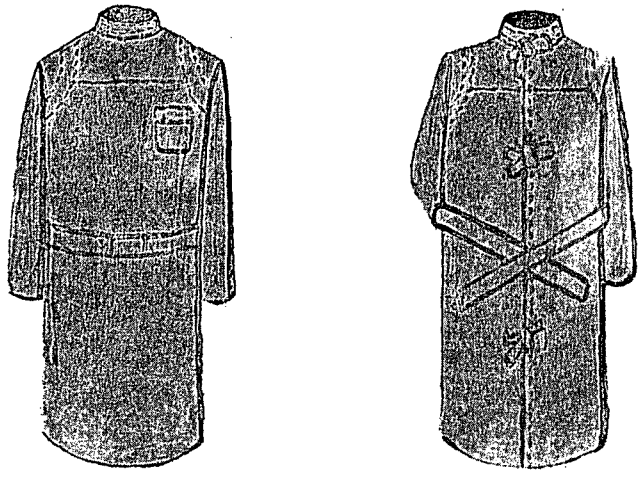


동 복　　춘추복　　하 복

〈간호의(1953년~현재)〉

(2) 수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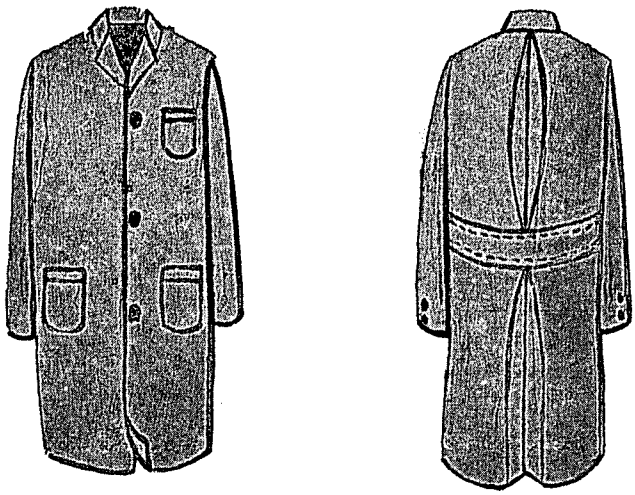
수술의는 군의관 및 수술요원이 수술시 착용하는 복장으로, 창군 초기부터 제정된 복식이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다. 최초의 복식은 재질을 백색 옥양목으로 하여 깃은 세운 깃으로 하고, 등을 트고, 등 깃에 끈을 달아 매게 하였다. 앞가슴 왼쪽에는 뚜껑이 없는 주머니를 달고, 등 바대와 앞 바대를 두겹으로 주름을 잡고, 허리띠는 통띠로 하여 띠 절반을 앞쪽에 대되, 뒤쪽으로는 교차되게 대고서 뒷부분은 띠끈으로 매게 하였다. 현재의 재질은 백색의 면직 또는 혼방을 사용하고 있다.



〈수술의(1953년~현재)〉

(3) 진찰의

진찰의는 군의관이 진료시 착용했던 복장으로, 창군 초기부터 현재까지 제식에 큰 변동이 없다. 초기의 진찰의 제식은 재질을 백색 옥양목으로 하여, 깃을 팔(八)자 깃으로 하고, 앞면은 백색 대형 뿔단추 3개를 달아 오른쪽으로 여미도록 하였다. 소맷부리는 폭 1″로 접어 박고, 저고리 자락의 끝부분인 도련부분에는 1½″로 접어서 박았다. 앞 왼쪽 가슴과 복부 좌우에 뚜껑이 없는 주머니를 달았으며, 등뒤에 주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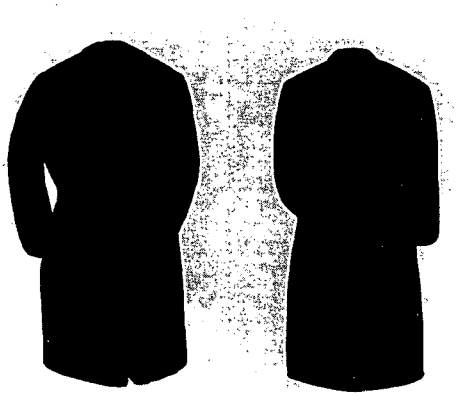
〈진찰의(1953년~현재)〉

잡고, 뒷 허리에 폭 4"로 된 반띠를 매었다. 현재의 재질은, 백색의 면직 또는 혼방을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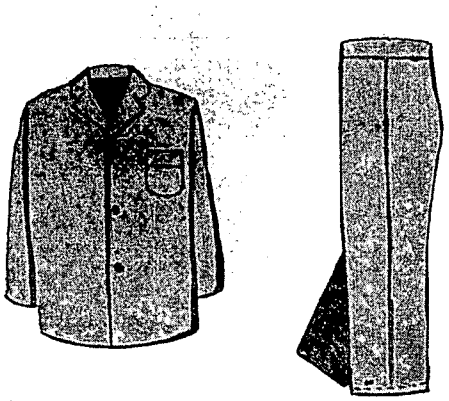
(4) 환자의 및 환자내의

입원중인 환자가 착용하는 환자의 및 환자내의도 창군 초기부터 현재까지 복식 변동이 거의 없이 사용되어 왔다. 최초 환자의의 제식은, 다색과 청색의 순모 골덴지를 재질로 하여 2종으로 구분하였으며, 다색은 장교용, 청색은 사병용으로 착용하였다. 환자의의 모형은 오버코트와 같은 형으로, 깃을 반월형으로 하고, 앞부분은 뿔단추 3개를 달았고, 허리띠를 통띠로 하였으며, 버클 없이 잡아 매게하였다. 좌·우 양 복부에 뚜껑없는 주머니를 달았으며, 왼쪽 가슴에 해군이라는 표지를 붙였다.

현재의 환자의는 그 재질을 다색 순모 골덴지로 장병이 공통 사용하고 있다. 환자내의는 그 재질을 백색 개버딘으로 하여, 상의의 제식은 와이셔츠형으로 하고, 소매는 통소매로 하였다. 칼라부분의 깃은 둘레 깃으로 하고, 앞에는 외줄 5개의 단추를 달았다. 하의는 보통바지와 같은 형으로 하고, 폭 3㎝의 허리띠를 매게 하였으며, 현재의 환자의 상의는 재질을 백색 면직 또는 혼방으로 하고, 제식에서 앞줄의 단추를 3개로 줄이고, 좌측 가슴에 뚜껑없는 주머니를 달게 하였다.



가 운



내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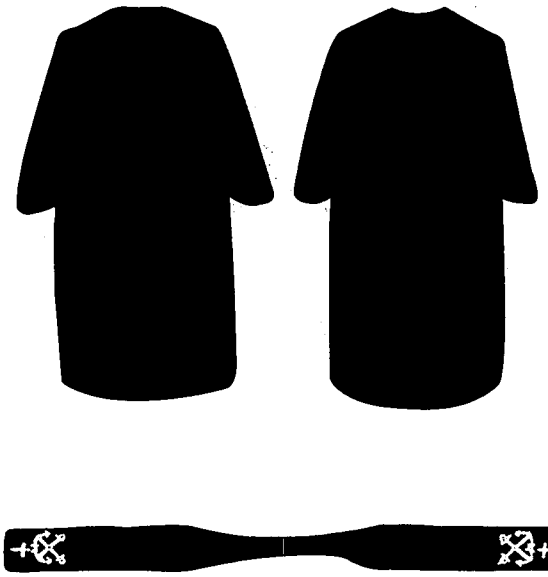
〈환자의(1953년~현재)〉

타. 軍 宗 服

○ 가 운

해군의 군종목사가 예식을 집행할 때 착용하던 군목 가운은 1952년의 〈해군복제령〉이 제정되는 시기에는 그 기록이 없으나, 1958년 11월 28일에 〈해군복제규정〉을 작성한 서류철(문서부호 행2)에는 군목 가운에 대한 제식이 간단하나마 제정되었다. 당시 군목 제식은 "흑색의 깃 없는 가운 형식으로, 앞부분에는 단추구멍을 뚫지 않고 맨 위쪽 한 곳에 흑색 단추 1개를 달고 스냅단추 4개를 달았으며, 소매를 달되 안감 헝겊 ½"에 치레선을 달고, 소맷부리에는 폭 5㎜의 치레선을 친다"라고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당시 군종장교에 대한 복식은 각 종단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군 자체에서 규제한 것은 아니었다.

군에서 군종장교에 대한 복식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1968년, 국방부에서 군승(軍僧)제도 연구에 따라 승려복을 채택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하여 군종장교들의 제복에 대한 제식이 결정되었다. 이후 1978년에는 이중 일부를 개정하여 종교의식 때만 착용하던 군종 신부의 로만 칼라(Roman collar : 가톨릭 司祭가 착용하는 검은 옷에



〈군목 가운과 영대(1958년～1969년)〉



앞 뒤 동 복 하 복

1970년～1977년 1978년～현재

〈군목 가운〉



동 복



하 복

〈군종 신부 수단(1978년~현재)〉



〈군승 가운(1978년~현재)〉

달린 백색 칼라)를 평상시에도 착용하도록 하여 군목(軍牧)과 군종 신부를 구분하였다. 위와 같은 배경을 지닌 해군의 군종장교에 대한 규정화된 복식은 1958년 이후 1970년에 이르러서야 〈해본 인제 교시책 제1020.1호(1970년 1월 14일)〉에 규정화되어 있다.

"군종과 장교는 필요시 해군 제복 위에 군목 가운을 착용하도록 하고, 예·의식 집행 시 영대를 착용할 수 있다."

이 당시의 제식은 흑색 모직 또는 혼방으로 가운을 만들며, 영대는 흑색 또는 백색의 혼방으로 양끝에 십자가를 새기고, 십자가 바로 위에는 금색 자수한 해군표지를 수놓았다. 1971년 11월 29일의 〈해본 인근 제1020-3663호〉에 의거한 해군의 특수복제 승인을 요청한 문서에 규정화된 군종장교의 제식은 군목 가운과 군승 가운 제식을 구분 규정화하여, 1972년 6월에 공식화되었다. 당시의 제식에서 군목 가운은 종전과 동일하였으나, 영대는 재질을 혼방으로 하여 백색·홍색·흑색·녹색·보라·자색으로 구분하였으며, 양쪽에 십자가 및 해군표지를 금색으로 자수하고, 끝에는 재질색으로 수실

을 하였다. 군승 가운은 흑색의 모직 또는 혼방으로 만들었으며, 가사는 밤색 혼방으로 양쪽에 군승표지 및 해군표지를 금색으로 자수하고 끝은 밤색으로 자수하였다.

이후 1978년 군목과 군종 신부의 구분을 위하여, 종전의 군목 가운은 목사가 착용하도록 하고, 군종 신부는 수단으로 예·의식을 집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복식을 제정하였다. 신부의 복식은 모직 또는 혼방으로 만들고, 동계는 흑색, 하계는 백색으로 하여 칼라를 세운 깃으로 하고, 앞면의 단추는 복지색으로 15개를 달았다. 단, 영대는 군목 영대와 동일하게 만들었다. 이어 군목 가운도 동·하계를 흑색과 백색으로 구분하였으며, 군승 법의도 동·하계의 색상을 흑색과 백색으로 구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軍　　靴

가. 高速艇 短靴

고속정 단화는 고속정 승무원들의 안전과 해상전투의 극대화를 위하여 고속정 특수복이 제정된 1975년 2월 7일에 해군에서 제정한 복식의 일부로서 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흑색가죽으로 반(半) 단화형으로 제작되었고, 끈 구멍은 좌·우 5개씩 10개로 되어 있다.



〈고속정 단화(1975년~현재)〉

나. 操縱士 短靴(飛行靴)

조종사 단화는 항공장교의 복제가 제정된 시기에 그 제식이 결정되었다. 1971년 11월 29일, 〈해본 인근 제1020-3663호〉의 특수복제 규정에 명시된 비행화는 흑색 가죽으로 만든 워커형의 신발로서, 신코 부분이 둥글었으며, 속은 부드러운 가죽으로 하고, 내측에 세로로 지퍼를 달아 쉽게 신을 수 있게 하였다. 그후 1978년 〈해규 제141호〉에 의거, 비행화는 제식이 변경되어 흑색 가죽의 단화형이 되었으며, 목이 발목에 닿게 하고, 속은 부드럽고 가벼운 가죽으로 제작되었다. 현재 착용하는 비행화는 단화형으로, 목이 장딴지에 닿고, 기타 제식은 종전과 같다.



1971년~1977년　　1978년~1987년　　1988년~현재

〈비 행 화〉

4. 標 識 章

가. 特殊 階級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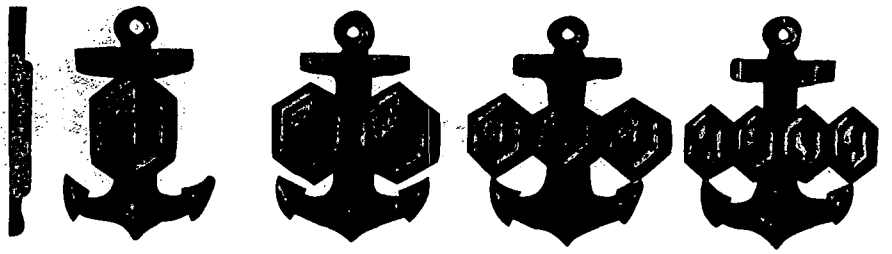
(1) 사관생도

○ 급생(級生 : 학년) 표시 : 금장(襟章)

1946년 1월 17일에 해군병학교가 창설된 이후 생도들의 학년을 표시하고 일부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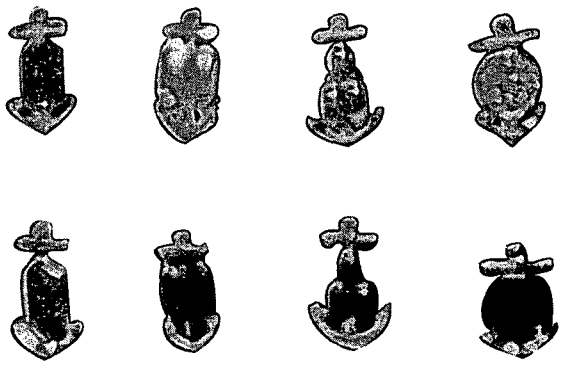
부들의 계급을 표시하고자 특수 계급장에 대한 제식이 1952년 11월 29일, 〈해본 제2444호〉에 의거 규정되었다. 당시 생도들의 학년을 표시한 급생 계급장은 놋쇠에 금색과 은색으로 도금하여 부각면을 명확하게 만들고, 금색 도금한 닻과 은색 도금한 육각형의 벤젠(benzene)으로 표지하였다. 닻의 규격은 전장이 25㎜이고 묘축(錨軸) 중앙에 벤젠형태를 넣었으며, 벤젠의 수로써 학년을 나타내었다.

이후 1956년 3월 16일, 이를 일부 개정하여, 닻의 규격을 전장 20㎜로 축소하고, 1급생(4학년)은 벤젠 4개를 능형(菱形)으로 조립하고 주위에 원형(圓形) 모형을 넣었으며, 2급생(3학년)은 벤젠 3개를 삼각형으로 조립하였고, 현재까지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



4급생 3급생 2급생 1급생

1952년~1956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956년~현재

〈금생 표시 금장〉

다. 또한 호칭문제에 있어 1급생을 4학년으로, 2급생은 3학년, 3급생은 2학년, 4급생은 1학년으로 바꿔서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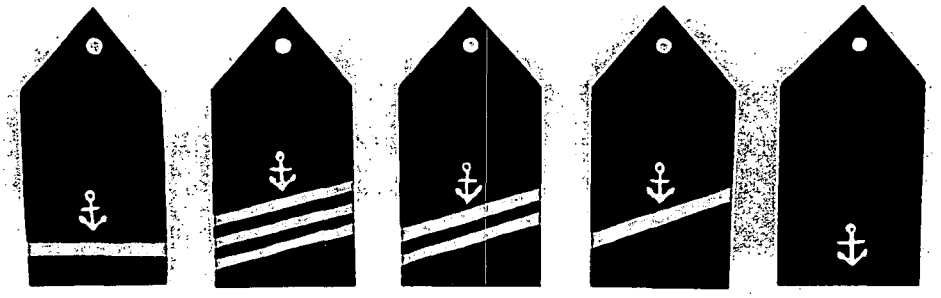
○ 급생 표시 : 견장(肩章)

초기의 생도 견장대의 급생 표시는 1급생의 경우 견장 하단으로부터 10㎝ 위로 폭 6㎜의 금색 줄을 수평으로 외줄로 표시하였으며, 금줄로부터 1㎝ 위에 해군 앵커를 백색으로 수놓았다. 2급생은 사선으로 폭 6㎜의 금색 줄을 4㎜의 간격으로 3줄을 넣었고 맨 위 금줄 중앙부분에서 위로 1㎝ 위에 해군 앵커를 수놓았으며, 3급생은 사선 금줄을 2개, 4급생은 사선 금줄 1개를 넣었다. 신입생은 5급생이라 칭하고 해군 앵커만을 견장에 수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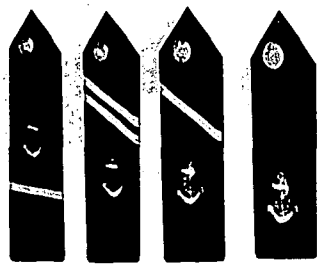
이후 1956년 3월 16일, 이를 일부 개정하여 견장의 급생 표시는 총 길이를 11㎝로 하고, 5㎝ 간격을 둔 평행선과 한쪽은 평행선을 2㎝ 연장하여 이등변삼각형을 만들고, 다른 한쪽은 5각형 바탕에 흑색 멜턴지로 덮고, 견고하게 만들었다. 이등변삼각형의 일변 중점되는 곳에 장교모 귀단추 1개를 부착하였으며, 닻 모양과 ⅛″ 금줄로 급생 표시를 하였다.

1급생은 직교선에서 1㎝ 떨어지고 평행된 금줄 1개를 붙이고 그 위에 1㎝ 떨어진 견장 중앙부에 닻 모양의 아래 끝이 오게 하고 닻의 형태는 바로 세워 놓았다. 2급생은 직교선에서 1㎝ 떨어진 견장 중앙부에 닻 모양을 바로 세워 놓고 금줄은 5㎜ 간격으로 2개를 그리되 직각점에서 앞쪽 행선을 따라 45㎜ 되는 곳에 금줄의 첫 끝이 오게 하여 견장의 뒤 안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며, 그 각도는 평행선과 60°가 되게 하였다. 3급생은 2급생 견장에서 금줄 1개를 제거하였으며, 4급생은 금줄이 없는 닻 모양을 직교선에서 35㎜ 떨어진 곳의 견장 중앙부에 닻 모양의 끝이 오게 하고 닻 모양은 평행선을 따라 바로 세워 놓았다. 이후 1967년 5월 17일 〈해본 인사 운영 제1020호〉에 의거 이를 다시 개정하여, 4학년은 견장하부에서 10㎜ 위로 3㎜의 금줄을 4개 그리고, 중간 간격도 5㎜로 하였으며 다시 4번째 금줄에서 10㎜ 위에 금색으로 된 지름 30㎜의 닻을 위치시켰으며, 3학년은 3줄, 2학년은 2줄, 1학년은 1줄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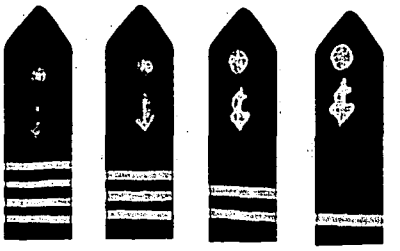
이후 1970년 〈해본 인제 교시책 제1020-1가(1970년 1월 4일)〉에 의거, 크기를 일부 조정하였다. 금줄의 굵기는 3㎜에서 6㎜로, 금줄간의 간격은 5㎜에서 6㎜로 조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재질은 알루미늄판에 흑색 멜로폰지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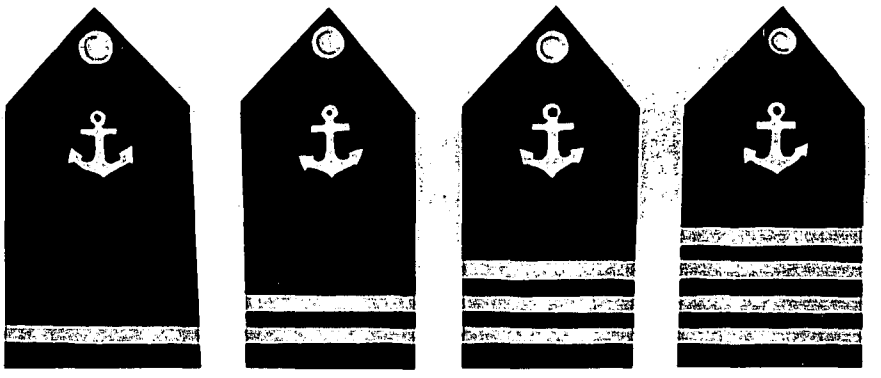
1952년 ~ 1956년



1957년 ~ 1966년



1967년 ~ 1969년



1970년 ~ 현재

〈금생 표시 견장〉

○ 급생 표시 : 수장(袖章)

수장은 예식복 및 동정복의 양 소매에 부착하는 급생의 표시이다. 1952년의 최초 〈해군복제령〉에 생도들의 급생을 표시하는 수장에 관한 규정이 있다. 당시 1급생 수장의 제식은 소매끝 10㎝ 위에 폭 6㎜의 금색 줄을 부착하고 그 위에 앵커를 넣은 후 60°의 경사를 유지하여 10㎜의 금색 줄을 세개 붙이고 줄간의 간격은 4㎜로 하였다. 4급생은 1줄의 금줄을 붙였으며, 신입생인 5급생의 경우 앵커만을 부착하였다.

이후 1956년 3월 16일에 일부 개정하여, 수장의 종류를 급생 표시 수장과 생도 지휘 간부들의 수장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였다. 급생을 표시하는 수장은 직경 1⅛″의 흑색 바탕에 금실로 수놓은 단순한 닻 1개와 3㎜ 폭의 금줄로 표시되었는데, 닻은 소매끝에서 8㎝ 중앙 외측부에 부착했다. 1급생은 금줄 1개를 소매끝에서 5㎝ 되는 곳에 수평으로 두르고 닻은 금줄 위에 위치시켰다. 2급생은 금줄 2개를 소매의 앞 봉합선과 뒷 봉합선간의 소매 외측에 부착하되 60° 경사진 사선형으로 하였으며, 앞 끝은 소매끝에서 4½″, 뒤 끝은 소매끝에서 11″ 되게 하였으며, 금줄 간격은 ¼″로 하고, 닻이 금줄 아래에 위치하게 하였다. 3급생은 2급생 표시에서 맨 위 금줄 1개를 제거한 것과 같았으며, 4급생은 금줄이 없고 닻 모양만을 부착하였다. 지휘 근무에 따른 수장의 계급표시로는 생도 대대장(소령급)은 소매끝에서 2″ 떨어진 곳에서부터 폭 ⅛″인 금줄 4개를 수평으로 부착하되 그 간격은 ¼″로 하였다. 또 맨 위 금줄 위로 ¾″ 되는 소매의 외측 중앙에는 장교 병과표지인 별을 같은 요령으로 부착했다.

생도 부대대장과 생도 중대장은 대위급으로 금줄 3개로 표시하였으며, 생도대대각 참모는 중위급으로 금줄 2개, 생도 소대장은 소위급으로 금줄 1개로써 표시하였다. 또 생도대대 병조장은 상사로써 금실로 수놓은 닻 모양과 묘간 위에 앉아 있는 날개를 편 모습의 독수리가 있고, 폭 ⅛″ 금줄로 사병 병조장(상사) 계급장과 같이 만들었다. 독수리 전체의 길이는 1⅛″, 날개 끝간의 길이는 2⅞″, 닻 전체의 길이는 1⅛″, 묘간의 길이와 묘조의 간격은 ⅞″로 하였다. V자형은 90°의 각을 이루게 하고, 서로간의 간격은 ¼″로 하며, V자형 끝간의 거리는 2⅝″로 하였다.

이후 1967년 5월 17일에 〈해본 인사 운영 제1020호〉에 의거, 근무에 따르는 수장 제식을 변경하여, 소매끝 10㎜ 위에서부터 폭 3㎜ 금줄을 3㎜ 간격으로 4개씩 배열하고, 직경 25㎜되는 금색 별로 계급을 표시하였다. 생도 대대장(소령)은 금색별 4개를 다이아몬드형으로 하되 상·하단의 별이 금줄과 수직을 이루는 선상에 오게 하

고, 생도 부대대장 및 중대장·작전관은 금색별 3개로 이등변삼각형이 되게 하였다. 또 생도대대 각 참모는 금색별 2개를 금줄과 수평으로 배열하였으며, 생도 소대장은 금색별 1개를 금줄과 수평으로 배열하였다.

반면 생도들의 급생 표시 수장은 직경 29㎜의 흑색 바탕에 금실로 수놓은 단순한 닻 1개와 3㎜ 폭의 금줄로 하였으며, 닻 모양은 끝에서 76㎜ 되는 외측 중앙부에 부착되도록 하여 종전과 같이 하였다. 1급생은 현용 3㎜ 폭 금줄 1개 대신에 3㎜ 폭 금줄을 5㎜ 간격으로 소매끝에서 56㎜ 되는 곳에서부터 4개를 평행하게 두르고, 2급생은 금줄 3개, 4급생은 금줄 1개를 두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제식은 1급생 수장과 동일하였다. 1970년 〈해본 인제 교시책 제1020-1가(1970년 1월14일)〉 해군복제에 의거 수장의 제식이 일부 변경되어, 수장은 동정복 및 예식복 착용시에는 양 소매에 부착하고, 하정복 착용시에는 근무에 따르는 계급표시만 부착하도록 하였다. 변경된 수장의 학년 표시는 소매끝으로부터 50㎜ 상부 위치에서부터 각 학년의 수에 해당하는 폭 6㎜ 금줄을 평행선으로 부착하고 각 선간의 간격은 6㎜로 하였다. 학년 표시 금줄로부터 10㎜ 떨어진 외측 중앙에 30㎜ 흑 라사지 바탕에 금실로 수놓은 닻 표지를 부착하였다. 각 학년별 금줄의 수는 4학년이 4개, 3학년 3개, 2학년 2개, 1학년을 1개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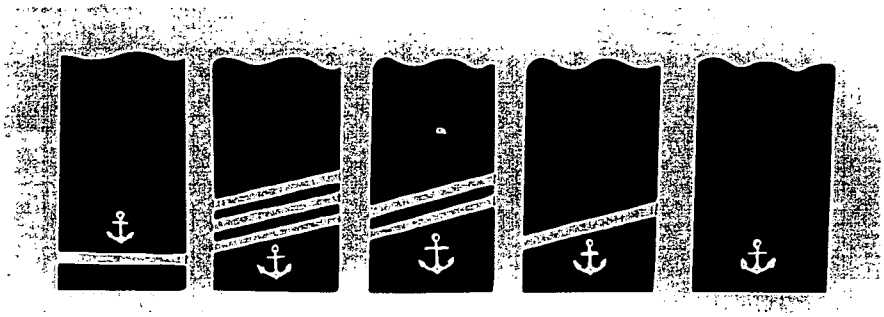
근무직책에 따른 계급표시는 대대장의 경우 동정복 및 예식복에 닻 상부로부터 10㎜ 상부 중앙 위치에 길이 40㎜×폭 6㎜의 금줄 4선을 평행으로 부착하며, 각 선간의 간격은 6㎜로 하였다. 하예복에는 소매 끝부분에서부터 50㎜ 상부 외측 중앙에 부착하였으며, 중대장·부대대장·작전관은 부착 요령이 대대장과 같았으나, 금줄을 3선으로 하였으며, 대대참모는 2선의 금줄을, 소대장은 1선의 금줄을 부착하였다.

이후 1970년 후반, 생도대의 인원증가와 더불어 수장은 다시 일부 변경되어, 위와 같은 제식이지만 소대장은 1선의 금줄, 부중대장은 2선의 금줄, 중대장 및 대대참모는 3선의 금줄, 부대대장 및 연대참모는 4선의 금줄, 대대장 및 부편대장은 5선의 금줄, 연대장은 6선의 금줄을 복지색 나사지에 길이 40㎜ 금색선으로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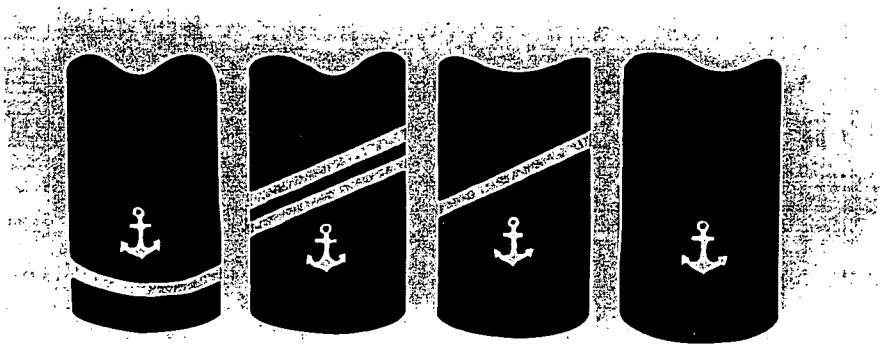
이 제식은 동·하정복이 같았으며, 예식복의 수장은 소매끝 50㎜ 되는 지점에 V자형의 맨 아래부분이 중앙에서 만나도록 하여, 좌·우는 소매끝에서 12㎝에 위치하도록 하고, 5㎜의 간격으로, 폭 10㎜의 금색자수를 세줄로 부착하고, V자형 중앙 오목부분에서 3.5㎝ 상단에 높이 7㎝의 금색으로 자수된 닻이 위치하도록 하였다.

생도들의 계급장은 놋쇠에 금색 도금을 하여 길이 2㎝×폭 4.5㎝의 구형 막대기를 3㎜ 간격으로 옆으로 연결하여, 생도 대령급이 6개, 중령급이 5개, 소령급이 4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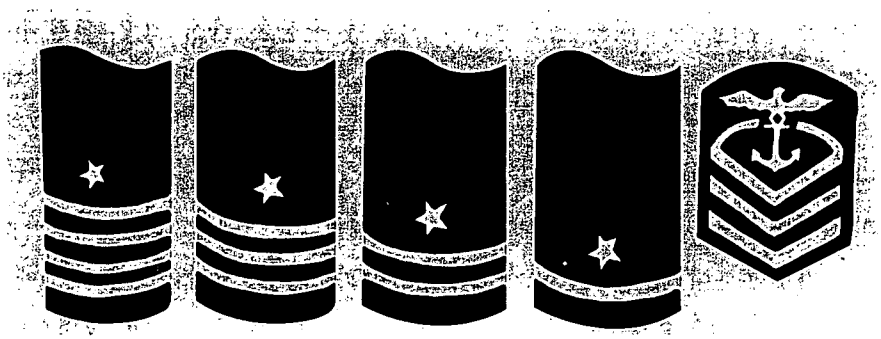
위급이 3개, 중위급이 2개, 소위급을 1개로 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생도 급생 표시 수장(1952년~195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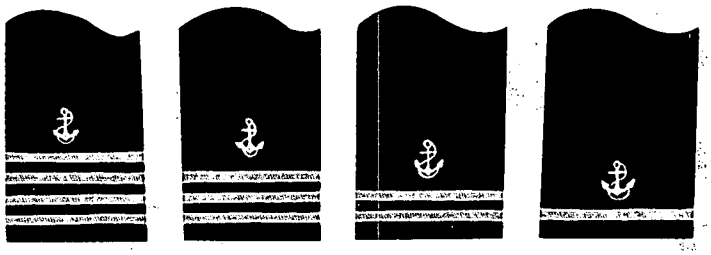


생도 급생 표시 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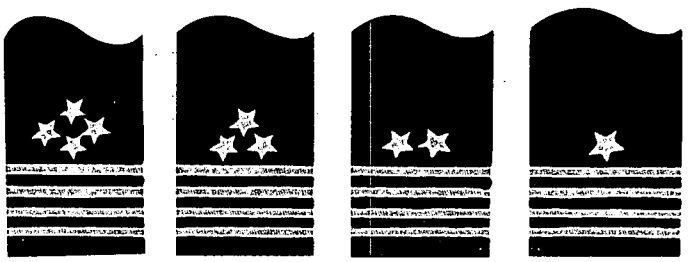


생도 특수 계급장 수장

〈생도 급생·계급장 수장(1960년~196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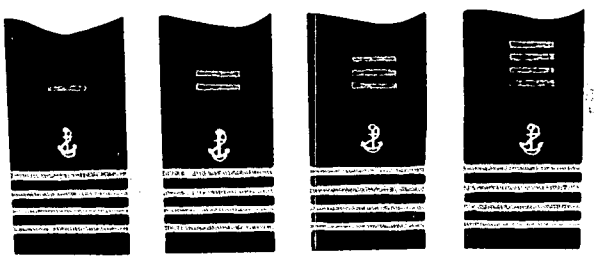


생도 급생 표시 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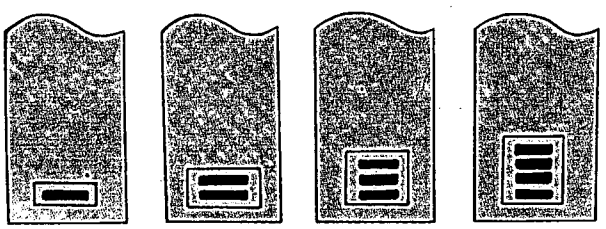


생도 특수 계급장 수장

〈생도 급생 · 계급장 수장(1967년 ~ 196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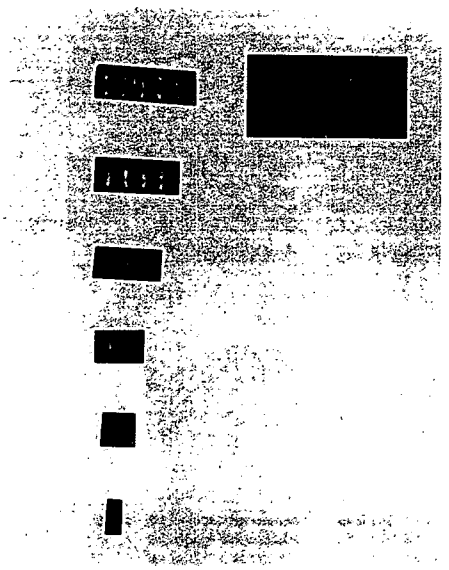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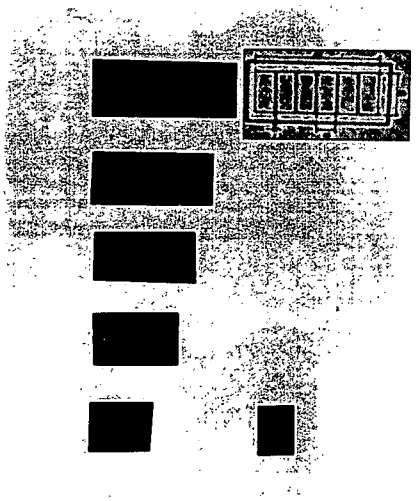
동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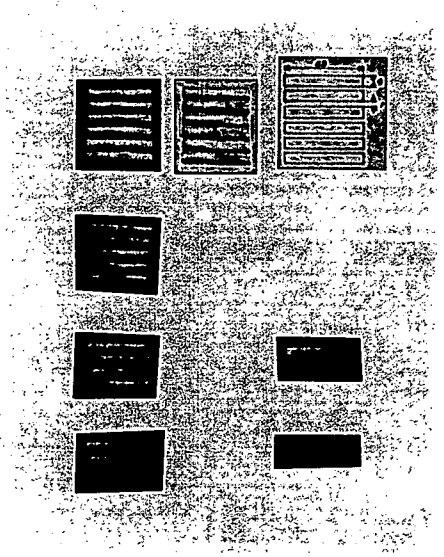
하 복

〈생도 특수 계급장 수장(1970년 ~ 1977년)〉





생도 계급장



생도 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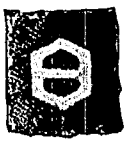


예식복

〈생도계급장·수장·예식복(1978년~현재)〉

(2) 사관 후보생

사관후보생에 대한 계급표지는 아래 그림과 같이 놋쇠를 흰색으로 도금하여, 정복 근무복 전투복 양 깃 및 우의와 점퍼 및 작업모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복장용 계급장은 폭 18㎜에 길이 20㎜의 육각형으로 하고, 내·외측의 폭을 2.5㎜로 하고, 상·하 부분은 좌·우로 15° 경사에 그 길이가 1.5㎝가 되도록 하였다. 모자용 계급장은 복장용과 비슷한 형태로, 폭 13㎜에 길이 20㎜, 내·외측 폭을 2㎜로 하고, 상·하 부분 좌우의 경사를 35° 각도로 하고 그 길이가 1.7㎝가 되도록 하였다.



〈사관후보생 표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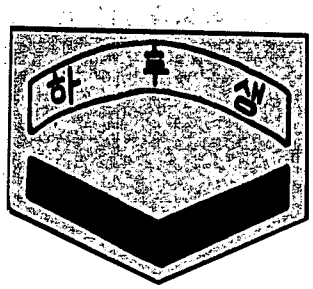
(3) 하사관후보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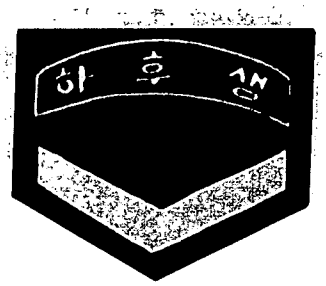
해군 하사관후보생 계급장 운영규정은 1967년 3월 14일, 〈해본 인사 운영 제1020 (문서번호 제28호)〉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는 1966년 12월 22일에 〈해본 인사 제1540-577호〉로 해군 하사관의 양성제도가 일부 변경됨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하사관후보생의 최초 계급장 제식은 정장일 경우 백색 면직 또는 혼방지 바탕에 흰색으로 계급을 표시하고, 바탕지 상단에 흑색 수로 '하후생'이라 표시하였으며, 외곽선을 긋도록 하였다. 전체의 폭은 80㎜이고, V자형의 굵기는 10㎜로 하며,V자형의 외각은 수평과 120°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약장은 흑색 모직 바탕에 부각된 금색 금속으로 계급을 표시하고, 모직 바탕 상단에 금색 수로 하후생이라 표시하며 외곽선을 그었다.

이후 1971년 10월 21일, 국방부 〈국운 제941. 21-504호〉의 통합원칙에 따라 하사관후보생의 계급장 제식이 변경되어, 그 크기 및 제식을 당시 하사 계급장에 준하도록 하고, 정장은 동정복 착용시 적색 수평 4줄에 황색 V자형을, 하정복 착용시는 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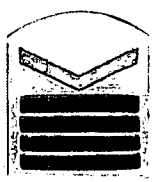
색 수평 4줄에 적색 V자형을 채택하였다. 약장은 황색 수평 4줄에 적색의 V자형을 채택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정 장 약 장

〈하사관후보생 계급장(1967년~1971년)〉





하정장 동정장

정 복





약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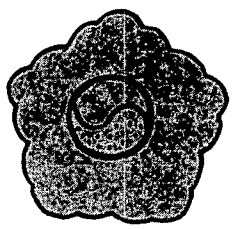
〈하사관후보생 계급장(1972년~현재)〉

(4) 군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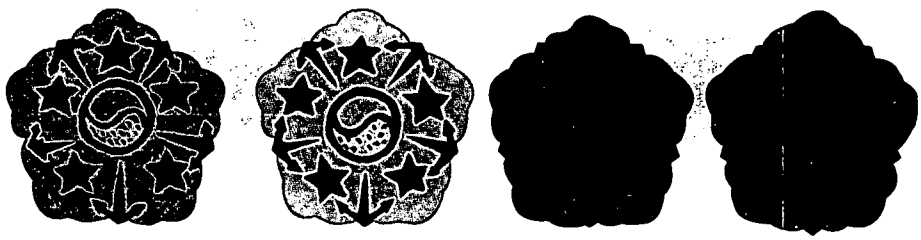
해군 군속에 대한 계급장 제식은 1958년 12월 10일, 〈문서부호 인 제1-6호〉에 의거 최초로 제정되었다. 원형의 태극 모양 주위에 상·하·좌·우로 무궁화꽃이 피어 있는 형태를 지녔고, 2급 이상 군속은 은색, 3급 이상 군속은 청색, 4·5급 군속은 분홍색으로 하였다.

이 계급 표시는 상의의 양 깃에 부착하였으며, 우의·외투·점퍼 착용시는 양 어깨에 달았다. 또한 사복을 착용했을 경우는 상의 좌측 깃에 부착하였으며, 여자 군속은 저고리를 착용하였을 때는 앞섶에 부착하고, 여자 군속이 정장을 했을 경우에는 남자 군속과 같이 상의의 좌측 깃에 달도록 하였다.

이후 1970년 국방부의 군속 계급표지안 제출 지시에 의거, 군속 제식은 일부 수정되어 〈해본 인근 제1020-1055호(1970년 3월 18일)〉로 해군의 군속 표지는 3군이 통일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가운데의 '○'표시는 공군을 의미하며, 원 주위에 5개의 앵커를 그려 해군을 상징토록 하고, 앵커의 사이에 다섯개의 '별'을 넣어서 육군을 상징하도록 하였다. 이 표지는 색상으로 계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1급



〈군무원 표지장
(1958년~1969년)〉



〈군무원 표지장(1970년~현재)〉

은 금색, 2급은 은색, 3급은 청색, 4·5급은 분홍색으로 표시하였으며, 별과 닻과 ○ 표시는 검은 색으로 각각의 모양을 부각시켰다.

현재의 금속 표지는 이 형태와 동일하나, 놋쇠에 금색 도금으로 명확한 부각을 한 후 금색은 장관급 군무원, 은색은 영관급 군무원, 청색은 위관급 군무원, 분홍색은 하사관급 군무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앵커와 앵커 사이를 무궁화 꽃잎의 가장자리 모양을 넣어, 한송이의 무궁화 형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그 크기는 종전과 같이 20㎜로 하였다.

나. 帽　　標

(1) 사관생도 모표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의 모표 제식은 1952년 〈해군복제령〉이 제정된 시기에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의 근거는 1953년 3월 19일자 〈해사발 제109호〉 공문서와 1954년 2월 25일자 〈해사발 제28호〉 공문서에 의하면, 사관 정모 휘장급 급장 표지를 사관생도 모표 제식과 같이 사용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1960년 〈해본 인사 교시책 제1020. 1호〉에 의한 모표의 제식은 금속물에 순금색 도금을 하여 부각면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하고, 하나의 금색 닻과 묘축 중앙에 직경 2㎝의 5각 별을 바로 세웠다. 묘의 전체 길이는 50㎜, 묘간의 길이 28㎜, 묘조간의폭은 35㎜로 하였고, 반타원형 흑색 모직물 대자에 고정시켜 모테와 연결하도록 했다.



1952년~1973년



1974년~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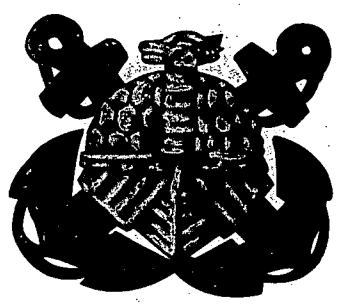
〈사관학교 모표〉

이후 1974년 5월 1일, 〈해사 인행 제244－945호〉 및 〈해본 인근 제244-3737호〉에 의거 사관생도의 모표를 개정하였다. 모표의 폭을 60㎜, 길이는 55㎜로 하여 놋쇠에 금색 및 은색으로 도금하고, 부각면을 뚜렷이 하되, 닻의 부각 최고 높이를 5㎜, 별의 부각 높이를 최고 5㎜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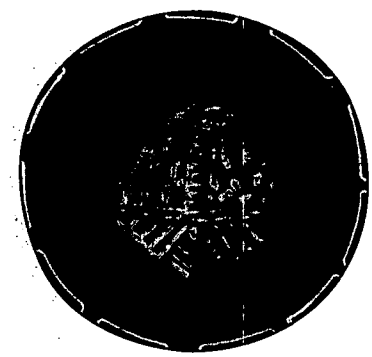
또한 독수리의 조각은 날개와 발톱을 중심으로 전체가 강한 인상을 풍기도록 하였으며, 반원형 흑색 받침을 모테에 고정시키도록 하였다. 색상은 닻과 독수리는 은색으로 도금하고, 별과 월계수는 금색으로 하였으며, 이 모표 제식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2) 군무원 모표

해군 군무원의 모표는 1956년 6월 14일, 해군 복제위원회에서 그 제식이 결정되어 동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문관 모표의 제식은 해군 장교 모표의 제식에서 크기를 다소 축소하고, 장교 모표와는 달리 맨 위에 무궁화가 없는 점 외는 장교 모표와 똑같았다. 즉, 교차된 닻 중앙부분에 거북선 머리와 투구의 모양을 넣어, 길이 2.2㎝ ×폭 2㎝로 하였다. 교차된 앵커의 길이는 2.3㎝로 하고, 투구와 거북선의 길이는 1.9㎝로 하였다. 이후 현재의 군무원 표지는 동일한 제식에 진청색 바탕을 하고, 표지 외곽에 백색선을 두르도록 하였으며, 상층부에 무궁화 도안을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다.



1956년～1973년



1974년～현재

〈군무원 모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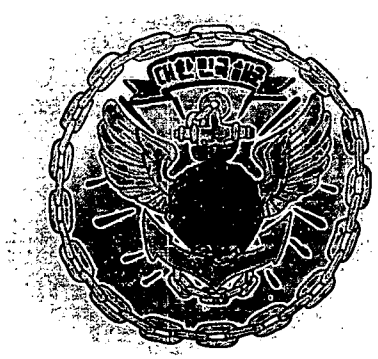
다. 標　　識

○ 해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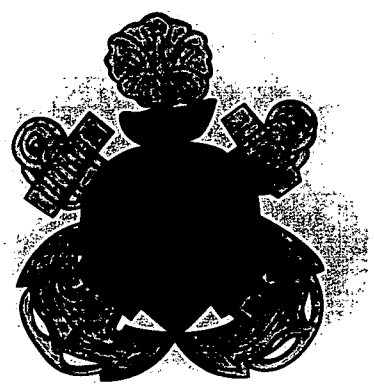
해군을 총괄적으로 상징하는 해군의 표지는 1958년 12월 16일의 해군 작전본부회의에서 최초로 결정되었다. 당시 결정된 해군 표지의 도안은 해군을 상징하는 앵커 위에 해군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충무공 정신을 상징하는 거북선을 배열하고, 거북선 양옆에 날개를 그려 넣어 승리의 위용과 진취적인 기상 및 만방으로의 활동 그리고 나아가서는 장차의 해군 항공표식을 의미하도록 하여, 충무공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의 해군이 우방과 더불어 무한한 약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을 지니도록 결정하였다.

이후 1970년에 〈해본 인제 교시책 제1020. 1호(1970.1.14.)〉에 의거 개정이 되었다. 해군의 표지는 금색으로 된 루프가 감긴 폭 15㎜×길이 34㎜의 닻이 교차되도록 하고, 교차된 중앙 지점에 은색의 거북선을 배치하였으며, 우측을 보고 있었던 용의 머리를 거북선의 머리모양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거북선 머리 바로 위에는 금색의 활짝 핀 무궁화를 배치하였는데, 그 길이는 11㎜이고, 폭은 15㎜로 하였다. 또한 외곽의 체인식 로프의 직경은 55㎜이고, 체인 1개의 길이는 0.8㎝로 하여 12개의 체인을 연결하였다. 거북선 머리부터 닻 중앙 앵커 부분까지의 길이는 22㎜로 하였으며, 닻 아래 폭 0.3㎝의 리본에 대한민국 해군을 검은 색으로 색인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1958년～1968년



1969년～현재

〈해군 표지〉

라. 兵科標識

해군이 창설되고, 최초로 〈해군복제령〉이 제정된 1952년, 국방부에 보고한 해군복제 제식에 의한 병과표지는 〈해본 한 제2444호(1952년 11월 27일)〉에 규정되어 있다. 당시의 병과표지는 장교와 하사관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였으며, 장교의 병과표지는 금색 실로써 직경 1⅛″의 원형 흑색 라사지 위에 수를 놓아 소매 외측 중앙부 계급장의 제일 위끝에서 ¼″ 떨어진 곳에 달았다. 장교의 기본 병과표지는 1¼″ 직경의 원(圓)과 그 속에 5각 별을 넣고, 별의 중심에서 각 대축각에 로프형 선을 넣었다. 원선의 폭은 1/16″로 하고 로프형으로 수를 놓아 별의 한 각이 계급장 바로 위에 서게 달았다.

군의과 표지는 무궁화꽃 하나에 아래쪽에 십자가를 넣었으며, 의정과는 십자가를 적색으로 표시하였다. 경리과 표지는 2개의 도토리 잎에 3개의 도토리를 배치하였다. 기술과 표지는 1¼″ 직경의 원 속에 독립문을 넣고, 독립문 속에 별, 별 속에 5개의 톱니바퀴를 넣었다. 군종과 표지는 십자가로 부착시 앞쪽에서 뒤로 기울어지게 달며, 십자가와 금줄이 60° 각을 이루게 하였다.

법무과 표지는 1개의 화살과 칼을 교차시키고 교차점에 태극을 넣고, 월계수로 환(環)을 만들었다. 준사관은 장교의 병과표지 요령으로 제식은 동일하나, 과별표지는 하사관 과별표지를 사용하였다. 하사관의 과별표지는 계급을 표시하는 평행사변형 위 끝을 통하는 수평선상 중에 하복 착용시는 흑색 실로, 동복 착용시는 백색 실로 수를 놓았다. 당시 하사관 과별 분류는 기뢰사・서무사・주계사・운전사・상포사・측적사・위생사・기암사(機械士)・음탐사・무전사・기관사(機關士)・전기사・내연사・전자사・사주사・기공사・보수사・전공사・군악사・제도사・사진사・갑판사・조타사・회계사・기기사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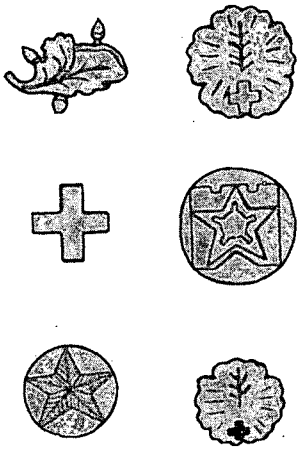
기뢰사는 해면 위에 기뢰를 올려놓았으며, 서무사는 날개 펜 2개를 교차시켜 펜끝이 아래로 오게 하였다. 주계사는 열쇠 2개를 교차시켜 열쇠구멍이 위로 향하게 하였으며, 운전사는 불도저가 좌측을 향하도록 표시하고, 장포사는 포신 2개를 교차시켜 포구가 위로 향하도록 하였으며, 측적사는 측거의를 그 표지로 하였다. 위생사는 커듀시어스(caduceus : Zeus의 使者 Hermes의 지팡이)로 표시하였다. 인쇄사는 책을 펴놓은 상태이며, 기암사는 날개형 펜과 스파크를 교차시켜 펜끝이 좌측 하부로 향하게 하였다. 음탐사는 수화기에 화살 1개를 수평으로 교차시키고 화살끝이 좌측으

로 향하게 하였다. 전탐사는 에이스코프에 화살 1개를 대각선으로 교차시키고 화살 끝이 위로 향하도록 했다. 무전사는 스파크 4개로써 표시하고, 기관사는 히어로의 보일러로 표시하였으며, 전기사는 지구에 위도를 나타내는 5개의 선과 경도를 나타내는 10개의 선을 넣었다. 내연사는 치차 하나로 표시하였고, 전자사는 헬륨 원자의 화상으로 수평 및 수직의 2원자 궤도로 나타냈으며, 사주사는 초생달로 표시하였다. 기공사는 마이크로 메트와 치차로 나타냈고, 보수사는 보수용 도끼와 해머를 교차시켜 손자루가 밑으로 오게 하였다. 전공사는 단순한 전신주를 수직으로 세우고 스파크 끝이 좌측 하부에 오도록 했다. 군악사는 칠현금으로 나타냈으며, 제도사는 삼각자 꼭지가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 측량기를 세워 놓은 모양으로 표시하였고, 사진사는 사진기를 세워 놓은 모양으로, 갑판사는 단순한 닻 2개를 서로 교차시켰으며, 조타사는 배의 보통형 조타기를 세워 놓았으며, 회계사는 주산 위에 열쇠를 비스듬히 세워 놓았고, 기기사는 잎 3개의 프로펠러에 한 잎을 아래로 서게 하여 표시하였다.

이후 1956년 3월 16일, 장교병과 표지의 일부 명칭이 변경되어, 기술과를 시설과로 바꾸고, 의정과를 위생 및 간호과로 분류하였다. 또 1968년 초에는 하사관의 기존 직별(職別)에 헌무과와 시공사를 추가하여 헌무과는 펜과 소총이 해군의 표시인 닻을 중심으로 교차되게 배치하여 총구가 좌측 상단으로 향하고 펜 끝이 우측 상단에 오도록 표시하였으며, 시공사는 직각의 밀리자에 측량기구를 직선으로 세운 모양의 표지로 하였다. 이후 1971년 〈해본 인근 제1020－3663호〉로 국방부에 보고한 해군의 특수 복제 제식에 의하면, 장교의 병과가 일부 조정되어, 종전의 군의과에 치의과를 포함한 군의 및 치의과, 위생 및 간호과를 의정 및 간호과로 그리고 경리과와 군종과를 두고, 불·법·승을 포함한 3개 군승과를 추가하였으며, 시설과와 법무과 내에 법무 행정과를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사병의 직별 표지도 일부 조정되어, 제도 및 사진사를 보도사로 포함하고, 시공과 통신정비의 통정사를 추가하는 등 갑판사 외 25개 직별을 유지하였다. 이어 1973년 10월 1일부로 해군·해병이 통합되면서 장교병과에 상륙병과가 추가되었다. 상륙병과의 표지는 보통형 1개의 닻에 소총(M1)을 교차시켜 총구가 위로 향하도록 하고, 닻 하부 외곽을 월계수잎으로 받침형식의 표지를 만들었다. 이 병과표지의 색상은 닻과 교차된 소총은 은색, 월계수는 금색으로 하였고, 사병은 전체를 은색으로 하여 사병의 병과표지도 추가하였다.

이후 상륙병과 표지는 1979년 1월 26일의 〈해본 인근 제244-522호〉에 의거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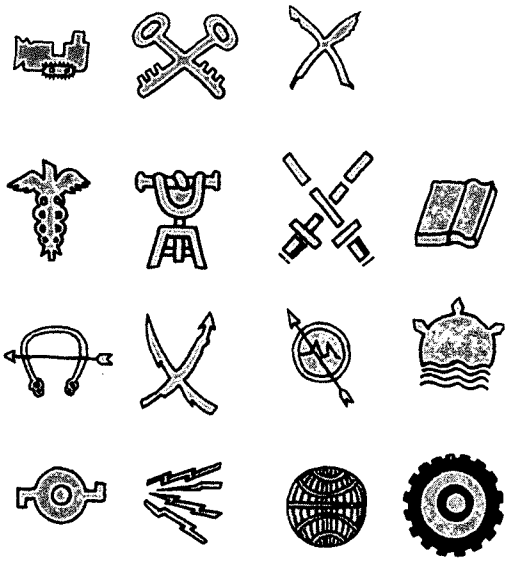
1952년~1972년 또는 현재

〈장교 병과 표지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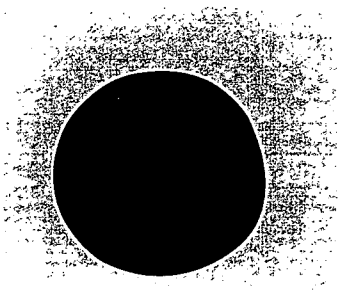
1952년~1972년 또는 현재

〈장교 병과 표지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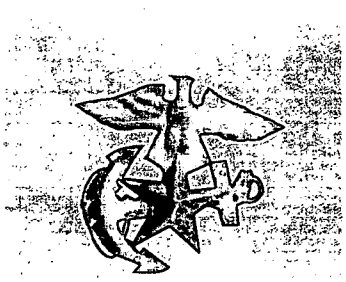


1952년~1972년 또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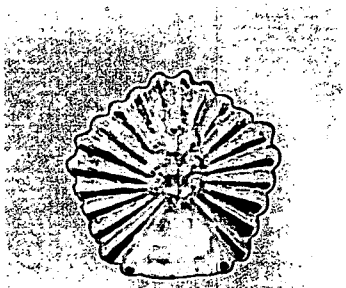
〈장교 병과 표지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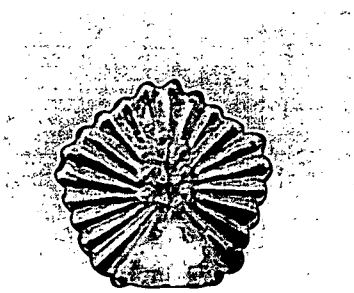
기본병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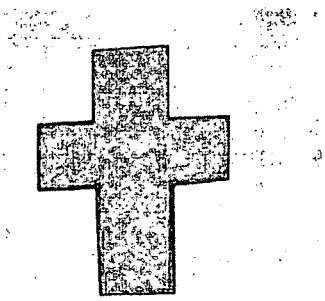
해병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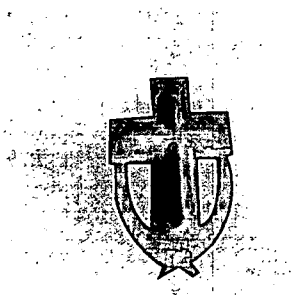
군의 및 치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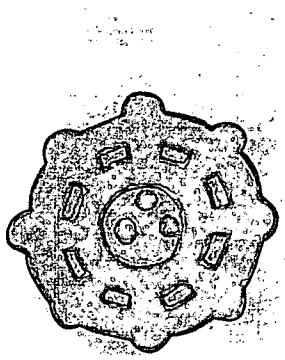
의정 및 간호



목 사



신 부



법 사



법 무

〈현재 장교 병과 표지〉

되어, 해병 모표를 직경 25밀리 내외로 축소시켜 별과 독수리는 은색, 닻은 금색으로 하여 이를 장교병과 표시로 사용하고, 사병은 전부 금색으로 하여 사병병과 표시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 타군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군 군종과의 신부 표지를 신규로 제정하여, 십자가에 종려나무 잎받침형식의 군종신부 표지를 만들었으며, 색상은 전부 금색으로 하였다. 이 표지의 크기는 전체 길이가 25㎜, 십자가의 폭은 15㎜로 하였다.

현재의 장교 병과표지는 일부 제식이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 우선 기본병과는 태극무늬 중심에 교차된 앵커가 배열되어 있으며, 색상은 전부 금색을 사용하고, 폭 80㎜에 길이는 75㎜이고, 교차된 앵커의 전체 길이는 90㎜이다. 해병대 병과는 변동이 없이 폭 30㎜×길이 35㎜이며, 의무병과는 군의 및 치의과와 의정 및 간호과로 구분되어, 제식은 종전과 같고 폭과 길이가 26㎜이다. 법무병과 표지 제식도 변경되어, 해군을 상징하는 앵커에 교차된 망치와 전체적으로 오각형을 유지하고, 색상은 금색을 사용하고 있으며 길이가 30㎜×폭 25㎜이다. 기타 병과의 제식은 종전과 동일한 제식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마. 徽　　章

휘장이라 함은 신분·직위·명예·자격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군복에 부착하는 표지물로서 여러 가지 종류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휘장제도의 제정 목적은 이를 패용함으로써 패용자가 긍지를 느끼며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애국애족하고, 위국충정할 수 있는데 있다.

국군 초창기에는 계급장·모표·병과표지 등에만 주로 사용함으로써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휘장뿐이었으나, 6·25전쟁 이후 해군의 성장과 더불어 휘장의 종류가 증가되고 그 모양도 다양화되어, 신분 외로 직위·명예·자격 등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와 같은 휘장은 제정 목적과 성격에 따라 명칭을 각각 달리할 뿐만 아니라, 같은 성격의 것이라 할지라도 부착 위치에 따라 형태나 크기를 달리하였다. 이러한 휘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하나는 휘장의 성격에 따른 분류로 신분장·직위장·명예장·자격장으로 구분되고, 또 다른 하나는 부착 위치에 따른 분류로 모장·금장·견장·흉장·수장 등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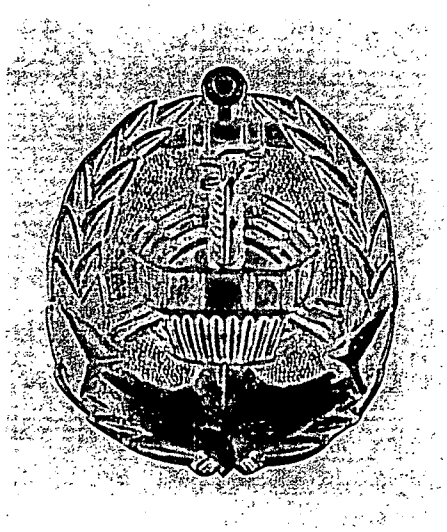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성격에 따른 분류 범주에 속한 휘장을 다룬다.

(1) 장교 휘장

해군/해병 장교의 휘장은 패용자가 이를 패용함으로써 긍지를 갖고, 투철한 애국애족 정신으로 위국충정의 기틀을 다진다는 각오로, 1979년 12월 〈해본 인근 제244-11979호(1979년 12월 13일)〉에 제정하였다. 이 휘장은 해군/해병 전 장교가 예복과 정복의 상의 우측 윗주머니 중앙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휘장의 제식은 중앙에 거북선을 넣어 대한민국 해군 장교가 충무공의 후예임을 자부함과 동시에 조국수호의 결의를 다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 아래의 닻은 해군을 상징하고, 둘레의 월계수잎은 해군의 영광과 무한한 발전을 상징하는 의미였다.

이후 1981년 10월 〈해본 인근 제236-13, 220호(1981년 10월 14일)〉로 휘장의 제식이 약간 단조롭다는 의견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여, 해군을 상징하는 닻을 중앙에 넣고, 닻의 중앙부에 장교의 기풍과 해병을 상징하는 별을 넣었으며, 주위의 월계수는 해군의 영광과 무한한 발전을 상징하도록 하였고, 월계수 주위의 태양무늬는 필승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또한 패용대상도 준위를 포함하도록 하고, 예복 및 정복 외에 만찬복에도 이를 패용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해군 휘장의 두께는 12㎜ 동판을 금색으로 도금하도록 하였으며, 별의 최



1980년~1981년



1981년 11월~현재

〈장교 휘장〉

고 높이를 8㎜로 하고, 이의 직경은 18㎜, 월계수 높이는 2㎜, 폭은 35㎜, 길이는 42㎜로 하였다. 태양무늬는 폭 58㎜×길이 65㎜로 하고, 닻 중앙 하단과 양쪽 끝 부분 높이를 5㎜로 하였다. 색상은 태양무늬는 금색(무광택), 월계수는 은색, 닻은 흑동색, 별은 은색으로 정하였다.

(2) 지휘관 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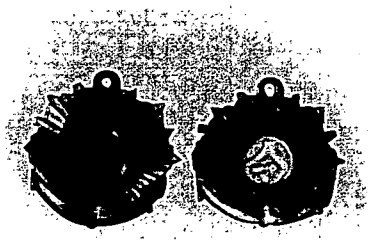
해군의 지휘관 휘장은 1975년 9월 5일 〈해본 인근 제244-5044호(1975년 9월 5일)〉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당시의 휘장은 참모총장 휘장과 장성급·영관급·지휘관 휘장으로 구분하였다. 참모총장의 휘장 제식은 2㎜ 철판의 흑동색으로 도금하여, 내부는 청색, 바탕은 청색 칠보로 하여, 해군을 상징하는 앵커를 중심으로 한가운데 청색 바탕에 내부직경 20㎜의 원을 두고, 원 안에 참모총장을 표시하는 별 4개를 배치하였으며, 그 주위에는 해군의 영광과 무한한 발전을 상징하는 월계수잎을 배열하였고, 또 월계수 외곽에는 외경 65㎜의 태양무늬를 두어 필승의 영광을 상징하도록 하였다. 별과 닻의 최고 부각 높이는 3㎜로 하였으며, 앵커의 전체길이는 65㎜로 하였다. 이를 착용시에는 예복·정복·만찬복의 경우 좌측 가슴주머니 봉제선 중앙 0.5㎝ 밑에 고정시켰고, 근무복과 전투복을 착용시에는 좌측 가슴주머니 단추에 휘장받침으로 고정시키도록 하였다.

장성급 지휘관 휘장의 재질과 일반 제식은 참모총장 휘장과 동일한 모양이었으나, 청색바탕(해병은 적색바탕) 내부직경 20㎜의 원 안에는 은색(해병은 금색)으로 '영(令)' 자를 표시하였으며, 월계수잎 외곽의 태양무늬 직경을 55㎜로 하고, 앵커의 전체길이는 60㎜로 하였다.

영관급 지휘관 휘장의 재질과 일반 제식도 장성급 지휘관 휘장과 동일하였으나, 내부직경 20㎜ 원 안에 은색(해병은 금색)의 충무공 지휘채를 배열하였으며, 월계수잎 외곽의 태양무늬 지름은 50㎜로 하고, 앵커의 전체길이는 55㎜로 하였다. 위관급 지휘관 휘장은 영관급 지휘관 휘장의 재질 및 제식과 동일하였으나, 내부직경 20㎜ 원 안에 은색(해병은 금색)의 교차된 지휘도를 배치하였고, 월계수잎 원 외곽의 태양무늬 지름은 50㎜, 앵커의 전체길이는 55㎜로 하였다. 패용 요령은 참모총장의 휘장 패용 요령과 동일하다. 휘장은 임무교대시 선·후임간에 인수·인계하도록 하였으나, 참모총장 휘장은 개인별로 소지토록 하였다.



참모총장 휘장



장성 휘장



영관급 휘장



위관급 휘장

〈지휘관 휘장(1975년 10월～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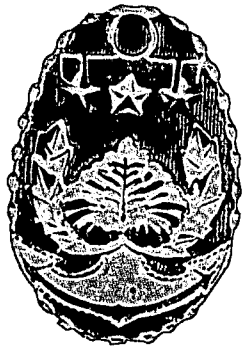
(3) 주임상사 휘장

해군 주임상사 휘장은 1967년 5월 30일, 〈해본인사 교시 제1700.2호〉에 의거 해군의 선임상사 운용규정이 제정되면서, 해군 선임상사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을 배양하고 근무의욕을 증진시키고자 선임상사의 휴장 패용에 관한 사항이 논의되었고, 동년 10월 26일에 선임상사의 휴장 제정이 규정화되고 시달되었다.

이 당시 제정된 해군 선임상사의 휴장 제식은 해군을 상징하는 앵커를 중앙에 위치시키고, 앵커 중앙에 무궁화 핀 꽃을 배치하여 민족을 상징하도록 하였으며, 무궁화 위에는 별 3개를 2개는 아래에 두고 그 위 중앙에 1개를 배치하였다. 또한 앵커의 양 끝에서부터 무궁화 및 별과 앵커고리 위로는 체인을 둥근 형식의 모양을 갖추었고, 전체 폭은 32㎜, 길이는 48㎜, 닻고리의 폭은 18㎜로 하고, 무궁화의 길이는 20㎜, 폭을 27㎜로 하였다. 재질은 동을 사용하여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앵커·별

·무궁화·체인은 은색으로 도금하였다.

이 흉장은 정복·예식복·기타 정장시 우측 흉부주머니 뚜껑 하부선으로부터 1㎝ 이격시켜 부착하도록 하고, 임용시부터 면직시까지 패용하였다. 이 당시 해병 선임상사 흉장 제식은 제정된 시기를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아래부분은 반달형 'V'형을 3개 배치하고, 사이에 별 하나를 넣은 후 그 위에 갈매기형 '∧'형을 3개 배치하였으며, 별



해군 선임상사



해병 선임상사

〈선임상사 휘장(1967년~1974년)〉



해군 주임상사 휘장



해병 주임상사 휘장

〈선임상사 휘장(1974년~현재)〉

은 흑색 기타는 적색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1976년 4월, 선임상사의 명칭이 주임상사로 바뀌면서 흉장이 휘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해군 주임상사의 휘장은 중앙에 앵커, 앵커의 한복판에는 무궁화 핀 꽃을 종전 제식과 비슷하게 배열하되, 무궁화 핀 꽃 위의 별 숫자가 4개로 증가되었다. 체인의 모양은 종전과 동일하였다.

이 휘장의 크기는 전체 길이가 48㎜, 폭이 32㎜이며, 앵커 고리의 지지대 폭은 18㎜로 하였다. 또 무궁화 핀 꽃은 길이가 20㎜, 폭은 27㎜로 하고, 동으로 제작하여 청색 바탕에 앵커·별·무궁화·체인은 은색으로 도금하였다. 해병 주임상사의 휘장은 중앙에 앵커를 배치하고, 앵커 중앙에 소총을 2정 교차 배치시켰으며, 그 위에 별을 3개 '∧'형으로 진열하고, 외곽은 월계수잎으로 감싸도록 하되 윗부분은 제외시켰다. 이 휘장의 크기는 전체 길이가 42㎜, 폭은 35㎜로 하였으며, 역시 동으로 제작하여 홍색 바탕에 앵커·별·총은 은색으로 도금하고, 월계수는 금색으로 도금하였다. 이 주임상사의 휘장은 편제상 2급함(대대급) 이상 부대 주임상사가 지휘관 휘장 패용 방법과 동일하게 패용하였다.

(4) 사관생도 근무자 휘장

사관생도의 근무자 휘장은 1967년 5월 7일 〈해본인사운영 제1020호〉에 의거 해군 예식복제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이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 휘장의 제식은 닻 2개를 교차시켜 중앙에 배치하고, 그 위 중앙에 별을 1개 위치시키고, 하부 아래에 '해사'라는 글씨를 넣고, 맨 위 중앙에는 무궁화꽃 1개를 두며, '해사'글씨와 무궁화꽃을 연하여 외곽에 월계수를 배치하였다. 휘장의 폭은 55㎜, 길이는 60㎜로 하여 금색 도금된 동으로 제작하였으며, 패용 방법은 지휘관 휘장패용방법과 동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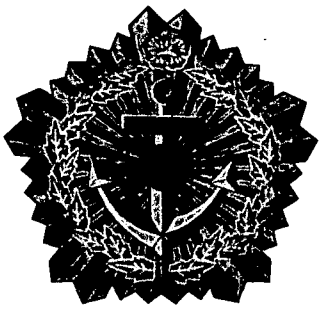


〈사관생도 근무자 휘장 (1967년~현재)〉

(5) 근속 30년 기념 휘장

근속 30년 기념 휘장은 입대 후 30년간을 근속한 장병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공적과 명예를 칭송, 선양, 기념하기 위하여, 1982년 8월 25일에 최초로 제정하여 동년 9월 21일부로 시행된 휘장이다. 휘장의 제식은 한가운데 앵커를 넣고, 태극 마크를 휘장 중앙부 앵커 위에 배치하였다. 또한 앵커고리 바로 위에는 무궁화꽃 한송이를 넣었으며, 맨 외곽에는 5각형 형식으로 검(劍) 30개를 배치하고, 검 바로 내부는 무궁화 꽃형으로 원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태극과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상징한 것이며, 닻은 해군을, 5각형은 5대양(大洋)으로의 신장(伸張)을 뜻하고, 검 30개는 30년간의 근속을 상징하도록 하였다. 또 바탕검 30개는 2㎜ 금색 도금을 하였으며, 태극무늬는 높이를 5㎜로 한 금속에 적색과 청색 칠보를 하였고, 무궁화 꽃잎은 높이를 2㎜로 하여 은색으로, 닻의 입체 부분은 높이를 4㎜로 하여 은색으로 된 금속으로 만들었다. 패용방법은 장교 휘장 패용방법과 동일하고, 근무복·전투복은 우측 가슴 주머니 단추에 휘장받침으로 고정하도록 하였다. 이 휘장의 크기는 길이가 53㎜이고, 앵커의 폭은 22㎜, 길이를 33㎜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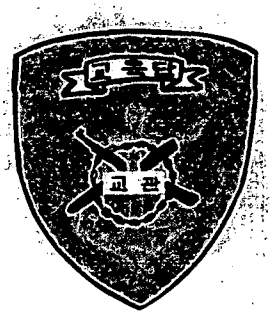
〈30년 근속 휘장 (1982년~현재)〉

(6) 교관 휘장

교관 휘장은 1975년 11월 18일, 해군 교육단에 근무하는 장교 및 하사관급 교관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교육단(교민행 제244-3146호)의 건의에 따라 해군 복제위원회에서 최초로 제정하였다. 당시는 '흉장'이라는 명칭으로 청동을 재료로 하여 폭 4㎝×길이 5㎝의 방패형태를 취하였다. 해군을 상징하는 앵커를 중심에 배치하고, 교육과 학습의 상징인 소총과 펜을 교차시켜 앵커 중심부에 오게 하였으며, 교차점 중심부에 '교관'이라는 글씨를 새겼고, 맨 위에는 리본 형태의 모형에 '교육단'이라는 글씨를 써넣었다. 흉장의 돌출부분은 흑색으로 하고, 모형 전체는 은색 바탕에 글씨를 모두 검은 색으로 써넣었다. 이후 1977년 3월에는 이를 개정하여 방패형태의 모형을 바꾸고, 바탕색은 백색으로 하였다. 중심부에 위치한 해군을 상징하는 앵커는 그대로 두고, 앵커 중심부에는 애국심을 상징하는 적색 바탕의 무궁화 핀 꽃을 놓고 검은 글씨로 '교관'이라고 표시하였으며, 주위에는 금색의 월계수를 원형



교관 흉장
1975년~1976년



교관 휘장
1975년~1989년



1990년~현재
〈교관 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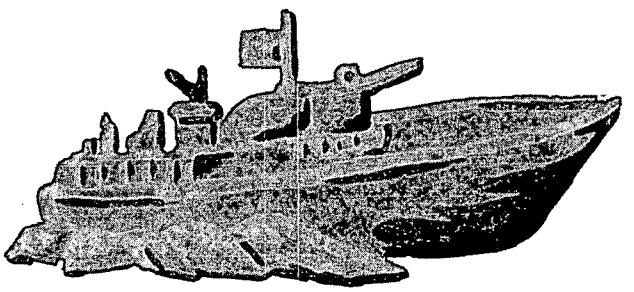
으로 배치하여 영광과 필승의 상징물로 여기도록 하였고, 앵커 아래부분에 검은 색으로 '교육단'이라는 글씨를 써넣었다. 당시의 교관 흉장(휘장)은 근무복과 전투복 상의 왼쪽 윗주머니 상단에 패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1990년 2월 21일, 교육사(행인 제152-771호) 건의에 의거, 재개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재개정된 교관의 휘장은 모형은 대동소이하나 크기가 폭 4.5㎝×길이 5.5㎝로 약간 커졌고, 바탕색은 진곤색, 앵커는 백색으로 하였으며, 무궁화가 백색으로 되었고, 무궁화 안에 있던 '교관'이라는 글씨를 무궁화 밖 좌·우측에 백색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단이라는 글씨를 부대개편에 따라 '교육사'로 바꾸고, 진곤색으로 표기하였다. 이 휘장의 패용방법은 지휘관 휘장 패용방법과 동

일하다.

(7) 고속정 휘장

최초의 고속정 휘장은 1952년 1월 14일에 해군본부 〈장병 뱃지 부착 제112호〉 수뢰정 편대 지시에 의거 부착하기 시작한 흉장 사용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제식은 고속정 형태의 배 모양을 부각면을 뚜렷이 하고 은색으로 도금하였다. 흉장의 크기는 가로 7.5cm×세로 3cm였으며, 고속정 근무자 상의 좌측 호주머니 위 중앙에 패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1975년 6월 15일에 이를 개정하여, 파도 위에 3척의 고속정이 질주하는 모형으로 개정하여 가로 8cm×높이 2.5cm×두께 0.7mm가 되도록 하였으며, 색상은 전부 은색으로 하였다. 이후 1976년 6월에 다시 개정된 고속정 휘장은 파도를 가르며 질주하는 1척의 유도탄정을 모형으로 하였다. 크기는 가로 7.5cm×높이 3cm로 하여 장교는 금색, 사병은 은색으로 하고, 좌측 가슴주머니 뚜껑 봉제선 중앙 0.5cm에 패용하도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착용하고 있다.



〈고속정 휘장 ① (1971년~197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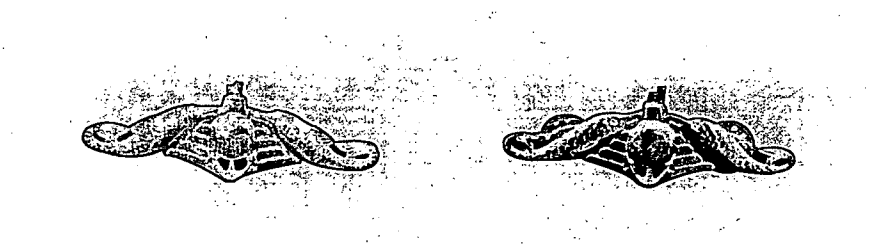
〈고속정 휘장 ② (1975년~1976년)〉



〈고속정 휘장 ③ (1977년~현재)〉

(8) 잠수함(정) 휘장

잠수함(정) 휘장은 1990년 9월 4일, 해작사 건의(해작사 인계 제236-6311호)에 의거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 휘장의 제식은 해군을 상징하는 앵커를 중앙에 위치시키고, 잠수함을 정면으로 보았을 때의 선체 모양에 태극마크를 새겨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모형을 앵커 중앙부에 두었다. 또 양쪽에는 잠수함(정)의 활동영역을 표시하는 돌핀을 그려 넣어 폭 8㎝×높이 3.3㎝가 되게 하고, 장교는 금색으로, 사병은 은색으로 도금하였으며, 패용방법은 고속정 휘장 패용방법과 동일하게 하였다.



〈잠수함(정) 휘장(1990년~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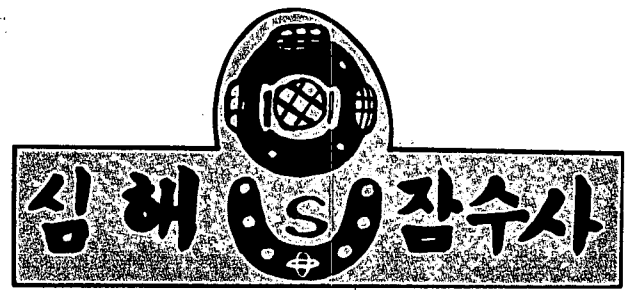
(9) 심해 잠수사 휘장

심해(深海)잠수사 휘장은 1962년 8월 24일, 〈해본인창 운영 제1020호〉에 의거, 최초로 흉장을 제정한 것이 시초이다. 당시의 잠수사 흉장은 잠수에 필요한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외국에서 동등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여하던 것이었으며, 정복과 근무복의 명찰 위 5㎜에 부착 착용하였다. 제식 모양은 잠수사가 착용하는 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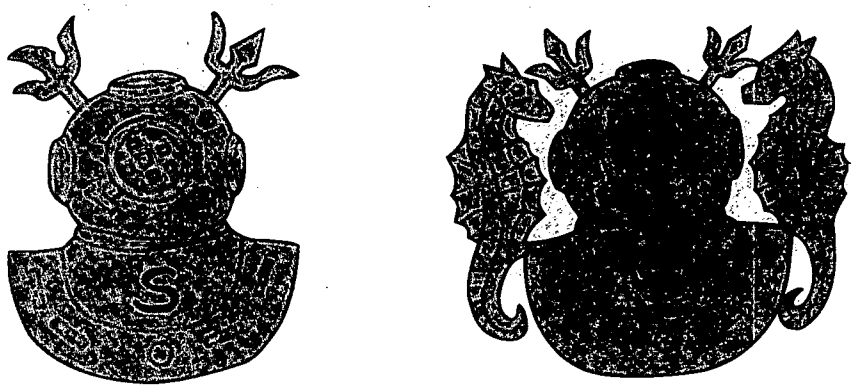
수기구와 깊은 바다를 상징하는 'S'자를 표기한 모형으로 폭 3㎝×높이 4.5㎝로 하였다. 이후 1962년 12월 20일, 이 모형을 일부 수정하여, 폭 2㎝×높이 3㎝로 하여, 하정



〈잠수사 흉장(1962년～197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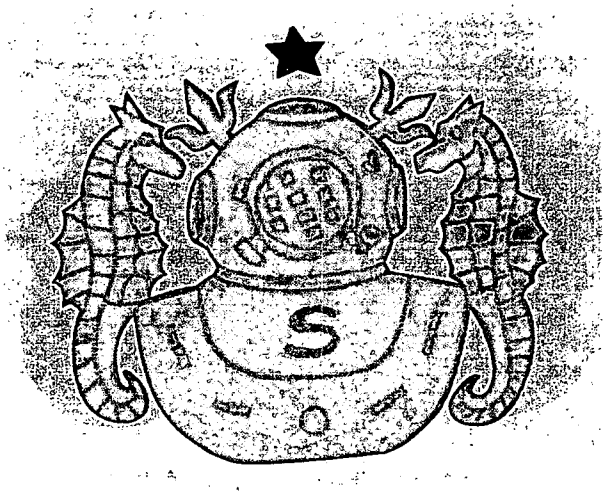


〈심해잠수사 휘장(1975년～198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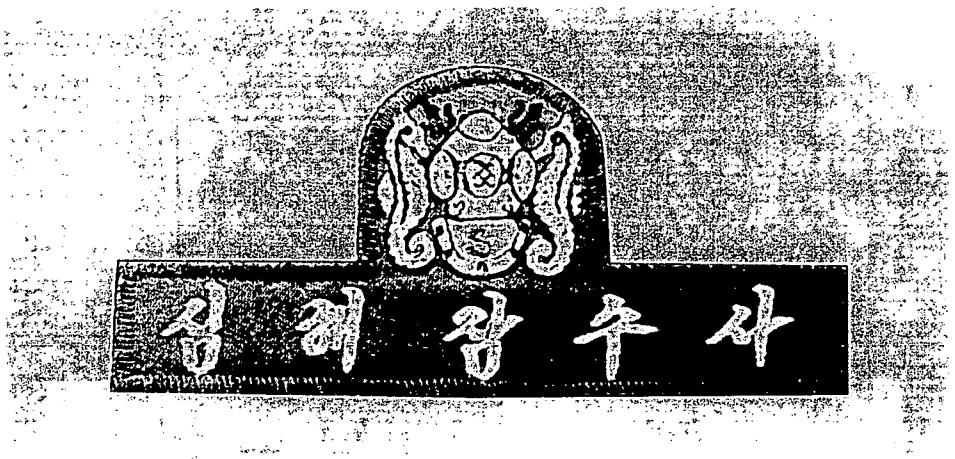


Scuba잠수사　　일반잠수사

〈잠수사 정장 휘장 ① (1988년～현재)〉



감독잠수사
〈잠수사 정장 휘장 ② (1988년～현재)〉



〈심해잠수사 약장(1988년～현재)〉

복에는 백색 연직 바탕에 흑색으로 수(繡)를 놓았으며, 동정복에는 흑색 모직 바탕에 백색으로 수를 놓았다. 이후 1988년 5월 13일, 해작사 건의(해작사 인계 제236-2672호)에 의거하여 심해잠수사 휘장은 정장과 약장으로 구분하여 착용하도록 개정되었다. 정장은 SCUBA잠수사 및 일반잠수사와 감독잠수사로 분류하였으며, 약장은 심해잠수사로 통일하였다. 정장은 청동으로 주조된 철제를 사용하여, 장교는 금색, 사병은 은색으로 도금하고, 정복과 근무복에 고속정 휘장 패용방법과 동일하게 부착

하였다. 약장은 국방색 바탕에 백색 글씨로 '심해잠수사'를 표기하고, 'S'자는 적색으로 표기하였다. 이는 전투복과 심해잠수사 보온복에 고속정 휘장 패용방법과 동일하게 부착하였다.

정장의 SCUBA잠수사는 잠수기구만을 모형으로 하였고, 높이 3.9㎝×폭 3㎝로 하였다. 일반잠수사는 잠수기구 양 옆에 더욱 넓고 더욱 깊은 해양을 상징하는 해마(海馬)를 부착하고, 그 크기는 높이 3.7㎝×폭 6.7㎝로 하였다. 감독잠수사는 일반잠수사의 모형 위에 흑색 별을 추가하고, 전체 높이를 4.2㎝로 하되 폭은 동일하였다. 약장은 일반잠수사의 모형 아래 '심해잠수사'를 새겨 넣었고, 폭 10㎝×높이 5㎝로 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10) 항공 휘장

초기의 항공휘장은 항공흉장이라 하여 조종(操縱)흉장과 정비(整備)흉장으로 분류하였다. 1963년 2월 14일, 해군본부 〈인사운영 제1020호〉로 국방부에 보고한 군인복제 부수 법규자료에 의하면, 항공흉장의 제식이 결정된 시기는 1963년 이전임을 알 수 있다. 상기 문서에 의하면, 조종흉장의 제식은 금속물에 금색으로 도금하여 부각면이 명확하게 하고, 해군을 상징하는 앵커를 세운 상태에서 창공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의 독수리 날개를 펴서 양쪽에 붙이고, 가운데에는 무궁화꽃을 넣어 대한민국을 상징하도록 하였다. 전체적인 크기는 양 날개의 최대 길이를 77㎜로, 앵커의 높이는 26㎜로 하였다.

정비흉장은 무궁화꽃 대신 톱니바퀴를 넣어 정비를 상징하도록 하였고, 나머지는 조종흉장과 동일하였다. 당시 이 흉장은 예식복·약정복 및 근무복 좌측 앞가슴 주머니의 선에서 1.5㎝ 떨어진 중앙부분에 패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1974년 9월 21일, 〈해본 작항 제261-1704호〉에는 조종사의 등급을 구분하여, 이 등급과정에서 생긴 조작사를 양성하고 그를 구분하기 위한 흉장을 신규로 제정할 필요가 대두되면서 항공흉장 전체를 세분화하였다. 흉장 구분은 조종사 흉장은 일반조종사·선임조종사·지휘조종사로 분류하였으며, 이외로 조작사와 정비사 흉장으로 나누었다. 일반조종사 흉장의 패용자격은 해군장교 중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항공기 조종사 요원으로서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그 자격이 인정된 자에 한하였다. 선임조종사 흉장의 패용자격은 일반조종사 흉장 패용자격자가 7년 이상 해군조종사로서 근무하였

거나, 2천 시간 이상 비행기록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되 항공기 안전사고가 없는 자에 한하여(단,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제외함) 패용하도록 하였다. 지휘조종사 흉장은 선임조종사 흉장을 패용한 자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와 3천 시간 이상의 비행기록을 갖고, 안전사고가 없는 자(단,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제외함)에 한하여 패용하도록 하였다.

조작사 흉장은 해군 장병 중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항공기 조작사 요원으로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그 자격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패용하도록 하였으며, 정비사 흉장은 해군 장병 중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항공기 정비장교 또는 정비사(사병)요원으로서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그 자격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패용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흉장의 패용은 예식복·정복·약정복·전투복 착용시 패용하였다. 당시의 흉장의 규격은 전체의 폭을 7㎝×높이 2.8㎝로 하였으나, 선임조종사는 앵커 위에 별 하나를 추가하여 별의 폭을 18㎝로 하고 전체의 높이를 4㎝가 되게 하였다. 지휘조종사의 흉장은 보통 별 대신 월계수가 감싸고 있는 모습의 별 모양을 달도록 하되, 그 크기는 선임조종사의 흉장과 같도록 하였다.

조작사 흉장은 앵커 중앙의 무궁화 대신 화살이 과녁을 꿰뚫은 모형을 넣었으며, 정비사 흉장은 종전의 제식에 일반조종사의 크기와 동일하게 하였다. 이후 1976년 4월, 이상의 흉장은 휘장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상기 제식은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으며, 패용방법은 고속정 휘장 패용방법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정비사 흉장(1962년~1974년)〉



조종사 휘장



선임조종사 휘장



지휘조종사 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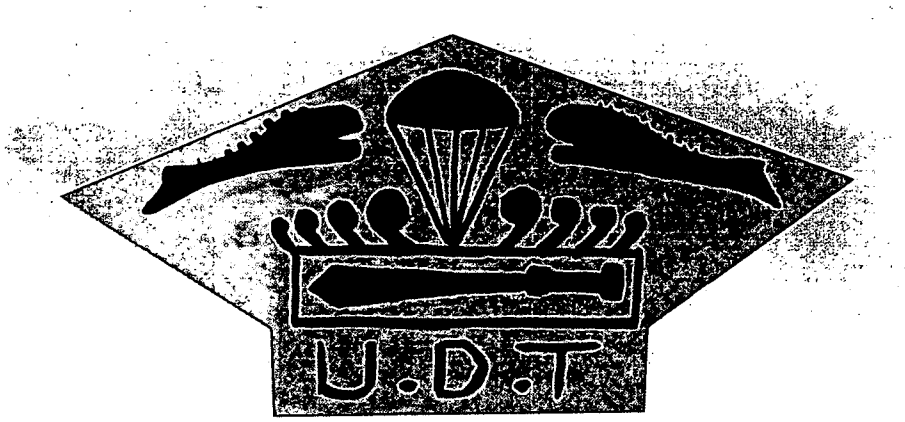
조작사 휘장

〈항공 휘장(1974년~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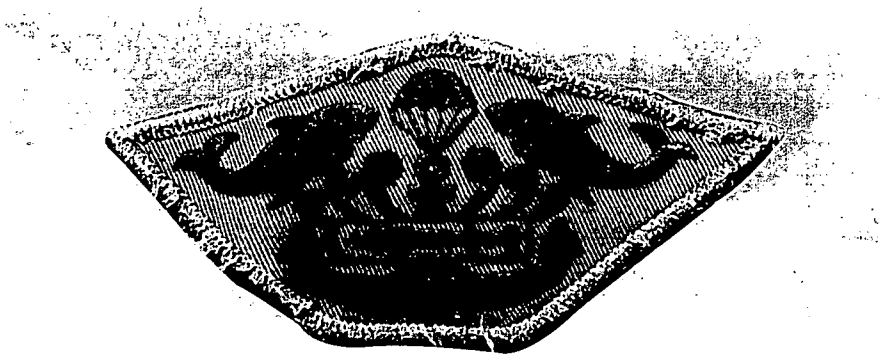
(11) 특수전대 휘장

현재의 특수전 휘장이 규정화되어 정식으로 패용되기 시작한 최초의 시기는 1969년 9월 5일, 함대사령부(함인인 제1020-1461호)의 수중파괴대(UDT) 흉장 패용 상신이 요청된 때이다. 그 이전에도 수중파괴대의 흉장이 제정되어 패용을 하였으나, 복제규정에 포함되지 않고 임시적으로 패용했던 것이다.

당시 수중파괴대는 해상·공수 및 지상작전 능력을 보유한 해군 유일의 특수부대였기에 이를 상징하는 표기를 흉장에 새겨 넣었다. 중앙의 낙하산은 공수낙하 기능을 나타냈으며, 낙하산 양쪽의 돌고래는 '바다의 왕자'라는 의미를 띠고 있었다. 돌고래 바로 밑부분의 용솟음치는 파도는 수중작전 파괴시의 물기둥을 상징하였으며, 바로 밑의 칼은 유격전을 상징하고, 바로 아래는 영문으로 U.D.T.라고 표기하였다.



〈특수전대 휘장 ①(1969년~1973년)〉



〈특수전대 휘장 ②(1974년~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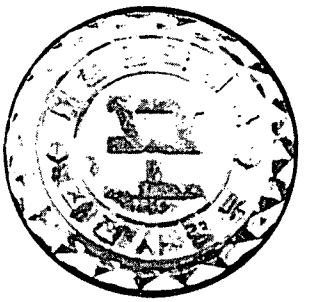
전체적인 휴장의 모형은 부채꼴로 국방색 천에 흑색 실로 수를 놓았으며, 크기는 돌고래 양측면 사선의 길이를 5cm로 하고, U.D.T.라는 글씨와 돌고래 꼬리 부분까지의 길이를 4.5cm로 하였다. U.D.T. 영문 글씨의 규격판은 세로를 1cm로 하고, 가로는 3.5cm로 하였다. 이 휴장은 정복·근무복 또는 전투복 위에 패용하였으며, 위치는 좌측 앞가슴주머니 윗 선에서 1.5cm 떨어진 중앙부분으로 하였다. 패용 자격은 해군의 수중파괴대 정규과정 수료자와 미 해군 수중파괴대 정규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부여하였다.

이후, 1975년 3월 24일, 〈함인인 제244-522호〉에 의거 일부 변경하여, 맨중앙에 해군을 상징하는 앵커를 배치하고, 그 위에는 유격전 의미의 칼을 두었으며, 칼 아래

의 U.D.T. 영문은 삭제하였다. 규격도 변경되어 낙하산의 폭은 낙하산 중앙에서 사선으로 돌고래 꼬리 부분까지 6㎝, 돌고래 꼬리 부분에서 앵커방향으로 사선 길이는 5㎝로 하였다. 앵커의 전체 폭은 5㎝, 칼이 담긴 직사각형 폭은 3.5㎝, 칼의 폭은 3㎝로 하였다. 이 휘장은 고속정 휘장 패용방법과 동일하고, 흉상에서 휘장으로서의 명칭은 1976년 4월의 규정 개정시 변경되었다.

(12) 필승사격 합격함(정) 휘장

필승사격 합격함(정)장 휘장은 승조원의 사격술을 향상시키고, 사격의 중요성과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1989년 10월 6일, 참모총장의 구두지시와 〈작사 인계 제152-6880호(1989년 10월 27일)〉의 필승사격 합격함(정) 휘장 패용규정 승인 요청에 의거 제정되었다. 이 휘장은 필승사격 평가에 합격한 함(정)장에게만 패용하도록 하였으며, 패용기간은 필승 사격평가 합격시부터 차기 평가 불합격시까지로 하고, 함(정)장의 교대가 있을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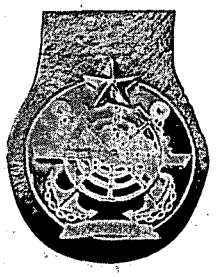
〈사격 휘장(1989년～현재)〉

휘장 제식은 중앙에 금색으로 도금된 0.7㎝ 폭의 '포'자를 중심으로 원형을 만들고, 원형 양쪽 중앙부에 해군 앵커를 넣었으며, 상부에는 '대한민국해군'이라는 글자를, 원형 아래부분에는 '작전사령부'라는 글자를 금색으로 도금하고, 바깥 부분에는 직선과 사선을 이용한 무늬를 두었으며, 내부원의 높이는 1.7㎝, 외부원의 높이는 2㎝로 하였다. 패용시 위치는 근무복의 좌측 주머니 뚜껑 중앙이다.

(13) 우수사수 휘장

우수사수(優秀射手) 휘장은 견적필멸(見敵必滅)의 감투정신을 배양하고, 백발백중의 우수한 사격술 향상과 연구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동일 구경(口徑) 포(砲)간의 연간 포술(砲術)경쟁을 통하여 우수사수를 선발하고자 1976년 2월 2일, 우수사수 흉장 패용제도의 요청이 있었고, 동년 동월 13일, 해군본부 〈인근 제244-749호〉에 의거,

함대사(艦隊司)의 자체 운영규정으로 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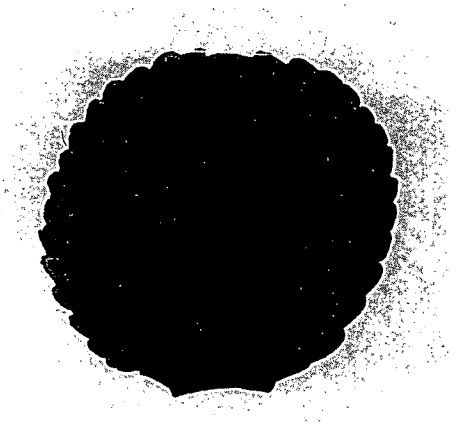
〈우수사수 휘장(1976년~현재)〉

이 휴장의 패용자격은 우수사수로 선발된 함정의 포술장·포대사수 및 선회수에게 한하며, 정복과 전투복 상의 좌측주머니 단추 하단부 중앙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휴장의 제식은 금속제 원형 바탕에 해군을 상징하는 앵커를 교차시켜 위치시키고, 조준환(照準環)을 교차된 앵커에 겹치도록 함과 동시에 원형 중앙부분을 가로질러 구축함을 배열하였다. 그리고 원형 중앙 상부에는 별을 위치시키고, 앵커 아래 중앙부분에는 '우수사수'라는 글자를 써 넣었다. 닻과 구축함은 금색, 별은 은색, 조준환 및 '우수사수'라는 글자는 금색으로 하였으며, 조준환 내부는 홍색, 외부는 바다색을 입히고, 전체적인 크기는 폭 3㎝×높이 3.5㎝로 하였다. 휘장의 패용방법은 고속정 휘장 패용방법과 동일하다.

(14) 모범운전사 휘장

모범운전사 휘장은 차량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질서 의식을 확고히 함으로써 교통안전 업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모범운전사가 패용하는 것으로서, 1963년 9월 3일, 해군 예식복제위원회에서 의결되어 〈해본 인사운영 제1020호〉에 의거, 패용하게 되었다. 당시의 휘장 제식은 휘장의 중앙에 '◯'자형을 배열하여 안전의식을 상징하도록 하였으며, 십자형을 감싸고 위로 솟는 'V'자는 안전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옆으로 배열된 앵커는 해군을 상징하였다. 맨 바깥 부분의 월계수는 모범운전자에 대한 '영예'를 나타냈으며, 월계수 사이의 상층부 중앙에는 신호등 표시를 하였다. 신호등 표시 바로 밑에 '해군'이라는 글자와 맨아래 월계수를 받치는 리본형틀 안에는 '모범운전사'라는 글자를 새겼다.

당시 휘장은 1년에 4만km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는 동(銅)휘장을, 동휘장을 2회 수상 대상시는 은(銀)휘장을 수여하도록 하였고, 정복착용시는 상의 왼쪽 주머니 선 중앙으로부터 0.5㎝ 떨어진 곳에 패용하고, 근무복 착용시는 상의 왼쪽 주머니 계급장 바로 밑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휘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 3.5㎝로 하였다.



1963년~1964년　　1964년~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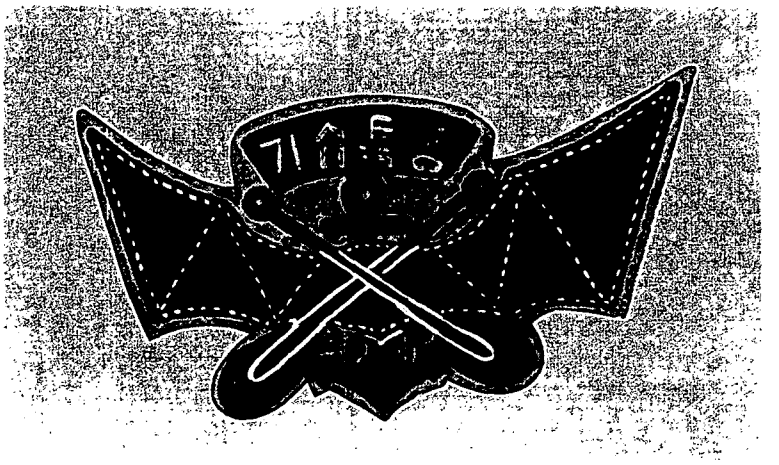
〈모범운전사 휘장〉

이후 1964년 5월 18일에 휘장을 개정하도록 건의하여, 해군 앵커를 중앙에 배치하고 이를 평화를 사랑하는 비둘기가 감싸며, 주위는 월계수로 감싸는 형태를 모형으로 하였다. 면 위에는 '○'자형 안전마크를 넣고, 아래부분에는 리본형틀 안에 '모범운전사'를 표기하였다. 개정된 휘장도 그 종류를 종전과 같이 동휘장·은휘장으로 구분하였으나, 동휘장의 패용자격을 바꿔서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하고, 은휘장은 동휘장 수여일로부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수여기준을 바꿨다. 또한 크기도 폭 3㎝×높이 4.3㎝로 수정하고, 패용방법도 고속정 휘장 패용방법과 동일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5) 상륙기습 특공 휘장

해병대의 상륙기습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원들에게 패용시키기 위한 상륙기습 특공 휘장은 1973년 9월 14일, 〈인근 제086-1652호〉로 최초로 그 제식을 결정하여 패용하도록 승인되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관련자료가 없어 그 당시의 제식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그후 1975년 3월 28일, 제1사단 〈인근 제244-1764호〉에 상기 휘장의 개정을 건의한 자료를 통해 본 제식은 다음과 같다.

휘장의 중앙부분에는 해군을 상징한 앵커를 배치하고, '노'를 교차시켜 앵커 중앙부분을 통과하였으며, 외곽은 '야음'을 상징하는 박쥐가 비상하기 위해 날개를 펴고



〈특공 휘장(1975년~현재)〉

있는 것을 상징하였다. 앵커고리 윗부분에는 '기습특공'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다. 녹색 바탕에 흑색으로 자수하였으며, 크기는 가로 6.5㎝×세로 4㎝가 되게 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휘장은 종전 휘장의 제식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나, 바탕을 전투복의 복지색 바탕으로 바꾸었고, '기습특공' 글자를 적색으로 자수하도록 하였으며, 기타는 종전과 같이 흑색으로 자수하였다. 크기는 세로는 4㎝ 그대로 하였으나 가로만 7㎝로 넓혔다. 이 휘장의 패용방법은 고속정 패용방법과 동일하다.

(16) 상륙수색 휘장

상륙수색 휘장은 해병장병 중 해병 수색대 교육 이수자에게 수여한 휘장으로, 최초의 제정시기는 현 자료로 파악이 어렵다. 다만, 1974년 8월 28일, 〈해본 인근 제244-4052호〉 해군의 표지장 자료 확인에 따른 국방부 보고문서로 그 제식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제식은 상어를 타고 있는 수색요원을 중심으로 원을 그려서 윗면에는 '해병수색대'라는 글씨를 새겼으며, 아래부분에는 상륙수색 의미의 영어 약자(略字)인 'AMPH RECON'이라고 표기하였다. 크기는 가로 9㎝×세로 6㎝로 하고, 전투복 천에 색상 자수를 하였으며, 원의 내부는 청색으로, 글씨는 모두 황색으로 자수하였다. 또한 사람과 상어는 모두 흑색으로 하였으나, 수색요원의 뒷면 산소호흡기는 황색으로 하였다. 원 안쪽의 내면은 백색으로 하여 부각면을 뚜렷이 하였다.



1970년대



1970년대 ~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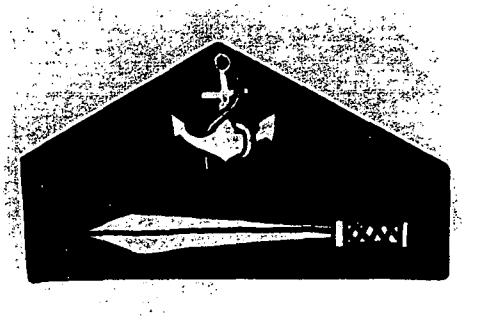
〈상륙수색 휘장〉

이 휘장의 패용은 금속제는 예장 및 정장의 상의 좌측 호주머니 중앙에 패용하도록 하고, 포제는 전투복에 같은 요령으로 패용하였다. 이후 이 제식은 일부 변경되어, 현재는 다양한 색상으로 원 내부를 청색으로 하고, 모든 글씨를 금색으로 하였다. 또 상어와 수색요원은 회색, 상어입 주변은 적색, 상어배는 분홍색, 산소호흡기와 마스크는 황색, 사람은 흑색 등으로 구분을 뚜렷하게 하고 있으며, 크기도 일부 조정되어 가로 1㎝×세로 6㎝가 되게 하였다. 패용방법은 고속정 휘장 패용방법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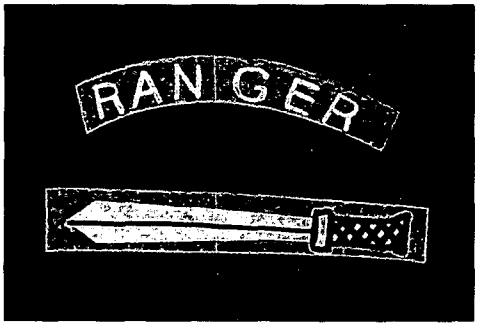
(17) 유격훈련 휘장

유격훈련 휘장은 1969년 9월 5일, 함대사령부의 건의(함인인 제1020-1461호)에 의거, 최초로 그 제식이 결정, 규정화되었다. 이 휘장은 해군장병으로서 소정의 유격훈련을 이수한 자에게 패용하도록 한 것으로, 직사각형 모형에 위에는 삼각형의 형태를 이루었으며, 해군을 나타내는 앵커를 중앙에 위치시키고, 그 아래는 유격훈련을 상징하는 '칼'을 그렸다. 전체의 색상은 국방색을 바탕으로, 앵커와 칼은 흰색으로 자수하였으며, 칼자루에는 X선의 검은 색 실로 수를 놓았다. 크기는 전체 가로를 7cm, 칼의 길이는 5.5cm로 하였고, 총 높이는 4cm였으며, 삼각형의 높이는 2cm로 하였다. 이 휘장은 정복·근무복·전투복 상의 좌측 주머니 윗선에서 1.5cm 떨어진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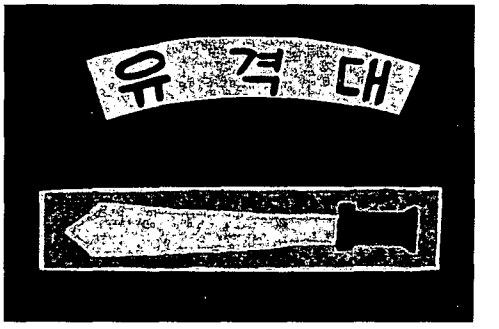
이후 이 제식이 변경되어, 1974년 8월 28일, 〈해본 인근 제244-4052호〉로 국방부에 보고한 자료에 의한 제식은 사각형 모형으로 그 형태가 바뀌고, 앵커 대신 영문으로 'RANGER'라 표기하였으며, 그 아래는 칼을 배치하고, 주위는 앵커 체인을 두르고



1969년~1974년



1974년~1980년



1981년~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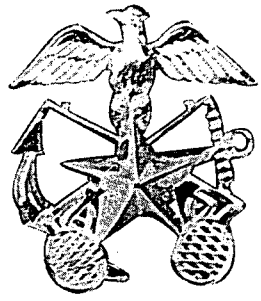
〈유격대 휘장〉

있었다. 이 휘장은 전투복 바탕에 적색과 황색으로 자수하였는데, 'RANGER'라는 글씨는 적색 안에 황색으로 자수하였으며, 칼은 적색 □ 안에 황색으로 체인과 같이 수를 놓았다. 이 당시 패용요령은 예장 및 정장용은 금속제를 사용하였으며, 기타 전투 및 근무복에는 포제 휘장을 사용하여 모두 상의 좌측 주머니 위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크기는 가로 6.5㎝×세로 4.5㎝였다.

이후 또다시 제식이 변경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휘장은 종전과 거의 동일한 제식에, 'RANGER'를 '유격대'로 바꾸고, 국방색 바탕천에 흰 바탕의 모형에 흑색으로 '유격대' 글씨를 자수하였으며, 칼은 적색바탕의 □ 모형에 백색으로 띠를 두르고, 칼의 외곽은 흰색으로, 칼자루는 흑색으로 자수하였고, 크기는 종전과 같이 동일하였다. 이 휘장의 패용요령은 고속정 휘장과 동일한 요령이다.

(18) 헌병 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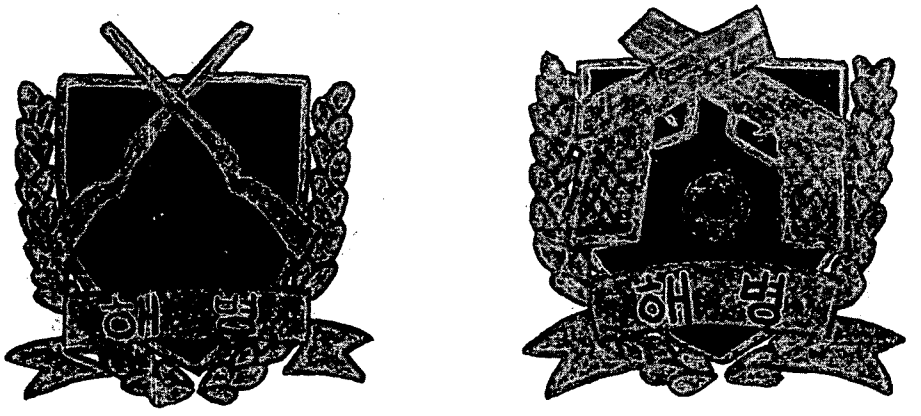
헌병휘장은 상륙병과 헌병장병들이 헌병으로 발령된 후에 착용하였다. 이 휘장은 1974년 8월 28일에 해군본부에서 〈인근 제244-4052호〉로 국방부에 보고한 해군의 표지장 현황에서 그 제식이 확인된다. 해군을 상징하는 앵커를 중앙에 위치시키고, 권총을 교차시켜 앵커 중앙에 오도록 하고, 그 중앙부분에 별을 그리고, 상부에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좌측을 바라보는 모형이다. 금속을 은색으로 도금하였으며, 장교용은 각 구분을 5㎜ 정도 약간 크게 하여 모든 복제(단, 사복은 제외함)의 좌·우 깃에 장병 공히 패용하도록 하였으며, 전체적인 크기는 가로 2.8㎝×세로 3㎝로 하였다. 이후 이 제식은 현재에도 거의 같은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패용방법 중 사병은 변동이 없으나, 장교는 좌측 상의의 깃에만 패용하도록 하고 있다.



〈헌병 휘장(1970년대~현재)〉

(19) 사격 휘장

사격휘장은 소총과 권총휘장으로 구분되며, 공인기록사격 1등 이상 합격자에게 수여



〈사격 휘장(1974년~현재)〉

하는 휘장이다. 사격휘장의 제식은 1974년 8월 28일에 해군본부 〈인근 제244-4052호〉의 해군의 휘장 현황 국방부 보고자료에서 확인된다. 소총 휘장은 휘장의 한가운데 과녁표를 위치시키고, 그 아래는 리본형 모형에 '해병대'라는 글씨를 써넣고, 과녁 상단은 소총으로 교차시켰으며, 방패모형의 외곽에는 승리를 표시하는 월계수로 감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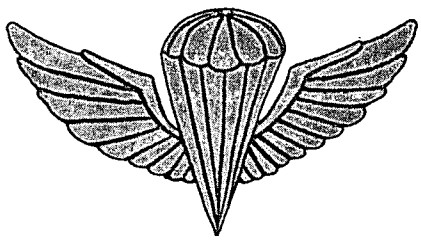
권총 휘장은 소총 휘장의 제식과 동일하였으나, 소총 대신 권총을 교차시켜 배치한 것만이 달랐다. 당시의 전체적인 색상은 방패모형은 적색으로 하여 흑색으로 과녁을 표시하였다. 전체의 크기는 가로 2.5㎝×세로 3㎝이고, 금속제로 부각면을 뚜렷이 하였다. 패용요령은 모든 제복의 상의 좌측 주머니 위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변경된 사격휘장은 종전제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해병대'를 '해병'으로 표기하였으며, 크기는 가로 2.5㎝×세로 3.5㎝로 종전보다 0.5㎝ 크게 하고, 패용 요령은 사병 철제 계급장과 동일하게 하였다.

(20) 공수 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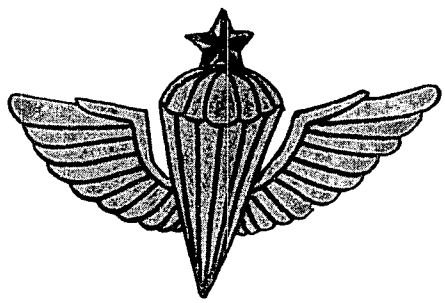
공수휘장은 해군의 기본공수교육 및 타군 기본공수교육을 이수한 장병에게 수여한 것으로, 1974년 8월 20일의 해군본부 〈인근 제244-4052호〉에 그 제식이 수록되어 있다. 당시의 공수휘장은 기본공수 휘장만 표시되어, 국방색 바탕에 금실로 자수된

포장으로 주로 작업복의 좌측 주머니 위 중앙에 패용하였으며, 금속제에 금색으로 도금된 휘장은 예장과 정장의 좌측 주머니 위 중앙에 패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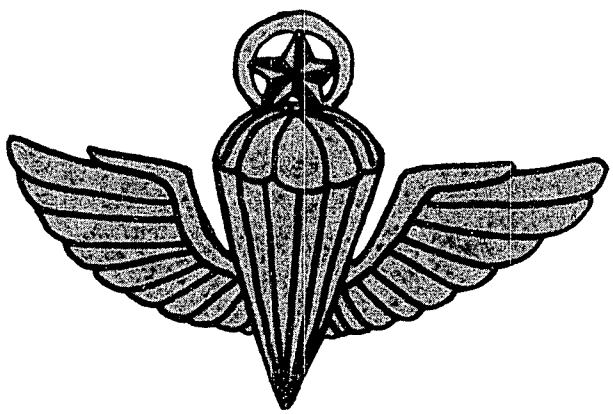
당시의 제식은 낙하산을 중앙에 배치시키고, 창공을 웅비(雄飛)하는 독수리의 편 날개만을 양쪽에 배치한 것으로, 가로 6.5㎝×세로 4㎝로 하였다. 이후 이 제식이 변경되어, 낙하기본 휘장·낙하조장 휘장·낙하선임조장 휘장으로 공수휘장의 종류를 세분화하였다.



낙하기본 휘장



낙하조장 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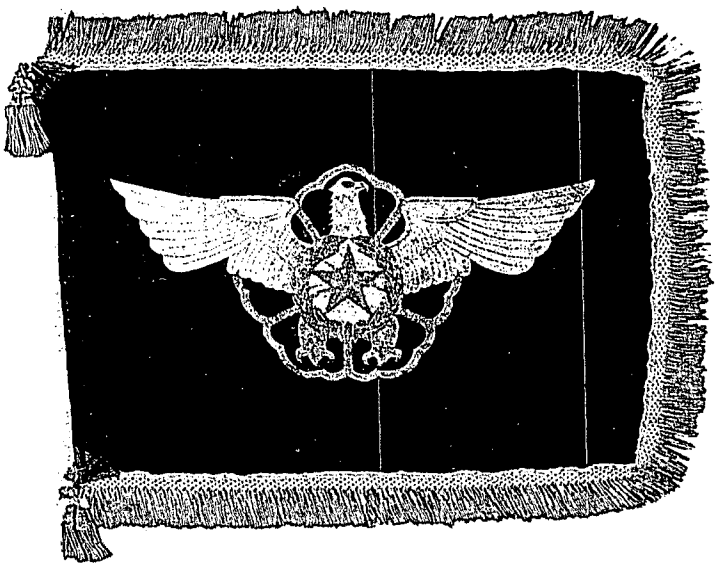


낙하선임조장 휘장

〈공수 휘장〉

전투복지 또는 복지색 바탕에 금색으로 자수하였고, 낙하기본 휘장은 최초의 기본공수 휘장과 같은 색상에, 크기만 가로를 7㎝×세로 4㎝로 하고, 낙하산의 편 모양 폭을 1.5㎝로 하였다. 낙하조장 휘장은 낙하산 위에 별을 하나 추가하여 높이를 4.5㎝로 하고, 낙하선임조장 휘장은 낙하산 위의 별을 월계수잎으로 원형으로 감쌌으며, 크기는 조장 휘장과 동일하게 하였다. 이 휘장의 패용방법은 고속정 휘장 패용방법과 동일하다.

第 3 篇
空　　軍



空　　軍

하늘을 전장(戰場)의 1개 공간(space)으로 운용한다는 의미로서 공군을 생각한다면, 공군의 시초는 1880년대에 유럽의 다수국가들이 정보 습득을 위해 조직한 기구대(氣球隊)를 그 시초로 볼 수 있다. 당시 기구대는 아직 독립된 부대로서 행동하지는 못했으며, 공병(工兵)에 예속되어 공병의 제복을 입었다.(미국의 경우 1907년에 통신병과에 예속되어, 항공부서를 설립하고, 통신 제복을 착용하였다.)

1903년, 라이트형제(Wright brothers)의 최초의 동력비행(動力飛行)은 과거 기구가 지니고 있던 착륙지점 오류 등의 단점에 의한 공격용 도구로서의 이용 불가능을 단숨에 바꾸어 버렸고, 이로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까지 약 11년 동안 비행기는 전투무기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최초의 항공기들은 전서구(傳書鳩)가 수행했던 통신임무를 대신하였고, 기병대의 정찰임무를 대치하였으며, 포병의 사격에 대한 수정지시나 화력효과 확인 등의 목적에 주로 사용되었다. 항공장교들이 지상작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활동을 요구하게 되면, 비행기의 폭음이 기병대의 말들을 놀라게 하여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간단히 거절당하기도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오로지 정찰만을 위해 사용되었던 정찰기의 역할에서 전투기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은 비행사나 탑승한 정찰병에 의해 기관총 사격이 이루어지면서부였다.[1] 그러나 당시의 무기발달 수준과 항공기의 기술적 결함 등으로 인해 비행기의 프로펠러 회전반경 바깥쪽에 탄환을 발사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프로펠러에 강철판을 부착하여 탄환이 빗겨 통과하도록 하는 방편도 나왔으며, 탄환 발사속도와 프로펠러의 회전속도를 조정하여 탄환이 회전하는 날개 사이로 지나가도록 하는 방법 등이 고안되었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관측기·전투기·폭격기 등의 3가지 군용기가 발달해 나가고 있었다.

그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날으는 부대'는 육군과 동등한 군대 구성조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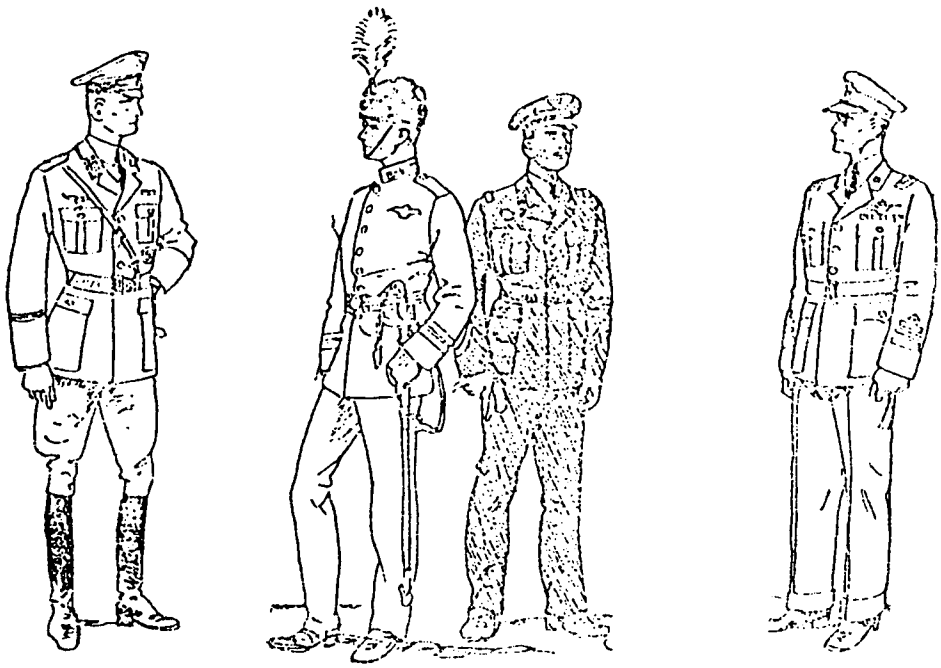
---

1) 비행기에 무장력이 장착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쌍방간의 공중전도 있을 수 없었다. 서로 접근이 이루어지면 손을 치켜들어 욕질만을 할 수밖에 없었다. 최초의 공중전으로 기록된 것은 1914년 8월말, 영국 공군기들이 1대의 독일 공군기를 만나 공중에서 마치 소를 몰듯이 포위하여 강제로 착륙시켜 이를 붙태운 사건이었다.

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그 첫 경우가 1918년 영국에서 육군항공대가 독립적인 공군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도 공군이란 독립군을 창설하였고, 육군의 제복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제복을 고안하여 입혔으며(다만, 이때까지도 일부 국가들에서는 육군의 공병 제복을 계속 입고 표지만으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 가까워지면서 각국의 공군 제복은 상당한 유사성까지 지니게 되었다. 특히 공군의 제복은 공군의 역사 자체가 짧았던 관계까지 가미되어 전통성을 지니기 보다는 가장 현대적 의복 추세에 따랐고, 또한 실용적이 되었으며, 이 결과 가장 멋들어진 군대복장이 되기도 하였다.

공군복장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영국식 복장이었다. 4개의 버튼식 시민형의 재킷을 입고 가슴과 바지에 커다란 주머니를 달고, 바짓가랑이가 긴 것을 접어 올리고, 턱끈과 앞 차양이 있는 모자를 착용하였다.



독일 장교복　　영국 장교복　　프랑스 하사관복　　이탈리아 장교복

〈1936년의 공군 복장〉

第 1 章　創軍 前後의 軍服飾

第 1 節　創軍 以前의 空軍 狀況

우리 나라에서 공군력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노백린(盧伯麟 : 1826~1926)[2]이다. 그는 "제공권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독립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 앞으로의 승리는 하늘을 지배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독립전쟁에서의 공군력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장병훈) (오임하) (이용선) (노백린) (이초)　(이용근) (한장호)

〈한국 최초의 비행가 6인〉〉

2) 독립운동가. 일본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육군 正領에 임명되어 官立武官學校의 교장을 역임하였으며, 1907년에 安昌浩 등과 新民會를 조직, 국권회복을 위하여 활약했다. 이 해 군대가 해산당하자 고향에 내려간 후 1914년에 하와이에 건너가 國民軍團을 창설,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上海로 가서 임시정부의 軍務總長을 지낸 후, 1920년에 다시 캘리포니아에 가서 비행사 양성소를 설립하여 비행사를 양성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항일운동에 종사하다가, 다시 상해로 돌아와 활약 중 病死했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노백린 군무총장을 중심으로 비행대 창설과 항공기 구입을 목표로 노력하던 중 재미교포 김종림의 재정 후원으로 1919년 초 미국 캘리포니아 윌로우쓰 지방에 비행기지를 건설하고, 미국에서 비행훈련을 이수한 한국인 최초의 비행사 장병훈(張炳勳)·오임하(吳林河)·이용선(李用善)·이초(李超)·이용근(李用根)·한장호(韓章鎬) 등 6명을 한인비행학교(韓人飛行學校)의 비행교관으로 임명하여, 1920년 1월, 한국인 비행학생 15명을 선발, 독립군 조종사를 양성하였다.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함께 미 군정청(軍政廳)이 한시적인 통치를 하게 되었을 때 군정청 내에 국방사령부가 설치되었으나, 사령부안에 차후 대한민국의 공군으로 발족 창설할 수 있는 기구는 없었다. 이에 광복 전에 이미 국내·외에서 항공계에 종사하던 항공인들이 뜻을 모아 공군 창설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항공계 인사들이 착수한 첫 단계는 항공관계 조직체를 창설하여 후일에 대비하는 일이었다. 1946년 3월 15일, 김광한(金光漢)이 중심이 된 중앙활공연구소(中央滑空研究所)를 시작으로, 동년 3월 20일에는 안동혁(安東赫)이 조선학생항공연맹(朝鮮學生航空聯盟)을 결성하였으며, 특히 같은 날인 3월 20일, 군출신 항공인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항공기술연맹(朝鮮航空技術聯盟)이 창설되었다.

이상의 단체들은 항공인들의 규합과 항공사상의 보급을 위하여 상호 연락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1946년 7월 26일에 거행된 재중국(在中國) 항공인 귀국환영대회에서 항공단체 통합 준비위원회 결성을 결의하고, 동년 8월 10일, 서울 종로에서 한국항공건설협회(韓國航空建設協會)를 창립하여 국방의 일익을 담당할 공군창설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 이 협회는 미 군정청이 미식 훈련 이수를 요구하면서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의 병(兵) 훈련과 사관학교로의 입교 제의를 받아들여, 김정렬(金貞烈)[3]·최용덕(崔用德)[4]·박범집(朴範集)[5]·장덕창(張德昌)[6]·이근석(李根

3) 일본군 항공대 연대장 역임. 일군 항공대위. 비행시간 2,000시간 以上者. 초대 및 제3대 참모총장을 역임하였으며, 공군 창설 초기 항공기 헌납운동을 전개하여 국민성금으로 1950년 5월 14일, T-6 항공기 10대를 구입하는 등 공군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4) 중국공군의 基地司令官. 비행시간 2,000시간 以上者. 제2대 참모총장을 역임하였고, 공군력 확장을 위해 전투기 지원·국산항공기 부활호 제작 등 공군력 증강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空軍歌·空士校歌의 작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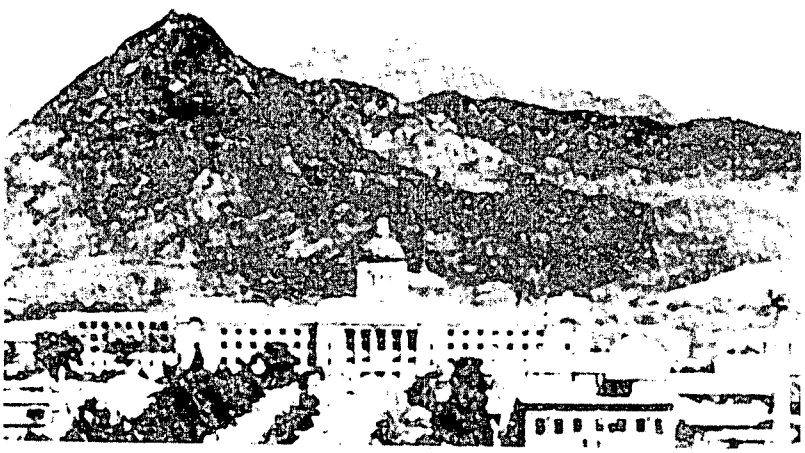
5) 일본군 비행정비대대장 역임. 1949년 6월, 초대 항공국장 및 참모부장을 역임하였으며, 공군 창설에 심혈을 기울였다. 6·25전쟁시 T-6로 작전임무를 수행하다가 함흥 상공에서 전사.

6) 비행시간 9,820시간. 광복 직전 전 일본에서 비행시간 순위 제3위. 제4대 참모총장을 역임하였으며, 한국공군 최초로 10,000시간의 비행기록을 돌파한 전투기 조종의 달인.

哲)[7] · 김영환(金英煥)[8] · 이영무(李英茂)[9] 등 7명을 입교시킴으로써 항공부대 간부로서 차후 정식으로 항공부대를 창설할 수 있는 기본 틀 마련에 나섰다.

이러한 항공인들의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보기 시작하여, 1948년 5월 5일에는 인가병력 105명으로 수색에 항공부대가 창설되었다. 7월 27일, 항공부대는 항공기지부대(航空基地部隊)로 개편하고, 한 · 미합동근무를 하는 한편 비행기 획득에 노력하였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9월 8일, 미군으로부터 L-4 연락기 10대를 인수하였고, 항공기지부대가 경비행기 10대를 보유하게 되자, 9월 13일, 항공기지부대는 항공기지사령부로 개칭하면서 김포비행장 내로 이전하였으며, 다음 다음 날인 15일, 10대의 비행기로 한국역사상 최초로 서울 상공에서 전시비행을 실시하였다.



〈L-4 서울 상공 展示 비행〉

---

7) 전투기 조종사. 중·일전쟁에서 18대, 태평양전쟁에서 5대 도합 23대를 격추시킨 전투기 조종의 달인. 한국공군 최초로 전투비행편대를 지휘하여 적의 전차를 공격하던 중 被彈되자 敵戰車에 자폭하여 전사.

8) 김정렬의 동생. 당시 통위부 정보국장 대리직 수행.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머플러를 처음으로 착용함.

9) 중국공군 출신. 비행시간 2,000시간 以上者.



〈공군 창설 보도기사〉

항공기지사령부는 이로부터 기구확장·병력증원·비행기 보유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국군조직법에 의한 공군이란 별도의 독립 군으로 발전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성숙이 되지 못하였다. 한국에서 시급한 문제는 경제적 발전이 우선이며, 공군독립은 육군이 충분히 성장한 뒤에 논의할 문제라는 미 고문단 측의 반대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으며, 당시 육군 참모총장 채병덕의 공지(空地)협동작전면에서의 반대도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공군독립의 기운은 무르익어 1949년 6월 28일, 육군본부에 항공국(航空局)을 설치하게 되었고, 동년 10월 1일, 항공사령부는 1,600명의 병력과 20대의 연락기로 육군에서 분리되어 마침내 공군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었다.

第2節 空軍과 6·25戰爭

1. 空軍 創設과 6·25戰爭

가. 空軍 創設

1949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254호 : 공군본부 직제〉에 의하여 공군본부가 설치되고, 인사국·정보국·작전국·군수국의 4개 일반참모부 및 고급부관실·재무감실·법무감실의 3개 특별참모부가 개설되었다. 아래에 주요 내용을 발췌 수록한다.

○ 공군본부직제

대통령령 제254호

1949. 10. 1. 공포

제1조 : 공군본부는 항공에 관한 기획·교육·기술·정비·행정 및 인사의 기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 공군본부에 공군참모총장을 두고, 그 밑에 인사국·작전국·군수국 및 다음의 각실을 두고, 필요에 따라 헌병감실·감찰감실 및 의무실을 둘 수 있다.

고급부관실

법무감실

재무감실

제3조 : 공군총참모장은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공군본부를 통리(統理)하여 산하 공군 각 관아·학교와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제5조 : 인사국은 공군 군인·군속의 보임·상훈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제6조 : 정보국은 항공정보·첩보 및 대공감시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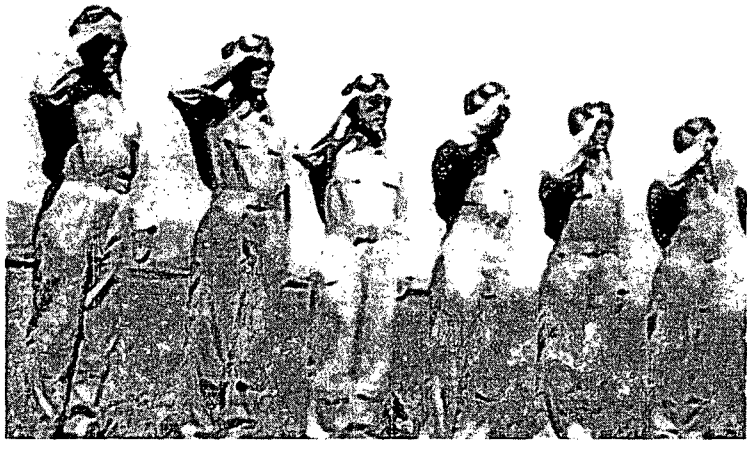
제7조 : 작전국은 공군의 운용·작전·교육·편제·장비 및 동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 : 군수국은 공군병기와 군수품의 조달·보급의 기획·통제와 감독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공군은 예하부대를 개편 또는 신설하여 육군항공학교는 공군사관학교로, 비행부대는 비행단(飛行團)으로, 항공기지부대는 항공기지사령부로, 여자항공교육대는 여자항공대로 각각 개편하고, 공군병원과 보급창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공군은 여수·순천 10·19사건이 발생하면서 전투장비를 갖추지 못한 연락기만으로서는 현대전의 특성인 입체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을 절감하기에 이르렀고, 특히 북한공군이 이미 전투기 20대를 보유한 상태에 소련에서 야크전투기 도입을 위하여 평양에서 전투기에 대한 비행훈련을 한다는 정보가 확실하여지고 반면 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지자 강력한 항공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공군의 항공기 확보문제는 미국의 대한군사력 양성계획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일본을 통한 구입도 실패하였으며, 결국 애국기헌납운동(愛國機獻納運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다음은 애국기헌납운동의 취지문 내용이다.

북한집단의 발악과 이를 조종하는 공산독재세력의 분쇄를 위하여는 국방의 충실이 급선무이며, 국방의 충실은 항공세력의 확충에 있다. 지난(1949년) 9월 15일 제1회 항공일에 통절히 느낀 바는 조종사의 기술에 비하여 항공기가 너무나 빈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항공세력으로서는 국가안전을 기할 수 없으므로 항공기헌납운동을 제창하여 외국의 원조나 애국심에 호소하기 전에 전 국회의원과 공무원이 솔선하여 소정의 목표액을 달성하고자 한다.



〈건국기를 조종한 조종사 복장〉

모금운동은 목표액 10대분 2억 원을 넘어 3억 5천만 원이라는 성공을 거두었고, 0.5″ 기관총 2정이 부착된 캐나다제(製) T-6 10대가 1950년 3월 이후 도착되었다. 동년 5월 14일, 구입된 T-6기는 '건국기(建國機)'로 명명되었다.

나. 6·25戰爭과 空軍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무력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공군은 병력과 장비 등의 열악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초기 항공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남·북한 공군력 비교는 아래 표와 같다.

남·북한 공군력 비교(1950년 6월)

	북 한 군		국 군	
병 력	2,000명		1,897명	
장 비	YAK-9 전투기		L-4	8 대
	IL-10 전투기		L-5	4 대
	IL-2 전투기		T-6	10대
	연습 및 정찰기		계	22대
	계	211대		

공군은 L-4·L-5·T-6 등 겨우 22대의 경비행기뿐이었지만 오직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신념과 투지로서 지상군 지원 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1950년 7월, F-51 전투기가 도입된 이후 공군은 UN공군과 합동으로 낙동강 방어선의 후방차단작전을 감행하였으며,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따라 지상군이 총반격을 가하게 되자, 공군도 평양 미림(美林)비행장까지 전진하였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비행단을 제주도로 이동시켰다. 그후, F-51 전투기의 증가와 전술전기(戰術戰技)의 향상으로 1개 전투단위부대를 강릉기지로 전진 배치하여 최초의 한국공군 단독작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 및 후방보급로 차단작전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공군은 단독출격작전을 개시한 이래 적 후방 보급로차단작전에

5,003회, 공지합동작전 2,851회의 출격을 수행하였고, 출격조종사 총 115명 중 100회 이상 출격조종사 39명을 배출하게 되어 출격횟수에 있어서 참전 전 UN공군 중 엄호율 90%라는 좋은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애석하게도 28명의 전투조종사가 적지 상공에서 장렬히 산화하였다.

2. 1948年~1953年間의 空軍 服飾

공군의 복식은 공군의 초기 출발 자체가 육군의 항공대로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복식제도면에서 육군과 흡사한 부분이 많다. 수색에서 항공부대가 창설되었던 1948년 5월에 착용한 복식은 육군 복장 그대로였으나, 공군이 독립한 1949년 10월에 공군복제가 제정되어 종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공군으로 독립된 후에도 사병의 복장은 육군복장의 형태와 같았으며, 동복과 모자의 색만 곤색 모직(차양 및 턱끈은 흑색 비닐)으로 달리하여 착용하였다.

가. 將校 正服

장교의 동정복은 모직으로, 연한 회색에 허리띠를 두른 상의와 흰색 와이셔츠에 감색 넥타이를 매고, 하의는 진한 국방색이었다. 조종·정비·통신의 주요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요원은 흉장을 좌측 가슴에 패용하였으며, 기타 공군장교는 흉장을 부착하지 않았다. 하정복은 혼방으로 동복과 제식은 같고, 재질로 구분하였으나, 1952년도에 은회색 모직 또는 혼방으로 상·하가 똑같이 제식되었다. 그후 1952년 초에 복제규정의 제정에 의거, 장교 동정복은 다음과 같이 변하였다.

나. 將校 略正服

장교 약복은 넥타이를 매고 아이크 점퍼를 착용한 복장이다. 이때 모자는 정모 또는 약모를 착용할 수 있었다. 하절기의 경우 동약복과 다른 점은 넥타리를 풀고 와이셔츠 칼라를 점퍼 밖으로 내놓으면 하약복이 되었다. 1952년 초에 제정된 약복은 미군식의 아이크 점퍼를 제거하고 와이셔츠형 곤색 모직 또는 혼방이었으며, 하약복은 은회색 면직 또는 혼방으로 노타이 반팔소매 카키복으로 하였다.



공군군사재 제16호
초창기 장교 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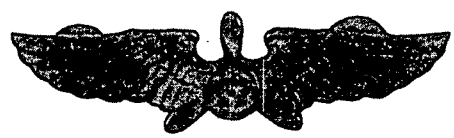


장교정복
1949년 10월 제정~195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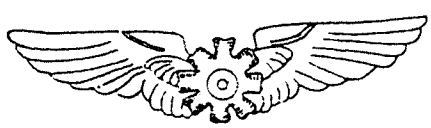


1952년~197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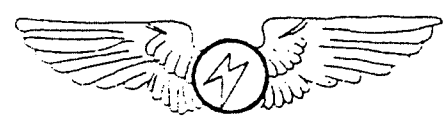
〈공군 창설당시 장교정복〉 〈장교 하정복〉



조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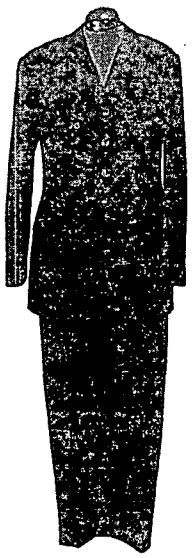


정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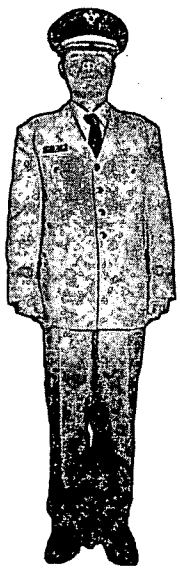


통 신

〈장교 흉장〉



동정복



하정복

〈장교 정복(1952년 제정)〉



정모 착용



약모 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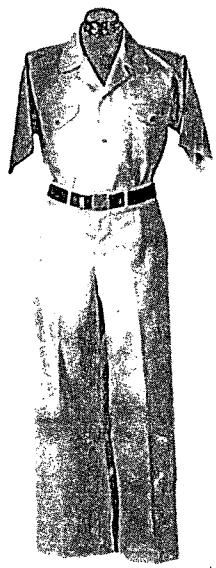
〈장교 동약복(1949년 10월 제정)〉



〈장교 하약복(1949년~1952년)〉



장교 동약복(1952년~1978년)



장교 하약복(1952년~1975년)

〈장교 약복(1952년 제정)〉

다. 操 縱 服

공군 조종복은 당시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 동복과 하복 모두 미 공군용을 그대로 착용하였다.

라. 戰 鬪 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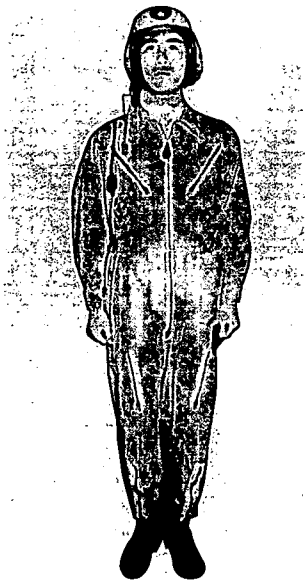
사병 전투복은 공군이란 특수한 군종(軍種)으로 인해 초창기 시대와 전쟁 중에는 육군의 복식을 그대로 착용하였다. 국방색 면직에 와시셔츠형의 제식이었다.

마. 外　　套

장교 외투는 곤색 멜턴지를 재질로, 오바형의 노타이 깃 제식을 두었다.



초창기 여자조종복



6·25당시 무스탕 조종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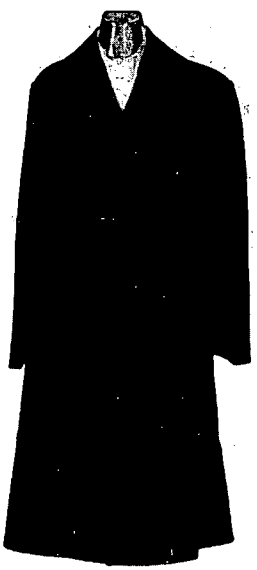


초창기~1960년대

〈조 종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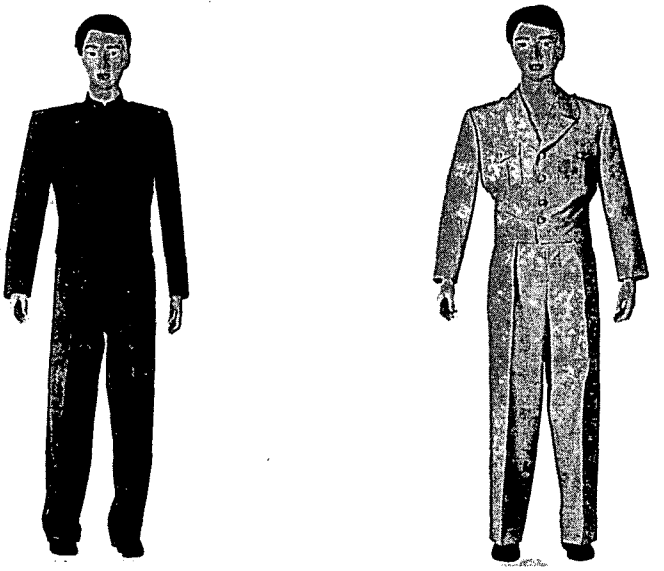
〈사병 전투복(1951년~1956년)〉



〈장교외투(1952년~1963년)〉

바. 士官生徒 正服

사관생도 정복은 동정복의 경우 곤색 크래버넷을 재질로 하여, 스텐 칼라에 조끼형이었고, 하정복은 사지에 아이크식이었으며, 모자는 장교모자를 사용하였다.



동정복(1953년~1969년) 하정복(1949년~1953년)

〈사관생도 정복〉

사. 帽 標

모표는 독수리모양과 별로써 공군을 상징하였다. 놋쇠 원형색(原形色)에 황색 월계수와 별, 그리고 금색 무궁화형(無窮花形) 바탕 위에 백색의 독수리가 양쪽 날개 가운데 위치하여 우측을 향하게 하고, 날개·몸통·다리 및 머리는 니켈광으로 도금하였다. 사병용은 장교용에서 무궁화형 배경을 삭제하였다.



장교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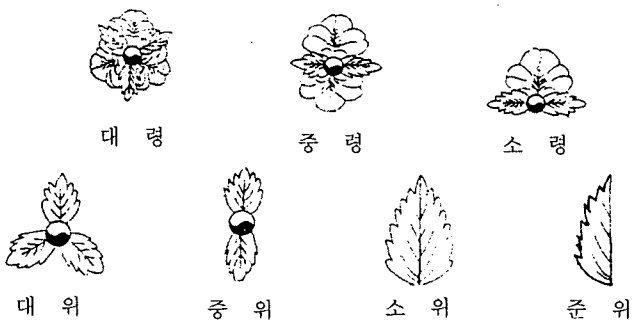
사병용

〈공군 모표〉

아. 階 級 章

(1) 장교 계급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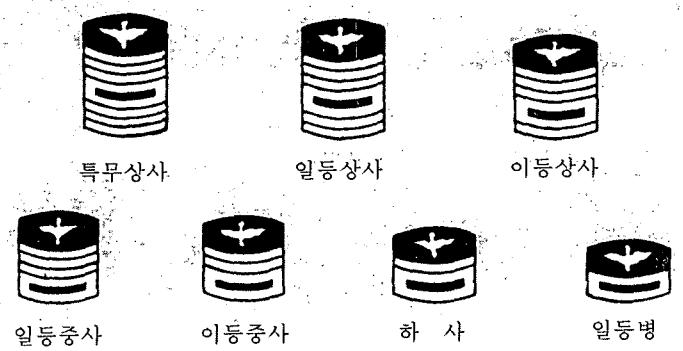
장교용 계급장은 위관의 경우 태극 표지에 무궁화의 잎사귀 수로써 계급을 표시하였고, 영관의 경우 태극 표지를 중심으로 잎과 꽃의 수로써 계급을 나타내었다.



〈장교 계급장〉

(2) 사병 계급장

사병의 계급장은 격납고를 상징하는 '口'자형을 일등병부터 시작하여 한 계급이 올라갈 때마다 활주로를 상징하는 횡선(橫線)을 하나씩 늘려서 표시하였고, 일등병에서 특무상사까지 다같이 상단에 새[鳥] 문양을 넣어 공군을 상징하였다.



〈사병 계급장〉

第2章　現代 軍服飾

총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세계의 군대 역사에서도 공군의 창설과 그 복식제도의 설정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것처럼, 우리 나라의 공군 역시 창설과 운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육군항공대로서 성장하다가 공군으로 독립한 뒤 나라 경제의 어려움과 당시 한반도의 세력균형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던 미국의 대한(對韓)군사력 관념이 공군의 발전을 크게 가로막는 현실에서 그나마 8개월 만에 전쟁을 수행해야 했던 공군으로서는 고유성을 지닌 제복을 갖추기에는 시간·재원 등 모든 점에서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미 공군의 복제를 그대로 모방 제조하거나 차입하였던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고, 미 군원에 의한 원자재 도입은 상당수의 품목이 1971년까지 계속되었으며, 그후에 가서야 우리 국가예산으로 복제가 조변되었다.

공군의 복제는 타군과 함께 1962년 4월의 〈각령 제700호〉에 의해 정돈되기 시작하였다. 1963년 3월, 〈공군복제규정〉이 제정되었으며 이로부터 수차에 걸쳐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오면서 오늘날의 막강 공군제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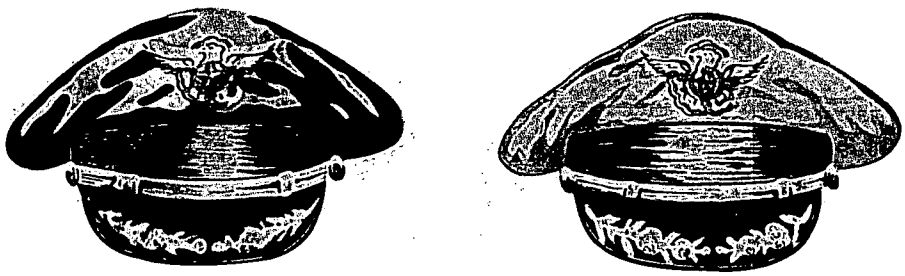
第1節 服　　裝

1. 一般服裝

가. 禮　　裝

(1) 예 모

〈각령 제1232호〉에 의거 처음으로 규정된 예모 제식에 의하면, 예모는 정모의 경우와 같으며, 야회복·만찬복에서 검은 재킷을 착용할 때 및 동예복을 착용할 때



동예모　　하예모

〈예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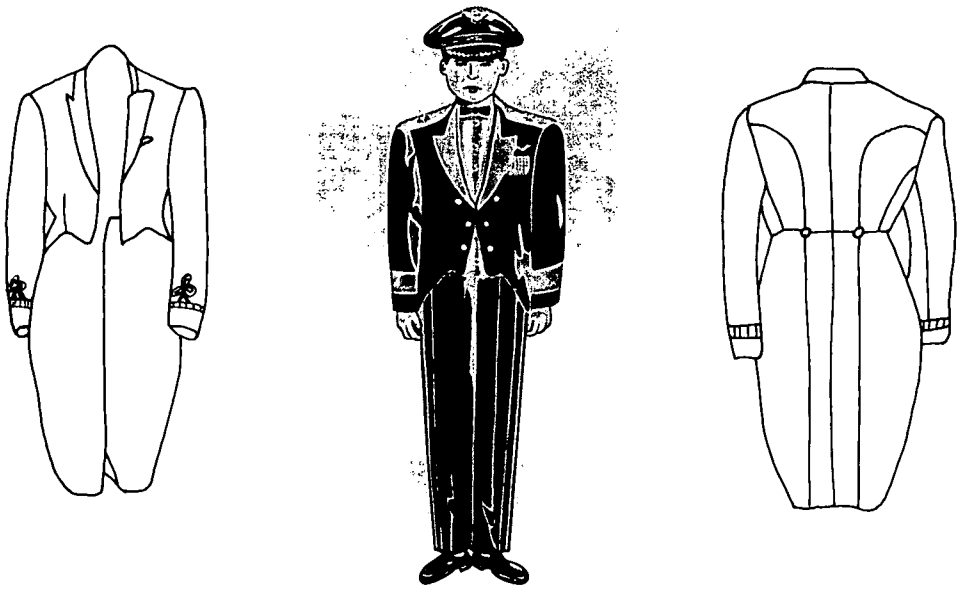
에는 흑색 커버와 흑색 테를 두르고, 흰 재킷을 착용한 만찬복 및 하예복에는 흰 커버에 검은 테를 둘렀다. 그후, 1976년 5월의 〈공규 35-1〉에 의하면, 예모의 재질은 복지재질과 동일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동기에는 곤색 모직, 하기에는 백색 모직 또는 혼방으로 제작하였다.

모자의 형은 고정식으로, 턱끈은 은사(銀絲) 삼겹줄을 꼬은 끈이며, 차양은 장관용·영관용·위관용으로 구분하여 장관·영관용은 우단, 위관용은 비닐을 사용하였다. 모표는 자수(刺繡)모표이고, 귀단추는 곤색 바탕에 테부분은 은사로 제작하였다. 차양 장식은 정모와 같이 장관급은 무궁화잎 20개·꽃봉오리 8개·핀 꽃 2개이고 영관급은 무궁화잎 14개·꽃봉오리 6개이나, 모자 테의 경우 장관급이 크게 달랐다. 40㎜의 흑색 혼방 인견 자바라에 무궁화잎 38개·꽃봉오리 18개·핀 꽃 2개로 장식하였다. 영관과 위관은 정모의 테와 같다.

(2) 야회복·만찬복

(가) 야회복

보통형 연미복(燕尾服)으로서, 단추를 양 앞부분에 3개 씩 달고, 뒤허리에 2개를 달았다. 앞은 열어 놓든가 혹은 고무밴드로서 걸어 부치든가 하였다. 양 어깨에는 견장을 달고 그 위에 계급장을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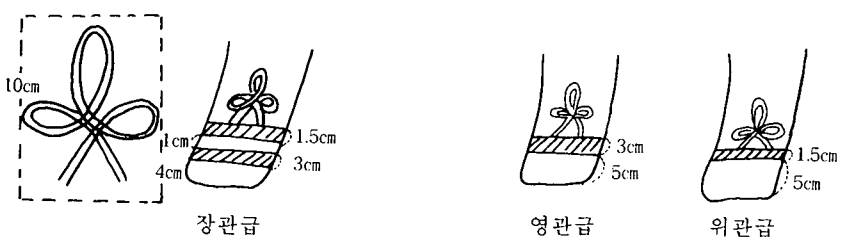


전 면　　후 면

〈야 회 복〉

소매에는 수장(袖章)을 하며, 그 규격은 아래와 같다.

- 장관급 : 흑감색(黑紺色) 3cm 한 줄과 1.5cm 한 줄을 붙이고, 이 수장의 상단에 직경 1.5cm의 ♧형(型) 수식(袖飾)을 추가하였다.
- 영관급 : 흑감색 3cm 한 줄을 붙이고, 직경 1cm의 ♧형 수식을 추가하였다.
- 위관급 : 흑감색 1.5cm 한 줄을 붙이고, 직경 0.5cm의 ♧형 수식을 추가하였다.



〈각령 700호에 의한 야회복 수식과 수장〉

그후, 〈각령 제1232호〉에 의거, 수장의 색이 은색으로 바뀌면서 그 제식도 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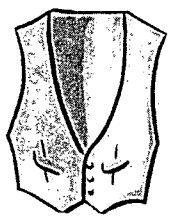
- 장관급 : 60㎜ 한 줄의 수장을 붙이고, 수장 하단과 소매끝 사이의 간격은 80㎜이다.
- 영관급 : 15㎜ 두 줄의 수장을 붙이고, 그 간격은 7.5㎜로 하였다. 소매끝까지의 간격은 장관급과 같다.
- 위관급 : 15㎜ 한 줄의 수장을 붙이고, 수장 하단과 소매끝 사이의 간격은 100㎜로 하였다.

단추는 은색 금속제로서 직경 2㎝의 크기에 모표를 그렸다. 조끼는 백색의 면직 및 모직으로서, 깃이 있고, 양 앞에 주머니를 달며, 외줄 단추이다. 정복 단추 중형 3개를 오른편 앞에 달고 잠그었으며, 그후 〈각령 제1232호〉에 의거 중형 단추 6개를 두 줄로 달면서 두줄 단추복으로 바뀌었다. 앞의 하단도 뾰족한 형태에서 밋밋하게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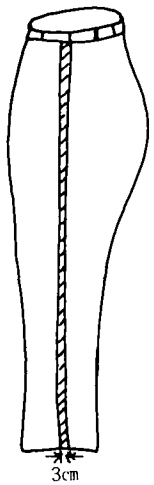
장 관　　영 관　　위 관

〈각령 제1232호에 의한 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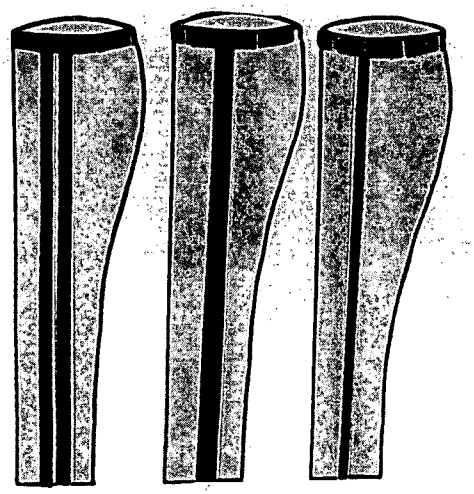


〈조 끼〉

와이셔츠는 날개 깃으로 된 보통형 셔츠이다. 백색 포플린으로 만들고 단순한 보통색 단추와 커프스 링크(cuffs link : cuffs button : 셔츠나 블라우스의 더블 커프스를 고정시키는 빼다 끼웠다 할 수 있는 단추의 일종)를 달았다. 넥타이는 흑색의 네모난 단순한 보타이(bow tie)로 하였다. 하의는 상의와 같은 색 및 지질을 사용하였으며, 바지 하단을 접지 않았다. 허리를 높게 올리고, 바지 상단으로부터 하단까지 봉목(縫目) 위에다 폭 3㎝의 상의 수장의 색과 같은 색의 수(繡)를 붙였다. 그후, 〈각령 제1232호〉에 의거, 봉목처리 제식이 달라졌다. 장관급은 폭 15㎜의 수식(修飾) 두 줄을



각령 제700호 하의



장 관　　영 관　　위 관

각령 제1232호 하의

〈야회복 하의〉

바지 외부의 양편에 붙이되 수식과 수식간의 간격을 5㎜로 하고, 영관급은 폭 30㎜의 수식 한 줄을, 위관급은 폭 15㎜의 수식을 각각 바지 양편에 붙이며, 바지 수식의 색을 흑색으로 하였다.

(나) 만찬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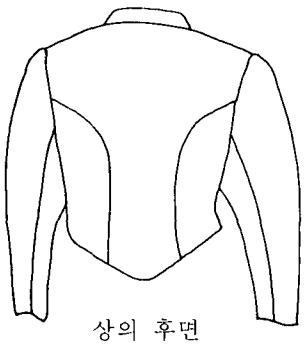
만찬복은 1975년 이전에는 정복으로 대신하였고, 그 이후 조끼형(일명 연미복)으로 제정되었다. 만찬복은 모직 및 면직으로 제작하였다. 상의 재킷은 하의 밴드의 위를 가리기에 충분한 길이로 하고, 정복 단추를 양쪽 앞에 3개씩 달았다. 뒤가 뾰족하고 그 주위가 점차 기울어지게 하였다. 앞을 열어두거나 3개의 정복 단추와 줄로써 잠그게 하였다. 양 어깨에는 야회복 착용시와 마찬가지의 견장을 붙이고, 소매의 수장 및 수식은 야회복과 동일하되 동기에는 흑감색, 하기에는 백색으로 하였다. 동기에는 검은 재킷, 하기에는 흰색 재킷을 착용하되, 검은 재킷을 착용할 때에는 흰색 보타이, 흰색 재킷을 착용할 때에는 윤이 나는 검은 색 보타이를 매도록 하였다. 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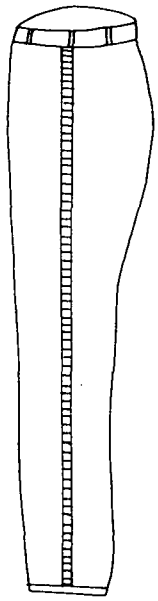
전체 모양



상의 전면



상의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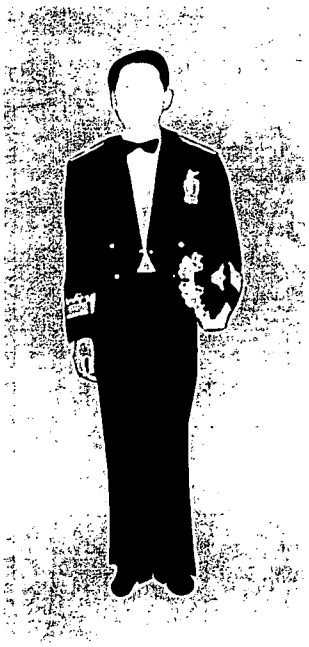


하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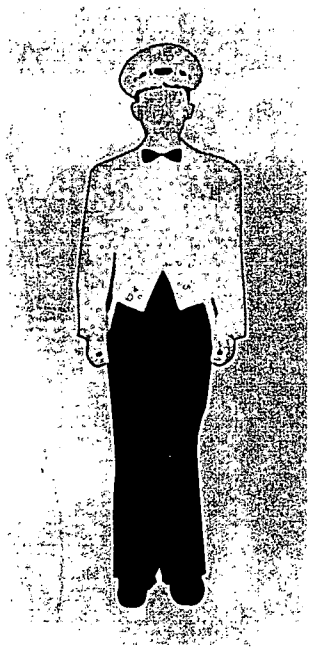
〈만 찬 복〉

셔츠·조끼·넥타이는 야회복과 동일하였다. 하의 재질은 흑색 모직으로서 야회복 하의와 동일하였다.

그후, 1976년 5월의 〈공규 35-1〉에 의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동복은 곤색 모직으로 하고, 하복은 상의가 백색 모직 또는 혼방이며, 하의는 곤색 모직 또는 혼방으로 제작하였다. 제식은 재킷형으로 소형 은색 단추 1개로 개폐하였다. 상의 앞 섶 밑에 좌·우 각 2개씩의 은색 중형 벙어리 단추를 달았다. 앞이 세로로 파장형(波長形)인 만찬용 와이셔츠를 착용하며, 단추는 소형 은색 공군 커프스 단추이다. 조끼는 동복 착용시에만 착용하되, 일반 신사용으로 앞면에 단추가 없이 허리쪽에서 개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속띠는 동복과 하복 모두 곤색이며, 허리 쪽에서 개폐하고, 가로 파장형 부분이 복부 쪽에 오도록 한다. 수장 규격은 예복과 같으며, 하복에는 없다. 하의에는 은회색의 바지줄을 두었다. 보타이는 윤이 나는 흑색 재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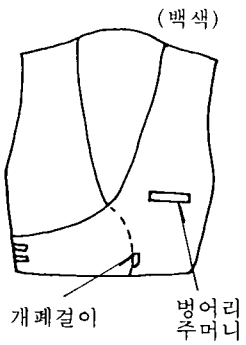


동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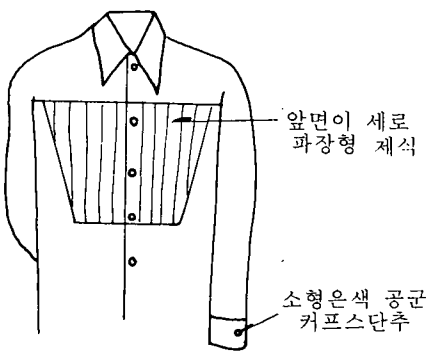


하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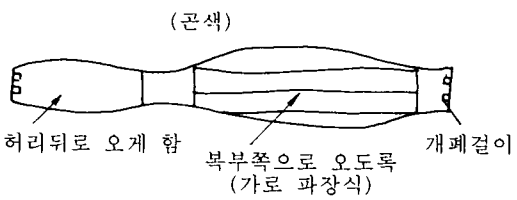
〈만 찬 복〉



조 끼



의식용 와이셔츠



속 띠

〈만찬복 보조의〉

(3) 예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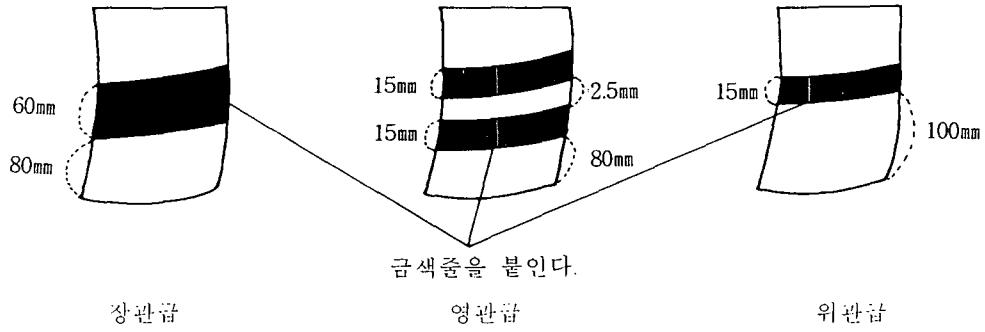
(가) 장교용

초기의 예복은 정복으로 대용하였으며, 백색 보통형 와이셔츠에 흰 장갑을 끼고 훈기장(勳記章)을 달았다. 1975년 이후 신사복형의 예복이 제정되었다. 예복 상의에 수장을 달았으며, 장관의 경우 금색줄 폭 6cm 1개, 영관은 간격 2.5mm로 1.5cm 두 줄, 위관은 1.5cm의 수를 소매에 둘렀고, 소매끝과 수 하단의 간격은 장관과 영관은 8cm, 위관은 10cm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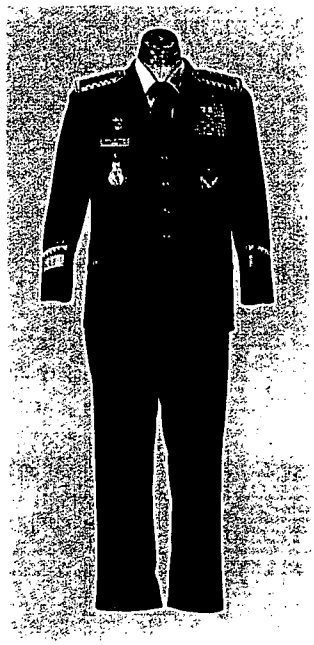
그후, 1976년 5월의 〈공규 35-1〉에 의하면, 동예복은 곤색 모직, 하예복은 백색 모직 또는 혼방으로 재질을 삼았다. 신사형 제복에 은색 대형 단추 4개를 달았고, 상의 앞면 좌·우·상·하에 4개의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부착하였다. 소매에는 좌·우 소매끝에서 7cm되는 위치에 수장을 부착하였다. 수장의 규격은 장관급의 경우 폭 4cm의 은색 인견 자바라를 붙이고(단, 하예복에는 없다), 윗부분에 평행으로 무궁화잎 38개·꽃봉오리 18개·핀 꽃 2개를 은사로 자수하였다. 영관은 폭이 3cm이며, 무궁화잎 36개·핀 꽃 2개를 자수하였다. 영관은 폭 2cm의 은색 인견 자바라만 있었다.

하의는 봉제선상에 속붙임주머니를 두고 뒤에 속붙임 뚜껑주머니, 우측 요대고리 밑에는 시계주머니를 부착하였다. 은회색 바지줄 1선을 장관급은 폭 4cm, 영관급은 3cm, 위관급은 2cm로 하여 부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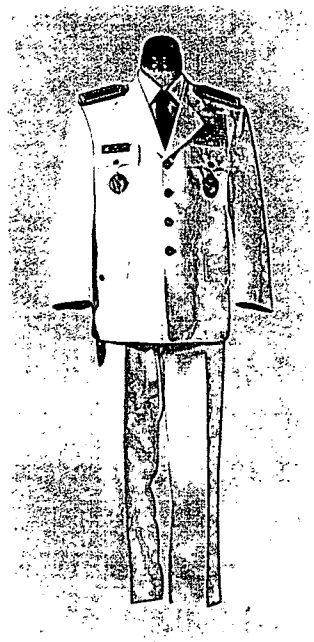
요대는 복지색으로 하였다. 훈기장을 패용하였으며, 조종사 흉장은 자수제로 하였다. 계급장은 예장용 견장을 좌·우 견장대에 부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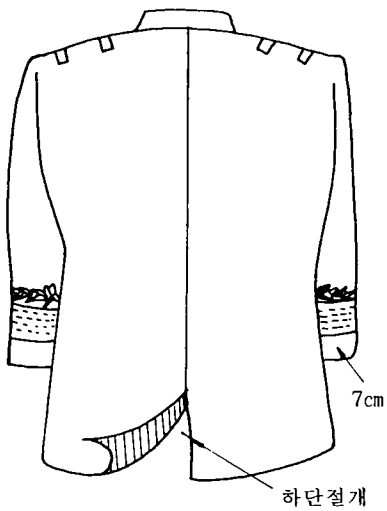
〈소매 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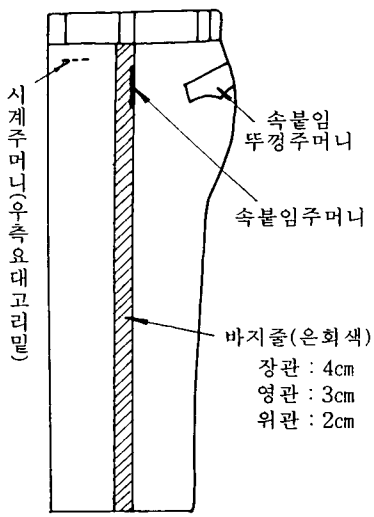
동예복



하예복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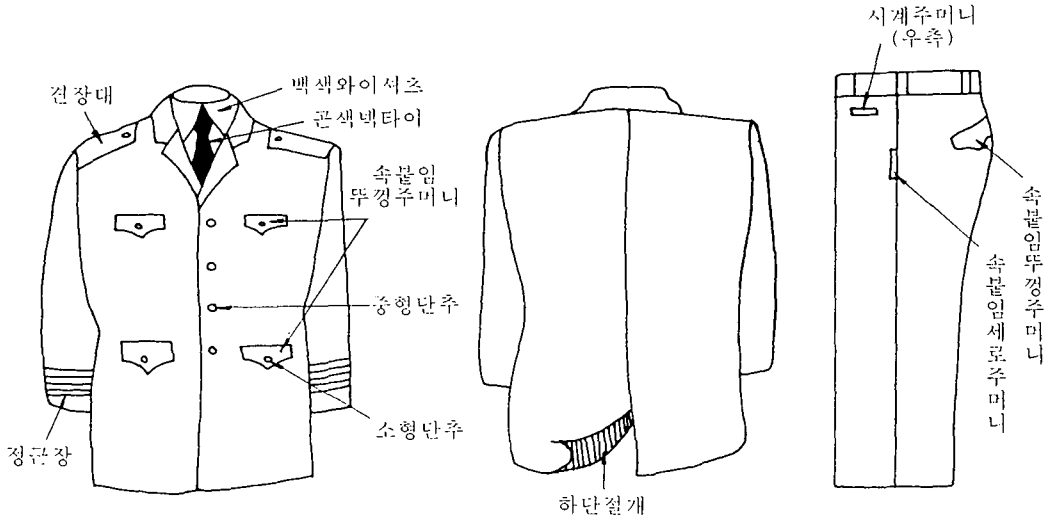
하　의

〈예　　복〉

(나) 하사관용

1986년 2월 1일의 〈공규 35-1〉에 의하면, 하사관의 품위향상을 위한 하사관 예복 제식이 규정되었다. 동복은 곤색 모직 또는 혼방이고, 하복은 백색 모직 또는 혼방으로 만들었다. 앞단추로 은색 대형 단추 4개를 붙이고, 앞면 좌·우에는 상·하로 4개의 주머니를 달았다. 정근장은 길이 8㎝로, 폭 1㎝를 간격 0.3㎝로 곤색 바탕에 은 수실을 하였다.

하의는 요대고리를 좌·우 각 3개, 뒤에 2개, 도합 8개를 두었고, 우측 상단에 시계주머니와 옆에는 속붙임 세로주머니, 뒤에는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두었다. 초기에는 곤색 넥타이를 착용하게 하였으나, 1987년 1월 1일에 흑색 넥타이로 개정하였다.



〈하사관 예복〉

(4) 예 화

흑색 가죽으로 무늬없이 단순한 보통형의 단화이다. 신 등에 가로로 된 선(線)도 없으며, 단화의 끝이 뾰족하지 않은 형으로 하였다.



〈단 화〉

나. 正 裝

(1) 정 모

1962년 4월 27일의 〈각령 제700호〉에 의하면, 공군 정모는 전체 제식이 앞이 높고 귀쪽이 나온 타원형 덮개로서, 흑색 앞차양에 모직 곤색 커버였다. 제식은 분리식 원형(圓形)에 흑색 앞차양을 붙이고, 폭 4㎝의 흑색 테와 폭 1.5㎝의 은색 턱끈을 달았다. 귀단추는 직경 1.5㎝의 은색 금속 원형에 장교 모표를 그렸으나, 〈각령 제1232호〉에 의거, 공군은 독수리 날개 안에 태극(太極)을 놓고 날개 위에 별 6개, 날개 아래에 별 8개로 된 모양을 하였다.

위관급은 모자 차양이 흑색 보통형이나, 중령급 이상 영관급은 모자 차양 위에 흑색



장관용 영관용

〈차양 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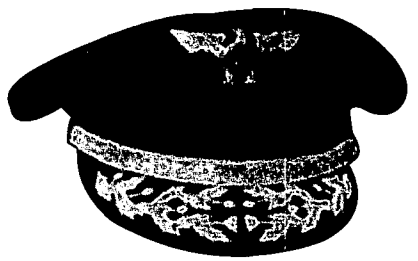
나사지(羅紗地)를 입히고 앞가에 한 줄로 은색 실로 무궁화잎을 수놓았다. 단, 장관급의 경우 앞가에 두 줄로 은색 실로 무궁화잎을 수놓았다. 그후, 〈각령 제1232호〉에 의거, 영관급도 두 줄로 수놓았다.

중령급 이상 영관의 경우 무궁화잎 7개 및 작은 꽃봉오리 4개를 반월형(半月形)으로 서로 맞보도록 하고, 장관급은 무궁화잎 8개·작은 꽃봉오리 5개·큰 꽃봉오리 1개를 역시 반월형으로 맞보도록 하였다. 그후, 1976년에 이르면, 장관 차양은 무궁화잎 20개·꽃봉오리 8개·핀 꽃 2개로 변경되었고, 영관 차양은 무궁화잎 14개·꽃봉오리 6개로 변경되었다. 모자 테는 스프사로 만든 흑색 자바라였다. 턱끈은 1953년 이후 은회색 은사제로 변경되었다.

당시는 정모를 예복 착용시에도 병용하였으며, 또한 야회복·만찬복에도 병용하였다. 단, 이 경우 모자의 커버 색은 복장색과 같게 하였다. 사병은 장교의 제식과 같으나, 턱끈을 검은 색 비닐로 하였으며, 귀단추 역시 은색에 사병모표를 그렸다.



각령 제1232호 정모



1976년 공규 35-1 정모

〈장관 정모〉

(2) 정 복

(가) 장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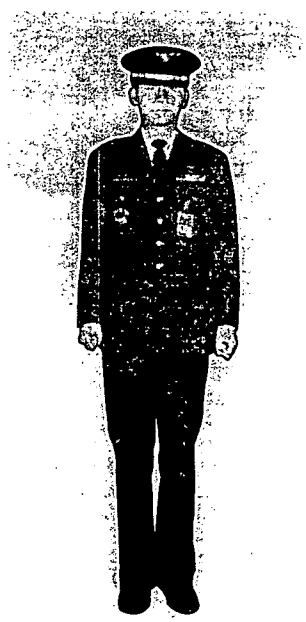
장교 정복의 재질은 동복은 곤색 모직, 하복은 은회색 모직으로 하였다가, 그후 1976년 5월의 〈공규 35-1〉에 의해 부분 개정이 되어, 동복은 곤색 모직 또는 혼방,

하복은 곤색 데드론 또는 혼방으로 하였다. 노타이형의 벌려 젖힌 깃에 외줄 대형 단추 4개를 달고, 흉부와 복부 좌우에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각 1개씩 두었고, 후면 중앙봉선 하단을 타개(打開)하였다.

소매에 폭 3㎝의 수장 1줄을 동복에는 흑곤색, 하복에는 회색으로 두르고, 소매끝과 수장 하단과의 사이는 10㎝로 하였다가, 역시 개정되어 장관급은 폭 4㎝, 영관급은 폭 3㎝, 위관급은 폭 2㎝의 흑곤색 인견 자바라를 소매끝에서 7㎝되는 위치부터 부착하였다. 그후 1976년의 규정에는 장관급이 폭 4.5㎝, 영관급이 폭 2.5㎝, 위관급이 1.5㎝로 개정되었다. 와이셔츠는 깃 8.5㎝의 하늘색 포플린지의 보통 제식이었다.

견장대는 복지와 같은 재질로서 제작하였다.

단추는 은색 금속제로서 직경 2㎝의 크기에 공군의 모표를 그려 넣었다. 전면에는 외줄로 직경 1.5㎝ 크기의 단추 4개를 견장대와 뚜껑주머니에 단다. 하의는 보통형 긴바지이며, 앞쪽 우측 상부에 작은 주머니 1개를 달고, 측면 재봉선 상부 좌·우에 세로로 속붙임주머니와 뒤쪽 상부 좌·우에 속붙임 뚜껑주머니 각 1개씩을 달며, 우측에 시계주머니를 달고, 바지 하단은 접지 않는다. 하의에는 요대고리가 좌·우 각 3개, 뒤에 2개를 달아 도합 8개의 고리를 만들었다.



〈장교 동정복(195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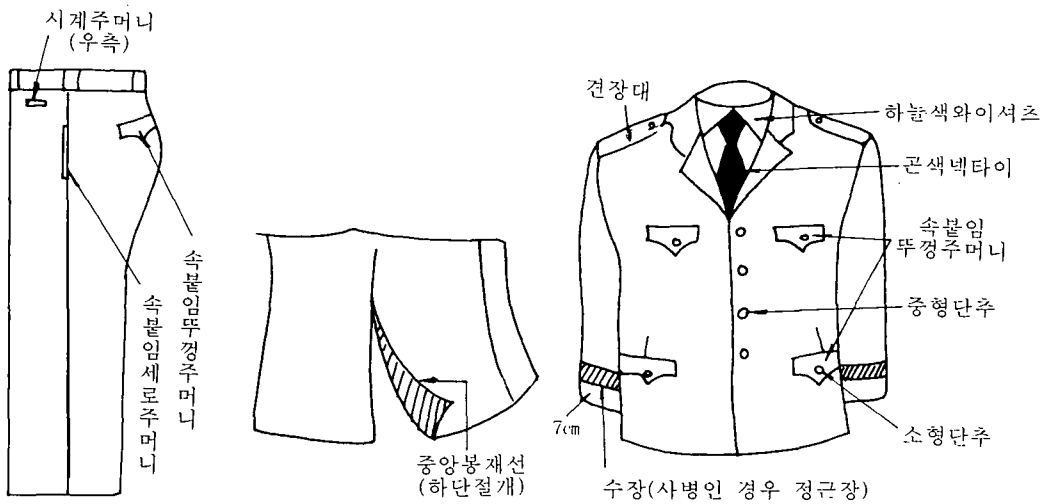


〈장교 하정복(1975년~)〉

요대는 백색 버클을 사용한다. 하복의 경우 앞 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1952년부터 1975년까지 상·하 은회색의 중간단계 제식이 있고, 1975년 이후부터 상·하 곤색 데드론 또는 혼방으로 제작 착용되었다.

(나) 사 병

사병의 정복 재질은 동복의 경우 장교와 같으나 하복은 은회색의 면직을 사용하였다. 사병 정복은 상의 제식이 장교와 같으나 수장이 없고 그 대신 정근장을 부착하였고, 공군의 경우에는 타군과는 달리 견장대를 두었다.



〈사병 정복〉

(3) 동약정복

(가) 장 교

장교용 동약정복은 1945년에서 1952년까지는 흰색 와이셔츠(넥타이)에 조끼형 상의였다가, 1953년에서 1978년 사이에는 곤색 와이셔츠형에 넥타이를 착용하였다. 그 후, 1979년에서 1987년에 곤색 와이셔츠형에 청색 머플러를 착용하다가, 1987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곤색 노타이형에 앞가리개를 부착하여 착용되어 오고 있다.

(나) 사　병

사병용 동약정복은 1978년 7월부터 1987년 2월까지 착용되었다. 곤색 모직 또는 혼방을 재질로 하여, 와이셔츠형에 청색 머플러를 착용하였다.

1987년 이후에는 동일한 재질에 노타이형의 앞가리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1978년～1987년



1987년～

〈사병 동약정복〉

(4) 하약정복

(가) 장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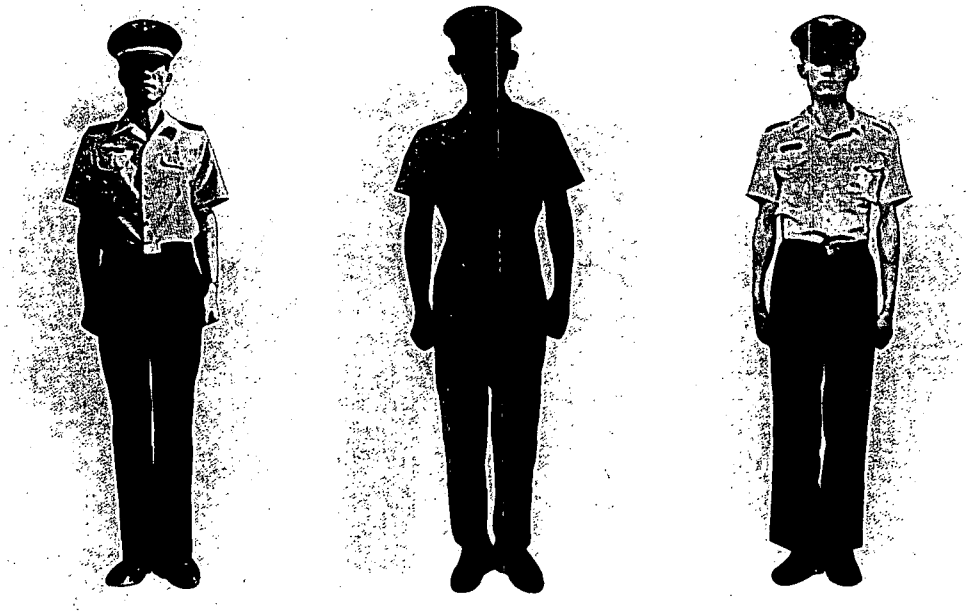
하약정복은 1949년에서 1952년의 기간에 흰색 와이셔츠를 착용하다가, 1952년에서 1975년의 기간에는 은회색 노타이 반소매형이었다. 1975년 9월 30일의 〈대통령령 제7837호〉에 의거 제정된 〈공규 35-1〉에 의하면, 전 장병이 착용하는 하약정복의 상의는 연하늘색 루비 폴리에스탈지, 하의는 곤색 데드론 또는 혼방을 사용하였다. 반소

매 노타이형 제식으로 좌·우 견장대와 좌·우 겉붙임 주머니를 달았다. 견장대와 옷깃은 구겨지지 않도록 빳빳하게 속받침을 하였다. 상의에 부착하는 단추는 9개 전부 은색 소형 귀단추로서 직경 15㎜이고, 표면 윗부분을 은색으로 주물화하여 부각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계급장은 장교인 경우 1987년 토시형 계급장 대신 금속제 정장을 칼라 깃에 부착하였고, 사병은 계급장 정장을 좌·우 소매에 부착하였다. 1993년에는 〈인사근 제3666호〉에 의거, 하약정복 착용시 속내의가 보이지 않도록 앞 칼라를 줄이고 단추를 높이 달도록 규격 개선을 하였다.

(나) 사 병

사병용 하약정복은 1955년에서 1975년까지는 아회색 면직으로 노타이 반소매형이었다가, 1975년부터는 아청색 폴리에스테르로 노타이 반소매형을 착용하고 있다.



〈장교 하약정복〉

1955년~1975년 1975년~

〈사병 하약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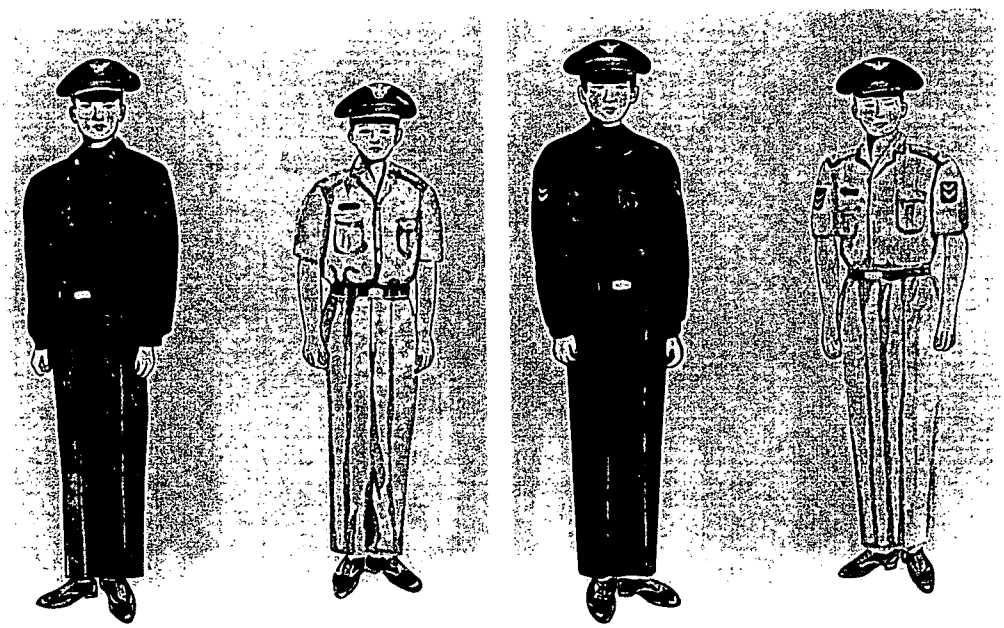
다. 勤 務 服

(1) 장　교

공군 근무복의 재질은 동복의 경우 감색 모직에서 〈각령 제1232호〉에 의거 곤색 모직으로 개정되었으며, 하복은 타군과 같은 카키색 모직이었다. 상의 제식은 보통형 와이셔츠식으로 외줄 단추 6개를 달고, 흉부 좌·우에 뚜껑주머니를 겉붙임으로 달았으며, 견장대를 두었다. 금장(襟章)으로서 계급장 또는 표지장(標識章)을 부착하였다. 단추는 복지색과 같은 보통형 뿔단추를 사용하였다. 정복 넥타이를 착용할 수 있었다. 하의 제식은 정복 하의 제식과 동일하였다.

(2) 사　병

재질은 동복의 경우 장교와 같이 감색 모직을 사용하였고, 하복의 경우 카키색 면직을 사용하였다. 그후, 〈각령 제1232호〉에 의거, 장교와 같은 재질인 동복은 곤색



장　교　　사　병

〈동·하 근무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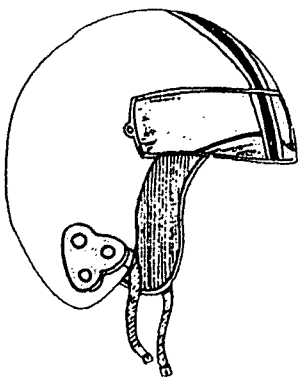
모직, 하복은 카키색 모직을 사용하였다. 육군과는 달리 공군의 사병 근무복에는 넥타이를 착용하였다.

라. 戰 鬪 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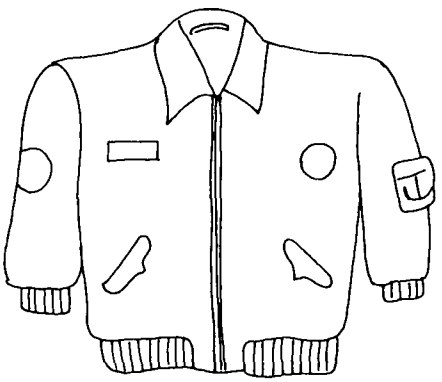
(1) 비행복

비행모는 조종사가 착용하는 파이버형이다. 비행복의 재질은 동복이 진회색 나일론이고, 하복은 회색 면직이었다. 1981년에 개정된 바로는 연한 쑥색에 모가 60%, 폴리에스테르가 40%인 TW를 사용하였으며, 동·하의 구분을 없게 하였다. 보통형 와이셔츠 깃으로서 상·하를 연결하였다. 앞섶은 깃으로부터 하의 밑까지 지퍼를 달아 개폐하였다. 좌·우 흉부에 겉붙임 주머니를 달되, 위쪽에 지퍼를 붙여 개폐하였으며, 허리 하단 좌·우에 겉붙임 주머니를 달고, 좌·우 측면에 지퍼를 붙여 개폐하도록 하였다. 하의 밑부분은 절개하여 활동성이 있도록 지퍼를 붙여 개폐하도록 하였으며, 좌측 팔 중단에 겉붙임 주머니를 부착하였다. 계급장은 좌·우 어깨에 포제 정장을 부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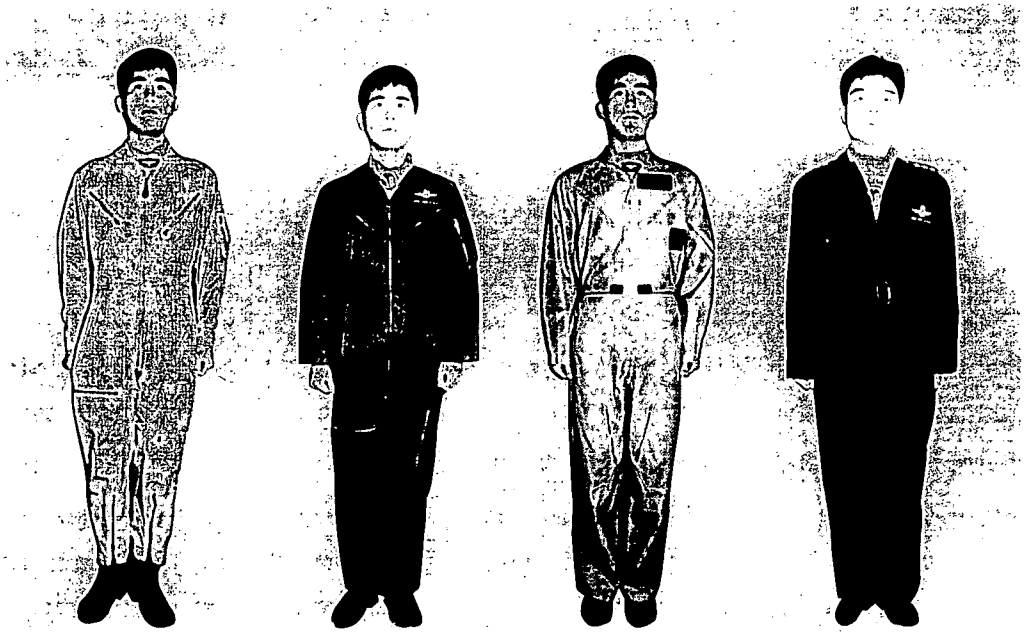
우측 흉부에는 특수복에 다는 명찰을 달고, 적색 머플러를 같이 착용할 수 있었으며, 1985년에 이르면, 적색 머플러에는 반드시 부대마크가 부착되어야 했다. 1985년 3월의 〈공규 35-1〉에 의하면, 비행점퍼 제식을 두었다. 와이셔츠형 깃에 허리와 소매는 연한 쑥색이며 자바라를 부착하였다.



〈비행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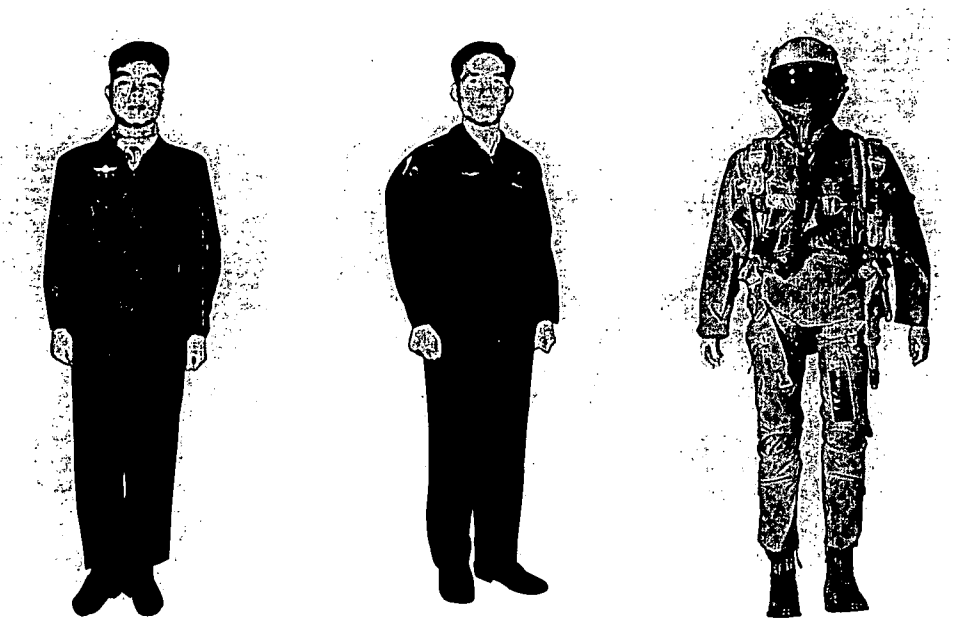


〈비행점퍼〉



1960년대 초·중반　1960년대 말　1960년대 말 팬텀 비행복　VIP임무 비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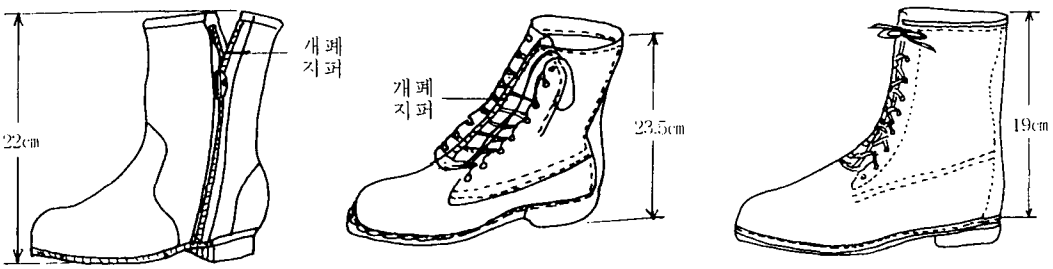
〈비행복 ①〉



1970년대　1980년대　현재 비행임무복장

〈비행복 ②〉

앞섶은 지퍼로 개폐하였고, 뒷면은 신축성이 있게 좌·우 주름을 두었다. 계급장은 좌·우 어깨에 포제 정장을 부착하였으며, 좌측 흉부에 대대, 우측 소매에 부대표지를 부착하였다. 정조종사(장군 포함)는 흑색 피혁으로 된 조종사 근무화를 착용하였다. 이 근무화는 안쪽으로 개폐하여 착용하며, 높이 22㎝의 반장화이다.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는 파장형(波長形) 홈이 파 있는 고무창으로 하였다.(다만, 장군용은 모든 제식은 같으나, 높이가 20㎝이고, 평평한 고무창이다.) 그후, 1988년의 〈공규 235-1〉에는 조종사용 근무화는 흑색 모직 또는 나일론지를 재질로 하는 워커형 제식으로 신목을 23.5㎝로 길게 하였으며,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구두 속 및 등에 스폰지를 부착하였다. 개폐 지퍼가 앞 날개에 있으며, 조종화 끈은 2개로 사용하였다. 그후 1990년에 다시 일부 개정되어, 흑색 피혁 19㎝의 높이에 내부 안바닥을 위생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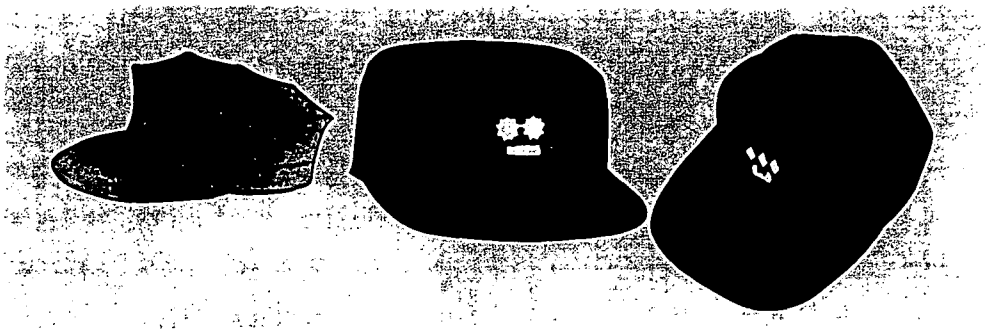
〈조종사 근무화〉

(2) 전투복

작업(전투)모는 작업(전투)복 착용시에 착용하였다. 작업복이 〈각령 제700호 제15조〉에 의하면, 전투·군사훈련·특수교육 및 연습에 참가하는 경우에 착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항목에서 언급한다.[1] 공군 작업모는 국방색 면교직(綿交織)을 재질로 하여, 앞차양이 있는 보통형 전투모로서 팔각형 제식으로 시작되었다가 1956년 이후에 은회색으로 되었다.

그후, 1976년의 규정에 의해 전군이 통일된 전투모를 착용하게 되면서, 국방색 연초록색 면직 또는 혼방을 재질로 하여, 앞면이 높고 뒤쪽이 낮으면서 귀덮개가 있었다.

1) 이후, 1963년 3월 18일의 〈각령 제1232호〉에 의거, 근무복에도 작업모를 착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투화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팔각모(1949년~1971년) 투구형(1971년~1983년) 둥근형(198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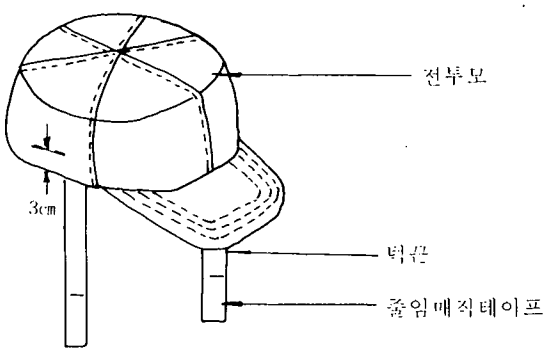
〈전투모〉

1989년 8월에는 모자의 구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망사를 전면에 부착하였으며, 청결 유지 및 땀흡수용 가죽을 부착하였다. 1992년 7월 27일에는 전투모를 근무모로 제정 승인받아 착용하였고, 동년 11월 18일에는 근무모의 귀덮개를 제거하였다.

공군 근무모의 가장 큰 개선은 1994년 1월 25일의 〈인행인 33163 -130〉에 의해 이루어졌다. 장병이 외출시에 정모가 무거운 관계로 탈모사례가 빈번해지자 정모 대신 근무모를 착용하도록 하면서, 공군의 품위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규격면에서 모자 차양을 수평상태에서 지면으로 약간 내리는 조치로 하양 각도를 10°로 유지시켰고, 차양의 길이를 8㎝에서 8.4㎝로 늘리고, 높이는 9㎝에서 9.5㎝로 높이면서, 무게는 88g에서 73g으로 내렸다. 내부 구조면에서는 앞받침용을 특망사를 부착하였고, 홑겹으로 전체에 망사를 부착하였다.

전투모의 색상을 종합한다면 1956년 이전까지 국방색을 사용하다가, 1956년에 은회색 면직으로 변경하였고, 1971년에는 다시 국방색 면직, 1975년에 곤색 모직으로 변경되었다. 1987년 1월 1일의 개정된 규정에는 헬기 지원 정비사 전투모 제식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투모에 폭 2.5㎝×길이 27㎝의 턱끈을 부착한 것이다. 턱끈은 차양 끝에 이어서 봉제하되, 전투모와의 이음을 3㎝ 폭으로 하였다. 턱끈 끝에는 길이 10㎝의 줄임 매직 테이프를 부착하여 헬기 유도 및 지상 운전시 턱끈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평시는 전투모 안으로 넣어서 착용하게 하였다.

전투복은 각군 공히 국방색 면직 또는 혼방이었으며, 상의 제식은 노타이형의 벌린



〈헬기 지원 정비사 전투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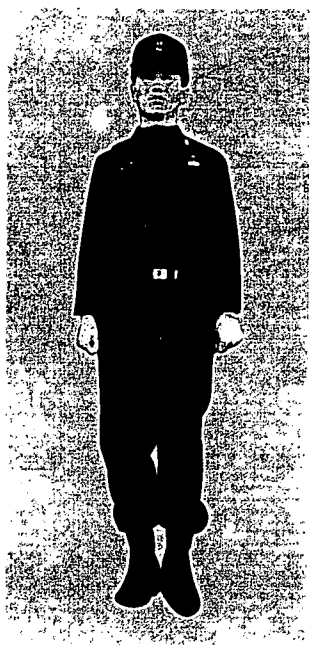
깃에 외줄 뿔단추 4개를 달고, 흉부 좌·우측에 뚜껑있는 겉붙임주머니 각 1개씩을 달았다. 1956년에는 동일한 제식이지만 색상을 아회색으로 하였다가, 1973년에는 전군이 공통 제식화되면서 국방색 면직 또는 혼방으로 노타이형으로 변경되었고, 이때 청색 머플러를 착용하였다. 1976년 5월의 〈공규 35-1〉에는 앞가리개를 붙이게 하였고, 1987년 이후 청색 머플러를 제거하고 동절기에 앞가리개를 하는 제식으로 변경되었다.

전투복에는 금장으로서 규정된 계급장과 표지장을 부착하였으며, 단추는 국방색 뿔단추를 사용하였다. 하의 제식은 보통형 긴바지로서, 앞쪽 상부 좌·우에 75° 각도로 세로로 터진 속붙임주머니와 뒤쪽 상부에 뚜껑없는 주머니 각 1개 씩을 달았다(단, 사병은 뒷주머니가 없었다). 하단은 접지 않았으며, 주머니에 단추를 달았다.

1990년대에 얼룩무늬 전투복으로 개정되면서 계급장은 종래의 청색 바탕에 흰색 표지를 청록색 바탕에 청색 표지로 전 장병이 변경되었다. 1976년의 제식에 의하면, 전투화는 워커형인 흑색 피혁으로, 신 목이 길고 좌·우 18개의 구멍으로 끈을 끼며, 신 코부분에 가로 재봉선을 넣고, 신 코는 둥글었다. 또 훈련화는 국방색 면직으로 제작되어, 반(半)워커형으로 하여 좌·우 12개 구멍으로 끈을 끼게 하며, 신 코는 8푼까지 고무로 포장하고, 신 뒤는 3각형으로 포장하였다. 이후 전투화는 14개의 구멍으로 바뀌고, 훈련화는 폐지되었다.



1956년~1971년



1973년~1987년



1987년~

〈공군 전투복〉



〈전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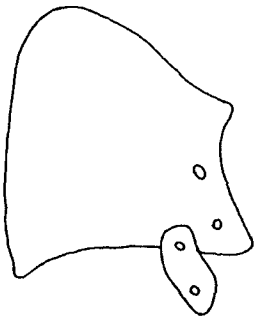
〈훈련화〉

마. 케 이 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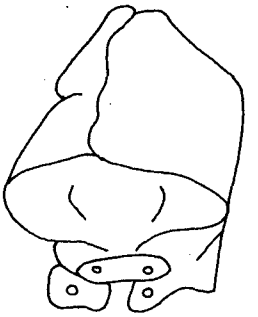
야회 코트인 연미복이 덮일 수 있을 정도로 길게 하되 무릎 아래로 5㎝ 보다 더 이상 내려오지 않도록 하였다. 케이프 내피는 감색 면직으로 제작하였으며, 꺾은 깃에는 두건(頭巾)을 붙일 수 있게 하였다. 그후, 〈각령 제1232호〉에 의거, 공군의 색상은 곤색으로 개정되었다. 칼라에는 계급장만을 부착하였다.



케이프



전 면



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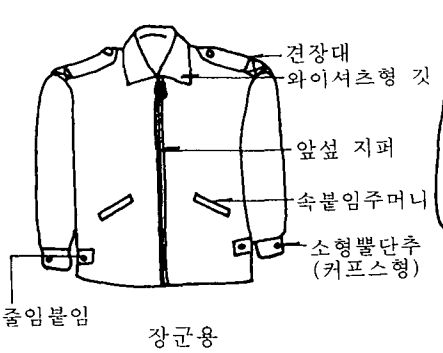
두 건

〈야회복 케이프와 두건〉

바. 장교 점퍼

1971년 〈대통령령 제5538호〉에 의한 점퍼는 장군용·영관 이하 하사관용·사병용의 3종류가 있었다. 장군용은 곤색 모직지를 재질로 하여 깃과 소매가 와이셔츠형으로 된 제식으로 앞 섶은 지퍼로 개폐하고, 허리는 좌·우에 소형 뿔단추로써 조정하였다. 내피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춘·추·동용으로 구분하였다. 좌·우 요부에 주머니를 속붙임하되, 춘추용 점퍼는 겉붙임 뚜껑을, 동기용은 뚜껑없는 주머니로 하였다.

영관 이하 하사관용은 곤색과 국방색 두 가지가 있었다. 두 가지 모두는 신축성 자바라를 부착하고, 앞섶은 지퍼로 개폐하였다(동기용은 굵은 것, 춘추용은 가는 것을 사용). 나일론지를 사용하며, 곤색에는 내피, 국방색에는 방한용 내피를 사용하였다. 곤색은 약정복·조종사 근무복·곤색 전투복 착용시에 착용하고, 장교는 토시형 견장을 견장대에 부착하고 하사관은 포제 약장을 좌측 흉부에 패용하였다. 국방색은 전투복·비행복 착용시 착용하였으며, 장교는 포제 정장을 좌·우 견장대에 부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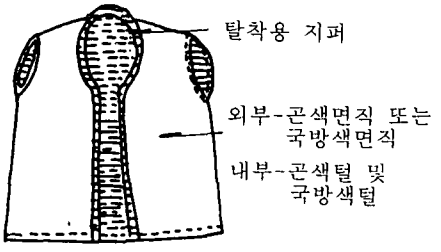
장군용



영관 이하 장병 곤색



장교 및 하사관 국방색



내 피

〈점 퍼〉

였고, 하사관은 곤색과 동일하였다. 1984년 이후 동절기에는 털깃을 부착하여 착용하도록 하였다. 사병용은 곤색 나일론지를 사용하였으며, 포제 정장을 사용하였다. 그후 착용요령이 일부 개정되어, 조종사와 일반대령급 이상은 곤색 모직제품, 기타 일반장병은 국방색 연초록색 나일론제품으로 하였다. 1995년 〈국인근 33163-752〉에 의거, 점퍼는 얼룩무늬 점퍼로 개정되었다.

사. 外　套

(1) 장　교

1963년 11월, 종전까지 착용하였던 장교 융단(絨緞) 외투를 폐지하고, 곤색 모직으로 트렌치 코트(trench coat : W.W. I .에서 영국군이 陣地戰에서 착용했던 코트에서 유래된 명칭)를 착용하여, 앞은 스톰 플랫(storm flat)이고, 등 부분에 케이프 백(caped back : 케이프[2]가 붙은 등 혹은 케이프가 붙은 듯이 보이는 등 부위를 의미)을 덧대어 단

추로 고정하였으며, 더블 브레스트(double breasted : 상의의 좌우 앞길의 여밈이 겹쳐 겹자락이 된 옷)이고, 견장을 부착하였다.

벌려 젖힌 바깥 깃을 달고, 두줄 단추 6개를 달았으며, 측면 좌·우에 속붙임 세로주머니 각 1개씩을 달았다가, 1976년 5월 1일에 개정된 규정에는 좌·우 8개의 대형 흑색 뿔단추를 달게 하였다. 허리에는 폭 5cm 통띠를 둘렀으며, 뒤쪽 재봉선 허리 부분 통띠 아래에서 적당한 길이의 뒤트기를 하였가, 1976년 5월 1일에 개정된 규정에는 맨끝 하단에 30cm 높이를 절개하였다. 복지로 된 견장대를 달고, 소맷부리에 반(半)띠를 두르고, 보통 소형 흑색 뿔단추 각 4개를 단다.

(2) 사 병

공군 사병은 곤색 모직으로, 더블식 반(半)외투를 착용한다. 세울 수 있는 벌린 깃에 두줄 은도금(銀鍍金) 대형 단추를 좌·우에 6개를 달고, 복부 좌·우에 겉붙임주



〈장교용 외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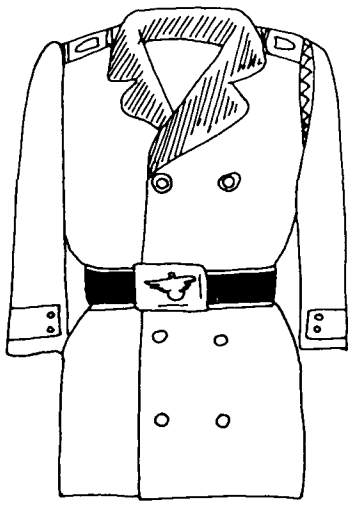
〈사병 반외투〉

2) cape의 어원은 포르투갈어의 카파(capa)로 기장이 다양하며, 소매없이 어깨와 팔을 덮는 겉옷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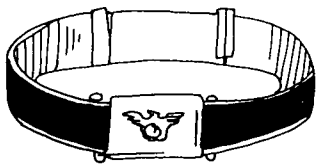
머니 2개를 달았다. 뒤쪽 재봉선은 허리부위에서 하단을 15㎝ 텄다. 길이는 무릎과 요부 중간에 오도록 하였다.

(3) 의장행사 외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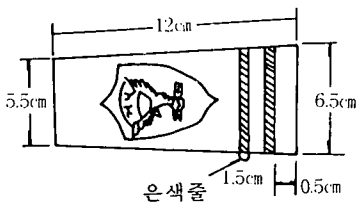
1984년의 〈공규 35-1〉에 의하면, 군악 및 의장행사 요원용 외투 제식을 두었다. 재질은 곤색 모직 또는 혼방으로서, 무릎 위 15㎝를 올린 반코트형이다. 목부분에 곤색 털깃을 착탈식으로 부착하며, 요부에는 행사용 벨트를 착용한다. 좌측 어깨에 의장 견식을 부착하고, 양쪽 어깨에는 군악 및 의장견장을 부착한다. 보온 내피를 사용하되, 착탈식이다.



외 투



벨 트



도시형 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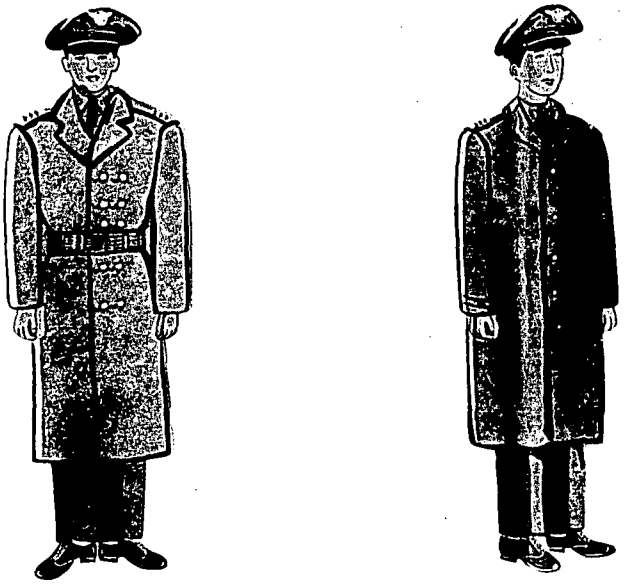
〈의장행사 외투〉

아. 一般雨衣

(1) 장　교

우의지(雨衣地)로 하되 공군의 색상을 살려 곤색 폴리우레탄지로 하고, 노타이 마

이형이다. 1969년 이전에는 허리띠가 없었다. 외투 제식과 동일하나, 뒤쪽 깃가에 우의지로 된 물받이를 적당한 길이로 이어 달은 점이 다르다.



〈장교용 우의(196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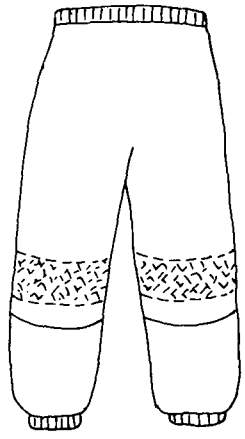
(2) 사 병

색상 및 재질은 장교와 같다. 나비 깃으로 하고, 외줄로 대형 흑색 뿔단추 5개를 겉에서 보이지 않게 겸단으로하여 속붙임으로 달며, 허리 좌·우에 세로로 속붙임주머니를 달았다. 소맷부리에 반띠를 달았으며, 뒤쪽은 전폭(全幅)으로 하였다. 1987년 1월 1일의 〈공규 35-1〉에 의하면, 헌병 및 경비병을 위한 초병 우의 바지를 새로이 규정하였다.

곤색 및 국방색 우의지로, 허리부분과 끝단부분에는 신축성 고무줄을 부착하였다. 무릎 내면에 통풍을 할 수 있는 망사를 부착하고, 외면에는 물받이 천을 대었다. 헌병은 곤색이며 제식이 외부로 나오게 착용하고, 경비병은 국방색으로 판초우의 내에 착용하고 전투군장이 외부로 나오게 착용한다.



〈사병용 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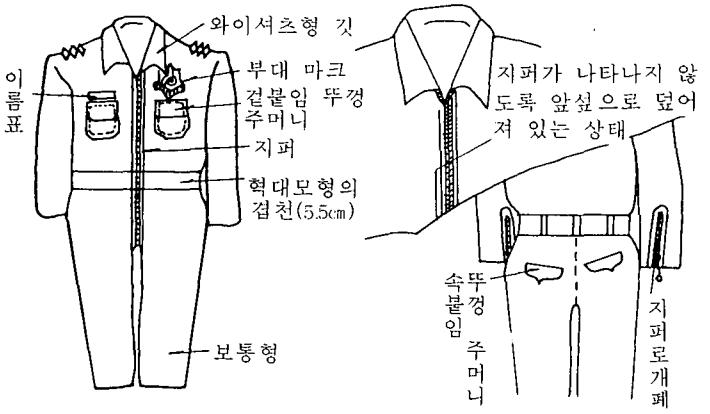
〈초병 우의 바지〉

2. 特殊服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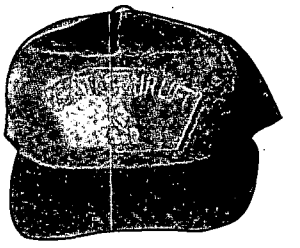
가. 操縱士 勤務服裝

동복은 곤색 모직 또는 혼방이며, 하복은 곤색 데드론지로서, 조종사가 행정부서에 보임되어 근무할 때 착용한다. 와이셔츠형으로, 상·하 연결 제식이다. 허리에 폭 5.5㎝의 겹천으로 된 띠를 붙인다. 앞섶의 지퍼가 밖에 노출되지 않도록 속붙임으로 한다. 소매 끝부분에 지퍼를 부착하여 개폐하고, 하의부분에 속붙임 뚜껑주머니를 달았다.

곤색 전투모 또는 기지모를 착용한다. 전투모로서 대용이 가능한 기지모는 곤색 혼방으로 앞쪽이 높고 뒤쪽이 낮은 모양이며, 색상은 기지별로 정하되 단일색으로 하였고, 모표 표시는 부대별 표지로 하였다. 1990년 11월 1일의 〈공규 2-87〉 제28조에 의하면, "기지모는 영내에 한하여 일선대대 조종사만 비행복 및 운동복에 착용한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1993년 9월, 기지모는 나일론으로 각 대대별로 제정하게 하였으며, 일선대대 조종사 중 참모 및 행정지원 조종사, 소속 장병은 제외시켰다.



〈조종사 근무복〉



〈기 지 모〉

나. 整備士 勤務服裝

곤색 혼방 또는 면직으로서, 와이셔츠형이며 상·하 연결 제식이다. 허리에 폭 5.5㎝의 겹천으로 된 띠를 붙였다. 허리·팔·다리에는 줄임 매직 테이프를 붙이고, 무릎 또는 팔꿈치 부분에는 별도 천을 이중으로 붙여서 견고하게 하였다. 앞섶은 이중겹으로 하며, 속단추를 붙여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하의 뒷주머니가 없다. 하근무복은 얇은 여름용 기지로서 반소매형이다. 1983년의〈공규 35-1〉의 규정에는 뒷면 등판에 폭 5㎝의 형광 천 테이프로 사방 25㎝의 크기로 'T'자를 붙이게 하였다.

다. 落下傘 投下服

낙하산 강하요원이 착용하는 낙하산 투하복은 동복은 곤색 나일론, 하복은 감색 나일론으로 하여, 앞섶은 목에서 하의 발목까지 지퍼로써 개폐하도록 하였으며, 좌측 소매 중단에 겉붙임 지퍼주머니를 달고, 요부 좌·우에 속붙임 주머니를 달았다.

소매와 다리는 신축성있는 자바라로써 탄력있게 하였다. 상·하 연결식이며, 허리띠로써 단정하게 하였다. 동복은 속누빔을 하여 겹으로 하였고, 머리덮개를 하였으며, 줄임끈을 달아 착용하였다. 뒷면은 등과 허리를 줄임하여 단정하도록 했다. 1989년에 얼룩무늬로 바뀌면서 겉감은 방수처리된 얼룩무늬 면직지, 안감은 오렌지색 나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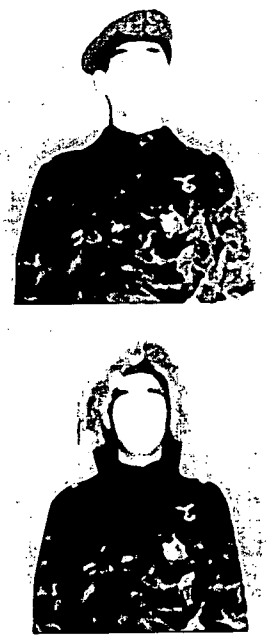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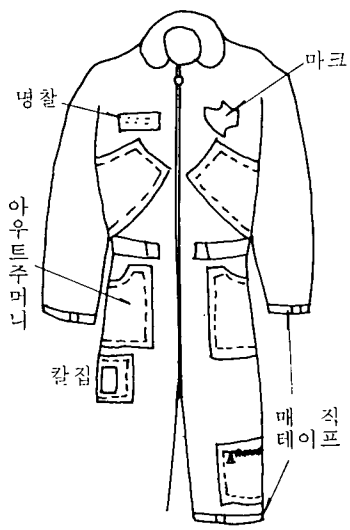


등판

〈정비사 근무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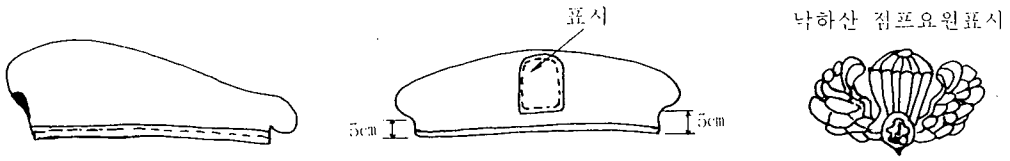




〈낙하산 투하복〉

일론, 내피의 안감은 인조견으로 하였다.

낙하산 투하요원의 모자는 흑색 모직 또는 나일론을 사용하였고, 전면은 높고 후면은 낮은 원형의 커버로 되어 있다. 전·후면 구분없이 대포(帶布)의 폭이 10㎝인 천을 빳빳하게 하였다. 그러나 1989년에 복색이 얼룩무늬로 바뀌면서 모자색상도 자색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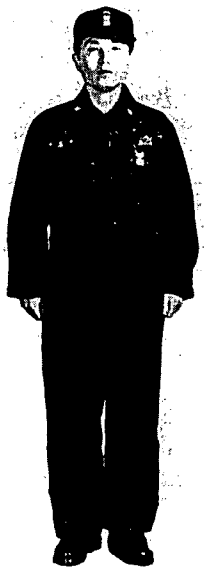
〈낙하산 투하요원 모자〉

라. 戰術航空統制班 要員服裝

전술항공통제의 임무를 수행하는 통신 및 수송사병을 대상(장교는 기본 전투복에 마크와 명찰만을 부착)으로 곤색 전투모에 곤색 전투복(일명 : 정비사근무복)을 착용하는 복장을 제식하였다. 1981년에 개정된 제식에 의하면, 비닐 또는 천으로 직경 10㎝의 원형 마크를 좌측 가슴에 부착하고, 미군과 합동근무시의 착용을 고려하여 가로 10㎝×세로 3㎝ 크기의 명찰 하단에 'R.O.K. AIR FORCE'를 추가로 표시하였다. 명찰의 바탕은 곤색이며 글씨는 흰색이다. 영문글씨는 4방 1.2㎝로 하였다.

마. 救助士 服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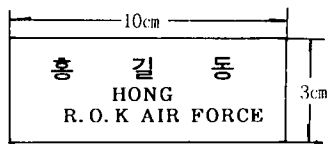
1984년의 〈공규 35-1〉에 의한 구조사 복장은 항공구조사요원과 공정통제요원이 착용하는 복장으로 상의를 요대밖으로 착용하였다. 겉감은 방수처리된 얼룩무늬 면직이고, 안감은 오렌지색 나일론이며, 내피의 안감은 인조견으로 하였다. 동·하복의 구분이 없으며, 깃은 노타이형이다. 앞섶을 2중으로 하여 단추가 외부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칼라를 세워서 뒷면에 방한모를 끼울 수 있도록 단추를 달았다. 소매 깃은 졸임단추로, 상의주머니는 졸임선을 넣어 단정하게 했다. 바지깃에도 졸임끈을



복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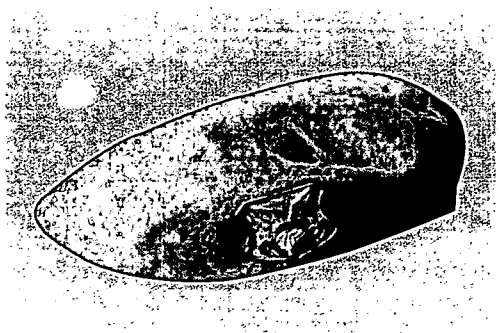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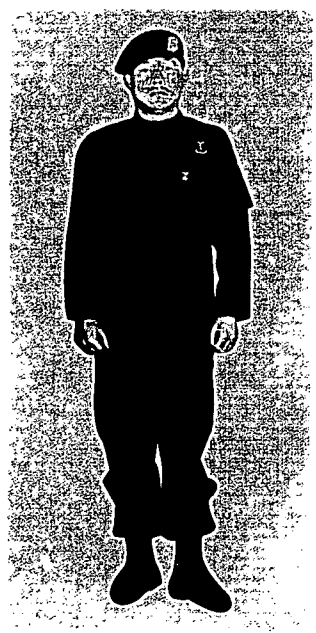
마 크



명 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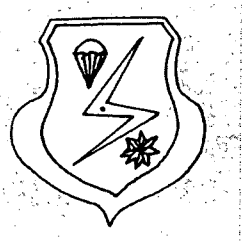
〈전술항공통제반요원 복장〉







구조사



공정통제

〈구조사 복장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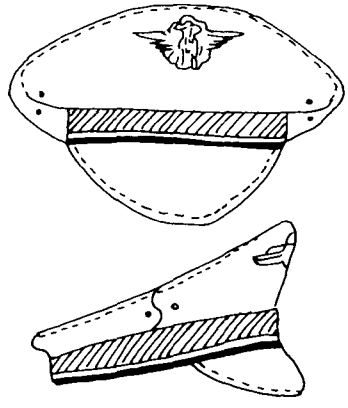
넣어 단정하게 했다. 하의 요대 좌·우측면에 줄임장식을 붙여 신축성이 있게 하였다. 방한모 깃은 진회색 털을 부착하며, 내피는 단추를 끼워 부착한다. 모자는 전면은 높고, 후면은 낮은 원형의 커버로 되었고, 전·후면 구분없이 대포(帶布)의 폭을 10㎝의 천으로 빳빳하게 하였다. 이름표·계급장·흉장 등의 표지류는 포제이며, 매직테이프를 사용하여 부착하였다.

바. 行 事 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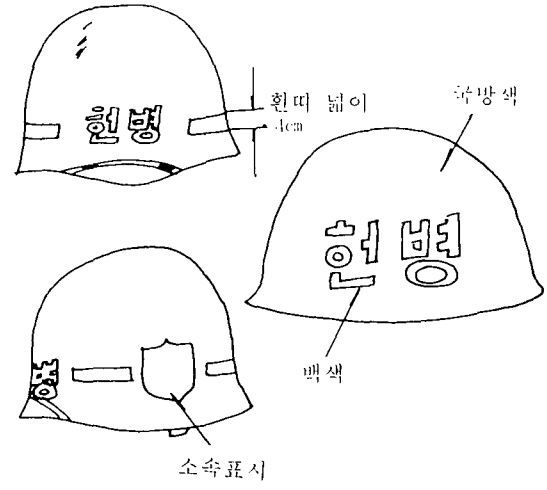
(1) 헌병복

1976년 5월 1일의 〈공군규정〉에 의하면, 헌병 행사모는 곤색 모직지로, 차양 및 턱 끈은 흑색 비닐 피혁이다. 사병 정모와 형태가 같으며, 커버는 백색 면직이고, 턱 끈은 백색 비닐로 모자 후면까지 두른다. 좌·우 측면에 소형 은색 귀단추를 달고, 전면 중앙에 모표를 고정시킨다. 모자 내부의 테는 고무링으로 고정시켰다.

헬멧은 국방색 바탕에 폭 1.5㎝의 백색 '헌병'글자를 가로 4.5㎝×세로 6㎝ 크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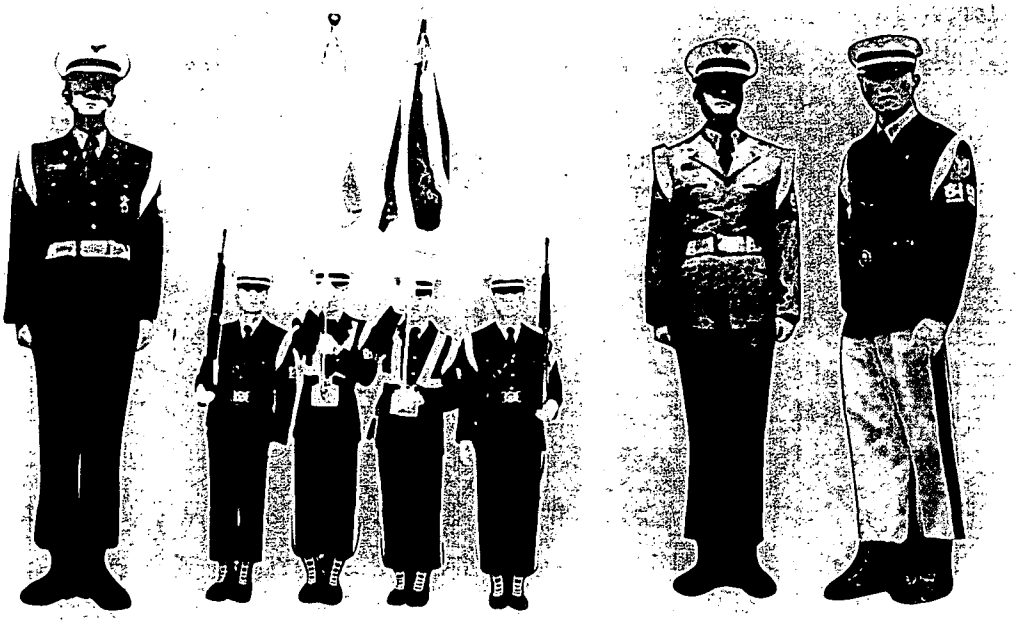


행사모



헬 멧

〈헌병모〉



1976년 이전　　1976년 이후　　1976년 이전　　1976년 이후

동 복　　하 복

〈헌병 행사복〉

쓰고, 흰 띠의 넓이는 4㎝로 하였다. 소속이 표시되는 측면 방패 크기는 가로 7㎝×세로 8.5㎝이다. 헌병 행사복은 1976년 이전의 경우 정복과 동일하여, 동복은 곤색 모직 또는 혼방, 하복은 은회색 모직 또는 혼방을 재질로 하였다가 1976년 이후에는 곤색 모직 또는 혼방을 재질로 하였다. 1976년 이전에는 흰색 벨트를 착용하였다가, 그 이후 흑색 가죽벨트를 착용하였다.

(2) 의장대

〈대통령령 제5538호〉에 의거 제정된 복식규정에 의하면, 동복은 상·하 공히 곤색 모직 또는 혼방이고, 하복은 상의는 곤색 모직 또는 혼방이며, 하의는 백색 모직 또는 혼방이었다. 정복 제식에 폭 7.3㎝의 곤색 바탕에 상·하 1㎝씩의 백색을 두른 벨트를 맨다. 견장과 좌측 흉부에 금속 칠보의 의장 표지를 부착하고, 어깨에는 견식을 두른다. 좌·우 소매끝에서 7㎝ 위치에 의장 표시를 은회색 자수로 한다. 하의

바지는 동복에는 4㎝ 백색 줄을, 하복에는 4㎝ 곤색 줄을 댄다.

그후, 일부개정을 본 의장대의 제식은, 옷깃의 윗부분에 의장 뱃지를 부착하고 좌측주머니에 패용하던 금속부착물을 제거하고 그대신 의장표시 WING을 달았다. 좌측 어깨에 4줄로 된 견식을 달고, 좌·우 소매끝에서 7㎝ 거리에 사선으로 2.5㎜의 백선 자바라 두 줄을 달았다.(1981년에 소매표지는 다시 환원되었다.) 5㎝의 흰색 가죽벨트로 제복을 단정히 하고 견식줄 2줄을 내리어 벨트에 걸었다. 하의는 좌·우측 봉합선상에 2.5㎜의 백색 자바라를 붙였다가 폭을 4㎝로 다시 늘렸으며, 곤색 하의에는 백색줄을, 백색 하의에는 곤색줄을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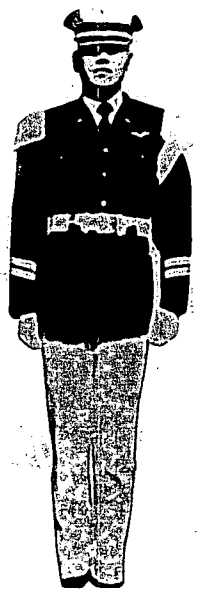
의장복식을 착용시는 반드시 행사모에 흑색 워커를 신어야 한다. 행사모는 곤색 모직지로 차양은 흑색 비닐 피혁으로 제작하였다. 사병 정모와 형태는 같으며, 커버는 백색 면직이고, 턱끈은 백색 비닐로 하였다. 좌·우 측면에 소형 은색 귀단추를 달고, 전면 중앙에 모표를 고정시켰다. 모자 내부의 테는 철사로 고정시켰다.



각령 제700호



동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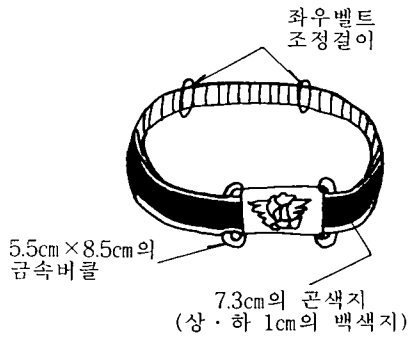
하 복

〈의장복식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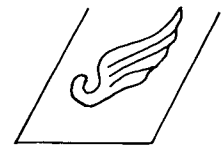
흑서기에는 약식 행사용 제복 착용이 가능하였다. 이 의장대 약식 행사복은 공군 본부 현관 근무병도 착용하는데, 노타이 반소매 보통형 제식으로서, 행사용 정복 착용벨트에 정모를 착용하고 견장을 달며, 장병용 T형 하늘색 머플러와 좌측 주머니 중앙에 칠보제 의장 표지를 패용한다. 하의 좌·우에는 폭 4㎝의 백색 바지줄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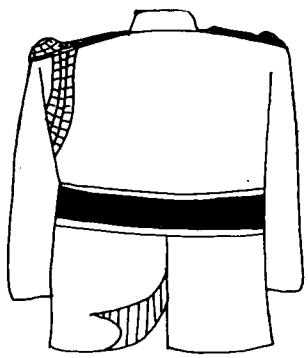
상의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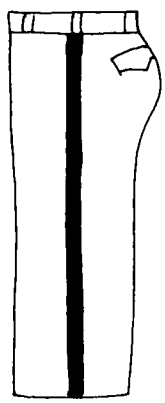
벨　트



소매표시



상의 뒤



하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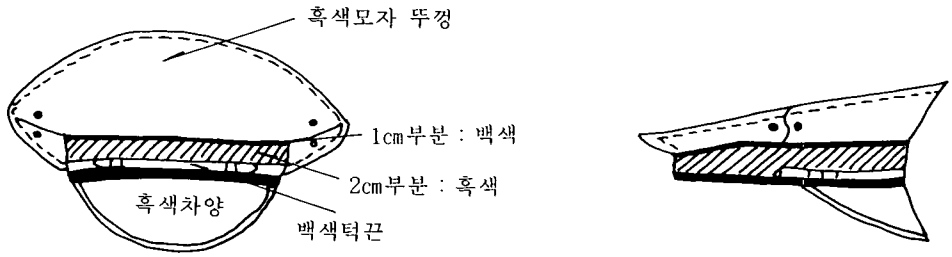


곤색바탕 (칠보제)
글씨, 독수리 은회색

"크기"
포　제 : 10㎝×7㎝
흉장용…7㎝×5㎝
견장용…5.5㎝×4㎝

의장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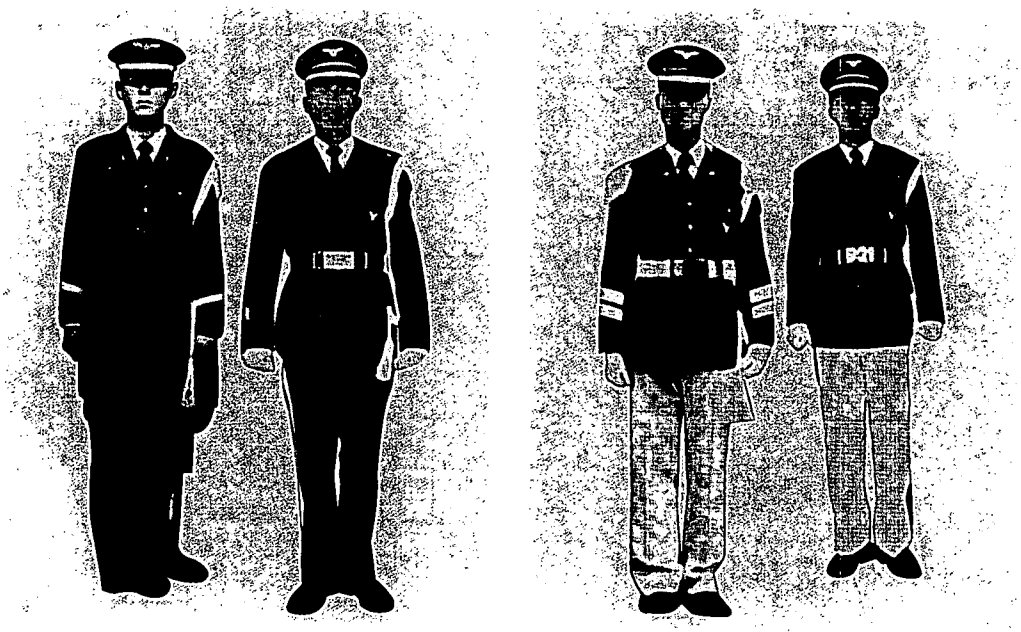
〈개정된 의장복식류〉



〈의장 행사모〉

(3) 군악복

상의는 곤색 모직 또는 혼방이며, 하의는 백색 모직 또는 혼방이다. 동·하복의 구분은 얇고 두터움으로 구분하였다가, 그후 동복은 상·하 모두 곤색 모직을 사용하고 하복의 경우 상의는 곤색 모직 또는 혼방을, 하의는 백색 모직 또는 혼방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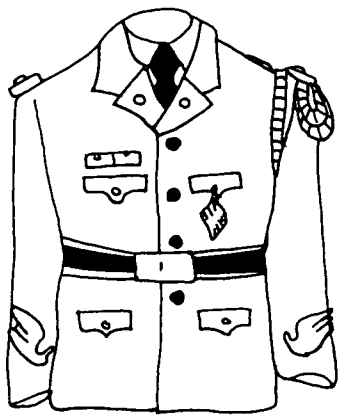
1962년~1974년 1974년~ 1962년~1974년 1974년~

동 복 하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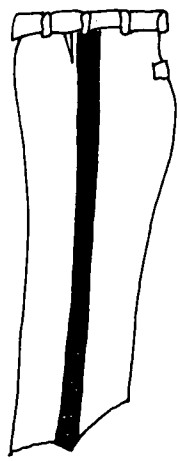
〈군악행사복류〉

정복 제식과 같다. 10㎝ 길이의 백색 수술을 단 견장을 좌·우 어깨에 부착한다. 좌측 어깨에 견식줄을 달고, 우측 소매 상단에 포제 군악표지를 달았으며, 좌측 주머니 중앙에 금속 칠보제 군악표지를 패용하였다. 좌·우 소매끝에서 7㎝ 위치에 사선의 폭 2.5㎜ 백색 자바라를 두 줄 두른다.(의장과 마찬가지로 다시 날개형상의 무늬로 환원되었다.) 하의 좌·우측에는 4㎝의 곤색 바지줄을 친다. 착용시에는 반드시 행사모와 흑색 단화를 착용한다. 행사모의 제식은 의장과 동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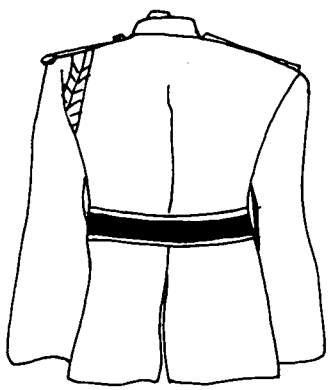
그후, 일부 개정된 제식은, 옷깃의 윗부분에 군악 뱃지를 부착하고, 상의 좌측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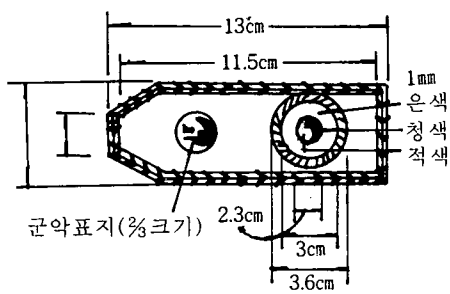
상의 앞



하 의



상의 뒤



군악 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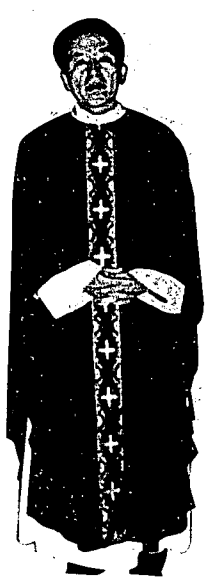
〈개정된 군악복식류〉

머니 상단에 군악 WING을 부착하였다.(1981년에 다시 원래대로 환원되었다.) 의장대와 동일하게 소매끝에 백색 자바라를 부착하였고, 견식 중 2줄을 상의 밑주머니 단추에 걸었다. 하의도 의장대와 동일하였다. 군악 역시 약식 행사복이 의장과 함께 있다.

사. 宗敎制服

군종장교의 재질은 신부와 목사의 경우 흑색 모직, 법사는 회색 모직을 사용하였다.

신부가운의 제식은 목을 칼라 삽입형으로 하고, 앞섶에 외줄로 흑색 단추 23개를 단다. 길이는 발목까지 길게 하며, 상하가 연속되고 허리 밑은 폭을 넓게 한다. 목사가운은 양 어깨 후면 목 밑으로 주름을 많이 잡고 통을 넓게 하였다. 깃 둘레에서 앞섶 양쪽에 10㎝ 폭으로 빌로드를 붙이고 속으로 단추 5개를 달았다. 길이는 발목까지 길게 하며, 깃은 저고리 깃과 같으며 자바라를 둘렀다. 법사 가운은 앞섶을 밤색 수단으로 두르고 검은 천으로 씌운 단추 2개를 달았다. 좌우에 주름 셋의 밤색 수단을 상하로 <형으로 붙였다.



신 부



목 사



법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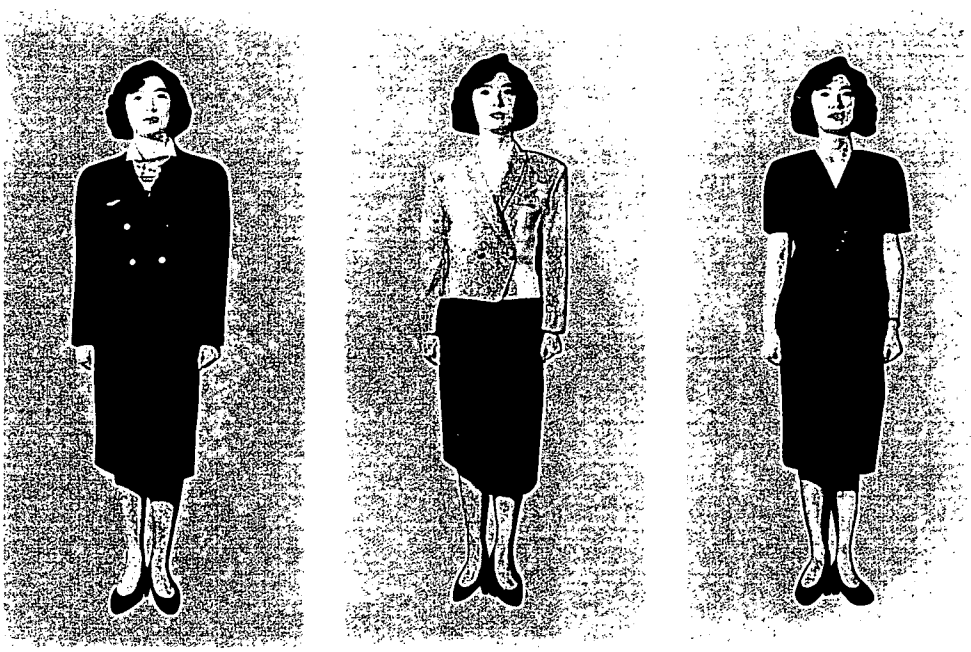
〈가운과 스카프〉

아. 女子 乘務員服

여자 승무원 복장은 재질을 곤색 모직 또는 혼방으로 하였다. 동복은 단추 2개를 단 보통형 제식으로, 내의는 흰색 실크 블라우스이며, 스커트는 무릎 높이로 하였다. 소매는 뒷면에 2개의 단추를 달았다. 그후, 1976년도에 개정되어, 곤색 범표 데리칼 저지지에 칼라를 흰색으로 하였으며, 스커트는 무릎 위 5㎝로 하였다.

하복은 단추 1개를 단 보통형 제식으로서, 내의는 반소매 블라우스이다. 스커트는 앞·뒤에 맞주름을 잡고, 폭 3㎝의 벨트를 착용하였다. 그후, 개정되어 하늘색 제일모직 데드론지로 하여, 칼라는 흰색으로 하고 역시 무릎 위 5㎝로 하였으며, 소매는 팔꿈치에서 5㎝ 떨어지게 하였다. 승무원 흉장의 우측 날개만 있는 금은자수의 표지를 좌측 가슴에 패용하였다. 모자는 등산모형이고, 여름엔 하늘색, 겨울엔 곤색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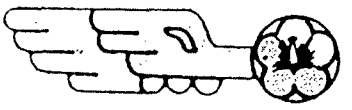
구두는 보통형 하이힐이며, 여름에는 흰색, 겨울에는 곤색을 사용하였다. 1986년에는 단화형으로 갈색 굽을 가진 기내화(機內靴)를 두었다. 1985년에 새로이 제정된 제식에 의하면, 곤색 모직을 재질로 사용하였으며, 동복 상의는 단추 4개를 단 더블형



동 복　　춘추복　　하 복

〈여자 승무원 복장〉

보통 제식이고, 하의는 곤색 스커트를 무릎높이로 하였고, 옆주머니가 있으며, 뒤 상단 1/3은 지퍼, 하단 1/3은 뒷트임을 두었으며, 블라우스는 스텐 칼라에 흰색 폴리에스테르로, 긴소매에 어깨주름을 준 단추 6개의 제식이고, 리본형 스카프를 착용하였다.



〈여승무원 표지〉

춘·추복 상의는 분홍색 모직으로, 단추 2개를 단 더블형 정장이고, 하의는 회색 스커트로 형태는 동복과 동일한 제식이었으며, 블라우스는 V형 흰색 폴리에스테르로 긴소매에 단추 8개가 부착되었다. 춘·추복에는 스카프를 제거하였다. 하복 상의는 청보라색 혼방으로 단추 3개를 단 싱글형 정장에 반소매이며, 앞가리개가 있었고, 하의는 청보라색 혼방 스커트로 형태는 동복과 동일하였다. 블라우스는 착용하지 않았다.

1976년 5월의 〈공규 35-1〉에 의한 여승무원의 외투는 곤색 범표 데리칼 저지지로서, 노타이형 코트이며, 단추 4개를 달고, 폭 5㎝의 벨트를 하되 앞에서 매도록 하였다. 소매는 커프스형이다.



동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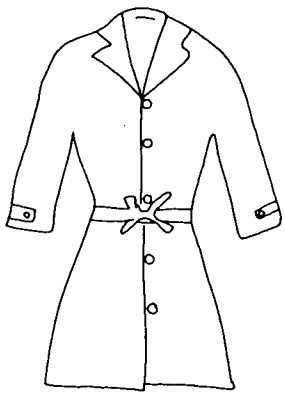
춘추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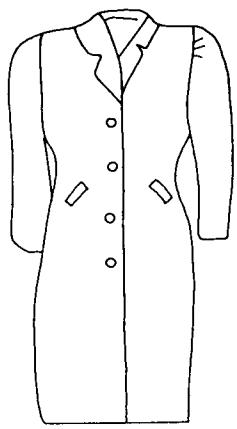
하 복

〈여자승무원 복장(1985년~1995년)〉

길이는 무릎과 발의 중앙에 오도록 하고, 단추는 같은 천으로 싸게 했다. 그후, 1984년도에 이르면 일부 개정이 되어, 곤색 모직 또는 혼방으로, 단추 6개를 단 망토형 제식이 되었으며, 탈착식 머리덮개가 있으나, 소매는 없다.



1976년도



1984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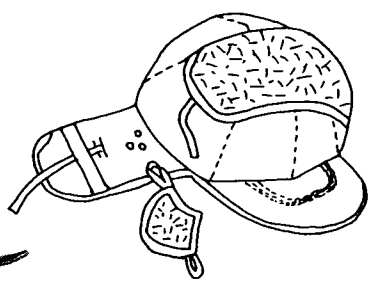
〈여승무원 외투〉

자. 防 寒 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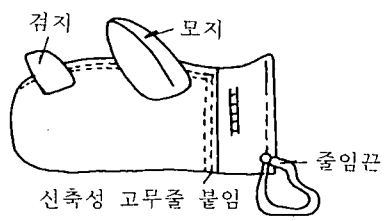
방한모와 장갑은 방한용 속털을 붙인 국방색 TC지를 사용하였다. 방한모는 6각천 붙임의 머리덮개와 속털이 있는 귀와 입덮개가 있으며, 차양은 두 겹을 밀착하고



각령 제700호 방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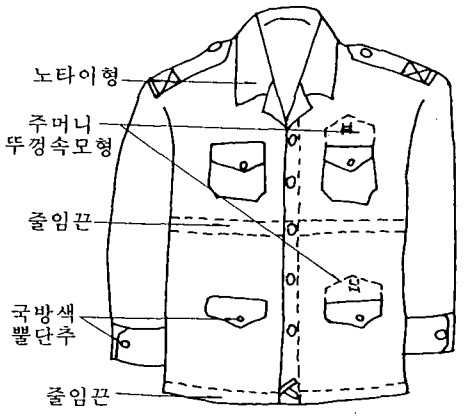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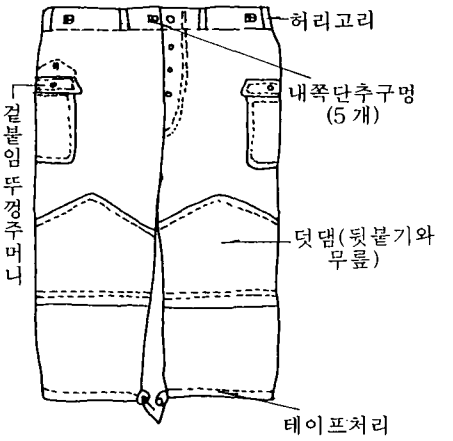


방한장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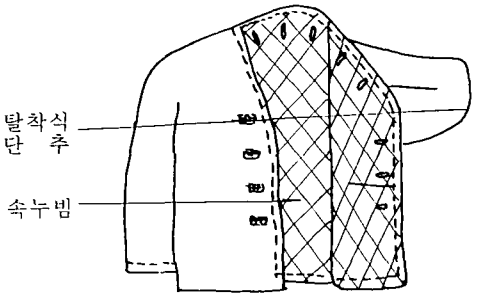
〈방한모와 장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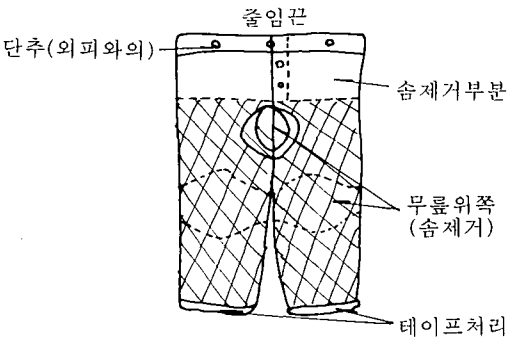
상 의



하 의



내 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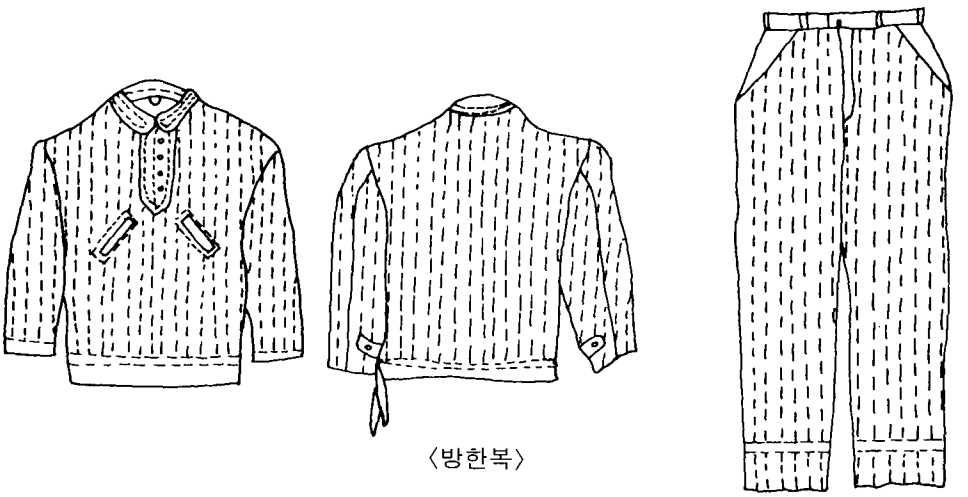
내 피

〈방한복〉

윗면에 PVC를 접착하였다. 모자 뒷면을 덮일 수 있도록 길게 내렸으며, 귀덮개는 줄임끈으로 조일 수 있도록 하였다. 국방색 TR지로서, 내부는 방한용 누빔천을 사용한다. 상의는 노타이형의 점퍼제식으로서, 허리와 맨 밑 부분에 줄임끈으로 맬 수 있도록 하였다. 앞섶을 이중으로 하여 단추가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부착하였다. 방한용 탈착식 내피를 사용하며, 내피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야전상의로도 대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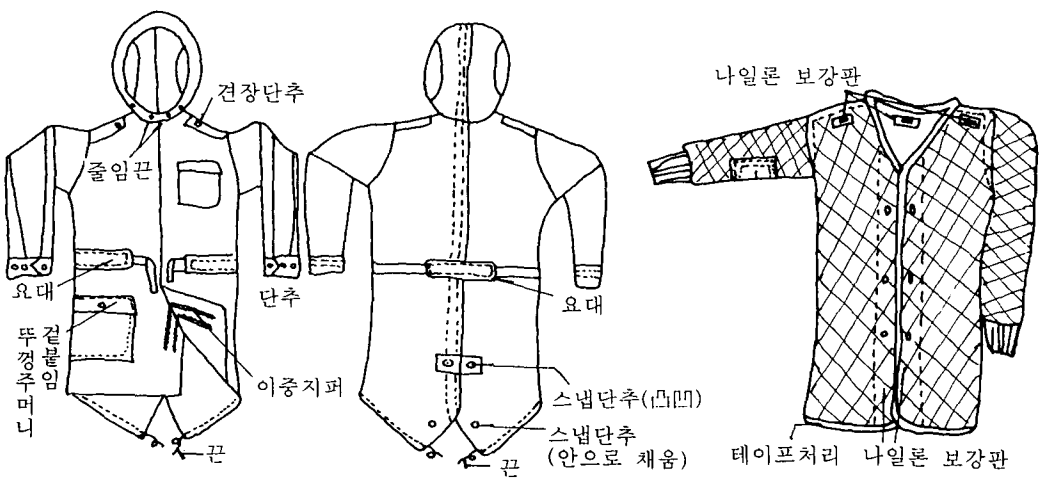
하의는 전투복형 바지로서, 뒷 볼기의 무릎에 같은 천으로 덧댐을 하고, 속누빔 무릎 뒤쪽은 활동성을 감안하여 솜을 넣지 않고 누볐다. 허리부분에 5개의 떼달이 단추 및 구멍을 부착하였다. 그후, 1976년에 일부 개정된 제식에 의하면, 재질은 곤색 방풍 면능직 또는 나일론으로 하여, 깃은 스텐 칼라, 정면 앞섶에 외줄로 소형 뿔단추 4개를 달았다. 좌·우 요부에 속붙임주머니를 세워서 붙였고, 하단에는 끈을

달아 졸일 수 있게 하였다. 상의 하단에는 줄임끈을 넣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착용하였다. 솜을 속에 넣어서 누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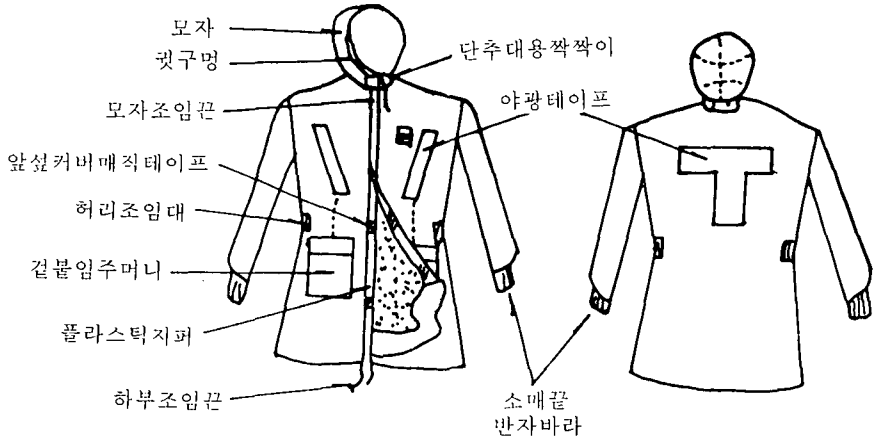
〈방한복〉

이외에 국방색 나일론지로 만든 파커형 방한복이 있다. 머리덮개와 몸부분이 연결된 제식으로서 스텐 칼라이며, 방한용 내피는 솜을 넣어 누빈 떼달이 제식이고, 앞섶은 안쪽에 지퍼를 달되 밖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 벨트는 덮개식으로 하였고, 머리덮개는 줄임끈으로 방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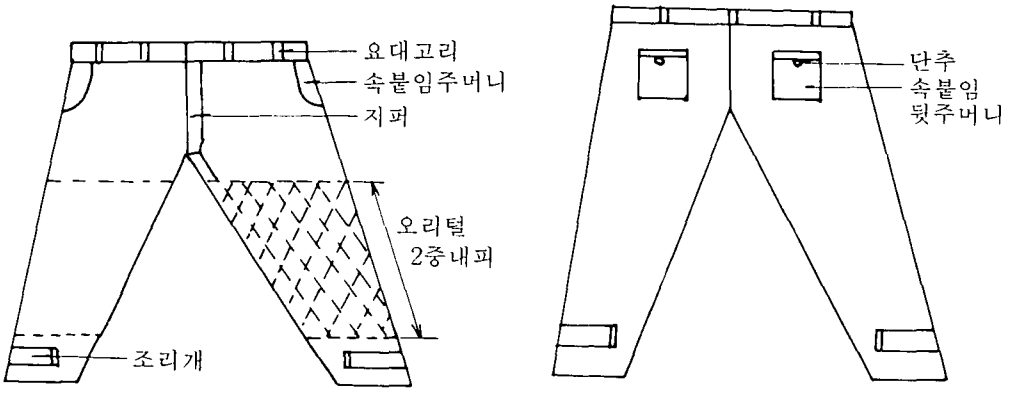
〈파커형 방한복〉

그후, 1990년의 〈공규 2-87〉에 의한 파커형 방한복은 종래의 특수근무자가 착용하던 방한복 외에, 정비사 및 무장사 그리고 연료차 운전병을 위한 파커형 방한복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외피는 곤색 면직으로 하고, 내피는 인조털로 하였으며, 외피와 내피는 분리식이다. 스텐 칼라이며, 모자는 딱단추를 부착한 분리식으로 하고, 귀부분에 구멍 3개를 낸다. 앞섶과 내피 부착지퍼는 플라스틱이며, 허리 조임대는 좌·우측 허리부분에 10×5cm 고무밴드를 넣고 누볐다.



전 면 후 면

〈파커용 방한복〉



전 면 후 면

〈특수방한복 하의〉

외피 소매끝은 반자바라형이고, 내피는 자바라이다. 등판에 T자형, 앞가슴 양쪽에 I자형 야광테이프를 부착하였다.

또한, 특수방한복 하의를 규정하여 중앙방공통제소 작전실 근무자들이 착용할 수 있게 하였다. 외피는 국방색 전투복 기지이고, 내피는 전면에 오리털 내피를 부착하였다.

색상은 국방색 연초록색이고, 전면 좌·우에 속붙임주머니를 부착하였으며, 허리부분에 요대고리를 부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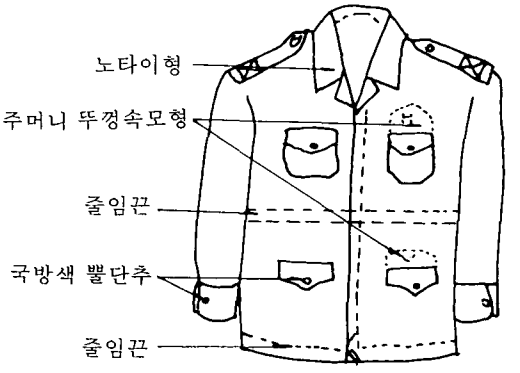
오리털은 2중 내피이고, 양쪽 발목부분에 똑딱이 조리개를 부착하였으며, 양쪽 뒷주머니는 겉붙임주머니에 단추를 부착하였다. 방한화는 훈련화와 제식이 흡사하며, 바닥 고무창이 생고무 합성고무로 톱니처럼 강인성을 가지는 바닥이다. 신 목에 16개의 구멍을 뚫어 개폐되도록 하였다.



〈방한화〉

차. 野戰上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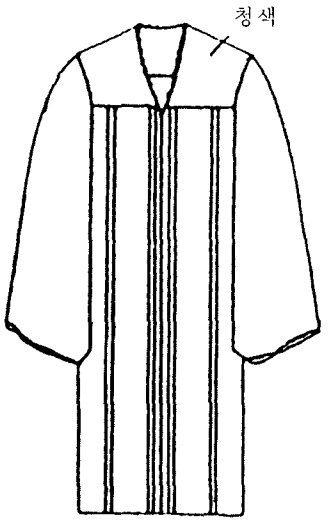
지질은 국방색 H.B.T.지로서, 노타이형의 점퍼 제식이다. 허리와 맨 밑 부분을 줄임끈으로 맨다. 앞섶을 2중으로 하여 단추가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부착하며, 방한용 탈착식 라이나를 부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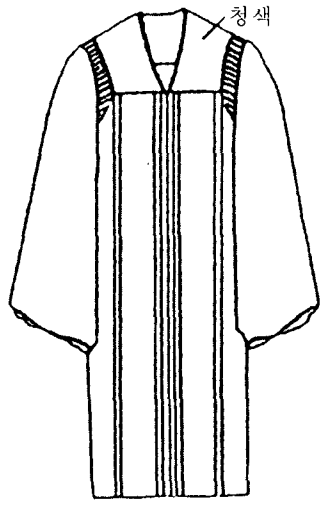
〈야전상의〉

카. 法　　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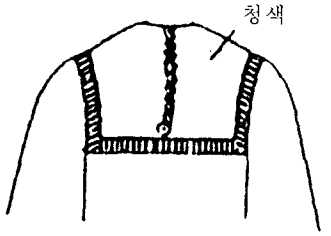
군사재판의 권위를 제고시키는 하나의 방안으로 1988년에 법복 제식을 규정하였다. 법복은 화섬 혼방을 사용하였으며, 앞가슴 및 뒷등부분은 청색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검정색으로 하였다. 목둘레에 검정색 레이스를 달았으나, 재판관은 양 어깨 끝부분을 앞가슴부분부터 뒷부분까지 주름을 넣었다. 앞섶에 검은 천으로 씌운 단추를 3개 달았다.



앞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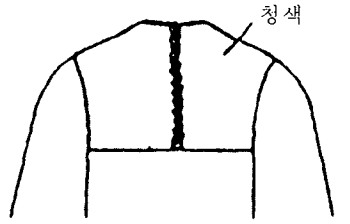


앞　면



뒷　면

(재판관복)



뒷　면

(심판서기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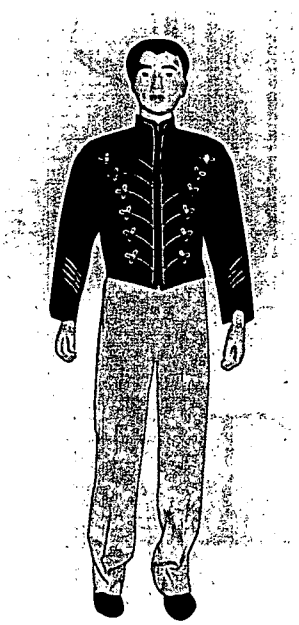
〈법　　복〉

타. 空軍士官生徒 制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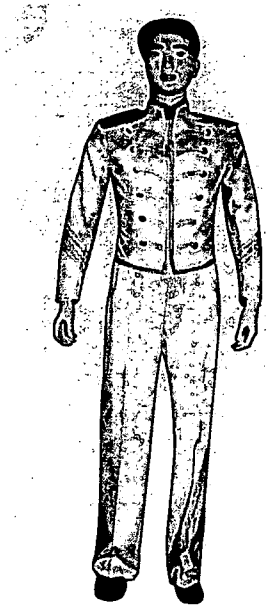
(1) 예　복

공군사관생도 동예복과 하예복은 1955년 4월에 제정되었다. 동예복은 상의는 곤색 모직이고 하의는 백색 모직이었으며, 하예복은 상의는 은회색 모직, 하의는 백색 모직을 사용하였다. 스텐 칼라에 조끼형이었으며, 정모 및 흑색 단화를 착용하였다.

그후, 1963년 11월에는 〈각령 제700호〉를 근거로 하여 사관생도 예복을 제정하였다. 상의는 곤색 모직이고, 하의는 백색 모직으로 하였으며, 동·하의 구분을 없앴다. 스텐 칼라에 조끼형으로 종전과 동일하였으나, 백색 비닐 'X'밴드를 사용하였고, 황색의 허리밴드를 착용하였다. 백색 정모형 모자에 흑색 단화를 착용하였다. 1974년 4월, 국방부 〈인사근 제203.2-195호〉에 의거, 사관생도의 예복 제식을 개정하였다. 예복 상의는 곤색 모직 또는 혼방, 하의는 백색 모직 또는 혼방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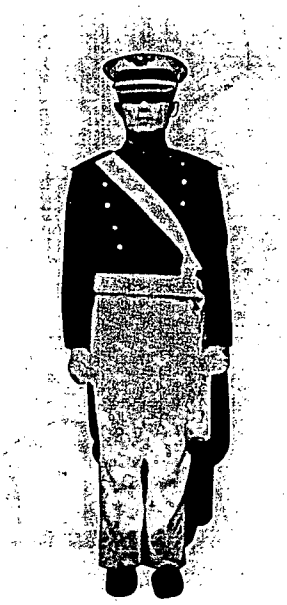


동　복



하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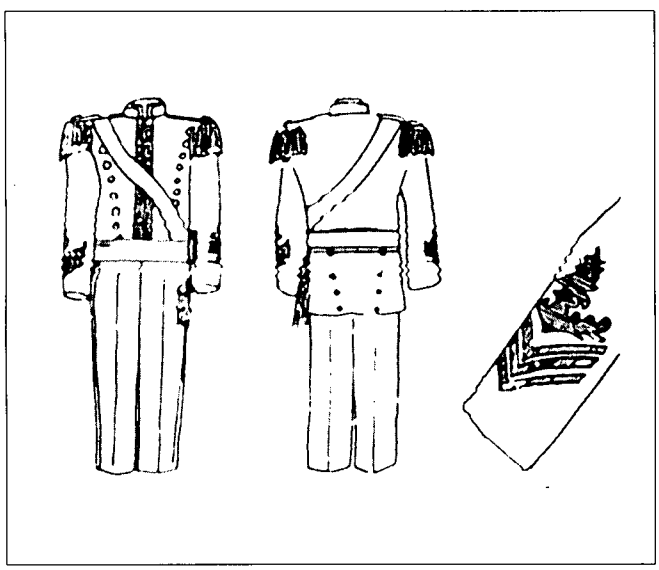
〈사관생도 예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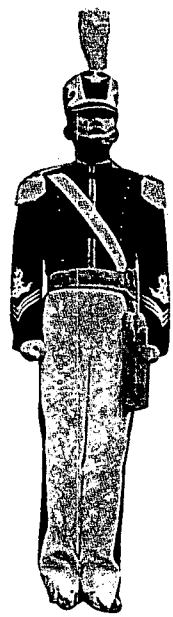
〈사관생도 예복(1963년~1974년 3월)〉

동·하계의 구분은 제식상으로는 없고, 피복의 두텁고 엷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목깃은 칼라 삽입형으로 0.5㎝의 백색 천을 붙여 밖에 나타나도록 둘렀으며, 좌·우에 생도 뱃지를 부착하였다. 뒤쪽 연미부분은 '팔(八)'자형으로 좌·우 4개 씩의 셀룰로이드 백색 단추를 달았다. 백색 피혁으로 된 폭 6㎝의 밴드를 우측 어깨로부터 좌측 허리로 앞뒤에 두르며(1981년에 7㎝의 폭으로 개정), 백색 천 폭 7㎝의 벨트를 허리에 두르고, 좌측 요부에 수술을 달았다.

앞섶은 백색 완자형으로 지퍼를 달아 개폐하도록 하고, 단추는 V자형으로 좌·우에 8개씩 셀룰로이드 백색 단추를 달았다. 하의는 보통 제식에 좌·우측 봉합선에 3㎝의 곤색(1981년에 흑색으로 개정) 자바라를 붙였다. 원추형 깃털 모자, 백색 장갑, 백색 구두를 착용하였다. 개정된 사관생도 예모는 흰 바탕에 진곤색 혼방으로 닭털깃을 앞세움하였다. 모자의 윗부분은 원형이며, 모자 원형을 백색 혼방으로 하되, 전면은 진곤색 바탕으로 조립하였다. 뒷면에는 곤색 턱끈을 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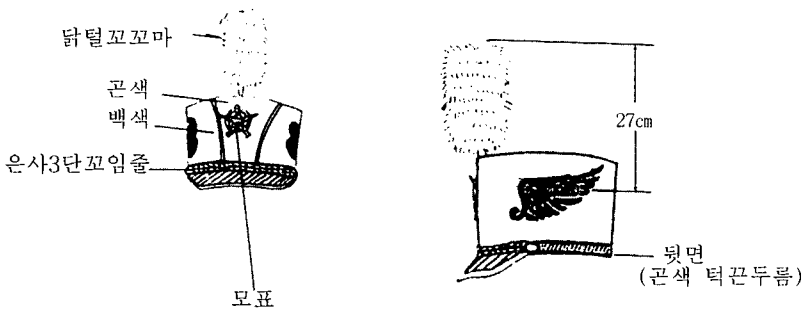
앞　　뒤　　소매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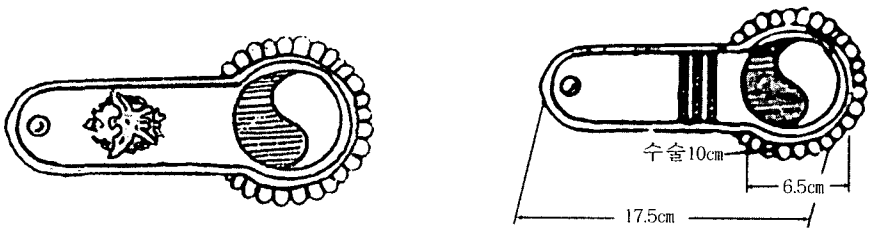
착용모습

〈사관생도 예복(1974년～)〉

좌·우 측면에는 공군의 상징인 비행기 날개를 표시하였다. 차양은 흑색으로 하되, 끝을 백선으로 두르며, 정면에는 닭털 깃을 세웠다. 사관생도 예복 견장은 길이 17.5㎝이고, 원의 지름은 6.5㎝이다. 바탕은 곤색이며, 나머지는 은(銀)모르자수로 하고, 태극마크는 흰색이고, 수술은 10㎝ 길이이다. 예화는 백색 피혁으로, 신사형 구두와 같으며, 앞에 끈을 매는 구멍이 10개이다. 무늬가 없는 단순한 보통형이며, 신등이 뾰족하지 않다.



〈사관생도 예모〉



1976년　　1981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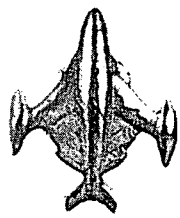
〈사관생도 예복 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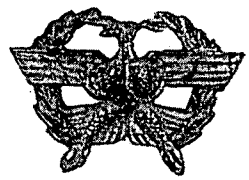
(2) 정　복

공군사관생도 동복은 1953년 10월에 제정되었고, 1976년 5월에는 〈대통령령 제5538호〉에 의거, 사관생도 정복 제식이 개정되었다. 사관생도 정모는 곤색 모직 또는 혼방으로, 현역장교 정모와 형(形)이 흡사하나, 모자의 원둘레가 적고, 모자 내부의 테는 철사로 고정시켰다.

(가) 동정복

동복지는 곤색 모직 또는 혼방을 재질로 하였다. 조끼형으로, 목은 칼라 삽입형이고, 앞섶은 지퍼로 개폐하도록 하였다. 좌·우 소매에는 1.5㎝ 폭의 자바라로써 사형(斜形)으로 학년별 표시를 하였다. 목 둘레, 앞섶 및 상의 하단, 하의 좌·우 측면 봉합선 등에는 1.5㎝의 흑색 자바라를 부착하였다. 상의 뒤쪽은 V자형의 자바라로, 좌·우 어깨에서 하단에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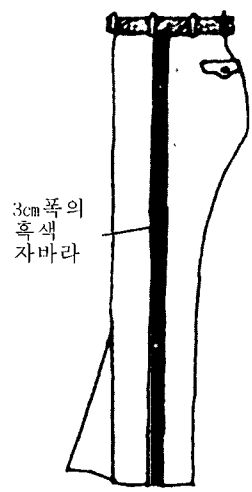
〈생도견장〉



앞 면



뒷 면



하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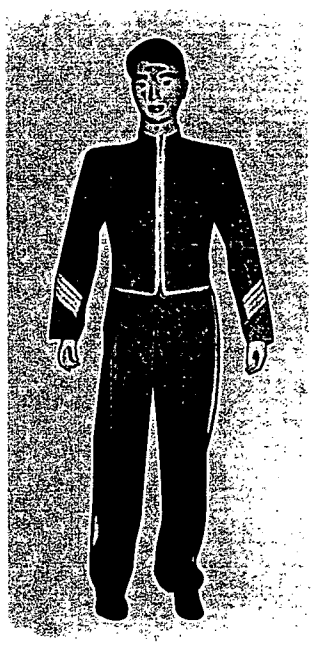
착용모습

〈사관생도 정복(1970년~)〉

생도견장은 곤색 바탕에 금·은실 자수를 하였으며, 삼각형부분의 생도 귀단추는 금색으로 하였다. 생도견장을 좌·우 어깨에 부착하여 학년을 표시하였다. 1선은 1학년이고, 2선은 2학년이며, 3선은 3학년, 4선은 4학년이다. 하의는 장교 하의복과 같은 제식이되, 3㎝ 폭의 흑색 자바라를 대었다. 1㎝×2.2㎝×0.3㎝의 백색 스텐레스로 근무생도를 표시하였다.

(나) 하정복

1954년부터 착용한 하정복은 은회색 모직으로, 스텐 칼라에 조끼형이었다. 1975년부터 착용하였던 하정복은 하복지 상의는 백색 폴리에스타르지, 하의는 곤색 폴리에스타르지를 사용하였다가, 후에 상의는 백색 모직 또는 혼방, 하의는 곤색 모직 또는 혼방으로 하였다. 노타이 반소매형 제식으로서, 현역 하약정복과 동일하였다.



1954년 6월~1975년 7월



1975년 8월~

〈사관생도 하정복〉

(다) 근무복

사관생도의 영내 평상 근무시에 착용하는 근무복은 정모에 근무복 상·하, 요대, 흑색 양말, 흑색 단화를 착용하였다.

(라) 외 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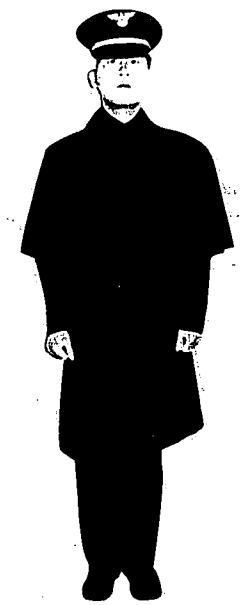
곤색 모직지로 망토형이며, 깃은 스텐 칼라로 하고, 앞섶에 지름 3㎝의 생도단추 6개씩 양 줄로 채운다. 허리 좌·우에 주머니를 달지 않으며, 어깨에 날개를 붙인다.

(마) 점 퍼

영내 평상 근무시 착용하는 근무복 착용시 생도점퍼를 착용하였다. 하근무복 착용시의 점퍼착용은 별도지시에 의하여 15°C 이하시 연장 착용도 가능하였다.



〈사관생도 근무복〉



〈사관생도 외투(1954년~)〉



〈생도 점퍼〉

第2節 階 級 章

1. 將校 階級章

가. 正裝·略裝·軍帽裝

장교 계급장의 제식은 견장과 금장이 같으며, 황색 놋쇠에 변하지 않는 은색 도금을 하여 부각면(浮刻面)이 명확하도록 하였다. 그 규격은 아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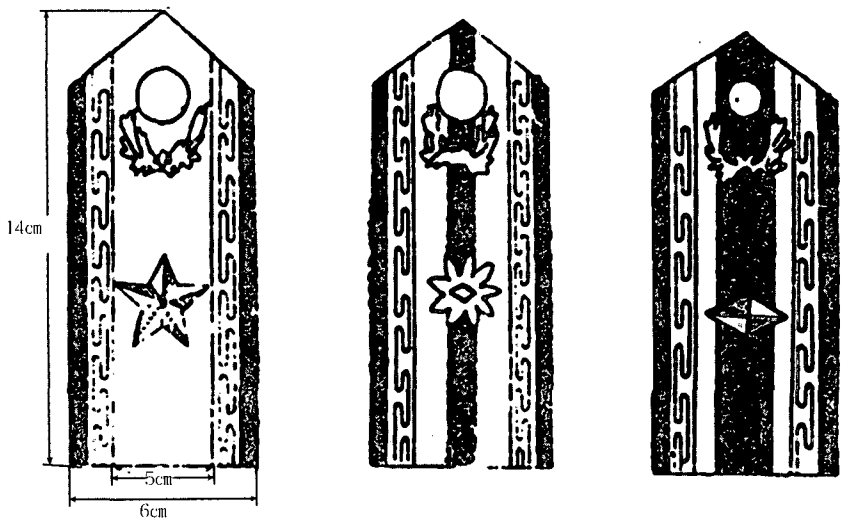
장교 계급장 규격

	견 장	금 장
대 장	직경 25.4㎜ 두께 6.35㎜인 별 4개를 별 중심점간의 간격은 19.35㎜가 되게 일직선으로 연결한다.	직경 9.68㎜ 두께 2.12㎜인 별 4개를 1角들이 위로 향하며 옆으로 직선이 되게 연결한다.
중 장	별이 3개이며, 별 중심점간의 간격 25.4㎜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장과 같다.	별이 3개 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장과 같다.
소 장	별이 2개인 것을 제외하고는 중장과 같다.	직경 11.1㎜ 두께 2.12㎜인 별 2개를 제외하고는 중장과 같다.
준 장	직경 25.4㎜인 별 1개로 한다.	직경 15.87㎜ 두께 3.17㎜ 별 1개로 한다.
대 령	竹葉 9개를 원형으로 연결하고, 그 속에 다이아몬드를 넣으며, 직경 18㎜, 두께 4㎜로 하고, 3개를 일직선으로 연결한다.	직경 13m 두께 3㎜인 것을 제외하고는 견장과 같다.
중 령	2개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령과 같다.	직경 15㎜의 2개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령과 같다.
소 령	1개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령과 같다.	직경 18㎜의 1개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령과 같다.
대 위	다이아몬드형으로 가로 20㎜ 세로 12㎜ 두께 5.5㎜로 하고, 3개를 일직선으로 연결한다.	가로 17.5㎜ 세로 9㎜ 두께 3.5㎜인 다이아몬드형 3개를 간격 1㎜로하여 직선으로 연결한다.
중 위	2개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위와 같다.	가로 19㎜ 세로 10㎜ 두께 4㎜인 다이아몬드형 2개를 간격 1.5㎜로 직선으로 연결한다.
소 위	1개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위와 같다.	두께 5㎜인 것을 제외하고는 견장과 같다.
준 위	금색 도금 외는 소위와 같다.	소위와 같다.

*출처 : 각령 제1232호

나. 禮裝用 肩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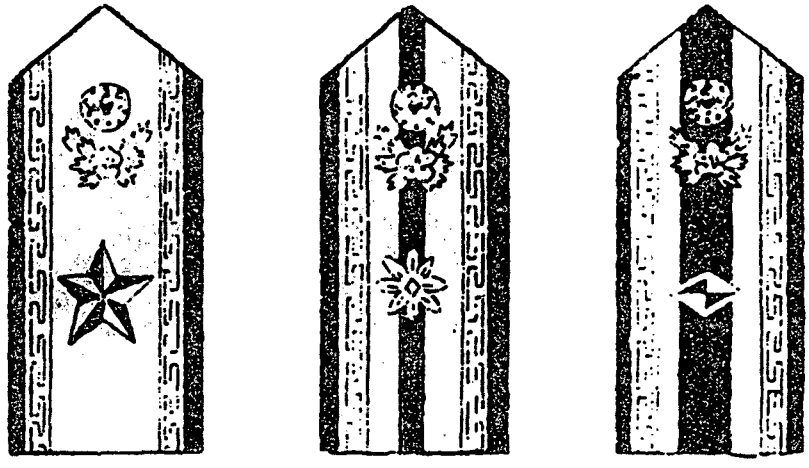
1962년 4월 27일의 〈각령 제700호〉에 의거, 공군 견장은 해군과 규격이 같았으며, 그 규격은 길이 5½″×폭 2¼″로, 외단(外端)은 직각이 되게 하고, 내단(內端)은 100°의 삼각형이 되게 하여 모표 귀단추를 붙인다. 이 알미늄판(板)에 흑색 멜턴지를 입히며, 넓이 5cm의 은색 테이프로 덮고 좌·우편을 폭 0.5cm의 흑색 멜턴지가 보이도록 하였다.



장관급 영관급 위관급

〈각령 제700호에 의한 야회복 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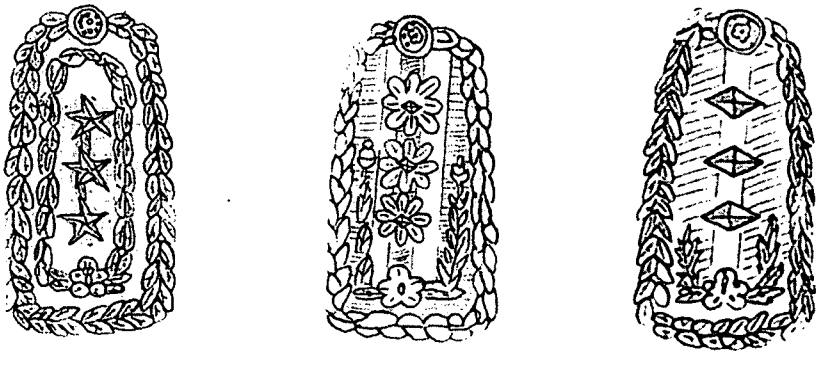
그후, 〈각령 제1232호〉에 의거, 견장의 윤곽은 전체의 길이 140㎜×폭 60㎜로 하고, 외단은 직각이나 내단은 90°의 삼각형이 되게 하였다. 장관급은 알미늄판에 흑색 모지(毛地)를 입히고, 은색 금속실로 짠 수식을 덮되, 좌·우 양쪽을 폭 5㎜의 흑색 모지가 보이도록 하였으며, 중앙 상부에 장교 모표를 새긴 작은 단추를 달고, 무궁화 모양의 중앙점이 단추에서 6㎜되는 중앙선에 두고 폭 3㎜로 된 무궁화를 은색 금속제로 만들어 붙였으며, 요철(凹凸)문양을 좌·우 양쪽의 흑색 모지에서 각각 8㎜ 폭으로 은색 금속실로 자수하되 요철 하나의 길이를 20㎜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하였다. 영관급은 장관급의 견장판 중앙에 폭 5㎜의 흑색 모지로 덮고, 그 위에 금속제 계급장을 붙였다. 위관급은 폭 10㎜의 흑색 모지를 덮고, 그 위에 금속제 계급장을 붙였다.



장관급 영관급 위관급

〈각령 제1232호에 의한 야회복 견장〉

1976년의 〈공규 35-1〉의 제식은 외형이 개정되어 90°의 삼각형에서 부드러운 형태의 평행사변형으로 변하여 둘레를 무궁화잎으로 장식하였다. 장관용은 은회색이며, 영관과 위관용은 바탕은 곤색이며 기타는 은회색으로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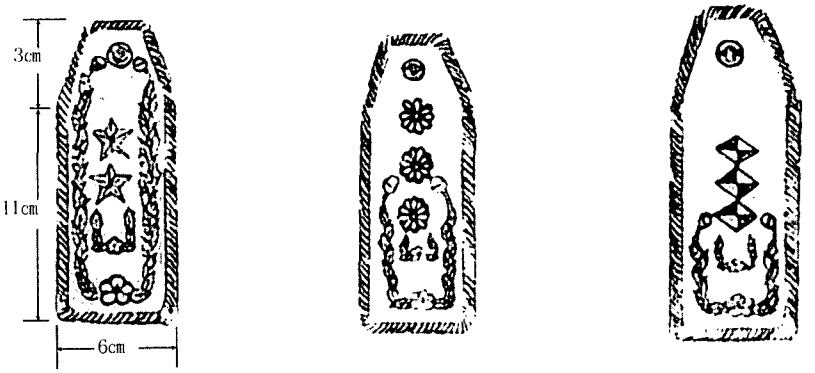


장관급 영관급 위관급

〈1976년도의 예장용 견장〉

1984년 〈공규 35-1〉에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내려졌다. 바탕은 윤이 나는 곤색 자바라지이며, 둘레는 무궁화잎이고 별은 은견사에서 천제로 바꾸었다. 견장의 뒷면 바탕은 복지색이고, 계급장은 정장규격으로 하되, 배열 위치는 견장 전체의 중심부로 하였다.

장관급의 경우 무궁화잎은 30개이며, 무궁화꽃은 1개, 꽃봉오리는 2개이다. 영관급은 무궁화잎 16개, 무궁화꽃 1개, 꽃봉오리가 2개이며, 위관급은 무궁화잎 12개, 무궁화꽃 1개, 꽃봉오리 2개이다. 그후, 장관급의 무궁화잎이 너무 많아 1988년에 무궁화잎을 26개로 줄였고, 나머지 제식은 같게 하였다. 규격은 60㎜×140㎜이다.



장관급 영관급 위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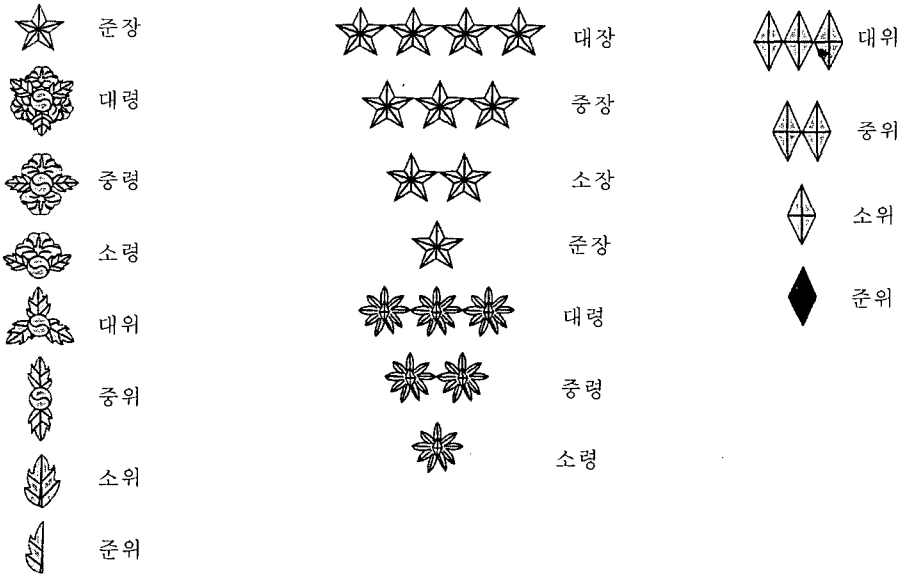
〈1988년 이후의 예장용 견장〉

다. 토시型 肩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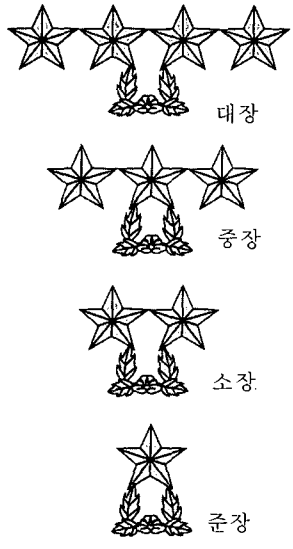
토시형 견장의 재질은 외부는 하복지질과 같은 곤색 데드론지이고, 내부는 토시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빳빳한 아청색 망사지이다. 재봉사(絲)는 바탕색상과 같으며 탈색되지 않는 실이다. 계급장은 정장규격의 은색 모르자수(단, 준사관은 황금색 모르자수)이다. 3성·4성 및 대령·대위의 배열은 계급장 가로 길이의 중심과 토시형 바탕의 중앙점이 맞도록 배열한다. 기타의 계급장 배열은 무궁화의 끝단이 외측 단에서 2㎝의 위치에 닿도록 배열한다.

그후, 1996년 10월 1일부로 은색 모르자수를 백색 직조로 제작방식을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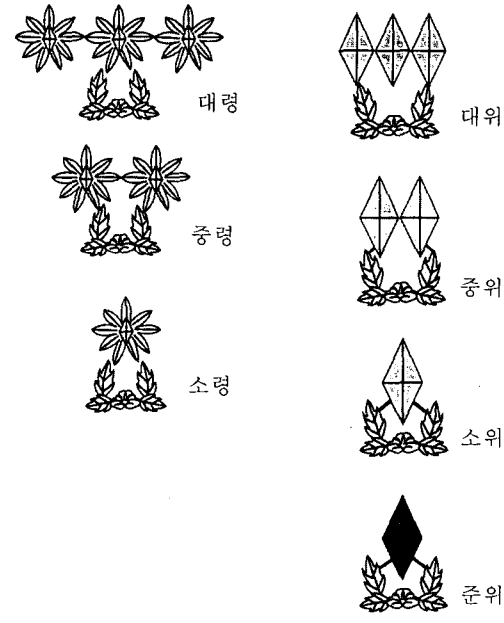
장교계급장



공군독립시 계급장(1949년 10월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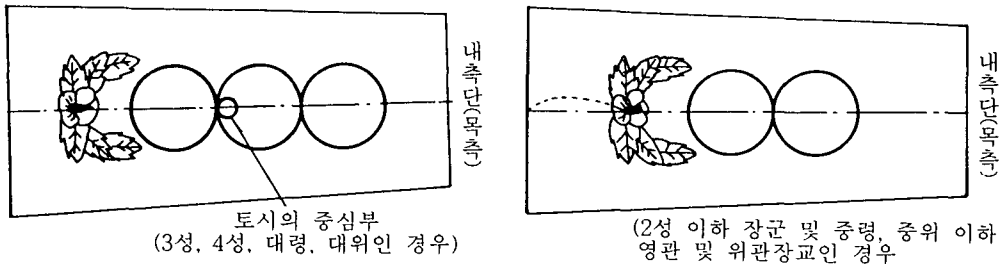


3군 통합계급장(1962년 8월 제정)



장교 계급장(1980년 1월 제정)

〈장교 계급장 변천사〉



〈토시형 견장〉

2. 士兵 階級章

공군 사병 계급장은 타군과는 달리 곤색 바탕을 사용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백색으로 계급장을 표시하였다. 약장은 천제 또는 포제로 하였고, 정장은 포제로 하였다가, 1996년 10월 1일부로 금색 천제로 신규 제정하였다.

구 분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 장	하 사	중 사	상 사	원 사
1946년 ~ 1961년								
1962년 ~ 1966년								
1967년 ~ 1970년								
1971년 ~ 현재								

〈계급장 제식 변천과정〉

기타 제식은 타군과 동일하였다. 계급장 제식 변천과정을 표로 보면 앞과 같다. 1996년 10월 1일, 하사관의 권익 신장과 자긍심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계급장을 개정 변경하였다. 하사관 계급장 재질이 포제이기 때문에 세탁시 손상·마모·탈색이 되어 비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식별을 위해 계급장이 지나치게 크고 색상이 강렬하며, 신분간 계급장 형태 및 부착 위치 차이로 열등감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크기가 작으면서 식별성이 우수한 방법, 즉 정복 및 약정복에 부착하던 종래의 포제 계급장 대신 새로이 금색 금속제 계급장을 제작하여 장교 계급장 부착 위치와 같은 위치에 부착하게 하였다.

계급장의 형태도 장교와 동일하게 무궁화 받침 위에 계급을 표시하고, 원사 계급은 종전의 반월형을 덮어씌움(⌒) 대신 별(★)을 표시하여 하사관 중의 최고 계급임을 나타내었다. 하사관의 토시형 계급장도 금색 직조로 신규 제정하였다.

구분		계급별 제식				부착복장
하사관계급장 제정	금속제					정장:예복, 정복 약장:동,하의 평복
	포 제					정장:우의, 정비사 근무복 약장:근무모
	토시형 (장교도 동일하게 직조로 개정)					곤색점퍼
	계 급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전투장(계급장) 개선	제식					정장:얼룩무늬점퍼 얼룩무늬야전상의 약장:전투복
	계 급	장관급	영관급	위관급	준사관	
	제식					
	계 급	하사관	병	기타표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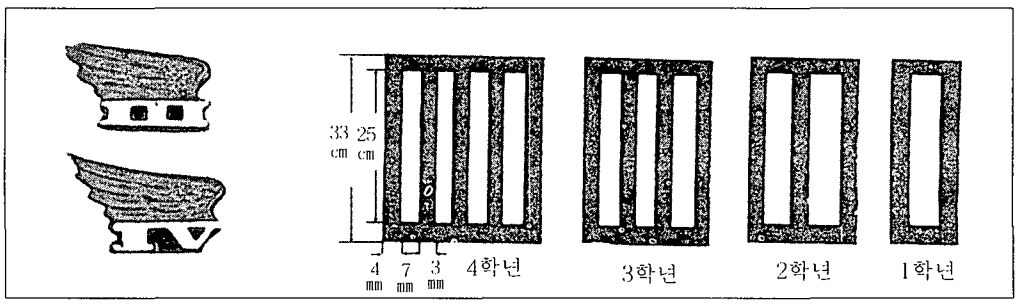
〈하사관 계급장 제정 및 개정(1996년~)〉

3. 士官生徒 階級章

사관생도의 계급은 사관학교의 특성상 학년이 계급을 대신하는 경우와 별도의 근무생도에 의한 계급구조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가. 生徒學年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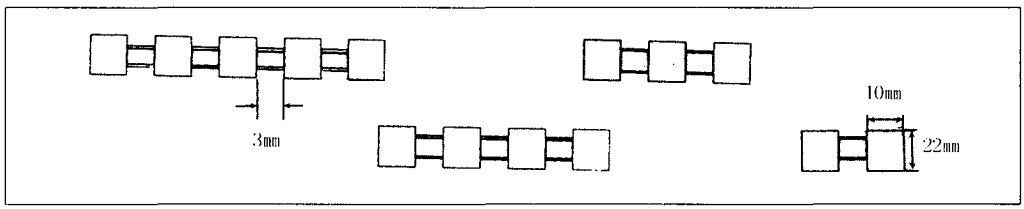
전 생도가 패용하는 것으로 포제이며, 부착되는 복장은 전투모·체련모·점퍼·우의·파이버·전투복 등이다.



〈생도학년 표시〉

나. 勤務生徒 階級章

해당직위 근무생도만이 패용하는 근무생도 계급장은 스테인리스 스틸로서 은색이며, 부착복장은 약복과 전투복이다.



〈4학년 근무생도 계급장〉

第3節 帽　標

1. 將校 帽標

1962년 4월 27일의 〈각령 제700호〉에 의한 모표제식은 상·중·하의 조립식 놋쇠로 하되, 상·중·하의 순서로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장교 모표〉

- ·하 : 직경 4.5㎝ 금색 무궁화환(無窮花環)
- ·중 : 은회색 독수리가 머리가 우측을 향하며, 옆으로 벌린 날개의 길이는 9㎝, 머리는 날개의 중앙에 두고, 몸통은 직경 2.1㎝, 다리는 0.8㎝이며, 니켈도금으로 하였다.
- ·상 : 직경 1.7㎝의 황색 월계관 내에 직경 1.5㎝의 황색 별 1개를 두었다.



〈사병 모표〉

자수(刺繡)모표의 경우 바탕은 곤색이며, 무궁화와 별은 금사(金絲), 기타부분은 은사(銀絲)로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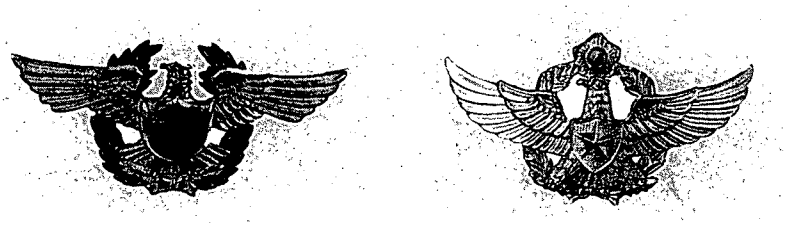
2. 士兵 帽標

금색의 무궁화환이 없으며, 기타 제식은 장교 모표와 동일하다. 1996년 10월 1일부터는 하사관의 모표는 장교 제식과 동일하게 무궁화 화환을 추가하였다. 모표가 공군의 표지장으로서 일체감 형성을 위해서 장교와 하사관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이다.

3. 士官生徒 帽標

사관생도용 예모 및 정모에 부착하는 모표는 날개를 편 독수리 중앙에 금색 방패

와 그 안에 샛별이 포함되었으며, 금색 월계수를 두르고, 끝 잎이 마주치는 초점에 태극을 중심으로 한 금색 무궁화를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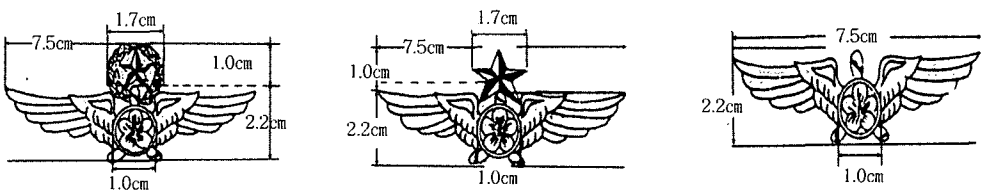
〈사관생도용 모표〉

第4節 徽　　章

1. 空軍 胸章

흉장은 공군으로 독립할 1949년 당시에 조종·정비·통신 등의 3가지가 있었으나, 1968년 5월, 〈공규(空規) 제35-1호〉에 의거, 조종흉장을 지휘조종·선임조종·조종의 3종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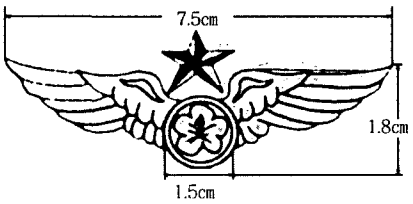
조종흉장은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조종사 요원으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패용한다. 선임조종 흉장은 조종흉장 패용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7년 이상 공중근무에 실제 종사한 자, 1,500시간 이상의 비행기록을 갖춘 자, 계기비행 등급 1호 소지자가 패용한다. 지휘조종 흉장은 선임조종 흉장의 패용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조종흉장 패용자격이 발령된 이후 15년 이상 공중근무에 실제 종사한 자, 2,000시간 이상의 비행기록을 갖춘 자가 패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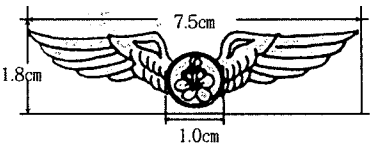
지휘조종흉장　　선임조종흉장　　조종흉장

〈조종흉장〉

이밖에 명예 조종흉장제도를 두어, 공군발전에 공이 큰 사람에게 수여하였다. 1983년도에 조종흉장을 일부 개정하여 중등 및 고등비행 입학자가 부착할 수 있는 조종피교육자 흉장을 추가하였다.



〈명예선임조종흉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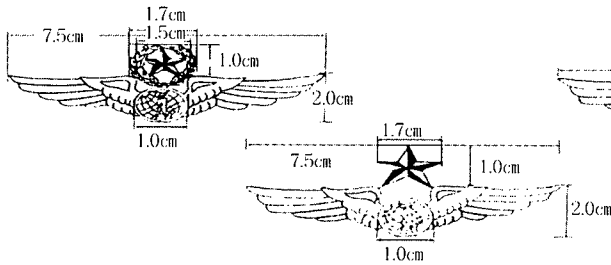
〈조종피교육자흉장〉

이어 새로이 항법 3종(지휘항법·선임항법·항법)과 낙하산 3종(주임낙하산·선임낙하산·낙하산) 및 방공무기통제사 3종(정통관제·능숙관제·숙달) 그리고 승무원과 비행군의 등의 11개 종을 제정하였고, 종전의 정비·통신흉장 2개 종은 폐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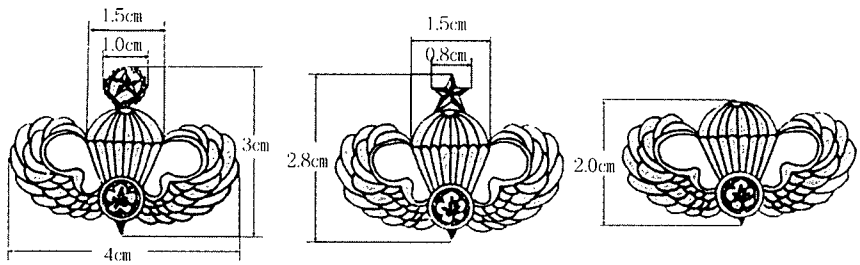
항법흉장은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항법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패용한다. 선임항법 흉장은 7년 이상 공중근무자와 1,500시간 이상의 비행기록을 가진 자가 패용한다. 지휘항법 흉장은 15년 이상 공중근무한 자와 2,000시간 이상의 비행기록을 가진 자가 패용한다.

방공무기통제사 흉장 숙달급은 방공관제소 또는 전방관제소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훈련을 필한 자로서, 100회 이상의 실제 단기요격을 실시하여 작전가능기량등급을 소지하여야 한다. 능숙급은 최소한 250회 이상의 실제 요격을 완수하여야 하며 3년 이상의 요격관제사 실무 경험자이다. 정통급은 최소한 5년 이상의 요격관제사 실무 경험이 있는 자로서 400회 이상의 실제 요격을 완수한 자이다. 승무흉장은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공수의무원·적재사·구조사·무장사 등 요원으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패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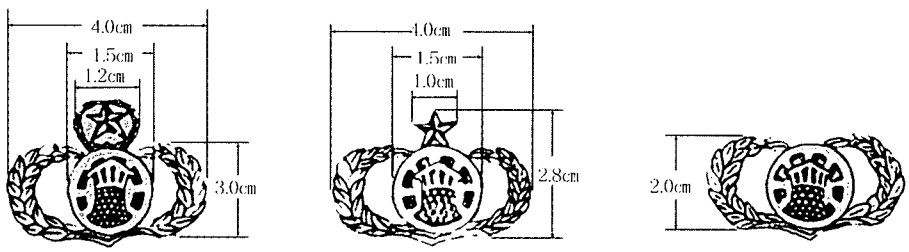
1986년 2월 1일의 〈공규 35-1〉에 의하면, 특기부호 4617 및 4619 소지자로서, 숙달·능숙·정통의 세 가지로 구분되는 폭발물처리사 흉장이 제식되었다. 숙달급은 미 본토 EOD 교육 또는 국내 EOD 보수교육을 받은 자이며, 능숙급은 EOD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 경험 3년 이상 종사자, 정통급은 EOD 자격 소지자 실무 경험 5년 이상 종사자가 패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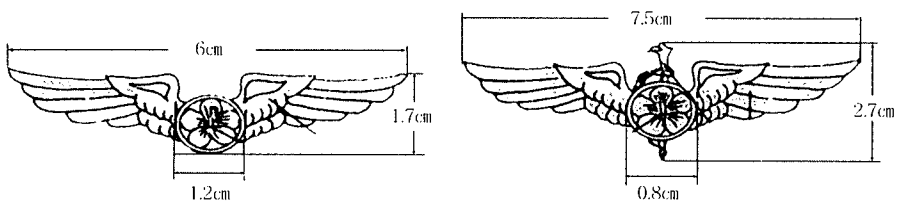
지휘항법　　선임항법　　항　법



주임낙하산　　선임낙하산　　낙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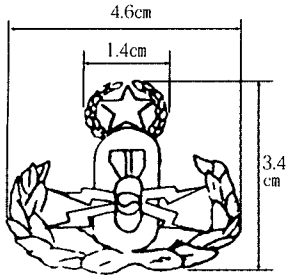


정통관제　　능숙관제　　숙달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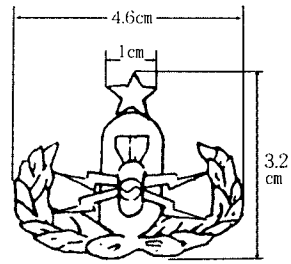


승무원　　비행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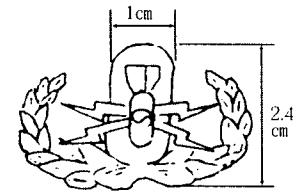
〈흉　장〉



정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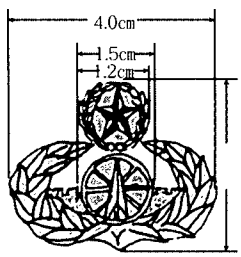
능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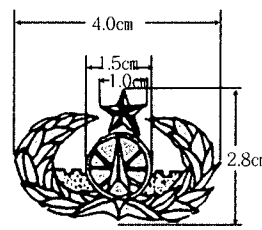
숙 달

〈폭발물처리사 흉장〉

방공무기통제사 흉장도 지휘통제·선임통제·통제로 분류되어,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작전이 가능한 통제사는 통제흉장을, 근무경력 3년 이상 350회 이상 요격하고 해당 보직을 이수한 자는 선임통제 흉장을, 근무경력 8년 이상 500회 이상을 요격하고 해당 보직을 이수한 자는 지휘통제 흉장을 패용한다.



지휘통제



선 임



통 제

〈방공무기통제사 흉장〉

항공흉장은 정장(正章)과 약장(略章)으로 구분하고 , 정장은 예복·정복 착용시, 약장은 약복 착용시에 패용한다. 정장흉장의 크기 2/3를 약장의 크기로 한다. 전투복이나 비행복 착용시에는 포제 또는 비닐제품의 정장을 패용한다.

2. 兵科 徽章

병과표지는 1968년 5월, 〈공규 제35-1호〉에 의거, 의무·치무·수의·법무·헌병·군악·군목·신부·법사·의장 등의 10종이 제정되었다.



〈병과표지〉

1971년 2월 25일, 〈대통령령 제5538호〉에 의거 규정된 병과휘장은 장교용의 경우 은회색과 청색 2도의 동판에 도금 및 칠보를 하였다. 규격은 전체길이 및 독수리 날개 길이가 2.5㎝이며, 원 직경 1.7㎝, 두께는 1.2㎜였다. 사병용은 장교용에서 독수리를 제거한 원형으로, 원 직경은 2.3㎝, 두께 1㎜였다. 포제일 경우 하늘색 바탕에 백색 자수로 표지하였다.



장교용 사병용

〈병과 휘장〉

각 병과의 제식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상징하며 도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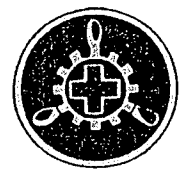
- 조종 : 대한민국 영공(領空)수호를 뜻하는 조종사를 상징하며, 프로펠라는 항공기를 나타내고, 무궁화는 국가를 상징한다.
- 항공관제 : 원형은 레이더이고, 삼각형의 항공기 항로 및 요격(邀擊)을 유도하는 것을 상징한다.
- 안전 : 프로펠라는 항공기, 톱니는 각종 장비의 정비를 뜻하고, 십자는 안전의 표시로, 공지(空地)일체의 안전관리를 상징한다.
- 기상 : 하늘의 조화를 연구하는 기상현상을 상징하고, 바탕은 하늘과 구름, 즉 대자연의 조화 연구를 상징하며, 중앙에는 눈의 결정체로 역시 연구를 상징한다.
- 통신전자 : 인공위성의 과학적 발전을 의미하면서, 봉화는 전통적 통신수단을 상징한다.
- 비행정비 : 삼각형은 비행기를 뜻하고, 톱니는 끊임없이 완전한 정비지원을 상징한다.
- 무장 : 중앙은 미사일이며, 정밀한 전자의 힘으로 그 위력과시를 상징한다.
- 전자계산 : 한눈으로 직감할 수 있는 컴퓨터 창안의 이목구비와 두뇌를 상징하고, 자석테이프는 눈의 상징으로 과거·현재·미래의 순서적 처리장비를 구현하며, 번개는 전 공군의 전산시스템이 온라인화되었음을 표현한다.
- 시설 : 중앙이 측량 및 설계제도의 기구를 뜻하고, 중앙 상단은 건축, 하단은 비행활주로를 표현하면서 시설업무를 상징한다.
- 수송 : 원형은 철도레일, 중앙은 도로·활주로 및 안전 수송의 '수'자를 뜻하고, 전체로 핸들을 표현하여 수송의 특수성을 상징한다.
- 보급 : 키는 창고, 삼각형은 비행기, 원형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으로, 전체로는 '보'자를 표현하여 항공기 보급지원을 상징한다.
- 관리 : 타원형은 현대 관리기능인 통제·조정지시 및 조직계획을 뜻하며, 전체로는 구화(舊貨)동전으로 관리의 업무를 상징한다.
- 인사행정 : 70부호(符號)의 7자와 인(人)자를 표현하며, 정확·공정·신속의 체계적 관리능률 향상을 상징한다.
- 정훈 : X는 스피커와 펜을 표현한 것으로 정훈활동을 뜻하고, 봉화는 정훈의

사명감을 상징한다.

- 교육 : 무궁화는 국화로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역군(役軍 : 봉화)을 육성 배양함을 상징한다.
- 군악 : 전통적 악기를 표현하여 사기앙양을 위한 연주를 상징한다.


조 종


항 공


안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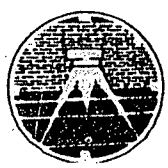

기 상


통신전자


비행정비


무 장


전자계산


시 설


수 송


보 급


관 리

〈공군 병과휘장(일부)〉

- 의장 : 프로펠라는 공군을 뜻하며, 4개의 별은 공군과 군의 최고지휘관을 대표한 엄숙한 의식참여를 상징한다.
- 정보 : 낙하산은 음양(陰陽 : 晝夜)정보활동을, 날개형은 V자로 승리를, 봉화는 획기적인 성과를 획득한다는 활동을 상징한다.
- 헌병 : 별과 태극은 대한 공군을 뜻하고, 권총은 기지 경계 및 질서유지를 상징한다.
- 보안 : 방패형은 방위와 안전보존을 뜻하면서 즉각 응징 및 불순 요소 제거를 의미하고, 봉화는 자유와 정의 및 사고 미연방지를 상징한다.
- 법무 : 원은 법전(法典), 칼은 법의 집행, 저울 및 봉화는 광명과 공정성을 표현하며, 월계수는 평화를 뜻하고 준법정신의 함양을 상징한다.
- 군목 : 십자가를 상징한다. 불교의 삼보팔정도를 상징한다.
- 의무 : 뱀은 세계적 의학의 특수성 표현이며, 중앙에 공군과 지팡이를 넣어 권위와 능률을 상징한다. 'ㅊ'은 치의, 'ㅅ'은 수의, 'ㅇ'은 의무행정이다.
- 구조 : 낙하산과 지구는 어디를 불문하고 구조한다는 뜻이며, 해마(海馬)는 신속하고 정확한 해상구조활동까지 포함됨을 상징한다.

1983년 〈공규35-1〉에 의해, 화생방병과 휘장이 직육각형의 백색선 3개로써 화학·생물·방사능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부대지휘소·현장출동반·부대통제소의 3개 부서의 유기적 상관관계를 상징하여 새로이 제정되었고, 1991년 7월 1일에는 방공포부대의 공군전환에 따라 유도무기로 전 영공을 교차방호하고 화살로 창공을 향한 힘찬 기상 및 명중을 의미하면서 새로이 개정되었다.



〈화생방 병과휘장〉



〈방공포병〉

3. 指揮官·參謀 徽章

1966년 12월, 공군은 왕성한 책임감의 배양과 엄정한 품위와 상경하애(上敬下愛)의 기풍조성, 그리고 지휘관 및 참모장교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참모총장 지휘휘장·항공지휘관·공군본부 참모·일반 지휘휘장 등의 4종을 제정하였다. 1971년에는 지휘관휘장 및 참모휘장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참모총장 지휘휘장



항공지휘관 휘장



공군본부 참모휘장



일반 지휘휘장

〈지휘관 휘장〉

가. 指揮官徽章

- **참모총장 휘장** : 봉화와 독수리는 금도금을 하고, 별과 태극은 백은(白銀)도금을, 좌우의 용은 흑은(黑銀)도금을 하였다. 규격은 가로 5㎝×세로 7㎝이다.
- **3성 지휘관휘장** : 참모총장 휘장 요령과 같다. 규격은 가로 4.5㎝×세로 6㎝이다.
- **2성 지휘관휘장** : 같은 요령이며, 규격은 가로 4.5㎝×세로 5.5㎝이다.
- **1성 지휘관휘장** : 같은 요령이며, 규격은 2성과 같다.
- **봉화 지휘관휘장** : 전대급 지휘관 및 단급 예속 학교장, 비행부대 작전·군수부장, 비행대대장, 공사·공대 교수부장 등이 패용하며, 도금 요령과 규격은 2성과 같다. 1996년 10월 1일부로, 이 휘장은 영관급 지휘관을 패용대상으로 조정 변경되었다.
- **무성 지휘관휘장** : 일반 대대장과 주요 독립성 파견대장이 패용대상이며, 도금



참모총장



3성지휘관



2성지휘관



1성지휘관



봉화지휘관



무성지휘관

〈지휘관휘장〉

요령과 규격은 2성과 같다. 1996년 10월 1일부로 패용대상이 위관급 지휘관으로 신규 제정되었다.

나. 參謀徽章

- 4성 참모휘장 : 공군본부 일반참모부 처장·특별참모부 차감급 이상의 참모급이 착용하며, 별과 태극은 백은도금, 독수리는 금도금, 올리브 잎은 흑은도금을 하고, 규격은 가로 5㎝×세로 6㎝이다.
- 3성 참모휘장 : 작전사령부 부장급이 패용하며, 요령과 규격은 4성 참모휘장과 같다.
- 2성 참모휘장 : 교육사·군수사 부장급이 패용하고, 기타는 같다.

이외에 사관학교에서 지휘근무생도들이 패용하는 지휘흉장과 참모흉장이 있다.



4성참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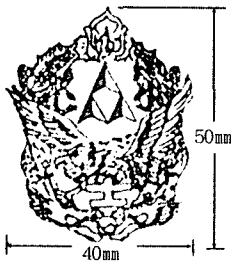


3성참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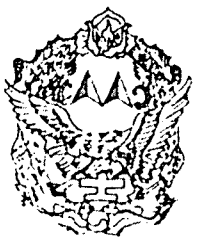


2성참모

〈참모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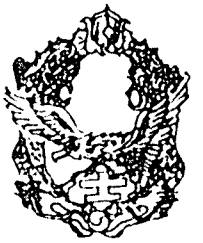
전대장 생도



대대장 생도



중대장 생도



분대장 생도

〈사관생도 지휘흉장〉



참모생도 중령



참모생도 소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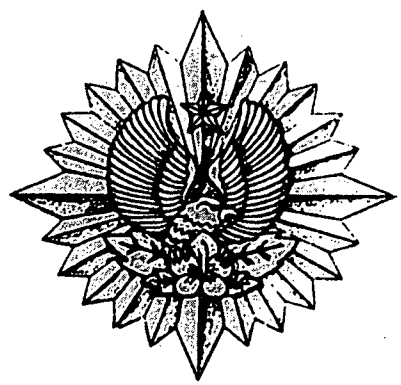


참모생도 대위

〈사관생도 참모흉장〉

4. 空軍將校 徽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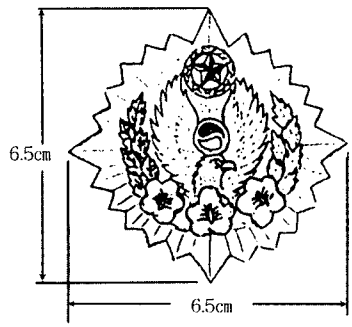
공군장교 휘장의 전체적 의의는 전 장병이 총화단결하여 영공수호를 다짐한다는 뜻이다. 외곽의 칼날은 전 장병의 총화단결을 의미하며, 무궁화와 독수리는 대한민국의 공군임을 뜻하고, 별은 필승의 영광을 다짐한다는 상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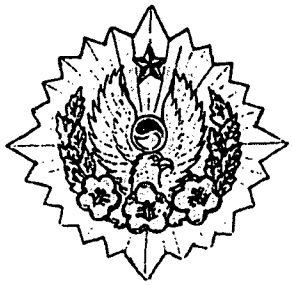
〈공군장교 휘장〉

5. 근속 30년 紀念徽章

이 휘장은 30년 이상 장기근속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으로서 명예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며, 그간의 공적을 찬양하는 의미로 제정된 것이다. 바탕인 동판에 백금 도금을 하였으며, 은으로 만든 독수리는 공군을 상징하면서 진취성과 영공방위를 의미한다.



장교용



준사관 및 하사관용

〈근속 30주년 기념휘장〉

금 도금된 별은 군을 상징하면서 필승의 영광을 의미한다. 외부의 검은 국토방위를 상징하며, 칠보제인 태극은 대한민국을 상징한다. 금 도금된 3송이의 무궁화는 30개 성상을 의미하면서 호국의 충성심을 나타낸다. 규격은 6.5㎝×6.5㎝이다. 예복 및 정복 착용시 패용하며, 장교휘장 위치인 우측주머니 중앙에 대체하여 착용한다.

6. 기타 徽章

가. 敎官徽章

교관표지는 금속제로서 아래 문양을 하였으며, 공군사관학교 일반학 교관표지는 정교수일 경우 금색 도금을 하고, 부교수는 은색, 조교수는 동색(銅色) 도금을 하였다.



교관표지



일반학 교관표지

〈교관표지〉

나. 主任上(元)士 標識

주임상사의 표지는 패용구분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휘장 안에 별이 4개일 경우는 공군 주임상사를 의미하며, 3성일 경우 사령부급, 2성은 단급, 1성은 전대급, 무성(無星)은 전대 또는 대대 선임상사를 의미하였다.



〈주임상사 표지〉

第5節 標　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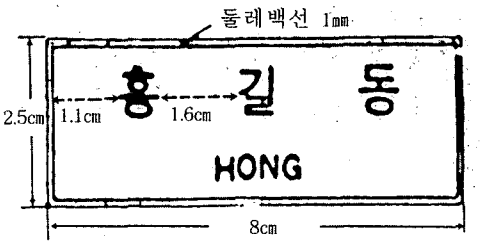
1. 名　札

가. 正服·戰鬪服類

(1) 예복·정복용

1971년 복제규정에 의하여,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규격은 가로 8㎝×세로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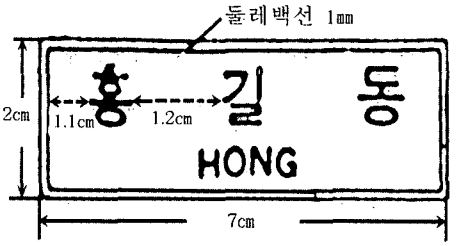
두께 2㎜이다. 폭 1㎜의 둘레 백선을 두며, 곤색 바탕에 흰 글씨조각이다. 글씨 규격은 한글이 4방 1㎝, 영문이 4방 6㎜이다. 장병 공용이다.



〈예복·정복용 명찰〉

(2) 약정복·근무복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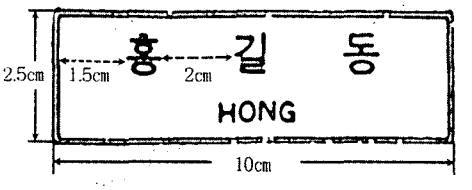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규격은 가로 7㎝×세로 2㎝×두께 2㎜이다. 폭 1㎜의 둘레 백선을 두며, 곤색 바탕에 흰 글씨조각이다. 글씨 규격은 한글이 4방 8㎜, 영문이 4방 5㎜이다. 장병 공용이다.



〈예복·정복용 명찰〉

(3) 전투복용

재질은 포제로, 규격은 가로 10㎝×세로 2.5㎝ 이다. 폭 1㎜의 둘레 백선을 두며, 하늘색 바탕에 흰 글씨 자수이다. 글씨 규격은 한글이 4방 1.2㎝, 영문이 4방 5㎜이다. 장병 공용이다. 1996년 10월 1일부로 얼룩무늬 전투장의 명찰은 청록색 바탕에 청색 표지로 변경되었다.



〈전투복용 명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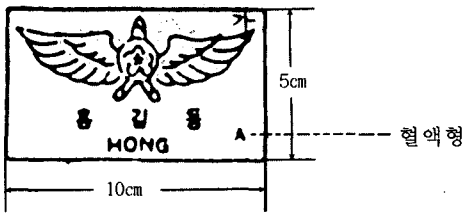
나. 飛行服類

1971년 복제규정에 의하여, 재질은 비닐 또는 포제로서, 규격은 가로 10㎝×세로 5㎝이다. 조종사용으로, 비행복·비행점퍼(곤색 점퍼 포함)에 부착하며, 하늘색 바탕에 흰색 글씨이다. 기량표시는 '가' 대대장·'나' 작전계장·'다' 편대장·'라' 분대장·'마' 요기 등을 말하고, 기종표지는 부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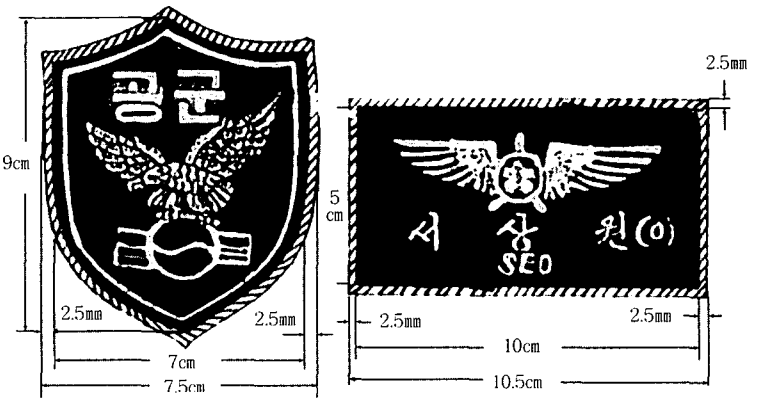
우측 하단의 영문표시는 혈액형을 나타낸다. 1990년의 〈공규 2-87〉에 의하면, 비

행 가죽 점퍼 표지장이 규정되었다. 바탕을 검정 가죽에 곤색 포제로 하여, 전체 테두리를 폭 2㎜의 백색으로 하였다. 표지의 '공군'글씨는 백색이며,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1.5㎝이고, 간격은 0.5㎝로 하였다. 독수리는 금색이며, 검정색 무늬를 사용하였다. 태극은 1㎜의 백색 테두리에, 적색과 청색을 사용하였다.

명찰은 바탕이 동일하며, 백색 글씨의 포제이다. 1991년에는 〈인사근 제999호〉에 의거, 비행 가죽 점퍼용 표지장 제식을 점퍼의 색상 가죽으로 제작 개선하여, 계급장은 견장식으로 제작하고, 명찰도 가죽으로 제작하며, 좌측 어깨 밑에 부착하는 공군마크도 가죽으로 제작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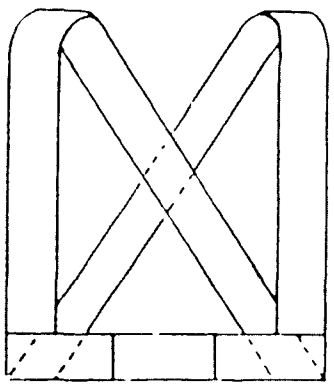
〈조종사 명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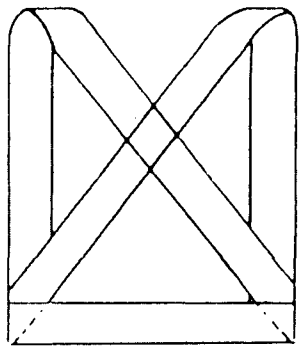
〈비행 가죽 점퍼 표지장〉

2. 標 示 帶

정비사 · 무장사 · LINE차량 · 급유차 · 탄약고 · 차량운전병 · 시설 · 헌병요원 및 기타를 대상으로 착용하는 표시대 제식이 있다. 재질은 형광테이프(천)와 범포지로, 범포지에 형광테이프(천)를 부착하여 재봉한 폭 7㎝의 X-band형이다. 앞면은 길이 31㎝의 '11'형이고, 뒷면은 길이 34~38㎝의 'X'형이다. 'X'의 겹친 부분은 봉제한다. 허리띠는 둘레가 120㎝이고, 조절이 용이하도록 길이 15㎝의 줄임 매직테이프를 부착한다.



(앞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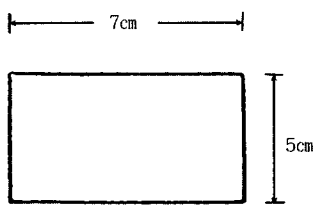
(뒷 면)

〈표시대〉

3. 整備監督官 標示

가. 1次 確認 監督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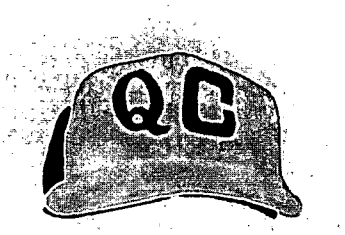
대대요원 분대장급 이상이 평상시 항공기 정비작업시 패용하는 것으로, 재질은 융을 사용하여 전투복과 정비복에 견장식으로 패용한다. 색상은 황색이다.



〈1차 확인 감독관 표시〉

나. 2次 確認 監督官

품질관리실의 품질검사관이 항공기 정비관련 검사작업시 착용하는 것으로, 재질은 면직이나 모직을 사용한 기지모와 동일한 형태이다. 모자의 색상은 황색이며, 흑색 'Q.C'글씨의 규격은 가로 4㎝×세로 6㎝×굵기 1㎝이다.



〈정비감독관 표시〉

4. 空軍士官生徒 標識

가. 空士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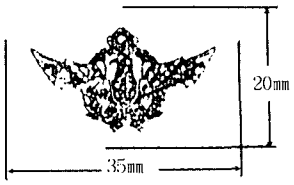
전 생도가 패용한다. 포제이며, 부착복장은 생도점퍼·국방색 점퍼에 부착된다.

나. 生徒徽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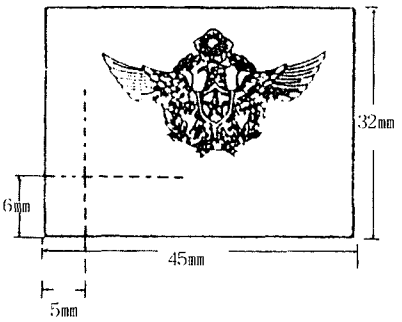
전 생도가 패용하는 생도휘장은 철제 또는 포제로 제작하며, 예복과 동정복에 금속 휘장을 부착하고, 전투복과 비행복에 포제 휘장을 부착한다.



〈공사마크〉



금 속



포 제

〈생도휘장〉

5. 學生·候補生 徽章

1968년 5월, 〈공규 제35-1호〉에 의거, CSC 및 SOC학생·공지작전학생 및 수료학생 표지, 그리고 장교후보생·하사관후보생 표지 등이 제정되었다.



CSC학생



SOC학생



공지작전학생



공지작전수료생



장교후보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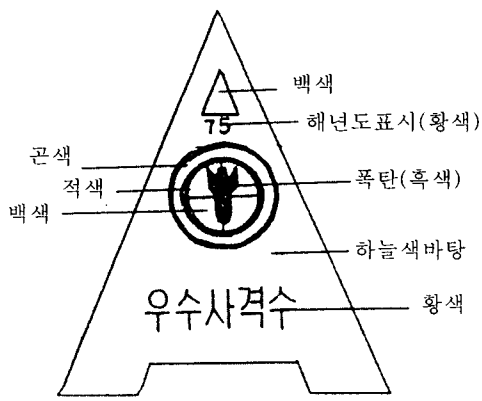


하사관후보생

〈학생·후보생 표지〉

6. 優秀射擊手 標識

좌측 팔에 패용하는 우수사격수 표지는 항공기를 의미하는 삼각형 하늘색 바탕에 황색으로 '우수사격수'라고 새기고, 타겟을 뜻하는 원에 흑색의 폭탄을 그렸다. 황색에 해당년도 표시를 하여 구분하였다. 정복 및 약정복 좌측주머니 뚜껑 중앙(단추위)에 패용하였다. 1984년도에 일부 제식이 변경되어, 1회 수상자는 중앙의 표적이 청색으로, 2회 수상자는 황색, 3회 수상자는 적색으로 표시하였다.



〈우수사격수 표지〉



〈우수사격수 흉장〉

第6節 服 飾 品

1. 단 추

외투·모자 또는 기타에 사용하는 제식은 날개와 별을 별도로 제작하여 부착한다. 은색 금속제로서 소형은 17㎜이고, 중형은 23㎜, 대형은 26㎜이다. 하약정복에 사용하는 제식은 날개·별·표면의 구분없이 직경 15㎜의 은색 부물화 제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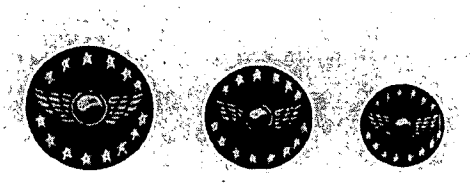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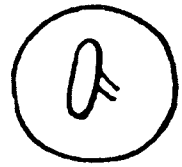


표 면



커프스 귀단추 뒷면

〈공군 단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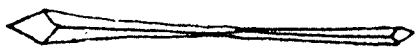
2. 넥타이 · 머플러 · 목도리

가. 넥 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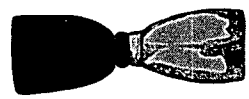
넥타이는 곤색 또는 흑색 모직으로, 예장 또는 정장시 착용한다.
보타이는 흑색 또는 백색 모직으로, 특례장시 또는 정장시 착용한다.



앞



뒤



(보타이)

〈넥타이 · 보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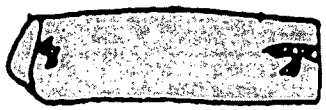
나. 머 플 러

기본 머플러는 은회색 모직이며, 일반외투 또는 점퍼 착용시 착용하였다. T형 머플러는 하늘색 플란넬지로, 일반 장병 약정복 또는 동기에 전투복 착용시 착용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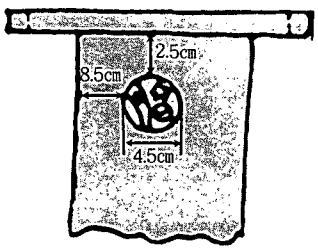
으며(1970년 제정), 마크는 별도의 천 위에 원색의 자수를 놓아 머플러에 부착하였다. 백색 플란넬지는 헌병용이다. 빨간 머플러는 적색 플란넬지로 조종사용이다. 1985년 3월 1일의 〈공군규정 35-1〉에서, 머플러는 의식(儀式) 때는 제거하고 반드시 넥타이를 착용하게 하였으며, 착용복장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전투복 : 앞가리개 사용
- 동약정복 : 파란 머플러
- 비행복 : 빨간 머플러
- 헌병 행사복 : 흰색 머플러

그후, 1988년 1월에 파란 머플러도 폐지되고 앞가리개로 대체하였다.



기본 머플러



T형 머플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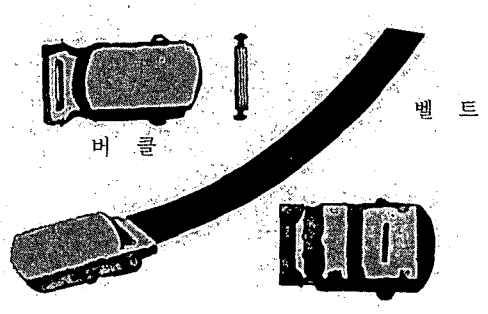
〈기본 머플러와 T형 머플러〉

다. 목 도 리

1983년의 〈공규 35-1〉에 새로이 보조의로서 규정되었다. 평직 아크릴 100%이며, 색상은 국방색이다. 전 장병이 착용하고, 동절기의 혹한기에 전투복·국방색 점퍼·야전 점퍼에 착용하였다.

3. 腰帶 및 버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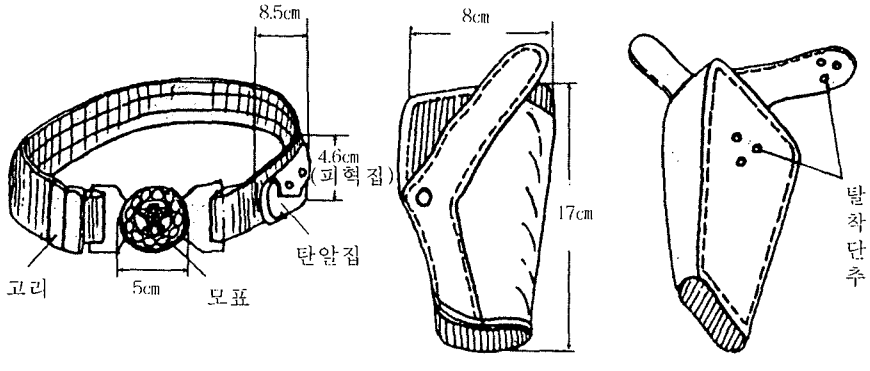
전 장병 공히 착용한다. 요대는 곤색 면조직 또는 백색 면조직 나일론이며, 버클은 무광색 은회색 스텐레스이다.



〈요대 및 버클〉

4. 拳銃腰帶 및 拳銃집

전 장관급 장교가 착용하는 권총요대 및 권총집은 곤색 가죽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요대에는 중앙 버클부분에 주물로 된 장교표지를 부착하였고, 요대 좌측에는 탄알집을 부착하였다.



권총요대 권총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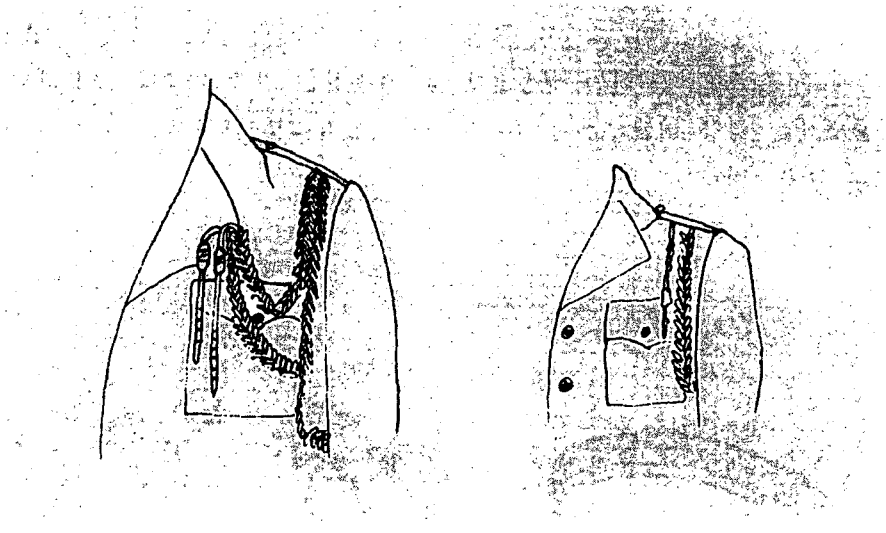
〈권총요대 및 권총집〉

5. 肩飾 줄

견식을 패용하는 대상 및 자격은 의식에 참가 또는 부여된 임무의 수행상 착용이 필요하거나 지정된 자이다.

은색 견사를 사용하며, 정견식과 약견식 2종류가 있다. 정견식은 네모가 되도록은 색견사를 3올로 꼬아 두 줄로 만든다. 끝부분에는 금속 장식이 부착되어 있다. 약견식은 견사줄이 한 줄로 되어 있다.

의식행사 또는 특별히 지휘관이 지정한 시기에 패용하며, 좌측 어깨로부터 가슴주머니와 옷 깃쪽으로 돌려 금속장식을 주머니 단추 밑에 고정시킨다. 부대 지휘 또는 행사 지휘시 지휘자는 우측 어깨에, 기타는 좌측 어깨에 패용한다. 부관참모는 좌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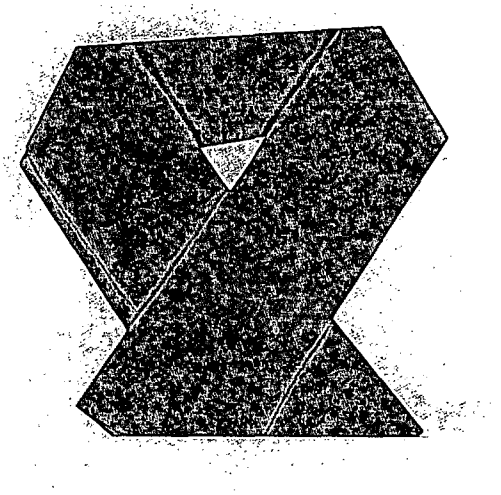


정견식　　약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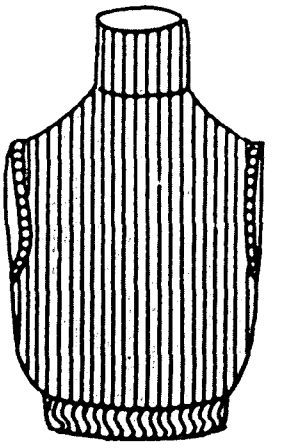
〈견식줄〉

6. 빨간 머플러

빨간 머플러(Red Muffler)는 한국 전투조종사들이 착용하는 영광과 명예의 상징이다. 이 머플러는 통상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고난도의 비행훈련과정을 이수하고, 공대지·공대공 공격술 등 실전적 전투능력을 갖춘 전투조종사들에게만 수여되는 것이다.



〈빨간 머플러〉



〈조끼형 머플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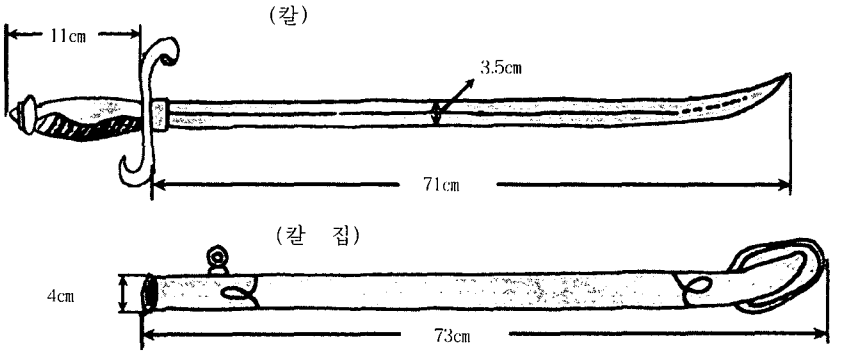
한국 전투조종사들이 빨간 머플러를 착용하게 된 동기는 초기 항공인이었던 김영환(金榮煥)대령이 6·25전쟁시 강릉 제10전투비행 전대장으로 재직하면서 착용한데서 비롯된다.[3] 그는 빨간색이 정열을 상징하며, 불타는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키는전투조종사의 단심(丹心)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여 착용하였으며, 그후 공군에서는 전투조종사로서의 긍지와 명예를 상징하는 표상으로 전 전투조종사들에게 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1983년의 〈공규 35-1〉에 의하면, 조종장교가 착용하는 조끼형 머플러가 있어 동절기 빨간 머플러를 겸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질은 순모이며 쫄쫄이형으로 색상은 전체가 빨간색이다. 빨간 머플러는 조종사의 신변을 보호하고 적 테러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1984년 12월에 동약정복에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종복에만 착용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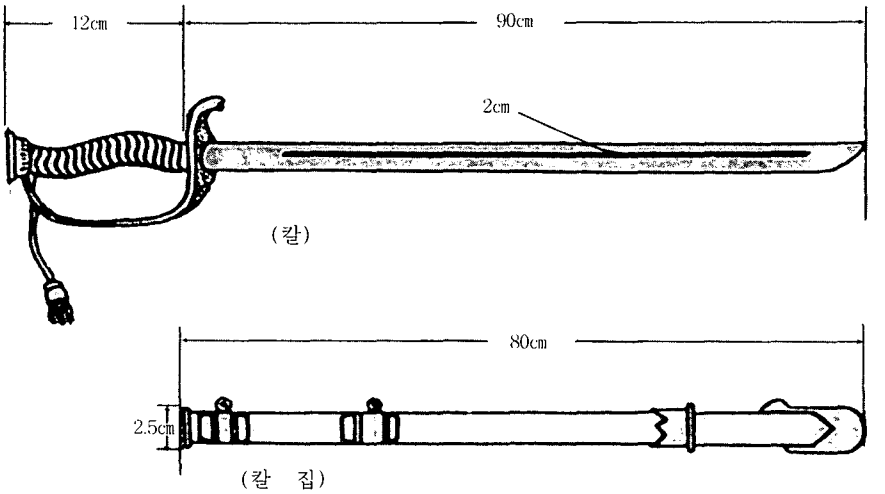
3) 김영환 대령은 어느날 서울에 가는 길에 인사차 형님인 金貞烈 참모총장집을 방문하여 형수에게, "출격할 때 목에 바람이 들어와 추우니 목에 두를 머플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였고, 형수가 옷장에서 찾아 준 것이 치마감으로 쓸 생각이었던 빨간 비단천이었다.

7. 禮 式 刀

의식·행사시 착용하는 도(刀)로, 특별지정 행사시에도 패용한다.



초기예식도



현재 사용 예식도

〈예식도〉

□ 編 者

先任研究員 金 舜 圭

韓國의 軍服飾 發達史 Ⅱ

1998年 12月 25日 印刷
1998年 12月 28日 發行

發行人 朴 淳 贊

發行處 서울特別市 龍山區 龍山洞 1街 8番地
國 防 軍 史 硏 究 所

印刷處 서 울 특 별 시 인 쇄 공 업 협 동 조 합

〈非賣品〉